

조선문화어강독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87/170



조선문화이강독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평양

Zakład Dalekiego Wschodu
Instytut Orientalistyczny UW
150 KOREAN

차 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발취.....	3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발취	43
나비와 수탉(아동영화문학)	65
사령판도 인민의 아들(희상기)	77
한흠의 미시가투(희상기)	81
친아버지의 사랑으로(덕성희상실기)	87
진반적11년 제의무교육에 깃든 위대한 사랑 (덕성희상실기)	103
은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는 만경대(덕성기사)	125
삼천리금수강산(정론)	134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론설)	142
태양을 우러러(단편소설)	170
아버지의 얼굴(단편소설)	192
맑은 아침(단편소설).....	206
철의 역사(단편소설).....	225
사랑의 품(단편소설).....	257

《길동무들》(단편소설)발취	285
해도우에 빛나는 별(단편소설)	305
자기 위치 앞으로(단편소설)	330
《전사들》(중편소설)발취	349
《력사의 새벽길》(장편소설, 상)발취	371
《조선의 어머니》(전기소설)발취	392
충성의 한길에서(장편소설, 제1부)발취	417
장편소설 《불멸의 력사》(《고난의 행군》)발취	438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장편소설)발취	479
《평양 시간》(장편소설)발취	504
백두산(기록영화문학)	526
최학신의 일가(영화문학, 하편)	536
《백두산》(장편서사시)발취	572
날이 밝는다(서정시)	591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발취

4

어머니는 땀목걸이를 걸어갔다. 소설한 바람이 귀밑머리를 날렸다. 첫걸음부터 동네 여기저기서 울러오는 통곡소리가 어머니의 발길에 무섭게 매달렸다. 어머니는 또다시 피바다속을 막막한 심정에 휩싸여 걸어갔다. 슬픔은 그것의 참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오늘에 와서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이미 여러해전에 어머니는 이러한 피바다속에서 저 한사람의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쳐 울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볼 때 그것은 어머니 한사람의 슬픔이 아니었고 어떤 기구한 운명의 참혹한 목걸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가 없는 한 온 겨레가 겪어야 할 숙명이었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가난한 인민들이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 비극이었다. 어떤 눈물도 사정도 견져낼수 없는 피바다속에 친근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잠겨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슬픔은 갑절로 커졌다. 고통은 참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더없이 큰 희생을 내고 더없이 큰 슬픔을 느끼는 지금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방금 모진 육체적타격을 입었건만 발걸음도 흐트러 지지 않았다.

희생은 아팠고 슬픔은 컸지만 어머니는 이제 피바다속에 주저앉을수 없으며 아무리 고통이 커도 싸움으로써 이 참혹한 재난의 바다물 역세계 헤여가야 한다는 진리를 확고히 깨달았던것이다.

영실이와 영실이어머니가 마당에서 울고있다. 어머니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리로 다가갔다. 별재로인의 시신은 이미 옷간에 모셔져있었다.

어머니는 소리없이 방안에 들어가서 깊이 머리숙여 질하였다.

「할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오시기에 고생도 많으시더니 종내 좋은 세상 못보시고 가셨군요.」

어머니는 가만히 입안에서 속삭였다.

별재마을 등마루에서 절망 끝에 로인을 처음 만나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외로운 자기에게 아버지처럼 대해주었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어주던 이진 로인의 주름진 얼굴이 마치 편안히 잠자듯 조용히 누워있었다.

「할아버지.」 하고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더하실 고생도 없어졌지만- 생전에 맺힌 한도 못푸시고 이렇게 떠나시니 원통합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겠습니다. 원수를 갚아드리기전에는 울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더 오래 앉아있다가는 지역시 이 집 식구들과 함께 울어버릴것만 같아 다시한번 머리숙여 절하고 일어났다.

「영실이 어머니.」

마당에 나선 어머니는 울어서 눈등이 뚱뚱 부어오른 영실이 어머니의 소매를 잡고 말하였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게, 싸움을 해야겠네. 나는 성문이 닫기기전에 성안에 들어가야겠으니 뒤일을 영실이 어머니가 수습해야겠네. 어서 눈물을 훔치고 동네로 나가게. 그리고 화순이에미와 북들이 어머니를 찾아서 접수팔과 함박팔로 린락을 보내게. 폭동은 매일 네시로 징해졌으니 미리 약속한대로 여기 일을 마치고는 부녀회원들을 모두 성안으로 데리고 와야겠네.」

그리고는 영실을 향해 말을 이었다.

「너도 이제 곧 아지트로 가지라. 청년무장대가 이번 싸움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 거기 가면 지금쯤 회의가 있을지 모른다. 어서 떠나거라.」

친근한 사람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상동의 조직들은 슬픔을 털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동네북판에 있는 우물앞에 이르니 우물을 마주하고 나란히 선 두 집 문앞에서 선숙이와 차숙이네 쌍둥이아버지가 울음소리도 없이 그냥 땅을 치고있는데 한쪽에서는 머느리틀 잃은 온성집로매이 불에 덴것처럼 보채는 젓떡이를 안고 멍하니 저무는 산밭을 바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소설로 ~~~~~

타보고있었다. 떨장게 짓물린 눈이며 풀어져 흐트러진 희고 성긴 머리카락을 보니 벌써 울음에 지쳐서 더는 목놓아울 기력조차 없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눈물겨운 정상에 카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자리에 서버렸다.

《이사람아, 원남이에미.》

어머니를 발견한 은성집로친이 벌안간 반작용으로 울부짖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나, 사람이 이렇게 무리로 죽어도 지하늘은 끄떡도 않네그러.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맞아죽어도 억울한 말 한마디 하소할데가 없단말인가? 내 푹푹히 났네만 저놈들이 이 동네를 이렇게 피바다속에 잠가놓고도 아무 벼락 맞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갔네. 그래 그놈들을 단매에 요정별 벼락이 없단말인가, 응 이사람아.》

그러자 쌍둥이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다가왔다.

《내 저 변장국이란놈이라도 내손으로 처죽여야 숨을 쉴것 같네. 이제 그놈도 제 상전을 따라 성안으로 들어갔네만 내 그놈의 심보를 아네. 제가 이 땅에서 그 짓을 지질러놓고 인감사람의 눈이 부서워한시인들 여기서 배길덴가?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길복을 지키고있네. 제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 이 손으로 목을 눌러 죽일라네. 하지만 이사람아, 그렇다고 이 한이 풀릴덴가? 그놈이나 한놈 죽인다고 이 한이 풀릴덴가? 저 왜놈의 종자들을 씨를 말릴수는 없나? 내 늘그막에 이 한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겠나?》

어머니는 한손에 하나씩 후들후들 떨리는 노인들의 손을 잡고 잠시 말없이 서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멀리 북마전처럼 검은 문짝이 아불기리는 성시쪽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원수를 갚읍시다. 백갑질 친갑질로 원수를 갚읍시다. 저 성시의 원수들을 다 죽였대야 우리 자식들을 잃은 원한을 다 풀겠습니까만 우선 우리 상동마을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친 저 성시의 왜놈들을 모조리 멸살시키고 그다음은 우리 나라에 기여든 모든 왜놈들을 남김없이 쓸어엿애시다.》

그리고는 쌍둥이아버지에게 타이르듯 조용히 말하였다.

《할아버지, 오늘은 변장국이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혹 돌아오더라도 오늘밤은 그냥 두십시오. 신발질을 해놓으면 래일 일에 힘이 생길수 있습니다. 오늘밤에 두척이가 오거든 두척이 하라는대로 동네사람들과 함께 자식들 원썩값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알겠네. 한데 이사람아, 일은 언제 벌어지나? 나는 이이상 더는 못기다리겠네.》

로인은 구원을 칭하듯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때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조선사람들이 모두 들고일어나 원썩값을 때는 왔습니다. 하지만 뽕뽕이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뭉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들과 함께 나서주십시오.》

《알겠네, 알겠어. 내 원남이에미가 저 유격대와 상판있는 사람이라는것을 진작부터 짐작하고있었네. 유격대가 그러기를 바란다면 우리네 백성이 무슨 만 공론이 있겠나...》

어머니는 이 참혹한 시련의 시기에 유격대와 조직을 믿어주는 할아버지가 한없이 고마왔다.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우리 쌍둥이와 애기어머니를 살구산 양지바른 기슭에 잘 묻어주십시오. 나는 일이 바빠 가봐야겠습니다.》

《어이구 어찌먼 자네는 그리도 억센가?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막내이를 잃고도 그렇게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으니 늙은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네. 동네일은 걱정말게. 우리가 자네 이야기를 해서 모두 들고일구겠네.》

온성집로택도 어머니의 손목을 틀어쥐고 흔들며 푹푹 갈리는 목소리로 다쳤다.

어머니는 그길로 빈판에 나쳤다. 이미 가을도 깊어서 땅거미가 짙게 깔렸다. 살구산우 장송가지에 걸린 타얀 갈구리달이 차츰 늦색을 띠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자꾸만 머리속에 번거롭게 들어차는 생각을 뿌리치며 걸음을 다우쳤다. 심문은 여덟시면 달킨다. 여덟시안으로 성안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밤에 성안아지트에서는 성안과 주변농촌의 혁명조직책임자들

이 마지막으로 폭동에 대한 계획을 짜고 지휘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갈마드는 생각을 쫓을양으로 걸음을 다우켰다. 그러나 걸가는 사람 하나 없는 호젓한 저녁길을 혼자 걸자니 반달음을 놓다 싶이 빨리 걸어도 슬픔은 기어코 어머니를 따라와 가슴에 매달렸다. 어머니는 마치 그 슬픔에 가슴을 물린듯이 두손을 적삼자락우로 모두 어잡고 입술을 악물었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저 별판우에 별안간 병글병글 웃는 을남이가 높이높이 솟아올라서는 손저어 부르는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그것이 환영이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을남이는 이미 죽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것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입술을 벌며 《을남아, 을남아.》하고 목메여 불렀다.

어머니가 아무리 어깨를 떨며 목메여 불려도 아들은 그냥 웃기만 하였다. 세끼 죽도 못먹던 이른봄에 핏을 잡아 튀하여 생일상을 차려 놓고 어린아들은 저렇게 좋아서 함박처럼 병글병글 웃었었다.

즐거운 추억은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피멍이 들도록 헤쳐놓았다.

모진 아픔에 어머니는 그만 소리내어 흐느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을남아, 내 기어코 원수를 갚마, 내 기어이 네 원수를 갚아 주마.》

음산한 저녁바람을 타고 막막한 비애와 같은 차거운 어둠이 광야를 덮었다. 어머니는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흠칠 생각도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어둠을 차라리 고맙게 생각하며 뒤로 뒤로 떠오르는 사랑하는 아들의 환영과 눈물젖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싸움이 기다리는 밤길을 홀로 걸어갔다.

## 5

북선상점 지하실에서는 낮부터 성안에 들어와있던 각곳의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이미 회의는 진행중이였다.

어머니가 망을 보고있는 청년의 안내를 받아 창고 견재 쓰는 지하실로 내려가니 한길음 먼저 도착한 두혁이가 한창 상동부락《토벌》

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태일 공격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연락이 취해져 있었다. 가게방에 잇달린 살림방 징지바닥에 일상 커다란 나무물드무로 가리워놓은 지하실의 입구가 있었다. 거기서 바닥까지는 엇비듬히 뚫린 좁고 캄캄한 굴을 한길목이나 내려가야 하는데 흙벽이 그대로 드러나는 두간쪽이나 되는 움의 저쪽구석에도 또 그러한 맞굴이 뚫리여 비상시에 그리로 빠지면 옆집의 굴쪽밀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성시조직책임자 윤형보는 이웃집의 가난한 구두쟁이를 교양하여 조직에 흡수하자 곧 이 지하실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지하실에 여러번 드나든 조직원들도 아직 그쪽구석에 그런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 마침 어머니가 오시는군.》

두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그시 어금이를 깨물고 앉아있던 윤형보가 지하실로 내려서는 어머니를 보자 반갑게 마주나오며 말하였다.

《실은 못오실줄 알고 우리끼리 회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미리 떠났어야 할것을 어물거리다가 회의시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윤형보에게 이렇게 말하고 여러 사람에게 다소곳이 미리를 숙여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의 흔적은 이미 깨끗이 지워지고 없었다. 오직 커다란 의무를 자각한 사람의 승엄한 표정이 조용히 어리여있을 뿐이었다.

윤형보도 한정수도 그리고 어머니를 잘 아는 각 부락의 혁명조직 책임자들도 너무나 조용한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한순간에 방금 들은 상동마을의 꿈쩍한 비보가 헛소문이나 아닌가, 혹은 어머니가 탄대 가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적 못들은 것이나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음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침착하다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침착하고 조용한 것이 다름아닌 커다란 슬픔 그자체이며 그것은 바로 피바다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 나라 녀인들의 새로운 품성이라는 것을 모두 가슴저리는 공감속에서 푹푹히 확인하였다.

《응팔동무의 연락을...》

하고 두혁이는 어머니를 자기 자리 옆으로 모셔다앉히며 하던 말

을 마저 뱉었다.

《부녀회를 통해서 받고 아래마을 로인들과 어린이들을 피신시켰 습니다만 왜놈들이 너무나 급작스레 달려드는바람에 웃마을에 피해가 있었습시다. 상동에서 원썬들이 어떤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오셨으니 내가 말하기보다 어머니가 말하는것이 옳 을것 같습니다.》

그 말을 윤형보가 받았다.

《우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따로 위로 해드릴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찾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자신 께서 그지간에 겪으신 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날 폭동을 일으켜야 하겠는가 하는것이 뚜렷해질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듣다가 그물거리는 등잔불을 바늘끝으로 돌구어놓고 가쁜 입김이 떠오르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사양할 생각없이 등잔앞에 나앉았다.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오늘 상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들어서 아실것입니다. 내가 새삼스럽게 더 무엇을 말할것습니까? 우리 마을 도랑에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있 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고 부모와 자식 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원썬를 갚자고 이를 갈고있습시다. 그러나 새삼스러운것은 없습시다. 다만 내가 여러 동무들에게 기어이 말하고싶 은것은 원썬의 손에 죽은 사람들모두가 원썬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으 면서 죽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슬퍼서 주저앉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시다. 우리는 모두 원썬를 갚을것을 바랍니다. 우리 상동사람들이 슬픔속에 주저앉아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도 내 아들을 잃었습시다만 내 소원은 그저 저 왜놈들에게 백갑질, 칠갑질로 원썬를 갚는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혁명앞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상동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원썬 를 요정낼 폭동을 바랍니다. 우리 상동사람들은 원썬를 칠 폭동의 앞 장에 세워줄것을 혁명앞에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말은 불탈린 심지와 같이 울분에 그슬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뿌적뿌적 소리내며 타들어갔다.

많은 말이 필요없었다. 다른 회의참가자들 역시 오직 하나 원썬

의 가슴팍에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폭동을 요구할뿐이었다.

얼마후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하루낮동안에 몰타보게 세여버린 그 성성한 흰 머리를 높이 쳐들고 여전히 침착하고 마디진 어조로 상동지구부녀조직의 폭동 준비상태를 보고하였다.

《…우리 부녀회1조는 나무를 가득실은 소달구지로 수비대앞을 가로막고 불을 지르게 되어있습니다. 2조는 광산부녀회장동무가 책임지고 북성상회2층에다 돌을 쌓아놓고 대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3조는 시내 여러곳에서 폭동신호와 함께 혼란을 일으키게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윤형보는 한정수에게 일정개와 장가촌 일대의 준비정형을 알아보고 광산에서의 준비상태며 폭약매물정형을 확인한 다음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성문감시는 어떻습니까?》

《동쪽성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윤형보는 세삼스럽게 회의참가자들을 일일이 돌아보더니 수첩장을 퍼들고 천천히 입술을 추졌다. 무슨 까닭인지 그 자그마한 행동은 무척도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그러지 않아도 만만찮아보이던 그의 몸매는 앉은자리에서 강철로 변한듯이 느껴지는데 정말 강철빛으로 번쩍거리는 얼굴에서 불꽃인양 두눈이 불타고 있었다.

《좋습니다.》

하고 윤형보는 다시한번 준비상태가 빈틈없음을 확인하고나서 제 몸매처럼 굳세고 단단한 말마디들을 또박또박 이어 폭동지시를 던져었다.

《우리는 이번에 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각 지구 농촌의 혁명력량과 성시의 혁명세력이 합세하여 유격대의 공격에 합류하게 됩니다. 유격대는 태일 정각 4시에 공격을 개시합니다. 모든 초소들에서는 포대폭발을 신호로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순간 어머니의 눈썹리는 화끈해졌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희망과 청춘과 순정을 다 짓밟히고, 눈물을 쏟으며 피를 흘리며 온 생애를 기울여 오직 하나 그것을 기원하여 살아온듯한 그 시각이 마



침내 닥쳐왔다.

어머니의 눈에는 어느새 그림하니 물이 피였지만 훔칠 생각도 떨  
어버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는 성스러운 복수의 화신인  
양 그 물기어린 두눈에 그윽한 빛을 담고 그린듯이 조용히 앉아있  
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면 동무들은 곧 군중속에 있게 됩  
니다.》

하고 윤형보는 수첩을 들고 침착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  
었다.

《물론 폭동지휘부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세워놓기는 했지만 그때  
그때 나타나는 정황들을 동무들이 그자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많을것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명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로...》

하고 윤형보는 무엇인가 깨알처럼 박아쓴 수첩장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참가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한동안 열기면 흥분  
으로 뒤설레던 방안은 어느새 평철한 분위기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  
이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도 이미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한 눈길로 윤형보의 강철빛 서리발을 뿌리는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미리 짠 폭동계획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차례 강조하였지만 이번 폭동은 우리 사령부가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놓은 근본원칙과 방침이 구현되고있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투쟁입니다. 그런것만큼 한번 일어난 이상  
기어코 이겨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첫째 계획을 꼭 지켜야 하겠다는것  
입니다. 왜 그런가? 얼핏 볼 때 적들은 총칼로 든든히 무장하고있고  
어마어마한 포대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비해볼 때 우리 청년  
무장대들이 가지고있는 몇자루 총이라는것은 보잘것이 없고 거의 맨주  
먹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힘은 군중의 힘입니다. 우리  
는 성시주변의 모든 농촌들을 혁명화하여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 조  
직이 한날한시에 모두 들고일어나면 적들은 미처 꼬리대가리를 서로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됩니다. 동쪽에서 적의 뒤통수를 치면 그놈이 미  
쳐 뒤를 돌아볼 사이 없이 서쪽에서 정수리와 이마때기를 내리치고

정쟁이와 팔목을 분질러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야만 그놈들이 미처 총을 어디다 둘러대여볼 겨를도 없이 나가넘어지고말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놈들이 한동네의 폭동을 자동차를 타고 가서 진압하고 그다음 또 딴 동네의 폭동을 진압하러 달려가고 해서 우리를 각개격과할수가 있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대속에 중무장하고 들어앉은 도시의 적들을 주변인민들의 폭동으로써 능히 타승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처에서 일시에 들고일어나 꼬리대거리 돌아볼짬없이 한꺼번에 조겨놓으면 아무리 큰 적이라도 수족을 다 잘리우고 종당에는 망하고야만다는데 있는것입니다. 그런것만큼 마리 잔 계획을 그대로 꼭 지켜야만 하겠다는것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 말해야 할것은...》

하고 윤행보는 다시 수첩장을 한참 들여다본 다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유격대의 공격에 배합해서 이 폭동을 하는데 왜 유격대만 가지고 적을 치지 않고 폭동을 함께 일구자고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유격대가 적의 성문을 까부시고 포대를 폭파하고 그리고 적들을 끌어들인만큼 싸움이 크게 붙을수 있고 따라서 희생도 많을수 있지만 유격대는 결국 이기고야말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인민들을 깨우쳐서 이 폭동을 하자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혁명이 길국창취를 뿌리베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설 때에만 승리할수 있기때문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들은 일제를 미워는 하면서도 적잖게 무겁게 생각하고있으며 그대신 자기의 힘을 그닥 큰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일 폭동을 통하여 투쟁에 떨쳐일어난 인민들의 힘은 그 아무도 꺾을수 없을만큼 강하며 인민들이 사방에서 일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폭동과정에 꾸준히 선전선동사업을 진이 폭동에 참가하여 자기 힘의 강대함을 깨달고 적을 보잘것이 없다고 잘보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윤행보의 말은 이미 폭동문제가 일정에 오른 다음부터 벌써 여러차례 이러한 회의들에서 강조하여온 말들이였지만 당장 눈앞에 폭동

을 두고 들으니 새삼스럽게 그 말뜻이 강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윤형보는 똑같은 어조로 각 조직에 폭동시간과 공격대상을 적어가며 지시를 내렸다.

《각 부락이 성문까지 오는데 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시에는 성문에 와닿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곳에서부터 먼저 들고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멀고 조직이 강한 광산로동자들이 거기 있는 수비대와 순시들을 치고 먼저 들고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동수비대가 다리를 넘어 광산으로 지원을 가자고 할 것입니다. 이때 상동에서 일어난 청년무장대원들은 다리목보초소를 가부시고 폭동군중들은 광산로동자들과 합류하여 곧장 성시로 쳐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안의 적들이 상동쪽으로 달력가자고 할 것입니다. 이때 반대쪽인 월징개, 장가촌, 샬밭... 이런 차례로 연줄 들고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들은 급해맞아서 성문포대의 힘문까지 달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안에서는 이미 계획된대로 두혁명군은 청년무장대를 인솔하여 제1대는 수비대, 제2대는 자위단, 제3대는 경찰서를 맡아가지고 제끼시오.》

윤형보는 한정수가 책임진 규찰대에다 성안의 악질반동들을 처단할 과업까지 덧붙여주었다.

부녀회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전적인 책임이 지워졌다. 그밖에 포대폭파는 유격대에서 나온 백동무와 함께 윤형보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과 배라를 비롯한 직관선동사업에 대한 분공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형보는 용솨음치는 투쟁의욕과 드눌지 않는 결의가 력력히 내비치는 어머니의 승엄할만큼 조용하고 침착한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직물이 그 악착하고 야수적인 살륙의 피바다속에서 어떤 무서운 혁명가를 길러냈는가 하는것을 푹푹히 보았다.

《그런데 어머니.》

하고 윤형보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달겨진 성문에 가까이 가자면 보초가 있는만큼 맨손으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총이 있습니다.》

《종이요?》

《그렇습니다. 공작원동무가 가지고있던 종입니다.》

어머니는 치마말기에서 권총을 꺼내보였다.

어머니의 크고 악마디친 손우에 검게 번들거리는 종이 놓여져있었다. 등잔불을 받아, 은은한 빛을 뿌리는 그 강철덩어리는 마치 어머니의 사무친 마음처럼 단단하게 보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놓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총을 들고 폭동에 나선다면 진사한 조동춘동무도 기뻐할것입니다.》

윤형보는 어머니의 손을 권총채 짝 움켜잡고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회의를 끝마친 사람들은 윤형보의 지시에 따라 한사람한사람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어머니가 빈지를 떼낸 복선상점앞물목에 나섰을 때는 벌써 검숙산우에 아침해살이 부채살처럼 내뻗치고있었다.

어머니는 피곤도 시장기도 그리고 아프게 가슴이 저미는 슬픔도 다 씹어삼키며 신적힌 사람처럼 해빛을 향하여 급히 걸음을 다투었다.

## 6

동네에서 조직사업을 끝낸 어머니는 총총히 성안으로 되돌아왔다.

상동에서는 상호어머니, 칠성이어머니 그리고 밀양태이 어머니와 함께 왔고, 덕팔, 함박팔 같은 이웃동네에서 둘 혹은 셋씩 뽑아 모두 열두어명의 부녀회원들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복돌이어머니와 쌍둥이아버지도 나무집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어머니와 함께 성시로왔다.

재빛성문은 예대로 거만하고 침울한 표정을 하고, 킁킁한 입을 위압적으로 쥘 벌리고있었다. 두개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총창을 비껴든 두놈의 보초가 전대로 켜켜거리며 드나드는 사람의 몸수색을 하고있었다.

어머니는 권총을 쌍둥이아버지의 나무집속에 감추었기때문에 아

무것도 거리낄것이 없었다.

어머니는 이번 폭동에 연락원으로 정한 칠성이 어머니를 데리고 연락 지점과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거리를 한바퀴 돌았다.

성안에 들어서자 벌써 낮익은 얼굴들이 보이였다. 장거리앞에는 김수환의 부녀회장이 역시 10여명의 낮익은 부녀회원들과 함께 나물바구니를 끼고 앉아있었다. 광산부녀회장도 역시 광산부녀조직의 핵심들을 데리고 북성상회어방의 변화거리를 어슬렁거리고있었다. 경천이 어머니의 얼굴도 보이였다. 그러나 칠성이 어머니에게 상대를 알려주고 눈길을 마주치며 가볍게 웃어보일뿐 서로 알은채를 하지 않았다.

성안의 부녀회원들도 성문어방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다는 몰랐지만 벌써 지붕우에 올라가서 고추를 말리는 아낙네의 얼굴이나 빨래줄에 빨래를 널고있는 젊은 녀인의 얼굴을 봐도 인차 폭동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는 독특한 흥분과 긴장을 그 빛나는 눈들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어머니는 거리에서 제일 큰 포목상점앞에서 뜻밖에도 낮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멀리 간줄 알았던 귀순이가 장바구니를 끼고 봄비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상점안으로 들어가는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무척 놀라고 무척 반가웠으나 때가 때인것만큼 혼잡을 이룬 사람들의 틈바구니속에서 그와 만난다는것이 좋지 않을것 같아 걸음을 옮겨놓았다.

포목상점 바로 옆이 경찰서이기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기에도 조직군중을 집결시켰었다. 그리고보면 귀순이도 성안어디엔가 숨어살면서 조직의 지도를 받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아무데 가나 조직군중들이 빈틈없이 박혀있다. 오늘 거리에는 녀칠칠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두 폭동지휘부에서 동원한 군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았다. 그가운데 핵심이 박혀있는이상 그들도 어차피 폭동에 합세할것이였다. 어머니는 거리를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미리 박아넣은 부녀회원들과 눈길로 신호를 교환하여 준비가 물샷틈없음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성문앞으로 돌아왔다.

충신항 상동지구에서의 폭동은 광산에서 먼저 터졌다.

광산의 노동자조직은 오후 3시에 새군데에서 일제히 남포를 티뜨

리도록 미리 짜고 그 폭발을 계기로 모든 막장과 광산마을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기로 작정하였었다. 이 폭발소리는 이번 폭동에 참가하는 모든 조직과 마을들에 주는 예비신호로 되었다.

정과 메, 곡괭이와 삽 등 굴쟁이들의 잡은것치고 어느것이나 무기아닌것이 없었다. 폭발이 터져오르자 손에손에 미리 마련해두었던 맛춤한 쟁기들을 틀어쥐고 와- 막장에서 쏟아나온 광산로동자들은 일제히 현장사무실로 몰려갔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누가 달려가면서 곡괭이를 하늘높이 쳐들고 웨치자 또 하나 산을 뒤흔들것 같은 함성의 폭발이 일어났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자!》

《우리의 부모형제를 학살한 왜놈들을 처죽여라!》

현장감독이며 순시나부랭이들을 다치는대로 휘쓸면서 막장마다에서 쏟아나온 로동자대렬들은 삼시에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폭동의 흐름을 이루어 온 광산을 덮쳐버렸다. 현장사무실을 휘쓸고 강봉규의 집을 휘쓸고 경찰초소를 삼켜버렸다.

광산에 나와있는 경찰과 헌병 그리고 순시며 감독들이 처음에 약간의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광산조직이 지도하는 생산유격대원들이 미처 손씨볼새도 없이 놈들을 조격버린데다 처음부터 너무나 엄청난 기세로 불의에 폭동이 벌어졌기때문에 일이 나가서 총 한방도 온전히 쏘아보지 못하고 짓밟히 죽기도 하고 총을 빼앗기고 옷등을 벗어내 팽개친채 쥐새끼처럼 도랑창을 기여서 도망치기도 하였다.

강봉규는 간밤에 성시에 나가 전매국 상점주인 동가네 집에서 호소가와랑 같이 술을 피먹다가 낮경에야 돌아와서 사무실의 자기 책상에 앉아 끄덕끄덕 졸면서 자기가 일본육군소장이 되는 꿈을 한창 꾸다가 폭발소리에 놀라 깨여났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방금 꿈에서 본 자기의 출세가 약속된 그런 전쟁판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무슨 구호소리가 연달아 일어나는가운데 바로 자기 강봉규를 천일파, 민족반역자로 규탄하면서 처죽이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폭동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일본사람들이 알기는 아는군. 호소가와중위가 폭동이 일어날것



분후의 고전적명작 희명연극《피바다》를 소설로...

같다고 걱정하더니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야...》

강봉규는 황급히 반대머리를 쓸어넘기며 전화손잡이를 돌렸다.

《여보시오, 여보, 수비대, 수비대, 수비대를 대주시오... 수비대가 안나와요? 여보시오, 폭동이...》

그가 나오지 않는 전화통에 매달려 남북대가리의 폭대기에서 진물처럼 내배는 식은땀을 흘리고있는데 어느새 폭동대렬이 큰물진것처럼 휩쓸어왔다.

《강봉규를 쳐죽여라!》

이런 웨침소리가 유리창을 드르릉 울리자 강봉규는 수화기를 내동댕이치고 뒤창문을 열고 창턱에 기여올라갔다. 몸이 무거운 그가 가까스로 매끄러운 벽을 발끝으로 지저디디며 상반신을 바깥으로 추슬러넘겼는데 《이놈 이디로 도망쳐!》하고 한 늙수그레한 팡부가 그의 뒤덜미를 움켜쥐었다.

《아, 박서방!》

강봉규는 풀잎우에 앉은 청개구리처럼 창턱우에서 네발을 가드라 뜨리고 공허하게 부릅뜬 눈을 뒤룩거리며 애원하였다. 그것은 일삼 그의 시중을 들어주던 박서방이였지만 들은채도 않고 개구리 매치듯 땅바닥에 매쳐버렸다. 그리자 돌가무루성이 굴쟁이들의 무수한 신바닥이 그를 짓밟으면서 지나갔다.

《왜놈들을 치러가자!》

《성시로 나가자!》

그치지 않는 함성이 그렇게도 무표정하던 팡산의 우중충한 산과 재빛 버럭더미를 뒤흔들며 메아리쳤다.

간밤에 향장 진가의 권에 못이겨 일주에 쉬어 배갈을 적잖게 마신 호소가와는 견딜수 없이 풀이 지끈지끈해오자 술은 한가지로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도 간절히 말하던 빈장국의 청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새삼스럽게 후회하면서 탕수라도 줌 들이켜볼가하고 막 절상을 빼격거리며 게나른하게 일어서는데 드르릉 하고 팡산에서 폭발소리가 울리었다.

《음-강봉규가 또 노다지를 잡았군.》

호소가와는 은근한 시선을 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일부러 출범을 시켜 길어온 탕수를 콧집한 유리잔에 두잔이나 마셨지만 보기부

터 누리께한 물은 조금도 시원한 맛을 주지 않았다.

《하루 우환은 해정술 취한것이라고 허허히...》

호소가와가 허구프게 웃으며 등글질상이 질겁할만큼 털썩 육중한 엉덩이를 놓고 앉는데 진화종이 다급하게 울리었다. 광산초소에서 보낸 긴급편락을 받은 호소가와는 반길로 문을 광 길어차고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폭동이다, 비상소집. 폭동이다, 비상소집이다!》

10분도 안걸린 비상소집시간이 호소가와에게는 한시간이나 잘 걸린것 같았다.

《개자식들, 뭘 꾸물거리는가? 광산을 다 폭발시키겠다. 빨리 딸리 못하겠는가. 밥통같은 자식들!》

호소가와는 바람길에 은은하게 울리오는 폭동대렬의 합성소리들 들으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가 급급히 주어모은 한개 소매 좀 못되는 졸병놈들을 끌고, 광산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막 다리를 건너가려는 때 난데없이 살구산기슭에서 또 하나의 폭동대렬이 소리소리 합성을 지르며 쓸어들어왔다. 그것은 상동농민폭동대렬이었다.

《대장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이쪽에도 폭동입니다.》

변장국이 단장허리를 움켜쥐고 달려오며 소리쳤다.

《뭐야, 헌병들은 뭘 하는가? 너희네 자위단은 뭘 하는가?》

호소가와는 어쩔바를 모르고 애매한 변장국을 다물아세웠다.

《지금 조장님이랑 오까다상이랑 나갔는데... 아이구, 저것 보십시오, 저놈들이 총까지 막 쓰아댈니다.》

무엇인가 변명하려던 변장국의 말허리를 잘라던지며 야무진 총소리가 울리어왔다. 도로변에서 헌병, 자위단무리들과 청년무장대원들 사이에 무장충돌이 벌어진것이였다.

호소가와는 갑자기 정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의 눈치만 살피며 오돌오돌 떨던 변장국은 연신 살구산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주절거리는데 도무지 말뜻을 새겨들을수 없었다.

《아이구, 저것 보십시오, 저것, 광산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변장국이 기겁한 소리를 질렀다. 이번만은 그 소리가 뚜렷하게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피바다》를 소설로... ~~~~~

알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니 다리 건너 저편 광산골짜기쪽에서 마치 동을 무너뜨리고 넘쳐나는 물굽이처럼 거세찬 대렬이 합성을 싣고 쏟아져나왔다.

《대장님!》

어느새 달려왔는지 오까다가 쓰러질듯이 다가와서 보고를 하였다.

《큰일났습니다. 월정개에서도 장가촌에서도... 그리고 샘물에서도 폭동이 터졌다는 통보입니다. 성안의 공기도 험하다고 나까무라소위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수비대장나오리께서 한시바삐 성안으로 돌아와서 지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뭐야! 드디어 공산당이 일을 쳤구나.》

호소가와는 눈앞이 아찔해오는것을 느끼며 웅크렸다.

《성시를 향해 급보랏!》

《아니 대장님!》

변장국이가 달려가려는 호소가와의 소매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성시로 가면 우리 상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놓지 못하겠는가? 군사행동을 방해하는자는 용서없이 처단하겠다.》

호소가와는 변장국을 사정없이 뿌리치고 달려갔다. 이미 광산폭동대렬이 저쪽 다리목에 이르렀다.

호소가와는 청년무장대원들이 쓰아대는 총알속을 가까스로 헤치고 진편을 가로질러 겨우 덕골뒤산쪽으로 대렬을 뺐었다.

한편 변장국은 수비대와 청년무장대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있는 동안 배반당한 자기의 눈물겨운 처지때문에 슬픔이 북받쳐 그 자리에 주저앉고싶은 마음을 채찍질하여 집으로 달렸다. 집을 온통 떠매고 달아날수는 없다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문서들과 금고만이라도 가지고 가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변장국이로서는 있음직하지도 않는 실책이였다. 청년무장대원들이 수비대를 제압하고있는동안 상동의 폭동대렬은 이미 마을을 뒤집어버렸고 검수품, 합박품, 덕골까지도 빠져나갈데 없이 폭동군중으로 넘쳐나있었다. 달구지길에서 지름길로 접어들어 비탈에 올라선 변장국은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동네한복판에 그렇게도 위엄차게 서있던 자기 집이 황황 불타고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맹견》—삼살개는 꼬리에 불이 달리어 개경개경
짖으며 팔목을 뛰어다니고 천조망우에 사금파리까지 해박은 서술푸르
던 대문은 불품없이 나가넘어진채 불타고있었다.

《일본제국주의침략차를 타도하자!》

《왜놈의 개 변장국을 치죽여라!》

이런 함성이 고막을 찌렁찌렁 울리는데 농민들이 처든 삼이며 도
끼날이 때마침 먼바로 짝여대는 해빛을 받아 눈부치게 번쩍거렸다.

《아이쿠.》

변장국은 동네에 들어선것이 잘못이었다는것을 비로소 동감하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뒤쪽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흠칫해서 돌아보
니 왜놈 하사관 한놈이 권총을 뽑아들고 뒤걸음질치오는데 지앞 나무
그루뒤에 총을 겨누어대고 쓰는 제춘이며 경숙이 같은 동네청년들의
모습이 얼찼얼찼 보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그가운데 자위단옷
을 벗어붙인 응판이가 섞여있는것이다.

《저놈이!》

변장국은 그중에도 분한 생각이 났으나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요,
그놈을 자기가 여태 끼고있었다는것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섬쩍하
였다.

변장국은 잔술포기를 헤치고 팔목뒤로 빠졌다.

《사람 살려라!》

이런 악다구니소리가 들리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니 방금
맞총질을 하던 왜놈 하사관이 군도를 지팽이삼아 짚고 비칠거리며 한
손을 쳐들었다가 허양 벼랑밑으로 나가떨어졌다. 또 한놈의 풀병이
한쪽다리를 질푼거리며 역새발을 헤치고 진뿔속으로 기여들어가고있
었다.

《저놈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자기가 여태 살아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자
부심이 용솟음치는 한편 어떻게 하나 이 고비를 넘기고 기여이 살아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불일듯하였다. 그는 무작정 주정뱅이진편로 내
려갔다. 여느때 같으면 떠밀어도 안들어갈곳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끔
무니에 불이 달린 판이라 어쩔수가 없었다.

원래 변장국은 팔자가 드센놈이었다.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피바다》를 소설로... ~~~~~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주장쟁이진필을 어떻게 기었는지 덕플 뒤산 큰길가에 나서보니 발등 하나 딱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겠지. 내가 이때 봐도 변씨문중의 삼대독자야.》

변장국은 급한중에도 자기 신수가 신통하게 생각되어 이렇게 희미운 수작을 홀로 중얼거리고나서 성안을 향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놓았다.

## 7

수비대병영은 성문에서 장거리로 통하는 큰길을 한참 가다가 왼편으로 꺾어져들어간 성벽밑에 자리잡고있었다. 그 맞은편에 동창의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스테트기와를 이은 이층집이었다. 성시에 대한 무장공격에서 그중 강한 저항을 시도할것이 수비대인것만큼 이 부근에 많은 군중이 동원되었다.

동창의원 2층 지붕우에서는 기와를 갈아잇는것처럼 하고 두사람의 시내청년이 인부차림으로 올라가 있고 그옆에 부녀회원들 여럿이 올라가서 기와를 섬기고있으며 사닥다리우에도 여러명의 아낙네들이 치마에 돌들을 싸안고 올라서있었다. 한편 장거리에서 갈라져들어오는 길목에는 나무달구지가 세채나 한곳에 묻혀 비비적거리고있는데 서로 빨리 돌리대지 못하겠느냐고 일부러 목청을 높구이 나루고있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달구지 세채가 한곳에 모여 갈팡질팡하다보니 통행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떠들어댔다. 그 달구지 하나를 북돌이 어머니가 물고있었다. 그리고 군중가운데 상호어미리를 비롯한 상동아낙네들의 얼굴도 보이였다.

포목상점앞에서도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찼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아주머니들끼리 말다툼질을 하는것을 경관이 와서 욕실을 피뚫고 사람들을 헤치자고 하자 어느새 길가던 사람들까지 우-모여들었다. 너무 당황한 경관이 가까이 있는 아낙네를 한대 갈겨 놓는바람에 일은 점점 크게 벌어져 포목상점앞에서 튼 불꽃이 바로 경찰서앞마당에 까지 번져갔다. 그곳 역시 기동이 마비돼버렸다.

이러한무렵에 광산과 주변농촌들에서 폭동이 일어나 일제히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어왔고 뒤미처 총소리가 가까와왔다.

성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성문으로 모여들어 여기서 또 혼잡이 일어났는데 쌍둥이아버지의 나무달구지가 성문앞길 한복판을 떠 뺨치고있어서 보초가 길을 띄우라고 몇번이나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쌍둥이아버지는 일부러 쫄쫄매는 시늉만 할뿐 길을 내지 않았다.

그래도 보초는 달려나올 형편이 못되었다. 폭동이 일어났다는 바람에 성문을 어서 나가겠다는 사람, 빨리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길이에게 덮쳤는데 일일이 몸단속을 하자니 보초 역시 눈이 팽팽 돌아가는 판이었다.

한창 혼잡이 고조에 달했을 때 호소가와중위가 인솔한 수비대의 상동파견대가 터지고 찢긴 불꽃없는 물문을 가리울 경황도 없이 모두 사색이 되어 도망쳐왔다.

《야 이놈들아, 빨리 성문을 닫지 않고 쫓아. 공산당이 쳐들어온 단말이다. 공산당이...》

호소가와는 재가 문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초를 향해 소리쳤다.

《하, 그런데 이렇게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시...》

하고 보초가 변명을 하자 호소가와는 대번에 살기둥둥해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무슨 소린가? 빨리빨리 문을 닫았!》

《화!》

호소가와는 보초놈이 총대를 휘두르며 군중들을 헤치고 육중한 성문을 빼격거리는데를 보자 비로소 자기 내털을 인솔해가지고 수비대병영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앞에서는 아직도 세채의 달구지가 비비적거리고있었다.

《개자식들! 이것은 또 뭘가!》

호소가와는 함부로 발길질을 해가며 군중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가 막 세채의 달구지한복판에 뚫고 들어가서 북들이어머니의 끄덩이를 잡아두르려는 순간이었다.

혼잡을 이룬 성문옆에 우뚝 솟아있는 성문포대에서 요란한 폭발소리가 터져올랐다. 붐부터 인민들을 강제동원하여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아올린 거창한 포대가 푼씩하고 연기를 토하더니 와그르르 무너져앉았다. 돌사태, 흙사태가 쏟아져내렸다. 폭발의 여운이 사라지고 후둑후둑 떨어지던 돌부스레기들이 다 떨어지자 갑자기 그 떠들썩하



던 혼잡의 소음도 몽땅 사라져버리고 가뭇 조용해졌는데 그 순간적인 정적이 깨뜨러지기전에 이번에는 수비대뒤쪽에 있는 낡은 포대에서 또다시 요란한 폭발이 일어났다.

정각 네시였다.

한낮때부터 거리 요소요소에 박히있던 조직원들이 폭발을 신호로 일제히 군중앞에 뛰어나왔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도하라!》

하고 구호를 선창한 광산부녀회장은 포목상점앞에 내다놓은 쭉질상우에 뛰어들어가서 웨쳤다.

《여러분, 광산에서도 상동에서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장가촌에서도 월정개, 샘골에서도 쳐들어오고있습니다. 우리도 들고일어나 저 무도한 왜놈의 새끼들에게 원수를 갚읍시다!》

《원수를 갓자!》

밑에서 경천이 어머니가 늙은이답지 않게 썩썩한 목소리로 받았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귀순이도 쟁쟁한 목소리로 웨쳤다.

서빨리 아낙네들의 틈바구니에 끼여들었던 경관놈은 포대가 폭발하는 소리에 지레 어리쳤는데 어느새 저자신이 폭동군중의 한복판에 끼여들었다는것을 깨닫고 너무나 급해나서 《오이오이, 이게 뭐가?》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나중에는 지도 같이 구호를 부르는것처럼 한팔을 쳐들고 어물거리며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어느 아낙네가 인제 가져온것인지 빨래방망이로 뒤통수를 한대 조져 대변에 끼꾸러뜨리고말았다.

장거리앞에서는 검수팔의 명수어머니가 선동연설을 시작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주변농촌에서 폭동군중이 쳐들어온다는바람에 부들부들 떨며 출동준비를 하고있던 수비대와 경찰이 시내에서도 폭동이 터졌다는것을 알고 진압을 위해 출동하였다. 그러나 수비대는 동창의원앞에서 달구지에 걸려 어물거리다가 동창의원 쪽대기에서 날아드는 돌벼락을 만나 갈팡질팡하였다. 복돌이 어머니는 나무달구지에 불을 질렀다.

가으내 마블대로 마른 삭정이단들은 삼시에 삼단같은 불길을 피

워울렸다. 거리에 불이 번져가는데 사방에서 돌벼락이 날아들고 고추 가루뽕지가 날아가고 온 거리를 들었다놓는 구호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하였다.

경찰서앞이나 장거리에서도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때 성안에 잠복하였던 청년무장대원들이 일제히 직 무력집단들에 대한 공격을 들이댔다. 여기에는 두릭이, 갑순이, 영실이 등 상동 청년들도 섞여있었다.

...거리에서는 함성이 더 높아가고있었다. 청년무장대원들과 합세하여 일부 자위단원들도 재복을 벗어던지고 왜놈수비대를 공격하였다. 치솟는 불길과 연기 속에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수비대로 달려가던 호소가와는 거리가 온동 폭동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들자 이 폭동이 단순히 안에서만 타오르는 불집이 아니라 주변농촌과 광산에서 번진 불길속에 도시가 포위된 그런 폭동의 불바다라는 것을 명감적으로 판단하였다.

《성문으로!》

그는 권총을 하늘높이 쳐들고 자기가 인솔해온 소대를 향해 웨쳤다.

요진룡은 성문이다. 밖에서 번져오는 불을 막아야 안에서 타오르는 불집도 끌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권총을 휘두르며 앞장서 달렸다.

폭동의 불길은 차츰 더 크게 번져 수비대와 경찰서는 벌써 화염속에 휩싸이고 사방에서 총소리와 폭동군중의 함성이 자지러졌다.

어머니는 이때 성문곁에 있었다. 성문포대가 폭발하는바람에 군중도 적보초놈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길우는 오히려 한산하였다.

어머니는 칠성이어머니에게 일기땀 목소리로 지시를 주었다.

《성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칠성이어머니, 장마당앞에 가서 검수판부녀회장에게 거기 사람들을 데리고 성문으로 나오라고 하시오. 그리고 쌍둥이아버지와 아까 대피시킨 사람들도 모두 성문쪽으로 나와 유격대를 맞이하자고 하십시오. 저놈들이 눈치를 채고 성문으로 꼭 나올것입니다. 그러니 그놈들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경찰서앞과 수비대앞에 가서 기세를 더 울리라고 해요. 자, 들어봐요. 저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우리 사람들의 구호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 소리를 듣고 더 기세를 울리라고 해요.》

《알았시다.》

칠성이 어머니가 치마자락을 움켜잡고 달려나가자 어머니는 사방을 살피보았다. 아직 성문어방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다. 아까 폭발 때 쏟아진 돌부스떼기와 흙먼지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길 저쪽에 아직도 진한 칠이 번쩍거리는 육중한 성문이 뻗치고 서있었다.

어머니는 침착한 걸음으로 성문을 향해 다가갔다.

어머니가 짝 다물린 빗장에 손을 뻗치는데 뒤쪽에서 난데없이 총소리가 울리면서 성문쪽에 총알이 콩튀듯 박히었다.

어머니는 얼른 성문축대에 몸을 붙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호소가와가 수비대를 끌고 달려오면서 총질을 하고있었다. 그뒤로 쌍둥이아버지의 달구지가 서있는데 어느새 나무단에 불을 질러 활활 불타고있었다. 칠성이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검수물부녀회장이 인솔하는 부녀회원들이 장마당쪽에서 쏟아나오고있었다. 수비대의 일부는 불타는 달구지와 부녀회원들에게 둘러싸여 갈팡질팡하는데 그 짬을 뚫고나온놈들이 성문을 향해 바둑바둑 다가오고있었다.

《여러분, 원수를 갚을 때는 왔습니다. 저 악독한 왜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립시다!》

어머니는 이렇게 웨치며 치마말기에서 권총을 꺼내어 앞장서 달려오는 수비대장놈을 향해 쿵쿵히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갖다댔다. 공작원에게서 다루는 법을 말로만 들었지. 실지 손에 들고 쓰아보기는 처음인 총이었지만 불달린 메돼지처럼 길길이 뛰며 미쳐날뛰는 피땀진 원수를 눈앞에 보니 온갖 번거로운 생각이 다 가라앉고 오직 싸늘한 복수의 일념이 몽쳐 묘준도 사격도 모든 동작이 더할나위없이 침착하고 정확하였다.

호소가와도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어머니가 권총을 뽑아드는것을 보자 그놈은 입을 짝 벌리었다.

《웁지, 네년이…권총까지 가지고…내가 네년을 딸갱인줄 진작 알아보았다. 이제 잡으면 용서없다. 용서없단말이다.》

그는 이를 갈며 울부짖더니 언거퍼 불질을 해댔다. 그러나 돌담과 문짝틈에 단단히 붙어선 어머니를 맞힐수는 없었다. 돌벽에 총알이 튀면서 돌가루가 날렸으나 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잡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호소가와는 지도 뜻모를 소리를 연방 증얼거리며 초조감에 부여 마구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어머니는 덤비지 않았다. 자기 총구앞에 다가드는 권수의 물품을 두고두고 오래 봐두고싶었다. 필경 그놈은 총을 든 자기를 보고 이를 갈것이다.

(이놈, 실컷 보아라. 나는 이런 녀자다! 이제는 네놈이 내 총앞에 있다는것을 죽어도 잊지 말아라!)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

어머니의 한땀한 마음과 같이 야무지고 되알찬 총소리가 시원하게 울리었다.

호소가와는 비칠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 한번 불을 토한 이상 멈출수 없는 사격이였다.

땅! 땅! 땅!

연거피 복수탄이 날아갔다. 남편의 이름으로! 을남이의 이름으로! 이 총을 남기고 죽은 조동춘공작원의 이름으로! 별저로인의 이름으로, 경천이의 이름으로! 시월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짓밟히고 학살당한 모든 조선사람들의 이름으로, 피눈물과 한숨속에 장사지낸 지난 청춘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쓰고 또 쓰았다.

첫번째 탄알을 받고 비칠거라던 호소가와는 일구리어서 일본도를 뽑아들고 허우적거렸으나 개길음을 몇번 치다가 마침내 민지오른길 바닥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이번에 잡기만 하면 용서없이 처단하는건데... 아 분하다, 분하단말이다.》

숨을 모으면서도 호소가와는 이렇게 증얼거렸다. 어쩌나 이를 갈았던지 앞이 한대가 부러져서 두꺼운 입술을 비집고 걸쩍한 피와 함께 턱으로 흘려내렸다.

뒤따라오던 졸병놈들도 연거피 쓰러졌다.

호소가와가 쓰러지고 수비대놈들이 어머니의 총앞에 비칠거리자 폭동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눕혀라!》

《모두 들고일어나 원수를 갚자!》

~~~~~ 불후의 고전작가 허명언극 《피바다》를 소설로... ~~~~~

불길은 삼단같이 피어오르고 멀고 가까운곳에서 함성은 폭음처럼 메아리쳐올랐다. 경찰서와 수비대병영어방에서는 총소리가 더욱 높아갔다.

어머니는 성큼 성문으로 다가가서 빗장을 벗기고. 파리만한 무쇠고리를 잡아당겼다.

육중한 성문은 삐걱삐걱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며 은근히 맞섰으나 총을 짙어 어머니앞에 웅송그리듯 마친내 휘여들고말았다.

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캄캄하던 눈앞이 좌 트이면서 불타는 노을을 담은 하늘이 하나 가득 안겨왔다.

어머니는 성큼 문밖으로 한걸음 내디디었다. 그러자 마치 어머니의 가슴에 아들이 돌아오듯 유격대가 만세소리와 함께 달려왔다.

선두에 휘날리는 붉은 기발을 보는 어머니의 눈은 어느덧 이슬에 젖어 앞으로 앞으로 달려오는 썩썩한 모습들이 그만에야 부엌계 흐리고말았다.

유격대의 뒤로 상동을 비롯한 주변농촌의 폭동대원이 성시를 짙어삼킬듯한 기세로 성문을 메우며 휩쓸어들어왔다.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어머니는 성문축대에 등을 기대고서서 달려가는 대오를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혁명이란 얼마나 힘찬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귀중한것인지...)

유격대를 맞이한 폭동군중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것 같았다.

성시자위단본부를 단숨에 휩쓸어버린 청년무장대원들은 응팔이를 비롯한 자위단내에 박혀있던 청년들까지 합세하여 경찰서방향으로 떠나갔다. 포목상점을 사이에 두고 사격전이 벌어졌다. 부녀회원들은 총알이 비발치는가운데서도 더욱 기세가 올라서 싸웠다.

칠성이어머니는 어디서 방망이 하나를 얻어 들고 왜놈들을 만나느라 주먹 두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조기며 일일이 번호를 매겨나갔다.

《이것이 여섯놈째다.》

영실이어머니는 담장우에 이를 악물고 앉아서 맞은편팔목에 모여들어 비비적거리는 왜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겼다.

귀순이는 싸움속에서 광산부녀회장과 경찰이어머니를 만나 북성

상회 지봉우에 함께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포목상점앞 문턱에서 청년 무장대원들에게 얻어맞아 갈팡질팡하는 경찰놈들의 뒤통수를 돌멩이로 조졌다.

삼단같은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우렁찬 함성이 거리를 들었다놓는데 총소리, 아우성소리 속에 부녀회원들이 내뜨린 하얀 베라가 하늘을 날고 길을 덮었다.

이런가운데 유격대는 두대로 나뉘어 수비대본부와 경찰서를 공격하였다.

원남이는 성문을 들어서는데 참 마사진 포대에서 저항하는 직기관총을 발견하고 단숨에 작탄으로 소멸하였다. 기관총을 빼앗은 원남이는 그길로 동창의원앞을 돌아 어느 허물어진 담장에 총신을 댈치고 완강하게 불질을 해대는 수비대정문을 기누었다. 수비대의 정문은 철문인데 그옆에 모래가마니를 쌓아올린 사격좌지가 있었다. 그속에 수많은 왜놈들이 모여들어 마구 총질을 해댔다.

원남이는 표준사격을 하다가 시원치않아 담장우에 뛰어올랐다. 모래가마니화점속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원남이는 분노에 밀리는 가슴에 화끈한 기관총을 지그시 눌러대고 언거피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적들은 삼대처럼 쓰러졌다.

정문의 적들이 소멸되자 유격대는 삼시에 수비대를 덮치버렸다. 뒤이어 유격대는 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다시 거리로 나갔다. 원남이는 기관총을 틀어쥐고 신두에 서서 달렸다.

포목상점앞에 오자 앞서온 청년무장대와 유격대가 앞뒤로 경찰서물을 포위하고 맹공격을 들이대고 있었다. 얼핏얼핏 스치는 얼굴속에 작탄을 쥐여부리며 비호처럼 달려가는 상호의 모습도 보이고 두척이며 웅팔이, 재춘이 그리고 경숙이, 영실이 같은 상동청년무장대원들의 그리운 얼굴들도 섞여있었으나 언제 알은체할 겨를이 없었다.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라!》

이런 쟁한 웨침소리가 들리어 얼핏 돌아보니 갑순이가 총을 높이 쳐들고 구호를 부르는 것이었다.

원남이는 기관총을 으스리지게 틀어쥐고 달려나가며 경찰서현판에다 맹렬한 런발사격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총총대에 올라서자 높이 매달려 거만하게 내려다보던 경찰서간판을 총탄으로 내리쳐서 산산이

깃조개버렸다.

유격대와 청년무장대원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경찰서를 삼켜버렸다.

이무렵 덕골뒤산에서부터 한참 큰길을 달리다가 다시 함박풀과 구룡소마을쪽에서 쏟아나오는 폭동군중과 맞부딪칠번한 변장국은 냇이 훑 나가서 아예 길을 버리고 별관을 일직선으로 꿰질러 성안으로 들어섰다. 어느 모로 보나 약질이고 늦게 떠나기까지 한 그였지만 어찌나 이악하게 달렸던지 성안에 들어서고보니 호소가와의 수비대는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성문을 들어서는 길로 곧장 자위단본부든 수비대나 경찰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앞에 벌어지고있는 무시무시한 사태를 보자 공연히 성안으로 뛰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설 길은 없었다. 성문앞에서도 벌써 폭동같은 함성이 터져오르고있었다.

그는 얼른 뒤뜰목으로 새었다. 누구네 집인지 모를 높다란 담장 밑으로 고양이처럼 살살 붙어서 살짝살짝 옮겨걸는 그의 나리는 살얼음판을 밟는것처럼 떨리었다.

그는 언제나 앞보다 뒤가 두려웠다. 길을 가다가도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주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구나 폭동대렬이 큰길쪽에 있기때문에 잠자는 닭새끼 모양 몸은 앞으로 향해있으면서도 머리는 뒤로 돌리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저앞에서 갑순이가 언제 자기를 발견하고 마주 달려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가 언뜻 불길한 예감이 뒤뜰을 쳐서 빈적 머리를 들었을 때는 치마허리를 질끈 동이고 총을 곧바로 틀어쥔 갑순이가 거의 50보 되나마나한 거리에까지 바투 다가왔다. 50보라 하지마는 변장국은 갑순이의 이글이글 타번지는 두눈을 푹푹히 보았고 그 눈빛에서 그가 이렇듯 호젓한 뒤뜰목으로 총을 겨누고 혼자 달려오는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다름아닌 자기를 찾아온다는것을 뚜렷이 느낄수 있었다.

변장국은 위태롭게 맴을 돌아 아까와 똑같이 몸은 앞을 향해 달리고 고개는 뒤로 돌려 이를 악물고 달려오는 갑순이를 지켜보았다.

돌부리에 걸려 곤두박질을 한번 하자 문득 자기에게도 권총이 있다는것을 생각하였다. 그는 출발선을 떠나는 단거리선수처럼 엮어진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다시 앞으로 내달리면서 권총을 쏘았다. 그러나 애초에 자기 총이 맞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다만 갑순이가 총소리에 놀라 주춤거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진히 겁먹은 빛 없이 그냥 입술을 악물고 달려온다. 뒤걸음질치다싶이 달려는데다 몇번 넘어지기까지 하다보니 이뎀 구멍가게앞을 지나 때마침 누가 세워놓은 달구지잎을 에돌아서 다음फल목으로 나서는 네거리에 집어들었을 때는 갑순이와의 거리가 스무나문길음 되나마나하게 줄어들었다.

변장국은 진땀이 났다. 그 창황중에도 귀를 기울이니 큰길쪽에서는 폭동대렬이 관청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갈수록 기세를 올리는 모양이라 그쪽으로 빠질 념은 애초에 떠오르지 않았다.

잘못하다가는 어린 계집에 손에 속절없이 죽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날만큼 분하고 억울하였다.

(이 변장국이 한개 칠없는 산판 계집에 손에 죽다니...)

변장국이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네거리를 지나 맞은편फल목에 어디 떨어진곳이 있는가 잠시 두리번거리는데

《이놈아, 총을 받아라!》

하고 야무진 소리가 앞쪽에서 울리더니 바로 그쪽 फल목으로 영실이 총을 겨누어들고 달려왔다.

《나무 관세음보살...》

변장국은 벌써 총을 겨누어들고 네거리를 달려오는 갑순이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직 죽을 생각까지는 나지 않았다.

(설마 하늘이 무너진대도 이 변장국이 하나쯤 살아남을 용수가 없을라구...)

우들우들 벌면서도 이렇게 생각한 변장국은 앞뒤에 대고 권총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언제 혼련들을 받았는지 권총을 내대기바쁘게 몸을 낮추고 탄알을 피하는데 그리고보니 여태 자기가 동네를 감시한다는것이 헛나발이라고 육설을 피뎀던 호소가와의 지칭구가 더 할나위없이 옳은 말이였다고 생각되였다.

어쨌든 변장국은 생명이 몇조박 남지 않은 이 마당에 진에없이 다사하고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어느 틈엔가 바로 앞에 키높이 솟아있는 양 회담장으로 좀 기여올라가보자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

려나 갑순이와 영실이는 총구를 번바로 자기 가슴에 겨누어대고 한결 음한걸음 죄어들었다.

《요런 독한것들이...》

변장국은 제풀에 악이 나서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총조차 자기를 배신하였다. 어느새 다 쓰아버렸는지 늘 만탄창채로 가지고 다니던 권총이 질척하고 거침소리를 낼뿐이었다.

《에 가, 갑순아, 여, 영실아.》

변장국은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무기인 아양을 처불양으로 입가에 억지로 웃음 비슷한것을 지어보이려 하였으나 이찌나 정련이 심하게 이는지 그것까지 잘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손에 잡히는대로 양희담벽을 더듬거리며 눈깜짝할 틈이라도 생기면 올리뛰어보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이 더러운 왜놈의 개야!》

하고 갑순이가 총구를 진땀이 발발 내뿜는 변장국의 이마에 번바로 겨누어대고 웨쳤다.

《왜놈의 세상이 네 당대에 끝날줄은 몰랐지? 민족을 배반하고 악독하게 우리 부모형제들을 학살한 내놈을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변장국은 허둥지둥 두손을 내지으며 자기가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였다. 그가 미처 첫마디를 메기도전에 총구에서 튀어나온 총알이 그토록 소중하게 손질해 입군하던 자위단체복을 사정없이 뚫고 가슴에 맞구멍을 내버렸다. 목숨이 진하려는 순간에 변장국은 자기를 별제로인파 울남이, 그리고 온성집머느리와 선숙이네 쌍둥이형제를 죽인 교살자로서 규탄하는 갑순의(혹은 영실의 목소리였는지 모른다) 목소리를 들었으나 이미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원통한나머지 찢끔 눈물 한 방울을 마지막으로 짜놓고 그렇게도 탐탁해보이던 이생에서의 모든 부귀영화와 쓸쓸한 작별을 하였다.

8

소탕전은 반시간 못걸려서 끝났다.

도시는 유격대에 의하여 완전히 해방되었다.

원썬들에게 억눌리고 짓밟혀 기를 못피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다. 기와를 질만나마 벗겨낸 동창의원앞에서 폭동군중과 방금 수비대소탕전을 끝마친 유격대원들이 서로 일싸안고 돌아가며 출판물 벌리었다. 장거리 회령식당앞에서도, 산산이 짓마사버린 동가네 전내국상집앞에서도 그러한 출판이 벌어졌다. 바로 여기서 상호어머니는 총을 잡고 달려오는 아들을 한품에 안았다.

《종구나, 상호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쌍둥이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동네에 있을 때보다 더 의젓해지고 해별에 타시 거밋거밋해진 상호의 인사를 받았다. 어느새 경숙이를 비롯한 쌍동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뺨 둘러쌌다.

쌍둥이아버지는 그들속을 자꾸 더듬어보았지만 두 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일이 있느냐, 이 애비가 너희들대신 이렇게 싸움도 같이 하고 춤도 같이 추는데...》

그러며 쌍둥이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가장 감격적인 상봉은 경찰서앞에서 벌어졌다. 유격대에 의하여 감방이 해방되자 직접 쇠고랑을 차고 그 누구보다도 심한 고통과 학대를 받고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그가운데는 유격대원들과 친한 동무들도 있고 함께 손잡고 일하던 동지들도 있어서 경찰서앞마당에서부터 어깨를 그리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까부터 경찰서현판앞에 달려와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철문이 깨뜨리지는것을 살피고있던 칠성이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발견하였다.

《칠성아!》

칠성이어머니는 저도모르는사이 두팔을 번쩍들고 웨치며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수비대와 경찰서 두곳을 기치면서 거의 반년을 두고 놈들의 고문을 받은 칠성은 무척도 수척했지만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를 인차 알아듣고 달려왔다.

《어머니!》

폭동의 물결속에서 만나 시로 힘껏 그리안은 어머니와 아들의 두

불에는 줄줄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문득 칠성이 어머니는 감격에 목이 메여 두팔을 높이 쳐들고 웨쳤다.

《혁명만세!》

칠성이도 군중도 그것을 받아 웨쳤다.

《혁명만세!》 《우리 유격대 만세!》 광장은 만세와 환호소리로 떠나갈듯이 설레었다.

어머니는 성문앞에서부터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수비대 앞 등창의원 앞마당에서 흥그러운 춤판을 한참이나 서서 바라보다가 장거리앞에서 또 걸음을 멈추었다. 해방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로 들끓는 군중속에 섞여 함께 만세를 웨치며 섰노라니 어머니는 마치 지나간 모든 재난과 불행은 한갓 악몽에 불과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현실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설레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또다시 걸음을 옮겨놓았다. 이번 폭동에 얻어맞아 산산이 부서져나간 변화거리를 지나 모목상점앞에 이르니 저앞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갑순이가 한 유격대원의 손을 잡고 달려오는데 그뒤로 영실이, 두척이, 응팔이 등 동네청년들이 뒤따랐다.

어머니는 우뚝 한자리에 못박혀 서버렸다. 어머니는 비로소 자기가 성문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행여나 아들이 나오지 않았는가해서 줄곧 찾으며 걸어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렇게 찾던 아들이 정작 눈앞에 나타나자 어머니는 너무나 뜻밖으로 생각되었으며 그 뜻밖의 일이 생시의 일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원남이는 어머니를 밀어던질것처럼 세찬 기세로 달려오다가 우뚝 멈추어섰다.

《어머니, 오빠예요.》

갑순이는 멍하니 서있는 어머니가 안타까와 곁에 다가와서 소리쳤다.

《이게 누구냐?》

하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어머니, 집니다. 원남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미심쩍은듯 아들의 얼굴을 살살이 뜯어보았다. 어머니가 어찌 아들을 몰라볼것인가? 다만 어머니는 너무나 충격이 컸고 너무나 놀람이 컸다. 그가 떠나보낸 아들은 아직 눈뜨지 못했던 당시의 어머니 기억에 무척도 불쌍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아들이 오늘은 얼마나 뚱뚱하고 썩썩한 모습으로 돌아왔는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가슴을 치는것은 북받치는 감격을 누르며 서있는 원남이의 모습에서 그리운 남편의 모습과 사랑하는 율남이의 귀여운 모습을 한꺼번에 찾아본 것이었다.

《원남아!》

어머니는 울음이라도 터치듯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웨치며 아들을 그리안았다.

《네가 왔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평범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자간을 둘러싼 마을사람들은 그것이 어머니로서는 결코 심상하게 한 말이 아님을 푹푹히 깨달을수 있었다. 남편을 원쑤의 손에 떤우고 아들딸 세 남매를 키우며 피눈물로 세월을 보내온 어머니가 다시금 죽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고 재무지가 흩날렸을 키웠고 오늘의 이 상봉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왔다. 모든것이 다 사듯 어깨에 기관총을 멘 아들이 돌아온것이다. 그렇다! 어머니에게는 아열정으로 실패이고 미래에 대한 화려한 꿈으로 수놓아질것이다. 아들 역시 어머니의 짙막한 한마디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들었다.

《어머니,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하고 원남이는 어루만지듯 그윽한 눈길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정말 훌륭하게 싸우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들의 치하를 받는 어머니

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문득 어머니 눈길에 어리는 가벼운 주저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도 느낀 사람도 별로 없었다. 다만 지나간 세월 어머니와 함께 설음을 나누어온 갑순이만은 지금 어머니가 올남이 생각을 하고있으며 그 소식을 아들에게 진할가말가 망설이고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당분간은 그 말을 안할것이였다. 수만 인민이 피르써 쟁취한 이 환희의 순간만은 아들의 가슴에 새로운 슬픔을 안겨주지 않으리라고 어머니는 또다시 저려오는 가슴의 아픔을 감추며 웃을것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느때인가는 말할것이다. 어머니자신의 슬픔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사람들에게 신성한 복수의 의무를 깨우치기 위하여 원수를 고발할것이였다.… 갑순이는 어머니의 눈에서 이 환희의 순간에조차 사라지지 않는 준엄한 빛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원남에미!》

점점이 둘러싼 사람들의 담장을 헤치고 이런 목소리가 울려왔다. 경찰이 어머니가 누군가의 손목을 잡고 흥분한 얼굴로 무엇인가 웨치며 다가온다.

《이사람아, 누가 왔는가 좀 보라구. 응, 이 사람아.》

어머니는 경찰이 어머니가 잡고 흔드는대로 한팔을 쳐든채 앞을 바라보았다. 김달삼이가 군복을 입고 서있었다.

《아주머니, 나를 모르겠습니까? 배나무골의 김달삼입니다.》

《복실이아버지!》

어머니는 여진히 어린친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복실이애비올시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까? 조동춘동무에게서 대충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찾아 뵈지도 못하고… 너무 무심했습니다.》

달삼이는 진심으로 허리굽혀 인사를 하였다. 군복을 입었을망정 그역시 저긋한 나이의 장정이였고 귀밑에 희뜩희뜩 서리가 지나갔지만 어머니앞에 선 달삼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서 떨리었다.

대차고 경우뵘아 가슴을 쥐여뜰으며 울분의 목소리를 토하다가는 왜놈에게 당한 천대와 모욕이 너무나 분하여 때로는 땅을 치며 울기

조차하던 젊은 시절의 달삼이를 어머니는 잘 안다. 죽은 남편의 단짝 친구이던 그의 뒤시종을 수없이 들어주기도 한 어머니였다. 그를 구하기 위하여 남편은 서슴없이 원수들의 총칼앞에 나섰고 그리하여 남편이 목숨으로써 구원한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복실이아버지!》

어머니는 비로소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웨치며 다가갔다.

《얼마나 속을 태웠습니까? 어디엔가 가서 싸우고있으리라고 말들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니 정말 꿈만 같군요. 우리도...》

어머니는 너무나 북받치는 감격때문에 말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월남이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닌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달삼이 역시 눈을 슴뻛거리며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내가 뭘, 그저 혁명을 해야 살수 있다는것을 깨달았을뿐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속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다가 옆에서 쿨럭거리리는 갑순이를 보고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애, 갑순아, 넌 인사도 안드리느냐?》

《아저씨, 정말 반갑습니다.》

《네가 갑순이로구나.》

달삼이는 놀란 목소리를 지르며 갑순이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네가 우리 복실이와 소꿉을 놀던 일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컸구나. 오빠한테서 얘기를 들었다. 공청원이라지? 이렇게 총까지메고...》

달삼이는 갑순이를 친딸처럼 그러안고 어깨를 두드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그러한 아들딸을 남편의 옛친구앞에 내세워보이는것이 행복하였다.

남편이 없는 지금 자기의 슬픔도 기쁨도 그중 잘 리해해줄 사람은 달삼일것이였다. 어두우면 도가집앞도 지나치기를 겁내하던 어리무리한 촌아낙네가 총을 들고 혁명에 나서기까지 걸어온 그 얽히고서린 사연을 그역시 같은 설음을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선 김달삼이만

은 말없이도 알아줄것이였다.

그러기에 어머니도 달삼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눈에 어리는 그윽한 웃음과 빛갈로써 서로의 가슴에 쌓이는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의 사연을 짐작한다는것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어머니, 아들, 딸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군요.》

달삼이도 대견한듯 원남이와 갑순이를 번갈아 돌아보며 말하였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 그 아들딸이지.》

하고 경천이 어머니가 잠자코 웃는 어머니의 한손을 다정하게 잡아쥐며 말하였다.

《자식들때문에 모진 슬픔을 참으면서 살아오더니...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렇게 다들 만나고... 얼마나 기쁘가. 에이구, 배나무풀의 그 피바다속에서 헤여질 때 갈아서야 다시 만나자고 말은 하면서도 어디 기약이 있더라구... 그런데 이렇게 아들딸 거느리구 다시 옛사람을 만나는구만...》

로인의 말은 눈물과 흐느낌때문에 자주 동강났다. 그 눈물이 오늘의 이 상봉이 가지는 그렇듯 깊은 뜻과 감격을 강조해주는듯 싶었다.

《그런데 을남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까? 그 애도 쫓겠는데...》

문득 달삼이가 우선우선하며 물었다. 원남이의 눈길도 어머니에게로 쏠렸다.

일순 어머니의 낯빛은 질렸다. 미처 딱지도 앓지 못한 생생한 상처에 다시금 선지피가 피여오르는것만 같은 아픔이 가슴을 찼다. 어머니는 비칠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겹겹이 들리싼 군중의 실레임과 떠나갈듯한 환호소리속에서 보인 극히 사소한 움직임에 불과하였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다시한번 가슴의 아픔을 가까스로 누르며 《네.》하고 짧게 대답한 그 진정한 까닭을 알아챈 사람도 갑순이밖에 없었다. 이때 역시 갑순이는 이 기쁜 상봉을 눈물로써 흐리우지 말자는 어머니의 굳세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눈물겨운 경탄속에 느끼었으며 그러한 어머니를 군중속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었다.

갑순이의 소원은 머지않아 이루어졌다. 경찰서앞마당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군중집회가 벌어졌다. 경찰서 돌출계우에 유격대의 선전원들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있었다.

《우리도 저리로 갑시다.》

김달삼이는 어머니를 이끌고 군중속을 헤쳐갔다. 경찰이 어머니도 상동의 청년들도 그뒤를 따랐다.

《윤형보동무는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백동무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

하고 김달삼이는 무엇인가 어쭙은듯 잠시 더듬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조동춘동무가 폭동이 끝나거든 꼭 아주머니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참 사람두, 내가 부탁이 아니더면 아주머니를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달삼이는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한창 연설이 진행되고있는 돌출계우에까지 안내하였다. 마침 유격대원들은 연설을 끝마친듯 흥분에 갈린 목소리로 만세를 선창하였다.

《여보게 원남에미, 임자도 말을 좀 하게나.》

경찰이 어머니가 옆에 다가와 귀전에 대고 소리쳤다.

《왜놈들을 우리 손으로 때려잡고 피맺힌 원한을 푼 이 기쁜 날에 말 좀 하게나.》

두팔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던 달삼이도 그 소리를 얻어듣고 간청하였다.

《아주머니, 말씀 좀 하십시오. 우리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에게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면 훌륭한 선동자료가 될것이라고 조동춘동무도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주머니 이야기를 아주머니대신에 할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달삼이와 경찰이 어머니의 청에 못이겨 돌출계의 북판에 나섰다. 그러나 천히 남의 청에 의해서만 그렇게 바다처럼 선데이는 군중앞에 나선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군중앞에 나서서 연설을 한다는것을 상상도 못해본 어머니였지만 무엇인가 제가슴속에서 태동하고있는 그렇듯 명백하고 그렇듯 소중한 진리를 만사람앞에 터놓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어머니자신의 가슴속에서 머리를 쳐들었다.

흰 치마자락을 저녁바람에 날리며 어머니가 경찰서현관우에 우뚝

높이 솟아오르자 실레이던 군중의 물결은 잠시 멎고 사위는 가뭇 조용해졌다. 노을빛을 받아 기발만이 세차게 필력이였다.

《여러분!》

하고 어머니는 귀밑머리를 쓸어넘기며 입을 벌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박하였으나 난생처음 이런 군중앞에 나선 녀인답지 않게 침착하고 의젓하였다.

《나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올시다. 유격대가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다 풀어준 이 기쁜날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치 기때서 어쩔줄 몰라 이렇게 분수없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감동에 떨리었고 절절한 호소성을 가지고 울려 퍼지였다.

《만세!》

《만세!》

《유격대 만세!》

군중은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듯 일제히 손을 높이 쳐들어 만세를 불렀다. 어머니도 군중앞에 높이 서서 만세를 불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실레이는 군중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경찰이 어머니와 영실이어머니, 귀순이와 북돌이어머니 등 낯익은 얼굴들과 사랑스러운 아들딸, 부녀회원들과 동네청년들 그리고 누대기채로 물러나온 읍남이도래 어린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려보았다.

《나는 왜놈들의 〈토벌〉에 남편을 학살당했습니다. 어제는 귀여운 막내아들을 원수놈들에게 잃었습니다. 원수들은 내 남편을 불에 태워죽였습니다. 열살난 막내아들은 조그마한 가슴에 일곱알이나 총알을 맞고 눈도 감지 못한채 죽었습니다. 아직도 식지 않은 그 어린것의 시체를 내손으로 묻고 여러분과 함께 원수값으러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달삼이와 원남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흠칫 놀랐다. 남편을 잃은 슬픔만 결코 못지않은 새로운 슬픔이 또다시 어머니를 덮었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되는 그들은 그들이 가장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실상은 훨씬 더 참혹한 고통을 당하였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여 어머니는 그 커다란 슬픔을 억세게 디디고

일어서 수리개마냥 혁명의 언덕우에 높이 내려치운랐음을 툭툭히 확인하였다.

《이것이 어찌 나혼자만 당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부모를 여의고 남편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우에 겨레의 불행에 대한 기다란 책임감과 숭엄한 계급적연대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웨쳤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캄캄하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슴은 갈갈이 찢기였지만 우리는 그진날처럼 눈물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지는 않을것입니다. 이 원한을 풀자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총을 들고 원수격멸의 길에 나섰습니다. 내 아들도 유격대에서 싸우고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또 유격대에 들여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길은 혁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는 문득 목소리를 높이며 돌출계앞에 오구구 모여든 혈벗은 을남이또래 어린것들을 한손으로 가리켰다.

《혁명을 해야 잘살수 있고 저 혈벗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새세상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한시도 눈물과 고통을 모르고 꽃같이 활짝 피어나도록 우리는 한걸같이 혁명에 떨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따라갈 때 우리 나라는 독립될것이고 압박받고 친대받던 우리 인민들과 우리 아낙네들은 해방될것입니다. 그 싸움의 나날에 남아있는 내 자식들이 또다시 쓰러질수 있고 내 스스로가 죽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시슴없이 붉은 한마음을 바칠것입니다. 비록 내가 해방되고 독립된 내 나라에서 살지 못한다 해도 불쌍한 우리 인민과 우리의 아낙네들이 남편과 함께 아들딸 거느리고 어엿하게 잘살 그런 앞날이 온다는것이 내 티지고 찢긴이 가슴에 힘을 주고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로동자와 농민, 우리 불쌍한 아낙네들이 불행과 슬픔에 울던 기나긴 밤은 물러갔습니다. 저 펄럭이는 붉은 기발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싸움에 나서서 원수를 쳐눓히고 승리했습니다. 더 큰 승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제촉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제는 슬픔앞에 울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과 한탄으로써는 원수를 갚을수가 없습니다. 내

~~~~~ 불후의 고전적명작 희명인극 《피바다》를 소설로 ~~~~~

가 귀여운 내 자식의 시체를 그리안고 울고만 있었다면 \오늘 이 기쁨을 어찌 맛볼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다시 귀밑머리를 쓸어넘기며 잠시 입을 다물고 서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이 기쁜날에 여러분과 진심으로 나누고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천대받는 우리가 살길은 혁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해야 원수를 갚고 나라를 찾을수 있으며 장차 잘살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유격대가 총을 들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가고 우리들이 목숨걸고 싸워갈 때 피바다에 잠긴 우리 나라는 반드시 독립될것이며 광복의 새 아침은 밝아올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을 합시다. 혁명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어머니는 문득 말을 끊었다. 그러자 숨가쁘게 어머니를 지켜보던 수만 군중이 한꺼번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어머니를 향해 부채살마냥 모여들었다.

《혁명 만세!》

《항일유격대 만세!》

《모두 총을 들고 일어나 왜놈들을 치자!》

이런 구호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돌총계에서 내려와 낮익은 사람들름에 끼였으나 군중은 그냥 어머니를 향해 만세를 부르며 일광적인 환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유격대는 새벽에 성시를 철수하여 상동을 거쳐 밀림으로 행군해 갔다.

동티오는 새벽에 어머니는 언젠가 만아들 원난이를 유격대로 배웅하던 살구산거슥의 그 언덕에 서서 손을 들어 흔들었다.

오늘은 딸 갑순이와 언젠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영실이, 그리고 두혁이, 칠성이 등 마을청년들이 만아들과 함께 유격대로 떠나가는 것이었다. 어머니뒤에는 경철이 어머니며 영실이 어머니 등 마을사람들이 따라서서 손을 흔들었다.

멀어져가는 대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에 연분홍빛 아침노을이 붉게 비졌다. 아침노을은 더욱 진하게 번져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발돋움해도 더는 아들딸의 모습을 바라

볼수 없었다. 달삼이도 원남이도 갑순이도 영실이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들었으나 어머니의 눈에는 그지 새 군복을 해입은 푸른 점들이 아물거릴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참고 참아오던 눈물이 기쁨과 함께 동을 넘어와 자꾸만 눈앞을 흐리놓는 것이었다. 다만 어머니는 보라빛으로 아롱진 눈물방울을 거쳐 아득히 미래에로 떨어있는 드넓은 길— 혁명의 길을 뚜렷이 내다볼뿐이었다.

### △ 어휘 및 표현

- 아지트. 지하공작을 할 때에 비밀리에 자리잡은 곳
- 복마진. 악마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 또는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며내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
- 선불질을 하다. 서투르게 종질을 하다.
- 굴쟁이. (지난날에) 탄광, 광산 등 땅굴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비껴이르는 말.
- 허깨비. 생각한것보다 아주 무게가 가벼운 물건.
- 문중. 같은 성과 같은 분을 가진 가까운 집안.
- 단팍친구. 뜻이 맞거나 손이 맞아 형상 같이 어울리는 가까운 벗.
- 조직에 흡수하다. 조직에 끼어들이다.
- 끔직한 비보. 전지리가 나도록 몹시 참혹한 슬픈 기별이나 소식.
- 열기띤 흥분. 뜨거운 기운이 이터있는 흥분.
- 각개격파하다. 희망을 분산시켜 하나하나씩 쳐부시다.
- 물샬틈(이)없다. (조직한 일이) 조금도 빈틈이 없다.
- 서슬이 푸르다. 당장 무슨 큰변을 낼듯이 기세가 등등하다.
- 살기등등하다. 두살스러운 기운이나 사납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잔뜩 흐르다.
- 피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슬픔과 고통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꽃피는  
 처녀》 발취

9

꽃분이는 캄캄한 광바닥에 어푸러져있다. 그는 이따금 꿈지럭꿈지럭 몸을 움직인다. 간신히 얼굴을 모로 젖히고 맞은편의 무엇인가를 노려보며 천근무게나 실린듯한 몸을 간신히 한치한치 끌어 필사적으로 기고있었다. 화들화들 떨리는 손을 머리맡에 뻗치며 손가락을 갈퀴살처럼 땅바닥에 세운 다음 입술을 깨물고 몸을 이리저리 뒤틀고 모대기며 앞으로 당긴다. 한번 죽을 힘을 다하여 그리당겨야 겨우 한 뿔가량 앞으로 나가나마나하다.

그리고는 기진하여 헐떡거리며 번쩍거리는 눈을 쳐들고 맞은편 어둡추를 뚫어지게 쓰아본다.

광구석쪽에 희끄무레 떠오르는것은 집시, 사발 등 제물 바치는 목기를 엮어둔 층층 울러맨 선반이었다.

저기까지 기껏해야 너덧발자국이다. 아까 저녁에 배가너편네가 들어와서 끄덩이를 내두르고 발로 치리밟고 한바탕 발광을 하고 들어간 뒤부터 줄곧 기는것이 아직도 두발자국나마 남았다.

기둥을 붙잡으면 어떻게든 깨달리시 신반우에 기여오를수 있을것 같다. 선반 제일 꼭대기층에만 기여오르면 담벽 높은곳에 뚫린 공기창구멍에 닿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모양을 해자치고는 기둥에도 가닿기전에 숨이 넘어가든지 정신을 잃을것만 같았다.

그는 질망에 흐려진 눈으로 창구멍을 쳐다보았다. 달빛인지 별빛인지 푸릿한 먼지같은것이 새여드는 창구멍은 먼 허공중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득해보이기만 한다.

그의 입술이 터지고 이세에서 피가 흐르는것은 다만 배가년놈들한테 맞아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 광속에 갇혀있는 이들동안 줄곧 이발을 갈고 입술을 깨물며 북받치는 통분을 삭여왔다.

년놈들의 면전에 나타나서 순회물 내놓으라고 들이댄것이 어리석었다. 한밤중에 칼을 품고 들어가서 년놈들을 찢어죽이든지 년놈들이 자는 방에 불을 쬐지르든지 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렇게 하고는 저도 그 불속에 뛰어들어 미련없이 지주로운 세상을 등지는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 내 혈육 내 가족을 말끔히 죽여버린 저 원썩놈이 눈이 시피대시 살아있는 꼴을 뵈히 보면서 죽는구나 생각할 때 질로 이발이 갈리고 입술이 깨물어지는 꼴분이였다.

저녁에 배가년편네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손모가지라도 물어 뜯으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오히려 반죽음이 되어 정신을 잃어버렸다.

한참후에 깨어났을 때 눈에 뻔것이 담벽높이 뚫린 창구멍으로 흘러드는 푸른 달빛이였다. 그때부터 기였다. 저 창구멍으로 기여나가 기만 하면 불을 지르든지 칼부림을 하든지 년놈들과 사생결단을 낼수 있다는 불같은 생각이 반죽음된 그의 팔다리에 기운을 주어 지금까지 기여온것이다.

절망에 흐려진 눈으로 창구멍을 쳐다보던 꽃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흔들었다. 내 기지는 죽지 않을테다! 그의 눈굽에 번쩍 불빛이 지나갔다. 그는 다시 손톱끝으로 땅을 히비고 온몸을 꿈지럭거리며 기기 시작하였다.

한참만에 꽃분이는 선반기둥을 붙잡았다. 붙잡은 기둥을 쳐다보며 그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었다. 푸른 달빛 새어드는 창구멍이 바로 머리우에 있었던것이다.

합성이 터지고 집이라도 무너지는듯 우지끈 광광 부서지는 소동이 일어난것은 바로 이때였다.

소스라쳐놀란 그는 기둥을 잡은 손에 죽을 힘을 다 모으며 일어나았다.

웬일일가? 아까 배가년편네가 감옥소에 콩밥 먹으러 가는줄 알고 발을 구르더니 벌써 나 잡으러 오는것일가? 그런데 나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술한 사람이 달려들어올가?...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아우성소리는 더욱 커지고 쿵쿵 쿵당 쿵당 발자국소리가 집채를 흔드는것 같다.

발자국소리가 광쪽으로 다가온다.

꽃분이는 기겁하여 기둥을 잡고 일어서려 하였으나 채 서지 못하고 땅우에 도로 무너져내렸다.

덜컹덜컹 팡문을 미당기는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쩡쩡 쇠통을 부시는 메질소리...

꽃분이는 몸을 웅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사나운 눈길로 팡문쪽을 쓰아보았다. 어떤 녀놈이든지 들어오기만 해라. 달려들어 모가지라도 물고 늘어지리라! 도사리고 앉은 꽃분이의 눈굽에 사나운 빛이 번쩍거렸다.

갑자기 광안으로 눈부신 불뿔치가 튀어들었다.

《꽃분아—》

부르짖는 아낙네의 목소리, 활활 불꽃을 튕기며 타는 화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는것이 없는데 또 부른다.

《꽃분아, 어디 있니? 에 꽃분아—》

아니 지게 누구야?! 영란 엄마 목소리!... 선반기둥에 의지하여 반쯤 몸을 일으킨 꽃분이는 이리저리 휘휘 저으며, 다가오는 화불을 바라볼뿐이었다.

《여기 있구나! 꽃분아!》

오빠오빠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불빛이 눈부시여 보이지 않는다.

《꽃분아—》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불빛앞으로 한 아낙네가 뛰어나왔다. 그는 덩석 꽃분이를 부둥켜안았다. 꽃분이는 아직도 얼이 빠져 멍청하니 영란 엄마를 쳐다본다.

《살았구나. 네가 살았어! 꽃분아, 정신차려라. 네 오빠가, 오빠가 왔다!》

《오빠가요?...》

꽃분이의 눈동자는 아직 한자리에 멍청하니 떠있다.

《응, 오빠가 살아서 돌아왔단다. 자. 어서 나가자!》

영란 엄마는 꽃분이의 겨드랑미를 안아일으키었다. 그러나 꽃분

이는 축 처진채 고개만 가로 흔들었다.

《오빠는 감옥소에서…돌아가셨어요…》

영란 엄마는 안타까운듯 꽃분이를 잡아흔들었다.

《애 정신을 차려, 네 오빠가 살아왔다는데두. 저기 마당에 있다. 그리구 순희두, 순희두 찾았다!》

《예? 순희두요…》

그제야 꽃분이는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영란 엄마의 팔에 의지하여 꽃분이는 일어섰다. 뒤따라 들어온 한 처녀가 꽃분이의 다른편 저드랑이에 팔을 끼었다. 꽃분이는 두사람에게 끌려 비칠비칠 마당으로 나갔다.

광앞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웅성거린다. 여러 개의 댕분이 마당을 환하게 밝혔다. 대문을 까부셨을 때 오재가 마을아낙네들과 처녀들 앞장에 서서 곧바로 꽃분이를 구원하러 달려온것이다.

두 녀인에게 부축되어 휘청휘청 걸어나가던 꽃분이는 갑자기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안마당인가 후원인가 어디서 와와 함성소리가 터져오른다. 몸체의 고래등같은 기와지붕우에 불빛이 원하게 어리어 있다. 발자국소리, 우지끈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가 없다. 꽃분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멍청하니 서있었다.

《언니야—언니 어디 있니—》

문득 들려오는 쟁쟁한 부르짖음소리였다. 꽃분이는 흠칫 몸을 떨며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둘러선 아낙네들 틈을 헤집고 두 소녀가 튀어나왔다. 영란이와 순희였다. 아낙네들앞에 나선 영란이는 순희의 손목을 잡은채 두리번두리번 사람들을 살피는데 순희는 안타까운듯 한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계속 부르짖는다.

《언니야—우리 언니 어디 있어요—》

영란이가 꽃분이를 보았다.

《순희야, 너의 언니 있다.—꽃분언니—》

영란이는 부르짖으며 순희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어디? 언니야—》

허공을 휘저으며 허둥지둥 달려나오던 순희가 갑자기 발부리를 걸 채었는지 어두러질듯 비칠거렸다.

《앗!》

꽃분이는 그제야 의미소리들을 지르며 부축한 아낙네들의 몸을 떠밀치고 마주달리나갔다.

《순희야—》

꽃분이는 넘어지려는 순희의 몸을 부둥켜안으며 목놓아 부르짖었다.

《언니야—》

순희는 가는 팔로 언니의 목을 덥석 감아안더니 영영 소리쳐운다. 목을 감았던 손을 풀고 언니의 얼굴을 더듬고 가슴도 쓸어보고 손목도 만져보며

《언니야—언니야—》

그냥 소리쳐 울기만 한다.

《순희야, 네가 어떻게 살아났니? 이제 꿈이냐? 네가... 어떻게 응?...》

꽃분이는 순희의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들여다보며, 불을 마주 비비며, 또 가슴에 짝 그리안으며 종시 생시의 일로 믿어지지 않는지 종잡을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꿈 아냐! 언니야, 오빠가 왔다. 오빠가 나 데리구 왔어!》

《오빠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무슨 오빠가 왔단말이냐? 우리 오빠는 지기 감옥소에서...》

《아니야, 오빠가 마을사람들하구 주사네 집 막 쳐들어왔어. 가차 언니야, 오빠한테!》

《오빠가 어디 있게?》

《저기! 막 소리치지 않디. 오빠 저기 지주 잡으러 갔어. 우리두 어서 가차.》

순희는 아직도 일쁜 표정으로 서있는 꽃분이가 안타까운듯 발을 구르며 손목을 잡아끌었다.

《꽃분아, 어서 가자. 너 오빠한테!》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영란 엄마가 다시 다가와서 꽃분이의 어깨를 부축하여주며 타일렀다.

꽃분이는 꿈에나 실린듯 순희에게 끌리고 마을아낙네들에게 응위 되어 허둥허둥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안마당에 들어섰으나 행행그렁 빈 마당에는 몸채마루의 유리덧문
짝들이 깨어져 나뒹굴었다. 함성소리는 뒤마당에서 오르고있었다.

아낙네들은 곧바로 부엌칸을 꿰질러 뒤마당으로 나갔다. 부엌 뒤
문을 열고 후원으로 나서던 꽃분이는 우뚝 그 자리에 멈추어섰다. 널
직한 후원마당에는 너무도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손에손에 쾌불망치며 말장과 쟁기들을 든 마을사람들이 마당에
꽈 들어왔다. 수백명도 넘을것 같은 사람들이 눈을 번쩍거리며 뒤마
당-원편구석에 있는 장독대쪽으로 죄어들어가고있었다. 맨앞에 낮익
은 성삼이며 쌍둥이 같은 동네 청년들이 불망치와 쟁기들을 쳐들고
죄어들어간다. 웬일인지 함성소리는 멎었다. 성삼오빠의 손에는 시퍼
런 날이 번쩍거리는 도끼가 쥐여졌다. 그의 눈에서 도끼날보다 더 무
서운 빛이 번쩍거렸다. 성삼이옆에 도끼거리 부두인부들이 쓰는것 같
은 채양이 달린 둥그런 모자를 눌러쓴 큰저고리차림의 낮신 청년이
쾌불을 들고 섰다. 누굴가?...

꽃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장독대쪽에서 버럭 고향소리
가 터졌다.

《이놈들아, 이 불한당같은놈들아, 썩 물러가지 못해? 안물러나면
쓸태다!》

《아—》

꽃분이는 저도모르게 입안의 소리를 질렀다.

장독대뒤로 돌아간 높은 담장에 바지저고리바람의 배가늠과 검정
제복을 입은 순사놈이 등을 불이고 서있었다.

순사놈이 죄어드는 군중을 맞받아 내뺨친 팔끝에는 번쩍거리는
권총이 쥐여져있었다. 그옆에 줍 뒤로 처져서 배가늠이 엉겨주춤 사
냥총을 내뺨치고 서서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호령은 순사놈이 친게
늘러버릴듯 한길음두길음 죄어들어갔다.

《이놈들아, 멸살을 하고싶으나!》

순사놈이 큰 아가리를 적 벌리고 미친듯 부르짖었다. 동시에 광
하고 총소리가 터졌다. 사나운 쇠소리가 머리우를 가르며 지나갔다.
마을사람들이 일시에 흠뻑하며 그 자리에 멈추어섰다.

《죽고싶지 않으면 물러가라 썩!》

기세가 오른 순사놈이 발로 땅을 구르며 한걸음 더 나서서 총부리를 내댄다.

《저놈 처라—》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성삼이가 도끼를 번쩍 추겨들며 뛰어나갔다. 순사놈의 눈이 번쩍 살기를 뿜더니 총구가 그리로 휙 돌아갔다.

그 찰나였다. 누군가 마을사람들속에서 비호같이 뛰어나가더니 성삼이앞을 가로막아서면서 피춤에 짚렸던 오른팔을 순사놈쪽으로 쪽내뿜었다. 그의 손끝에서 불줄기가 병긋 일어나더니 벼락치듯 총소리가 터졌다.

《억!》

총부리를 돌리던 순사놈이 끈두벌레처럼 번쩍 허리를 뒤로 젖히며 허공을 안고 허우적거리더니 쿵하고 통나무 들리우듯 나가자빠졌다. 순사를 쫓아온 것은 부두인부들의 모자같은것을 쓴 낯선 청년이었다.

《으아—》

그 시술에 혼비백산한 배가가 겨누었던 총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았다.

《칠용이다, 너의 오빠다!》

영란 어머니가 꽃분이에게 속삭이였다.

《예?!》

꽃분이는 눈이 둥그래졌다. 그는 몇걸음 걸어나가며 총을 청년을 살피보았다. 그러나, 오빠의 모색을 알아볼수 없었다. 뒤편에 그늘진 옆얼굴만 보이는것이 안타까와 못견디겠다.

《영란 엄마, 우리 오빠가 총쫓나요?》

순희가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그렇단다.》

《주사놈을 죽였나요?》

《아니 순사놈을 쫓죽였다. 주사놈은 네 오빠 총소리에 놀라 주저앉아서 눈깔이 희뜩 번져졌다. 아니 저놈이, 도망가려구!...》

주저앉았던 배가가 갑자기 벌떡 뛰여일어나더니 담장머리에 두손을 걸치고 매달려 버둥버둥 기어오른다.

《저놈 도망친다!》

《잡아라—》

마을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우르르 밀려나갔다. 그러나 그때 벌써 철용이가 달려나가더니 담장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버드럭거리는 배가의 뒤덜미를 잡아나꾸채었다. 높은 악소리를 지르며 땅우에 나딩글어졌다.

《이놈아, 네가 어디로 도망가? 대가리를 쳐들어라! 네앞에 누가

서있는지 네 눈으로 보란말이야!》
뒤따라 달려간 성삼이가 배가의 멱살을 움켜쥐고 일으켜 철용이 앞에 마주 세웠다. 열결에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철용이의 얼굴을 쳐다보던 배가의 눈이 뚱그라졌다.

《아니 너 철용이 아니냐! 야, 나를 살려다우. 내가 너를 키워준 배주사야. 네가 내 집에 불을 지르구 잡히잖지만 그래두 난 네 에미와 동생들을 돌봐줬는데 이럴 법이 있느냐? 제발 날 살려다우!》

배가는 무릎걸음으로 다가들어 철용이의 다리를 두팔로 그리안고 쳐다보며 애걸하였다. 배가를 굽어보는 철용이의 눈에는 분노라기보다 차거운 경멸의 빛이 흐르고있다.

《더러운 사람백정같은놈! 네 목숨은 내 손에가 아니라 여기 모인 마을사람들에게 달렸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반역하고 온 마을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네놈의 죄를 여기 모인 마을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철용이는 더러운 벌레라도 떨어버리듯 반길로 배가를 떠밀쳐버리더니 둘러선 군중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꽃분이는 뒤통에 환하게 비친 오빠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언제나 귀에 삼삼하던 오빠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도 들었다.

《오빠!》

부르짖었으나 어찌선가 목소리가 터져나가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을 헤치며 허둥지둥 걸어나갔다.

동시에 마을사람들의 함성이 다시 터졌다.

《저놈 죽쳐라—》

《죽여라—》

마을사람들은 아우성치며 배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꽃분이는 마을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함성소리도 들리지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

않았다. 후원담장앞에 우뚝 서있는 오빠의 모습을 눈에서 잃지 않으려고 안타깝게 목을 빼들고 드밀리는 마을사람들을 헤치었다. 꽃분이는 이리 밀리고 지리 밀리며 제자리 헤엄치듯 허우적거릴뿐 좀체로 오빠가까이에 다가갈수 없었다. 그는 안타깝게 두팔을 내두르며 오빠를 부르나 그 목소리역시 아우성소리에 삼켜져 오빠의 귀에 가닿지 않는다.

차츰 아우성소리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배가늠을 끌장넨 모양이었다.

《오빠—》

목청껏 부르짖는 꽃분이의 목소리가 비로소 사람들의 머리우로 짹짹하게 울리었다.

철용이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를 났은 큰 눈, 그 눈길이 세차게 번쩍거리며 다급하게 여기저기를 더듬어 돌아간다.

꽃분이를 막아서서 붐비던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다.

《오빠!》

꽃분이는 부르짖으며 달려갔다. 달리는 그의 앞에 길이 쪽 열린다. 큰지고리차림의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버티고 서서 달려오는 꽃분이를 바라본다.

《꽃분아—》

철용이 떨리는 소리로 부르며 마주 달려왔다.

꽃분이는 오빠의 넓은 품에 온몸을 내던졌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꽃분이의 어깨는 세차게 들먹거렸다. 철용은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키며 가슴을 떠밀어넘길듯이 파고들며 이리 비비고 저리 모태기는 꽃분이의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짹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시울사이를 비수로 뿌지듯 아프게 가르며 뜨거운 눈물줄기가 새어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오빠…》

꽃분이 문득 품에 묻었던 얼굴을 쳐들었다. 철용은, 두손으로 여위고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된 동생의 얼굴을 꼭 싸쥐고 굽어보았다. 눈물에 얼룩진 그 얼굴이, 그 애절하게 불타는 눈길, 파들파들 떨리는 부르튼 입술이 철용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내는듯싶었다.

《인제야 인제야 오셨어요…어머니는…기다리다 기다리다 끝내…》

중얼거리던 꽃분이 말끝을 맺지 못하고 다시 오빠의 품에 머리를 묻고 안타깝게 비벼대며 영영 소리쳐 울기 시작하였다. 때마디 솟은 누이의 작은 어깨를 가슴에 짊 품안은 철용은 창자가 끊어져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안다, 알아...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며 눈인들 감으셨겠니... 못난 자식은 생전에 미음 한술가락 대접 못하구... 시신에나마 따뜻한 천오리 한조각 감아드리지 못하구... 너 혼자서 순회를 데리구 얼마 얼마 나...》

두서없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철용의 목메인 소리에서는 통곡보다 절통한 사나이의 가슴찢기는 아픔이 울리었다. 어두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눈을 감은 철용의 눈굽에 맺힌 굵은 눈물방울은 불빛이 어리어 빨간 피방울같이 보였다. 둘러선 사람들도 모두 눈굽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오빠야—》

순희의 부르짖음소리가 들렸다. 영란 어머니가 순희의 손목을 잡고 다가왔다.

《순희야!》

철용은 한팔을 벌려 순희도 꽃분리와 함께 품에 그리안았다. 두 동생을 한품에 안은 철용은 터지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는지 고개를 젓히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이 종종 박힌 검푸른 하늘이 가없이 펼쳐졌다.

새 자매도 울고 마을사람들도 울었다. 온 마당이 너무도 절통하고 비통한 울음을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이윽하여 철용이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애들아, 인제는 눈물을 거두자. 우리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생전에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부모님 못만난 탓도 아니구 너나 내 탓도 아니다...》

철용이는 들먹거리는 동생들의 어깨를 굽어보았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가 없기때문이란다. 꽃분아, 나라없는,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이렇구나, 나라 없는 망국노의 슬픔이 말이다... 꽃분아, 눈물을 거두고 얼굴을 들어라. 여기 간난이틀 잃은 성삼이네랑 땅을 떼우고 저기 느티나무에 목을 맨 아래말 할아버지네랑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를 소설로~~~~~

불쌍한 우리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느냐!...》

철용이는 꽃분이의 어깨를 흔들며 이렇게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세 남매를 겹겹이 에워싸고있는 수백 명 마을사람들을 쪽 둘러보았다.

여기지기 높이 추겨올린 화살들이 검푸른 밤하늘에 불꽃을 날리며 환환 새차게 타번진다. 그 불빛에 비쳐 굴곡과 명암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눈빛이 유난히 번쩍거리는 낮익고 그림던 마을사람들의 얼굴들을 철용은 인제야 한사람 한사람 여겨보았다. 양지산물짜기에 묻혀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와 다름없이 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6년진보다 더 늙고 초췌해진 마을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얼굴이 있다. 어려서 함께 뛰놀던 성삼이와 오재를 비롯 마을의 청년들과 처녀들, 그리고 낮선 어린것들... 겨우 몸을 가리운 람투한 옷과 여윈 얼굴들, 가난과 학대, 설움과 고통을 평생 운명의 멍에처럼 지고 살아가는 내 고향사람들의 모습이 눈뿌리에 따갑다.

그렇지만 오늘밤 그들의 눈은 류달리 빛나고있었다. 금방 원썹놈들을 요정낸 그들의 눈은 아직도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번들거린다. 무엇인가 더 바라는데, 갈망하는듯 불타는 눈길들이 철용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있었다. 한평생 굴종에 습관되어온 황령감의 쪼그라든 얼굴도 철용에게 정기 흐르는 시선을 보내고있다. 해를 두고 익혀온 혁명이라는 두 글자의 참다운 뜻을 오늘 고향사람들의 얼굴에서 비로소 느끼고 바라보는듯싶은 막대한 감격을 억제할수 없었다. 갑자기 뜨거운 밀물같은것이 철용의 한가슴 가득 밀려 올라온다. 그는 저도모르게 한걸음 나서며 부르짖었다.

《여러분!》

가슴사무치는 뜨거운 정을 담아 이렇게 부르며 마을사람들을 둘러보기는 하였으나 너무도 절절하고 가득한 가슴속의 말을 풀어낼 실머리를 찾지 못한다.

그는 북받치는 가슴을 누르며 조용히 그러나 절절한 어조로 말을 시작하였다.

《이 세상을 만들어놓은것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못할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마

을사람들, 우리 가난한 농군들은 때마디도 여물지 않은 어린시절부터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어느 하루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을 흘리며 땅을 허비고 씨앗을 묻고 김을 매어 여문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평생을 험빛은 몸에 주린 배를 부둥켜안고 마소처럼 짓밟혀 살아갑니다. 저 우리의 불쌍한 어린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저 어린것들에게 이제 한번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혀본적이 있습니까?…»

철용은 맨 앞줄에 울망줄망 물켜서있는 동네 조부레기들을 가리켰다. 마을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쪽으로 쏠렸다. 눈만 땡그란 여윈 얼굴들, 토스페로 기운 경충한 잠뱅이밑에 시뻘강게 드러난 때마디 빼여진 가는 정갱이들, 아이들은 짚신 신은 맨발을 구르면서도 철용이 무슨 일로 자기들을 가리키는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고있었다.

철용의 손길을 따라 험빛고 굶주린 제자식들의 불쌍한 몸뚱이를 바라보는 마을사람들은 오늘 비로소 저들의 치참한 운명, 짓밟힌 원통한 삶을 제눈으로 보는듯싶은 새삼스러운 표정들이었다.

처음보다 격해진 철용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땅, 우리의 세상이 없기때문입니다. 저 날백정같은 왜놈들한테 내 나라 내 강토를 빼앗기고 그놈들과 한통속이 된 배가와 같은 지주놈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지 기름진 양지마을앞벌의 논과 밭을 빼앗겼기때문입니다!》

철용의 쪽 펄친 팔은 멀리 양지마을앞에 트인 밤하늘을 가리켰다. 마을사람들의 불타는 시선들이 그쪽으로 쏠린다.

철용은 부르친 주먹을 내두르며 웨치었다.

《빼앗긴 내 나라와 우리의 세상을 찾아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천천의 원쑤 왜놈들을 때려부셔야 합니다! 저 인간백정 지주, 자본가놈들을 말끔히 이 세상에서 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양지마을에, 삼천리강산에 우리들의 새세상 새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앉아서 왜놈들과 지주놈들의 발굽에 밟혀 죽지 말고 일어나서 사생결단 싸웁시다.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오늘 순식간에 저 무서운 왜놈순사와 배가년놈들을 요정낼수 있었습니까?》

철용은 손을 높이 쳐들어 왜놈순사와 지주년놈들이 너부러져있는

마당구석쪽을 가리켰다.

《온 마을이 한덩어리가 되어 들고일어났기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먹이고 입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동자, 농민들, 우리 인민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사람같이 들고일어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바로세워놓을수 있는것입니다!...》

격동된 짚옹은 얼굴도 눈도 불타는듯 번쩍거렸다.

꽃분이는 순희의 어깨를 꼭 껴안은채 꿈을 꾸는듯 오빠의 연설하는 모습을 쳐다보고있었다. 정말 이것이 꿈이 아닌지 모르겠다. 감옥에서 죽었다던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툼툼하게 살아서 그것도 혁명가가 되어 돌아 오다니, 온 마을사람들앞에서 연설을 하다니!...생시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꿈속의 꿈이었다.

격동된 오빠는 갑자기 두리번거리며 앞에 바투 다가시있는 동네 조무래기들을 살펴보더니 문득 그가운데서 제일 작은 총각아이 하나를 뉘큼 안아올렸다. 아래마을 오찌네 막내동생이다. 코물이 피죄죄한 얼굴, 소매도 발고 바지도 짧아서 시퍼렇게 언 손목과 정깡이가 다 드러났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은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먹을것을 주고 입을것을 주고 책을 주고 빼앗긴 내 나라를 찾아주기 위하여, 지주 없고 자본가 없고 압박과 착취 없는 새세상, 우리 조선인민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살아갈 새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믿는것은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인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혁명군을 도와나서야 합니다...》

꽃분이는 눈길을 돌려 마을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뽕팽이를 세우고 신 영란 아버지, 아직도 도끼를 손에 움켜쥔채로 버티고 서있는 키 큰 심삼이, 굵직한 말장을 세우고 신 오찌, 뿔불을 치든 황로인, 오빠를 쳐다보는 수백명 마을사람들의 얼굴은 예전의 굴욕과 인종에 습관되어 실음과 절망에 굳어졌던 그 표정들이 아니다. 불타는 얼굴, 빛나는 눈동자들, 힘과 자신을 가지고 새세상을 바라보는 새사람들이었다.

꽃분이는 갑자기 눈곱이 뜨거워졌다. 실음도 아니고 기쁨만도 아

넌 벅찬 눈물이었다.

언젠가 꽃팔리 갔다온 저녁에 순희와 함께 앉아누운 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드리면서 장거리 당책로인한테 들은 귀인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났다. 귀인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고 오빠를 돌아오게 하고 순희의 눈을 띄워주고 꽃분이일가를 구원해 주리라 하였다.

그러나 오빠는 귀인이 아니라 혁명군이 되어 혁명의 총을 잡고 돌아왔다. 오빠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 오빠처럼 혁명군을 따라서 혁명을 해야 새세상 만들고 잘살리란다. 혁명이라는것을 하여 우리 세상 만들던 우리 순희의 눈도 뜰수 있을까?...

꽃분이의 가슴은 부풀어오른다.

《언니야...》

꼭 움켜진 꽃분의 손을 당기며 부르는 순희의 목소리였다. 순희는 보이지 않는 눈을 쳐들고있었다. 가슴이 쟁하게 갈라진다.

《왜 그러니?》

꽃분이는 순희의 어깨를 꼭 잡아당겼다.

《오빠가 무슨 말하나?》

순희는 간절한 표정이다.

《오빠는...》

꽃분이는 뜨거운것이 자꾸 치밀어 올렁거리는 가슴을 잠시 진정시키고나서 순희의 귀에 대고 속삭이었다.

《오빠는 새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다...》

《새세상?》

《그래, 너랑 나랑 오빠랑 그리구 우리 양지말사람들이 모두다 잘사는...》

순희는 오빠 언니도 보고 마을사람들도 다 보고있는 새세상을 저만 못보는것 같았던지 발꿈치를 들고 키돋움하여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밤하늘을 안타깝게 쳐다보고있었다.

갑자기 마당안이 들썩해졌다. 오빠의 연설이 끝난것이다.

《우리도 싸웁시다—》

《조선혁명군을 따라잡시다—》

《가자—》

아우성치며 설레이는 사람들을 헤치고 뒤통을 치든 성삼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더니 쟁쟁 울리는 목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시뻘깁게 단 얼굴, 불꽃튀는 눈동자, 그는 양지마을청년들에게 조선혁명군을 찾아갈것을 호소하고있었다. 손에 총을 잡고 왜놈들과 배가 같은 놈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리자고 웨쳐댄다. 그의 부르짖음은 마디마디 마을사람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가. 제가 되어 무너지는 배가네 집을 보셨으면! 총을 품고 돌아온 오빠의 지름름하고 장한 모습과 오빠를 따라 떨쳐나서는 마을청년들을 보셨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한평생을 짓밟던 이 악착한 세상이 혁명의 불길속에 싸여 허물어지는 이 통쾌한 광경을 보셨으면!...또다시 꽃분이의 눈굽은 저터들었다. 성삼이의 뒤를 따라 오쩌며 정근이며 동네청년들이 연줄연줄 뛰어나와 한마디씩 혁명전에 나서자고 부르짖었다. 길다란 말장대를 든 윤칠할아버지도 굽은 허리를 펴고 나서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청년들에게 총을 잡고 원수들과 사생결단 싸워서 백성들의 사무친 원한을 풀고 새세상을 찾아오라고 절절하게 당부하였다.

배가네 집 본채의 고래등같은 지붕우에 갑자기 불끈 삼단같은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우지끈 소리를 내며 온 집채가 그대로 필적 모으로 무너져내렸다.

*

*

한밤중에 두 동생을 데린 철용은 양지산마루에서 강동무와 몇몇 마을사람들과 작별하였다.

강동무는 철용의 손목을 잡고 말하였다.

《여기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우. 어렵더라도 이 밤으로 구천령 산줄기를 타야겠소. 산줄기를 타고 남쪽으로 100리만 빠지면 참나무 풀 숲막에 닿을게요. 거기 동지들을 만나면 맘놓고 며칠 묵을수 있소. 거기서 날 기다려주오. 동생들 몸조심도 할겸. 내 여기 뒤처리할 하고 따르겠소.》

《알겠소. 강동무!》

철용은 가슴에 가득한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며 강동무의

손을 더 굳게 잡았다.

칠용은 영란 아버지와 어머니, 성삼이, 오깨 등 따라온 마을사람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드렸다.

《척명진에 승리하고 돌아와 다시 뵙겠습니다.》

꽃분이와 순희도 오빠를 따라 인사드렸다.

《잘 싸워 이기고 돌아오게!》

《잘 가거라, 꽃분아!》

《순희야, 너두 몹성히 잘 자라거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세 남매는 길을 떠났다.

종 장

이른봄 석양무렵이다.

뚜리운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산뜻한 봄차림을 한 사람들이 봄비는 향구거리다.

뚜우 뚜 뚜우—

향구쪽에서 훈훈한 봄바람에 실려오는 배고동소리다.

《꽃 사세요, 꽃들 사세요, 진달래꽃, 살구꽃, 복숭아꽃 사세요.》

명랑하고 맑은 목소리가 네거리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부른다.

무슨 약광고며 사람 구하는 광고따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네거리 벽돌집담 밑에 꽃분이 꽃바구니를 안고 서있다. 감장치마 하얀 육양목적삼의 청초한 차림이다. 한겨울동안에 멎히는 속성한듯 의젓하고 아름다워진 꽃분이의 얼굴이다.

안고 선 큰 바구니에 반쯤은 찌고 반쯤은 영근 망울을 단 진달래, 살구꽃, 복숭아꽃들이 담겨져있다. 인제는 몇뭉음 남아있지 않았다.

《꽃 사세요, 빨간 복숭아꽃 사세요.》

네거리 양복을 입고 손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회사나 은행의 사무원들이다. 어깨에 등반이를 댄대고 더덕더덕 기운 로동복에 통각반을 치고 채양 꾸겨진 캅차림을 한 사람들은 테반이 부두에서 집을 싣고 부리는 가대기인부들이다. 그들은 어지러운 보에 싣 밥과 한개물 손에 들고 휘적휘적 지친 걸음을 옮긴다. 모자에 흰줄을 띤

~~~~~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  
학생들도 떼지어 밀려가군한다. 화려하게 몸차림을 한 신사와 숙녀들도 지나간다.

《꽃 사세요, 아름다운 진달래꽃이에요.》

바깥을 꾸무니에 찬 인부차림의 청년 하나가 싱큼싱큼 다가와서 기웃이 꽃바구니를 들여다본다.

《나리꽃은 없소?》

《없어요. 아직 천이 일러요.》

《그럼 빨간 복숭아 한 묶음을 주오.》

《그리세요.》

꽃묶음을 받아든 노동자는 꽃분이에게 힐끔 눈인사를 보내고 돌아간다.

꽃분이는 길 맞은편 하늘을 바라본다. 2층 집 지붕우에 빨간 해가 잠겼다.

까만 학생복차림의 청년 하나가 다가온다. 꽃분이의 얼굴에 반짝이는 빛이 어린다. 학생모자에 단 모표가 석양빛에 번쩍거린다. 항구 거리 중학교 조직의 린락원이었다.

《진달래, 살구꽃, 복숭아 다 한 묶음씩 주시오.》

중학생의 눈인사를 받으며 꽃분이는 바구니속에서 크게 묶은 꽃나무를 여러 묶음 내어준다.

중학생은 짙은 종이돈 한장을 꽃분이에게 쥐여주며 입안의 소리로 속삭인다.

《꽃분동무, 쪽지가 들어있소.》

《알겠어요.》

꽃분이는 짐작하고 천연스레 대답한다.

길가는 사람들속에 끼여 지만치 걸어가는 중학생을 바라보며 꽃분이는 짙막한 안도의 숨을 내쉰다. 기쁨과 보람에 차넘치는 그의 붉게 핀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는 바구니에 담겨 곱게 석양빛이 물든 봄꽃보다도 아름답다.

교향의 읍거리에서 돈을 벌겠다고 갖은 수모를 당하며 꽃을 팔던 어제날의 꽃분이가 아니다. 오빠를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꽃분이다.

《꽃을 사세요!》

땃땃이 불려보는 지금의 이 소리는 땃땃의 돈을 구걸하는 애절한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 땃땃한 부르짖음과 함께 책과 신문들과  
 연락쪽지들이 지 넓은 거리의 구석구석에 퍼져서 술한 사람들의 가슴  
 에 혁명의 붉은 피를 덥혀주고있는것이다.

하루종일 살기 위하여 허덕거린 자취마냥 먼지가 뽀얗게 끼여있  
 는 거리와 하늘에 붉은 노을빛이 더욱 짙어졌다. 어느때가 공포와 불  
 안과 절망에 잠겨서 바라보던 무서운 거리가 지금은 유정하게, 희망  
 차게 바라보인다.

날마다 꽃분이의 손에 <팔리는> 혁명의 붉은 꽃이 이 거리 팔목  
 팔목에 피여날 때에, 온 거리, 온 강산에 그 꽃이 활짝 피여날 때에  
 오빠가 이야기해주던 우리의 세상, 새세상은 오리라고 한다.

그는 꽃바구니를 주머니 옆에 끼고 항구거리쪽으로 툼툼히 걸음  
 을 옮겼다.

꽃분이는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보며 이따금 꽃 사라는 소  
 리를 한마디씩 던지군한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빠가 오늘 꼭 꽃  
 사러 오리라고 일러주던 <특별한 손님> 한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  
 다. <특별한 손님>을 만나보면 깜짝 놀랄거라고 하면서도 오빠는 심  
 술긱게 누구라고 대주지는 않았다.

누굴가?...

꽃분이는 어느 조용한 팔목길어구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나  
 가고 오는 사람을 살피보는데 누군가 앞에서 말을 진다.

<거 파는 꽃이요?>

돌아다보니 수목두루마기차림에 종절모자를 쓰고 짐잡게 코밑수  
 염을 기른 중년남자가 꽃바구니를 기웃이 들여다보고 섰다.

<네.>

꽃분이는 어정정하게 대답하였다. 이 싱거운 물음이 오빠가 대주  
 던 특별한 손님의 첫 암호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거리에서 흔히 보는  
 약국집의원이나 잡화상주인 같은 차림을 한 이 사람이 혁명가라고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얼떨떨해있는 꽃분이를 보고  
 싱긱이 웃으면서 계속하였다.

<빨간 철쭉꽃이 없소?>

다음 암호도 맞는다. 그제야 꽃분이도 정신을 차리고 정색하였다.

<있어요. 집에 가져다 꽃으려던것인데 드리겠어요.>

꽃분이는 바구니 밑창에 따로 감추어두었던 키크쪽뿔뿔음을 꺼냈다.  
《고맙소!》

꽃뿔뿔음을 받아들면서 그 사람은 눈짓까지 쟁긋거리보인다. 정말 별 실없는 사람을 다 보겠다. 문득 꽃분이는 《꽃》을 잘못 판게 아닌가싶은 불안이 생겼다. 그는 호주머니를 뒤집거리는 중년남자를 유심히 살피었다. 호주머니에서 꺼내는것은 암호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일원짜리 지전이었다. 돈을 꺼내던 그는 갑자기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사방을 살피었다. 마침 오가는 사람이 없는것을 확인하자 돈을 꽃분이의 손바닥에 놓았다. 바로 그 순간 《아니!》하는 부르짖음이 입밖에 튀어나오는것을 꽃분이는 찬실히 삼켰다. 웃음기어린 맑은 눈모습이 낮익었다.

《저어...》가슴이 몹시 들먹거리기 시작한 꽃분이는 입을 떼었으나 말을 잇지 못하였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만납시다...》

꽃뿔뿔음을 받아들든 그 사람은 돌아서더니 유유히 걸어갔다.

《아니...》

꽃분이는 한발 따라서다가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의 뒤를 바라였다. 저만침 걸어가던 그가 얼굴을 돌리고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보이더니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꽃분이는 무엇에 홀리운 사람처럼 멍청하니 서서 혼혼한 봄바람에 두두마기자락을 펴터거리며 걸어가는 교학생의 뒤모습을 바라였다. 언젠가 한번 오빠에게 신세진 교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제 쉬이 만나게 될게라구 하였다. 그러니 저 교학생오빠도 혁명군이 된 모양이지!...감쪽같이 는 변장을 했네!...

꽃분이는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가득해지는 가슴을 안고 교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있었다.

일마후에 꽃분이는 항구거리를 향하여 총총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잔과도 밀리는 부두에는 오늘도 크고작은 술한 배들이 매여있다. 가대기인부들이 개미진을 치고 배다리로 짐을 저울리고있다. 그속에 오빠도 있다. 오빠와 함께 가고싶지만 순희가 집에서 기다릴것이다.

바다기슭을 따라 꽃분이는 걸음을 옮긴다. 념실념실 멀기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우에 붉은 노을이 비졌다.

어느때엔가 몸을 던지자던 힘한 파도도 오늘은 익세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꽃분아!》

누군가 뒤에서 부른다.

《아이 오빠!》

캠을 꼭 눌러쓰고 밥곽을 한손에 든 오빠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다.

《웬일이예요. 오늘은 이렇게 일찍?》

기쁨이 넘치 빛나는 꽃분이의 눈동자다.

《너하구 함께 가려구.》

철용이 싱글거리며 다가온다.

《아이 오빠두...》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왔다. 그래 꽃은 다 팔았니?》

꽃분이를 바라보는 철용의 얼굴엔 정이 넘친다.

《다 팔았어요. 근데 오빠, 나두 언제 오빠 한번 품어줄테야!》

꽃분이 갑자기 새침해지며 하는 소리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나를 품어준단말이냐?》

철용은 눈이 둥그래졌다.

《오빠가 날 품어주었으니깐!》

《내가 너를?... 히허허, 너 약장살 만난게로구나.》

꽃분이는 새침한채 오빠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글세 교학생오빠가 저 네거리 의원처럼 번장하구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꽃분이는 교학생이 나타나서 꽃 사가던 이야기들 자세히 하였다.

철용은 다시 짙짙 웃었다.

《그 동무도 고생을 하다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있다. 오늘저녁 상부에서 오는 잡지랑 신문이랑 네가 거리에 가지고 나가 팔<꽃>을 잔뜩 지고 나타날게다.》

《아이 그럼 그 오빠가 상부에 런락갔다왔나요?》

《그럼!》

《야—어쩔!...》

언제 새침했던가싶게 기쁨에 넘치여 환성을 울리는 꽃분이의 일



~~~~~ 불후의 고전적명자 직명가구 《꽃과는 처녀》를 소설로... ~~~~~

줄은 더욱 빛나고 아름답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무슨 그리운 생각을 더듬는듯하던 천용은 계속하였다.

《참 기쁘구나. 고학생뿐만아니라 저 심삼이랑 오죽방 그때 떠나간 양지마을 친구들도 모두 우리 혁명군을 찾아가서 잘 싸우고있구나. 꽃분아, 우리두 여기서 뒤지지 말고 더잘 싸우자!》

《그래요, 오빠!》

힘있게 대답하는 꽃분이의 얼굴에 활짝게 흥조가 피어났다. 노을 비낀 바다는 가없는 수평선우에 한껏 부풀어오른것만 같아보였다. 부풀어오른 바다에는 금물결이 눈부시게 부서지고있다.

아, 모두들 혁명전에 나서서 싸우고있구나!...꽃분이의 가슴도 비차졌다. 저 크고 아름다운 바다보다도 더 크고 희망차고 아름다운 꿈이 꽃분이의 가슴속에 한껏 부풀어올라 과도치 설레이는것 같았다.

《자, 어서 가자. 우리 순희가 기다리고있을텐데...》

오빠가 웃는 얼굴로 돌아보며 재촉하였을 때에야 꽃분이는 꿈속에서 깨어났다.

참 순희한테두 어서 기쁜 소식 알려줘야지!

꽃분이는 바구니를 추슬러 끼고 오빠를 따라잡았다.

남매는 붉은 석양을 등지고 바다가 큰길을 종종히 걸어갔다.

그들은 거리를 벗어나고 들길을 지나 나지막한 언덕을 걸어올라갔다. 언덕우에 한그루 느티나무가 서있다. 양지마을언덕에 서있던 그런 구새떡은 느티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무성하게 펼쳐든 젊은 느티나무다. 갓 돌아난 잔잎을 가뜰 단 가지가 훈훈한 봄바람을 안고 가볍게 설레이는데 나무밑에 노을비낀 하늘을 등지고 작은 그림자가 하나 서있다.

《순희야—》 꽃분이가 목청껏 부르는 소리다.

《순희야—》 천용이도 부른다.

《오빠야— 언니야—》

쟁쟁하고 맑은 순희의 목소리가 화답하여 울려온다.

순희는 오빠의 오른손목과 언니의 왼손목을 잡고 두사람사이에 끼여 언덕길을 사뿐사뿐 가볍게 걸어내려간다.

순희는 노을비낀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부른다.

눈서리와 찬바람이 사납다 해도

봄과 함께 피는 꽃을 어이 막으랴

그 옛날 양지마을에서 꽃분이가 지어지 부르던 처량하고 구슬픈 노래대신에 오빠가 지어준 새 노래다. 오빠와 언니도 낮은 목청으로 소리를 합친다.

은혜로운 태양이 빛을 뿌리니

혁명의 붉은 꽃이 만발해가네

세남매가 걸어가는 언덕길 등성이에 진분홍빛 진달래가 떨기떨기 피었다.

언덕아래 모여앉은 작은 동네에는 그들이 살며 싸우는 차그마한 초가집이 기다리고있었다. 서천하늘에 자주빛노을이 불타고있었다.

△ 어휘 및 표현

- 반죽음이 되다.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르다.
- 불한당. 밝은 사회에서 도덕과 럽치물 모르고 못된 것을 함부로 하는 무리. 또는 《과췌악당이나 군사장폐》를 비기 이르는말.
- 혼비백산. 몹시 놀라거나 혼이 나시 냇을 잃음.
- 절름하다. 때에 사무치게 원통하다.
- 삼단같은 불길. 우로 솟구치기 환환 세차게 타는 불길.
- 멍이 들다. 무엇에 맞거나 세게 부딪치 살갓밑에 피가 물러 끼얹게 되다, 또는 축으로 탈이 생기다.
- 절름한 마음. 때에 사무치게 원통한 마음.
- 명암. 밝음과 어두움.
- 울망졸망. 작고 엇비슷한것들이 많은 모양.
- 조무래기. 《어린 아이》들을 애칭하여 이르는 말.
- 괴죄죄하다. (일꾼생김이나 몸차림이)이지럽고 궁상스럽다.
- 너부러지다. 《죽어넘어지다》의 뜻으로 낮추어 이르는말.

• 아동영화문화 •

나비와 수탉

붉은색바탕에 정중하게 모셔지는 자막

이 영화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1930년대 할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에게 몹소 들려주신 동화집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꽃향기 풍기는데 노랑나비가 꽃을 찾아 팔랑팔랑 날아들면서 《나비》라고 글자를 새깁니다.

그런데 돌연 사나운 수탉놈이 나비를 뒤쫓아 날아들면서 또 《수탉》이라고 씁니다.

그것이 제목으로 소개됩니다.

나비와 수탉

제목이 사라지면 행복한 나비의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꽃나무의 가지마다에는 동산마을에 사는 착한 동무들의 집들이 오붓이 자리잡고있습니다.

꿀단지부터 노랑나비가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은방울꽃 꽃종을 땡땡 두드리며 동무들을 부릅니다.

《애들아, 꿀따러 가자!》

그러자 동산의 집집에서 문들이 발각발각 열리면서 《그래!》, 《가자!》 하고 대답들을 하며 알락나비와 잠자리, 베짚이들이 모두 달려나옵니다.

노랑나비가 알락나비에게 말했습니다.

《알락인 마을을 잘 지켜.》

《응, 잘 갔다와.》

알락인 머리를 끄덕이더니 꿀따러 가는 동무들을 손지어 보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날아간 나비네 동무들은 모두 즐겁게 노래하며 꿀을 빨니다.

아름다운 꽃밭 우리네 일터
 철따라 피는 꽃 방긋 웃지요
 팔랑팔랑 춤추며 꿀떡을 따는
 우리 사는 꽃마을 참말 좋아요

꽃송이를 숙여서 흘려내리는 꿀을 꿀단지에 받는 노랑이와 배짱이.

어느새 노랑나비는 꿀이 가득 담긴 꿀단지문 들고 마을로 날아옵니다.

기쁨에 넘친 알락이는 막 달려가서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는 단지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노랑이는 꿀단지에 노란꽃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날아가더니 이번엔 풀대에 꿀초롱을 주렁이 끼워가지고 잠자리와 함께 맞들고 날아옵니다.

이때 갑자기 세찬 날개 바람소리와 함께 사나운 수탉놈이 마을로 날아듭니다.

《홍, 꿀따는 마을이 좋단구? 어디 두고 보자!》

칭포한 수탉놈은 갈퀴같은 억센 반톱으로 꽃동산의 아름다운 꽃들을 마구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장대에 날아올라 동산마을의 착한 동무들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립니다.

이것을 본 알락이가 이 위급한 정황을 빨리 동무들에게 알려주려고 마구 종을 칩니다.

종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리던 수탉놈은 알락이를 보더니
 《아니 요놈이 에익.》 하고 썩 날아가 알락이를 덮칩니다.

《수탉이다!》 하고 알락이는 소리높이 웨칩니다.

이때 하늘로 날아오던 노랑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알락이가!...》

수탉놈은 알락이를 찾으며 돌아갑니다.

《요놈이 어디에 갔을가?》

수탉놈은 알락이가 숨어있는 바로 그 풀잎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리번거립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입니다.

이때 수탉놈의 앞으로는 노랑이가 날아내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여기 있다!》

그러자 알락이를 찾으며 돌아가던 수탉놈은 이번엔 노랑나비를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풀잎을 꿰뚫고 살같이 빠지면서 노랑나비를 따라가던 수탉놈은 높은 나무가지에 앉은 노랑이를 덮치려고 날아올랐으나 나무가지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져내립니다.

그것을 본 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웁지! 저놈이 날개는 크지만 높이 날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있으면서도 늘 걸어다니었구나!》

그런데 수탉놈은 저혼자 약에 받쳐 두덜댁니다.

《요놈들 어디 두고보자. 흥 내 네놈들을 썬도 없이 없애치우교말테다.》

수탉놈은 허장성세하면서 《꼬끼요!》 하고 목청을 뽐더니 언덕길로 돌아서갑니다.

노랑이는 알락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알락이를 찾아 날아가는 노랑나비.

《알락아! 알락아!》

배짱이와 잠자리도 모두 날아와 알락이를 찾습니다.

애타게 찾으며 돌아가던 노랑이는 풀잎에 앉아있는 알락이를 보았습니다.

《알락아!》

노랑이는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는데 마주오던 알락이가

《아야야!》 하며 다리를 싸쥐며 주저앉습니다.

《아니 너 다치지 않았니?》

노랑이는 달려가 알락이를 부축합니다.

《난 일없어...》

《야 너 정말 큰일날뻔했구나.》

노랑이는 알락이의 다리상처를 쓸어줍니다.

《그런데 수탉놈이 마을을 저렇게 몽땅 짓밟게 놓았어! 후후…》

알락이는 흐느끼며 마을을 가리킵니다.

행복하던 나비네 마을은 온통 수타장이 되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덩굴고 꼴단지 켜져 꼴이 줄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나무는 마구 꺾어지고 꽃잎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노랑이는 주먹을 부르칩니다.

《에익 그놈을 없애야 마음놓고 살겠는데…알락아! 내 당장 날아가 수탉놈을 물리치고 올테야!》

그러자 꽃송이에 올라가 앉은 잠자리가 겁에 질려 노랑이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니… 아니 너 정신있니!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래?》

《뭘?》

그 말을 들은 노랑이는 잠자리를 찾아 날아올라갑니다.

《노랑아…》

《걱정말어, 수탉놈을 두고서는 우리가 편히 살수 없어!》

그러자 잠자리는 더욱 눈이 둥그래지면서 노랑이를 타이릅니다.

《우린 그저 수탉놈을 피하는게 제일이야, 이렇게 높은데 올라가 살면 되지않니?》

그런데 이번엔 풀밑에 들어갔던 베짚이가 기여나오면서 잠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잠자리의 말이 옳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긴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부리가 있니 발톱이 있니? 그러다간 괜히.》

노랑이는 또 베짚이한테로 날아갑니다.

《힘만 가지고 이기는게 아니야! 수탉놈은 날개는 커도 우리만치 날지는 못해. 그래서 난 수탉놈하고 싸움 걸심을 다졌단말이야.》

《아니 그래 정말 수탉놈한테 가겠단말이야?》

베짚이는 기다란 두다리를 와들와들 떨면서 걱정어린 눈으로 노랑이를 쳐다봅니다.

《응, 걱정말어!》

노랑나비는 수탉놈을 찾아서 하늘높이 날아갑니다.

동산의 언덕길

마을을 짓뭇개놓은 수탉놈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인듯 어깨를 으쓱하며 노래하며 갑니다.

나는야 왕이라네 이 동산의 왕
내가 한번 나타나면 모두 떴다네
꽃동산을 짓뭇개여도
와들와들 떨며 못나온다네

수탉놈이 한번 날개를 치자 날개바람에 꽃나무가 막 꺾어질듯 휘청거립니다.

이때 노랑나비가 수탉놈을 찾아옵니다.

노랑나비는 수탉놈의 앞에 있는 꽃송이에 날아내려앉더니 수탉놈을 향해 웅크렸습니다.

《이놈아! 자 나왔다. 어쩔 테냐?》

그말에 수탉놈은 그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응? 요놈이 이 왕앞에서 감히...》

수탉놈은 호통을 쳤습니다.

《뭐 네가 무슨 왕이냐? 넌 이 동산에 기여든 날도적놈이다!》

노랑이가 또다시 수탉놈을 향해 웅크렸습니다.

《찢이?》

성이 똑같이 난 수탉놈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노랑이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노랑이는 살쥍궁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날도적?...》

약이 오른 수탉놈은 날아가는 노랑이를 쫓아서 새매처럼 돌각담도 뛰어넘고 풀숲도 썩썩 화살같이 꿰뚫고 나갑니다.

개울가

한창 노랑나비를 쫓아가던 수탉놈은 개울가에서도 그만 농치고 맙니다.

수탉놈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더니 할수 없는듯 《엎다 그까짓 거...》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뒤에서 야무진 웅크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비겁한놈아! 그래 인젠 도망을쳐?》

돌아다보니 노랑나비가 개울가의 붓꽃우에 앉아있습니다.

《뭐 도망?》

수탉놈은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노랑이를 덮치려고 생 날아올랐다가 그만 《침병》 하고 물속에 떨어져내립니다.

물속에서 놀라 뛰어나온 개구리가 《수탉이 빠졌다!》하고 웨치더니 허리를 싸쥐고 우습다고 깔깔댑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수탉놈은 허투허투 물을 킁으면서 물속에 잠겼다 솟아나더니 입으로 물총을 울려썩니다.

수탉놈은 허우적거리더니 강가의 수렁탕에서 지우지우 한발두발 뿜으면서 기여나옵니다.

그것을 본 노랑이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대로 수탉놈을 돌려보내면 사랑하는 동무들도 아름다운 꽃동산도 또 화물 입겠지.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저놈을 돌려 보낼수 없어!》

노랑이는 강가의 깎아지른 벼랑으로 날아갑니다.

《웁지, 저놈을 이 벼랑에 끌고오자.》

노랑이는 수탉놈을 벼랑우에서 떨어넣을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한편 마을

수탉놈과 싸우려 떠난 노랑이가 돌아오지 않자 근심에 잠겼던 알락이가 잠자리와 벼짚이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애들아, 아무래도 노랑이를 찾아가 봐야겠어.》

그러더니 알락이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알락아, 우리도 같이 가!》

《같이 가, 알락아.》

벼짚이와 잠자리도 알락이를 따라나섭니다.

개울가

물에 빠져 기진맥진한 수탉놈은 녹초가 되어 쓰러져있습니다.

수탉놈의 머리우를 날아들면서 수탉놈을 벼랑으로 끌고갈 생각을 하던 노랑이는 또다시 행복한 꽃동산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꽃밭 우리네 일터
칠따라 피는 꽃 방긋 웃지요
팔랑팔랑 춤추며 꿀떡을 따는
우리 사는 꽃마을 참말 좋아요.

노래소리가 나자 수탉놈은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고 노랑이를 걸
눈질해봅니다.

수탉놈은 노랑이를 쫓아다니선 더는 잡을수 없다는것을 깨닫자
이번엔 능청을 부립니다.

《야 넌 어찌면 그렇게도 춤을 잘 추니? 내 어깨가 다 들먹거리
는구나. 히히...그런데 거 가까이 와서 좀 추어보렴.》

머리를 들고 일어난 수탉놈은 인제 따라 다녔는가싶게 노랑이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수탉놈의 속심을 알아차린 노랑이는 일부러 수탉놈에게
속는체하면서 다가들었어요.

《그렇게 춤을 좋아하는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가까이 와서 추
어드릴걸 그랬구나! 그럼 내 춤을 또 한번 보여줄가!》

《그래그래 내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가까이 와서
좀 보여주렴.》

수탉놈은 몸을 배배 꼬며 아양을 떨니다.

노랑이는 대담하게 수탉놈의 변두에 날아가 앉았습니다.

《자 어때, 잘 보여!》

노랑나비의 뜻밖의 행동에 수탉놈은 외팔 놀랐으나 속으로는 여
간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영 잘 보여, 잘 보이구말구! 흐흐... 넌 정말 춤을 잘 추는구나!
야 네가 춤을 추는걸 보니 내가 흥이 다 난다.》

수탉놈은 련속 눈알을 뱅글뱅글 굴리면서 변두우의 노랑이를 울
터다보더니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커다란 날개를 펼쳐들고 춤까지 추기 시작했어요.

날개를 들썩이며 춤추던 수탉놈은 갑자기 두 날개로 머리우의 나
비를 덮치는것이었습니다.

《요놈, 이제야 잡혔지! 응, 으하하하...》

두 날개를 모아 땅에 꼭 눌러짚고 만족해 웃어대는 수탉놈.

어깨를 틀떡이며 한참 웃던 수탉놈은 날개를 쳐들어보았습니다.
노랑이는 또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아니 요놈이 어디루 빠졌어?》

날개를 털며 노랑이를 찾는 수탉놈.

《아니 내 날개에 구멍이 뚫린데는 없는데 요놈이 어디로 빠져나갔을가...》

이때 수탉놈의 꼬리를 타고앉은 노랑이가 웨쳤습니다.

《이놈아! 구멍이 없어도 난 빠져나간단말이야!》

수탉놈은 악에 받쳤습니다.

《깜찍한놈! 내 기어이 네놈을 잡아치우구말테다!》

《흥 날 잡아? 이놈아 어림도 없다! 난 네꼬리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있단말이야!》

노랑이는 수탉놈의 긴 꼬리에 매달려 흔들흔들 그네를 타면서 수탉놈을 굴렸습니다.

약이 오른 수탉놈은 주둥이로 꼬리끝에 앉은 노랑이를 잡아물려고 꿩이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비칠거리며 모재비로 쓰러졌어요.

너부러져 툇떡거리는 수탉놈.

이것을 보던 개구리가 짹짹 웃습니다.

《호호...야 수탉놈이 노랑이한테 녹초가 됐어!》

그러더니 개구리는 수탉놈에게 말했어요.

《인젠 일어나시지요.》

그러자 벌떡 일어나는 수탉놈.

《요것들을 그제!...》

그러는데 노랑이가 두손을 허리에 척 짚고서서 수탉놈에게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너같은놈이 열놈, 백놈 덩벼들어봐라. 어림도 없다 없어!》

그 말을 들은 수탉놈은 노랑이를 어찌지 못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발기발기 발가농구말테다.》

노랑이를 향해 수탉놈은 총알같이 날아올랐습니다.

수탉놈은 기를 쓰고 나비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탉놈은 풀냉쿨에 걸채시 대굴대굴 굴다가도 또다시 일어나고 가시나무 짝지밭에 복이 끼여 털이 다 빠지면서도 또다시 또다시 노랑이를 쫓아갔습니다.

수탉놈은 살같이 날아오르면서 돌담우에 앉은 나비를 덮치다가 그만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바람에 돌에 발을 얻어맞았습니다.

《아이구 다리야!》

비명을 지르며 발을 쳐들고 덜덜 떠는 수탉놈.

악이 받칠대로 받친 수탉놈은 또다시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나비를 쫓아가다가 노랑이가 바위등에 내리앉는 순간 썩 몸을 날려 바위에 가 부딪칩니다.

《아이쿠!》

비명을 지르며 나떨어지는 수탉놈.

노랑이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노랑이를 찾으며 날아오던 알락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앗 노랑이가 잡혔어!》

그러자 뒤따라오던 잠자리, 배짱이도 안타깝게 노랑이를 부들니다.

《노랑아! 노랑아!》

바위에 부딪친 수탉놈은 정신이 핑핑 돌았습니다.

수탉놈의 눈앞에는 수십마리의 노랑이가 환각속에 움직여돌아갑니다.

수탉놈은 앞으로 다가오는 나비 한마리를 덤씩 쫓아물고 마구 짓씹었으나 그것은 나비가 아니라 제놈의 몸에서 빠진 털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수탉놈의 코앞에는 움직여가는 탁월미에서 노랑이가 나오더니 뱀다 달려갑니다.

하늘공중에서 노랑이를 찾으며 돌아가던 알락이, 잠자리, 배짱이가 그것을 보더니 모두 환성을 올립니다.

《살았다! 살았어, 노랑이가 살았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 막 붙잡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수탉놈은 달려가는 노랑이를 보더니 이번엔 립속 날개로

후러치며 따라잡니다.

수탉놈의 역센 날개에 얻어맞은듯 팔락거리는 노랑나비.

노랑이는 겨우겨우 날아갑니다.

알락이가 공중에서 썩 내려와 노랑이를 일으킵니다.

《노랑아 위험해! 빨리 피하자!》

《나는 날지 못해, 날개가 상했어.》

노랑이가 웨칩니다.

《아이 그럼 어떻게 하니?》

알락이는 노랑이를 붙잡고 막 안타까와 어쩔줄 모릅니다.

그런데 노랑이가 수탉놈이 못들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알락아! 수탉놈을 벼랑까지 끌고가자면 상한채해야 해!》

알락이는 모든것을 알아차립니다.

《응 알았어!》

그러더니 더 크게 동무들을 소리치 부릅니다.

《애들아! -노랑이가 상했어!》

알락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수탉놈은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뭘 날개가 상했다구? 요즘 인제야 끝장이지!》

마지막힘을 다해 노랑이를 따라가는 수탉놈.

《빨리 내려와.》

알락이가 급하게 소리치자 하늘에서 잠자리와 베짦이가 날아내뿜
와서 줄줄이 손을 잡고 노랑이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노랑이는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 동무들을 막 뿌리치면서 풀대물
거머취고 수탉놈이 들으라는듯 웨칩니다.

《놓아라 놓아! 이러다간 우린 몽땅 죽는다!》

그런데 베짦이는 노랑이의 손을 잡은 알락이에게 웨칩니다.

《알락아, 노랑이를 단단히 붙잡아! 놓으면 큰일이야!》

《애들아, 날 놓으라는데!...》

노랑이가 또다시 웨칩니다.

착한 동무들은 놓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랑이를 끌고 당
기는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달터오던 수탉놈은 앞에
질벽이 있는것도 모르고 총알처럼 몸을 날려 노랑이를 덮치는 순간
풀대가 휘여들면서 수탉놈은 그만 아찔한 벼랑으로 떨어져내립니다.

《꼬꼬대 꼭꼬! 꼬꼬대 꼭꼬!》

비명을 치르며, 벼랑으로 떨어지는 수탉놈.

착한 동무들은 너무도 기뻐서 막 환성을 울립니다.

천길벼랑으로 떨어져내리던 수탉놈은 그래도 더 살아보겠다고 바위에 매달려 발악하다가 《침병!》 물속에 치박합니다.

《야 수탉이 빠졌다!》

개구리가 물밖으로 뛰어오르면서 환성을 울리더니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물고기들과 함께 수탉놈을 끌고 물속으로 깊이깊이 들어갑니다.

수탉놈을 떨군 벼랑우에서는 노랑이를 불안고 착한 동무들이 막 돌아옵니다.

《노랑아! 정말 잘 싸웠어!》

알락이는 복이며여 말도 잘 못하는데 잠자리는 너무 기뻐 주먹같은 눈물을 푹푹 떨구면서 노랑이에게 말합니다.

《난 네가 꼭 잘못되는줄만 알고 글썄...》

《노랑아,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 알락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짱이도 자책과 감격의 눈물을 떨구면서 노랑이의 날개를 쓸어만집니다.

《노랑아, 어디를 상했니?》

그 말에 노랑이가 깔깔 웃습니다.

《상하진? 그건 수탉놈을 속일 꼬임이었어!》

그제야 잠자리와 배짱이는 《그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노랑이를 붙잡고 깔깔 웃습니다.

동산의 착한 동무들은 수탉놈을 쳐물리친 노랑이를 대견하게 쳐다보며 즐겁게 웃는데 노랑이가 동무들을 둘러보며 힘있게 말합니다.

《에들아! 원수는 꼭 힘으로만 싸워이기는게 아니야! 자기 힘을 믿고 머리를 잘 쓴다면 어떤 원수도 쳐물리칠수 있어!》

《음 알았어!》

노랑이의 말을 듣는 동산의 착한 동무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입니다.

동산의 꽃밭

착한 동무들의 즐거운 노래속에 천송이 만송이로 꽃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피여납니다.

수탉놈이 없어진 꽃동산에 노래소리 더욱 높아갑니다.

노래하자 동무 착한 동무야
우리는야 꽃마을 지켜냈다네
팔랑팔랑 날개는 작고도 작지만
큰날개 가진놈 물리쳤다네

노랑이와 알락이는 춤을 추며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아름다운 꽃밭우를 날아오름
니다.

△ 어휘 및 표현

- 마구 짓궂개버리다. 함부로 몹시 몽개버리다.
- 성이 똑같이 나다. 성이 몹시(데단히)나다.
- 풀리다. 놀리다
- 살같이 날아오르다. 아주 빨리 날아오르다.

•회상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

1933년 초봄 어느날이었다.

아직 날씨는 춥고 두만강에는 얼음이 두터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우리 유격대원들은 두만강 기슭에 있는 양수천자부근의 어느 한 농막앞에서 잠시 휴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농막집마당에서 휴식하기 위하여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집안에서 분명 인기척이 있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주인은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

추운 날씨였으나 어느 누구도 문을 열고 농막안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휴대품을 토방에 내려놓고 마당에서 휴식하기로 하였다. 살을 에일듯이 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행군하던 몸으로 밖에서 휴식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더우기 부상당한 동무를 생각하니 불현듯 더운 집안에 눕히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위한 참된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잊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외투를 벗으시여 친히 부상당한 동무를 덮어주시고는 우리들에게 《추운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하는것보다 운동을 하는것이 더 좋거든...》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도끼를 드시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오셨다. 이렇게 되자 대원들은 모두 그이를 따라나섰다. 어떤 동무들은 집주위의 눈을 치고 마당을 쓸었으며 어떤 동무들은 샴시에 가서 얼음을 까고 물을 길었고 어떤 동무들은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놓고 식사준비를 서둘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때까지 우리 유격대를 대해본 일이 없는 이 농막집 주인은 우리가 마당으로 들어서는것을 보자 일제군경놈들인줄 알고 겁이 나서 집안에 숨어있었다.

그런데 문틈으로 밖을 엿본 그들 부부의 눈에는 의외의 광경이 띄었다. 살을 에이는 추운 날씨건만 대원들이 모두 마당의 눈을 지고 산에 가 나무를 해나가 불을 피우고 마당 한쪽에 쌓아놓은 짚단도 깔지 않고 앉아쉬고있는 광경을 본 그들 부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보다 더 그들을 감동시킨것은 마당에 눕힌 부상당한 대원을 생각하여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며 정성스레 간호를 하고있는 군대들의 지극한 우정이였다. 《아무리 보아도 왜놈의 군대 같지는 않군!》 《글세 무슨 군대일가…저런 군대는 난 처음 보오!…확실히 일본군대는 아니오…》, 《어떻게 한가?…》 이렇게 말하면서 부부는 잠시 망설이 고있었다. 마침 이때 잠에서 깨어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바람에 주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우리가 어떤 군대란것을 알게 된 그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철바들 몰라 당황해하면서 지금까지 품고있던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그리고 안해에게 더운 물을 끓이게 하고는 우리더러 집안으로 들어가자고 옷소매를 당겼다. 그뿐만아니라 그는 얼마 안되는 식량가운데서 강냉이 몇말과 추녀끝에 매달았던 배추시래기까지 아낌없이 내놓는것이였다. 우리는 그 심의만은 고맙다고 치하하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인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담배를 권하셨다. 그리고 이 집은 오랜 농민의 집이 분명한데 어찌서 타 한 마리도 치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에게 털모자 하나 사 의우지 못하느냐고 하시며 가정형편에 대하여 일일이 물으시자 로인은 깊은 한숨을 지으면서 자기의 가난한 생활을 《타고난 팔자》로 돌리는 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이 로인의 생활과 고생에 대하여 한집안식구처럼 걱정하시면서 조중인민이 할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사는것이 《타고난 팔자》 탓이 아니라 일제와 군벌 및 토착봉건 지주들의 2중3중의 비인간적인 착취와 약탈때문이라는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살수 있는 길은 오직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만이라는것을 일깨워주시였다. 로인은 자기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하여 레를 들어가며 일깨워주시는 그이의 말씀에서 비로소 모든것을 깨달은듯 눈물을 머금고 자기도 유격대를 따라가고싶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서 휴식을 끝마치신후 농막을 떠나실 때 로인앞에 얼마간의 돈을 내놓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이 집 할머니까지도 입고계신 옷이 헐어서 당장 문밖출입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보래쓰십시오. 그리고 닭도 사다가 기르시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도 먹일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인은 자기들을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해주시는 그이가 바로 전체 조선인민이 아버지처럼 우러러모시는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게되자 그이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것이였다.

《그러한 큰어른이 손수 나무를 채시다니...사령관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시다니?》

그이께서는 로인의 이 말에 빙긋이 웃으시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찌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고 밥맛도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로인은 그이의 손을 꼭 잡으며 간청하듯 다시 말씀드렸다.

《날씨가 추운데 오늘밤은 우리 집에서 모두 쉬어가십시오. 하루 밤만이라도 더 모시고싶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당신들 같은 군대가 있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늙은것도 새힘이 솟습니다.》

어휘 및 표현

○ 광수천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드하신 항일무장투쟁 중요혁명전직지. 두만강기슭에 있는 농촌마을로서 반유지구였다.

○ 살을 에이다. 추위나 슬픔이 살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주 심한 정도를 비겨 이르는 말.

○ 나무를 하다. 불을 때기 위하여 나무를 쪼거나 베다.

○ 그 바람에. 그때문에, 그것으로 하여

○ 닭을 치다. 닭을 기르다.

○ ~쇠다, ~습네다. 《~습니다》의 방언 형태.

○ 이외의 광경. 뜻밖에 일어난 현상의 상태나 모양.

○ 숨직하게 털어놓다. 생각하고있던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하다. 숨기지 않고 피다 말하다.

○ 눈물(을) 머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다.

○ 간첩하다. 간절히 청하다, 간절히 요구하다.

• 회상기 •

한 흙의 미시가루

1938년 겨울 고난의 행군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지가지의 잊혀지지 않는 일들을 회상하여 추억에 잠기게 된다.

그중에서 지금도 나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한 흙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이해 12월초에 몽강땅을 떠나 장백지구로 향하였다.

우리 부대의 행동방향을 알아차린 적들은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뒤를 따라왔다.

실로 곤란한 행군이였다.

눈은 계속 퍼부었다. 허리까지 빠지는 밀림속의 생눈판을 헤치면서 수천리길을 돌파해야 하였다. 이때 뒤로 달라붙은 적파는 매일과 같이 전루가 벌어졌다.

적들은 련속적인 참예를 당하면서도 집요하게 쫓아왔다.

놈들은 《토벌》의 중요목표를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소멸》에 두었던 것만큼 저들의 희생을 돌보지 않고 발악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달가까운 행군을 하다나니 휴대하였던 식량도 떨어져갔다. 그리하여 행군은 더욱 간고해졌다.

이렇듯 적의 추적이 심하고 길은 험한데 군량마저 떨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진부대가 한개 방향으로 행군해간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장백현 7도구부근에서 부대를 나누어 3개 방향으로 행군하게 하시였다.

경위중대와 기관총 부대는 사령관동지의 친솔하에 장백현 7도구 가재수로 나가게 되고 7련대는 장백현 상강구일대에서 활동하게 되였으며 8련대와 독립대대는 무송현 동강일대에서 활동하게 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행군의 곤난을 타산하시고 재봉대원들과 로약자들은 장백현 청봉밀영으로 보내시였다.

그이께서 취하신 이와 같은 전술적대책에 의하여 적의 세력은 분산되었으며 아군의 주력과 사령부의 행방을 놓쳐버리고 혼란에 빠진 적들은 그저 무턱대고 쫓아오고있었다. 그러나 적들은 추격을 단념하지 않았다. 부대의 식량사정은 점점 위급하게 되었다. 강냉이겨와 시래기로 끼니를 이어온지도 벌써 며칠이 되었다. 여러날을 굶으면서 행군해온것만큼 대원들은 허기증이 나서 옆드러지면서도 눈을 움켜먹고는 다시 일어나 걸군하였다.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의 이와 같은 불굴의 혁명정신은 사령관동지의 령도하에 일치단결된 정치사상적통일에서 우러나오는것이였다. 우리들 굴복시킬 어떠한 곤난도 있을수 없었다. 만난을 극복한 뒤에는 반드시 국경지대에서의 춘기공세의 승리가 온다는 행군목적에 대한 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굴할줄 모르는 투지와 용기를 가지게 하였다.

우리는 적들의 지상《트벌대》와 항공대와의 립속적인 격전을 하면서 계속 국경가까이여로 행군하였다.

이러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경위중대장 오백룡동지에게 식량을 마련하여올것을 명령하시였다.

오백룡동지는 수명의 대원을 인솔하여 로동자들의 고크혈을 짜내던 일제놈의 7도구목재소를 습격하고 말 십여필을 로회하여왔다.

우리는 그 말고기를 구워먹을 사이도 없어서 눈속을 행군하면서 날채로 먹었다. 물론 소금도 다 떨어지고 없었다.

4~5일이 지나니 그 말고기마저 다 떨어졌다.

당시 사령부에는 전령병으로서 김봉석, 지봉손동무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전달장 김봉석동무는 우리의 배낭을 죄다 뒤져 비상용 미시가루를 한데 모았다. 미시가루는 한홉가량 되었다.

우리 전령병들은 자신이 굶는것은 둘째치고 사령관동지께 식사를 보장해드리지 못하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다.

행군도중의 어느날 아침이였다. 잠시 휴식하는 때에 우리는 배낭을 털어모은 미시가루를 그이께 권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이 우리를 둘러보시다가 전령병들중에서 그중 나이 어린 지봉손동무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 미시가루를 그에게 주시였다. 미시가루를 받아 전 봉손동무는 어찌할바

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어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의 넘터는 하지 말고 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꼬마전령병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는 자리를 떠나시었다.

봉손동무는 '그 미시가루를 먹지 않고 나에게 주었다. 결국 한훤의 미시가루는 다시 나의 배낭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행군은 계속되었다. 수천명의 직을 뒤에 달고 행군하는데 앞에서 또 수백명의 적이 온다는 보고가 왔다. 사태는 참으로 위급하게 되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망원경으로 주위의 지형을 살펴시더니 소수인원으로 행군을 계속하게 하시고 주력부대는 발자국을 배우고 옆으로 빠지게 하시었다. 그 소수부대도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빠져나와 후에 주력부대와 합치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또 이러한 고비에서 벗어났다.

하루종일 행군하고나니 저녁때가 되어 숙영하게 되었다. 이날도 식량이 없었으므로 모두 눈을 끌어마셨다. 우리 전령병들은 어떻게 하여시라도 사령관동지께 미시가루를 대접하려고 토의한 끝에 다시 권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한훤의 미시가루를 적당히 갈라서 다음끼니 분을 보관하고 사령관동지앞에 내놓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침묵하신채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그의 얼굴에도 시장기가 어리어 보였으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언제나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영채가 들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마지막미시가루를 자신에게만 권한다는것을 짐작하시고 계시는것 같았다.

《동무들은 몇끼를 굶었소?》하고 그이께서는 물으셨다.

《사령관동지!-우린 먼저 먹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분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그러니 나 혼자만 먹으란 말이지... 더는 없소?》라고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다.

《더 없습니다.》하고 우리들은 말씀드리었다.

《자! 그럼 동무들의 배낭을 가져와보오.》하고 그이께서는 손수 우리들의 배낭을 일일이 들여다보셨다. 처음에 김봉식동무와 지봉손동무의 배낭을 보셨으나 거기에는 미시가루가 없었다. 다음은 나의

차렷했다. 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할수없이 배낭속깊이 싸두었던 나머지미시가루를 내놓고야 만았다.

《빈소리군이군!》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나를 보시며 소리내어 웃으셨다.

· 사령관동지께서는 신문지를 펴고 거기에 미시가루를 쏟아놓고 우리들을 그옆에 둘러앉으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머뭇거리고있었다.

이 미시가루를 우리 전령병들이 다 먹어버린다면 다음끼니에는 그이께서 잡수실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것이였다. 우리들의 립장은 참으로 딱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저하는 우리들의 손목을 끌어당겨 앉게 하시였다. 우리들은 할수없이 한흙도 되나마나한 미시가루를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이께서는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 받으라구.》라고 하시면서 종이술가락을 만들어 그 미시가루를 나누시기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몫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에게만 놓으셨다. 우리들은 자기의 몫으로 받은 미시가루를 도로 그이께 던져놓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던져놓은것을 다시금 나누어주셨다. 우리들은 그이상 더는 거절할수 없어서 그냥 주시는대로 받았다. 결국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중 적게 차렷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들이 그 미시가루를 물에 타는것을 보시고 시야 자신도 미시가루를 물에 타셨다.

나는 목이 매여 미시가루를 탄 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나쁜이 아니였다. 우리 셋이 모두가 그랬다.

한흙을 한말로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셨지만 수천수만말의, 식량인들 그이의 말쑥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애정을 대신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었다.

물론 행복이나 감격을 그 어떤 재부의 량으로 쟁수는 없는것이이다. 착취자들의 산해진미를 굶어모은 호화로운 성찬이 그때의 한흙의 미시가루의 맛보다 나을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은 그 한흙의 미시가루가 고귀한 혁명의 양식이였으며 그것

에는 사령관동지께서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복무의 정신과 하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귀한 혁명적자양이 깃들어있기때문인것이다.

그날 밤으로 우리는 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백배의 힘을 내어 장백현 13도구부락에 동지를 들고있던 원수를 소탕하고 수많은 식량을 로획하였으며 그 식량을 산하 각부대들에게도 보내주었다.

적들은 우리 부대의 뒤를 따라 온 겨울 밀림으로, 야산으로 산발 눈속을 헤매고 다니었으나 결국 사령부의 행방을 영영 놓쳐버리고말았다.

놈들은 기진맥진하였다.

이렇게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에 의하여 적의 《동기로변》은 좌절되었으며, 사기저락된 적부대들은 각개로 분산되어 여러곳에 널려지게 되었다.

여리 방향에서 활동중이던 야군부대는 다시 집결하여 적들에게 심멸적타격을 주며 춘기공세로 넘어갔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사령관으로 모신 우리들은 《한류의 미시가무》의 감격을 간직하고 이해 춘기공격에서 국내 무산지구의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정연안의 원수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패배와 죽음을 주었던것이다.

△ 어휘 및 표현

○ 추억에 잠기다.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에 잠기다.

○ 경위중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 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들 보위하던 중대.

○ 밀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 무장투쟁시기에 백두밀림속에 설치되었던 비밀령영.

○ 산해진미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라는 뜻.

○ 전령병. 항일 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에 직속되어 전투명령의 전달과 호위의 임무를 맡은 전투원.

○ 《고난의 행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 무장투쟁시기에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진출하시고 1938년 12월~1939년 봄에 걸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피어던 전투로 낮과 밤을 이으시며 몽강현 남페자로부터 우리나라 북부 국경일대로 진출하신 100여일동안의 간고한 행군.

○ 심금을 울리다. 어떤 자극에 마음이 울리다.

○ 고향을 짜내다. 낡은 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이 피착취계급들의 피땀을 짜내 착취하고 약탈하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이구동성.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이 같음.

○ 기진맥진하다. 기운이 다 빠져 스스로 가누지 못할만큼 노그라지있다.

○ 동지(同志)들이다. (부정적인 세력) 침략과 약탈, 파괴, 반동적인 책동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들어앉다.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1960년 봄 진달래와 살구꽃이 만발하고 벚꽃도 피기 시작한 4월 29일이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던것 같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겨울옷을 주시고 봄이면 여름옷을 주시는 우리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해에도 5.1절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내주시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새로 탄 교복을 입은지 사흘째되는 날이었어요. 언니는 나더러 5.1절 명절날에 입자고 했으나 나는 참지 못하고 교복을 탄 그날로 입었습니다.

땀시있는 옷옷과 짙은 끈색천을 곱게 주름잡아 보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치마—나는 그 새 교복을 언니처럼 5.1절까지 안입고 기다릴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새 옷에 어울리도록 빅타이도 제일 새것, 리본도 가장 고운것을 플라 달고 동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놀고있었습니다.

그때 승용차 한대가 우리옆에 와뎀더니 젊은 아저씨 한분이 내렸습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는것이였어요.

《너희들의 새 교복이 아주 좋구나. 사진한장 찍어줄가?》

우리는 너무 좋아서 손뼉을 치며 달려갔습시다.

《그래그래, 찍어줄테니 나와 함께 가자. 어서 올라 타거라.》

나와 정순이 그리고 남학생 두명을 태운 승용차는 거리 한복판으로 기분 좋게 달렸습시다.

《아저씨 어디에 가서 찍나요?》

《좋은데 가서 찍자, 가보면 알아.》

《찍으면 꼭 한장씩 주시지요?》

《주구 말구.》

자동차는 속력을 늦추며 큰문안으로 들어섰습시다. 머리우에는 움돋기 시작한 버드나무가지가 드리우고 길랑쪽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한창이였어요. 그 개나리꽃 올라타녀며 잔디밭에는 민들레와 병아리꽃이 드문드문 피여있었습니다.

차가 좀더 올라가니 활짝 핀 산구꽃과 진달래가 안겨오고 그 저쪽에는 포플라인지 백양나무인지 알수 없는 키높은 나무들이 뿔뿔이 서있었어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나요?》

《이제 알게 될거다. 조금만 더 가자.》

자동차는 드디어 2층집 뒤 꽃밭옆에서 멎었습니다.

《자, 지쪽으로 가자.》

아저씨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아저씨를 좇아서 화단을 에돌아 긴의자들이 놓인 곳으로 나왔습니다.

산구나무밑에 놓인 지쪽 긴의자에서는 접잡은 어른 한분이 신문 을 읽고계셨습니다. 수수한 양복차림을 하신 그분의 뒤모습을 나는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찍을 생각만 하고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소리를 들으셨는지 보시던 신문을 내리우시며 우리들이 있는쪽으로 몸을 돌리시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놀랐어요! 꿈인가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왜 잘못 보았겠습니까!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 우리 집 벽에 언니와 나와 꽃으로 장식했 들때를 받쳐 높이 모신 초상화앞에서 아침마다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 인사드리는 김일성원수님을 왜 몰라보았겠습니까!

원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손짓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네명은 지마다 힘껏 달려갔어요. 그리고 원수님앞에 가서 차렷하고 소년단정례를 드렸습니다.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너희들도 공부를 잘하느냐?》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어깨를 들썩들썩 안아주시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새 옷들을 타 입었구나. 어디 좀 보자. 너희들의 새 옷차림을 보고싶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머리를 쓸어주시고 비뿔어진 넥타이와 리본

도 바로잡아주시면서 여러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새 옷을 타입으니 어떠냐? 옷맵시가 작년것보다 좋아진것 같은데 너희들도 마음에 드느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꼭 친아버지 같았습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친아들딸처럼 쓰다듬어주시기때문에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지저마다 대답했습니다.

《금년옷은 색이 더 곱고 깨끗합니다.》

《꾸겨지지도 않습니다.》

《몸에 꼭 맞습니다, 원수님!》

원수님께서는 남학생들을 앞뒤로 둘러세우시며 것이 맞느냐, 앞을 때도 팔 때도 바지 입은게 편안하냐, 단추를 단단히 달았디냐라고 차근차근 살피시다가 한 학생의 손을 잡아당기시며

《너 손이 어지러운걸 보니 꽤 장난이 심한 모양이구나.》하시면서 아버지처럼 크게 웃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내 옷도 만져보시다가 아직 남아있는 상표딱지와 실밥을 꼼꼼히 뜯어주시었습니다.

새 교복을 타온날 나는 너무 좋아서 상표를 대강 뜯고 그대로 입었기때문입니다.

이때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치마주름이 잘 잡히느냐?》하시며 손수 꺾어도 보셨어요.

《래년엔 더 짧은 옷을 입게 될게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더 많은 천이 나오게 되는데 공장의 언니, 누나들은 더 훌륭한 천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양복만드는 어머니, 아주머니들도 더 좋은 옷을 만들려고 연구하신다. 너희들도 질제고가 뭔지 알지?》

우리의 옷을 다 살피시고난 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1년에 운동화를 몇켤레 신느냐?》

우리는 네 켈레라고도 대답하고 다섯 켈레라고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뒤축을 꺾어서 신거나 아무렇게나 끌고다녀서는 안되지만 운동도 잘하고 무용도 잘해서 신이 꺾지는거야 좋은 일이지.》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또 많은것을 우리에게 물으시었어요.

한달에 연필은 몇자루면 되느냐, 연필속이 부러지지 않느냐, 교과서는 모두 받았느냐, 상점에 공책이 많이 있느냐, 지우개가 잘 지워지느냐...

또 어느 씨클에 들었느냐, 어느 영화가 제일 재미있었느냐,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터이냐까지 물으시고 나서 이번에는 집의 일을 묻기 시작하시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뭘 하시느냐? 공장에 다니시느냐, 사무직장에 나가시느냐?》

《...》 나는 인차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었어요. 방금까지 환하게 떠있던 웃음이 원수님의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원수님께서는 눈을 좁히시며 낮은 음성으로 다시 물으시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계시느냐?》

《에...》

《어머니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네 이름이 뭐지? 그래, 최영옥이...》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었어요.

《영옥아!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니?》

나는 내 손을 어무만져주시는 원수님의 크고 따뜻한 손을 내려다 보며 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가 물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나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더 나니까요. 그렇지만 원수님께서 물으시기때문에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때 고무공장에서 밤작업을 하다가 미제강도놈들의 폭격에 희생되었고 그후 어머니는 식료가공공장에 다니면서 우리를 길러주셨는데 1959년 5월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우리 딸 4형제는 고아로 되었던것입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물으셨어요.

《영옥아,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우리 형제끼리 살고있습니다. 나보다 두살 만이인 언니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합니다. 언니가 학교에서 늦게 올 때는 나도 합니다. 내 아래동생 영실이는 열두살인데 그애도 밥을 지을줄 압니다.》

원수님께서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 당기시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친척도 안계시냐?》

《에…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던 공장에서는 아주머니 한분을 보내 주어서 얼마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주인이 제대되어 원산으로 배치받았기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그때 맨 아래동생 영희를 그 아주머니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에게 다충주택 한세대를 주시고 매달 보조금을 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고마움에 대하여, 또 추운 날이나 바람세 사나운 날이면 탄불이 죽지 않겠느냐고 우리 집 아궁이를 돌봐주시는 이웃집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에 대하여, 그리고 두부와 반찬거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어머니의 직장 아저씨, 아주머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 어쨌든 비둘기 같은 너희들 셋이서…밥도 끓이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웅라! 너희들끼리 세간살이를 하면서 학교에 다닌단 말이지…참 웅라.…》

내 손을 어루만지시며 떠엽떠엽 말씀하시는 원수님의 음성은 좀 갈리는듯 했어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다가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입속말로 물으시었습니다.

《영옥아, 너희들이 사는 집주소가 어디지?》

원수님께서는 내가 대답하는대로 수첩에다《중구역 중성동 2반 3층 330호실.》이라고 쓰신후 그 밑에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빚적끔적하게 적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수첩을 집으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었어요.

《영옥아, 너 동물원에 가보았니? 갔었어?! 그럼 범도 사자도 코끼리도 보았겠구나.》

나는 그네를 뛰는 원숭이도, 걸어다니며 과자를 내라고 조르는

꿈도, 체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다시 눈가에 웃음을 띄우시며 또 물으셨어요.

《또 무엇을 봤느냐?》

그때 열네살이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본 짐승들에 대하여 손짓 몸짓을 해가며 원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원수님께서 그때 왜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들 꺼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짐승들의 흉내를 내며 대답하는것을 왜 그렇게 찬찬히 보시며 조용히 웃으셨는지를 이렇듯이나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난 나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그러셨을거예요. 내가 이제 크면 더 잘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소년신문을 보느냐고 물으시고 이야기를 남조선문제로 돌리시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있느냐?》

우리는 서로 말끝을 채가면서 리승만이가 쫓겨났다는것, 그렇지만 미제원수놈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에 그곳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의 고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어린이들도 리승만이때와 같이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이 많고 구두담기나 담배장사를 하면서 거지처럼 헐벗고 굶주리고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맞았다, 꼭 맞았다. 너희들은 신문도 잘 보는구나.》

원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근심스러운 빛을 띄우시며 계속하시었어요.

《남조선어린이들은 불쌍하기짝이 없다.…미국놈들만 쫓아내면 우리 나라는 통일되고 그때엔 그 애들에게 구두약통과 담배공, 깡통 대신에 책가방을 메워주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봄가을마다 새 교복을 입힐수 있는데… 그 애들도 너희들처럼 마음놓고 공부하고 뛰놀고 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라도 학습을 잘해야 한다. 너희들에게는 공부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원수님께서서는 특별히 나의 손을 다시 잡으시며 타일러주시었어요.

《영육이도 공부 잘해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

야지.》

나는 꼭 최우등생, 모범소년단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의 어깨를 하나하나 안아주시며

《이젠 가보아라, 짧은 봄날인데 어서 가서 뛰어놀아라.》하시면서 웃으시었습니다.

《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소년단 경례를 드리고나서도 원수님의 걸을 떠나고싶지 않았어요.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을 흔드시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승용차를 타고 원수님의 택을 나섰습니다. 자동차가 거리를 달릴 때 나는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것만 같았습니다. 원수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그처럼 사랑받은 나를 부러워하며 바라보는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나는 하늘 높이 훨훨 나는것만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나는 우리 집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언니와 동생에게 이 기쁨을 알리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그때에야 언니는 집단체조련습을 가고 동생도 씨클런습에 갔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초상화앞에 가서 아까처럼 경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었어요.

《원수님, 감사합니다! 꼭 최우등생, 모범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있던 일을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생각하며 원수님께서 어루만져주신 내 손을 들여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나는 손등을 들여다 보다가는 손바닥이 우로 오게 뒤집고 또 손등이 보고 싶어 뒤집기를 몇번이고 거듭하였어요.

나는 너무도 기뻐서 점심도 먹고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합창을 지휘할 때처럼 두손으로 박자를 잡으며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노래를 아는대로 진부 불렀어요.

그리고 김일성원수님께서 남조선어린이들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

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는 부모가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형제가 만일 남조선에서라면 다리아래서 자고 거지가 되어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것처럼 좋은 문화주택을 주시고 매달 보조금도 주시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의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웃집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끝없는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언니나 동생인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문밖에는 뜻밖에도 아까 우리를 태워가고 태워다준 그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서있었어요.

《아이! 아저씨 오셨습니까!》

《원수님께서 영육이네 집에 가보라고 하셔서 왔다.》 그 아저씨는 방안으로 들어 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영육이를 보내고 나서 계속 너희 형제들을 걱정하시며 오침도 못하셨단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알아오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아저씨는 방안과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저녁에 집단체조련습을 갔던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원수님을 만나뵈고 왔다는 것을 벌써 알고있었어요.

《…그렇지만 끈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뛰어왔어. 정말이냐?》 언니는 숨이 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아까 낮에…》 나는 말을 더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돌아오면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던 말도 그때는 못하고 말았어요. 언니가 나를 꼭 그리안아주었기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언니와 동생에게 원수님을 만나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습니다. 언니는 집단체조에 쓰고나갈 꽃모자를 만들려고 치마앞에 색종이를 퍼놓았으나 내 이야기를 듣느라고 그냥 종이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나보다 두살 아래인 영실이는

《언니야, 나도 언니만해지면 원수님을 만나뵈수 있니?》 하며 내게 매달렸습니다.

《영옥아, 넌 정말 좋겠구나! 나도 원수님을 만나 뵈었으면!…》 언니도 무척 부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시다. 그리고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리러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 원수님을 직접 만나 뵈겠니.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일을 보시느라고 바쁘실텐데…영옥이네가 원수님을 만나뵈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이지! 우리 4형제가 다 뵈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영실아! 원산에 가있는 영희도 알면 손뼉을 치며 좋아할게다.…》

이러고있느라니 밤 열시쯤되었습니다. 그때 또 손기척소리가 나며 문밖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옥이 있느냐?》

《언니! 아저씨야! 그 아저씨!…》 나는 덩벼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 듣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또 오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3형제가 다 있구나, 됐다, 원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친부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어서들 가자.》

영실이는 기뻐 날뛰었지만 언니는 어쩔줄을 몰라 방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 나가 손을 씻고 들어와서 5.1절에 입겠다고 걸어두었던 새 교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 3형제를 태운 자동차가 원수님의 대앞에서 몇자 김일성원수님의 가족들이 모두 마중나오셨습니다.

《원수님께서 2층에서 기다리신다. 어서 올라가자.》

우리가 총계를 절반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오—영옥이랑 왔느냐.》

김일성원수님의 음성이 머리우에서 들렸어요.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며 원수님을 우리러보았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부드러운 웃음을 띄우시며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더니 맨 먼저 언니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으시었습니다.

《네가 영숙이구나… 동생들 데리고 살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라고…힘들었지? ! … 이거 손이 좀 뾰구나.…》

언니는 갑자기 원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우지 말아, 우지 말아… 세대주가 올면 되나…어서 그

쳐…우지 말아.…」

원수님께서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언니는 자꾸 울었어요.

나는 그때 나보다 큰언니가 왜 울까? 원수님께서 저렇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울까? 하고 생각하며 흔들리는 언니의 어깨와 그 어깨를 끌어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서 그때의 언니만큼 큰 나도 지금은 언니가 그때 왜 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원수님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앉히고 또 하나하나 머리를 끌어주시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물으시었습니다. 원수님의 품에 안겨 울고난 언니는 친아버지앞에서처럼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아버지앞에 온 것 같았어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너희 형제들끼리 살겠니?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가는게 좋니?》

언니가 먼저 초등학교에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원수님께서서는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시었습니다.

《영숙인 어떠냐?》

나도 학원에 가는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또 영실이에게로 가서서 머리를 끌어주시며 말씀하시었어요.

《너도 언니들과 같이 학원으로 가거라. 학원에 가면 밤에는 언니들과 따로 자지만 낮에는 언니들을 늘 뵈수 있고 또 한식당에서 언니들과 함께 밥먹고… 좋지?!》

영실이는 어리광부리는 애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학원에 가서 살림걱정 말고 마음껏 공부하거라. 지금까지 어린것들이 살림살이를 한것만 해도.…」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잠깐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하시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9월달 새 학년도를 기다림것 없이 래일

마레 5.1절이나 쇠고서는 곧 학원으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원산에 있는 영희도 데려오는게 좋지? ! 보고싶을텐데!

이번에는 나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영희도 데려 오자.》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일으켜세우시면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자-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다같이 저녁이나 먹자.》

우리는 저녁을 먹고왔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데리고 아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어서 나앉아라, 영숙이도 영옥이도... 우리 영실이는 뭘 좋아하나? 자, 이리 나앉아라.》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손목을 끌어 밥상둘레에 앉히고 어서 많이 먹으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음식그릇들을 우리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는것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서와 원수님의 집안식구들과 함께 우리 형제가 한상에 빙 둘러앉았던 그 즐거운 식사시간을 잊을수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후에 원수님께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들을 보니 옛날생각이 나는구나. 우리 유격대가 일본군과 경찰놈들을 때려부시고 장백산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했는데 멀리에서 어린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래 거기애 기보니 다섯살나는 처녀애와 세살나는 사내애가 외딴집에서 울고있더구나. 다섯살난 애에게 물어보니까 일본경찰놈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잡아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외루로 싸안고 와서 아동단에서 길렀는데 커서 학습도 잘하고 총도 잘 쏘는 용감한 빨찌산대원이 됐단다. 너희들도 학원에 가면 학습을 더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

나는 그때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 오누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원수님께서서는 그 옛날에 그 오누이를 사랑하신것처럼 우리 4형제를 사랑해주신다는것을 더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원수님의 자제분들과 함께 그림책도 보고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친형제처럼 놀았습니다.

어느덧 열한시가 펴 넘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셨던 원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였습니다.

《이젠 돌아가서들 자거라. 봄철에 어린것들이 곤할텐데...또 너희
들은 요새 5.1절맞이 준비를 하느라고 낮에도 종일토록 연습을
하지?》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 3형제를 한아름에 안으시고 말씀을 계
속하시였습니다.

《래일은 학교에 가고 모래 5.1절날은 우리 집에서 같이 명절을
신자. 행사가 끝나면 어디 가지들 말고 집에 있거라.》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현관까지 데리고나오셔서 또 말씀하시는것
이였어요.

《행사가 끝나면 꼭 집에들 있거라. 이 아저씨를 보낼테니까.》

자동차는 단숨에 우리 칩까지 왔습니다.우리는 그 아저씨에게 인
사를 하러는데 아저씨도 큰 보꾸러미를 들고내리면서 함께 올라가자
고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보꾸러미를 우리 방에 들여놓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보자기속에는 학용품, 닭알, 사과, 그외에도 많은것이 들어있었
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전등을 끄고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
했어요. 아까 낮에 있던 일, 또 이제 원수님의 댁에 갔던 일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원수님의 음성이 푹푹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래일모래 5.1절 명절날에 또 원수님댁에 가서 늘 생각을
하니 정말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만 잔지 않고있는줄 알았는데 까딱하지 않던 인니가 이쪽으로
돌아누우며 입속말로 물었습니다.

《영육아, 너 자니?》

《아니.》

《넌 뭘 생각하니?》

《난 5.1절날을 생각해, 또 원수님한테 가서...》

《너, 원수님께서 왜 5.1절날 또 우리를 오라고 하셨는지 아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그러안더니 목이 메여 한마디한마디씩 말했어요.

《원수님께서는 말이야...우리끼리 명절을 쇠기가 섭섭해할가봐...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날가봐...원수님께서는 아버지야!... 정말... 우리 아버지야...》

방안은 어두웠지만 나는 언니의 눈에 글썽하게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형제는 5.1절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와 시위행진이 끝난 오후 1시경에 우리를 데리러온 자동차를 타고 또 원수님댁으로 왔습니다.

원수님께서는 5.1절행사에 나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원수님의 자제분들과 쌍그네도 타고 염소를 놀려주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원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집심을 먹었습니다.

집식식사후에도 원수님의 자제분들과 손목을 잡고 뛰놀았습니다. 또 식물원에 가서 꽃구경도 하고 린못의 잉어도 보았어요.

손벽만 쳐도 몇마리의 잉어가 모여왔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야-저거! 저거!》하며 자꾸 손벽을 치니까 원수님의 아들이 내팔을 잡아당기면서 《누나, 내가 잉어밥 가져와요. 그걸 주면 다 와요.》하더니 집으로 달리가서 누에번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뿌려주니까 정말 잉어들이 씨글씨글 모여와서 뒤채고 솟구치고 하면서 번데기를 받아먹었습니다. 그밖에도 재미나는 일이 많아서 시간 가는줄을 몰랐어요.

저녁 다섯시쯤 되었을 때 까만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원수님의 자제분들이 아버지 차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차안에서 웃으시며 우리에게 손짓하시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자 《너희들 잘 놀았느냐.》 하시며 우리를

의 머리를 쓸어주시고 줌 있다가 영화구경을 하자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영화실로 가시기전에 우리를 모두 부르시고 영실이의 손을 이끄시며 영화실로 들어가시었습니다. 그때 위생복을 입은 선생님이 나무쟁반에 사과를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원수님앞에 놓았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사람 수 만큼 사과를 전부 쪼개서 한쪽씩 팔고루 나누어주시고 원수님도 한쪽만 잡수셨습니다.

그날 돌린 영화는 외국영화였는데 자막이 없었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 장면마다 해설해주시었어요. 원수님의 딸이 입속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외국영화 돌릴 땐 아버지가 늘 번역을 해주신단다.》

영화가 끝난후 원수님과 또 한상에 둘러앉아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럼 수속을 해줄테니까 래일 모레 학원으로들 가거라. 가서 공부 잘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해!》

자동차가 떠날 때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

그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언니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과, 닭알, 파자 등을 보자기에 싸면서 나와 영실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뻘스타고 저—기 가자.》

《언니 어디 가자니?》 영실이가 매달리면서 물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하면서 어서 뻘스타정류소에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언니를 따라 뻘스타에 탔어요. 뻘스타가 팔동교를 건너서자 언니는 배리자고 했습니다.

그때야 나는 짐작이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묘가 팔동교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있으니 까요.

우리는 그리로 갔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인차 찾

아냈어요. 그앞에 보자기를 풀어놓으면서 언니가 나직히 말했어요.

《우리는 김일성원수님한테 두번이나 갔됐어요.… 원수님께서는 우리를 학원으로 보내주시겠 대요.… 영희도 데려다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영실이가 언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언니, 누구와 말하니?》

언니는 대답대신 영실이의 어깨를 그러안으며 멀리 본평양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언니가 원수님의 댁이 있는쪽을 바라본다는것을 알았습니다.

5월의 봄 아침해가 언니의 얼굴에 따뜻한 해살을 담뱃 쏘아붓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눈이 부신듯 한손을 이마에 울리며 계속 원수님 댁쪽을 바라보는것이였어요.

《래일 우린 학원에 가거든! 원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거든! 원수님께서 가서 공부 잘하랴구 하셨거든! 그렇지?! 언니야?!》 영실이가 기쁨이 담긴 동그란눈으로 언니와 나를 번갈아보며 말했어요.

언니도 웃으며 영실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영옥아, 아버지, 어머니가 아신다면 꼭 좋아하시겠지?!…얼마나 좋아하실가!…》하고는 또 멀리 본평양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허리를 안고 원수님댁이 있는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조금도 울지 않았어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우리는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다음날 우리는 평양초등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그날도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차를 타고 학원으로 왔어요.

원산에서 영희도 데려오고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 4형제는 교하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왜 교아겠어요!

△ 어휘 및 표현

○ 초등학원 강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전제코아, 그 밖에 특수한 처지에 있던 어린이들을 받아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히딩친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실자로 준비시키던 보통교육기관의 하나. 인민반과 향 등반이 함께 있었다.

○ 귀에 익다. 들은 기억이 있거나 혹은 어떤 말이나 소리를 어리번 들이 그것에 비롯되다.

○ 집단체조. 수천 수만명의 큰 집단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체육예술.

체조와 무용활동을 기본 포진수단으로 하며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적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폭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집단체조 《천리마 조선》, 《로동당 시대》, 《조선의 노래》 등이 창작공인되었다.

○ 어리광(을)부리다. 어른에게 이르고 귀이운 태도를 보이며 비롯없는 행동운 하다.

○ 명절을 쇠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내다.

○ 세간살이를 하다. 살림살이를 하다.

○ 박자를 잡다. 박자를 맞추다.

○ 끝이 들다.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

○ 짐작(이)가다. 사건이나 형편 등에 이림이 느껴지다.

○ 말끝을 채다. 한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전에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려이이 하다.

○ 속력을 늦추다. 속력을 뜨개 하다.

○ 흉내(를)내다. 남의 말이나 행동운 그대로 본따서 하다.

○ 짝(이)없다. 비교할 상대가 없을만큼 대단하거나 심하다.

○ 빙그레 웃다. 입을 슬며시 벌민듯하민시 소리없이 부드럽게 웃다.

○ 까닥하지 않다. 조금도 움직이거나 민동되지 않다. 조금도 찾아오지 않다.

• 덕성회상실기 •

•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깃든 위대한 사랑

우리 나라의 모든 세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크나큰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일제때에는 중학교는 고사하고 소학교에 들어갈 길마저 막혀 주민의 80프로이상이 문맹자였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자라나는 모든 세세대들이 11년동안 국가의 부담으로 의무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누구나 다 고등중학교를 나오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놀라운 전변인가!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은 우리가 오늘 또다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야망에 미쳐날뛰면서 매일과 같이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거창한 사업을 남민지 실현하고 문명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후대교육을 혁명의 대를 잇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1년제의무교육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그 크나큰 심력과 로고,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를 이 짧은 글에서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나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마련하시는 그 빛나는 력사의 길우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헤아릴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운데서 몇가지만을 여기에 적으려고 한다.

*

*

*

1972년 9월 1일은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

뜻깊은 첫 개학날이었다.

은 나라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실시의 커다란 강사를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었으며 전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 교
육일군들은 이 고마운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이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
업을 명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력사적인 11년제의무교육의
첫 교문에 들어서는 어린이들을 축복해주시기 위하여 평양시 대동문
인민학교에 나오시었다.

경에하는 수령님을 학교에 모시고 이날을 맞이하게 된 전체 교직
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감격은 말할수 없이 컸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시신 첫시기에 벌써 가난하고 짓눌린 이
나라 어린이들을 위하여 진명학교를 세우시고 친히 그 개교식에 참석
하시어 개학의 첫 종소리들 온 누리에 높이 울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
소 평양제2인민학교를 찾으시어 첫 국가졸업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축하해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는데 -오늘은 가장
우월한 11년제의무교육의 배움의 요람을 마련하시고 행복의 첫 교문
에 들어서는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축복해주시려고 친히 이 학교
에 나오신것이였다.

학교마당에 들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감격과 행복에 지위 열
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신입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그들을
축하해주시었다.

경에하는 수령님께서 신입생들이 매고있는 책가방을 손수 벗기
시어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 등을 제대로 가지고 왔는가를 알아보시
고 계수기의 알들이 잘 오르내리는가 튕겨보기까지 하시면서 그들
의 학습준비경형을 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피주시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의 옷차림과 건강상태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모두 건강하고 옷도 잘 입었다고 하시며 꽃내 기뻐하시었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만 6살 어린이들이 입학한 학급에
가보자고 하시면서 교실로 친철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유치원을 거쳐 갓 들어온 만 6살 어린이들이 있는 1학년교실에

전반적 11년개의 무교육에 갖는 위대한 사랑

들리신 김에야는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키낮은 책상을 짚으시고 학생들과 다정히 담화를 하시었다.

김에야는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름과 나이 그리고 부모들의 이름과 직장까지 하나하나 물으시었다.

어린 학생들은 아버지인 수님앞에서 자랑이라도 하려는듯 자기들의 이름과 나이, 부모들의 이름과 직장을 썩썩하게 대답올리었다.

아버지인 수님을 모신 교실은 참으로 화기에 넘치고 어린이들의 눈동자는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1학년의 두 학급을 돌아보시며 어린 학생들과 담화를 마치신 아버지인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이번에는 3학년과 2학년 교실에 들리시었다.

이 학급들은 아버지인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이미 1~2년전에 만 6살 어린이들을 받아서 시험적으로 공부시킴은 학급들이었다.

아버지인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자애깊은 웃음을 담으시고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학무에 공부를 몇시간씩 하는가, 어느 과목이 힘든가, 올해에 견학은 어디에 갔다왔는가, 견학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시며 어린이들의 학습과 그 이해정도를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어린 학생들의 답변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아버지인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학생들의 조직생활정형에 대하여서도 물어보시었다.

소년단에 나 입단하였는가, 소년단 회의에서는 비판을 하는가, 비판한후에 어떻게 고치는가를 알아보신 아버지인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었다.

《소년단 회의에서 누가 비판을 받아보았습니까?》

아버지인 수령님의 물으심에 두 학생이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었다.

아버지인 수령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왜 비판을 받았습니까?》라고 다시금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러자 한 학생은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다고 대답하고 다른 학생은 연필을 깎아오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다고 대답을 올리었다.

《비판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가슴이 막 왈랑왈랑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 어린 학생들의 솔직한 대답을 매우 기뻐하시며 비판을 받은후 어떻게 고치었는가를 또다시 물으시었다.

두 학생은 비판받은 이후부터 숙제도 잘해오고 연필도 꼭 꺾아왔다고 아버지수령님께 자랑스럽게 대답을 올리었다.

그리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면서 비판은 이래서 좋은것이라고 하시며 조직생활을 잘해야 혁명화, 공산주의화가 빨리 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만 6살 어린이들의 학습정형과 그들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만 6살 어린이들이 능히 학교에 들어와 공부할수 있을뿐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과 체육활동은 어린이들의 키도 빨리 크게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입학나이를 한살 앞당겨 만 6살에 어린이들을 학교에 받아들여도 그들이 물질세계와 인간사회를 인식하는 과정에 들어설수 있겠는가를 알아보자고 그동안 시험하여보았는데 확실히 들어설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것처럼 다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철부지 어린이들의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에서도 귀중한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러보면서 지난 기간 자신들이 수령님의 뜻대로, 그이께서 가르치주신 사업방법대로 일하지 못한것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우리들에게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하루빨리 완성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셨을뿐아니라 우리의 학생들과 교육일군들에게 만대를 두고 전하여도 다 진할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한낮이 펴 지나서야 학교를 떠나시었다.

한없이 경건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배태우는 우리들의 눈앞에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를 받으며 11년제의무교육을 준비해오던 나날들이 자랑스럽게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것은 꼭 오래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한창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갖는 위대한 사랑

준비하던 그 시기에 벌써 11년제의무교육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었으며 우리의 모든 세대대들이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있던 그 시기에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새로운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작성하는데 달라붙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을 어린이들의 입학나이문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우리의 격지 않은 교육행정일군들은 입학나이를 종전대로 만7살로 하고 의무교육의 년한을 한해 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우리들은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모든 세대대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의무교육의 년한을 우로 늘인다면 그만큼 로동한 나이를 넘기는것으로 된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의무교육이 중등교육을 완성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큼 일할 나이를 한두해 넘기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의무교육의 나이를 정하는데서 나라의 로력사정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해보았으나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1970년 9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를 마린하시고 10년제고종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안이 어떻게 준비되고있는가를 료해하시었다.

이날 인민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의 과정안을 검토하시며 새로운 의무교육의 준비정형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자면 지금부터 개혁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입학나이와 학제를 어떻게 규정하며 어느때에 가서 11년제로 넘어가는것이 좋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우리들은 9년제기술의무교육학제에 우로 한두해 덧붙여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하는것이 좋겠다는 안을 보고올렸다.

우리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심중히 생각하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입학나이를 아래로 한살 앞당기는 방

법으로 11년 제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순간 우리모두는 마치 높은 명마루에라도 올라선듯 눈앞이 탁 트이는것을 느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교육과학자도 어느 교육실천가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주의를 돌리시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지적 발전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것, 조선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달리 발전이 빠르다는것, 우리의 어린이들이 모두 탁아소와 유치원을 거치게 된다는 사정 등을 명철하게 해명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만 6살이면 능히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철저적결론을 내리시었다.

이것은 실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독창적인 견해였다.

이 독창적인 견해로 하여 11년 제 의무교육에로의 광활한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후대교육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일군들이 입학나이를 한산 앞당긴데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에 집하여 충분히 힘써여있는데 그이께서는 만 6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험을 실시할데 대하여 가르치주시었다.

경에하는 수령님께서서는 11년 제 의무교육을 하자면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면서 길이 연구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교육문제는 심중히 연구하여야 합니다.

...

시험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남산유치원 고급반 아이들에게 인민학교, 1학년교과서를 시험적으로 먹여 보시오.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하지 않고 뭉개면 20년이 걸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6살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시며 아직 누구도 해보지 못한 11년 제 의무교육과 같은 만년대계의 사업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해나가시기 위하여 이처럼 몸소 교육시험을 받기하신것이였다.

이날 경에하는 수령님께서서는 11년 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면 수많은 교원과 교실 그리고 교과서가 요구되겠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갖는 위대한 사랑

구체적인 대책도 지금부터 신중히 연구하여 세워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려사적인 교시가 있은후 우리는 도시와 농촌, 별방과 산간 지대의 가이한 학교들에 시험하급을 내오고 만 6살 어린이들을 받아 인민학교 1학년과정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9년 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된지 3년만인 1970년 10월부터 11년 제의무교육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진국에 몸소 교육시험을 포치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에로 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인군들에게 자주 진화로 혹은 직접 몸가까이에 부르시여 교육시험의 진행정형과 11년 제의무교육의 준비정형을 알아 보시고 새로운 의무교육의 켓 삭으로 되는 교육시험을 실속있게 잘해 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전국에 포치된 시험교육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만 6살 어린이들의 지능발전정도가 능히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어느덧 한해가 지나갔다. 만 6살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벌써 1학년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교육시험을 포치하신 때로부터 1년이 되던 1971년 9월 한달동안에만도 교육부문일군협의회, 전국시험하급담임교원협의회,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들을 여시고 새 의무교육의 준비정형을 몸소 료해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1971년 9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국의 시험하급담임교원들을 친히 부르시었을 때였다.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교원들과 교육부문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 6살짜리 학생들이 1학년 과목을 소화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학교 입학나이를 한해 아래로 앞당기는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 하는것을 토론해보자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 한해동안의 교육시험정형을 보고, 울리게 된 영광을 지닌 교원들은 저마다 만 6살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와 처음 얼마동안은 좀 힘들어하였지만 그들의 심리와 정서에 맞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가르치고 지도한 결과 모두 최우등,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올리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시며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온 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만 6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육체적피로는 느끼지 않던가, 아이들의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는가 등을 알아보시며 교원들이 가지고 온 학생들의 학습장과 시험답안지, 성적분석표 등을 일일이 료해하시었다.

별방지대의 농촌학교에서 온 교원의 보고를 듣고계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통학거리는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었다.

제일 먼곳이 4키로메터라는 대답을 들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2키로까지는 일없을것같으나 4키로는 좀 멀다고 하시며 학생들의 시험성적표를 다시한번 유심히 보시었다.

이윽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도시와 별방지대 그리고 산간지대 학교 학생들의 성적에서 차이가 많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산간지대학교에서 온 교원의 보고를 들으시었다.

《동무네 학교에는 10리이상 되는데서 다니는 만 6살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6키로메터 되는데서 다니는 학생이 두명 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깊은 심려가 어린 안색을 지으시며 《6키로메터 되는곳에서 다니는 학생이 두명 있다고 하는데 왕복 30리는 너무 멀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먼데 아이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통학거리가 먼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우리는 그때 아버이수령님의 심중을 알수 없었으나 그 이튿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시야 그이께서 어린이들의 통학거리를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던 그 참뜻을 알수 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유치원과정울 거친 만 6살 어린이들이 인민학교 1학년 교육을 훌륭히 받을수 있으나 통학거리가 먼 산간지대 농촌학교들에서는 힘들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거리가 멀어서 본교에 다니기 힘들면 그 유치원에다가 선생을 한명 파견하여 1학년과목을 거기에서 마치고 2학년부러 본교에 들어가

서 공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에다가 1학년과목을 배워주는 선생을 파견해서 1학년교과서를 배워주고 조금 큰 다음에 7살부터 멀리 다니게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연구하면 다 할수 있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도시와 변방지대는 물론 산간지대의 어린이들에게도 하루빨리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안겨주시려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들앞에 제시하여주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이밖에도 유치원 중급반과 고급반에서 인민학교에 입학시킨 준비를 시킬데 대한 문제, 1학년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유능한 교원을 배치하고 학급담임을 교착시킬데 대한 문제, 실물교육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직용한데 대한 문제, 교과서의 내용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만들데 대한 문제 등 만 6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교양사업과 11년제의무교육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는 그때 1년동안의 교육시험을 통하여 11년제의무교육을 위한 준비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기때문에 경이하는 수령님께서 이제 당장 새로운 의무교육으로 넘어갈데 대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5시간나마 진행된 협의회를 계속지으면서 새로운 의무교육제로 넘어가자면 아직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하시며 시험교육을 한해 더 해보자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시험학교를 한 400개 더 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것은 새 의무교육을 그만큼 앞당겨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현명한 가르치심을 받들고 다시 인민학교수의 10프로에 해당하는 학교들에 만 6살 어린이들을 더 넣고 시험교육을 포치하였으며 특히 농촌과 산골 그리고 유치원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들의 교육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

아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원, 교실, 교과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되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도마다에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더 배 오고 그 모집규모를 대대적으로 늘이도록 하시는 한편 여기에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으며 아직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나오지 못한 교원들을 대학통신학부에 망라시키는 조치를 취 하시고 해마다 전국적인 교수강습을 조직진행하여 교원들의 정치실무 적자질을 높이게 하시였다.

또한 교원들에게 학습할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모범교수안 도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교편물들과 참고서들, 학생요양자료들도 많이 찍어주게 하시였으며 교원들의 물질적대우도 높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의무교육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교원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도록 예견성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학교와 유치원 건설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전국, 전민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자면 해마다 수십 만명씩 늘어나는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는 교실과 유치원 건설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건설대상들 가운데서도 학교와 유치원 건설을 첫자리에 놓아주시고 자재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학교와 유치원 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헌지에 나오시여 학교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후대들을 위하여 이제는 바람 사나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양지바른 들덕에 학교 터전을 잡아주시고 오늘은 또 안개자욱한 이른 새벽에 학교건설장을 찾으시여 실계도면으로부터 시공방법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는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시설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여오신 아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마운 은덕을 생각할 때 마다 1969년 6월 9일에 하신 그이의 간곡한 말씀을 감회깊이 되새기 게 된다.

~ ~ ~ ~ ~ 전반적 11년제의 의무교육에 갖는 위대한 사랑 ~ ~ ~ ~ ~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학교건설문제를 친히 토의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학부형이 아닙니까.

오늘의 이 정치위원회는 학부형회의를 한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천만부모들의 사랑을 합쳐도 그 높이와 깊이를 따르지 못할 이 얼마나 육친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말씀이신가!

우리모두가 학부형이라고 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학부형회의》로 불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진정 학부형이라는 말이 생긴 이래 언제 한번 이 말이 그렇듯 숭고한 뜻을 가지고 높이 울려본적이 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나라 수백만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학부형이 되어주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해빛 밝은 배움의 요람을 더 잘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고 새 의무교육의 준비사업을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은 성과적으로 진척되어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어버이수령님께서 두차례나 시험교육을 포치하시면서 넘겨하시던 새 의무교육의 학제를 포함하여 학령전 어린이들의 교육문제와 교재편찬 등 여러가지 대책안을 종합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는 영광을 지닐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육시험을 포치하시던 첫시기에 벌써 우리들에게 새 의무교육의 학제를 연구해보라는 과업을 주시였지만 우리는 그때로부터 새 의무교육의 학제를 놓고 많이 토론을 하면서도 그에게 보고올리는 순간까지도 정확한 하나의 학제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속에서 4. 4. 2제요, 4. 3. 3제요, 5. 5제요 하는 등

으로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다보니 결국 어버이수령님께 올린 그 대책안에마져 하나의 학제를 찍지 못하고 여러가지 학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올린 그 대책안을 받아보시고 1972년 5월 31일 교육부문의 한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새로운 의무교육의 가장 합리적인 학제를 천제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학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여러가지 학제에 입장일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기간에 완성해야 하기때문에 4. 6제를 하는것이 원만합니다. ...

유치원 높은반에서 의무적으로 1년동안 교육을 주자는것입니다. 인민학교 입학전에 1년동안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5. 6제를 하는것이나 같게 됩니다.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교육일군들이 그처럼 모색하며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도 규정하지 못하고있던 새 의무교육의 학제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학제는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게 중등교육을 원만하게 준수 있는 가장 우월한 학제이다.

소수 특권층의 자녀들에게만 중등교육의 길이 열려져있고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초등교육이나 주어 값싼 로동력으로 준비시키는 부르주아사회에서의 학제와는 달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학제는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을 높은 단계의 중등,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능력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시킬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학제인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11년제의무교육학제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방침은 그 어느 나라 교육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유치원이라고 하면 학교전 어린이들의 정서교양의 장소로만 인정하여왔을뿐 그 누구도 유치원이 의무교육기관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만 5살 어린이들의 교육문제를 역사상 처음으로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시였으며 학령전어린이들에 대한 준비교육의 시초를 마련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학교전 의무교육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비로소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사이의 련계와 계승성이 합리적으로 보장되고 입학나이를 한살 앞당기는 조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데 대한 공산주의적시책을 보다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무교육을 준비하는데서 교육내용을 개편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미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교육장령의 작성과 교과서편찬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유치원 높은 반과 인민학교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1972년 6월 22일,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우리 교육 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오늘은 오전시간을 다 내서라도 동무들과 교과서도 같이 검토하면서 협의하자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우리 교육일군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뜨겁게 받아안으며 끓어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나선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헤아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대교육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심려하시던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한나절씩이나 아낌없이 바치시여 인민학교 어린이들의 교과서까지 보아주시겠다고 하시겠는가.

진정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의 력사에 이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는가.

우리는 모두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치시는 교과서의 책장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들을 한장한장 읽어보시고 내용이 너무 어렵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교과서를 어린이들의 나이와 지능정도에 맞게 더 쉽게 만들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유치원 높은반에서 가르칠 학과목과 그 내용들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유치원 높은 반에서는 《우리말》, 《셈세기》, 《그리기와 만들기》 교과서를 만들어 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유치원 높은반에서 줄 교육내용을 잘 편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말> 과목에서는 어휘를 많이 대주고 글씨쓰는 법도 좀 가르칠수 있을것입니다. <오이>, <가지>, <바다>, <아버지>라든가 <뜨락또르>, <자동차>, <기차>, <놀이>, <총>과 같은 단어들은 가르칠수 있지만 문장으로 연결된 글을 가르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단어만 주고 문장연결시키는것은 그만두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매개 과목들의 내용을 일일이 화정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써버릇해야 사고력이 발전한다고 거듭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천적단계를 열어 놓으시고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신 역사적인 첫 개학날은 이렇게 마련된것이였다.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받아안은 우리 교육부문일군들은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 밑에 온 나라 학부모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11년제의무교육의 완전한 실시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어나갔다.

그러던 1973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11년제의무교육을 6개년계획기간안에 실시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먹고 입는것은 한해이래 참을수 있지만 교육을 늦게 하면 그만될

뒤떨어집니다. ...

지금부터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해도 10년후인 1982년에 가서야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니 앞당겨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의 높은 언단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앞당겨 실시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 보람찬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해마다 늘여 주시고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진요하게 쓰실 예비까지 다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온 나라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법령에 예견하였던것보다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거듭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1975년 4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토의하고 1975년 9월 1일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것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1975년 9월 1일,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새 학년도 개학날이 밝아왔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에로의 완전한 이행, 이 얼마나 격동적인 사변인가!

그것은 후대교육에 각별히 큰 의의를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나라의 만년초석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트 새긴 민족적경사였다.

이 경사스러운 날 아침 나는 뜻밖에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평양 창진인민학교에 친히 나오신다는것이였다.

나는 흥분된 가슴을 안고 바삐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운동장에는 벌써 교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손에손에 꽃뭉음을 들고 줄지어 서있었다.

우리들은 자나깨나 흠모하여마지 않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실 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오전 10시 30분,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교에 도착하시었다.

순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폭동같은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온 운동장이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루며 새차게 설렘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만뎨에 자애로운 웃음을 담으시고 그칠줄 모르는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면서 줄지어신 신입생들의 대렬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학교현관쪽으로 퉁퉁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비구름 낮게 드리웠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학생대렬을 향하여 손을 지으시며 팔리교실로 들어가라고 제촉하시였다.

그러나 환영대렬은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교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리는 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이때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 우산을 받쳐드리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비를 맞고있는데 나 혼자 우산을 쓰겠소?》라고 하시며 굳이 사양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엄하신 기색으로 말씀하시였다.

《왜 아이들이 찬비를 맞게 하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소. 어서 들여보내시오.》

자신께서는 비물에 옷을 적시시면서도 이런 학생들이 비를 맞는 것을 보시고 감기에라도 걸린세라 그토록 걱정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 나는 그만 감격에 목이 베여 두눈물을 적시였다.

현관에 들어저신 그이께서는 《이 학교가 전후에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지은 학교이지, 내가 이 학교에 와본지도 딱 오래되었구만.》라

고 매우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전쟁의 포연도 채 가시지 않았던 정전직후 양지바른 만수대언덕 남쪽 기슭에 이 학교를 지을 터전을 친히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1954년 9월 26일, 새로 일떠신 이 학교에 나오시어 교수교양사업을 보살펴주시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2층계단을 오르시어 교실들을 돌아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학년 2반교실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영광스럽게도 입학하는 첫날에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자기들의 교실에 모시게 된 만 6살 어린 학생들은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넘쳐 새별같은 눈물을 반짝이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올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어서들 앉으라고 하시었다.

학생들은 몸가짐도 바르게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들의 책상마다에는 새로 받은 교과서들과 학습장, 연필과 파과 색종이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두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어요?》하고 다정하게 물으시었다.

어린 학생들은 한사람같이 《예!》하고 힘차게 대답을 했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중 제일 어려보이는 맨 앞줄 학생의 교과서를 손수 펼치신 다음 글자를 짚으시면서 《이것이 뭐예요?》하고 물어보시었다.

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할 자세를 하고있었다.

우리모두의 시선은 그 학생에게로 쏠리었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저으기 마음이 긴장되어있었다.

이러한 때 그 학생의 자신만만한 대답소리가 청청하게 울렸다.

《<아이>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이>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또 다른 글자를 짚으시며 물으시었다.

《이건 무슨 자예요?》

《어서》

《이건》

《가자》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신이 나서 대답하는 나 어린 학생의 두 불을 다정히 풀어주시면서 참 똑똑하다고 거듭 칭찬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계속하여 또 이렇게 물으시었다.

《학교에 오는게 좋아요? 집에서 노는게 좋아요?》

《학교에 오는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오는게 왜 좋아요?》

《공부해서 좋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 어린 학생의 꾸밈없는 대답을 매우 기특히 여기시며 여간만 기뻐하시는것이 아니었다.

신입생들을 만나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2학년 8반교실에 들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과목구성과 교육내용편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원과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몇개 과목을 가르칩니까?》

《열개 과목을 가르칩니다.》

담임교원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과목, 들인가고 다시 물으시고는 그 과목 이름을 하나하나 손수 짚아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과목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좀 많은것 같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담임교원은 《부담을 좀 느끼는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올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한 학생에게 물으시었다.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요? 어느 과목이 제일 힘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그 학생은 자기가 평상시에 힘들다고 생각하던 과목이름을 그대로 말씀올렸다.

교원, 학생들의 이야기들 다 들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 신반직11년제의무교육에 갖는 위대한 사랑 ~~~~~  
들을 돌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학과목을 정하거나 교육내용을 편성하는데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두뇌발전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어느 과목과 어느 과목은 합치고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게 편성하는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느끼었다.

교육위원회를 책임지고 직접 학교교육사업을 지도해온 나 자신은 지금까지 학교에 나가 글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것도 그리 하였지만 더우기 글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 없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을 만나보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전체 교원들을 모이도록 이르시었다.

이때 교원들은 각기 자기 교실에 있었기때문에 그들이 다 모이자면 시간이 좀 걸려야만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모든 교원들을 다 만나보시려고 마지막 한사람까지 기다려주시었다.

(후대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시고 교원들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면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몸소 기다려주시기까지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한 교원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그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는 어찌할바를 몰리하며 그 자리에 서고만있었다.

자애로운 눈길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어서들 앉으시오. 결상이 모자라면 작은 결상이라도 가져다가 앞에도 앉고 옆에도 앉으시오.》라고 하시며 친히 앉을 자리까지 정해주시는것이였다.

잠시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

였다.

그때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친어버이를 한자리에 모신 하나의 단란한 가정을 방불케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학교는 오랜 학교인데 꽤참게 꾸렸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사임하는데 애로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었다.

교원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기때문에 아무런 애로도 없다고 말씀올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학교형편과 교수교양사업정형을 깊이 료해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것은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할수 있게 된것은 우리 인민들과 교육부문일군들 특히 교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우리 당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무릅쓰고 어린이들을 다 공부시키기 위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현시기 교육부문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일군으로 키워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간곡히 아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11년제의무교육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오고

##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갖든 위대한 사랑

장 내는 감격과 흥분, 새로운 충성의 결의로 끓어번졌다.

이윽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이나 한장 찍읍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면 하던 우리모두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숭고한 품모와 고마우신 은정에 대하여 나는 다시한번 가슴뜨거이 느끼게 되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한나절동안 순간의 휴식도 없이 학교사업을 지도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긴감히 일을 잘하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시고 학교를 떠나가시였다.

돌이켜보면 11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후대교육에 돌려주시는 크나큰 아버지사랑의 불멸의 서사시였다.

우리 전체 교육부문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품소 마련하여주신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일원단심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혁명의 만년초석을 더욱 굳건히 나져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 △ 어휘 및 표현

○ **진명학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청소년들에게 혁명교육을 실시하던 4년제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카문일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이 일대의 청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시기 위하여 이 학교를 세우시고 품소 학생들을 가르치시였다.

○ **9년제기술의무교육.**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나라에서 1967년부터 실시된 교육체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인 9년제기술의무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민학교 4년제와 중학교 5년제로 된 교육체계를 통해서 9년동안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주어 그들

을 지, 덕, 체를 갖춘 진면적으로 반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능력있는 새 사회의 건설자로 키우는 가장 우월한 교육체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부터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배려를 돌리주시었다.

모든 세세대들에게 모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무로의무교육인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은 가장 높은 형태의 의무교육이다.

○ 만년대계. 아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든든하고 전망성있게 짜는 큰 계획이나 설계.

○ 일장일단이 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못한 점도 있다.

○ 천금같다. 《아주 귀중함》을 이르는 말.

○ 양지(가) 바르다. 땅이 해빛을 잘 받는 자리에 있다.

○ 만면에 자애깊은 웃음을 담다. 온 얼굴에 인자하고 사랑이 깊은 웃음이 드러나 보이게 하다.

○ 눈물을 머금다. 눈에 눈물이 굴썹굴썹 피게 하다.

○ 못내 기뻐하시다. 아주 그지없이 기뻐하시다.

○ 화기에 넘치다. 화목한 분위기에 넘치다.

○ 가슴이 막 활광활광하다. 가슴이 막 흥분되어 몹시 설레이며 뛰놀다.

○ 은정을 배풀어주시다.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정을 배풀어주시다.

○ 비범한 예지. 아주 먼 앞날까지 관히 꿰뚫어보는 아주 특별히 밝고 뛰어난 슬기.

○ 유심히 보다. 주의깊게 보다.

○ 심종을 알수 없다. 속마음을 알수 없다.

○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 아주 귀중한 시간.

○ 머리를 쓰다. 이리가지로 따지보며 궁리하거나 생각하다.

○ 아랑곳하지 않다. 어떤 일에 상관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다.

○ 자신만만하다. 아주 자신이 있다.

## 은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는 만경대

4월의 만경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 4월의 만경대에는 만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화창한 봄날의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져내리는 4월의 만경대를 찾은 우리들은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 눈보라 울부짖는 숙명의 밤, 우등불가에 둘러앉은 대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감회깊게 들려주시며 하신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되었다.

만경대는 내가 자란곳이요...동무들도 다 채고향을 사랑하듯 나도 만경대를 사랑하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모두 고향사람들의 뜻과 지성이 깃들어있는것이요. 내가 심은 나무들도 지금은 퍼켰을것이니까. 왜 이런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소.

눈길 만리, 불길 수십만리를 헤치시며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수령님께서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던 만경대.

조선혁명의 역센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오늘이 마련된 혁명의 요람 만경대.

은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오는 영광의 만경대에는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바치는 지성의 이야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이야기들이 수많이 깃들어있다.

### 영원한 흐름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조선의 고향집이 자리잡은 만경대, 4월의 만경대에는 이 나라 각곳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복도의 정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든다.

유서깊은 초가집앞으로, 어린시절 수령님께서 군사들이물 하시던 군함바위와 셀매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던 한습터와 그배터에도, 낚시터와 만경봉, 그 어디에나 경건한 마음으로 결음을 옮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이 길에 넘치게 굽이치는 대하처럼 끝없이 흐르고있다.

이것은 뜻깊은 4월의 봄에만 한한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만경대로, 만경대로 찾아온다.

몇해전 12월, 눈내리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만경대초가집 사립문 앞에 한 인민군군인이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옷깃을 여미고 서있었다.

몇해만에 휴가를 받은 그는 그리운 만경대부터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사적지에는 어느덧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펑펑 내리는 함박눈을 내쳐 맞으며 초가집으로부터 만경봉까지 사적물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고야 떠났다.

방선의 초소에도 만경대의 흙으로 붉은 꽃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눈속의 흙을 한줌 파가지고 어둠속으로 멀리 사라져가는 군인을 바태우는 강사들의 마음도 후더웠다.

한해에도 몇번씩 만경대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평양에 왔다가 만경대에 들리지 못하면 마치 심장을 떼여놓고 가는것처럼 섭섭해진다고 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시로 찾아오군 하는 사람들, 우리 인민들은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만경대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며 만경대를 찾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긴다!

진정 우리 인민들이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었던 우리 인민들에게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시었으며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자주 찾아오는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 응당한 일이다.

하기에 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돌아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20년동안 언제나 열려있던 만경대초가집의 사립문은 오늘도 어버이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수령님께



은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는 만경대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한마음을 안고 무시오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이 사립문을 들어서면 사람들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몇해전 봄날에는 황해남도의 한 할아버지가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찾아왔다.

80이 훨씬 넘은 늙은이었다.

어느날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앉히고 집안에 정중히 모신 만경대초가집그림을 가리키며 자기의 질절한 소원을 말하였다.

《내 죽기전에 만경대에 가보는것이 원이다.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 가본지도 벌써 6년이 되었구나. 너희들과 함께 한번 더 보고싶구나. …》

하여 할아버지는 아들, 손자들과 함께 만경대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던것이다.

대물 이어 가난한 소작살이에 동이 휘고 지저리 못살던것이 장군님덕분에 제땅에 씨를 뿌리보고 이제는 기계농사, 화학농사를 지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잘살게 되는데다가 세월이 하도 좋아 50을 넘기기 힘들던 가문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80고개를 넘겼다고 늘 자랑하던 할아버지였다.

추녀낮은 초가집이지만 이 세상 그 어느 집보다 높이 보이는 만경대초가집마당에 들어선 할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지라진 호미와 닳아진 보습, 가난의 자취가 력력한 세간살이들을 일일이 더듬어보면서 며염며염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탄생하셨으니 우리같이 못살던 사람들의 평생소원을 다 풀어주셨지…내 이제 더는 원이 없다. … 너희들은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장군님께 대물 이어 충성을 다해야 한다. …》

끝없이 밀려드는 참관자들, 그들이 사는곳과 이름, 초소와 하는 일, 성별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황해남도의 할아버지와 같이 대물 이어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이야 어찌 다르랴.

서로 다른 산골마다에서 솟은 샘물이 흘러 내가 되고 그것이 합쳐져서 마침내 큰 강을 이루듯이 이 나라 각곳에서 만경대로 끊임없

이 밀려드는 참관자들의 흐름, 그것은 진경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헌신을 다하리라는 굳은 한 마음, 충성의 마음과 마음들이 한곳으로 흐르는 충성의 대의이다.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영광의 땅, 만경대에 도도히 굽이치는 충성의 흐름,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지며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충성의 대하는 주체조선의 끝없는 번영과 함께 영원히 흐르고 또 흐를것이다.

## 충성의 꽃바다

4월의 만경대에는 오늘 만가지 꽃들이 절은 향기를 뿜으며 아름답게 피어나고있다.

조국의 천만가지 아름다움을 한품에 안고 솟아있는 만경대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은 수천수만송이의 꽃들, 이 꽃송이들과 함께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지성으로 꾸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고있다.

유서깊은 만경대초가집의 정원에는 수십년 묵은 한그루의 목란꽃 나무가 서있다.

제철이 되면 그윽한 향기를 뿜으며 조선사람의 기상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목란꽃, 이 나무는 수령님탄생 예순툐이 되는 해의 어느 봄날, 수령님에 대한 온 가족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천주리의 한 집에서 가져다 심어놓은것이다.

이것은 천주리의 한 가정에만 한한 이야기자 아니다.

평안남도 증산군의 한 토인은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애 자기의 가장 귀중한것을 바치고싶은 심정으로 9대를 내려오면서 애지중지 키워온 수백년 묵은 향나무를 떠실고와서 만경대교향집의 정원에 정성담아 심어놓았다.

기나긴 봉건의 압제밑에서, 일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밑에서 이 나라 인민들의 고통과 수난의 력사와 함께 자라온 그 향나무, 그 집안사람들은 향나무를 심고 대를 이어 키워오면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아볼것을 념원했으며 극성스럽게 일하였다.

은 수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는 만경대

그러나 100년 세월을 거듭하고 세대는 바뀌고 또 바뀌었어도 대를 물려온 그 집안사람들의 념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들은 고된 소작살이와 천대, 모진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향나무와 함께 대를 물려온 이 집안사람들의 질절한 념원, 보람차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의 세기의 념원을 바로 이버이수령님께서 다 풀어주시었다.

하기에 증산군의 그 로인은 대를 물려온 자기 집안의 념원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수령님께 충성을 다 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그 향나무를 떠실고와서 만경대에 심었다.

한 젊은이가 만경대초가집뒤에 앵두나무를 심어놓고 해마다 배낭에 부식토를 지고와서 주고간다는 이야기.

평양시의 한 로인이 자기 집마당에서 키운 여섯그루의 야합수를 만경대에 심었다는 이야기.

강원도 고산군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험한 산밭을 타고넘으며 같은 모양, 같은 무게, 같은 색깔의 조약돌들을 정성껏 골라가지고와서 만경봉의 샘물터에 깔아놓았다는 이야기.

몇해전 어느 겨울날, 강계시의 나어린 55명의 학생들이 열두그루의 소나무를 가지고와서 심었다는 이야기.

만경봉의 진달래와 살구꽃, 수많은 소나무와 잣나무, 탐스러운 함박꽃들과 그늘밑에서 꽃피는 비비추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께 대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심은 나무들과 꽃포기들을 다 헤아릴수는 없다.

이 나라 곳곳에서 인민들이 만경대를 더욱 아름답게 지성으로 꾸러려는 한마음으로 가져다심은 수천수만그루의 나무들과 꽃포기들, 이 갖가지 나무들에서 봄마다 천만송이, 수천만송이의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서 만경대는 말그대로 짙은 향기에 휩싸인 꽃바다들이룬다.

그것을 어찌 단순한 꽃으로만 보겠는가.

그것은 진정 위대한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로 우리 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망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과 마음들이 천만송이의 꽃으로 붉게 피어난 충성의 꽃바다이다.

영광의 땅, 만경대에 피어나는 충성의 꽃바다는 해와 달이 다하도록 대를 이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까지 천만년을 두고 더욱더 활짝 피어날것이다.

## 배움의 성지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단 한번 만이라도 참관하는것을 평생소원으로 여기며 대양과 대륙을 넘어 지구우의 곳곳에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싶어하던 페루의 한 사회활동가는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의 벗들이 다 그러하듯이 떠장을 풀기 바쁘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부터 먼저 찾았다.

혁명의 발원지, 만경대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의 분멸의 이야기들을 듣는 첫 순간부터 깊은 감동에 잠긴 그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존모의 정을 누를길이 없었었다.

만경봉으로 오르는 길에 우리 강사가 얼마전에 만경대를 방문한 스웨리에의 한 손님이 가지고 온 5천 메터의 필립이 모자라서 찍고싶은 사진을 다 찍지 못하여 안타까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는 5천메터가 아니라 5만 메터라도 모자랄것이라고 말하였다.

하긴 만경대의 나무 한그루, 물 한포기에도, 오솔길과 조약돌 하나에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숭고한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어찌 몇만, 몇십만 메터의 필립엔들 다 담아낼수 있겠는가.

만경대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페루에 돌아가서 자기 집 옷방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로작들로 서재들 꾸

렸다는 소식을 전 해왔다.

만경대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느낀 그는 두번째로 우리 나라에 올 때에는 안해와 함께, 세번째로 올 때에는 온 가족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딸과 사위까지 데리고 왔다.

세번째로 만경대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만경대는 오면 올수록 새롭고 뜨거운 혁명정신을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유서깊은 초가집앞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루는 내가 태어난 조국이고 조선은 나의 사상의 조국》이라고 긍지높이 웨치었다.

이런 이야기는 베루의 한 사회활동가에 한한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한 손님은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를 참관하고 끊어오르는 걱정을 금하지 못하여 일주일간이나 만경대에 머물러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만경봉에 올라 시상을 무르익히고 기타를 타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만경대에 대한 노래를 지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의 한 성원은 자기 나라에서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혁명송가를 지어가지고왔는데 만경대를 참관하고나서는 그 노래가 너무 무색하다고 하면서 밤을 밝히며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담아 새 혁명송가를 지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아프리카의 한 국가수반이 방문일정을 마치는 마지막날 상점에 들러 만경대초가집의 그림을 보고 그 길로 만경대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

외국의 한 벗은 만경대를 참관하고 만경봉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며 이 물과 함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피와 살 속에 넣어가지고 간다고 했다는 이야기.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깊이 공감된 아랍의 한 벗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배우는데서 만경대를 참관하는것은 첫 공정으로 된다. 나는 만경대를 떠나고싶지 않다. 보고 또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곳을 매일 학교에 다니듯이 오군했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이야기, 이런 수

많은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적을수 있겠는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불굴의 투사로 키우는 혁명의 학교, 만경대를 참관한 외국의 벗들은 만경대의 초가집앞에서 꽃씨도 받아 가고 거기서 조약돌도 가지고 가며 만경봉의 소나무에서 술방울도 따 넣어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들이 가져다심은 만경대의 씨앗들은 오늘 아세아와 구라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각곳에서 혁명의 노래속에 날에 날마다 더 많은 붉은 꽃으로 망울져 피어나고있다.

참으로 시대와 력사 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배움의 성지로, 주체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혁명의 등대로 바라보며 그 광휘로운 빛발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있으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있는것이다.

\*

\*

\*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

조선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리지고 우리 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마련된 혁명의 요람 만경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혁명의 발원지 만경대,

위대한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시발점으로 빛나는 혁명의 성지 만경대,

온 누리에 휘황찬란한 빛을 뿌리는 영광의 만경대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뜨거운 지성과 수령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심장들에 떠받들리어 오늘은 물론 천만년을 두고 영원히 높이 솟아있을것이다.

### △ 어휘 및 표현

- 은 누리. 은세상.
- 경건한 마음. 높이 우러러보고 소중히 받드는 태도가 조심스럽고 기분이 엄숙한 마음.
- 애지중지 키워오다. 매우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키워오다.
- 숭엄한 감정. 거룩하고 엄숙한 느낌이나 기분상태.

·정론·

## 삼천리금수강산

1930년대 초 혁명조직으로부터 연락 임무를 맡고 근거지를 떠나 눈보라 아우성치는 광야를 걷고있던 한 소녀가 불행하게도 원수놈들에게 체포되었다.

수색과정에 놈들이 비밀쪽지를 발견하게 된 순간 소녀는 원수들의 면전에서 그 글쪽지를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악에 받친 원수놈들은 소녀의 콩콩 뛰는 자그마한 심장에 대고 수 십발의 총탄을 퍼부었다.

공포에 질린자들의 단말마 적발악이었다.

원수들의 갖은 고문으로 찢어진 옷, 피루성이 된 얼굴 그러나 심장이 멎은 소녀의 맑은 눈만은 감겨지지 않은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꿈결에도 잊어본적 없는 조국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있는것인지...

그후 소녀의 앞가슴에서는 소중히 간직된 한장의 종이가 발견되었다. 무궁화꽃송이로 둘러싸인 조신지도, 그 밑에 시루른 글씨로 또 박도박 씌여진 일곱자의 글—삼천리금수강산, 이것이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의 전부였다.

아름살난 소녀의 품속에서 발견된 피에 젖은 이 한장의 종이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추적을 가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강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 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제가지의 수산물과 가는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가 잘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그것을 일제놈들에게 죄다 빼앗겼다.



항일의 준엄한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물거리는 밀영의 등불로 해방된 조국의 대일을 구상하시며 비쳐보시던 삼천리금수강산,

원수들의 군화가 이 땅을 짓밟을 때 울분과 분노와 복수에 찬 이 나라 수천수만의 심장들이 정녕 꿈결에도 불려보고 또 불려보던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인민은 수천만의 혈육들이 유구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온 22만여평방키로메타의 강토를 이렇게 조국이란 말대신에 불려왔다.

삼천리금수강산, 이 짙막한 말속에는 우리 인민의 조국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살아 숨쉬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흘러온 오늘에 대한 크나큰 갈망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수천년을 두고 것처럼 친근하게 불려오던 이 말이 오늘처럼 인민들의 감정 그대로를 담고 오늘처럼 뗏뗏하고 자랑스러이 불리운 때는 일찌기 없었다.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의 나날에 우리 민족이 이처럼 바라고 념원하던 자기의것으로 된 삼천리금수강산, 그것이 오늘은 이 땅우에 위대한 현실로 펼쳐진것이다.

수려한 금강의 메부리들과 천리동해가의 소나무숲, 자연경계만을 가지고 조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은 나라에 밀림처럼 공장굴뚝이 일어시고 판개의 그물이 온 대지를 뒤덮은 땅, 두메산촌에까지 준비하게 문화주택이 늘어지고 트랙트와 자동차의 행렬이 지축을 울리는 땅.

이것이 수려한 강산우에 우리 인민의 창조의 열매가 주렁진 삼천리금수강산-사회주의조국의 경치이다.

지난날 선조들은 조국의 아름다움을 비단실로 수를 놓은것에 비기여 금수강산이라 하였지만 그 어떤 재능있는 수예가도 이처럼 아름답고 심오하고 장엄한 내용을 담고 이 땅우에 펼쳐진 사회주의경치를 수예작품으로 재현하기에는 그 재능이 너무나도 미숙하리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한몸에 안은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인민이 창조한 사회주의경치가 이처럼 정답고 소중한게, 이처럼 아름답게 안겨오는것은 이 속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기때문이다.

여기에 한쪽의 조선화가 펼쳐져있다.

대해로 흘러드는 대동강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드는데 그 대안에 우리 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강선의 장엄한 공장진물이 감빛노을을 바탕으로 끝없이 펼쳐져있다.

대지에 어둠이 깃들면 예로부터 만물이 깃을 모은다고 하였지만 여기 강선의 공장굴뚝들에서는 약동하는 조국의 기상인양 연기가 하늘높이 타래쳐오르고있다.

《강선의 저녁노을》로 널리 알려진 이 한쪽의 그림이 우리 인민의 심장을 것처럼 뜨겁게 울디주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 어떤 화가의 재능에 있는것도 아니며 화려한 저녁노을에 있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강선을 일떠세운 사람만이, 강선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인민만이 볼수 있고 느낄수 있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이 한쪽의 그림 속에 반영되어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강선의 오늘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진 이 한쪽의 그림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먼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셨던 그 뜻깊은 날을 회고하게 되며 그이께서 전쟁으로 인하여 재더미로 된 강선땅의 한그루 백양나무 밑에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장엄한 레인의 설계도를 펼쳐주신 날과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마련한 위대한 력사의 그날을 가슴뜨거이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대해같은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 인민이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의 경치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을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피로써 조국을 지켜내고 폐허우에 락원을 일떠세우는 간고한 투쟁의 치열한 그 력사의 나날이 없었던들 오늘의 금수강산 우리 조국을 상상이나 할수 있을것인가.

노을이 불타는 저기 강선만이 아닌 조국의 전체 판도의 한치한치의 땅에 위대한 수령님의 우리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서사시가 금문자로 또박또박 아로새겨져있으며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의 력사가 기록되어있다.

1955년 8월, 삭주와 창성지구를 현지지도하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어느 일요일 한낮이 기운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휴식하시기를

절절히 바라는 수원들을 안심시키시려는듯 낡시대를 드시고 수풍호반으로 나가시었다.

그러나 수원들이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낡시대가 드리워진 호안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그이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순간 깎아지른듯한 험준한 벼랑에 오르시여 머루덩굴과 다래덩굴을 헤치시었다.

세기를 두고 속절없이 썩고있던 심산속의 부원들을 헤아리시는듯 해쓱도록 산발을 오르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며칠후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인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오죽하시면 한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날새들도 깃을 펴기 주저하는 그 험준한 벼랑길을 뚝소 오르셨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속에서 황금산, 황금벌이 세상에 대어났고 절승경개 연풍호와 보통강반, 백리청춘파원과 비단섬이 조국의 지도우에 기록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풍요한 조국강토,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마련해주시려고 비오는 아침이나 눈내리는 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슬찬 농장벌과 불꽃튀는 건설장, 서해가 배머리와 백두산록의 별뿔장을 찾으시여 걸고걸으신 150여만리 현지지도의 기나긴 로정을 우리 어찌 여기에 다 직을수 있을것인가.

참으로 이 땅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대에 길이 전할 찬연한 업적을 교령듯 격조높이 노래하고있음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운것이 아닌가!

위대한 사랑의 력사가 수놓아진 삼천리금수강산—여기에 주체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며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이 있다. 여기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청산리와 대안, 숙천과 창성이 있다.

여기에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주체의 조국—삼천리금수강산의 참다운 아름다움과 그처럼 심오한 내용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털벗었던 조국땅에 이름 그대로의 삼천리금수강산—장엄한 사회주의경치를 마련해주신 우리 민족의 만고의 은인이시며 영원한 어버이이다.

풍덕벌에서 백두산록에 이르기까지, 서해의 비단섬에서 서수라각에 이르기까지 이 땅우에 펼쳐진 풍요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머리속에 그릴 때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삭주에서 창성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올라서면 금부리라는 마을이 내려다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림이라고 한장 그리고싶을 지경입니다. 참으로 금부리는 옛말에 신선들이 내려와 살았다고 하는 선경을 방불케 합니다. 금부리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이 다 풍요하고 아름다우며 우리 나라 농촌은 가는곳마다 다 선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나라 농촌이 이와 같이 유족하고 문명한 농촌으로 전변되고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살려는 우리 농민들의 숙망이 현실로 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수천년을 두고 넘월으로만 그려오던 삼천리금수강산—사회주의조국의 장엄한 경치가 이 땅우에 펼쳐졌으니 그 창조자다운 우리 인민이 이 자랑찬 창조물을 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일것이다.

얼마전 비단섬갈증합농장에는 배낭을 멘 두명의 제대군인이 도착하였다.

그들인즉 이 농장에서 입대한 동무들도 아니며 제대되어 이 농장에 배치되어온 동무들도 아닌데 이곳 농업로동자들이 이들 두 제대군인을 이처럼 뜨겁게 환대하여준 사실은 과연 의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들의 이야기인즉 당이 파견하는 세 초소로 떠나면서 꼭 비단섬의 오늘의 모습만은 보고떠나고싶어 며칠씩 지휘관에게 간청하여 끝내 그곳이 실현되었다는것이다.

무엇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초소로 나갔던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그리도 못걸디게 보고싶게 하였겠는가.

...여기서 그들의 컷 로동의 기쁨이 마련되었다. 아직 학창시절에 여기 일터를 지원하여나왔던 그들은 이곳에서 밀리드는 조수를 가슴으로 막아 새로 일터서는 제방을 구원하였고 여기 일터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찬물속에 뛰어들어 마지막 제방을 사수하고 새해 컷

아침에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전투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그들은 삼천리금수강산에 참가되는 한치한치의 땅을 보았으며 여기서 청춘의 푸른 꿈을 조국이라는 위대한 개념과 련결시키는 법을 배웠었다.

초소에 서서 원썬들을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고있을 때 병사의 가슴속에서 《우리와 등뒤에 혁명의 수도 평양이 있다. 우리의 등뒤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낫 땀방울이 스민 파도처럼 때리는 비단원료기지가 있다.》는 질절한 웨침이 울려나오더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어찌 티끌만한 허식이라도 있다고 하겠는가.

그들이 오늘은 당의 요구에 의하여 총을 마치로 바꾸어줬었지만 이제 또다시 조국이 부른다면 다시 마치를 총으로 바꾸어주고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위하여, 우리의 땀과 영예가 깃들어있는 한치한치의 조국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1211고지와 351고지의 영웅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용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실증하였다.

원썬의 화점을 단숨에 까부시고 아군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수많은 고지의 영웅들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에서 제손으로 공장일을 떠맡고 제손으로 첫물길을 짜던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들이 아니었던가.

조국에 대한 사랑,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나사자란 고향산천에 대한 사랑, 부모지사들에 대한 사랑, 자기의 정력과 땀이 스민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조국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기의 로력적성과를 기뻐하고 인민이 창조한 모든것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감수할줄 아는 사람만이 원썬들로부터 그 소중한것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위협에 한몸 바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혁명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무의미한것입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

주의를 건설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것처럼 공지에 차서 삼천리금수강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자기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만세나 부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 말속에는 5천만의 인구와 22만여평방키로메터의 평토,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위대한 창조물이 받침되어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강토의 한부분에는 아직도 거북등처럼 터진 호남벌이 있으며 원수들의 오물로 어지럽혀진 마산땅이 있다.

우리는 미나민 혁명의 길을 그리도 빨리 달려왔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아직도 이룩해야 할 커다란 혁명위업이 남아있다.

우리 여기서 다시한번 저 만주의 광야에서 한뼘기의 꽃으로 피어났던 나이런 혁명전사의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되었던 한장의 지도를 생각해보자.

무궁화꽃송이로 둘러싸인 그 지도가 갈라진 조국강토였던가, 그것은 하나로 이어진 강토, 백두산의 정기가 한나산에 잇닿아있는 삼천리금수강산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뜨거운 심장에 주체형의 붉은 피가 끓고있는 우리들—혁명전사들이 어찌 갈라진 조국강토를 두고,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때문에 황폐화된 절반땅을 두고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뿔뿔이 부를수 있겠는가.

삼천리금수강산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신의 한몸과 같이 느껴질진대 피멍이 든 그 한부분을 어찌 묵인할수 있을것인가.

남녘의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남녘의 혁명가들이 만주의 광야에서 나이런 혁명전사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가슴속에 품었던 그 지도를 안은채 쓰러지고있는데 우리 어찌 투쟁을 멈출수 있겠는가.

조국통일의 숭고한 위업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초소가 기대앞이건 건야이건 천리방선이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삼가 맹세드리자.

그리하여 기어이 도탄속에 싹틔우는 남녘의 모든 어린이들과 어머니들, 혈육들을 구원해내자.

우리 민족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 삼천리금수강산

수령 김일성동지물 모신 우리 세대에 우리 민족최대의 위업인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고 통일된 삼천리금수강산을 후대들에게 넘겨 주는것은 우리 세대의 크나큰 의무이며 영광이다.

이 혁명의 길, 영광의 길에 한몸 다 바치여 자랑하는 조국강토-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 천추만대에 길이 살아있을 혁명의 꽃을 떨기떨기 수놓아가자!

### △ 어휘 및 표현

- 눈보라 아우성치는 광야. 넓은밭에 눈보라가 몹시 치다.
- 뿔뿔 뛰는 자그마한 심장. 이런 심장이 뛰다.
- 선경. 경치가 씩좋고 그윽한 곳
- 탄말마적발악.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악을 쓰며 죽어가거나 망해갈 때에 벼랑거리미 쓰는 마지막 모질음
- 대해같은 사랑. 바다같이 넓은 사랑(아주 크고 넓은 사랑)
- 대지에 어둠이 깃들면 예로부터 만물이 깃을 모은다. 저녁이 되면 자연계의 온갖 생물들이 깃을 가다듬고 보금자리에 든다는뜻
- 민족의 만고의 은인.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 도란속에 신음하다. 몹시 곤난하고 고통스러운 생활형편에서 허덕이고 고생하다.
- 재야의 종소리. 설날 그믐날밤에 울리는 종소리

·문설·

##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우리 시대의 건박한 요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엄중히 도전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팀 스피리트 78》이라고 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한미련합작전훈련》을 벌리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불장난이 마치 그 어떤 《방어》를 위한것이 며 남조선인민들을 위한것이거나 한듯이 거짓을 꾸며대었다.

이번 군사연습소동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무력공갈책동이며 피뢰도당을 부추겨 식민지파쇼통치를 유지하며 남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흉악한 책동이다.

군사분계선가까이에서 진행된 미제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전하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념원을 유린하는 극히 모험적인 전쟁연습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정세를 전쟁집경으로 이끌어가고 조선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한미련합작전훈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할수 없다는것을 산증거로써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미제가 조선에 대한 흉악한 침략야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도사리고있는 한 조선에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질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참화에서 벗어날수 없고 분렬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의 승상이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겪고있는 민족적 고통과 불행은 가셔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1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지난 시기 인류에게 류혈적인 참화를 거듭 들쳐왔은 미제는 끊임 없이 침략과 전쟁의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위어나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특히 조선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조선정전이래 최대규모의 《한미연합작전훈련》은 날로 더욱 강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의 뚜렷한 표현이다.

미제는 이 군사연습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일본본토와 오키나와, 필리핀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륙해공군, 해병대와 남조선피퇴군주력부대 도합 10만명 이상의 대병력을 동원하고 핵로켓트, 핵공격용 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등 여러가지 핵공격무력을 비롯한 많은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투입하였다.

미군과 피퇴군의 모든 군종, 병종들이 다 동원되고 《지상작전》, 《상륙작전》, 《폭격훈련》, 《략하산, 중장비투하훈련》 등 모든 작전을 포괄한 《한미연합작전훈련》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부터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기 위한 광란적인 전쟁소동이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예비전쟁》, 《시험전쟁》이였다.

특히 이 전쟁연습에서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랜스》미싸일발사 훈련을 진행한것은 조선에서 핵전쟁까지도 일으키려는 미제의 검은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이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이 조선에서 핵전쟁을 유발할수 있고 세계적인 핵참화를 가져올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 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미제의 군사우두머리들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하며 남조선을 무력으로 《수호》할데 대하여 폭언을 늘어놓은것은 이 군사연습의 도발적성격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

《한미연합작전훈련》은 《평화》의 탈을 쓰고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의 《량면전술》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평화》에 대하여 많이

부르짖고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연습은 미제는 길과 축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그의 침략적야망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침략과 전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평화》의 연막을 두텁게 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 때 그 소음속에서 전쟁의 흉악한 계획이 빚어진다는것을 역사적사실들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수호자》의 탄을 쓰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며 《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칼부림을 한 범죄의 행적을 한두번만 남기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결코 평화를 바랄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신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세계의 이목을 반대로 돌리기 위하여 《평화》의 구호를 웨치는것이다.

미제가 떠드는 《평화전략》은 곧 위장된 전쟁전략이며 《평화》의 논리는 곧 전쟁의 논리이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리이며 체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자기의 주되는 생존 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

제국주의정책은 독점의 정책이며 독점의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이다.

제국주의정부는 독점의 이익을 대변하며 독점의 팽창주의적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린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는 있을수 없다.

가장 야수적이고 횡포한 제국주의인 미제국주의가 걸어온 역사는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의 역사이며 피비린 살륙과 강탈의 역사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은 그 치지가 어려워질수록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제국주의의 승양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침략전쟁들은 대의없이 그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악적책동의 산물이였다.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있는 미제국주의는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다.

미제의 이른바 세계전략은 그들의 이와 같은 처지와 야망을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의연히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만하게도 세계를 《지도》할 미국의 《책임》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힘의 배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자》들과의 《 제휴》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력량을 반대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화해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있다. 미제의 세계전략이야말로 오만한 《힘》의 전략이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침략전략이다.

미제는 아세아에서도 《힘》으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들은 아세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존재》를 유지하고 미국의 《국가적이익》을 지키겠다고 하고있다.

실제로 미제국주의자들은 항공모함들을 비롯한 7함대함선들, 잠수함들, 전술비행대들, 상륙대기부대들, 해병 사단과 터단 등 수많은 침략무력을 태평양지역에 무기한으로 유지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동북아세아지역에만 14만 5천명의 무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있다. 이것은 아세아에서 《힘》으로 식민주의지배를 유지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세계전략과 아세아전략에서 조선은 가장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과산몰락되고있는 자기의 식민지 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점으로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패배를 거듭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적거점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견제하며 이 지역에서 식민주의 지배를 유지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침략적목적밑에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하고 이곳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쥐며 조선의 분열을 고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분열과 전쟁 로신을 실현하는데 《철군》의 간관을 리용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라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철군》문제를 들고나오게 되었다.

현 미국대통령 카터는 이진에 남조선으로부터 짧은 시일안에 핵무기와 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것을 거듭 말하였다. 이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카터의 행동은 말과는 다르게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당초의 공약대로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와 모든 미군무력을 철수시키는것이 아니라 해군, 공군을 비롯한 많은 무력을 계속 남겨두고 지상군만 4~5년내에 《조심스럽게 서서히 정세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되 그것까지 주력부대는 마지막까지 남겨둘것이라고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불충분한 《철군계획》마저 제대로 실제행동에 옮기려 하지 않고있다.

도리어 지금 《철군》의 막뒤에서는 무력증강책동이 추진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무력을 보강하고 그 공격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보완조치》라는 이름밑에 남조선피뢰도당에게 거액의 군사원조를 퍼부으며 수많은 현대적무기들을 넘겨주고 그 전쟁잠재력을 늘여주고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동안에 수십억달러의 군사원조를 들이밀어 각종 미싸일과 전투기, 함선과 탱크 등 살인수단들과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또한 조선주변의 미군기지들에 육해공군의 대부대들을 대기시켜놓고 유사시 《기동타격력》으로서 조선에 즉시 출동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이란 결국 태비변경과 증강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무력의 전략적재포치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정책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도 없다.

미제가 《철군》을 떠들면서 일본반동들을 새로운 전쟁도발음모에 끌어들이고 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조선침략에서 한몫 보려는 야심밑에 일본반동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범죄적용계를 실현하는데 적극 가담해나서고 있다.

미제는 미일《한》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을 조선침략을 위한 발진기지, 병참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며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조선전선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서 남조선피뢰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군사연습이 빈번히 벌어지고있으며 이번 《한미연합작전훈련》에서 일본본토와 오끼나와가 직접 그 기지로 리용된것은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떠드는 《철군》이란 결국 그들의 《힘》의 정책의 변종이며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음모를 가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제는 저들의 전쟁도발준비책등을 그 무슨 《남침위협》에 《대처》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남조선피뢰도당과의 《공약리행》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허위와 기만으로써는 사실을 감출수 없다.

이미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조선에서 《남침위협》이란 존재한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오직 북침위협만이 커가고 있다.

이른바 《힘의 균형》이란 침략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공약리행》이란 조선에서 침략과 간섭의 손을 떼지 않고 지난 조선전쟁과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겠다는것을 말하여줄뿐이다.

《철군》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준비책등은 그들이 평화유지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힘》의 립장에 서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실증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긴장완화》, 《군비통제》에 대한 요란한 부르짖음속에서 미국력사상 류례없는 대대적인 군비증강책등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핵 집권자들은 미국의 군사비를 50억~70억달러 삭감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어제의 공약은 오늘 휴지로 변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예산은 1977회계년도에 1천 60억달러였다면 1978회계년도에는 1천 180억달러로, 1979회계년도에는 1천 284억달러로 급격히 늘어나 《미국력사상 최대규모》의것으로 되었다.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미제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피부어 순항미싸일, 중성자폭탄, 《트라이든트》잠수함, 《엠 엑스》대륙간탄도미싸일 등 최신키 대량살륙무기들을 개발하고있다. 이것은 입으로는 군비축소를 부르짖으면서 행동으로는 군비증강을 다그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의 일단이다.

미제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군비경쟁과 무기개발은 《핵》에 의한 세계정책수행에 복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에서 나토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아세아에서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일층 강화하며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를 대주어 이 지역들에 전쟁의 온상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조선과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미제야말로 평화의 파괴자이며 침략의 원흉이며 전쟁광신자이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라는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려 《평화의 수호자》로 가장하여도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 2

미제국주의는 남의 나라의 재부를 굶어가고 인민의 피땀을 빨아먹는 가장 큰 착취자, 약탈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약탈할것이다.》

착취와 약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타고난 본성이다.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원래 침략과 약탈의 피거름속에서 태어나고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덕으며 살져왔다.

미제가 자랑하는 거대한 재부는 허공에서 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약탈의 산물이다.

남의 나라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오늘 카터정권은 자기를 세계인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원조자》로, 《은인》으로 광고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약탈적본성을 가리우고 세계인민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약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국경제는 생산의 침체와 실업의 증대, 통화팽창에 원료난, 연료난까지 겹쳐 진데없는 위기를 겪고있다. 안정된 원료 및 연료 원천지와 시장을 확보하며 경제적난국에서 헤어나는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명줄을 걸고있는 미국경제는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서방제국주의경제체계에서 차지하는 미제의 지배적지위는 점차 약화되고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미제는 계속 밀려나고있다.

이런 처지에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를 계속시키며 남을 착취하고 약탈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다.

카터정권의 대외경제정책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낚은 착취체계에 계속 얽매여놓고 가혹하게 약탈하며 서방세계에서 자기의 경제적패권을 유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와 연속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해외약탈정책은 남조선에서도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실시되고있다.

남조선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군사전략적기치일뿐아니라 아세아에서 경제적 팽창과 약탈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값죽은 로동력을 탐내고있으며 대륙붕지역에 매장되어있는 석유자원에 눈독을 들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약탈정책의 본질은 남조선경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천저히 종속시키며 나아가서는 피퇴정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일층 강화하자는데 있다.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고 약탈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원조》와 협력의 간판밑에 진행되고있다.

미국의 독점체들은 《원조》와 《협력》의 이름좋은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리며 엄청난 독점적고물리운을 짜가고있다.

미국의 독점체들은 국가자본과 함께 남조선에서 직접투자를 늘여 값죽은 로동력을 착취하고있다.

미제의 독점회사들은 남조선로동자들에게 하루 12~16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면서도 자기 나라 로동자들에게 지불하는것보다 5분의 1~10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을 주며 그것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직접투자의 리윤률은 미국본토나 구라과 여러 나라들에서보다 몇곱질 더 높으며 여기에서만도 미제는 해마다 수많은 리윤을 짜가고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독점적지위를 리용하여 잉여공업상품과 농산물 같은것을 비싼 값으로 판아먹고있다.

미제의 가혹한 약탈과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한심한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경제는 외래독점체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있으며 그들의 원료와 연료, 부속품과 설비에 의거하지 않고는 단 한시도 움직일수 없다.

중소산업은 자금난, 원료난으로 대대적으로 파산문락하고있다.

농촌경제는 미제의 가혹한 수탈과 잉여농산물의 범람으로 여지없이 황폐화되고있다.

예로부터 목창지대로 알려진 남조선이 오늘은 해마다 300만~350만톤의 식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막힌 형편에 놓여있다.



남조선은 100여억달라라는 무거운 외국의 빚더미에 짓눌려있으며 지금도 해마다 20여억달라의 빚을 지지 않고는 살수 없다.

남조선은 세계적인 《부채의 왕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심해지고있으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고있다.

바로 이것이 미제가 많은 《원조》를 쏟아부었다는 남조선의 실태이다.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미제의 《원조》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원조》는 결코 남을 위한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들자신을 위한것이다.

그것은 지배와 예속의 울가미이며 침략과 약탈의 도구이다. 미제는 《원조》를 식민지통치를 유지공고히 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 팽창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남을 예속시키며 약탈하고있다.

달라를 미끼로 남을 나누어 저들의 지배와 예속의 죄사슬에 얽매여놓고 최대한의 착취와 약탈로 치부하는것, 이것이 미제가 추구하는 《원조》와 《협력》의 진짜목적이다.

남조선은 지금까지 미제로부터 근 140억달라의 《원조》와 여러가지 《협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빼앗긴것이 받은것보다 더 많다.

미제의 《원조》로 턱을 보았다면 그것은 극소수 매관자본가들과 친미반동관료배들뿐이다.

남조선피뢰도당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빌붙어 계속 《원조》를 구걸하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외세에 송두리채 내맡기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원조자》의 탈을 쓴 미제의 착취와 약탈 행위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약탈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이 지역에 자기의 명줄을 걸고있다. 3대륙에서 미제는 해마다 중요한 전략자원을 비롯한 수많은 자원을 약탈해가며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다.

이 생명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미제는 기만과 회유, 위협과 몽골로써 낚은 국제경제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자기의 독점적 리권과 지위를 보존하며 이 지역 나라들을 안정된 원료원천지로 들어쥐고 계속 약탈하기 위한 흉악한 책동이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리해관계문제인 《남북문제》해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취하고있는 입장도 다른것이 아니다. 미제는 《시장개방》, 《개발자금의 증대》, 《공동기금설정》, 《특혜조건의 제공》등 허울좋은 명목으로 마치도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척하면서 종전과 같이 이 나라들의 자원을 약탈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엄중한 식량난을 겪고있는것을 기회로 하여 식량을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목적에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식량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척하면서 막대한 초파리운을 짜내고있으며 그것을 내정간섭과 압력의 도구로 삼아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몰락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식량과 함께 무기수출로 굉장한 돈벌이를 하고있다. 한때 카터는 무기수출을 《너절한 영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에 와서 《미국은 무기조달을 대외정책의 특수수단으로 간주하고요. 긴하게 씨먹을것》이라고 하면서 무기장사를 조장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세계경제의 《경기회복》과 《번영》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른바 《3대기관차론》을 들고나오고있다.

미국, 서독, 일본이 함께 《협력》하여 자본주의세계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3대기관차론》도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해 꾸며낸 미제의 《교안품》이다.

이것은 미국의 지휘봉밑에 자본주의나라들을 묶어세워 연합된 세력으로 현대자본주의경제의 총파산을 막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려는 반동적인 책략이다.

미제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하여 미국을 뛰어넘어서지 못하게 하며 서방 《동맹국》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은 이 나라들에 인위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위기를 조성해놓고 도와주는척 하면서 끌어당기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교활한 수법까지 쓰고있다.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실로 미제의 착취직, 약탈직 야욕에는 한계가 없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피와 땀을 것처럼 악착스럽게 빨아내어 딸라주머니를 불구면서도 오히려 《원조자》로, 《은인》으로 자칭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그 무엇으로써도 미제야말로 가장 큰 국제적착취자이며 약탈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가리울수 없다.

### 3

미제국주의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교살하며 나라들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흉악한 국제헌병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모든 국제분쟁들을 좌지우지하려는것은 미제국주의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온갖 전횡을 부러왔다.

미제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오늘도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카터는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도,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면서 온갖 전횡을 부리던 미제가 세계제패의 야망을 버리고 국제헌병의 역할을 더는 놀지 않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을 예속시키고 통제하려는것은 미제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의 발현이다.

미제가 제국주의로 남아있는 한 국제헌병으로서의 책동도 없어질수 없다.

미제는 오늘도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데서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다.

무력으로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누르며 그 자주적발전을 가

로 막는것은 미제국주의가 의거하고있는 기본전략의 하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총칼로 인민들을 다스리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그들의 진출을 억누르려 하고있다.

오늘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벌려놓은 미제의 군사기지는 침략과 전쟁의 거점인 동시에 현지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 기세를 막기 위한 국제헌병대의 진초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그 어디에서보다 더 로골적인 강점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의 온 강토를 군사기지로, 병영으로 뒤덮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된 남조선은 조선에서 새 전쟁의 발원지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동북아세아지역에서 남은 세력을 유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신생력량의 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지탱점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은 미제가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고 인민들을 탄압하며 제멋대로 날치던 지난 시기의 강도적수법을 오늘도 그대로 쓰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할뿐아니라 더욱더 잔교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압해활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압해활동을 강화하면서 인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독립을 위협하며 혁명의 진취물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특히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생명선을 쥐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을 이루고있는 팔릭불가담 나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 기본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친선》이니 《민족자결권의 존중》이니 하는 간판을 들고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지이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공갈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제는 또한 반동들을 매수하고 부추기면서 정부요원암살, 정부전복음모, 내부교란, 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습격, 개별적정치사회활동가들에 대한 테로등 각종 파괴압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전복활동으로 일련의 나라들에서 친미피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미제는 피뢰들을 틀어쥐고 지들의 하수인으로 부러먹다가도 그들이 쓸모없게 될 때에는 주저없이 진복음모를 꾸며 새로운 피뢰로 갈아대고있다.

미제는 내장간섭행위와 파괴암해활동으로 사실상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느 하루도 소요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주권을 유린당하거나 침해당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팔릭불가담나라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벗》으로 작처하고있는 미제가 말하는 《자주권》과 《독립》에 대한 《존중》이며 《친선》과 《협조》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통제와 파괴책동에서 정보모략활동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미제의 파괴암해활동과 정보모략활동의 총본영이며 집행자이다.

미중앙정보국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로부터 오늘 미제는 이른바 《비밀이 없는 정치》라는 구호를 들고 정보모략기구의 《개평》놀음을 벌리면서 마치도 정보모략책동을 줄일듯이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미제의 비밀활동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되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의 검은 축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곳곳으로 계속 뻗어나가고있다. 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수를 통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간섭, 정담, 살인, 파괴, 소요, 와해, 진복음모와 같은 온갖 범죄적인 모략행위를 쉬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지어 국제기구들까지 손아귀에 넣어 리용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국제기구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두려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내놓고 위협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서슴지않고있다.

미제는 또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불화와 알류, 분렬과 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분할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다.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로골적인 무덕침공과 함께 언제나, 분렬리간책동을 침략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삼아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분렬리간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특히 미제는 팔력불가담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 반제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분렬외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령토문제, 신앙과 제도의 차이, 경제적 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교활한 수법으로 나라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반복질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치, 군사적 대결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파괴하는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사실상 국부적인 분쟁이 그칠 사이가 없다. 이것은 자주, 독립,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적지 않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미제의 분렬책동은 조선에서 가장 엄중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상투적수법에 아메리카식 파렴치성과 강도성을 결합하여 우리 나라에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적인 음모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리간시키는 분렬정책도 아니며 그 어떤 다민족국가를 갈라놓는 분렬정책도 아니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한강토우에서 단일한 국가를 가지고 같은 문화와 력사를 창조하면서 함께 살아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억지로 갈라놓는 날강도적인 분렬정책이다.

이것은 력사상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이 실시해온 분할통치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한 분렬정책이다.

조선인민과 같은 단일한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으려 하는것은 침략의 원흉이며 흉악한 분렬주의자인 미제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행위이다.

미제는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큰 나라들에 의한 《국제적조강》이 조선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 황당한 논거를 내들고 이른바 《교차승인》이니 남북조선의 《유엔통시가입》이니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이니 하면서 우리 나라들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영원히 자기손에 틀어쥐며 조선의 통일을 막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차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앞에 지지르고있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며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 4

미제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흉악한 교살자이다.

카터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후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반공모략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궁지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지배층의 새로운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일떠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있다. 동남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과 《푸에블로》호사건, 《위티게이트》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적책동들을 통하여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흉악한 정체와 취약성, 미국지배층의 추악한 몰골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국내적으로 극도로 고립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으로서 들고나온것이 카터의 《인권옹호》, 《인권의외교》의 간판이다.

미국지배층은 《인권옹호》라는 간판을 들고 침략자, 약탈자, 인권유린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싸며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계인민들속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체면을 추세우고 반미감정과 반미투쟁을 무마시키며 다른편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고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책동하고있다.

전국 미제의 《인권외교》란 무력으로 이룩할수 없는 집략적목적을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그것은 미제가 일관하게 결지하고있는 《힘의 정책》의 장식물인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기만술책으로써도 인권유린자본주의의 저들의 진면모를 숨길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

제국주의와 인권, 이것은 결코 양립될수 없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극악한 인권유린자이다.

미국은 원래 수천만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무덤우에 세워진 나라이며 그 지배계급은 흑인들을 노예화하고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빨아먹으면서 살찌왔다.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유린에서 노예상인의 후예로서의 악명을 떨치고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부의 차가 제일 심한 나라이다.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이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은 짓밟히고있다.

미국의 수천만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란 한갓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맥카시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과 미련방수사국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이 진보적인사들과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누르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 피부색이 다른것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공직과 거주,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과 제한을 받고있을뿐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도 백인들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다.

남녀불평등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과렴치한 행



위가 감행되고있다.

미국에서 돈많은 소수특권계층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어 호의 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수천만 근로자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이고있다. 7백만의 실업자와, 2천 7백만의 극빈자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7백만 세대가 쓰지 못할 집아닌 집에서 살고있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

소수착취계급들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데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향유하지 못하고있는 사회, 피부색이 다르다는 한가지 이유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회, 억만장자들은 호의호식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회,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마구 탄압하는 사회,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미국사회의 통치자들이 감히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인권에 대하여 말할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뿐아니라 남조선, 칠레, 브라질을 비롯한 저들의 피뢰국가들과 예속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하고있다.

미제의 지배밑에 있는 남조선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심한 인권유린지대로, 민주주의의 폐허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악독한 파쇼통치제도인 《유신체제》가 벌써 여러해째 계속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말살되고있다. 《긴급조치》의 련이은 발동과 매일과 같이 일으키는 검거선동, 기동되는 정치재판으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무고한 주민들이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인간이 있어도 인권이 없는 남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되고있다.

중세기의 암흑시대도 아닌 20세기에 민주주의가 횡포한 권력의

재물로 되고있는 남조선과 같은 혹독한 인권유린지대가 지구우에 있다는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의 선량한 사람들과 공정한 사회여론은 한길 같이 남조선에서의 암흑통치, 박정희피뢰도당의 파쇼대로통치를 규탄하고있으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유독 인권에 대하여 그처럼 요란하게 광고하는 미제의 우두머리들만이 이에 대하여 아닌보살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참말로 관심이 있다면 카터가말하는것처럼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보편성을 가지고있는것이 사실이라면 그 보편성이 증명되어야 할 첫째가는 대상은 바로 남조선일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묵과하여왔을뿐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부인해보려고까지 하고있다.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 그들은 《정치범들로부터 고문에 의한 피해의 보고가 있지만 미국정부로서는 한국에서 고문이 실행되고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고문은 박정희피뢰도당이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언제나 적용하는 수단이다.

그들은 불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하여 사람에게 육체적고통과 심리적고통을 주기 위한 수십가지의 야만적인 고문방법을 적용하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고문뿐아니라 테로, 암살, 람치 행위도 서슴지않고 감행하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이처럼 애국적인민들과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으로 명줄을 이어가는 포악무도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 지배층이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이를 비호하는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미국지배층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인권유린행위를 비호하고있는 저들의 모순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리저리한 구실을 꾸며내고있다.

그들은 《안보》와 인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있다.

《안보》는 미제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기 위하

여 박정희피뢰도당에게 쥐어준 칙령의 구조이다. 남조선에서 파쇼테로통치와 악독한 인권유린행위는 《안보》의 구실밑에 합법화되고있다.

압제자의 학정밑에 억눌려있는 남조선과 같은 사회에는 적용될수 없는 《인권》이라면 그것이 무슨 인권인가. 그런것을 가치교서 《인권외교》요 뭐요 하는것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미국지배층은 미국의 《인권운동》이 《정치적소동》이 일어나고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처럼 인권문제가 심각하고도 침해한 정치적으로 나서고있는곳은 없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인권소동이 없는것처럼 꾸며보이려고 애쓰고있으며 내외여론이 떠들고있는 《김대중사건》에 대해서조차 모르는체 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인권구호의 기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일은 미국지배층이 모르게 박정희피뢰도당이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다.

남조선《정권》은 미국이 만들어내고 미국의 군사력에 의하여 지탱되고있으며 미국의 경제력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식민지피뢰정권이다.

만약 미국지배층이 진실로 인권유린행위를 막을 생각이 있다면 남조선에서 정치적반대와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인권침해행위를 능히 저지시킬수 있다는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인권외교》의 《보편성》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대는 미국의 현지배층이 피뢰들의 인권유린행위를 감싸주는것은 그들이 표방하는 《인권외교》가 가짜이며 휴지장만도 못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자체의 산물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8.15후 광범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파쇼테로통치제도를 조작해낸 장본인이 바로 미제이다.

오늘 가장 횡포한 인권유린자로서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박정희피뢰도당을 길러낸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그를 피뢰정권에 들여앉힌것도 미제국

주의자들이다. 당시의 미중앙정보국장 델레스는 회고록에서 자기의 책임기간에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군사정변이 남조선의 《5.16군사정변》이었다고 실로하였다.

박정희피뢰정권을 뒤받침하고있는 무장장비도, 피뢰들이 인민탄압에 쓰고있는 땅크와 장갑차, 최루탄, 현대적인 교문도구도 그것은 미제가 제공한것이다.

카터는 《인권외교》의 간판을 들고 세계에서 인권의 《재판관》처럼 행세하면서도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문제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고 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보호》니, 《공약》이니 하면서 피뢰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늘이고있다.

원래 미제는 력사적으로 조선사람을 친대멸시하면서 온갖 침략책동과 만행을 일삼아온 우리 민족의 천천지 원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선교사, 자선가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어린이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직》이라는 글을 새기며 조선사람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마구 죽이는 등 흉악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8.15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온갖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400어머니와 102어린이의 무덤을 비롯한 신천에 있는 가지가지의 증거물들은 침략자 미제의 야수적본성을 온 세상에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오늘도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점습격, 부녀자릉육 등 온갖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새군무기까지 실험하고있다.

과연 카터의 정책과 그 실행자들의 정책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미제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기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 5

미제국주의는 략탈과 전쟁의 원흉이며 최대의 착취자, 략탈자이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교살자, 국제헌병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극악한 유린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검은 손길이 뻗치고있는 곳마다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강도적략탈이 감행되며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근원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3년간의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분렬로 인하여 우리 인민은 국경이 아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친형육들사이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커가고있으며 통일이 아니라 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빼앗기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동지를 틀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검은 구름은 가셔질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룩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하나의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살기 위하여 벌써 30년이상이나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도 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요구를 거역하면서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 오히려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기사건, 《판문점사건》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을 영구히 틀어쥐기 위하여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은 카리가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도 의연히 계속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바뀌어도 정책은 달라질수 없다. 거기에서 실제로 정치를 하는것은 독점재벌이며 행정부는 독점자본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카리는 선행자들보다 더 교활하며 그의 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가장 윤희하고 악랄하게 추진시키고있다.

《철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준비 책동이 이것을 실증하여주며 이번에 진행된 《한미련합작전훈련》이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현 지배층도 력대집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일이 아니라 분리를 바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전쟁소동을 벌려도 결코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거기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위협과 공갈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원수들의 침략과 도발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한다는것을 여러번 보여주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불장난을 그만두어야 하며 유엔의 결의와 자기의 공약대로 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를 길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군은 부분적으로 철수할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완전히 철거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철수할것이 아니라 무조건 당장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가 물러가지 않는다면 남조선은 전쟁의 화약고로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다.

미제가 끌어들이 수많은 핵무기가 남조선전역에 전개됨으로써 조선은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유발할수 있는 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누구의 독점물도 아닌 핵무기를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 다면 핵전쟁의 위협은 더욱 커질것이며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아세아와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오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조선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견결히 배격하고있으며 미국안의 선량한 인민들도 이것을 반대하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도 리로울것이 없다.

미제는 지난날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얻은것이란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뿐이었으며 세계의 먼진에서 침략자의 더러운 물품을 드러내고 극도로 고립된것뿐이다.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민도 부시운 참변을 겪게 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더 큰 파멸을 당하게 될것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새 전쟁에서는 중국적멸망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할 때 다른 나라들만 희생을 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쟁책동을 그만두고 물러가는것은 미국자체를 위해서도 상책이며 그들에게는 이밖에 다른 출로가 없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조선침략에 추종하여 같이 춤추지 말아야 하며 조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일본령토를 미군의 군사작전기지로 내어맡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의 위협은 박정희피퇴도당의 새 전쟁준비와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피퇴들은 세계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지금에도 미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하며 핵무기를 내가서는 안된다고 애걸하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에서 살구멍을 찾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박정희피퇴도당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을 핵전쟁에 몰아넣으려는 흉악한 호전광이며 외세와 한짜이 되어 통일을 가로막고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극악한 분렬주의자이다.

박정희피퇴도당은 민족분렬과 군사적모험의 길에서 목숨을 이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지나온 분렬의 역사가 가져다준 재난과 고통도 헤아릴수 없이 크지만 분렬의 지속이 앞으로 가져다줄 후과는 더욱더 엄중할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켜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면 할수록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될것이며 반미반파쇼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 인민들의 반항이 있고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투쟁으로 나라를 통일할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워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진쟁도발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할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위협하려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려 하지 않는다.

《남침위협》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며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 국토가 파괴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위협과 침략은 우리 당의 정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이다.

우리는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평화를 주장하며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승상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평화를 고수하려는 우리의 저항과 념원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를 먼저 다치려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소멸할것이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조국통일위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어나갈것이다.

미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침략하고 예속하며 약탈하고 탄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인류공동의 원수이다.

미제국주의는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자기의 처지를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바로 미제의 침략과 약탈로 말미암아 세계인민들은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새생활을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은 커다란 지애를 받고있다.

세계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번영,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국가사회정치제도나 정견과 신앙의 차이, 오늘의 처지나 형편에 관계없이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의 공통적인 과업이다.

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하는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가 안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원초적인 문제이다.

그 누구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의민하거나 회피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이나 기대도 가지서는 안되며 언제나 미제를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미제의 침략과 약탈 책동을 지지파탄시키고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지킬수 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양양되는 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며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기본추세이다.

\* \* \*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침예하고 긴장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세진 정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변할수 없으며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달라질수 없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북반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천용성같이 보위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제반미교양, 반수정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다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피뢰도당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신성

~ ~ ~ ~ ~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 ~ ~ ~ ~

한 민족적권리이며 의무이다.

자주의 혁명적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어휘 및 표현

○ 역행. (인정한 순서, 체계, 방향 등과는 반대되게) 거슬러 행함, 또는 거슬러 올라감.

○ 행적. 행동의 신적이나 자취.

○ 제휴.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이 뭉기나 련계를 가지고 행동함.

○ 눈독(을) 들이다. 차지하고 싶거나 또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잔뜩 눈여겨보다.

○ 덕(을) 보다. 남의 덕대운 입다.

○ 유발. 어떤 일에 유인되어 다른 일이 발생함.

○ 호전광. 전쟁을 찬기며 이에 미치날뛰는 자.

○ 승냥이는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나 계급적원수들의 반동적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비묘하여 이르는 말.

○ 천장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침략적인 전쟁의 불을 지르는 책동을 비기이르는 말.

○ 전쟁의 운상.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만원지》를 비기 이르는 말.

○ 매국배족행위.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는 행위.

○ 허울(이) 좋다. (생긴 모양이) 실속은 없고 겉으로 볼품스럽다.

○ 좌지우지하다. 이리저리 제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르다.

○ 검은 족수. 음흉한 행동이 미치는 손길.

○ 삼투적수법. 눈 쓰는 수법.

○ 반목질시하다. 서로 시비하고 밉게 보다.

○ 세계제패의 야망.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야심을 품은 욕망.

○ 궁지에 빠지다. (정세나 분위기 등이) 곤란하여 이적할수 없는 지경에 빠지다.

○ 그림의 떡. 그림속의 떡은 보고도 먹을수 없다는 뜻으로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차지할수 없거나 리용할수 없는 경우》를 비묘하여 이르는 말.

○ 아닌 보살하다.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척하다.

○ 불행의 화근. 불행을 낳는 근원.

• 단편소설 •

## 태양을 우리러

눈이 내렸다. 함박눈이 내렸다. 해방된지 얼마 안되는 민주수도 평양의 거리우에 하염없이 내린다.

은 하늘이 그대로 마구 무너져내리듯하는 함박눈은 높고낮은 지붕들과 가로수들과 아스팔트우에, 전차길우에, 걸가는 사람들의 어깨우에 서들러 조심히 자리를 잡는다.

어디나 눈, 눈, 눈이었다. 눈의 도시, 흰 도시는 자장가에 조으는 어린애의 요람처럼 푸근하였다.

수도의 거뭇거뭇한 성벽들과 붉은 벽돌담벽들은 그 어떤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듯하였고 어데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는 땅우에서가 아니라 아득한 저 먼 하늘에서 함박눈이 부르며 내리는것인듯했다.

앞을 분간할수 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천천히 발길을 옮기던 어머니 한분이 해방산기슭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군복차림에 총을 둘러멘 꼴꼴한 젊은이들이 마침 열을 지어 씩씩하게 앞을 행진해가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는 혹시 그속에 아는 사람들도 있다가를 찾아보듯 실눈을 지었다. 그러더니 자기도모르게 가슴이 철렁해진듯 한참이나 그 실눈을 숨빉숨빉했다. 청년들만 보면 늘 이려고 그 다음에는 뉘이 없이 그냥 서서 바라보는 어머니였다.

저뭇저뭇 발자국소리를 남기며 그들이 저만큼 멀어져간 다음에야 이끌리듯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었다. 정작 눈에 피가 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야 겨우 섰던 자리를 뜨는것이다.

어머니는 이 사람, 저 사람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를 물더니 부지런히 걸었다. 흰 무명치마저고리에 당복수건을 모자처럼 쓴 어머니의 칼칼한 얼굴은 성품이 보통 강인해보이지 않는데 신들메를 죄여신은 짙신 또한 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거처오는듯만 싶은 인상을 던져주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아들과 남편과 며느리와 딸을 바치고 손자도 없이 혼자 남은 강씨다. 희생된 그들을

대신하여 어머니는 지금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누구나 혁명을 위해 땀땀이 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아들의 이야기만은 꼭 장군님께 말씀을 올리려는 어머니였다. 그럴것이 아들은 자기가 마친 그 장렬한 최후에 대하여 장군님께 보고를 올릴수 없었던것이다.

아들을 대신하여 장군님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기전에는 죽지도 않고 앓지도 않는다는 어머니가 오늘은 장군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오는길이었다.

꿈만 같은 그 기별을 받은 그날부터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온 식구가 오붓이 살았던 고향집을 떠나 이틀 낮과 밤을 달려오는 기차칸에서 연신 두눈을 습박이군했다. 자기 혼자 살아서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 뵈러 가는것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였다. 더군다나 이제는 타고가는 이 기차도 우리의것이요, 눈앞에 펼쳐진 땅도 바다도 머리위에 비껴 하늘도 우리의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내내 그 생각을 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왕준아! 에미는 너를 두고 이렇게 혼자서 장군님을 만나러 간다...)

...어머니는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겨우겨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를 찾아갔다. 자기가 똑바로 찾아왔다는것을 확인하자 어머니는 도리어 그 어떤 감격의 현훈을 느끼었다.

보초소에서도 어머니를 알고있었다.

《여기서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전화를 거는것 같았다. 그러더니 벌써 누군가 어머니를 찾아 마주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부관이라고 했다.

아들 왕준이의 나이인 그 부관은 어머니의 뽕뽕 언 두손을 잡아 놓여주며,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조심히 걸으십시오. 눈이 깔려와서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부관이 어머니의 허리를 부축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부관의 안내를 받으며 얼마쯤 걸어올라가던 어머니는 그만 눈지도 않은 계단중간에서 주저앉았다. 절을수가 없었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의 광극단에서 몸부림치며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주체해보려고 애를 썼다.

함박눈만이 하염없이 내린다.

어머니의 곁에서 한참이나 안타까이 서성거리던 부관이 출입문소리에 고개를 쳐드는 그 찰나 김일성장군님께서 벌써 저만큼 높은 층계로 마주 걸어내려오고 계시었다.

그제서야 부관은 어머니를 일으켜주려고 했다.

《강호동무!...》

무엇인가 제어하시는듯한 장군님의 그 말씀에 부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손을 비비는데 어머니가 간신히 무릎을 꿇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는 희속희속한 눈발속으로 유독 건장하시고 후리후리하신 분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다가오시는것을 보았다. 두툼한 군대식장화에 승마복바지를 입으신 그이의 까만 양복저고리에는 눈송이가 하얗게 달라붙었다.

《어머니!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부관이 곁에서 일른 귀땀을 해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젠가 아들이 말해주던 기억이 있어 장군님을 알아보며 허둥지둥 계단을 따라 마주 올라갔다.

《가만 계십시오. 어머니! 거기에 가만 계십시오.》

장군님의 그 말씀에 어머니는 눈앞이 확 흐리웠다.

《장군님!—》

일순간에 쌓였던 설음이 부발쳐올라 어머니는 미처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장군님! 제가 왕준의 애비올시다.》

어머니는 급기야 터져나오리는 흐느낌소리를 삼키며 눈덮인 계단우에서 장군님께 큰절을 올리었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두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더니 급기야 안색을 흐리시었다.

《아들도 없이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소식을 몰라서 조국에 돌아온 첫날부터 그냥 찾았더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자!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칭사가 아닌 저택으로 어머니를 모시었다.

《어머니를 찾아 이렇게 만났으니 저도 이제는 시름을 놓았습니다.》

식탁에 마주앉으신 다음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두손을 놓지 못하시었다. 어머니와의 상봉이 너무도 감회로우신듯 그이께서는 창밖의 어텐가를 멀리 바라보시다가도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시곤 하시었다.

왜 그리시지 않으시랴—빼앗긴 조국, 조선을 찾으시기 위하여 20여성상 헤쳐오신 그 피어린 자옥들을 더듬으시노라 한마디의 말씀도 못하시는 장군님의 그 심중을 헤아리며 어머니는 이미내대로 지금 기막힌 생각들을 하고있었다.

한참만에야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가슴아프신 추억들을 지워버리시듯 긴숨을 내쉬시면서 웃으시었다.

《어머니! 좋지요?…우리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이렇게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음성이 갈리시여 뒤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었다.

어머니는 장군님께서 자기 아들 왕준이 생각이 나시여 그리신다는것을 헤아리노라니 자꾸만 두눈에 눈물이 피여올랐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웃으려고 애를 써보았다. 북받치는 그 설음을 잊어버리려고 어머니는 청사가 정거장에서 너무 멀더라고 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도 의미심장하신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럼요… 하긴 좀 먼 편입니다. 멀구말구요.》

장군님께서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며 만면에 여전히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었다.

《이제부터는 지나간 교생들을 두고두고 옛말하면서 어머니는 마음 편히 오래 앉아계셔야 합니다. 지회들과 마음껏 노여움도 써보시고 이젠 이래라, 저건 저래라 무엇이든 마음대로 시키십시오. 혁명에 아들을 바친 어머니보다 더 세력이 있는분은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울리지 못하였다.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이 또 어데 계시랴싶은 그 고마운 생각에 어머니는 더군다나 설음이 북받쳐올랐던것이다.

《그저 해방된 조국땅에 왕준동무와 같이 돌아와서 이렇게 어머니

를 만나고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만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자니!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장군님의 얼굴에는 어느새 피로우신 표정이 어리시었다. 그러시고는 어머니의 슬픔을 견드리실까 지어하시듯 웃음을 지어보이시었다.

그러자 어머니도 장군님의 그 뜻이 깊으신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치들었다. 속으로는 끝없이 흐느껴울면서도 될수록이면 장군님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다.

혁명의 험난한 길을 개척해오시며 겪으신 장군님의 모든 피로움에 아들 하나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비길수가 없었고 품에 안아 키우시여 어엿한 혁명가로 빛나게 살게 하신 장군님의 크고도 높은 그 사랑에 아들의 몸만 남은 어머니의 잔정을 비길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친없는 화전민의 아들을 그냥 이 어머니의 베치마겔에서 자라왔더라면 그게 과연 혁명가로 떳떳이 살수 있었으리란말인가. 빛나게 살기 위해 값높이 죽을줄도 안 그 아들이 있어 오늘은 자기까지도 혁명가의 어머니로 이 땅을 떳떳이 밟고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써도 다 갚을수 없는 어머니였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지금 가슴속깊이 품어온 진정을 삼가 그이께 말씀드리고있는것이였다.

《장군님! 그 우둔한것을 데려다가 혁명가로까지 키워주시느라니 속인들 얼마나 타셨습니까.》

《어머니, 빌말씀을 다 하십니다.》

장군님께서 이리시며 어머니의 손목을 꼭 잡아주시는데 부관이 무엇인가 보자기에 쌀것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두손으로 그것을 장군님 곁에 정중히 놓고 다시 나갔다.

어머니는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의 체온을 두손에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50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가슴속에 불을 지피여 추억의 연기를 피워올리면서 자꾸만 눈굽이 쓰러오게 했다. 어찌먼 순식간에 온 세상이 달라지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것이다. 모든것, 기쁨도 슬픔도 다 커졌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카스로 자기를 이겨내며 방안의 어느 한점을 뚫어지게 주시하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마디진 손이며 거치른 세파의 흔적인 양 주름잡힌 얼굴을 이윽히 보시고, 또 보시였다.

속절없이 흘러간 어머니의 젊음을, 가난과 설움에 부대끼고 그 인생의 갈피갈피를 다 헤아리고계시듯 장군님께서서는 긴 숨을 내쉬시였다.

《...그때 우리는 밀영에서 왕준동무의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왕준동무의 복수를 맹세했고 것처럼 살며 싸움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들 다 하자면 정말 전채를 매도 다 못합니다.》

...그처럼 아들의 얼굴을 한번만 보게 해달라고 별사정을 다 할 때에는 막무가내로 쫓아버리던놈들이 그날은 일부러 어머니를 데리러 왔었다. 아들을 만나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뉘엿이 아들의 옷가지며 먹을것을 대강 끄적거리고 갈대 실패이고 눈에 물혀 사라진 길 아닌 길을 헤쳐 어푸러지며 넘어지며 히둥지둥 달리갔다.

놈들은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를 경찰서의 구류장이 아닌 어떤 호젓한 수림속으로 데리고 갔다. 5월단오의 산골그네처럼 술한 사람들이 모여와 웅성거렸다.

《이제 아들이 여기로 나올게다.》

호송경관은 어머니를 앞으로 끌고갔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뻐뻐했다. 손발이 저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왔다. 일식이라도 시작되는듯한 그 순간 학교운동장의 교단같이 높은 사형대우로 드세게 생긴 청년 하나가 올라서고있었다. 찢어진 옷동 앞섰으로는 벽돌담벽같이 검붉은 가슴이 드러나보이고 형클어진 머리카락밑에서는 숫불같은 두눈이 타고있었다.

신발이 없는 맨발에도, 무거운 망치처럼 드리운 손목에도 쇠고랑이 채워져있었으나 피멍이 들고 부종이 심한 얼굴에는 도고한 표정이 어터있었다. 아들이었다. 어머니마저도 찻눈에 제 자식을 알아볼수 없이 변모한 그 아들은 스물세살이 아니라 신살도 넘어보였다.

어머니는 이발을 덜덜 쪼았다. 강마른 두주먹을 꼭 부르쥐고 정신을 모으던 어머니는 뉘이 없이, 그러나 무엇에 걸린듯한 목소리로

아들의 어릴적 이름을 불렀다.

《첫째야!—내가 왔다. 예미가 왔어.》

어머니는 겨우 이렇게 부르더니 금시 달려나가 아들을 그려안을 듯 두손을 뻗치며 앞으로 몇발자국을 옮겨나갔다.

총창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는 땅에서, 아들은 사형대우에서 놀라움과 사랑의 불꽃이 튀는 눈길을 맞추었다. 마음의 길인듯한 그 눈빛을 따라 마주오고 마주간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일싸안고 불을 비비듯 선자리에서 몸부림을 쳤다. 무슨 이야기가 그리도 많으랴, 무슨 후회가 그리도 많으랴! 이 우주공간에 오직 자기들뿐인듯한 어머니와 아들은 끝없이 많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할것 같았다.

어머니가 울고 군중이 울었으나 아들은 무어라 속삭일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고있었다.

《어머니! 울지 마시라는데두요, 참... 놈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끌어낸줄 압니까? 그런데 아니예요, 어머니!》

아들은 마치도 그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혁명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혀를 끊은 몸이었다.

《조용하라, 떠들지 말구. 조용하란말이다. 예도, 이자는... 어느 놈이나? 그냥 떠드는놈이... 예, 이자는 우리 경찰당국에 아주 중요한 공산군의 비밀을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동료들로부터 변절자라는 말을 들을가봐 스스로 혀를 끊었다말이다... 누가 회파람을 부는가, 양? 어느놈이 회파람을 불어... 우리는 오늘 이 마당에서 제국에 끝까지 반항하는자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교지하는것이다.》

코를 불며 꼬리를 휘저으며 마구 제자리걸음을 치는 말잔등우에서 헌병대장놈이 군중을 향해 지절여댔다.

군중이 설레었다.

작렬하는 태양이 금빛으로 어두만지는 그 하늘밑에서 아들은 고개를 쳐든채 머리카락을 흔들리며 거인처럼 서있었다. 그는 조국의 하늘과 다시 못볼 정든 산밭들을 육심스레 눈으로 빨아들이는것 같더니 온 공간을 다 마셔보듯 숨을 길게 들이그었다.

놈들은 아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다.

《첫째야아!—》

어머니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같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으며 두눈을 뚱바로 뚫었다. 원쑤의 총구앞에서 계속 굴하지 않은 그 아들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가봐서였다.

그러나 아들은 땀뿡이 웃으며 철쇄에 묶이운 불편한 두손을 머리 위에 세번 높이 쳐들어보이였다.

어머니는 혀가 없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김일성장군만세를 부른다는것을 알았다.

군중의 흐느낌속에 요란한 총성이 울리였다. 아들은 사형대우에 쓰러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막신처럼 짹짹이 언 초신에 치마자락을 떨럭이며 두다리를 뻗치고 그냥 서있었다. 만약 아들이 원쑤앞에 울면서 생명을 구걸하였다라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미쳐버렸을것이다.

어머니는 사형대우에 쓰러진 아들을 전사해주려고 몇발자국 걸어 나갔다.

그러나 벌써 어머니는 늑들에게 붙잡혔다. 아들의 죽음앞에 정신을 잃지 않는 이 어머니가 늑들에게는 죽이고싶도록 패شم했던 모양이다.

두늑의 정판이 어머니를 끌고갔다.

바람이 불고 하늘에 검은 구름장들이 밀려왔다.

아들을 굴복시키지 못한 대신에 어머니라도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것을 보려는것이였다. 슬한 교형리들이 들러앉은 헌병대장의 사무실에서 늑들은 어머니더러 고문이 아니라 춤을 추라고 했다. 아들이 천당으로 간 이 기쁜 날에 가만있을수가 있느냐는것이였다.

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터질 지경이였다.

하지만 자기한테서 피같은 눈물을 자아내는 이 원쑤가 악한것만큼 어머니도 모진 사람이 되고싶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춤을 출것처럼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추자꾸나. 춤을 추자꾸나. 내 아들이 네늑들을 이기고 갔는데...》

추상같이 부르짖은 어머니는 두팔을 쳐들었다. 그러자 늑들은 아연했다. 채찍으로 어머니를 후리치며 춤을 추면 도리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며 두팔과 허리에 마구 달라붙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자리가 비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방안을 거닐고계시었다. 어머니가 당해온 그 가슴아픈 시련들을 몸소 체험해보시는가, 한 어머니의 슬픔만이 아닌 이 나라 인민의 수난에 찬 과거를 헤아려보시는가.

장군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냥 거닐고 또 거니시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마구 어깨를 털며 흐느껴 울었다. 내가 왜 이렇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도무지 자기를 억제할수가 없었다.

원췌의 손에 온 가족을 잃고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던 어머니였다.

《어머니! 실컷 우십시오. 아들앞에서 마음놓고 우십시오. 이제는 어머니곁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의 음성은 급기야 갈리시여 어머니로 하여금 목이 짹 메게 하였다.

어머니는 두눈으로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면서도, 건잡을수 없이 어깨를 짚은 가락으로 들먹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슴아프실 장군님만을 생각하였다.

《장군님!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장군님께서 쿵쿵히 걸음으로 다가오시었다. 그러시더니 방금전에 그 부관이 놓고 나간 보자기를 푸시었다.

《어머니!...왕준동무의 장렬한 최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밀영에서 우리 동무들이 어머니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라며 지은 옷입니다.》

장군님께서 안에다 양털을 받친 수수한 무명덧저고리를 꺼내시었다. 그러시고는 품이 맞는가 입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아들딸들이 밀영에서 지어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 드리는 옷이니 사양 말고 입으셔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저고리를 들고 곁에 오시었다.

《어머니! 팔을 끼십시오.》

장군님께서 어머니에게 옷을 입혀 드리시었다.

어머니는 장군님께서 받쳐드신 그 저고리의 소매에 한쪽 팔을 끼었다. 그리고는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어머니! 마저 끼십시오.》

어머니는 그 팔을 마저 끼었다. 다시는 장군님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던 어머니였으나 다시, 또다시 고개를 숙이었다. 어쩌면 신통히도 품이 맞는 그 옷을 입은채 어머니는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장군님께서는 바람에 휘장이 필락이는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책가방에 넣은 필통소리를 무슨 소고소리처럼 가락맞게 울리면서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는 준엄한 그 시절이 있어 오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있는듯했다.

함박눈은 하염없이 내린다. 해쳐온 멀고도 험한 혁명의 길우에, 피어린 자옥우에, 압록강물결우에, 백두밀림우에 내리고 또 내린다.

장군님께서는 명상에 잠기시여 진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여기 와서 저것들을 좀 보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의 손목을 창가로 이끄시었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이 꽃으로 핀 강산에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아이들은 지금 좋아라 까불며 지나간다. 앞에 선 녀석들은 걸음을 팔면서도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 선것들은 키득거리며 입을 벌려 함박눈을 받아먹고있었다.

어머니는 웃었다.

장군님께서도 웃으시었다.

아이들의 노래에 취한듯이 창턱을 붙잡고 서있던 어머니는 한손으로 두눈을 가리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학교종소리를 바람결에 들으면 산등성이의 감자밭머리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아들이 바로 저것들 나이였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왕준동무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껴안으시었다.

노래소리는 함박눈속에 아이들의 발자국처럼 사라져간다.

하늘에 잇닿은 저쪽 공장굴뚝들에서는 밤낮없이 흰 연기가 구름

처럼 부풀어올랐다.

거리로는 가창시위대렬이 만세를 부르며 지나간다. 지붕과 돌담 장우에 올라선 청년남녀들은 목이 쉬도록 새 조국 건설을 호소하고 있었다.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건설의 역사적인 사변들을 이끌고나가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태에서 주무시는 날이 거의 없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공장과 농촌, 군과 리에 내려가시여 로동자, 농민들과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조국이 나아갈 앞길을 가르쳐주시고는 밤늦게 혹은 날이 다 셀무렵에야 돌아오시군하시었다.

다만 하루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어머니만이 창가에다 옮겨놓은 의자에 앉아서 공장굴뚝이며 가고오는 자동차며 거리의 상점들과 사람들을 구경하고있을뿐이었다.

(세상에 이런 호사를 하는 량반이 과연 어디 있을가... 이럴줄 알았더라면 삼던 삼이나 실물페라도 가지고 오는건데...)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종일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창밖만 내다보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에 태을 나가신 장군님께서 어느때나 돌아오시나 하여 기다리는터였다. 점심때에도 돌아오시지 않은 장군님을 기다려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고 눈앞이 아물아물해왔다.

땅거미가 지고 바깥이 캄캄해오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락으로 나왔다. 오늘은 이상하게 장군님이 더 기다려졌다.

어머니는 넓은 프락을 혼자서 왔다갔다했다. 장군님께서 어젠가 먼곳에 가시여 끼니를 건느시는것만 같고 일이 너무 바쁘시여 잠시의 휴식도 없으시는것만 같았다. 아들 생각이 났다. 그 아들이 있었으면 바쁘신 장군님을 더러 도와드릴것이 아닌가.

어머니의 생각에는 그저 곁에서 누가 도와드리는 사람이 없어 장군님께서 더 고달프신것만 같았다.

(나는 왜 이 세상에 너자로 태여났을가.)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달래보듯 어머니는 혼자 그 어떤 한탄갈기도 하고 그 무슨 푸념갈기도 한 소리를 흥얼흥얼 읊조리었다. 곡식이

풍년을 속삭이고 찌르레기 찌득찌득 기운차게 날아가는 달밝은 가을 밤, 절절한 배하불에 어린 아들을 싸 업고 나서서 부르던 자장가였다. 달콤한 그 추억에 잠겨 자장가를 몇 번이나 불렀을가, 어머니는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그만 서성거리던 발길을 멈추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인가 했었다. 정작 눈부신 전조등이 트랙을 비칠 때에야 어머니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 몇발자국 다가갔다.

차는 벌써 앞에 다 왔다.

《어머니!—》

차를 내리시자마자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부터 찾으시었다.

어머니는 몇년만에 처음으로 그이를 만나듯 허둥지둥 달려나가 손을 더듬으며 당장 울것 같이 두눈을 습비었다.

《참, 어머니두...날씨가 찬데 왜 이렇게 나와계십니까. 때가 되면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라구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털외투를 벗으시여 어머니의 어깨에 걸쳐주시었다.

어머니는 장군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외투속에서 온갖 시름을 다 잊었다. 바로 이래서 어머니는 장군님을 기다리고 그이께서는 또한 어데 가셨다가도 어머니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렇지요?》

장군님께서는 줄곧 기쁘신 얼굴이시었다.

《어머니! 오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싶어서 빨리 돌아온다는 것이 그만 늦어졌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여진히 웃고계시었다.

《바로 저기 저쪽에 쇠를 만드는 강선제강소라는 공장이 있는데 오늘 그 공장 로동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아주 큰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 광경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먼저 어머니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이제야말로 정말 기뻐서 우실수도 있고 마음껏 춤을 추실수도 있겠구나 하교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보습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여러가지 기계와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빨리 일어서자면 쇠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동무들이 오늘 나라에 바치는 첫 쇠물을 뽑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별이 빛나는 저쪽 하늘빛을 가리켜주시었다.

바로 그쪽에 강선의 동무들이 서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봐서 그런지 어머니의 눈에는 별로 그쪽 하늘이 불그레한 쇠물색을 띤것 같고 다른 하늘과 좀 다른것 같기도 했다.

밤이 깊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서도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온종일 쇠물을 뽑는 로동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늦게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아침에 조밥을 드시고 나가셨던것이다. 식사때마다 늘 독상을 받아온 어머니는 여직 그런줄을 모르다가 오늘아침에야 우연히 장군님의 진지상을 보았던것이다.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자기 마음을 무어라 어떻게 표현할수가 없었다.

《어머니! 멀 그리십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자신께서도 조밥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어머니는 그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백두밀립속에 풍찬로숙을 하시며 수많은 끼니를 건드신 그이께서 해방된 조국의 인민과 함께 조밥을 드신다는것이 어머니로시는 너무도 기가 막혔던것이다.

《어머니! 어서 진지를 드십시오...그럼 오늘 저녁부터는 조밥을 그만두게 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어머니의 손에 수저를 쥐여주시며 어머니가 밥을 드셔야 자신께서도 진지를 드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는 밥상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수저를 들고도 선뜻 흰밥을 뜨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그냥 몸을 뒤채었다.

(글세 내가 무어라구 이 나라에서 혼자 호의호식을 한단말인가?)

어머니의 생각은 끝이 없었다. 점점 그 생각은 놀라운 사실으로 접근해갔다.

(과연 나만이 혁명에 아들을 바쳤을까? 같은 아들딸들을 나라에 바친 어머니들도 지금 자기 고향에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나가고있지 않는가.)



장군님택에서 진실로 지금의 어머니처럼 편히 지내셔야 할분들은 만경대에 계셨다. 조선혁명에 자제분들과 손자님들을 바치오시며 숭한 고통을 당해오신 장군님의 할아버님과 할머니께서는 지금 만경대의 고향집에서 예나 다름없이 농사를 짓고계시었다. 모름지기 그분들은 이 밤에도 세해의 농사차비를 하시노라 종곡을 고르시며 새끼를 꼬시고 나래를 위으실수 있었다.

어머니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화닥닥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자기가 택에 와서 고이 놀며 호의호식을 하는 사이에도 그분들은 벌써 숭한 새끼를 꼬셨을것 같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이제 끝세 무슨 일이란말인가...)

어머니는 마침내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 남들처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해야겠다는 속다짐을 했다. 더군다나 온 나라 인민이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야 할 장군님께서까지 몸소 노동자, 농민들 속에 내려가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며 불면불휴의 나날을 보내고계시는데 자기가 무슨 대감이라고 호사를 하는지 몰랐다.

그렇다. 어머니는 강선의 노동자들이 첫 쇠물을 뽑았다고 것처럼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었다.

(가야 한다. 나도 아들의 뒤를 이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벌써 날밝기를 기다리며 가만가만 려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기나긴 겨울밤을 뜯눈으로 새웠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장군님앞에서 끝내 자기의 소망을 말씀 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의 그 소망을 너무도 놀라웁게 생각하시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의 얼굴에는 서운하신 표정이 어리시었다. 그러시더니 말씀없이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아마도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가봅니다. 그렇지만 노여운 일이 있으면 노여움을 쓰시면서라도 저의 곁에 그냥 계셔야 합니다. 가시면 어테로 가시며 가신들 어테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까. 그저 아무 말씀 마시고 저의 곁에 가만 계시야 합니다. 이젠 어머니를 위해서기보다 어머니를 내놓고 마음을 놓지 못할 저자신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장군님! 하는 일도 없이 가만 들어앉아 편안히 지내자니 속에서 불이 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장군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와 딸을 잃고 손자도 없이 혼자 남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너무도 깊이 헤아리신듯하였다.

《그럼, 어머니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더 말씀을 안하시었다.

며칠이 지나갔다.

태을 떠나가는 어머니를 바레우시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마당으로 나오시었다. 그이께서는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아들과 남편과 며느리와 딸을 대신하여 그들이 못다한 그 위업을 고향에 내려가 이어주려는 어머니의 그 결심을 여간만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었다. 그들의 위업을 기어이 이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념원을 꽃피워주려는 어머니의 그 생각은 벌써 이 어머니의 생명과도 같았다. 바로 이 생명이 없이는 어머니가 한순간도 살수 없을것이였다. 어머니는 지금 혁명가의 어머니답게 영생할 그 생명을 안고 큰 걸음을 내디디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안겨주어야 할것인가를 두고 깊이 생각하시는듯하였다.

눈보라가 쳤다.

어머니는 황송히 부여잡은 장군님의 손목을 오래도록 놓지 못하였다. 정작 태을 나서고보니 장군님의 곁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길에 오른것만 같은 생각이 앞을 섰던것이다.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구 인편이 있으면 자주 기별을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몸조심하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을 꺼내시여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시었다. 그러시더니 어데가서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신분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꺼내보이라고 하시면서 봉투에다 넣은 편지 한장을 어머니에게 넘겨주시었다.

어머니는 승용차에 탔다. 눈보라속으로 달리는 차창밖을 어머니는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이파리 없는 가로수의 앙상한 가지들과 전선줄에 우는 눈보라소리,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평양발 북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단조로운 차륜소리,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도의 거리들... 어머니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온갖 세파를 헤치며 곳곳이 살아온 어머니건만 어찌하여 이다지도 마음 피로운것이라.

어머니는 장군님의 곁에 있었던 그 잊지 못할 나날들을, 더듬어보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장군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은 아직도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노여운 일이 있으면 노여움을 쓰시면서라도 저의 곁에 그냥 계시야 합니다. 가시면 어테로 가시며 가신들 어테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떠났을까?!...)

자식을 교생스레 자라온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늘그막에는 그만큼 꼭 자식들을 걱정시키듯이 어머니는 장군님께 너무도 심려를 끼쳐드린것 같았다.

기차는 사정없이 달려간다.

다음역에서 당장 내릴것처럼 부랴부랴 승강대에 나갔다가도 이 사람, 저 사람과 평양쪽으로 가는 기차시간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사이에 기차는 가리만큼 갔다. 아직 철도질서가 채 잡히지 않은 해방직후라 어머니는 평양에서 길주까지 사흘, 길주에서 이틀을 묵다가 길해선열차로 또 하루를 갔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사이에 모든것이 다 새로와졌다.

농민동맹, 애국투사후원회, 농민신용조합이 조직되고 아들이 지도하던 《광복서당》자리에는 속성성인학교가 섰다. 저녁이면 성인학교의 종소리가 해방의 노래처럼 울리고 손자와 할아버지, 안해와 남편

이 같은 학년에서 우리 글을 배우는 소리가 문맹의 이동을 밀어가는 듯하였다.

어머니는 성인학교 학생들의 초청으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옵던 이야기도 하고 농민동맹에 나가 새해의 영농준비를 의논하기도 했다.

그리던 어느날, 어머니는 군소제지인 국경도시로 내려갔다. 군내의 일군들을 만나 성인학교의 등화용카바이드며 새해의 농사에 쓸 농쟁기와 부림소문제를 좀 해결해볼가해서였다.

아들이 감금되어있던 경찰서며 헌병대 그리고 그 잊을수 없는 아들의 사형장이 눈에 띄우는 가슴아픈 추억의 옛거리로 어머니는 걸어들어가고있었다.

기쁨도 아니고 서글픔도 아닌 착잡한 마음을 달래면서 어머니가 본징거리에 들어설 때였다. 싹락눈을 민지처럼 말아올리면서 질풍같이 달려오던 군용자동차가 저만큼 지나서 멎어섰다.

어머니는 그 자동차에서 웬 군관이 뛰어내리는줄도, 자기를 소리쳐 부르며 따라오는줄도 모르고있었다.

《어머니!—》

그 군관이 앞에 와서 경례를 붙였을 때에야 어머니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들과 같이 혁명을 하던 국경지대의 위수사령관이였다.

《그래두 자넨 날 어떻게 알아봤나?》

어머니는 위수사령관의 두팔을 부여잡고 탄사람같은 그의 군복차림을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아들을 만나는것 같아 눈굽이 쓰렸다.

《좌우간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지금 우리 마을 성인학교에 붙어있네. 농사를 짓자니 부림소가 있나.》

어머니는 위수사령관을 만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결할듯이 서둘렀다.

《그래 그 일때문에 오셨습니까?》

위수사령관은 좀 난색을 보이면서도 어쨌든 웃었다.

《그러지 않음 왜 내가 이 불같은 세월에 내리오겠나.》

《그런데 평양에서는 언제 내리오셨습니까?》

《달포전일세. 실루 장군님께 숭한 걱정을 끼쳤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네. 그렇지만 다시는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지... 그이께서는 나라일이 바쁘시여 밤잠을 잊으시리라구. 자넨 정말 그 강선에서 쫓겨물을 뽑은줄 모르겠구만...》

《좌우간 지하구 같이 가십시다.》

위수사령관은 어데 불 일이 있어 급히 가던길이었으나 신차로에서 자동차를 돌리여 어머니를 운전칸에 앉히더니 왜놈들의 헌병대자리로 갔다.

어머니는 자기를 만난김에 위수사령관이 성인학교의 등화용카바이드와 부림소를 제끼 해걸해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만 해걸되면 괜히 여기서 지체할것 없이 오늘로 돌아설 궁리까지 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좀 어머니한테 노여우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책상위에 군모를 벗어놓은 위수사령관은 어머니의 곁에 의자를 끄당겨앉았다.

어머니는 아들같은 위수사령관의 말에 방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안만 두루 살펴보았다. 건물은 한병대자리가 분명한데 집안이 영판판으로 달라져보였다.

회전의자도 없고 벽에 걸렸던 일본도며 두루 무엇이 행뎡그링해져서 도무지 판창갈지를 앉았다.

《그래 무슨 소리를 하자구 그러나! 어디 한번 노엽혀보게.》

그러나 위수사령관은 두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짚고앉아 군입을 다실뿐이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일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왜 아무데건 한곳에 가만히 질정해계시지 못하구 이러구 다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카바이드와 부림소 문제가 아닌것에 약간 실망을 느끼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위수사령관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글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노여웁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는 평양에서 왜 내려와가지구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냐말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다.》

위수사령관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아침에도 또 전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어머니를 찾아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래였다. 자기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것은 이제 들으니-처음이었던것이다.

《자네 그래서 아까부터 그렇게 신중해졌었나? 답답하네. 답답한 건 내가 아니라 자넨세. 아무렴 내가 장군님의 승낙두 없이 무작정 태에서 떠나왔음직한가?》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니쪽에서 자꾸 떠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의 속을 뒤집어보이지두 못하구...글세 자네두 좀 생각해보게. 위대한 장군님께서까지 밤잠을 잊으시고 나라일을 돌보시는 이때 나만 그래 가만히 들어앉아서 호의호식을 해야 옳나?》

어머니는 또 그 강선제장소에 나가시여 킷 쇠물을 뿌는것을 보시고 오셨던 장군님의 이야기를 했다.

《그건 나도 압니다.》

위수사령관이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가슴우에 귀중히 품어 건사했던 장군님의 친서를 꺼내었다. 한번도 그 누구에게 보이지 않은 친서였다. 그 친서를 가슴에 품은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행복과 기쁨을 지니고 살수 있었다. 하루에도 몇번씩 만져보며 장군님을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이의 몸가까이에 있는것 같은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것이었다.

《바루 여기에 장군님의 승낙서가 있네. 승낙시가 있어.》

어머니는 위수사령관앞에 장군님의 친서를 꺼내놓았다.

《승낙서라구요?!...》

위수사령관은 장군님의 친서를 보다 말고 갑자기 심각해졌다.

《어머니! 승낙서가 아닙니다.》

《그럼 승낙서가 아니구 뭔가?》

어머니는 당장 자기앞에서 장군님의 친서를 소리내여 읽으라고 독촉을 했다.

《어째 못읽나, 어째 못읽어?》

《글세 읽겠습니다.》

위수사령관은 얼굴의 땀을 훔치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재촉에 견딜수 없어 장군님의 친서를 펼쳐들기는 하였으나 선뜻 내려읽지를 못하였다. 그는 한참만에야 겨우 입을 뻗었다.

각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

각 철도역장

각 지방 위수사령관동지앞.

이분은 항일혁명투사 최왕준동무의 어머니입니다.

일체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시시오.

1946년 ×월 ×일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 일 성

위수사령관은 목이 메어버렸다. 다만 어머니만이 그 차리에 붙씩 주저앉아버텠을뿐이었다.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보십시오. 어머니! 장군님께서 이렇게 친서까지 써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날마다 전화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어머니는 도대체 그런줄이나 아십니까? 장군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위수사령관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 부르짖다싶이 격해졌다.

어머니는 잠자코 있었다. 할말이 없었다.

《여러 생각 말구 당장 레일아침차로 다시 평양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떠나오신후로 장군님께서 밤잠을 편히 주무시는줄 압니까?》

《그만하게, 그만하라구.》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신없이 떨리었다.

《그만하는게 뭡니까. 이번에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시거든 제발 내려올 생각을 마시고...》

《글쎄 내 안다지 않나.》

어머니는 사정하다싶이 했다.

《아시긴 펴 아셔요. 어머니는 얼마전에 있었던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장군님께서서는 걸심을 굳게 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새생활을 시작한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입장을 보증하셨습니다.》

위수사령관은 더 말을 못하였다. 그자신까지도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목이 메어 눈물이 솟구쳐올랐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은채로 울었다. 울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보았으나 눈물은 불을 타고 그냥 흘러내렸다.

간고한 혁명의 피어린 길우에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와 딸을 잃고 손자도 없이 혼자 남은 이 어머니에게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실수 있는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고귀한 희생으로 빛나게 산 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우에 어머니를 혁명가로, 당원으로 세워주시는 그것이였다.

아들과 남편과 며느리와 딸이 혁명가로 자라난 그이의 품속에서 오늘은 어머니가 당원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어머니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크나큰 품속에서 잃었던 모든것을 되찾은 것이였다.

행복의 눈물속에, 기쁨의 눈물속에 어머니는 당원으로 혁명가인 아들과 남편과 며느리와 딸을 만나고있었다.

《장군님, 장군님!!》

흐느낌에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인 어머니는 위수사령관의 책상을 짚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혁명의 피어린 자욱우에 아들을 따라 영원히 붉은 꽃을 피울듯이 어머니는 어젠가 창밖의 민곳을 바라보았다.



△ 어휘 및 표현

- 실눈을 습습습습하다. 가늘게 뜬 눈을 자꾸움직여 감았다 뒹다하는 모양
- 불원천리. 천리길도 멀다하지 않음
- 현현. 정신이 어둑어둑하이 어지러움
- 광극단. (상반되는 양쪽으로의) 두극단: 광극
- 거치름 세파의 흔적. 사나운 세상 풍파의 자취(자국)
- 부중. 부중(몸이 붓는 중세)
- 초신(방안)궤신
- 바람에 휘장이 펼쳐이다. 바람에 문보가 날리어 나뭇기다
- 풍찬로숙.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대에서 먹고 자고 하다
- 마음을 질정하지 못하다. 마음의 갈피를 잡아서 확정하지 못하다
- 려장을 꾸리다. 긴 떠날 려장(집)을 꾸리다
- 가슴이 뭉클해지다. 가슴에 북받치는 감정으로 갑자기 책 차넘치는것
- 숫불 같은 두 눈. 이같이관한 눈(중오에 찬 눈)
- 이발을 털털 쫓다. 몸을 몹시 털면서 이발 아래우를 맞쫓는 모양
- 착잡한 마음을 탈래다. 갈피잡기 어려운 마음을 진정하다

## 아버지의 얼굴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로 쓸어들어왔다.

조용하던 교실은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의자를 당겨놓는 소리, 필갑이 탁그락거리는 소리, 책장을 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었다.

그러나 소음이 급작스레 가라앉고 아이들은 잠잠해졌다.

머리를 한껏 앞으로 지수긋하고 늘 생각에 잠겨 다니는 신회선생이 웃는 얼굴로 교실에 들어섰다.

천매는 이 선생이 말은 작문시간을 어느때나 즐겨 기다린다.

(오늘 제목은 무엇일가?)

가슴을 조이며 교탁쪽으로 눈길을 보내는데 신회선생은 미소하며 말을 꺼냈다.

《오늘은 인물묘사를 하여봅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릴 때 그것을 단순한 생김새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낙심, 용맹과 공포, 믿음과 의심 등 사상과 감정, 성격까지 담겨지는 외형으로 묘사한다는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레문 들어봅시다. 현승남 학생!...》

《네!》

교탁 바로 앞에서 얼굴이 불깃불깃하고 몸집이 다부지게 생긴 아이가 성큼 일어섰다.

그러자 교실 여기저기에서 킁킁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영화 구경은 뻔질나게 다녀도 작문쓰기를 싫어하는 승남이였기때문이다.

《학생의 아버지는 모범기관사지요. 그래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

승남이는 퐁퐁 갑자기 입을 열지 못했다.

이번에는 승남이의 곁에 앉은 용이가 선생의 지명을 받고 일어섰다. 그는 얼마전 로력혁신자들과의 상봉모임에서 보았던 승남이 아버지의 얼굴을 힘들지 않게 그려내었다.

《오늘도 수송계회를 넘쳐해낸 아버지는 바람에 그슬린 검붉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기적소리를 높이 울렸다.》

《우리 아버지 얼굴이 어디 검붉니? 구리빛인데두...》

대답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용이의 옆구리를 툭 치며 송남이가 불이 부어 투덜거리었다.

《잘 그렸습니다. 우리는 용이학생의 이 문장만으로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한 기관사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곡가인 금주학생의 아버지를 봅시다...》

선희선생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웃음보따리인 금주가 일어섰다.

《피아노앞에 마주앉을 때면 아버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오르군한다. 때로는 그 얼굴에 웃음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이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이 어리기도 한다. 마당에서 피아노소리를 듣고서도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쉽사리 그려볼수 있다...》

금주는 무슨 말인지 미 하려다가 방긋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감탄하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좋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인민을 위한 예술, 혁명을 위한 예술에 헌신하는 음악가의 모습이 얼마나 잘 안겨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몇줄의 글로 얼굴을 그려냄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성격이 어떤가 하는것 등을 생생하게 보여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무들이 아침저녁으로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놓고 작문을 씁시다.》

교실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칠판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얼굴》

선이 실하고 모양이 서글서글한 여섯자의 제목이 아이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가벼운 속삭임소리가 파도처럼 교실에 퍼져갔다. 몇분후에는 벌써 종이우를 달리는 펜촉의 사그락소리들이 들려왔다.

침묵은 귀바퀴를 덮은 단발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며 학습장에 써

놓은 제목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마음에 드는 제목이었다. 작문 제목을 받고 여직껏 가슴이 이렇게 뛰여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한번도 본적 없는 그 얼굴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희생된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얼굴 대신 선잠 그려지는 갈색테의 아버지 안경만이 눈앞에 서물거릴뿐이었다. 어머니가 옷장속에 소중히 간수하고있는 안경이었다.

철메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서울에서 미제놈들에게 학살되었다고 한다.

철메에게는 아버지의 얼굴을 대신하는 한장의 사진조차 없었다. 어린 철메를 업고 서울을 떠난 어머니가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찾아 후퇴의 길에 오르던 그해 가을, 보집속에 간수했던 아버지의 사진은 보집과 함께 미국놈의 소이탄에 타버렸던 것이다.

(보지 못한 얼굴인데 어떻게 쓸가?)

펜촉의 잉크가 말라붙어 보라빛 앙금이 된지도 오래건만 철메는 글 한자 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채 제목만 뜯어보고있었다.

교실을 돌아보던 선희선생이 철메의 등뒤에서 발길을 멈추고 제목만 덩그렇게 썩여있는 그의 학습장을 뚫어지게 굽어보고있었다. 크고 검실검실한 눈에 무거운 아픔이 가득 실렸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선생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교탁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종이장에 무엇인가를 적어넣기 시작했다.

잠시후 선생은 그 종이장을 철메의 학습장우에 슬그머니 가져다 놓았다.

철메는 얼굴이 빨개졌다. 야릇한 부끄러움이 볼을 간지럽히었다. 쪽지우의 글줄들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철메학생, 왜 아직도 작문을 쓰지 않아요?》

철메의 아버지는 조국통일을 위해 목숨바친 훌륭한 분이지요. 남녘인민의 해방을 위해 아버지가 걸어온 한생을 돌이켜보세요.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웃으면서 애국의 절개를 지킨 아버지의 모습을 나도 눈앞에 보이는것 같아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짓밟힌 남녘땅을 생각하실 때마다 철메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본다고 말씀하시었다지요.

얼마나 빛나는 얼굴이예요. 자랑을 가지고 어서 쓰세요. 훌륭한 작문이 될거예요!》

철메는 펜대를 쥘리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뜨거운 생각이 이랑이랑 밀물처럼 파도쳐왔다. 어린 철메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진 아홉해전 그날이 새삼스럽게 되살아왔다.

그것은 대동강반에 벚꽃과 살구꽃이 곱게 피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철메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자기 집마당에서 아빠트짓기놀음을 하고있었다.

《부릉부릉... 빵빵!》

그는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놀이감자동차로 깨진 벽돌이며 기와며 유리조박을 날라왔다.

놀음에 어찌나 열중하였던지 철메는 울타리밖에 승용차가 와 선 것도 모르고있었다.

《철메야!》하는 우렁우렁한 음성과 함께 크고 뜨거운 손이 머리에 얹혀질 때야 철메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자기의 등뒤에서 서 계신것을 보았다.

아버지원수님의 뒤에는 어머니가 서있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철메를 닮은 안아드시었다.

《철메를 보니 하진선생의 얼굴을 보는것 같습니다. 정말 신롱히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철메는 너무나 좋아서 손뼉을 짹짹 쳤다.

《아버지원수님, 야, 좋다!》

《좋다? 허허, 다 자랐군, 하진선생의 최후를 듣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아버지의 얼굴도 못보고 자란 애가 벌써 이렇게 컸단 말이 지?...》

아버지원수님의 눈길은 머무르시는 먼 남녘하늘끝에서는 검붉은 구름장들이 뭉게치고있었다. 그 하늘밑에 철메의 아버지가 최후를 마친 언덕이 있을것이였다.

그날부터 어린 철메는 동네의 소꿉동무들앞에서 버릇처럼 자랑하군하였다.

《원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아신단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즐기차게 싸워온 아버지의 자옥자옥이 눈 앞에 선히 밝혀왔다.

...남녘의 모든 거래들에게 영명하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널리 전 하려고 밤새워 쓰던 초보필의 신문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공 화국창건소식을 적어내던 대학의 지하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그 리며 북녘하늘을 바라보던 철창의 마지막 밤, 피어린 감옥담벽에 한 자한자 새기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글발...

철메는 불천듯 펜촉에 잉크를 묻히고싶은 불같은 마음을 누르며 고마움에 찬 눈으로 선희선생을 쳐다보았다. 것처럼 찾으려고 애쓰던 작문의 실머리가 풀린것이다.

선희선생은 격려하듯이 고개를 끄덕여보이었다.

창유리를 통해 비쳐드는 석양의 노을빛에 학습장은 자그마한 기 폭처럼 붉게 물들었다. 철메는 그 학습장에 펜대를 달리기 시작했다.

어슬무렵, 네온등빛이 차넘치는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갈제 철 메는 자기의 작문을 읽으며 선희선생이 눈물을 흘린것도 그리고 그 선생이 자기의 글을 출판사로 보내려고 길심한것도 알지 못하였다.

\*

\*

흰 구름송이들이 유유히 떠흐르는 하늘을 배경으로 당중앙위원회 청사가 록음속에 숙연히 솟아있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어느 방에 계실가?)

귀를 기울이면 금시 아버지원수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들리기라도 할것만 같아 철메는 숨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철메는 부관아저씨를 따라서 청사로 들어갔다.

방금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뵈고 돌아가는 설계가들과 인사를 나누 고 텅 빈 응접실에 들어선 아저씨는 다음방으로 철메를 데리고 들어 갔다.

문장을 헤치시고 정원을 내다보시던 아버지원수님께서 출입문쪽 으로 돌아서시였다. 환한 웃음이 원수님의 안면에 어리시였다.

<오, 철메가 왔구나!>

철메는 아버지원수님의 앞으로 뛰어갔다.

《아버지원수님!...》

불시에 목이 짝 메이고 눈곱이 저려왔다. 인사말을 더 잊지 못하고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파고드는 그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그새 몰라보게 자랐구나. 어디 좀 보자...》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칠메의 어깨를 한발쭈 뒤로 밀어놓으시고 그의 얼굴이며 몸매를 한참이나 굽어보시었다. 원수님의 눈에는 끝없는 기쁨이 어리시었다.

《내가 너를 만난것이 전쟁이 끝난 다음해 봄이었지?》

《네...》

칠메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들었다.

《음, 그러니 벌써 9년 세월이 흘렀구만. 칠메도 그때 생각이 나니?》

칠메는 젖은 눈을 들어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보았다.

《네, 납니다.》

잊을수 없는 봄날! 그날에 있던 일들을 칠메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머리에 빨간 리봉을 달아주시던 일, 새 신발을 신겨주시던 일, 마당가의 수도꼭지를 틀어보시던 일도 생각났다. 감빛노을이 물드는 대동강가를 거니시면서 물속의 달을 구경시켜주시던 생각도 났다.

(그날 난 아버지원수님의 종질모퉁이에 살구꽃을 리봉처럼 꽂아 드렸는지. 왜 그렇게 칠없는 짓을 했을까.)

《칠부지때 일을 용케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너무 보고싶어서 너를 불렀다. 너의 작문을 보고 네 생각이 더나서 오라구했다. 칠메가 작문을 잘 썼더구나.》

아버지원수님의 시선이 책상쪽을 스치었다.

칠메는 그때에야 전화기앞에 놓인 《소년신문》을 보았다. 얼마전 선희선생이 《아버지의 얼굴》을 편집부에 보냈다고 하더니 그 작문이 어느새 신문에 실린 모양이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제일 선참 보아주셨구나. 잘 쓰지도 못한 작문을...)

철매의 눈길은 신문쪽으로 자꾸만 끌리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보아주신 신문을 한시바삐 펼쳐보고싶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철매의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신문을 들어 철매에게 주시었다.

철매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 눈가를 손으로 누르며 그 신문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자기의 어깨너머로 신문을 보시며 대견하신듯 미소를 머금고계시는것도 모르고 자꾸만 서물거리는 글줄들을 더듬고있었다.

응접실에 나갔던 부판아지씨가 문가에 나타났다. 책상앞에 다가온 그는 철매가 앉아있는 쪽을 얼핏 눈주어보고나서 나직이 말씀드리었다.

《수령님, 중앙도서관에서 전쟁전 남반부출판물을 다 훑어보았는데 그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음...》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무겁게 머리를 끄덕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고려대학교출신 일군들에게서 그 사진을 구할수 있을거요. 각도에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철매는 귀에 익은 이 이름을 듣자 가슴이 뛰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있던 서울의 대학이름이었던것이다.

은 남녘땅을 뒤흔들어놓은 4. 19봉기때에도 그는 방송에서 울리는 이 이름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그리시고는 철매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는 창문걸음으로 다가가시었다.

《철매야, 오늘은 나하구 같이 거리에 나가보자. 저것 봐라. 날씨가 얼마나 좋니!》

철매는 기뻐서 아버지원수님의 팔에 덥석 매여달렸다. ...

밝은 해빛이 아낌없이 뿌려지고있는 아스팔트우로 승용차는 소리없이 달리었다.

한낮의 날씨는 여름처럼 무더웠다. 반쯤 열린 차창으로 서늘한 초가을바람이 불어들었다. 길게 드리운 붉은넥타이의 꼬트머리가 이따금씩 철매의 턱밑으로 휘말려올라와 단발머리 가장자리를 간지럽



했다.

철메는 차가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줄곧 아버지원수님의 모습만 지켜보고있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웃으시면 그도 웃고 원수님께서 차창밖을 내다보시면 그도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철메의 볼을 어루만지시던 아버지원수님의 손이 문득 한곳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철메는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자 가슴이 새차게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원수님의 눈길이 가닿는 길 오른켄에 쇠올타리를 두른 낯익은 건물이 나타났던 것이다.

조국에 개선하신 아버지원수님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해방된 새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시던 유서깊은 집이다.

해방된 그해 가을 아버지는 바로 이집에서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었다고 한다. 민 남녘땅에서 《김일성장군 환영위원회》를 못하고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뼉아 기다리던 아버지였다. 그러다가 어버이장군님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는 사선을 헤치고 평양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철메는 그날의 일을 죄다 들어 알고있었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의 2층에 오른 아버지는 보위색군복을 입은 사람의 안내를 받으며 남쪽 맨끝방으로 들어간다.

꿈결에도 그리던 어버이장군님께서 반기시며 문가로 마주 걸어 오신다.

《장군님!...》

아버지는 말보다 눈물이 앞서서 입술만 떴다.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혔던 노예살이의 설음이 그 눈물과 함께 모조리 녹아내린다.

《장군님! 나라를 광복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이신줄 알면서도 너무 뵈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서울인민들이 환영위원회를 못하고 우리를 기다린대지요? 나도 남녘동포들을 몹시 만나고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진선생을 만나니 온 남녘땅겨레들을 만난것처럼 기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녘땅의 모든 겨레들을 살펴보시듯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신다. 아버지의 두손을 마주

잡으시고, 오래오래 서계신다. ...

뜨락에 들어서신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칠메의 손을 잡으시고 청사  
원쪽 모퉁이로 툇툇히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손을 드시여 2층의 창문을 가리키시었다.

《저기 저 방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를 만났다. 놈들의 총에 다리를  
상한 몸으로 아버지는 툇리길을 걸어 나를 찾아왔었다. 서울에 돌아  
야간 아버지는 정의와 진리를 탐구하는 조선의 학자답게 용감히 싸웠  
다. 대학도 교단이고 툇창도 교단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적들의 폭  
압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가르쳤고 통일을 위해 싸웠다. 너  
의 아버지가 키워낸 제자들중에는 오늘 반미구국투쟁의 앞장에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칠메는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원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들  
었다.

아버지의 참된 삶이 시작된 이곳, 유서깊은 2층집앞에서 그날의  
아버지처럼 원수님의 품에 안겨 오래오래 있고 싶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칠메의 두손을 부드럽게 쓸어주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칠메야, 우리 함께 사진을 찍자. 너의 아버지를 만나던 그 가을  
은 조국이 갓 해방되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때였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이 사진두 못찍었다.》

칠메는 아버지원수님의 팔에 붙을 꼭 대고 앞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사진사아저씨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칠메는 활짝 웃었다. 온 세상의 기쁨이 그의 작은 가슴속으로 물  
결쳐왔다.

\*

\*

풍요한 9월이 무르익어가는 정원이었다.

새들은 황금계절을 노래하며 숲에서 끊임없이 방음을 굴리고있었  
다. 꽃밭에서는 나비들이 춤추고 꿀벌들이 붕붕거리었다.

우거진 숲에 둘러싸인 건물이 나무아지들사이로 내다보이였다.

아버지원수님의 대이었다.

등근 탁자가 놓인 정원의 버드나무 밑에서 칠메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원수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문득 가까운곳에서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왔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부판아저씨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고계셨다.

《철메가 왔느냐!》

철메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아버지원수님앞으로 달음쳐갔다.

한달음에 뛰어와 강충거리며 매달리는 철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의자에 앉혀주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숙영동무, 오래간만입니다.》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어머니가 다니는 신문사의 사업정형을 잠깐 알아보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하시었다.

《내가 오늘 오라구 한건 철메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

철메는 아버지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수 없어 눈만 슴뻑거리었다.

《...철메의 작문을 읽은 그날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그 구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디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시고 작문의 구절들을 되새겨 보시는듯 조용히 탁자를 다독이시었다.

철메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서투르게 쓰여진 작문의 한줄한줄이 새삼스럽게 머리속을 인뜻인뜻 스쳐지나갔다.

잊을수 없는 그 작문시간에 철메가 쓴 글은 과연 어떤것이었던가?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원수님들에게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운(죄)로 말이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애를 장군님의 딸로 키워주오. 그리고 그애의 이름을 철메라고 불러주오. 병들고 썩은 이 사회를 산산이 짓부셔버릴 쇠주먹으로 그애를 키워주오!》

이것은 옥중에 있던 아버지가 철창속의 제자들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나간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조국의 흙을 두손에 움켜쥐고 불에 막 비비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외쳤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웃으면서 땀땀이 북녘하늘을 바라본 아버지의 그 얼굴을 언제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시는 얼굴이 기때문입니다!...>

바람이 급작스레 숲을 흔들었다. 가볍게 설레이는 나무잎새들은 철메가 짙은 작문속에 다 담지 못한 깊은 사연들을 소곤소곤 속삭여 주는것 같았다.

<철메야, 아버지의 얼굴이 보고싶었지? 무척 보고싶었지? 너의 아버지는 얼굴이 너무죽하고 눈이 어글어글했다. 불을 뿜던 그 눈매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췌눈에도 의지가 굳고 열정이 넘쳐보이는 그런 아버지였다.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목숨으로 지켜낸 아버지의 얼굴을 나는 너에게 찾아주고 싶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그치시고 철메의 얼굴에 와닿는 버드나무가지를 어깨뒤로 넘겨주시었다.

<수령님, 온 나라를 보살피시는것만 해두 하실일이 많으신데...> 어머니는 말을 더 잊지 못하고 저고리고름을 들어올리었다. 그의 손이 눈가에 가닿기도전에 눈물이 두볼을 다고 흘러내리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도 격해지시는듯 목소리가 갈리지셨다.

<조국과 혁명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투사의 유자녀들이 부모들의 얼굴을 잊지 않고 그들이 지내온 위업을 굳건히 지켜갈 때 우리 혁명의 피줄은 더욱 튼튼히 이어집니다. 자, 숙영동무, 하진선생의 사진입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부판아지씨가 드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시었다. 그러시고는 탁자앞에서 물러나시여 정원을 거닐기 시작하셨다.

<수령님, 어찌면...>

사진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리었다. 어머니곁에 바투 다가선 철메의 가슴은 쿵쿵 뛴뛰었다. 난생처

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철메의 눈길은 오래 머물러있었다.

얼마나 보고싶던 아버지의 얼굴인가! 씨원스레 트인 넓은 이마 밑에서 안경속의 서글서글한 눈이 곧바로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광채가 도는 눈동자우에서는 금시라도 진한 눈섭이 움직일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철메예요. 자애로운 원수님께서 저를 한품에 안아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철메는 아버지의 얼굴에 불을 비비며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아버지의 사진을 앞으로 끌어당기였다.

《이제는 세식구가... 한자리에... 모였구나!...》

울음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꿈결에서처럼 어슴푸레 들려왔다.

침묵속에서 철메와 어머니를 지켜보고있던 부관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서며 말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희생된 항일투사들과 함께 남녘의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투사들의 사진을 찾아내도록 깊이 심려해오고계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이 애의 작문을 읽으시면서 철메에게 빨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후 하진선생의 사진을 얻으시려구 친히 만나신 남반부출신 일군들만해두 수십명이나 됩니다. 중앙도서관에도 지시하시여 전쟁전 남반부출판물들도 몽땅 훑어보게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진선생의 사진은 얻을수 없으시였습니다.》

그러시던중 먼 량강도에 있는 한 남반부출신 일군한테서 하진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찍은 대학졸업사진을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것을 확대한것입니다.》

철메는 불쑥 머리를 쳐들고 놀란 눈길을 허공에 던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방에서 들던 부관아저씨의 보고들과 종합대학에 전화로 하시던 원수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대학이름...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철메에게 찾아주시기 위한 원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가!

탁자앞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철메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어깨를 뜨겁게 어루만지시였다.

《너를 보니 오늘은 너의 아버지 생각이 더 난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때 나하구 같이 일하던 한 간부가 아버지에게 그 목숨

놈의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평양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 어떤가고 물은적이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사는 남녘땅에서 생을 받고 태어난 어린것들이 못먹고 못입고 돌맹이처럼 친대받는데 어떻게 저만 편안히 살겠다고 그 땅을 떠나겠습니까. 그애들이 북반부의 아이들처럼 장군님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살아도 그 땅에서 살고 죽어도 그 땅에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지금도 그 말을 잊을수가 없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생각에 잠기시여 푸른 띠봉들과 하늘이 맞닿아있는 아득한 북녘으로 눈길을 보내시었다.

《참으로 많은 투사들이 지난날 백두밀림과 교수대와 칠창 속에서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들중에는 후대들에게 자기의 얼굴조차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내어 선렬들의 넋원이 꽃핀 이 땅에서 새세대들과 만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가슴을 뒤잡아흔드는 크나큰 충격을 안고 칠메는 말없이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보았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이제 희생된 투사들 모두를 후대들과 만나게 해주시려다.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아침저녁 마주보시던 그 얼굴들을 번영하는 조국강산에 영원토록 빛내여주시려다!

산에, 들에, 하늘에, 단풍진 들장미덩굴과 토실토실 살진 새들의 맑은 노래소리에 끝없이 풍요한 조국의 가을이 무르녹고있었다.

유난히도 아름다운 9월의 저녁, 조용히 설레는 나무잎들도 그 어떤 즐거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춤추는것 같은 이 저녁에 칠메는 아버지원수님의 바래우심을 받으며 정원을 나섰다.

《이제는 네가 혁명가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 내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싸우던 그 남녘땅이 아직도 놈들에게 짓밟히고있지 않느냐. 네가 혁명의 쇠주먹이 되어 조국통일을 위해 훌륭히 일할 때 너의 아버지의 얼굴이 인민앞에 더 빛난다는것을 잊지 말아라!》

원수님께서 자꾸 어깨를 쓸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칠메는

목이 짝 메어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아버지원수님, 혁명을 위해서 철메가 소용될 때 어디라도 불러 주십시오. 저는 서슴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철메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씻고 석양의 하늘가에 우뚝이 드러나는 아버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커다란 기폭처럼 머리위에 펼쳐진 노을은 스며드는 저녁어스름속에서 점점 더 붉게 타올랐다.  
 철메는 노을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 △ 어휘 및 표현

- 탁자. 무엇을 올리놓도록 높은 책상처럼 만든 상.
- 다독이다. 조용히 두드리다.
- 표정을 험사리 그려보다.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아주 쉽게 그려보는 것.
- 머리속을 언뜻언뜻스쳐지나가다. 생각이 잠깐잠깐 잇달아 나타내며 지나가다.
- 혁명의 쇠주먹이 되다. 혁명의 기둥이 되다.

## 맑은 아침

### 1

최고사령부의 시계는 밤 세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올라오던 전화소리도 뜨음해졌다. 고르로운 발자국소리만 잠시 방안을 울리더니 문득 창문가에 밝은 빛이 어렸다. 깊은 사색에 잠겨 방안을 거니시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창문가에 발걸음을 멈추셨다.

하늘에 쪽쪽 선을 그으며 창문에 와서 번쩍거리던 탐조등 불빛은 옛성터를 지나 멀리 폭연이 서리어 바다같이 보이는 도시를 으스스하게 비치였다.

그아께서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신다.

탐조등불빛은 불타고 허물어진 거리의 굴퍽들이며, 부서진 벽돌 조각 그리고 뿌리뿌리고 밀둥이 잘리어 넘어진 가로수들을 이슴푸레 비쳐보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 도시에 수십만톤을 헤아리는 폭탄을 떨구었고 이 밤도 하늘을 찢고 돌아치며 다시는 평양이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상처입은 도시는 복수의 일념으로 숨쉬고있었다. 폭음속에서 아군의 고사포들이 쿵쿵 불을 뿜어올린다.

준엄한 여름이였다. 사람들은 전쟁밖에 다른것을 생각할수가 없는 때였다. 전선동부의 ××고지에서는 이 밤도 가렐치질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선을 옮겨가시더니 이쪽 벽을 반나마 가리운 조선지도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이께서는 온 조국땅을 한품에 안으신듯한 표정으로 조선지도를 바라보시며 오래동안 서계셨다.

아까부터 저쪽에서 기다리고있던 부관은 쉬실 때가 지났다고 그이께 말씀드리고싶은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무시는 시간이 하루에 두세시간도 못되



신다. 밤늦게까지 일을 보시고도 새벽 세시면 꼭 일어나셨던 것이다. 더구나 이즈음은 그냥 이렇게 밝히시는 때가 많으셨다.

부관은 벌써 그 몇번이고 그이께로 조용히 다가가았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략상문제를 두고 사색의 바다를 건느시는 듯한 그이를 방해하는것 같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부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이윽고 다시 그 문이 소리없이 열리었다. 부관은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또다시 들어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전선에서 소리치고 일어나 이글이글 화염의 선봉을 내여뿜게 할 명령을 내리실것 같은 안광을 지도우에 멈추시고계셨다. 그러나 부관을 보시자 곧 너그러운 표정이 되시는 것이었다.

《전선동부에서 무진이 왔소?》

《못받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못받았다...7번동무가 자리에 있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왜 자지 않소. 들어가 좀 쉬오.》

그이께서는 부관의 안색을 살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최고사령관동지! 날이 다 밝았습니다...》

《그러니...어서 들어가 자라고 하지 않소...》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칠줄 모르는건 좋은 일이지...트루먼이나 리치웨이같은놈이 동무를 지치게 만들수야 없지. 하지만 잠을 너무 밀리면 안되오.》

그이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자애로움이 넘쳐나시는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다.

부관은 언제나 그이의 마음을 헤아릴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계군사과학이 말하지 못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탐구하시며 작전지도우에 정신을 집중하시면서도 어떤 정황에서나 얼굴에는 조금도 그늘을 안지으시는 것이었다.

이 밤을 새우시며 또 어떤 구상을 하시는것일가?

한치의 땅을 두고서도 가슴이 죄여드는 지휘관의 체험이 있는 부관은 생각이 많았다. 전쟁 첫날부터 전선에 나가있던 그는 얼마전에

최고사령부르 소환되어왔던것이다. 그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때부터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군사간부들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에 속하는 한 사람이었다. 몇해만에 다시 최고사령관동지의 품 가까이에서 일하게 된 그는 지나온 모진에서 잊을수 없는 일들을 자주 돌이켜 보게 되면서도 금시 새로 만난듯 새로운 세계를 매일같이 느끼며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것 같았다.

부관은 다시한번 최고사령관동지께 주무실것을 말씀드리고싶었지만 그이께서는 틈을 주시지 않으셨다. 다시 작진지도우에 시선을 멈추신다. 이렇게 새벽을 맞으시면서도 그이께서는 하루일을 갖 시작하신 때처럼 얼굴빛이 환하셨다.

문득 부관은 남호두와 미혼진 그리고 동강의 우등불에 비치신 그이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등불에 었은 주전자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밀림에는 새벽빛이 서리는데 털외루를 어깨에 걸치고 나무등걸에 앉아서 조국광복회강령을 작성하시던 그이께서는 그 밤도 오늘과 같은 표정이시였다. 부관은 가슴뜨거운 생각에 잠겨 쉬시라는 말을 다시 입밖에 내지 못한채 방을 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을 눈앞에 그러보시며 군사위원회에 제기하실 새로운 전략상 방침을 세우시고계셨다. 펜을 쥐신 그이의 손길은 어느덧 움직여나가신다.

...전선동부, 전선중부, 전선서부...전선과 후방, 조선의 힘을 더욱 굳게 묶어세워 최후승리의 길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그러한 글발들이 종이우에서 힘있게 살아서 뛰는것만 같았다.

(우리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전선에 있는 군단장, 사단장, 련대장, 대대장 그리고 낮익은 초급지휘관들을 머리에 그러보시다가 믿음에 찬 표정을 지으신다.

그이께서는 다시 전선에서 보신 전사들을 생각하시며 그들곁에 서보신다. 보통 전사들과 영웅들의 가슴을 이루만져보신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으리> 간다면서 지 락동강계선에서부터 불비속을 뚫고 들어온 나 어린 병사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던 일이 생각되시여 입가에 미소를 그리시였다.

<후방은?> 이런 글자를 남기시고 방안을 기니쳤다. 밤도와 철교

를 복구하는 모습들, 전선생산에 일떠선 노동자들, 보탑을 쥐고 발갛고 씨를 뿌리는 녀성들이 떠오르고 그들의 신심에 찬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책과 자료들을 보시다가 밀어놓으셨다. 적들의 움직임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생각에 잠기셨다. ...

그이께서는 미제의 군사전략의 본질과 약점, 적들의 기도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그들을 타승할 령환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익혀오신 다른 구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다. 창문가에 서시여 폐허로 된 도시쪽을 바라보시면서도 창조의 의욕을 어찌할수 없으신 것이었다. 전선의 고지에 서계실 때나 승용차에 앉으시여 달리실 때나 방안을 거니시거나 그 매 걸음마다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고 생각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창조의 나날을 걸어오셨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펜을 드시고 각 전선과 후방의 각 부문에 내리실 지시들을 써나가시였다. ...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발자국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방안에 다시 들어온 부관은 한손으로 옷매무시를 고치는데 다른 손에는 무전변신지가 쥐여져있었다.

홍수에 철교며 길이 끊어진것이 채 복구되지 못했다는것, 놈들이 대병력을 증강하여가지고 XX고지에 올라 아군진지를 뚫으려고 시도하고있다는것, 진 전선에 걸쳐 적이 공세를 취하려고 한다는것...무전변신지를 받으신 순간에도 그이께서는 표정을 조금도 다르게 하시지 않으시고 작진지도도 시선을 옮겨가셨다. 1,211고지며 XX고지를 지켜보시는 그의 얼굴을 탁상등이 환하게 비치였다. 그이께서는 붉은 연필로 지도우에 화살을 쬐고으신다. 금시 모든 전선을 돌격으로 소리치며 일떠서게 하실듯 붉은 선을 쬐쬐 그으시고는 다시 일어나신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명령서를 부관에게 내주시며 말씀하셨다.

《각 군단에 무전을 치오.》

놈들을 한놈도 올려놓지 말라는 명령이였다. XX전선에서는 배비변경을 신속히 하고 공세를 취할 시간을 얻으면서 적의 배후를 칠것...

가지가지의 명령이 큼직큼직한 글씨로 적혀있었다.

《09번 동무를 부르시오. 그에게 이것을 지시하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또 다른 종이를 내어놓으신다.

…유자녀학원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보고할것, 마감단계에 들어선 모란봉지하극장건설에 500명의 로력을 더 보장해줄것, ××과학자에게 실험기구를 다 보내주었는가? 진선에서 뿔아오는 대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요구하는 비품들을 보장해줄것, 오후 두시에 도시건설 설계일군들을 불러올것. …

부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계란 말에 부판은 더욱 어정쩡해졌다.

군사위원회가 있는 다음에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그 뒤에 설계일군들을 만나시겠다는것이였다.

어떤 불리한 정황에서나 그이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 힘이 나고 앞이 확 트이는것이였지만 너무나도 뜻밖이였다. 전선의 포화가 가렬한 이러한 때 어떻게 설계에까지 생각이 미치실가? 부판은 깊은 생각에 잠겨 방에서 나갔다.

조용히 달기는 문소리가 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창문가로 가시여 카틴을 올리셨다.

폭연과 안개와 비구름에 덮여 바다의 물결속 같은 도시우에 야침해발이 쏟아졌다. 부서진 기화장과 벽돌조각들을 불그레한 빛이 어루만진다. 저멀리 산너머 해빛에 물든 포신을 추켜든. 고사포에서는 아직도 시뻘건 포화가 날아오르며 연기가 피어나는것이였다. 거리쪽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며 땅이 진동하고 흙먼지가 솟아오른다.

분득 어디선가 방울을 굴리는듯한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팔에 선 무궁화나무가지우에서는 새들이 해돋이를 노래하듯 울어예고 저쪽 언덕밑 농가에서는 글썽하는 아이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 산, 백두산, 어느만큼 솟았나

구름우에 솟았지 삼천리에 솟았지.

용근 한세기를 체험하신듯한 밤을 밝히시고도 어린이들의 글썽하는 소리를 들으실 그이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시며 잠시 서계시였다. 가로수가 우거져 새들이 날아들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학교들

과 문화궁전이 일떠설 도시를 그려보시는 그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띠들고 자애가 넘쳐흐르는 것이었다.

## 2

한낮때가 지나서 네명의 설계일꾼들이 최고사령부로 들어갔다.

그때 김일성동지의 방에서는 군사위원회가 막 끝난뒤여서 장령들이 나오고있었다. 부관은 설계일꾼들보다 먼저 응접실에 와서 기다리고있던 과학자들을 그의 방으로 안내하고 나왔다. 저쪽 무전실에서는 무전수들이 군사위원회에서 하신 그의 말씀을 전파로 날리느라고 바빠 키를 두드리고있었다. ...설계일꾼들은, 자기들이 작성한 평양시북구건설진망실계도를 책상위에 펼쳐놓고 부관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기다렸다. 네사람중에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로설계가가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난 겨울에 벌써 저희들에게 설계할 과업을 주시고 우리 설계집단을 꾸려주셨습니다.》

부관은 면도한 자리가 푸릿한 불을 켜면서 생각에 잠겼다. 겨울동안을 군부대에서 보낸터이라 그는 그것을 모르고있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지난 겨울에 벌써 건설을 생각하신 그이시였다. 부관은 또 한번 놀랐다. 느낌과 충격이 더욱 새삼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우리들로서는 대담하게 구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겠는지?...》

《그이께서 보실 설계도를 두고 제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설계도를 찬찬히 살펴보던 부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전쟁이라는 준엄한 현실은 생각하면 건설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다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설계된것같아서 도면을 그린 설계일꾼자신들도, 그것을 보는 부관도 꿈만 같아 놀라워지는 것이었다.

지금은 전쟁이다. 온 심장으로 원수를 미워하고 오늘의 운명을 생각하는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념이 없을 때다. 과연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설계가 지금부터 필요한것인가? 앞으로 재더미우에서

이런 도시를 세울 물질적힘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수도 있다. ...

이윽고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방문이 열렸다.

안경을 낀 후리후리한 키의 로박사가 나오고 그 뒤로 여러 사람이 따라나왔다.

부관을 따라 설계가들이 방안에 들어서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마주 걸어나오셨다.

《오시기 수고들 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으시고 설계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자리에 앉히셨다. 설계가들중에는 견장이 달렸던 자리가 또렷한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도 있었다.

《군대에서 제대돼왔소?》

그 청년을 유심히 보시던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젊은 설계가는 차렷자세를 하고 군대식으로 대답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설계를 좀 봅시다.》

설계가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설계도를 원탁우에 펼쳐 놓았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이의 밝은 표정에서 설계가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모두가 대담하게 구도하고 힘차게 선을 그은 집체적창조물을 김일성동지께 보여드리는 기쁨이 가슴 가득히 차올랐다. 머리가 흰 로설계가가 집단을 대표해서 자신있게 설계도를 설명하였다.

평양 중심부의 형성, 도로망 등 큰것과 작은 세부들이 점과 선으로 눈앞에 부각되어 소리치며 일떠서는것 같아 설계가들은 흥분하였다. 두 팔을 펴시며 원탁을 짚고 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설계도를 세심히 보셨다. 침묵이 흘렀다.

그이께서는 설계가들의 표정을 살피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수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설계를 할 때 어떤 립장에 섰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대담하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이 지나치게...》

로설계가의 말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현실성이 없이 지나치게라니?...내보기엔 지나치지도, 대답하지도 못했던것 같은데... 립장이 뚜렷치 않구, 무엇보다 신념이 덜 느껴 집니다.》

《...?》

《이 전쟁에서 우리는 벌써 이겼다!...이런 립장에 실패라야 인민을 위해 좋은 설계를 미리 만들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나는 동무들이 신심을 잃었다구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렬치질한 싸움이 눈앞에 벌어지고 눈에 보이는것은 과퇴뿐인 이런 때 그런 정신에서 지 않는다면 창조하는 정열로 숨쉴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이 벌써 이겼다는것은 최고사령부의 보도나 적을 소멸한 종합전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전선형편은 매우 간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겼다고 말하는가? 전쟁의 불길속에서 시간마다 자라나고있는 인민의 힘을 볼줄 아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을 시찰하시는 길에서 보시고 느끼신 모든것을 다시금 눈앞에 그리보신다. 인민들의 심장을 파악하신 그이께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더는 지체할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찾아내시고 포치하셨다. 인민을 위한 과학문화의 역량들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서도 조치를 취하셨다. 비날론연구를 촉진시키신것도 조선을 미래에로 미래에로 전진시키시려는 그이의 열정과 그 과학적예견성에서 나온것이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전진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과피를 이기는 창조력을 가져야 하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아까도 과학자들을 접견하시고 연구사업의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깊은 사색에 잠기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목소리며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금 들리오는듯 느끼시며 이 나라 이르는 산기슭마다에 옮겨앉은 집들을 그리보시는것이였다.

《...밤이면 등화관제를 해서 불빛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어데를 가나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는 들립니다. 동무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태일이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학교를 지어주고 싶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만들어주고싶어야 합니다.

인민들은 벌써 새 학교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 장령 한분이 들어온 것이었다. 차렷자세로 선 장령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서 종이장을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종이장을 보시더니 인차 포장을 친 지쪽으로 들어가신다. 진화종이 찌뚱찌뚱 울렸다.

《××군단장동무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진선동부에서만 이 아니라 서부에서도 조련치 않은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실체가들은 군사상 문제를 알수는 없었지만 이미 해방시킨 그 지역에서 한치의 땅도 내여주어선 안된다는 그의 명령이 가슴을 들먹거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나오시더니 아무 일도 없으신듯 평온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셨다.

《어제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도시와 공장을 설게하고 지하극장을 건설하고있습니까? 재난으로 마음들이 거칠어질수 있습니다. 이 거칠어진 마음들에 새싹을 틔워줘야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어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인민들에게 지체없이 좋은 집을 지어주고, 세계에 떨칠 예술을 창조할 문화궁진두 세워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새로 태여날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탁아소를 빨리 세워주어야 합니다. 싸움이 끝난 때 가서 시두는건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노동계급이 문명한 세계로 가는 길을 전쟁이 멈춰세울수는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또 말씀을 맺으실수 없으셨다. 어제밤 천교가 복구되어 긴급한 군수물자를 실은 열차가 전선으로 떠났다는 전화가 왔던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열차를 오늘 밤중으로 달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모든것이 이 방에 집중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한초의 시간도 여유가 없으셨다. 모든것이 긴박한것뿐이였다. 조선이 이기느냐 하는 운명을 건 질박한 물음에 승리의 대답을 주셔야 하는 김일성동지이시다…실체가들의 숨소리는 높아지는 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나서 말씀을 이으셨다.

《설계가 매우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우리 인민의 기백이 덜 느껴 집니다. 승리한 인민의 사상과 기백을 담은 심장부로 이 도시는 일떠 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이 전쟁의 불길속에서 세계에 새로운 시대 가 태어나게 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예지에 빛나는 안광을 세계지도로 옮겨가시였다. 부판이 들어와 무슨 말을 전하자 그이께서는 더욱 우 령우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미국놈들이 코대를 세우던 시대는 끝장나게 될것입니다. 모든 대륙에 타번질 혁명의 불길과 세찬 폭풍은 우리 땅에서 시작되였소. 우리 땅에서… 우리는 할일이 많습니다. 남이 열발자국 뛰면 우리는 백발자국을 달려야 하오. 전쟁속에서도 그런 싸이 보이고있소. 우리 는 남보다 먼저 사회주의로 들어서야 한다는 정신에서 살며 싸워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설계가들에게 놈들이 다시는 일떠서지 못한다고 말하 는 이 도시를 일떠세울 녀을 불어넣어주시였다.

설계가들은 숨을 몰아쉬였다.

전쟁승리와 삶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최고사령부의 이 집,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용솨음쳐나오고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로설 계가는 승엄한 감정에 잠겼다.

가슴을 찢을것 같은 자책에 입술만 깨물던 그는 위대한 사상이 체내에 들어오는것을 느끼며 머리를 들었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둘째로 결함은 조선맛이 덜 나고 조선의 기상이 뚜렷이 느껴지 지 않습니다. 백두산을 이 나라의 이마, 아니 머리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소, 백두산을 머리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세 바다 동해, 서해, 남해는 날개처럼 펼쳐져있습니다. 원쑤를 치박는 억센 날개처럼말입 니다. 그렇다면 금강산은 얼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난 때때로 우 리 나라 삼천리강산을 머리에 그려보면서 이렇게 혼자생각에 잠겨보 기도 합니다. …》

그이께서는 설계가들을 바라보시며 미소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평양을 심장이라고 이룹니다. 심장이 중요하지!...심장이기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그렇구, 정신적으로도 그렇구, 물질적으로도 그렇구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이 상징되게 건설돼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벽에 걸린 조선지도를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마치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천지를 굽어보시던 때처럼 모든것을 꿰뚫을듯 바라보신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백두의 우뢰소리; 천지의 푸른물의 파문, 밀림의 설레임소리, 눈보라, 눈보라, 눈우에 찍힌 자국, 자막저벽 발구름소리 그리고 흰 갈기를 날리며 기슭을 치는 세 바다의 파도 소리도 들으시며 눈앞에 그리시는 것이었다. 화산처럼 불길에 싸이고 허리에 포연을 휘감고도 그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을 세계에 높이 쳐든 금강의 봉우리를 어루만져보시는것 같은 감을 느끼셨다.

그이께서는 몸을 일으키시었다.

《동무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라 이룰수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것이 있습니다. 우리의것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제힘으로 일어서고 제발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기운을 내야 합니다. 내 말이 리해 됩니까?》

《최고사령관동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설계가는 가슴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치밀어올라 목이 짝 메면서 말을 더 할수가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것을 의논해봅시다.》

그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문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문안에 들어와 주저하고있는것을 보자 말없이 생각에 잠겼던 부관이 마주 나가 번신자를 받아 쥐었다.

《담배나 불이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번신자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세계의 앞날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어느 한순간도 쉬임없는 김일성동지시다. 악을 쓰며 달려드는 적들의 총계를 매순간 간파하시고 단매에 때려눕힐 대책들을 세우시면서도 전사들의 상처의 아픔까

지 돌보시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도 도시와 공장설계까지 구상하시는 그이앞에서 설계가들은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작전상의 명령을 주시고 진천히 걸어나오시던 그이께서는 걸음을 돌려 다시 진화기앞으로 가신다. 또 다른 일이 걱정되신 것이다. 수화기를 드신 그이의 눈앞에 어린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6번 동뽀니까? 유자녀학원 원아들의 옷을 실은 자동차가 튀고있소?... 똘다!... 아주 좋습니다. 영양제는?... 속히 보내주세요...》

가슴속에 차오르던 것이 끝내 터지고말았다. 설계가들속에서는 흐느낌소리가 났다.

군복입은 설계가는 입술을 떨며 머리를 숙인다. 로설계가도 끝내 참아내지 못했다. 그는 숨쉴수도, 말할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이의 어버이사랑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살피보시는 듯한 그이께 쏠리는 정진한 마음때문이었다.

그이께서 우리 시대의 귀중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빛을 내어 뽐고 있음을 그는 직감으로 느꼈다.

제도판앞에서 늙어온 로설계가에게는 화가의 안목이 있었다. 엄해보이다가도 부드럽고 너그러워지시는 김일성동지의 안광과 표정을 어느 한순간 포착했다가는 놓치고 그저 큰 모습, 큰 예지 앞에서 그는 황홀해 앉아있었다.

이윽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박물관에 있는 17세기 무명화가의 그림을 태증하시면서 말씀하셨다.

《평양이 건립된 것이 427년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금년으로 1,524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지요? 동방의 높은 문화를 가졌던 고구려는 문물과 인재도 접비했었지요. 무예에 능한 장군들도 많이 났고 수, 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은 비국놈들의 침략선 〈샤만호〉도 넘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7세기 무명화가의 그림은 우리 나라가 당나귀를 타고다니던 시대를 말해줍니다. 거기에다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왜정때 평양시는 비문화적이고 기형적인 도시였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았지요.》

그이께서는 지난 시대를 돌이켜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셨다. 해방

후 민주수도로 발전한 평양, 집중적인 폭격을 받으면서도 사수된 영웅적인 도시라는것을 말씀하셨다.

그이께서는 설계도에 그려진 모란봉과 대동강을 따라 선을 그으시며 대통령이 꼭 뻗어야 한다고 하셨다.

《숨이 탁 트이게 만듭시다. 식민지적기형성을 퇴치하구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들과 위생시설들을 충분히 예견해야 합니다. 교통망과 교육문화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하오.

대동강에는 다리를 몇개 더 놓을것을 예견하고 유보도를 잘 꾸리며 전승기념관도 예견하시오. 아이들에게 줄 궁전도 좋은 자리에다 더 크게 하고 극장도 날아가는 학의 날개처럼 처마를 뻗치고 조선식으로 하면 어떻소? 대학도 몇십층으로 지읍시다. ...도시중심부를 여기로 옮기는것이 좋겠소...중심부에는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연필로 중심부와 동서의 료곽을 그리시면서 오래동안 설계가들과 의견을 나누셨다.

《이것은 참으로 거창합니다.》

로설계가는 가슴이 넓어지고 힘과 신념에 넘쳐 말씀드렸다. 해방전 세월에 인민의 집을 지으려는 그의 지향은 한갓 꿈이었다. 한때에는 실업자로 돌아다니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이런 아름답찬 일을 맡은 몸이 된 로설계가는 자꾸 목이 메었다.

《전망설계를 만든 다음 세분도도 그리시오. 주택과 큰 건물설계도 만들어보시오. 공장설계를 전문하는 동무들은 지금 현지에 나가 있지요? 들어오면 또 큰 과업을 주겠소. 각도 소재지 복구건설총계획도도 작성해야겠소. 기술자들을 더 주겠소.

설계를 할 안전한 집도 마련해주고,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겠소...저녁때 7번동무를 불러오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자기의 전생애를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보듯 깊은 생각에 잠겼던 부관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설계가들의 안색을 살피셨다.

《그래 가족들은 다 무고합니까? 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기하십시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로설계가가 대답을 올렸다.

《그렇리 있습니까. 동무는 몸이 불편한것 같군.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일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얼굴이 가름한 설계가의 대답이었다.

《끼니를 제때에 하고 몸을 돌보면서 일하십시오. 지금은 어려울 떼데...우리 다 같이 모든것을 이깁시다. 의지와 신념으로 말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지으셨다가 군복입은 설계가의 그 애티나는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더니 입가에 그윽히 미소를 그리시며 물으셨다.

《동무는 장가를 들었소?》

《.....》

《왜? 안들었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들겠다는게지? 그래 애인은 있소?》

그이의 음성은 너무나도 친근하여 젊은이는 마치 그이의 몸 가까이에서 오래 살아온것 같은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이 앞에서는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그는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대답을 드렸다.

《전선에 있습니다.》

《음, 그렇소?...앉아서 말하십시오. 그래 전선에서 팔하오? 간호원이라...애인을 전선에 두고 후방에 있자니 피롭겠군...어느 전선이요?》

《전선동부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서 앉소.》

하시며 그이께서는 잠시 눈길을 내리셨다.

전선에서 보신, 전화에 얼굴이 그을었어도 눈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던 처녀들중에 젊은이의 애인이 있더라도 한듯 눈앞에 그려보시는 것이었다.

《승리한 날에 만나면 애기두 많구, 좋을테지...》

하시고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설계가들도 따라 일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설계가들의 손을 꺾어주셨다.

설계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건만 머리가 탁 트이는 기분이 되어 최고사령부를 나가는 설계가들의 발걸음은 힘찼다. 이 전쟁에서 벌써 우리가 이겼다! 이런 목소리가 광광 울려와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설계가들은 건잡지 못했다.

대담한 구상과 건축학적인 령감이 로설계가의 머리속에서 날개를 퍼덕이였다. 제더미로 된 도시도 새롭게 보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날 이 도시의 모든것, 아직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머리속에서 구상되고있는 이 모든것을 그려보면서 그들은 걸어가고있었다...

부관은 그들이 걸어가는데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번뜩이였다. 자기로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려고 애쓰지만 그이에 대한 충실성에 비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많은때문에 마음이 아픈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것에서 큰것을 보시며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얼마나 많은것을 구상하시고계시는가!

부관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그이의 품속에서 자라왔건만 아직도 자기는 그이의 위대함을 다는 모르고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분의 걸에서는 언제든지 새 생활을 시작한 때처럼 행복감과 무한한 힘이 가슴·가득히 차오름을 느꼈다.

그는 이날 어렵고 바쁜 일들을 더욱 능숙하게 처리해나갔다.

평양시북구건설설계가 진사들속에서 큰힘을 일으킨것을 그가 알것은 그뒤였다.

## 3

미제침략군은 이날밤도 폭격을 계속했다. 그러나 폭격속에서 또란봉지하극장이 준공되어 교향곡 《수령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가 연주되였다. 그 장중한 조선의 음악이 울려 퍼진 연주회의 밤이 지새여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도 최고사령부에 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수화기를 드시고 작전지도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계셨다. 눈앞에는 포연에 덮인 1,211고지가 우뚝이 떠올랐다. 하늘과 땅, 바다 이 무한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립체적인 현대전의 온갖 움직임

작전지도우에 그려보시는 것이었다.

적들이 전선 서부로 공격해올 때 그이께서는 전선동부를 생각하셨다. 적들은 대대적인 증강을 하고 서부로 기동을 보이지만 사실은 동부로 주력을 돌려서는 1,211고지를 돌파하고 양쪽으로 짜르려는 전술이라는 것을 미리 간파하신 그이시다.

그이의 천재적인 작전에 의해서 1,211고지는 걸지되었고 지금도 가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군단장 동무, 건강하오?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소. 이제는 모든 전선에 걸쳐 총공세를 취할 때가 온 것 같소. 장군이야! 불러볼 시간입니다...》

그이께서는 잘카잘카 초침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팔목시계를 보시고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꼭사포로 갈기고 있다!... 좋소! 우익을 치고 면상을 친다!...》

호탕하게 웃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단장의 얼굴을 그려보시며 미소하십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전사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그려보시었다.

《...1,211고지를 사수한 전사들, 그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 전투원 한사람 한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전우들입니다.》 힘껏 돌보시오. 더운 밥과 더운 국을 먹이도록 해야 합니다... 풍나물을 잘 기르오? 싸리나무팡주리가 좋지... 좋습니다...》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불을 내여뿐는 듯한 시선을 작전지도우에 멈추시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1,211고지를 계속 첩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여오르려는 침략자들을 처넣을 함정밭을 만들어놓으시오... 그래 그건 군사위원회에서 내가 제기한대로 하시오. 그물을 넓게 치구 숨을 못쉬게 죄여들어가면서 본때있게 갈기시오... 그래선 안되오. 화력을 집중하시오... 그건 아주 좋소. 결심대무 그렇게 하시오. XX전선에도 공격명령을 주었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군단에서 대학생들을 더 추천하시오... 전쟁이 기때문에 필요합니다. 더 보내시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소. 새로운 평양을 설계하오. 뭐라구요?... 힘이 난다구! 그럼 그렇겠지! 군인들속에서 설계기술자들을 뽑아보내시오.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비부대에서 보충하고... 식량과 탄알은 곧 도착할 것이

요...전사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수화기를 놓으시고 그냥 전화기를 만지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며 초연내가 풍기는 모든 전선을 또다시 눈앞에 그려보셨다.

전과는 끊임없이 전선으로 날아갔다. 군단들에서 사단으로, 련대로, 대대로, 중대로 날아갔다. 레시바를 낀 무전수들의 어깨는 물결치고 눈동자는 새벽처럼 빛났다. 무전번신지를 쥐었거나 수화기를 든 모든 지휘관들의 심장은 한덩어리로 불타올랐다. 전과는 삼시간에 고지로 날아가 전사들의 귀에 들어갔다.

《평양시전설을 설계합니다!》

《평양을 설계한답니다.》

××고지의 전호와 강도속에서도 한결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물결! 탄알을! 하며 고지를 사수하던 전사들의 눈동자는 빛났다. 전사들은 포연과 불길에 싸인 전호마다에서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칠갑모들이 번뜩였다. 초연애 그들은 얼굴들에서는 이글거리는 눈동자들이 밝은 빛을 띠고 번뜩인다. 삼척입고 쓰러졌던 전사도 머리를 들었다. 이마에 엇비스듬히 붕대를 감은 전사도 서리발같은 눈으로 다시 총을 들었다.

수령을 위해 돌격 앞으로! 평양시를 세우기 위해 돌격앞으로! 공장을 세우기 위해, 용광로의 쇠물을 뽑기 위해, 새삼과 미태를 위해 돌격앞으로!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온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침노을에 물든 고지마다에서 화산이 터진듯, 군단포, 사단포들이 포문을 열었다. 시뻘건 포화가 적의 머리위로 날아갔다. 원수들의 피와 시체로 덮인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전사들은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

함성이 터지는 고지아래서 기습을 치는 시피린 물갈기가 미제친략군의 찢어진 군복에서 떨어진 견장이며 군화따위를 먼 바다로 떠밀어가고 있었다.

이날 새벽 군단장들은 전사들의 심장에 인과동과 사기충천하여 용맹을 떨치게 한 사연을 전투보고와 함께 최고사령부에 무전으로 보내왔다.

!《...그럴테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전번신지를 보시다 책상우에 놓으시며 환한 얼굴로 전사들의 모습을 그리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곧 전선시찰을 떠날 차비를 갖추시고 방을 나서시었다.

이윽고 부관들과 수원들이 주린이 선 나무숲아래에서 승용차들이 발동을 걸고있었다. 류달리 맑은 아침이었다. 저쪽 농가에서는 아이들의 굴밟는 소리가 들리고 새벽안개속에서 조밭 후치질을 하는 농민들의 음성이 소방울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좋은 아침인데...무덤갓군, 전사들의 등엔 맘이 배졌군, 전선은 불이 일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복입으신 히리에 두손을 짚으시고 부관에게 말씀하셨다. 바래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군모우로 쳐드시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신 그이께서 승용차에 오르셨다. 승용차는 포연을 헤치면서 새벽길을 달리갔다.

배웅하는 사람들은 전선을 향해 달려가는 승용차를 바라보며 생각하는것이였다. ...인민의 힘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힘은 그리도 강한것이다. ...가까와오는 진승의 날을 내다보면서 김일성동지의 구상에 따라 일떠설 모든것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그들은 그냥 서있었다.

승용차는 길우에 바퀴자국을 찍으면서 멀리 산굽이를 돌아갔다, 태빛에 차창이 번쩍하였다.

### △ 어휘 및 표현

○ 남호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 주요혁명전적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이곳에서 조선혁명을 일데 양양으로 불리일으킨 역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 미훈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 주요혁명전적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3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시고 남호두회의방취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 돌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주

요혁명전적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이곳에서 조국광복회중앙당대회를 소집하시고 영광스러운 조국광복회의 역사적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 입이 떨어지지 않다. 차마 말은 할수 없다.

○ 사색의 바다를 걷는시늬듯 하다. 무엇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고 더듬고 더듬는 일을 계속하다.

○ 전파를 날리다. 무전으로 전하다.

○ 코대(髑) 세우다. 거만하게 자기만이 잘났다고 우쭐령거리다.

○ 물친(뿌린)듯. (많이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매우 조용해진 상태를 이르는 말.

○ 서리발같은 눈. 쌀쌀하고 날카로운 기세의 눈.

○ 불이 일다. 불길의 새차게 타번지다.

○ 유자녀학원. (지난날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투사 및 애국렬사의 아들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던 특수한 교육기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자녀학원을 몸소 세워주시고 원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리주시였다.

○ 문물. 옛날에 정치, 경제, 문화를 통털어 이르는말.

○ 고구려. 우리 나라 역사에서 세나라(고구려, 백제, 신라)시기에 있었던 봉건국가의 하나.

고구려는 기원 1세기~668년까지 존재한 나라로서 우리 나라 역사상의 봉건 국가들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의 힘이 가장 강했고 넓은 영토를 포괄하고있었다.

○ 무예. (옛날에)창, 칼을 비롯하여 온갖 무기를 쓰는 법과 말타는 법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에 관한 모든 제주.

## 철의 력사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  
였다.

3년간의 전쟁의 불비속에서 혹심한 상처를 입은 재철소는 검은  
우유빛 안개속에 잠겨있었다. 깨여진 벽돌장들이며 녹슨 쇠조각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널려있는 어수선한 구내에는 마치 폐허와도 같은  
싸늘한 정적이 도사리고있었다.

지붕이 날아나고 담벽이 무너진 해탄로직장 앞길에 사람의 그림  
자 하나가 안개속에 어른거렸다. 물이 바랜 회색작업복에 흰 로동모  
를 꼭 눌러쓰고 홀쭉한 불똥에 희끗희끗한 구레나뭇이 덮인 그는 선  
이 훨씬 넘어보였다. 물살을 헤치고 다닌듯 그의 로동화와 아테도리  
는 이슬에 흠뻑 젖었다.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무엇을 찾는 사람처럼 땅바닥을 이리저  
리 살피며 시적시적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땅속에서 대가리를 빼  
죽이 내민 녹슨 암나사를 발견하자 주춤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그  
것을 파내어 흙먼지를 털어서는 한쪽 어깨에 걸친 배낭속에 집어넣  
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박응철이라고 하는 오랜  
숙로공이었다.

얼마뒤 선재직장앞에 이른 응철은 무너진 담벽밑에 앉아 신문지  
로 묵하게 만 마라초를 빼금빼금 빨며 다리염을 하였다.

대동강쪽으로부터 비뚤한 물비린내를 풍기며 강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왔다. 구내에 자욱히 깔려 굳잠을 자던 아침안개가 잠자리를 떠  
나기 아쉬워 잠루정이나 부리듯 꾸물거리며 킁킁히 월봉산쪽으로 밀려  
가고있었다. 그 스러져가는 안개속에서 미제날강도들이 지지른 죄  
악의 흔적이 응철의 아픈 가슴을 히비며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  
였다.

쇠늑이 시뻘겍게 쓴 숨죽은 용광로, 천물이 드러난 평로며 압연

적장의 무너진 담벽들, 이리 구불고 저리 튀어진 크고작은 가스관들, 허물어진 굴뚝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응철의 눈에는 불이 일고 가슴속에는 미제원췌들에 대한 증오심이 용광로의 쇠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천하의 죽일놈들...)

응철은 이를 부르듯 같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느닷없이 간고했던 전쟁의 나날들이 되살아왔다.

적기들의 맹목속에서도 용광로며 평로며 기대물에 방탄벽을 쌓고 쇠물을 녹여 강판을 만들어내던 일, 큰 기계들은 산속에 소개하고 중요한 기계부속품들만 짊어지고 재철소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 후퇴를 하던일, 땅속에 작은 용광로를 들여앉히고 쇠물을 뽑으면서 군수품을 만들어 전선으로 보내던 일... 추억은 끝없이 흘렀다. 그러나 그 모든 추억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슴을 허비는것은 스무해동안이나 갇은 교생을 다 겪으면서 함께 일해온 병두를 잃은것이였다.

그날 적기들은 아군 고사포에 얻어맞아 다섯대씩 떨어지면서도 평로적장을 두차례나 폭격했었다.

평로들에서는 방금 출장을 앞둔 쇠물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그런데 첫번 폭격때 근방에 폭탄이 떨어지는바람에 1호로와 3호로의 로정벽돌들이 더러 무너져내렸다. 기기로부터 불길이 밖으로 치솟아 나와 로들은 용해온도를 보장할수 없게 되였다. 그대로 두면 원췌를 쇠납힐 총이 되고 대포가 될 귀중한 쇠물이 못쓰게 되는것이였다.

응철이와 병두는 이 가슴아픈 광경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불이 뿜길듯한 서로의 눈길이 부딪쳤다. 그 순간 말없는가운데 비장한 결심을 다진 그들의 마음은 번개같이 오고갔다. 먼저 응철이가 쓴살같이 1호로 로정으로 달려올라가자 병두도 3호로로 달려올라갔다.

그들이 올라간 로정에서는 무서운 전투가 벌어졌다. 응철이와 병두는 내화벽들을 쇠갈구리에 걸어 삼단같은 불길이 통트림을 하며 확 치솟아오르는 무너진 로정구멍을 틀어막기 시작하였다.

용해공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들의 장엄한 투쟁을 지켜보고있

었다.

사나운 불길은 응철이와 병두를 휘감아삼킬듯이 그악스레 덩벼들었으나 그들은 불리시지 않았다. 금시 숨이 막힐듯한 긴장속에서 전투는 계속되었다.

그렇게 사납던 불길도 그들의 강의한 투지앞에서는 어쩔수 없었던지 기세가 꺾이이 차츰 주지않기 시작하였다.

이윽하여 불구멍을 다 막은 응철은 비불처럼 주르르 흐르는 열골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3호로죽을 바라보았다. 마침 방금 일을 끝낸 병두도 감격에 겨운 얼굴에 허죽이 웃음을 담고 응철을 마주 바라보았다.

이때 직기들은 두번째 폭격을 들이댔다. 별안간 쇠물받을 준비를 하고있던 조피장철장을 뚫고 열거퍼 폭탄이 떨어졌다.

비락치는듯한 굉음이 현장안을 들었다놓았다. 사나운 폭동이 응철의 몸을 휩쓸었다. 그는 얼른 길에 있는 철막을 붙잡고 한쪽으로 휘 쏠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면서 로정우에 남작 옆드렸다. 그리고는 병두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응철은 가슴이 선뜩했다. 병두가 웬일인지 슬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더니 앞으로 폭 꼬꾸라지는것이였다. 응철은 《병두!》하고 무놓아부르며 넋막 일어나 아래로 내리뛰었다.

그 사이에 벌써 다른 동무들이 3호로 로정으로 뛰어올라가 병두를 아래로 업어내려왔다. 폭탄 파편에 맞아 병두의 작업복에는 시뻘겋게 피가 번지고있었다.

동무들은 병두를 업고 병원에 달려가 응급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은 병두는 이튿날 새벽 《여보게 응철이...우린 수령님을 모시구 한평생 쇠물을 뽑자구 했지...그런데 나는 흥분하이... 이 원썩물...이 원썩물 갇아주게...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키구 첫쇠물을 뽑는날 수령님께선 꼭 오실걸세...그때 수령님께 인사를 전해주게...수령님께선...수령님께선 날 잊지않고계실걸세...더 오래...더 오래 수령님을 모시구 일하지 못하는게 한일세...응철이, 부탁하네 르물...》

이런 말을 남기고 응철의 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응칠의 눈앞에는 재 다하지 못한 슬한 이야기를 담고 무엇인가 애절하게 호소하는듯한 물기가 펴 어린 눈으로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 보던 병두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그의 가슴은 무딘 쇠칼으로 쿵 쪼리는듯 저리고 아팠다.

(병두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희끗희끗한 구레나룻이 턱수룩이 덮이고 굵은 주름살이 열기설기 없던 응칠의 얼굴에는 서늘픈 빛이 스치었다.

(병두, 자네두 땅속에서 우리가 미제날강도놈들을 때려눕힌걸 아나?... 이제 로들을 빨리 복구해서 수령님을 모시구 쇠물을 뽑겠네.)

응칠은 죽은 병두에게 다짐이나 하듯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진작 무엇부터 손을 대서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것인가? 자나깨나 빨리 공장을 복구하고 쇠물을 뽑아야겠다는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에서 오늘아침도 새벽에 나와 이렇게 나사못을 쫓고있는 응칠이었으나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안개를 잡는것 같이 막연하기만 하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벽돌 한장 나사못 하나 성한것이 없는 형편에서 이제 공장복구에 써야 할 그 많은 철재와 세멘트와 로력과 기술인재는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응칠이는 납덩이라도 삼킨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는 곁에 놓았던 배낭을 어깨에 메고 다시 일어섰다.

그가 압연직장뒤를 돌아 큰길에 나섰을 때였다. 아직도 안개가 꾸물거리고있는 평로직장앞길에서 웬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누굴까?... 이 새벽에...)

응칠은 의아한 생각을 품으며 그쪽으로 슬렁슬렁 걸음을 옮기며  
《저 누구시요?...》

하고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나요.》

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응칠은 흠칫 놀랐다. 어텐가 귀에 익은 목소리같았다. 불현듯 응칠의 머리속에는 그 어떤 생각이 번개같이 스치었다. 그러나 인차 (실마...내가 무슨 실없는 생각을...)하고 머리에 떠오른 지때 짐작을 밀어버리며 급히 걸음을 옮기었다.

그런데 수수한 옷차림을 한 분이 안개속에서 드러나보이자 응철은 전기에나 닿은 사람같이 걸음을 멈추고 못박힌듯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슴백거리며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수령님이시었다. 김일성원수님이시었다.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뜻밖에도 당한 일이라 응철은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 이른아침에 수령님께서 이런곳에 오시리라고 그 누가 상상인들 할수 있으랴!

가털치절 한 전쟁의 나날에도 항상 가슴속에 계시며 오매에도 그립던 수령님, 아무리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전쟁의 승리를 굳게 믿으며 살았었다. 그런데 지금 수령님께서 자기앞으로 다가오시는것이다.

응철이 가슴속에서는 불덩이같이 뜨거운것이 뭉클 치밀고 눈앞이 흐려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저만큼 앞에까지 다가오신 수령님께서서는

《이거 주인들의 승낙도 받지 않고 이까지 들어와서 안됐소.》

하고 말씀하시며 응철이를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아니 이거 누구요? 응철동무가 아니요?》

하고 놀라시는것이였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축로공 박응철입니다.》

응철은 눈물이 콧 솟는것을 참으며 묵묵 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틀림없이 살아있었구먼! 전쟁을 겪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했소! 전쟁중에도 나는 동무들이 그리웠소!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소!》

수령님께서서는 반가운 웃음을 만면에 담으시고 두손으로 응철의 손을 짝 잡아 주시었다.

수령님을 바라보는 응철의 주름살이 주글주글한 불편을 타고 지금까지 참아오던 뜨거운것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수령님을 뵈오니 이젠...》

응철은 목이 꺾어져 더 말을 잇지 못하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응철의 몸을 살피시며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소? 가족들도 다 무고하오?》라고 물으시었다.

《네, 모두 잘 있습니다.》

응철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을 드렸다.

《살림살이 형편은 어떻소? 몹시 어려운것입니다.》

《당에서 다 돌봐주셔서 돌아가는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걱정없겠소? 어려운 전쟁을 겪었는데…조금만 더 참고 견디여냅시다. 이제 모든것이 다 나아질겁니다. 그 배낭속엔 뭘이 들어있소?》

그제야 응철은 자기가 아직 이끼에 배낭을 댄채 수령님앞에 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당황해서

《저 공장을 복구할 때 쓸모가 있을가 해서 공장구내에 널린 나사못들을…》

하고 말꼬리를 흐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응철의 일군을 찬찬히 지켜보시다가 물으시었다.

《알만하오. 참, 병두동무도 잘 있소?》

응철은 어떻게 대답을 드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병두가 희생된 소식을 들으시면 수령님께서 가슴아파하실것을 생각하니 섣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데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왜 그 동무가 잘못됐소?》

《네, 폭격속에서 평포천장이 허물어진 구멍을 막다가 그만…》

하고 응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수령님의 일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었다.

응철은 다시 고개를 들고 그날의 일을 세세히 보고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병두동무는 복구한 로에서 컵쇠물을 뿜을 때 수령님께서 오시면 전해달라구…수령님을 모시구…수령님을 모시구…더 일을 못하구 가는것이 한이라면서…흑…》

수령님께서는 일군을 돌려시더니 먼 하늘쪽을 바라보시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참, 가까운 동무를 잃었습니다. 병두동무의 나이가 아마 선뵈이지요?》

이윽고 수령님께서 조용히 물으시었다.

《네, 그렇습니다.》

《선뵈…한창 일할 나인데…디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구…》

수령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다.

《병두동무네 가족들은 지금 어데서 사오?》

《칠산리에 살고있습니다. 용혜공을 하던 큰 아들과 둘째는 전선에 나가구 아주머니가 막내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잡니다.》

《이따 찾아가봅시다. 하늘같은 주인을 잃고 살림인들 얼마나 어렵겠소. 병두동무와 군대에 나가있는 아들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이 잘 돌봐줍시다. 아이들은 혁명학원에 보내구…참, 응철동무를 이런데서 만나니 해방후 우리가 쫓 쇠물을 뿜던 때 일이 생각나오. 아마 그때 응철동무가 해방이 됐나구 고향으로 가는 병두동무를 따라가서 데려왔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참 어려운 전투를 했었지…》

수령님께서 혼자말처럼 말씀하시며 무슨 생각에 잠기시어 평로 직장 들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의 뒤를 따르는 응철의 머리속에는 일제놈들이 피피하고 달아난 제강소며 제철소를 해방후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복구하던 때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은 천지가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 불도가니처럼 들끓고있었다.

응철은 제강소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런데 일제놈들은 쇠물을 뿜지 않은채 전로를 파괴하고 도망치면서 조선사람의 손으로는 20년이 걸려도 공장을 돌릴수 없다고 떠벌이었다.

해방이 되어 미구에 좋은 세상이 온다지만 공장이 돌지 못하게 되니 로동자들의 살림살이도 당장 곤난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채각성하지 못한 극히 적은 수의 로동자들은 공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날그날 살아갈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가 하면 고향이나 다른 교장에 가면 행여나 썸핑이 좀 피일가싶어 공장에서 떠나가는 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각성된 노동자들은 공장을 지키는 한편 파괴된것을 복구하자고 공장보위대를 조직하였다. 응철이도 병두와 함께 보위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남들보다 식구가 더 많은 병두네는 당면한 생활처지가 더 어렵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무렵에 응철을 찾아온 병두는

《여보게, 난 아무때도 고향에나 가불가 하네.》

하고 한밤중에 흥두께 내밀듯 불쑥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아니, 자네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응철은 지으기 놀라며 물었다. 고향인 강원도 칠원땅에서 지주에게 땅을 떼우고 로동판에 밭을 들여놓은 병두의 태력을 잘 아는 응철이로서는 실마 그가 그런 마음을 먹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넌들 왜 공장을 떠나구싶겠나?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 농사라도 짓는 편이 지금 형편에선 나을것 같아.》

《거기 가민 누가 자네한테 땅을 준다나?》

《땅이야 누가 주겠나? 처권이 있으니 그걸 바라구 가는거지...》

《에키 이 사람, 그따위 쓸개빠진 소린 하지두 말게. 지주한테 땅을 떼우고, 로동판에 밭을 붙인 사람이 그레 지지같은 짚을 해가지구 기신기신 고향이라구 되찾아간단말인가? 사람이 아무리 못살아두 속대가 있어야지...》

응철은 까닭없이 제김에 화를 벌컥 내며 나무람을 하였다.

《그럼 여기선 뭘하나? 우린 축로공이 아닌가? 일제놈들이 로를 저 지경으로 만들이놔오니 이느 세월에 공장이 돌아가 일감이 생기겠나? 그레 멍청하니 불꺼진 드만 지키구 있을순 없지 않나?》

병두의 이 말에는 응철이도 말문이 막히버렸다.

병두에게 당장 입벌이를 할 일감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이상 그가 공장을 떠나는것이, 아무리 못 마땅하고 섭섭해도 무작정 불들어들수는 없는노릇이였다. 그렇지만 병두와 헤어진다는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좀더 참아보지... 이제 좋은 세상두 온나는데...》

하고 온근히 주지않기둔 편했으나 한번 먹은 병두의 마음을 끝내

돌려세울수 없었다.

며칠뒤 병두네는 고향으로 떠나갔다.

두집 식구들은 손들을 마주잡고 울며불며 눈물속에 작별을 하였다.

응철은 병두를 떠나보낸뒤 인짙은 마음으로 공장에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로직장으로 옮겨졌다.

숨죽은 전로들이 들어앉은 어둡침침한 현장안에는 쥐죽은듯한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응철은 그날따라 현장안의 모든것들이 낯설은것처럼 서먹서먹 하 기만했다.

그는 버릇처럼 전로걸으로 다가가 쇠가 녹아붙은 전로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일제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육 치밀어올랐다.

(언제나 부글부글 끓는 쇠물을 다시 볼수 있을까?...)

로결에 와 서니 병두를 떠나보낸 생각이 더 가슴을 허벼대고 저 도 모르게 구슬퍼졌다.

그런수룩 그의 머리속에는 항간에 떠도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만 되살아오는것이였다.

해방이 되자 인민들은 한결같이 일제침략자들의 말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던 암담한 세월에도 그렇듯 존모하여 마지않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의 정사를 맡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었다.

그이께서 정사를 돌보시면 지금까지 털벗고 굶주리고 천대를 받던 가난한 사람들도 기를 펴고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수 있을것이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천식같은 믿음이었다.

마침 이런 때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벌써 평양에 들어오셔서 어느 공장을 돌아보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 소문은 응철이네 제장소에도 전래졌다.

로동자들은 장군님께서 혹시 자기네 제장소에도 들리실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더욱 흥분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평양에 다녀오기만 하면 행여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들을가 하여 우르

르 물러가군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재강소에도 오셨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정사가 바쁘실텐데 언제 여기까지 오실 사이가 있으실라구...)

응칠이 이런 혼자생각을 하며 멍청하니 서있는데 별안간  
《수고하십니다.》

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칠은 줍칠 놀라 뒤를 돌아다보았다. 키가 후리후리한 웬 낯선 손님 한분이 서있었다. 그 뒤에는 중키나 되는 사람이 서있었다.

그런데 그 손님의 안광은 유난히 빛났다.

응칠은 그 손님을 본 순간부터 그 어떤 엄엄한 기분에 휩싸이며  
《어데서들 오셨수다?》

하고 약간 더듬는 소리로 물었다.

《지나가다가 공장을 좀 구경하려고 들렀습니다.》

손님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손님의 얼굴에 한번 웃음이 어리자 지금까지 엄엄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바람에 응칠이도 굳어졌던 마음이 저절로 스프르 풀리며  
《송장이 다 된 공장에 뭐 구경거리가 있겠수다.》

하고 넌지시 말했다.

《공장이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하고 그 손님은 현장안을 휘돌아보았다.

《말씀 마십시오. 저 로를 보시오. 그 죽일놈의 새끼들이 저렇게 쇠물두 뽑지 않은채 로를 폭파하구 달아나서 열다섯해 동안이나 축로 공노릇을 해먹던 이놈두 일줄이 끊어졌수다.》

응칠은 땅이 꺼지게 후 한숨을 내쉬었다.

심중한 낯색을 짓고 로안을 둘러다보시는 그 손님의 눈에서 번개 같은 불빛이 번쩍하더니

《일제놈들이란 원래 그런 승냥이같은 놈들입니다.》

하고 끼렁끼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들의 인품으로 보아 어쩐지 세상물정도 잘 알고있을것만 같이 믿어져서 응칠은

《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하고 말을 이었다.

《거 요즘 돌아가는 소문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지금 평양에 계신다는데 그게 옳습니까?》

그러자 그 손님은 응철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시며 되물으셨다.

《허허…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하두 궁금해서 그러지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보시는 나라가 서야 우리처럼 가난한 노동자들두 기를 피구 사는 세상이 될터인데. 그러니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살지우다. 일제놈들때두 김일성장군님 얘기가 세살덕이 애들까지두 알구있었수다. 지금 공장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을 어서 한번 뵈고싶어들 하우다… 이거 정말 큰일났수다. 공장사람들이 하나 둘 자꾸 빠지는데 이리다간 그놈들말대로 공장을 영영 못돌리고말겠수다.》

응철은 손님들도 김일성장군님의 소식을 똑똑히 모르는데서 실망을 느끼며 빈입을 찻찻 다시었다.

《공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응철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손님이 심중한 낯빛을 짓고 물었다.

《적지 않지요. 오늘 아침에두 난 병두란 친구를 바래왔습시다. 여기지기 노동판을 굴러다니며 함께 일해온 친구를 보내구나니 내 마음두 좋지 않수다. 축로일에 들어선 그 친구를 당할 사람이 흔치 않수다.》

응철은 서글픈 빛을 짓고 또다시 긴 한숨을 쉬었다.

《살림형편이 어려워니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공장을 버리구 떠나셔야 되겠습니까?》

손님은 응철의 낯색을 살피시며 은근한 목소리로 타이르시듯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겠수다. 할일두 없는데…일만 있다편야 등을 밀어 쫓아두 안갈기우다.》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장 구석구석에 할일이 산같이 쌓여있는것 같습니다.》

손님은 낮으나 위엄있는 목소리로 말씀올 이으셨다.

《이젠 일제놈들이 공장의 주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인입니다.》

《아니 이 공장 주인이 우리 노동자들이란말씀이시요?》

응철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일제놈들이 이 공장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여 짓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은 응당 자기들이 태어난 모든것을 도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받던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행복한 사회를 꾸려야 합니다.》

응철은 귀가 솔깃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선다면야 얼마나 좋겠수다. 원 꿈만 같수다.》

《왜 꿈이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꼭 실것입니다. 그러자면 노동자들이 공장에 틀고앉아 주인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공장의 모든것이 나라의 재산이고 노동자들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지켜야 할 주인들이 공장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인노릇을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님니까?》

《말씀을 듣구보니 참 그렇수다. 우리야 그지 로벅이나 쌀을줄 알았지 그런 힘든 세상속내야 알아야지요.》

응철은 자신이 너무나도 아는것이 없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저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손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응철은 지금까지 어리뻑뻑하던 세상 돌아가는 속내가 들여다보이는것 같았다.

(무슨 일을 보시는분이시기에 그렇듯 세상일에 환하시고 우리 노동자들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높이 불러주실가?...)

문득 응철의 머리속에는 평양에/들어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벌써 어느 공장을 돌아보셨다던 소문이 되살아오며 (혹시 이분께서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실가?)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손님은 다시 아는것이 힘이라시면서 공장의 주인이 되자면 정치도 알구 공장을 돌릴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며 일제놈들은 조선노동자들이 기술을 아는것이 두려워 막로동만 시켰지만 이젠 우리 세상이 됐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배울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나서 차근차근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는 하루빨리 공장을 돌려 철을 뽑아야 합니다. 철이 없이는 나라를 꾸려갈수도 없고 인민들이 잘 살수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장 일제놈들이 파괴한 공장을 복구하고 집을 짓고 철을 짚 기계를 만들자고 해도 철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그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눈에 피발을 세우고 철을 뽑아 대포와 군함을 만들 때 우리나라 량반통치배들은 갖 쓰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태평세월 종타령이나 불렀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먹히울수밖에 더 있습니까?...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철을 생산하여 군대를 무장시키고 침략자들이 덤벼들면 단매에 때려눕혀야 합니다. 그러니 철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공장 주인들도 빨리 철을 뽑아야 합니다.》

조금전에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을 풀 사이도 없이 손님의 말을 듣고있던 응철은 그 어떤 알지 못할 힘이 솟아나며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정작 공장을 돌릴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철을 뽑자면 공장부터 돌려야 할텐데 글썽 무슨 힘으로...》

하고 혼자소리같이 중얼거렸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힘으로 못할 일이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공장도 기계도 집도 대포도 비행기도 군함도 다 노동자들의 힘과 지혜로 만든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힘만 합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되어 우리 힘으로 공장을 돌릴 수도 있고 철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은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니 벌써 가십니까?》

응철은 손님의 이야기를 더 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서운한 낯색을 짓고 따라 일어섰다.

《예, 또 만남시다. 참 성함이나 알고 갑시다.》

《네, 박응철이올시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응철은 작근히 인사를 하였다.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공장에서 쇠물이 쏟아져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손님은 응철의 손을 짚 쥐셨다.

응칠은 손님들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히 트이는것 같았다.

손님의 말을 듣고보니 이 혼란한 때에 자기와 같은 노동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환하게 알려지는듯싶었다. 그럴수록 그의 머리속에는 그 손님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진작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물어보기라도 할걸!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으나 그러다가 무슨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찌나 싫어 망설여졌다. 그는 발길을 돌려 공장 뒤문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안해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데 나갔는지 집이 비어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집에 와서도 좀체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깊어갈수록 그 손님의 말이 머리속에 되살아왔다. 그런데 얼마후였다. 밖에 나갔던 안해가

《여보! 이거 큰 경사가 났수다.》

하며 허겁지겁 달려들어왔다.

《왜 또 수선이요?》

응칠은 홀몸 안해를 쳐다보며 시답지 않게 물었다.

《여보! 글세 당신이 늘 말하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오늘 공장에 다녀가셨대요.》

《아니 뭐?...》

응칠은 필적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게 정...정말이요?》

《아니 정말 아니문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겠소. 지금 그 소문때문에 밖에서 온통 들끓고있다우...이젠 살 때를 만났다구...》

《그때 누가 장군님을 만나 뵈은 사람이 있대요?》

《저 순택아저씨랑 덕만아저씨랑두 만나 뵈엇답니다.》

그 순간 응칠은 저도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내 짐작이 옳았구나! 그분께서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셨구나!)

마음이 다급해난 응칠은 더 안해와 이야기하고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는 부리나케 채판공 덕만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덕만이는 마침 집에 있었다.

《여보게 덕만이, 자네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었다는데 그게 사실



인가?》

응칠은 숨돌릴 사이도 없이 다그쳐 물었다.

《네,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김일성장군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 뵈을 줄은 몰랐습니다.》하고 싱글벙글하며 신바람이 나서 말을 이었다.

《아 글썸 순택형님이랑 재판직장안에서 정 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별안간 밖에서 사람들이 왁자 지드는 소리가 나길 않겠습니까. 그래 나가보았더니 본사무실 앞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모두 두손뎠을 높이 쳐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릅니다.》

우리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구 거기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후리후리한분께서 보위대간부들과 같이 현관계단에 서계신데 사람들의 말이 그분께서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저 눈물부리 펴 돌면서 나도모르게 만세만 자꾸 불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니 공장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눈물만 자꾸 쏟아져서...》

덕만은 목메인 소리를 하며 눈귀를 흘치었다.

응칠은 덕만에게 장군님의 옷차림이며 얼굴모습이 어떠를 짚짚히 물었다.

덕만이가 하는 대답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낮에 만나 뵈은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신것이 틀림없었다.

《히 이것 참 내가 큰 실수를 했군!》

응칠은 가슴이 뭉클해서 혼자소리같이 중얼거렸다.

《왜?...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덕만이가 의아한 눈으로 응칠을 쳐다보았다.

《김일성장군님앞에서 아무 소리나 막 했으니 장군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하셨겠나! 히 참!》

《그럼 아저씨두 만나 뵈었습니다?》

덕만이가 놀라며 물었다.

《간나 뵈우다마다 아마 내가 우리 공장에선 제일 선참으루 장군님을 만나 뵈었을걸세. 히 그런데 그만...》

응칠은 무슨 죄나 지은것 같이 송구스러운 생각을 안고 덕만에게 집을 나섰다. 이때 공장사무실쪽으로 사람들이 하얗게 물러가고있었

다. 웅칠인가 싶어 멈춰섰던 웅칠은 그쪽으로 가려는데 옥수수대가 우거진 용해공 회수네 집마당에서 당치로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스레 났다. 보나마나 회수가 바게뜨를 만들 잡을 마르고있는것이를림없었다. 웅칠은 그쪽으로 가려던 생각을 잠시 미루고 회수네 집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나나다를가 회수는 마당에 합석판을 펴놓고 백묵으로 금을 죽죽 긋고있었다.

《여보게 회수, 자네는 언제까지 그 놀음을 한 작정인가?》

웅칠은 못마땅한 눈길로 회수를 쏘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일도 없어졌는데...》

회수는 웅칠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래 자네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공장에 다녀가신줄 모르나?》

《아니 뭐요?》

회수는 눈이 휘둥그레서 철판을 한쪽에 밀어놓으며 다시 물었다.

《아저씨, 그게 정말이예요?》

《흥! 바게뜨만드는데만 정신을 팔다나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군...》

웅칠은 철판을 깔고앉았다. 회수도 어정정한 얼굴을 하고 웅칠이 곁에 앉았다.

《자네두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네.》

하고 웅칠은 낮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은 이야기를 하였다.

회수는 흥분하여 이것저것 캐어물으면서 눈구석에 눈물까지 글썽해 듣고있었다.

웅칠은 이야기끝에

《자네도 장군님께서 지키라는 공장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겠나?》하고 타이르듯 말했다.

회수는 얼굴이 벌거우리해서 어쩔줄 몰라했다.

《아저씨, 장군님 말씀을 듣고보니 내 정말 잘못했어요. 나도 이제 공장에 나가겠어요.》

《좋네! 우리도 빨리 가세!》

웅칠은 가슴그득히 차오르는것을 누르며 회수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얼마후 웅칠이와 회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있는 공장사무실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그날밤 응철은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대로 공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고 사람들이 주먹을 흔들며 소리치던 모습들이 자꾸 안겨왔다. 그것은 나아갈 길을 몰라 안타까와 주지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받고 달려가려는 노도와 같은 기세였다. 응철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들썩거리면서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일제놈들이 캄부림을 하던 그 캄캄한 세상에서도 노동자들이 등대 같이 믿으며 살아온 김일성장군님, 왜놈들을 패망시키고 끝내 나라를 찾아주신 장군님을 직접 만나 뵈은 감격과 기쁨에 응철은 들먹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언젠가 <호박대가리>사건때문에 병두와 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달반이나 갇히어 물매를 맞고 다달을 받던 일이 떠올랐다.

한번은 성진고주파공장에 갔던 병두가 거기에 있는 동무에게서 <호박대가리>이야기를 듣고왔었다. 이야긴주 김일성장군부대를 <토벌>한다고 라남과 함흥에서 일본놈군대들이 물밀듯 쓸어들어갔는데 되려 김일성장군님의 링환한 전술에 의하여 우리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놈들은 하도 죽은놈들이 많아 송장을 그대로 가져올수 없고 하니 모가지들만 잘라 마대짝에 넣어 비밀리에 우차에다 싣어내 오는데 그 내막을 아는 한 우차군이 짐짓 <이거 뭐요?>하고 물으니 왜놈병정이 <이거나 호박이다>하고 대답했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한창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써시.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면서 왜놈군대를 물살시킨다는 소문이 자자하던 때다 <호박대가리>이야기도 공장노동자들속에서 며칠사이에 파다하니 퍼졌다. 그러자 공장안은 번 집을 쭈서놓은것 같이 웅성웅성해졌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경찰놈들은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따지게 되었고 그래서 병두와 응철이도 잡혀갔다.

경찰놈들은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매질을 들이대었다. 그때 놈들에게 매를 얻어맞으면서도 응철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가!

그때의 생각을 더듬는 그의 귀전에는 낮에 들려주시던 김일성장군님

의 말씀이 쟁쟁히 울려왔다.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들입니다…헐벗고 굶주리던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천이 없인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빨리 공장을 복구하고 천을 생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못할 일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공장에서 쇠물이 쏟아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더 새롭고 깊은 뜻을 가지고 그의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속에는 지난날 일제놈들과 자본가놈들에게서 마소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자기들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철석같이 굳은 믿음이 깃들여있는것이였다. 지난날 어느 누가 이렇듯 그들을 떠받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었던가!

응철이 머리속에는 일제놈 수력발전소공사장에서 언제를 쌓다가 그속에 파묻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일이며 열네살때부터 일제놈 철공소에서 밤먹듯 매를 맞으며 심부름을 하다가 쫓겨나던 일… 제강소에서 의 교역살이… 주린 배를 부둥켜안고 쇠들을 지나르다가 힘이 지쳐 부글부글 끓는 쇠물남비에 떨어져 죽은 친구들의 일… 폐염에 걸렸는데 가루약 한봉지도 못써보고 죽인 큰아들 생각… 가슴을 허벼뜯는 지나간 일들이 꼬리를 물고 되살아왔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이제부터 과거에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와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다른 사람 아닌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틀림없이 그런 나라가 설것이였다.

아니 우리들자신이 장군님의 말씀따라 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해 밤새워 토론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을 받들고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응철은 무엇인가 앞이 환히 내다보이는것 같고 가슴속에 무쇠기둥이라도 들어선것 같이 마음이 든든하고 그 어떤 알지 못할 힘이 우적우적 솟아나는것이였다.

(이제부터 김일성장군님을 받들고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살아야 한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빨리 공장을 복구하고 쇠물을 뽑으라고 하셨으니 오늘저녁 토의한것처럼 로안에 녹아붙은 쇠를 정으로 까내서라도 쇠물을 뽑아야 한다.)

홍분으로 들먹이는 가슴을 문지르며 이렇게 속다짐을 하는 응철은 병두의 생각이 더 잔글히 났다.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장군님을 뵈옵고 사기가 충천한데 병두는 지금 필하고있는가. 데려오자! 병두를 찾아가 도로 데려오자! 장군님께서 공장에 다녀가신 소식을 들으면 그도 얼마나 기뻐하랴!)

이튿날 응철은 기차를 타고 병두를 데리러 떠났다.

해방초기의 한창 혼잡한 때라 점심때가 좀 지나 떠난 혼합열차는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도역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그 무슨 긴급한 사정때문에 일반손님들은 하루 묵었다가 다음날 아침차를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갈길이 아무리 바빠도 할수 없는 노릇이었다.

응철은 차에서 내려 정거장앞으로 나왔다. 정거장안팎은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마당같이 붐비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응철은 어제 병두네와 함께 공장을 떠난 한 제관공을 만나 그들도 련차사정때문에 더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태일 아침차를 기다리고있다는 말을 들었다.

응철은 그 제관공을 따라 병두네 식구들이 쉬고있다는 정거장 앞마당 한구석 느티나무밑으로 달려갔다.

식구들과 같이 느티나무그늘에 무슨 시름에 싸여 멍하니 앉아있던 병두는 다가오는 응철을 발견하자

《아니 응철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란 소리를 하며 달려나와 응철의 손을 마주잡았다.

《자네를 데리러 왔네!》하는 응철의 말에

《아니 뭐라구? 날 데리러?》하고 병두는 저으기 놀라는 것이었다.

《응...그럴 일이 있네, 참 여기서 만나기 다행일세.》

《무슨 일인데?》

《저기 앉아 천천히 얘길 하세.》

그 사이에 병두의 안해가 제일 귀여워하던 작은놈은 반갑다고 응철의 다리에 매달려 종알거렸다.

응철은 저도모르게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들이 나무밑에 가 자리를 잡고 앉자 병두가 속이 달아물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응?》

응철은 흥분이 자꾸 앞서 두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달래며 킬킬히

입을 열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다녀가셨네.》

《뭘? 김일성장군님께서?...》

병두는 대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님! 그게 정말이요?》

길에 앉았던 제관공도 무릎걸음으로 다가오며 다그쳐 물었다.

《왜 믿어지질 않나? 그럴테지...누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실줄 알았겠나? 하지만 이진 참말일세.》

《그대 자네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었나?...》

병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듯이 물었다.

《만나뵈다마다. 함께 얘기까지 하구, 김일성장군님과 악수까지 했네.》

《아니, 자네가 김일성장군님과 악수를 했단말인가?》

병두는 더욱더 놀라며 물었다.

《자네가 정말 믿지를 못하는군.》

응칠은 신바람이 나서 어제 있던 일을 죽 이야기하였다.

병두와 제관공은 무슨 옛말이나 듣듯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어느덧 그들의 눈에는 물기가 돌았다.

병두의 안해도 연신 웃고름으로 눈굽에 피여오르는 눈물을 짚어 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라구 말씀하시면서 당장 생활이 어렵다구 공장을 버리구 가는것은 주인노릇을 안하겠다 는것과 같다구 말씀하시네...》

여보게 병두, 자네나 나나 지난날 어디 사람대접을 받아왔나, 그 늑들에게 마소처럼 업심을 받으며 정말 짐승같이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소중히 알아주시구 떠받들어주시네...그레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더러 나라를 위해서 공장을 빨리 복구하고 쇠물을 뽑으라는데 이대로 가야 옳겠나? 응? 병두?》

이야기를 듣고있던 병두가 별안간 으흐후...하고 느끼더니 머리를 숙이며 널찍한 어깨를 들먹이었다. 병두의 안해도 치마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돌아앉았다.

응철이도 눈굽이 젖어들었다.

《여보게 응철이!》

병두가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는 울음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공장으로 돌아가세요, 김일성장군님이 어떤분이신가요! 장군님께 시부르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나?...당장 돌아가 장군님의 말씀대로 공장을 돌려 쇠물을 뽑으세요.》

《으윽! 형님, 나두 가겠어요.》

체관공도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정거장 안팎을 찾아다니며 공장에서 떠나온 다른 사람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그들도 저마다 공장에 되돌아가겠다고 나섰다.

응철이가 가져온 소식은 불이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갔다.

응철이에게 연신 사람들이 물어보려왔다. 응철은 미처 대답하기가 바쁠 지경이었다. 정거장 안팎은 흥분한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오랜 장마 끝에 햇빛을 만난 것처럼 사람들은 얼굴에 싱글벙글 밝은 웃음을 담고 장군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공장을 향해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응철이와 병두네 일행은 애오라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나라를 세우고 일하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때로부터 해방된 조선의 철의 력사는 시작되었다. 손에 정대를 잡고 로에 녹아붙은 쇠물을 한조막한조막 까내고 숨죽였던 로에 불을 지피며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칩쇠물을 뽑던 그 력사적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애로와 난관이 밀림처럼 앞을 막아섰던 것인가!

그것은 주권을 틀어쥐고 로동계급이 나라의 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처음 겪는 무서운 전투였다.

응철이와 병두는 로에 불을 지피는 그날까지 집으로 들어가본 일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정으로 로안의 쇠물 까내다가도 언제면 이걸 다 까내나하는 막막한 생각에 손뎌이 탁 풀리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응철의 머리속에는 로동계급이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되살아

났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새힘과 용기가 솟아오르고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시는 철을 기어코 뿔고야말겠다는 결심이 철석같이 굳어지는 것이었다.

로동자들은 어려운 고비에 부딪칠 때마다 장군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한테 모여 의논을 해가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 그 고비를 넘어뛰군하였다.

장군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그들로 하여금 난관을 뛰어넘어 위훈에로 출달음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하여 전루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와 세상형편도 달라졌다. 당이 창건되고 인민정권이 서고 민주개혁들이 실시되고 모든것은 인젠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장군님께서 명도하시는 당과 인민정권의 혜택으로 로동자, 농민들의 살림살이도 피어났다.

그러한 어느날이었다. 응철이와 병두가 로에 달라붙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있는데 평양에 갔던 공장의 한 간부가 찾아와서

《응철동무, 김일성장군님께서 동무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그리구 동무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구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장군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시구계십니까?...》

응철은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이름뿐이 아니라 동무가 한 말까지 다 기억하시구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동무가 장군님을 뵈은 뒤 병두동무를 데려온 이야기랑 로를 복구하느라고 수고하는 이야기랑 말씀을했더니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응철동무야말로 진짜 로동계급이라고 치하를 하십니다.》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했다구 그런 말씀을 올렸소?》

응철은 분에 넘치는 장군님의 치하에 얼굴이 뜨거워나서 그에게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였다.

《허, 난 사실대루 말씀드렸을뿐이요. 장군님께서도 동무들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니 인도 중요하지만 몸들도 잘 돌봐야 하겠소.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소?》

응철이와 병두는 가슴이 뭉클해서 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을뿐이었다.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마음은 장군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쇠물을 뿌어야 한다는 그 한푼으로만 달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날은 왔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고 침략자를 단매에 때리눌릴 노동계급의 철이 탄생하는 역사적순간이었다.

은 나라가, 은 세계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있었다. 그중에는 공포와 불안에 질린 얼굴로 이 순간을 지켜보는 원수들과 심술궂은자들도 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천천히 붉은 태프를 드리운 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장군님곁에는 응철이와 병두가 서있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응철이가 드린 큰 가위로 태프를 끊으시었다. 그 순간 출장구에서는 적황색 쇠물이 무수한 불꽃을 날리며 폭포처럼 쏟아져나왔다. 그러자 환성이 터져오르고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장군님께서 만면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고

《어디 숨죽였던 진로에 생명을 불어넣은 영웅들의 손이나 한번 쥐여봅시다.》

하시며 응철이와 병두의 손을 꼭잡아주시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쇠가 녹아붙은 로를 정으로 꺼내어 쇠물을 붉은 철사는 오직 우리 노동계급만이 창조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치하에 응철이도, 병두도 불을 타고 훌리내리는 불같이 뜨거운것을 미처 주체하지 못했다.

《이 기쁜 날에 왜들 눈물을 흘리십니까?》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우린 너무 기뻐서...》

응철은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나두 기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동무들의 보배손을 기다리고있는 용광로와 평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은 경험

을 살려서 전투를 계속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한번 응철이와 병두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장군님, 무슨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우린 다 할수 있습니다.》

응철은 힘찬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몇달뒤 응철이와 병두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제철소로 옮겨와서 1호용광로복구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용광로복구는 더 어려운 전투였다. 애로와 난관이 중중첩첩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이제 쏟아질 용광로의 쇠물폭포를 눈앞에 그리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치나갔다.

응철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 만나뵈었을 때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철에 대한 이야기속에 담겨진 해아릴수 없이 크고 깊은 뜻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눈보라가 사납게 불어치는 어느날 밤이였다. 이날밤에도 로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그런데 자정이 훨씬 지나 응철이가 젊은 동무들을 데리고 르벽을 쌓을 벽돌을 나르고있는데 공사지도부장이 달려나오더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진화를 걸어오셨다고 전하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응철은 정신없이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장군님, 박응철이 진화를 받습니다.》

응철은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귀에 익은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응철동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한번 내려가 봐야겠는데 못내려왔습니다. 공장일군들한테서 그곳 형편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이 잘 진척됩니까? 무슨 제기할 문제는 없습니까?》

《장군님, 전번에 제기한 문제는 장군님께서 풀어주셔서 다 해결했습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일은 계획대로 돼갑니다.》

《동무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앓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찬네 특히 몸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응철은 목메인 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응철동무.》하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어서였다.

《지금 온 나라가 동무들이 복구하는 로에서 칠포물이 쏟아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무들이 결의한 날자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응철은 신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좋습니다. 꼭 끝내십시오. 응철동무, 동무들의 복구사업은 경제적인의의도 크지만 정치적인의의도 대단히 큼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제때에 제기하십시오. 그럼 동무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십시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시었다.

땡—땡—

사무실벽에 걸린 벽시계가 새벽 2시를 켜다.

응철의 눈앞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한밤중에도 잠을 잊으시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 지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까지 마음을 쓰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우렘히 떠올랐다.

그는 코마루가 쟁해났다.

그의 가슴속에는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친들 무엇이 아까우랴 하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는 것이었다.

드디어 노동자들은 1호용광로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칠포물을 뽑았다.

조업식이 끝난 뒤 장군님께서 응철이와 병두를 지배인실로 부르시었다.

장군님께서 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시며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몹시 지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요! 동무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동무들의 얼굴은 <솔직히 말하면 내 몸은 아주 피로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건강해야 나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휴양소든가 정양

소든가 경치 좋은 바다가에 가서 몸이 추설 때까지 목 쉬고 오십시오. 그래야 나도 마음을 놓겠습니다.》

응칠이와 병두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목이 짝 막혔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

일편단심 수령님의 부르심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로동계급의 충성으로 하여 여기저기서 숨죽였던 용광로며 평로며 압연직장들이 앞을 다투어 되살아났고 우리의 철의 력사는 썩어져갔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철에 대한 력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해방된 우리 인민이 자신의 힘으로 부강한 조국을 창건하는 장엄한 투쟁의 력사였으며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이 강철같이 단련되고 성장한 력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것들이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것이다.

... ..

응칠은 남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전쟁의 피곤을 몰고있을 이 이른 새벽에 발걸음조차 마음대로 옮길수 없는 제철소에 몸소 찾아오시여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일일이 돌아보시며 지나간 그 시절을 회상하시는 수령님의 심중이 헤아려졌을 때 저도모르게 가슴이 에이는 듯 저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 응칠은 수령님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솟는것을 느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이나 갓은 간난신고를 겪으시면서 발톱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한 일제놈들을 때려눕히고 칠성판에 오른 나라와 인민을 구하신 분이시다.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그렇듯 다난한 정세속에서도 인민정권을 세워 로동자에게는 공장을 주고 농민에게는 땅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주고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기업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이 땅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락원으로 꽃피우신 분이시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이 무모하게도 이 땅을 삼켜 보려고 덤벼들었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세계의 먼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보기 좋게 때려눕히시지 않았던가.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은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세계의 사람들이 《영웅의 나라》, 《영웅적인민》이라고 소리높이 부르게 된것이 아닌가.

그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사흘밖에 안되는 이 아침에 여기 원수들에 의하여 제더미가 된 재전소에 다시 찾아오신것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한없이 크고 깊고 넓은 그 모든것을 응찰은 다 헤아려 짐작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에 위대하신 수령님의 령도로 하여 또 한번 세계를 놀래우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우리 인민의 새로운 창조적 력사가 시작되리라는 예감에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이였다. ...

수령님께서 허물어진 식당자리걸을 지나 평로격장 들문어구에 들어서시였다.

평평그런한 험장안에서는 비릿한 쇠냄새가 풍겨왔다.

수령님께서 오대동안 파피된 평로들을 유심히 살피시더니 응찰을 돌아보시고

《응찰동무 평로들이 동무들의 일손을 기다리고있소.》

하시며 뜻깊은 미소를 지으셨다.

《저희들두 하루빨리 쇠물을 뽑을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어떻게 손을 댄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응찰은 안타까운 낯색을 짓고 말씀을 운뒀다.

《동무들의 마음은 알수 있소. 그러나 동무들은 벌써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응찰은 수령님의 뜻밖의 말씀에 어리둥절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동무는 그 일을 하고있었소.》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령님께서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셨다.

《?...》

응찰은 점점 더 어리둥절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구?...)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담으신채 말씀을 이으시었다.

《응칠동무! 동무가 메고있는 배낭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제철소북구는 바로 동무가 하고있는것처럼 나사못을 주어모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하오.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귀중한 사상과 정신이 들어있소? 그속에는 빨리 제철소를 복구하여 쇠물을 뽑아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로동자들의 불같은 애국심과 원쑤들에 대한 증오가 들어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잠깐 사이를 두시고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일제놈들이 망할 때 쇠물도 뽑지 않고 로를 파괴하고 달아나면서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복구할수 없다고 떠벌였소. 그러나 우리 로동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으로, 일제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으로 쇠를 쪼아내여 불과 일년남짓한 사이에 쇠물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미국놈들이 또 같은 소리를 떠벌이고있소. 그런데 벌써 동무들은 전쟁에서 그랬던것처럼 또한번 미국놈들의 코대를 꺾을 차비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미국놈들이 이것을 안다면 벌벌 떨거요.》

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응칠은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도 큰 의의를 가지고있음을 깨달았다.

평로직장을 돌아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잡초가 우거진 제철소구내에 있는 나지막한 산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을 헤치고 걸으시는 수령님의 뒤를 따르는 응칠은 송구스러운 생각에 몸들바를 몰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인민들의 앞장에 서시여 누구도 걸은 일이 없는 새벽길을 얼마나 많이 걸어오셨던가?

응칠은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언덕길을 걸으시면서 평로부터 먼저 복구할데 대하여, 단번에 다 복구하자고 하지 말고 역량, 자재, 설비들을 잘 타산하여 로동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순위별로 복구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응칠은 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가슴속깊이 새겨넣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앞으로 할 일들이 하나하나 그림처럼 선명히

올랐다. 그는 온몸에 새힘과 용기가 솟아나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능히 재천소를 복구할수 있다는 신심이 솟아나는것이였다.

이윽고 언덕마루에 올라섰다. 거기로부터는 어느사이에 안개가 뿜뿜히 걷힌 재천소의 넓은 구내가 손금처럼 한눈에 안겨왔다.

동녘하늘에는 방금 아침태가 솟아오르는듯 붉은 노을이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었다.

원수들의 폭격을 맞아 중등이 부러지고 불에 시커멓게 그을은 아카시아나무에서 새로 움이 트고 가지를 친 나무잎들이 바람에 설렁거리고있었다. 나무가지들에서는 못새들이 은방울소리같은 고운 목청을 울구어 지저귀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정다운 시선으로 나무를 돌아보시였다.

응철의 머리속에는 언젠가 재천소에 오신 수령님께서 구내에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공장은 드물다고 하시면서 나무를 잘 가꾸라고 하시던 일이 되살아왔다.

나무를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응철동무, 저 나무들을 좀 보시오.》하고 말씀울 이으시였다.

《저 나무들도 폭격에 맞아 꺾이고 부러지고 불에 탔소.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벌써 저렇게 많은 가지를 쫓소.

그것은 미국놈폭탄이 땅속에 깊숙이 내린 나무뿌리를 건드릴수 없었기때문이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응철동무!》

《그렇습니다.!》

《미국놈들은 우리를 굴복시키자고 갖은 발판을 다했지만 우리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했소! 그 뿌리는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고귀한 피로써 가꾸어진 뿌리요! 이번 전쟁에서도 병두동무처럼 당에 충실한 수많은 영웅들이 목숨을 바쳐 그 뿌리를 지켰소! 뿌리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이 트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기 마련이요!

우리 혁명의 뿌리를 건드릴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소!》

수령님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씀울 이으시였다.

《응철동무! 우리에게는 지금 어느때보다도 철이 요구되오. 우리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자고 하오. 이래야 빨리 전쟁상처를 회복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꾸려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소. 이때야 인민들의 생활도 급속히 높일 수 있고 미국놈들이 또다시 덤벼들면 때려눕힐 국방력도 강화할 수 있소.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소.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자신있게 갈 수 있소. 우리는 미국놈들을 때려눕힌 조선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영웅적인 로동계급이 있고 중공업의 기초도 있소.

당은 어려운 전쟁속에서도 오늘을 내다보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계공장도 건설해놓았고 기술자들도 양성했소. 우리가 이 모든것을 옳게 리용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소.

우리는 미국놈들이 파괴한 평로자리에는 더 큰 평모를 새우고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벽돌집을 지어서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패를 보여주어야 하오. 응칠동무, 자신이 있소?》

《자신이 있습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계신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응칠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드렸다.

《아니요, 응칠동무!》

하고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힘은 동무들에게 있소.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동무들을 생각하오. 내 눈앞에는 벌써 동무들이 건설해놓은 웅장한 제철소가 보이오.》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위엄과 확신에 찬 눈길로 툭툭히 제철소구 내를 둘러보시었다.

응칠의 눈에도 원썩들이 파괴한 제더미를 헤치고 미구에 이 땅위에 솟아날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대야금기지의 전경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었다.

하늘에 검은 연기를 뿜어올리며 즐비하게 늘어선 크고 작은 용광로들!

쇠물이 이글이글 끓어번지는 평모들! 직황색 불꽃을 꽃보라처럼 날리며 쏟아져흐르는 쇠물폭포!

강안에 자리잡은 웅장한 해탄로들!

현대적설비를 갖춘 대압연직장들!



구내에 거미줄처럼 얽힌 철길들, 그 철길로 식물남티와 강피와 강판을 산더미같이 싣고 분주히 드나드는 운반차들!...

해빛에 유리창을 번쩍이며 솟은 고층아파트들과 바람에 설렁거리는 푸른 가로수로 뒤덮인 철의 도시!

그곳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그 모든것을 지켜 철벽의 방선에 늘어선 대포와 땅고들...

응철은 솟구쳐오르는 새로운 흥분과 감격을 누릴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위대하고 영명하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긍지와 행복, 그리고 수령님의 전사된 영예감이 밀물처럼 그들먹이 차올랐다.

(수령님!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응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맹세를 다지였다.

이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로 하여 시작된 우리의 철의 역사는 또 다시 그이로 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무수한 기적들을 수놓으며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 △ 어휘 및 표현

- 아닌 밤중에 횡두께 내밀듯 예상하지 않았던 말을 불쑥 꺼냄을 이르는 말.
- 쓸개(가)빠지다. 《하는 것이 속생각이 없고 리치에 맞지 않거나 적당하지 못함》을 욕으로 이르는 말.
- 파다하다. (소문이) 널리 퍼져 짜하다.
- 기를 펴다. 억눌리는 느낌을 받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가지거나 어귀운 지경에서 벗어나 마음을 놓다.
- 각근히 충심으로 정의있게
- 심금 아직까지
- 아니나다를까 생각했던 바와 같이 과연.
- 분에 넘치다. (평가, 배려 등이) 《자기가 했거나 치레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다》를 이르는 말.
- 못박힌듯. 《한자리에 굳어질 버티듯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
- 생트집. 까닭없이 공연히 부리는 트집
- 노도. 노한 파도
- 손뻐(이)풀리다. 실패하거나 실망하여 사기나 의욕이 떨어져고 기운이 빠지다.
- 리레짐작 사실이 이루어지기전에 미리 하는 짐작.
- 시탐지 않다. 마음에 맞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 칠성판에 오르다. (이런 대상의) 죽음이나 멸망이 시간문제로 되다.
- 손금처럼 어떤사실이나 내용을 상세하고 환하게.

# 사랑의 품

## 1

밤새 내리던 눈은 새벽에 멎었다. 2월치고는 보기드문 많은 눈이다. 해살이 퍼져오르자 시가지며 벌판이며 길 그리고 멀리 산이며 숲이며...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흰빛을 뿌리기 시작한다.

곧추 떨어나간 길옆에 정연히 늘어선 가로수가 승용차의 창옆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듯 춤추며 지나간다.

수령님께서는 달리는 자동차의 창밖으로 펼쳐지는 눈에 덮인 무연한 벌판이며 새로 준비하게 일어난 문화주택마을들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밖에 사람의 그림자는 많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마을마다, 집집마다에서 맥박치고있는 약동하는 새날의 숨결을 느끼고계시었다.

완충기과업의 수행-이로써 제1차5개년 계획은 지표별로 완수되였다.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떠벌이던 미국놈들의 판상을 보기 좋게 후러치며 조국은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털고 일어나 창공높이 나라를 펼치였다.

천리마-건설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조국땅우에 천리마가 나라를 펴고 달리고있다.

지금 조국은 바야흐로 7개년 계획이라는 웅대한 전망을 안고 보다 높은 봉우리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있는것이다.

하나 이 위대한 전진운동은 매일 매시각 복잡하고 어려운 무수한 문제들을 제기하고있으며 그것들은 실로 거창한 량의 사업과 정력한 창조력을 요구하고있는것이였다.

(옳게 조직만 한다면 인민들은 반드시 해내고야말것이다.)

그이께서는 자각한 인민들의 힘의 무궁무진함을 확신하고계시었다

다. 이것은 근 40년간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해서 굳어진 신념이 있었다.

차가 나지막한 언덕길을 넘어서자 눈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멀리 차앞에 나타났다. 수령님께서서는 잠기셨던 생각에서 깨어나 시며

《정적을 울리지 마오!》

하고 운전수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몇걸음 차앞으로 걸어나오시더니 멈춰서신채 뛰노는 아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겨울방학을 갖 끝낸 아이들의 상학길은 즐거웠다. 게다가 수북이 내린 눈이 그들의 흥을 한층 돋구어주었다. 그들은 학교에 가다 말고 눈싸움을 벌려놓았다. 줄지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던 아이들속에서 장난꾸러기 한 아이가 발로 나무를 힘껏 걸어찬것이다. 머리로 쏘아져내리는 눈가루를 피해와 한흠어진 아이들은 처음에는 패로 갈리어 멀쩡이 서서 눈덩이를 던지기만 하더니 점점 접근하여 나중에는 서로 맞붙어 엎치락뒤치락 덩굴며 돌아쳤다. 흰 웅단을 깔아놓은듯하던 길은 삼시에 탄장판이 되었다. 아이들은 눈싸움에 정신이 팔려 승용차가 다가와 맞는것도 알지 못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쓰고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한 아이에게 눈길을 멈추시었다. 키가 작고 몸도 약해보이는 아이였다. 토끼털의루를 입은 그 아이는 큰 아이들과 어울려 돌아가다가 힘이 모자라서 자주 깔리고 눈을 뒤집어쓰곤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악하고 겁질기게 달라붙어 기어코 큰 아이의 목덜미에 눈덩이를 집어넣고야 말았다.

이렇게 돌아치던 아이들은 이윽고 기척을 알아차리자 옷에 묻은 눈을 툭툭 털기도 하고 흘러내린 바지를 추겨울리기도 하며 슬금슬금 길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는 모두다 이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놀랐던 아이들의 얼굴에 이어 걸잡을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김일성원수님—!》

아이들은 자기들의 모양이 어떤 꼴인지 미처 돌아볼 사이도 없이 저마다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들은 서너발 자국앞에까지 달려가 일제

히 벗어나서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기운차게 소년 단경태를 울렸다. 눈으로 매닥질한 옷들이며 얼굴, 빼뜰어진 모자, 흘러내린 바지...그들의 모양은 가판이었다.

《오—너희들도 잘 있었냐?》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자애로운 웃음을 담으시고 아이들을 향해 손을 드시었다. 그리자 아이들은 외락 그이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리고는 지마다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심갱이질하며 수령님의 외투자락을 잡고 돌아간다.

《공부를 잘했느냐? 방학동안에 잘들 지내구?》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어깨며 등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며 말씀하셨다.

《네!》

아이들은 너무도 뜻밖에 수령님을 뵈게 되어 좋아서 어쩔줄 몰라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의 벗겨진 단추도 채워주시고 빼뜰어진 모자도 바로잡아주시었다.

《장난이 심하구나!...》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면서 한 아이의 외투며 바지가팽이에 묻은 눈을 털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들의 오동통한 불이며 옷차림이며 신발이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다가 아까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 눈길을 멈추시었다.

《네 이름이 뭐냐?》

《림명호입니다!》

《림명호... 몇학년 이냐?》

《인민반 3학년 2반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명호의 야무진 대답을 들으시면서 아이의 손목을 잡아보시었다.

《너 어디 아프냐?》

그이의 부드러운 어조에는 근심이 어리시어있었다. 아이의 손목이 가늘었던 것이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병 앓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 본래 몸이 약합니다!》

소년의 엉뚱한 소리에 수령님께서서는

《본래 약하다?!...》

하고 웃으시더니

《이녀석, 본래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시며 명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시었다. 명호는 얼굴에 홍조를 띠우며 벌죽 웃었다. 그 얼굴이 여간 귀엽지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명호의 털모자며 외투며 소매끝으로 내민 내의며 장갑, 신발 등을 세심히 살피신다. 어느것이나 부모의 빈틈없는 손길을 엿볼수 있는 탐탁한 차림새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인가를 예감하시면서 명호에게 물으시었다.

《넌 몇살이나?》

《열두살입니다.》

명호의 대답은 어느덧 응석투로 변해버렸다.

《열두살이라...》

열두살이면 1950년생이었다. 바로 수령님께서 예감하신대로였다.

이해물 과연 조선사람치고 누가 잊을수 있겠는가.

미제침략자들의 강요에 의해 일어난 전쟁의 불길은 모든 평화롭고 정상적인 생활을 중단시켰다. 이 불길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덩어리로 뭉쳐 원썩을 맞받아 불사신처럼 싸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오만한 미국놈들을 세계의 먼진에서 보기 좋게 쓸어넘히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이 땅우에 오늘을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 이 영광, 이 행복은 결코 수월히 얻어진것은 아니었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난관들을 물리쳐야만 하였었다. 하나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바친 인민들은 제기되는 난관과 온갖 불편들을 혼연히 극복하였던것이다.

(젓이나 배불리 먹으며 자랐겠는지...)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강보에 싸여있었을 명호를 두고 아니 수많은 그 또래의 아이들을 두고 생각이 깊어지시는 수령님이시었다.

(그 불길속에서 어린것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이 몇초 안되는 짧은 순간에 수령님의 뇌리에 비쳤던 그 많고 깊은 생각을 그리고 수령님의 안색이 왜 그토록 흐리셨는지를 친진한 아이들은 알 까닭이 없었다.

《그래 아버지는 필하시느냐?》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명호에게 물으시었다.

《우리 아버진 기계공장의 작업반장입니다!》

명호는 곳곳한 상반신을 멋없이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이름이 뭐냐?》

《림철준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명호의 대답을 들으시며 둘러선 아이들을 세삼스럽게 둘러보시었다. 모두 불그스레하고 혈색 좋은 얼굴들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안색을 고치시며

《너희들은 몇살이냐?》고 물으시었다.

《저희들은 모두 열두살입니다!》

일제히 기운차게 대답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안될 말이지!)

미국놈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였지만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있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자라나는 후대들을 보실 때면 언제나 힘이 솟고 즐거워지셨다.

《그래 너희들은 이다음에 뭐가 되려느냐?》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띠우시며 물으시었다.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 제각기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기술자, 비행사, 의사, 축구선수, 선장...아직 이 세상에 어떠한 직종들이 있는지 너무나 아는것이 적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나름으로 소리높이 말한다. 그것은 어린 가슴속에서 싹터오른 그들의 포부이며 희망이였다.

《웁다! 모두들 용타!》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눈동자들을 유쾌히 바라보시

며 말씀하시었다.

《다들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돼야 한다. 명호! 넌 뭐가 되겠느냐?》

《원수님! 전 이담에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놈들을 몽땅 때려잡겠습니다. 미국놈을 때려 없애야 우리 나라가 통일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는 가슴을 내밀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그렇구말구, 네 말이 옳다! 꼭 인민군대가 돼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명호의 어깨를 대견스럽게 어루만져주시고는 친절히 자동차끼로 다가가시었다.

(아이가 툭툭하군...몸이 튼튼해야겠는네...)

자동차문의 손잡이를 잡으신 수령님께서는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시며

《너희들 오늘 공부가 몇시에 끝나느냐?》고 물으시었다.

《한시에 끝납니다!》

아이들의 힘찬 대답을 들으시자 수령님께서는

《그럼 학교에들 가기라. 공부를 잘해야 잔다!》

하시고 차에 오르시었다.

《원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일제히 소년단정례를 올린 아이들은 멀어져가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차가 길을 돌아 보이지 않게 되자 아이들은 눈우에 적힌 두줄기 바퀴자리를 감격어린 눈으로 오래오래 바라보며 서있었다.

## 2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의 일숨씨를 오래동안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들과 담화도 하시면서 각 직장을 돌아보시었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직장과 작업반마다에서 노동자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기계직장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는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허리에 두손을 짚으신채 직장안을 둘러보시었다.

높은 채광창으로 비쳐드는 해산을 받아 기계들은 눈부시게 반짝



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4차당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붉은 바람에 흰 글씨로 힘있게 쓴 구호가 높이 천장을 가로질러 걸려있다. 그 아래에 선반기며 세빠, 후타이스, 호뽕그, 부레나 등 각종 공작기계들이 주련이 늘어선 것이 장관이다.

로동자들은 아침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령님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으로 더욱 일손을 다그치고 있다.

그들의 작업모습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시며 수령님께서는 한 기대앞에 멈춰서시었다. 그러자 지배인이 말씀드리었다.

《여기가 저희공장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은 작업반입니다.》

《그렇소? 천리마! 참 좋소!》

수령님께서는 기대우에 걸려있는 천리마작업반기발을 만족한 웃음을 띠우시고 바라보시더니

《동무들은 선구자들이요. 모든 작업반이 다 천리마를 타야 하오. 이미 탄데서는 2중천리마를 타고...이 동무들도 2중천리마에 걸기했겠지?》

하고 말씀하시었다.

《네! 걸기했습니다!》

《좋소. 꼭 쟁취하도록 하시오! 우리 나라 전체가 다 천리마를 타야 하오! 그때야 우리 나라가 새로운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소. 우리는 7개년 전망계획을 세우고있소. 7개년 계획...방대한 과업이요. 이 과업을 수행만 한다면 우리 나라는 부강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될것이요. 조국통일도 앞당기게 될것이고...한데 이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려면 온 나라가 모두 천리마를 타야 하오. 천리마운동—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도신이요. ...앞으로 당 대회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려고하오. ...우리는 낡은 사회로부터 탈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은데다가 큰 전쟁을 했지...또 남북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하고있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소.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긴장한 투쟁을 하지 않을수 없소.

지난날의 탈후한 처지에서 탈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조국통

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남이 한걸음 나갈 때 열걸음, 백걸음 빨리 전진해야 하오. 우리 혁명발전이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소. …》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과 지배인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노동자들은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생각하며 가슴을 들먹이며 듣고있었다. 이윽고 지배인이

《이 동무들은 당대회전으로 년간계획을 끝내자고 쫓기했습니다.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으켜 어제 1.4분기계획을 끝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었다.

《그럼소? 대단하오! 2월초에 분기계획을 끝냈다?! 훌륭하오! 그 기세로 계속 나가야 하오! 우리는 부단히 기술혁신을 해야 하오! 7개년계획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혁명의 계획이라고도 말할수 있소!… 우리가 힘을 잡치 열심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한다면 점령못할 요새란 없소. …》

수령님께서는 작업반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치하해주시고 고무해주시었다. 그리시고는

《여기 작업반장이 어느 동무요?》

하고 물으시었다.

《네, 집니다.》

한 기대옆에 서있던 어깨가 짙 벌어지고 다부지게 생긴 삼십 남짓한 청년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동무요? 일을 아주 잘했소. 훌륭 하오!》

그이께서는 작업반장의 기쁨받은 손을 잡으시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시었다. 작업반장의 얼굴이 벌겍게 상기되면서 어깨가 크게 오르내렸다.

《…그래 앓는 동무들은 없소?》

수령님께서는 작업반장에게 물으시었다.

《네, 없습니다. 전원 출근입니다!》

작업반장이 말씀드리었다.

《좋소! 노동자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오. 노동자들은 나라를 떠매고 나가는 기둥들이요!》

수령님께서서는 직장장과 지배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더니

《반장동무 이름이 뭐요?》

하고 물으시었다.

《네, 립철준입니다!》

(립철준?...)

대답을 들으시자 수령님께서서는 아침에 만났던 명호의 얼굴을 상기하시었다.

(명호의 아버지로군...)

수령님께서서는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피보시었다.

(인도 잘하고...아이도 푹푹하게 키우고...출뎀한 동무로군!)

이렇게 생각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몇살이요?》

하고 물으시었다. 명호의 아버지치고는 너무도 젊어보였다.

《서른두살입니다!》

《서른두살?!...》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언제부터 이 공장에 있었소?》

하고 물으시었다.

《1955년부터입니다!》

《55년에...음...》

수령님께서서는 립철준의 얼굴을 주의깊게 바라보시었다.

《그전에 필했소?》

작업반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에 몸이 뒹뒹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말씀드렸다.

《군대에 복무했습니다!》

《언제부터 복무했소?》

《1950년 7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럼 전투에도 참가했겠구만...어느 전투에 참가했소?》

철준은 고개를 잠시 숙이고있다가

《락동장에서요 싸웠고 1211고지에서도 싸웠습니다.》

하고 나직이 말씀드리었다.

《대단하오! 전투를 많이 했구만! 전투에서 단련된 이런 동무들이  
일도 잘한단말이야. ...그렇지?》

수령님께서는 지배인을 돌아보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바이트를 창안한것도 이 동무의 대담한  
받기로 된것입니다.》

지배인이 수령님께 말씀드리었다.

《그렇겠지...》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었다.

《동무, 부상당한대는 없소?》

수령님께서는 다시 철준을 바라보시며 물으시었다.

철준은 내수롭지 않은 자기의 부상으로, 그것도 이제는 다 아문  
것을 가지고 수령님께 걱정을 끼칠가봐

《부상당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종소! 잘 싸웠소. -하시교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결혼은  
언제 했소?》하고 물으시었다.

《네, 5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철준은 가정의 사사로운 일을 말씀드리게 되는 송구스러움에 얼  
굴이 붉어졌다.

(1955년에?)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그러나 립철준자신은 물론  
수원들도, 공장일군들도 이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만치 누구와 담화하실 때나 물어보시는 자연스러운 말씀이었던  
것이다.

《아이들도 있겠구만?》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웃음을 담으시고 물으시었다.

《네, 셋입니다.》

철준의 대답을 들으시며 수령님께서는 높이 채광창쪽을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무엇인가 더 물으시려  
하시다가 주위를 돌아보시었다. 가까이에 수원들이며 공장일군 등 여  
러 사람들이 있었다.

《종소! 일들을 잘하시오! 꼭 2중천리마를 생취하시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

공장을 돌아보신후 수령님께서는 공장지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와 그 정세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기하시면서 5개년 계획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대해서며, 왜 제2차5개년 계획을 하지 않고 7개년 계획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당의 구상에 대하여, 이로부터 출발해서 이 공장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협의회를 마치시고 밖으로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부관을 찾으시었다.

《부관동무, 여기 봉화중학교에 립명호란 학생이 있소. 인민반 3학년 2반이라고 했소. 아침의 그 아이말이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종합진찰을 받도록 하오. 한시에 공부가 끝난다고 했으니 지금쯤 떠나면 되겠소. 아까 차를 세웠던 거기서 좀 더 가민 학교가 있소.》

말씀하시는 그의 안색에는 심중한 빛이 어리어있었다.

《알았습니다!》

부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돌아서시던 수령님께서는

《잘 진찰하도록 병원동무들에게 부탁하오.》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하시고는 예정하신대로 농촌을 지도하시러 떠나가시었다.

### 3

수령님께서는 숙소로 돌아오시자 곧 부관을 찾으시었다. 부관이 병원 원장과 함께 들어와 명호의 진찰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타난 소견은 없단말이지요?...》

수령님께서는 원장을 바라보시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었다.

《그럼 허약한 원인이 어디 있는것 같습니까?》

수령님께서는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었다.

《아마 갓 낳았을 때 영양상태가 매우 나빴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육에 장애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원장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이때 수령님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아침에 《진 본래 몸이 약합니다!》하고 벌죽 웃던 명호의 얼굴이 생각나셨던것이다.

《수령님! 넘려마십시오. 저희들이 그 아이의 몸을 꼭 추세우겠습니다!》

원장은 죄송스러운듯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귀중한 후대들입니다. 그 아이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미국놈들은 우리의 아이들까지도 조리 죽이자고 했지만 전쟁속에서도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고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철리마를 타고 일하는것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 부강한 조국을 물려주자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원장의 손을 잡으시며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원장이 돌아가자 수령님께서는 벽에 걸린 그림앞으로 다가가시어 삼지연의 맑은 호수를 바라보시며 오래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그림앞에 서계시었으나 수령님께서는 명호와 철준의 얼굴을 번갈아 눈앞에 그리시며 낮에 철준이가 하던 말을 다시 상기하시었다. 그리고 병원 원장의 말을 생각하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그림을 향하신 그대로

《동무 생각엔 어떻소?》

하고 누구에게라없이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부관은 새삼스레 방안을 둘러보았다. 역시 자기뿐이였다.

《네?...》

그는 당황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부관을 향해 돌아서시었다. 그의 안색에 심중한 빛이 어터여있었다.

《그 명호란 아이에게 무슨 꼭질이 있는것 같소! 동무는 그런질

안느겠소?》

부판은 얼머름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그 아이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할 무슨 일이 꼭 있을것 같소.》

수령님께서는 다시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이윽고 문득 시계를 보시었다. 그리시고는 부판에게

《아까 그 작업반장동무를 여기서 좀 만나게 해주오. 공장에 없으면 집엘 찾아가보오!》

하고, 말씀하시었다.

《수령님! 좀 휴식하셔야...》

《일없소! 앉아서 이야기나 하는건데 일있소? 꼭 만나봐야겠소!》

부판의 말을 밀막으시며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부판은 곧 떠났다.

(어떻게 된 아이인가?...꼭질이 있는게 분명한데...)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혹시 교아가 아닌가?!...)

수령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셨다.

전선과 후방에서 제기되는 그 많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시며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원썬들에게 부모를 잃은 교아들을 생각하시며 수없이 많은 밤을 뜯눈으로 밝히신 수령님이시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란 이 세상의 모든것이였다.

하나 원썬들은 수많은 어린아이들로부터 것처럼 귀중한 부모들을 빼앗아갔다. 무너진 거리와 불탄 마을들은 다시 일떠세우면 그만이다.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다시 세우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혈육들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수많은 혁명선렬들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 피흘렸고 목숨바쳐 싸워온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이 땅우에 꽃피워나아갈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의 후계자들인것이다.

원썬들은 이 귀중한 아이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그들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갔다.

수물길 없는 분노가 밤을 불태웠고 원썬들의 머리우에 복수의 불

벼락으로 쏟아지대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피재를 겨꾸려드렸다.

하나 짐승만도 못한 원수 배움을 죽인들 그것으로 우리의 귀중한 어린이의 가슴에 입힌 상처를 어찌 매꿀수 있단말인가.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전국 도처에 초등학교와 육아원, 애육원들을 대대적으로 설치 확장하여 고아들을 양육할 대책을 세우셨으며 또한 당과 정권기관의 간부들이 솔선하여 그 애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가를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것처럼 가릴치질했던 진정속에서도 우리의 고아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품속에서 무리무리 행복하게 자라났던것이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지금도 고아들을 생각하시고는 가슴아파하시며 밤잠도 못이루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철준이 들어서자 보시던 신문을 내리놓으시며  
 <아, 천리마작업반장이 왔구만!>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끄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를 곁에 앉히시더니

<지녁은 먹었소?>

하고 천자식에게처럼 정깊게 물으시는것이였다.

<네!>

철준은 의자끝에 약간 몸을 실은채 두손으로 무릎을 문질렀다.

<편안히 앉소! 오늘밤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시오!>

너무도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수령님앞에서 철준은 처음엔 오히려 몸이 굳어져 어쩔바를 몰랐다. 온몸이 뻣뻣 달아오르며 누를길 없는 감격이 가슴박차게 솟아오르는것이였다.

<동무네 작업반에서 년간계획을 당대회전으로 끝내겠다고 결의했다지?>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철준을 바라보시며 물으시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할수 있는 방도는 찾았소?>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방도는 못찾았습니다.>

하고 철준은 말을 끊고 숨을 들이쉬고나서

<다만 꼭 해야 하겠다는 저희들의 각오와 결심을 믿고있을뿐입니다! 하루속히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미국놈들의 가슴에 날창을 박



는 심정으로 달라붙으면 탕도는 나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드리었다.

수령님의 물으심에 대답을 드리면서 철준은 어느사이엔지 굳어졌던 마음이 풀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있는것 같은 평온한 기분으로 돌아오는것을 느꼈다. 그는 서슴없이 말씀드리었다.

철준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중소! 바로 그거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그 하자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오. 우리가 하자고 결심하고 못한 일이 어디 있소. 결심하면 되지...보오, 우리가 진흥 재더미우에서 빈손으로 오늘과 같은 큰 공장과 도시, 농촌과 학교, 특정한 자립경제의 기초를 건설할수 있는것이 무엇이였겠소. 그것은 당의 호소와 로선을 받들고 전쟁에서 미국놈들을 때려눕힌 그 기세, 그 본때로 조국을 하루속히 일떠세우겠다는 전체 인민들의 드높은 결의와 각오였소. 그것이 수많은 기적들을 낳게 하였던것이요. 동무들의 생각이 아주 옳소!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기요. 보수주의, 소극분자들은 이 과학을 리해 못할거요. 그렇소! 그건 과학이요. 종전의 낡은 기준, 기술신비주의적인 기준량으로는 도저히 제일수 없는 천리마조선의 과학이요. 천리마란 이 술어자체가 온갖 낡은것을 허용치 않는 단말이요. 안그렇소? 동무들의 그런 결심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소. 옳소,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구!》

하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알았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철준은 흥분된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 잠시 한곳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앉아계시다가

《선결문제는 사상문제지, 사상이 바로서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틀림이 없거든. 틀림이 없단말이요.》

하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작업반형편을 여러가지로 물으신 다음 7개년 계획에서 당이 점령하려는 목표와 향상될 인민들의 생활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구체적으로 작업반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철준의 가슴은 희망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으로 불타올랐다.

담화는 어느덧 가정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래 집안식구들은 다 무고하오?》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네! 다 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천준은 명호의 몸이 마음에 걸렸다.

어쩐지 거짓말을 여쭙는것같은 죄송스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뭘 생활에서 곤난한 점은 없소?》

《없습니다.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천준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무슨 불편이 있겠는가, 천준은 거짓말이 말씀드리였다.

《왜 없겠소! 어서 내놓고 말하오!》

수령님께서는 천준의 얼굴을 살피시며 웃으시였다. 천준은

《정말 없습니다. ...그저 마음놓이지 않는 일이 한가지 있을뿐입니다. ...》

하고 나직이 말씀드리였다. 공장에서 곧바로 여기로 온 그는 이미 수령님께서 명호를 알고계시리라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말씀드리였다.

《어서 말해보오!》

천준은 자세를 고쳐앉았다. 그리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1951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천준은 린락임무를 맡고 전선길을 걸어가고있었다. 들에는 여기저기 무너지고 불타다남은 집들이 드문드문 서있었는데 그 집들은 모두 비어있었다.

적들은 매일 빈 부락에 폭격을 들이쳤다.

천준이 불타고있는 마을앞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타고있는 집마당에 웬 녀인이 쓰러져있고 그옆에서 갓난아이가 울고있는것이였다. 천준은 지체없이 그들을 밖으로 내왔다. 녀인은 이미 숨이 저있었다.

한동안 격분에 떨며 서있던 천준은 다시 인기속으로 뛰어들었다. 녀인의것인듯한 조그만 보통이 하나가 마당에 굴러있었다. 그것

을 들고나온 철준은 집을 풀어보았다. 어른, 아이의 옷가지들과 간단한 살림도구들이 있을뿐 어디사는 누구라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형색으로 보아 길가던 사람이 분명했다.

(어떻게 할가?)

잠시 할바를 몰라 망설이던 철준은 녀인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품속에서 조그만 사진 한장이 나왔다. 스물내여섯나보이는 인민군전사의 사진이었다. 낯눈에 순박한 농촌청년이라는것이 알렸다. 사진뒤면에 <1950. 5. 20. 회대>라고 써여있었다. 필경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리라. 그러나 성도 교향도 알수 없고 그밖에는 아무것도 알만한것이 없었다.

...녀인을 물고난 철준은 떨리는 손에 아이를 안았다. 돌이 지났을가 말가한 아이였는데 너무나 가벼웠다. 철준의 치발치는 걱정때문만이 아니었다. 아이는 웬일인지 몹시 어위여있었다. 아이의 너무나 갑작한 무게가 철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아이는 화약내 풍기는 철준의 가슴에 착 달라붙으며 과고들었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

넓은 들판에 울려퍼지는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포성보다 더 강하게 철준의 가슴을 마구 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호소 같기도 하였고 원수를 갚아달라 복수를 호소하는 웨침 같기도 들렸다.

(오냐, 내 백배천배로 복수해주마! 원수들을 모조리 씌어 놓힐테다. 그리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마!)

그는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누르며 이불 사러물고 먼리 허공을 노려보며 성큼성큼 걸었다.

주민들이 살고있는 마을에 오자 철준은 곧 정권기관을 찾아가 아이를 부탁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이어머니는 희생됐습니다. 내 이름은 립철준이고 애 이름은 립명호입니다. 내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아이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니 잘 돌봐주시시오!>

그는 다시 진선으로 떠났다. 그리고 닥치는대로 원수물 요정내며 사자와 같이 싸웠다.

전선에서 포화가 멎었다. 위대한 승리와 환호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전투장으로 달려갔다.

철준이도 군복을 벗고 새 초소에 서게 되었다. 결혼도 했다. 그리하여 곧 명호를 찾아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명호를 맡겼던 마을은 비무장지대로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여러날만에야 겨우 명호를 찾았다. 그는 벌써 여섯살이었다.

《명호야, 네가 내 아버지다!》

철준에게도 명호는 낯이 설었다. 명호는 불의에 나타난 아버지라는 낯선 사람을 울퉁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더니

《우리 아버지야? 왜 이제 왔니?!...》

하고 뽀뽀히 말했다.

《응, 미국놈을 다 잡고 오느라고 이제 왔다. 이젠 아버지랑 함께 살자 응?》

그러자 명호는 한동안 말없이 철준을 쳐다보더니

《응!...》

하고 순순히 철준의 품에 안겨들었다. 아이는 몸이 훨씬 추웠으나 그 또래의 아이치고는 역시 가벼웠다.

철준은 일시에 많은 감회가 되살아나며 걱정이 솟구쳐 눈물이 나는 바람에 얼른 아이를 턱밑으로 바싹 껴안았다.

이렇게 그들은 다시 만났던 것이다.

한편 철준은 성도 없는 《희태》라는 이름과 사진을 가지고 군대와 사회의 주소안내소들에 수소문하여 무려 1년반만에야 그 사진의 주인이 박희태이며 그는 분대장으로 1952년 여름에 1211고지부근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명호는 이것을 알리 없었다...

수령님앞에서 말씀을 끝낸 철준의 얼굴은 벌겍게 상기되어있었다. 이야기를 끝내면서 철준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그 갈피에서 사진 한장을 뽑아내었다.

《...이것이 그때 그 사진입니다.》

철준의 편지봉투속에 넣어 수첩차례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이제는 헝고 다술어진 사진을 수령님앞에 내드리었다.

철준의 긴 이야기를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듣고계시던 수령님께

사랑의 품

서는 사진을 받아드시고 오래동안 들여다보시었다. 방안은 조용하였다. 그러나 말할수없이 엄엄한 분위기가 방안에 가득차있었다. 이윽고 철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수령님! 그 아이의 몸이 아직도 든든치 못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봐도 어디 앓지는 않는다는데 몸이 약합니다. 그 아이의 친부모가 있었더라면...하고 생각하면 죄를 진것 같애 늘 가슴이 아픕니다...아직 저희들의 사랑과 지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만...》

철준은 목안으로 잣아드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었다.

이때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어앉으셨던 수령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여 교쳐앉으시며

《아니요, 동무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소. 난 명호의 친부모를 대신해서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리요!부인에게도 전해주요. 정말 고맙소!》

하고 철준의 등에 손을 얹으시었다.

철준은 눈앞이 흐려지며 마주 진 자기 손등에 뜨거운것이 떨어지는것을 느꼈다.

《바로 동무들과 같은 부모들을 믿었기때문에 당은 아이들을 맡길수 있었으며 마음놓고 원수와 싸울수 있었던거요!...너무 걱정하지 마오. 몸은 앞으로 건강해질거요!》

수령님께서는 친철히 몸을 일으키시여 창문가로 다가가시더니 유리창너머로 어두운 밤하늘을 오래동안 바라보시었다.

은 누리는 흰 눈에 덮여있는데 하늘에선 무수한 별들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한자리에 서신채 움직이지 않으셨다.

(공연한 말씀을 드려서 심려하시게 했구나!)

철준은 돌아서신 수령님의 뒤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자책했다.

(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한몸에 지니시고 얼마나 바쁘실 귀중한 시간인데...)

침묵이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철준은 더욱 송구스러워짐을 어찌하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는 이때 철준의 이야기로 해시 상기되신 전쟁시기의

가지가지의 일들과 또한 그것이 상기시킨 로야령을 넘어 북만으로  
원정하시던 때의 일이며, 백두산으로 나오시던 눈길, 마안산의 어린  
아이들...30여년전의 일들까지도 생생한 표상으로 머리속에 그리시며  
깊은 생각에 오래오래 잠겨계시었다.

이윽고 다시 자리에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고치시며  
《...그럼 명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있겠구만?!...》

하고 물으시었다.

《네! 친부모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그들을 주고싶지  
않아서...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디다!》

이것은 철준의 굳은 생활신조이기도 하였다. 불속에서 구해낸 아  
이를 가슴에 붙안고 굳게 다진 맹세이기도 하였다. 오직 행복하게만  
자라야 할 저 아이들이 만일 지금의 부모가 자기의 친부모가 아니라  
는것을 안다면 얼마나 놀라며 서운해할것인가, 부모를 가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할것이며 피로와할것인가, 그것으로 해서 아  
이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진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더없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때문에 철준부부는 명호를 건강하고 명랑하고 툭툭하게 기  
르기에 전념하면서도 또한 원쑤 미체에 대한 증오심으로 교양하면서  
도 이 일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깊이 마음속에 묻어두고 온것  
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철준의 대답을 신중히 듣고계시다가

《잘했소!그래야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윽고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철준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자  
신없는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저는 알리지 말자고 생각하고있습니다!...혹 이 다음에 명호가  
성장해서 세상일을 좀 알게 되고 부모와 자기의 나이에 대해 의욕을  
품고 후시 묻게 된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그러나 솔직한 제  
심정은 평생을 그 애가 묻지 말아주었으면...하는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철준은 전혀 자신이 없었다. 세월이 가면 자

연히 명호는 의혹을 품게 될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될것이라는 위구를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고있는것이였다.

이것은 지금 비로소 생긴 위구는 아니였다. 명호를 데려오는 첫날부터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것이며 또 앞으로도 명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까지는, 만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낼수 있다면 그의 평생을 두고 마음속에서 지니고 살아야 할 무거운 짐이기도 하였다.

철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다. 그러시더니 이윽고 철준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동무의 심정은 알만하오. 헌데 그것이 가능할가?》

《저도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철준은 솔직히 자기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그럴테지...》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명호가 열두살이라고 했지?》

하고 물으시였다.

《네!》

철준은 수령님께서 명호의 나이를 어떻게 아실가 하고 피땀 생각 하면서도 한편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를 짐작하셨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열두살, 열두살이면 어리다고만 생각할수 없지. 전에 동만에서 그 나이때래의 아이들이 벌써 혁명투쟁을 훌륭히 도왔소. 금순이란 아이는 아홉살때 혁명의 비밀을 목숨바쳐 지켜냈소. 그 아이뿐 아니라 수많은 아동단원들이 그랬소! 아이들이란 교양하기에 달렸지... 열두살이면 어리지않소! 그 아이를 지금부터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가슴속에 혁명의 씨앗을 깊이 심어주어야 하오! 사상을 튼튼히 키우는 것이 중요하오. 명호의 아버지는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어머니도 원수들에게 희생되였소. 명호는 바로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우리 혁명을 계승해야 할 후계자가 아니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원수 미제에 대하여 사자와 같이 분격하도록 해야 하오. 우리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원수들은 아직도 조국의 절반땅을 짓밟고있소.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혁명을 기어코 완수해야 하오. 우리와 맞선 적은 철

낼것 없지만 만만치는 않소.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려면 앞으로 한번은 더 미국놈들과 맞다들어야 할거요. 그러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소? 진실을 철저히 알려주어야 하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도록 해야겠소. 명호와 같은 아이가 남북땅에 얼마나 많소. 그들이 모두 미국놈들을 철저히 증오하도록 해야 하오. 안 그렇소? 철준동무.》

그이의 안광에 서키찬 빛이 번뜩이며 지나갔고 음조에는 걱정이 어려워있었다. 음성은 비록 낮으셨으나 그 말씀의 구절구절은 거대한 힘으로 철준의 심장을 광광 울리었다. 철준은 너무나 숭엄하고 격동된 감정에 숨이 막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한채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사실이 그랬다. 철준은 명호를 한갓 값싼 인정에 사로잡혀 부모의 눈던 사랑으로만 생각했지 그 아이를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게 교양하여 친부모들이 다하지 못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가 친부모가 아니라는것을 알았을 때의 명호의 피로움과 가슴아파할것만을 우리했지 그 슬픔을 던고 복수에로 일어서도록 당의 아들, 계급의 아들로서 강의한 투지로 키울데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평생을 자기의 친자식으로 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좁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옹졸하고 속된 것이었던가 하는 가책이 철준의 가슴속에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혁명이란 값높은 인정이나 동정만으로는 할수 없는 준엄한 것이다.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의 치렬한 판가리싸움인 것이다.)

한 아이의 운명을 두고 전체 조선혁명을 생각하시고 이 나라 전체 아이들의 운명을 걱정하시는 수평님의 숭고하고 고매하신 혁명 사상앞에서 철준은 자기의 감정이 깨끗이 정화되어감을 더없는 행복 감속에서 의식했다. 가슴속깊이에 피어있던 그 어떤 응어리가 깨끗이 없어진듯 후련하여지며 앞이 환이 열리는것 같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었습니다.》철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었다.



사랑의 품

수령님께서, 만족하신듯 눈가에 웃음을 띠우시고 철준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종소! 그런데 갑자기 명호에게 이야기해주면 어린 가슴에 충격이 너무 클수 있소. 또 이야기하기도 바쁠거구, 얼마나 가슴아픈 이야기지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기회를 잘 봐서 적당한 때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오! 생활하는 과정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것 이요.》

자기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아파하는 문제까지 말씀해주시는 수령님의 끝없는 은정에 철준은 가슴이 메여오르며 눈물이 솟아올랐다.

《알았습니다. 꼭 훌륭한 혁명의 후계자로 키우겠습니다. ... 수령님!》

철준은 눈물을 삼키면서 말씀드리었다.

《종소! 그렇게 하오.》

수령님께서 한동안 철준을 바라보시다가

《그 명호의 생일이 언제지?》하고 물으시었다.

《5월 20일로 했습니다!》

철준의 대답을 들으시자 수령님께서 《좋은 때로군.》하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종소. 그만합시다. 피곤할텐데 돌아가서 쉬어야지. 그런데 그 명호녀석이 이다음에 인민군대가 되겠다던데 꼭 인민군대로 키워야겠소. 원쑤를 갚도록 해야지. 여기 병원동무들도 많이 방조물 줄거요. ...》하고 말씀하시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철준은 흠칫 놀랐다.

(어떻게 명호가 인민군대가 되겠다는것까지 아시고계실가? 그리고 병원동무들이 방조를 줄거라고 하신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자동차안에서 철준은 부관에게 물어서야 비로소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밤 자기를 불러주신 수령님의 심정도 그리고 낮에 그토록 구체적으로 물으시던 수령님의 말씀속에 그처럼 깊고 뜨거운 심리가 담겨있었다는것까지도...

밤은 퍼그나 깊었다. 차창밖에서는 낮에 녹았던 눈을 다시 일궈 불이며 차거운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고있었으나 철준의 가슴속에서

는 뜨거운 감장의 거류가 자동차의 고르로운 진동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이민 지고있었다.

## 4

봄이 왔다. 온 나라는 봄과 함께 더욱 끓어올랐다. 공장과 농촌,  
광산과 어촌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이 매일같이  
쏟아져나왔다.

삼도화상을 입고 위기에 처하였던 한 소년을 자기들의 살을 나누어  
주어 구원한 의료집단의 이야기며 곳곳에서 들리오는 칠리마기수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그런가 하면 수도 평양에서는 수령님께서 친히 참석하신 가운데  
전국을 들끓게 하는 대회들이 련이어 열리고있었다.

전국로농통신원열성자대회, 교통운수부문열성자대회, 전국상업일  
군열성자대회, 경공업부문열성자대회...

대회마다에서는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이야기들이 련일 울려나  
왔다....

자랑높은 대비날론공장이 준공되어 수령님을 모시고 테프를 끓였  
다....

그런가 하면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동성의 기계건설자들, 황철의 용  
해공들, 김덕의 광부들, 북청의 협동농민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조국은 7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있었다.  
온 나라는 바야흐로 4차당대회를 앞두고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  
었다.

칠준이네 기계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이 공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칠준이네 작업반에서는 4월초에 이미 상반기계획을 끝내고 지금  
은 3.4분기계획의 질만고비를 넘어서고있었다.

이리한 어느날 군관 한분이 칠준을 찾아왔다. 그는 수령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함께 명호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였다. 거기에는  
책들과 여러가지 학용품들이 들어있었다. 바로 명호의 생일날이  
였다.

철준은 떨리는 손에 선물을 받아들이고 평양이 자리잡고있는 북쪽을 향해 돌아섰다.

《수령님!...》

철준은 목이 메었다. 걸잡을수 없는 감격이 그의 온 몸을 휩쌌다. 그는 울고 또 울었다.

수령님을 뵈옵던 날의 일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 모습, 그 음성, 그 안색...

자기의 온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럽던 그날의 감격이 다시 가슴속에 새로이 되살아올랐다.

(...몸은 앞으로 건강해질수 있소. 아이들이란 교양하기에 달렸소. 열두살이던 어리지 않소. 사상을 튼튼히 키워야 하오. 혁명의 후계자가 아니요?...)

수령님의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방금 귀전에서 친근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생활하는 과정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것이요.)

귀중한 말씀의 하나하나를 되새겨나가던 철준은 문득 이 말씀속에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가슴이 더욱 뭉클아올랐다.

(이렇게 기회까지 마련하여주셨구나!)

사실 철준은 수령님을 만나 뵈은 이후 명호에게 아동단원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이야기들과 조국해방전쟁때 발휘한 소년빨찌산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이며 미제의 만행들에 대하여서는 자주 들려주었으나 그 이야기만은 아직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을 어찌 명호의 생일을 축하해서 공부를 잘하라고만 보내주신 선물이라 하랴. 거기에 담긴 수령님의 그 끝없이 깊고도 뜨거운 심리와 은정을 철준이는 도저히 헤아릴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뭉클한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선 자리에 못박힐채 평양쪽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보고있었다.

...그날저녁 철준은 명호에게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진하였다. 그리고 10여년동안 가슴에 품고다니던 아버지의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든것을 다 이야기해주었음은 물론이다.

하나 수령님의 깊은 사랑에 격동된 명호는 슬피하지 않았다. 아

니 그것을 이길수 있었다. 철준이도 이야기하는데 가쁘지가 않았다.

...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철준은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호야! 나는 이때까지 너를 내 아이겠거니만 생각해왔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었다. 너뿐만아니라 네 동생들의 아버지가 나라고만 하던 생각은 나는 이제는 다 버렸다. 명호야 넌 질대로 꼬아가 아니다. 이 세상에 너보다 행복한 아이가 어디 있겠니. 넌 김일성원수님의 아들이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김일성원수님이시다! 수령님은 너희들모두의 아버지이시다!》

세월이 흘렀다.

리별을 앞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있었다.

《아버지! 전 제 몸이 이렇게 튼튼하게 된것이 병원선생님들의 지성이린 노력과 저에게 써준 약기운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어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었지만...수령님의 크나큰 사랑때문이라고 생각해요!》명호가 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생각했다.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철준은 군복입은 명호의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로 제 심정을 다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태어나 자랐으며 어떻게 해서 저의 오늘이 있게 되었는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저는 제가 잡은 이 총으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꼬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지키 싸우겠습니다. 저는 오직 김일성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참된 아들로 자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고야말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것을 다바쳐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명호의 눈에 어린 눈물을 보고도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았다. 아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철준이었다.

《오냐, 그래야 한다.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 길에서 수령님의 그 높이신 뜻을 더욱 깊이,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다. 여러 말 안하겠다. 수령님의 전사답게, 로동계급의 아들답게 잘 싸워라, 자 어서 가거라!》

철준은 멀어져가는 아들 명호의 뒤모습을 미더웁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령님! 명호가 수령님의 말씀대로 혁명의 초소로 떠나갑니다!)

철준의 가슴은 감격에 끝없이 높뛰었다.

봄날의 밝은 해빛이 그들을 마음껏 비쳐주고 있었다.

### △ 어휘 및 표현

○ 정신(을)팔다. 어떤 일을 하면서 만일에 정신을 쓰다.

○ 1211고지전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시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 전선동부 아군의 중요한 지대점인 1211고지를 피로써 사수한 영웅적인 방어전투.

○ 락동강전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의 마지막시기 (1950년 8월 말~9월중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인민군면합부대들이 락동강계선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영웅적인 전투.

○ 삼지연혁명전적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천송하시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실 때 잠시 들리시어 대원들을 휴식시키시면서 원수격멸에로 고무하신 읍서깊은 혁명전적지. 량강도 삼지연군에 있다.

○ 료야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 주요혁명전적지. 중국 동북지방의 동만과 북만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로서 양청현과 녕안현사이에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차례에 걸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천송하시고 이 령운 넘어 북만원정을 진행하시였다.

○ 마안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 주요혁명전적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3월 마안산에 있는 밀영에 찾아오시어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 아동간원들에게 크나큰 이끼이사랑과 따뜻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 전쟁의 상처를 맑끔히 털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모든 후과들을 깨끗이 가시여내다.

○ 삼시에 란장관이 되다. 짧은 시간동안에 막 뒤섞여 질서있게 되다.

○ 마을에 걸리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걱정되다.

○ 마음(을)놓다. 안심하다.

- 낮(이)설다. 보기에 눈에 익지 아니하다.
- 삼삼히 떠오르다. 잊혀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듯이 뚜렷하게 떠오르다.
- 가슴이 틀떡이다. 짐장이나 가슴이 몹시 울렁이다.
- 송구스러운 마음.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
- 호탕하게 웃다. 막히는데 없이 기운차게 웃다.
- 몸을 추세우다. (쇠약해진 몸의)건강이 회복되게 하다.
- 나직이 말하다. 좀 낮게 말하다.
- 뜯눈으로 밝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우다.
- 숨(이)지다. 《죽다》를 에둘러이르는말.
- 의혹을 품다. 의심스러운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있다.
- 판가리싸움. 조국과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치열한 싸움.
- 속속들이. 속의 깊은데까지 자세히.

## 길동무들

박취

...  
치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돌아서더니 초롱옆으로 가서 꼬부리고 앉는다. 초롱아가리는 가제천으로 덮고 오래기로 빙빙 돌리었다.

치녀는 오래기를 풀고 가제천 한쪽 귀를 빠금히 열고 들여다보더니 손을 넣고 그속에서 온도계를 꺼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도계를 살피던 치녀의 얼굴에 흥조가 살짝 오르며 방긋이 웃음이 피었다. 이젠 정말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이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아까 정거장에서 소동바람에 승강대에 나섰던 일여덟명의 길손들이 모두 치녀의 초롱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치녀가 초롱을 열었을 때 서로 이마를 찡으며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피끗 그 어떤 떨진 물 같은 것이 눈에 띄었을 뿐 알아볼 수 없었다.

하긴 아까 개찰원과 다룰 때 무슨 고기알이라 했는데 명란젓은 아니고 그밖의 식용으로는 심어나 흥어 알젓 같은 것이겠는데 그건 나도 몇번 먹어봐서 잘 알고있지만 저런 맹물같은것은 아니었다.

《치녀동무, 아니 그게 무슨 고기알인가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궁금증이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웬일인지 치녀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그리고 당황히 초롱아가리에 가제를 꼭 눌러덮더니 오래기를 췌췌 돌며 감았다.

《거 무슨 알젓인가요?...》

배구를 치던 때의 키 큰 상고머리청년 하나가 큰 눈을 두리번거리며 뒤에서 넘겨다보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뭘, 알것이라구요?...아이 참...》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번쩍 들어 상고머리청년을 바라보는 치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치녀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수그리더니

니 입속에 기여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 전…개찰원동무에게…거짓말을 했어요. …이 초롱안에는… 잉어가 5만마리 들어있어요. …》

이렇게 더듬거리는 처녀의 귀밀은 새빨개졌다.

《뭘, 뭘요? 잉어가요?!…》

《아니, 5만마리나요?…》

《원 처녀동무, 룡담은 그만두…》

모여신 사람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눈이 둥그래서 떠든다. 마지막 말이 처녀의 신경을 몹시 건드린 모양이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며 일어섰다.

《아니, 제가 무슨 룡담을 하겠어요. 잉어새끼라니깐요. 그그저께 낚걸요. 한마리가 티눈만큼씩 하거든요. …》

처녀의 맑은 눈은 누가 그런 못마땅한 소리를 했느냐는듯이 둘러선 사람들을 죽 돌아본다.

《아니, 거즘 봅시다!》

《나두 좀 봐주…》

하면서 사람들은 처녀에게 다가섰다. 예로부터 길손들이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이다. 처녀는 당황하여 다시 그자리에 쪼그리고 앉으며 초롱목을 두손으로 그리안는다.

《뵈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다 뵈드릴순 없어요. 새끼고기가 돼서 한부로 다루질 못해요. 어느 한분이 대표해서 보세요. 참 아바이가 보시고 확인하세요. …》

그 처녀는 나를 아바이라고 불렀다.

아직 선줄에도 채 안들어졌는데 아바이라니…하긴 귀밀에 희끗희끗 성긴 서리가 돌힌것이 처녀로 하여금 대뜸 아바이라고 부르게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처녀의 말을 시비할 경황이 없었다. 우선 나는 베풀어진 특별한 태우를 달게 받아야 했던 것이다. 나는 처녀곁에 엉겨주춤 꾸부리고앉아서 처녀가 열어주는 초롱귀통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역시 멀진 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맹물이구만…》

《해빛을 등지고 이쪽 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요. 아바



이, 이제 물속 어느 한점을 주의해서 살피세요. 보이지요? 아바이?...》  
 처녀는 연신 《아바이 아바이》 하면서 나의 어깨를 조종하여 각도를  
 가로 잡아준다. 나는 아바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릴새도 없이 처녀가  
 시키는대로 하였더니 그제야 정말 티눈보다도 작은 어떤 투명한  
 반점 같은 것들이 물속에 수없이 얽혀 알른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 보이오! 틀림없소!...》

처녀의 등실한 얼굴에 상긋이 미소가 피었다.  
 상고머리청년이 기어코 때를 써서 한사람 더 보게 되었다.  
 《아이구, 끔찍하군! 막 아물아물하누만!》  
 청년은 큰 눈이 더욱 휘둥그레가지고 환성을 올린다.  
 처녀는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초롱귀뿔이를 꺾 덮고 오래기로  
 쫓겨 비끄러맨다.

《아니 체비,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하자는거워까?》  
 내 옆자리에 앉았던 할아버지 한분이 자못 의아스럽다는듯이 내  
 등을 한손에 든채 처녀를 명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기르지요 뭐, 할아버지...》

《허허 기른다?》

할아버지는 자못 놀랍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저게 언제 크겠소?...》

상고머리청년이 못미덥다는듯이 하는 소리다.

《동문 참 성급하구만요. 아무거나 갖 냅았을 땐 다 저렇게 작구  
 미더워 보이지 않지요 뭐, 범의 새끼도 갖 냅으면 쥐만 해요. 저래  
 뽀두 인제 이태만 있으면 팔따시만한 잉어가 되거든요.》

《뭐요! 이태에 팔따시요? 이 동무가 정말 사람을 놀리는군!》

《안예요. 정말이에요. 이태가 되면 한마리 무게가 반키로가 넘  
 구, 3년이 되면 한키로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 초롱속에 물고기 25톤  
 내지 50톤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처녀는 방금 그 초롱안에 50톤의 잉어가 들어있기나 한듯 자못  
 당당하고 태연스럽게 초롱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상고머리청년은 어  
 이없다는듯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허허 참 동무, 그야말로 모래성을 쌓는게 아니요?》

순간 홍조가 올랐던 처녀의 얼굴이 해쓱해지며 눈동자에는 노역

음이 편똥 지나갔다.

《아, 여보게 짧은이, 실없는 소린 그만두게!...자—그대 체네, 이걸 그대 어떻게 기르나? 맥이긴 필 맥이구?...》

옆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부쩍 구미가 당기는 모양으로 청년을 뒤로 떠밀며 앞으로 비집고 나서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처녀는 노여움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한참이나 청년을 바라보며 똥이라고 말할가말가하다가 그만두고 할아버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아무데서구 다 기를수 있어요. 저수지와 논판과 늪에서두 기르구 일부러 못을 파고도 기르지요. 우리 나라에선 어디서나 다 기를수 있어요. 그리구...》

처녀의 얼굴에선 어느덧 노여움이 가셔졌다. 말그대 상기한 얼굴에서는 두눈이 반짝거린다.

《또한 잉어를 기르는 유리성은 먹이를 쉽게 얻을수 있다는 점이죠. 우선 잉어는 물속에 있는 무수한 미생물과 모기유충과 벼를 해롭히는 온갖 벌레를 잡아먹으며 잡초를 뜯어먹으면서 제절로 자라나거든요.》

《아니, 거 평먹구 알먹기구만요!》

뒤에 몰렸던 상고머리청년이 고개를 내밀며 또 환성을 올렸다.

《그러문요. 게다가 잉어의 배설물은 훌륭한 비료가 되구요...》

이번엔 청년에게 웃는 낯을 돌리며 처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인공사료를 조금만 보태주면 더 빨리 키울수 있어요.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않고 먹는데 식물성은 독없는 풀이면 다 먹을수 있구 동물성은 번데기, 지렁이, ...》

신이 난 처녀는 마치 연단에서 강의나 하는듯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내리쥘는다. 이리하여 양어에 대한 강의가 때아닌 때 열차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처녀는 보따리에서 《양어학》이라는 두툼한 책을 꺼내서 갈피들 후 투투 넘기더니 잉어성태에 대한 그림을 펼쳐보이면서 알을 깨울 때로부터 시작하여 엄지고기로 키울 때까지의 전과정을 세세히 강의하였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렇게도 엄격하게 단속하던 초롱의 덮개를 열고 개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옆자리에 앉으셨던 할아버지와 농민인듯한 사나이와 내가 그중

많은 질문을 들이댔다. 처녀는 지치는 빛도 없이 연신 이마와 코등에 맺히는 땀방울을 훔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러니 여러분, 담수양이는 결코 염수이여길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알잡아도 20만내지 30만정보의 논과 저수지에도 고기를 기를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만해도 한해에 20만톤이상의 생선이 나올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온 강산이 쌀과 고기더미속에 묻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대로 꿈이 아니라 래일의 현실입니다!...》

처녀의 이야기가 어찌나 자신만만하고 생동하고 격동적이었던지 우리는 흥분으로 하여 붉어진 얼굴과 열정에 불타는 까만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세상엔 양어공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으며 그리하여 당장이라도 양어공으로 직업을 바꾸고싶은 생각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어느덧 열차는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섰다.

나는 피로를 풀려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스프르 감았다.

우리 나라 논과 저수지에서만도 20만톤이상의 생선이 나올수 있다면 그 처녀의 쟁쟁한 목소리가 되살아왔다.

나의 온 정신은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에 불타는 당돌한 그 처녀에게로 끌려들어갔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혁명적기백과 약동하는 랑만이 온몸에 차넘치고있지 않는가!

김일성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마음이란 정말 아름답구나! 지 대렬을 빨리 확대시켜야 한다.

이것은 담수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원수님의 구상을 하루속히 실현하는것으로 된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수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처녀가 앉아있을 승강대로 나갔다.

처녀는 승강대 한편 구석에 걸터앉아 밖을 초조하게 내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골똘했는지 인기척도 못느낀다. 《누구를 기다리고있소?》

그제야 처녀는 흠칫하고 나를 돌아보더니 방긋 웃는다.

《아바이세요...》

뚜-하고 길게 기적소리가 울렸다. 멀리 굽이 도는 앞길에 신호탑이 보인다.

치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초롱으로 다가앉아 덮개를 열고 온도계를 꺼내 눈금을 들여다본다.

《아니, 또 뭐이 잘못됐소?...내 뿔프를 저으라오?...》

《안요, 물을 갈아줘야겠어요, 아바이...》

치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하더니 작업복웃주머니에서 파란 뚜껑의 수첩을 꺼냈다. 갈피를 넘기며 들여다보더니 다시 수첩을 접어 주머니속에 넣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고 바가지를 꺼내들었다. 어느덧 열차는 플랫폼홈에 들어서고있었다. 치녀는 승강대 란간을 뛰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정거장쪽을 유심히 살피다가 차가 거의 멎을라 할 때 나를 돌아다보며 방긋 웃었다.

《아바이, 초롱 좀 봐주세요.》 하는 말과 함께 훌쩍 뛰어내린 치녀는 벌써 플랫폼을 가로질러 쓴살같이 표받는곳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아니, 저- 저 치녀가?!...》

나는 켱하여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표받는곳을 휘딱 지나 역뒤로 사라졌던 치녀는 이내 다시 표받는 곳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두손으로 바가지를 받쳐들고 자못 조심스럽게 뛰어나오고있다. 나는 서서 볼수가 없어서 플랫폼홈에 뛰어내려 마주 달려나가 바가지를 받았다.

치녀는 숨이 차서 할딱거렸고 얼굴에는 무수한 땀줄기들이 흘러내렸다. 작업복저고리는 땀에 푹 젖어 등과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우리가 차에 올라서자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치녀는 땀을 들일념도 않고 이내 초롱앞에 쪼그리고 마주앉더니 가제천 덮개를 썩운채 초롱을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한바가지가량 찌운다. (그렇지! 가제천을 썩워야 새끼고기가 새지 않게 물을 찌울수 있을게 아닌가!)

나는 치녀의 께에 다시한번 탄복하였다. 치녀는 이번에는 바가지의 물을 조금씩 초롱에 붓고 손으로 가볍게 저어주군한다.그건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대번에 부으면 초롱물의 온도가 갑자기 내리어서

새끼고기에게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또다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바가지를 들고 앞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처녀가 하는 일의 극히 일단일뿐이었다. 어느새 나는 처녀의 충실한 조수가 되어 일을 거들어주면서 차츰 히물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토마토막으로나마 처녀에 대하여 더 알게 되었다.

물을 갈아주고나서 한 정거장이 지나면 뿔프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며 두번째 정거장에 닿으면 처녀는 바가지를 들고 뛰어내리었고 나는 시계의 초침을 가슴을 조이고 들여다보며 가다리군하였다.

그런데 처녀의 떠난곳은 아까 그 옥신각신한 성친역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먼 삼등이었다. 지난밤 삼등양어장에서 고기를 받아가지고 차를 탄 그는 밤새껏 뿔프로 물을 갈아주고 하면서 아침에야 성친역에 닿았다. 성친역에서는 또한 개찰원과 《운명을 좌우하는 투쟁》을 한끝에 지우 차를 갈아탈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처녀가 쭉잡 한잡 못자고 꼬박 밤을 지새우며 바가지를 들고 뛰어다녔을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서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생기 넘치는 까만 눈동자, 벌에 그으른 감실감실한 얼굴, 부단히 청춘의 힘과 정력이 차고넘치는 탁탁하고 탄력있는 몸매! ...피곤이나 지친 빛이라곤 그림자도 찾을수가 없었다.

또한 처녀의 그 수수께끼같은 파란 수첩에는 정거장마다 우물이나 개울물이 어디 있는가 하는 략도가 아주 세밀히 적혀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이미 가는 길에 다 《징찰》해둔것이라 한다.

렬차간에도 물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물은 소독약을 친 물이여서 새끼고기에게 해롭다는 것이었다. 물을 너댓번 갈아준것으로 미루어, 그로부터 일어났 정거장을 지났을 때였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물을 갈아줘야 할 정거장이 멀지 않았는데 처녀는 연신 코통에서 온도계를 꺼내보고는 미간을 찌프렸다. 온도계의 수은주가 20도의 눈금을 거의 울려짚고있었다. 그렇지만 다음 역에서 물을 갈아줄 차례인데 왜 저럴까?...그러나 처녀는 수첩을 꺼내들고 들여다보더니 더욱 침울해졌다. 웬 일인가? 나도 몹시 불안해졌다.

《아니 왜 그러오. 다음 정거장에서 갈아줄 차례가 아니요?》

처녀는 나를 돌아보며 서글프게 미소를 지었다.

《다음 정거장의 우물은 좀 멀어요, 그래서 다음다음 정거장에서 갈아주러던진데...》

《그럼 뿔프로 환기나 하고 한 정거장 건너뛰지...》

나는 자신없이 권고했다.

《안되겠어요. 인젠 온도가 걸잡지 못하게 자꾸 올라가요. 제가 바보였어요. 갈적에 여기 역구간이 멀고 구배길인데다 긴 굴간이 있다는것을 타산해두지 않았거든요. 이리다간 고길 다...》

처녀는 차마 그 다음 말이 안나오는지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다. 나는 뭐라 그를 도울 방도를 찾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아바이!》

처녀의 까만 눈동자에 번뜩 결심의 빛이 지나갔다. 열차는 서저히 플랫폼홈에 들어서고있었다. 처녀는 초롱옆에서 바가지를 집어들더니 열차가 채 멎기도 전에 냉큼 플랫폼홈으로 뛰어내렸다.

《아바이 얼핏 갔다오겠어요!》

어찌도 빨리 철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지 과연 머리수건의 꼬리가 해병모의 땡기처럼 뒤로 나뉘었다.

(아니 어찌자구...) 그러나 미처 말할 사이도 없었다. 나는 몹시 조바심이 나서 팔뚝시계초침을 연신 들여다보면서 처녀가 다지 표반는곳으로 뛰어나오기만 고대하였다.

그러나 일은 틀렸다. 차장이 푸른기를 들었던것이다.

《아, 잠깐만!...》

하고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질렀으나, 뚜—하고 길게 발차기적이 울렸다. 차는 흠칫하면서 발자국을 헨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승강대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며 서성거렸다. 내릴가? 그럴수도 없고... 타고있을다니 불방석에 앉은 마음이다.

이때에 처녀가 표반는곳으로 총알같이 뛰어나왔다. 그렇지만 때는 늦었다. 차는 벌써 속력을 내면서 플랫폼홈을 거의 벗어나고있었던 것이다. 처녀는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온다. 오른손에 든 바가지에서 넘쳐나는 물이 햇빛에 번뜩거리고 어깨뒤로는 푸른 수건차락이 달린다. 처녀는 뭐라고 자꾸 고향을 지르며 달려오지만 알아들을수 없다. 나도

《어어—팔리팔리—》

하고 소리지르다가 그만 맥을 놓고말았다. 벌써 처녀는 까맣게 떨어져버린것이다. 처녀는 플랫폼끝까지 달려와서는 우뚝 서서 멍하니 차꼬리를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저런!》

나도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순간 나는 왜 그런지 처녀의 그 맑은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을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내 가슴도 쩡해졌다.

(자, 어떻게 한것인가?... )나는 고개를 돌려 승장대우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아까 처녀에게서 강의받던 길손들이 모두 나와서서 근심 어린 얼굴들로 "초롱을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웬일인지 한구석에 놓인 초롱을 보자 서글퍼졌다. ...

(...누가 내릴것인가? 상고머리청년이?... 할아버지?... 아니면 저 농민이?... )

구려나 그것은 안될 말이다. 그들을 믿고 내맡길수가 없다. 말하자면 이 초롱속에 있는 처녀의 《과학과 기술》을 그들은 모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온도계도, 펌프도, 물을 한바가지씩 줄금줄금 갈아준다는 것도... 참 내가 내려야지... 내가... 하지만 래일아침...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런데 어느덧 차는 다음역에 닿았다. 나는 경황없이 차간으로 달려들어가 가방을 들고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시비할 사이도 없이 처녀의 초롱과 보따리를 부둥켜안고 플랫폼으로 뛰어내렸다.

래일아침 회의때문에 망설임이 안간것은 아니나 밤차를 타면 새벽에 닿을수 있겠기에 결심을 내리고만것이다.

렬차는 떠나갔다. 길동무들은 승장대란간에 일갈을 내밀고 손을 저으며

《부탁합니다!...》

《수고하시겠소!...》

하고 소리를 친다.

내가 초롱을 들고 몇발자국 옮겼을 때였다. 역사에서 모차에 붉은색을 두른 역장인듯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그는 떠나가는 열차를

보자 우뚝 밋어서시 실망한듯이 손을 췌 내리저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나를 발견하고 한참 바라보더니 나에게로 다가왔다.

《지 미안하지만 이게 묻고기새끼가 들어있다는 초롱이 아닌가요?…》

하고 물는다.

그렇다고 하니까, 방금 지편익에서 진화가 왔는데 입자가 찾으러 갈터이니 내리어 보관했다 달라는 부탁이 왔다는것이다. 내가 초롱을 가지고 내린 사연을 말했더니 그는 더 좋다고 하였다. 나는 급히 정거장앞의 우물로 뛰어가서 물 한바가지를 퍼다가 처녀가 하던 식으로 새 물을 갈아부었다. 온도계를 꺼내보니 14도로 내렸다. 초롱안의 고기들도 췌 활발하게 노는것 같았다. 하지만 여라문마리가 배를 뒤집고 똥똥 뜯것을 견져내면서 나는 못내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었다.

하어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초롱을 들고 대합실에 들어왔다. 해도 안들이쪼이고 똥똥이 잘 뒤집힌 대합실복판에 초롱을 놓고 걸상에 가서 툅 툅 주지않았다. 히리마디가 빠근하였다. 정말 아바이란 말을 듣게 되었구나 하는 시골픈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붙여물고 대합실안을 살펴보았다.

꽤 넓은 대합실은 생뎡그림 비였다.

정면에 높이 달아맨 시계만이 유난히 푹푹거리었다. 이따금 걸개, 째개 울리는 진화신호가 사무실쪽에서 자지러지게 울릴뿐 그야말로 적막하다.

불쭙 나는 이 호젓한 산간역에 다시는 그 우렁찬 열차의 기적소리가 찾아오지도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다음순간 나는 이 어딘에 같은 착각을 스스로 띄우고 웃어 지워버렸다. 아무튼 밤차시간까지는 아직 열시간이 더 남아있다. 나는 나의 길을 방해한 길동무처녀에 대하여 화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가 나가지 않는다. 그 대신에 맘을 발발 흘리며 길이오는 처녀의 그 어글어글한 얼굴이며 가쁜한 몸매시가 눈앞에 떠올라오군했다. 더군다나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은 흠족해지고 웃음까지 나오는것이였다.

시계를 보니 처녀가 길 떠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간으로부터 아직 한시간이 될가말가하다. 25리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두시간은 걸



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가방속에서 읽던 소설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역시 글줄은 눈에 잡히지 않고 종주먹을 쥐고 달려올 처녀의 파란 머리수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처녀의 고기초롱에 눈이 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군에서도 담수양어를 크게 할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문제는 당에서 치산치수사업을 제기했을 때 건설된 저수지에서는 담수양어를 하라고 함께 지시했던 문제다. 우리 군만 하여도 작년에 치산치수사업을 통해 열두개의 대소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양어를 하라고 한번 강조를 했을뿐, 그뒤로 어떻게 했는지 까맣다. 하긴 내가 사업조직을 해준 일이 없는데 하늘에서 저수지들에 고기새끼들이 뛰여내렸을리는 만무구…안됐군, 안됐어!…좀 더 모든 문제에 정신을 차려야지, 나 하나의 무관심이 생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가? 처녀식으로 계산한다면 수백톤? 아니 수천톤의 물고기일지도 모른다. …

나는 지으기 자책이 되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어찌랴, 처녀가 오면 의논해보자. 우리 군 실정도 이야기해주고…일부러 양어못을 파고도 기른다는데 글세 파놓은 저수지에서야…에이참!…

이렇게 나는 생각에 생각을 이어 뜰뜰하였다.

그런데 문득 밖에서 잦은 발구름소리가 나더니 대합실문이 덜렁 열렸다. 처녀가 뛰여든것이다. 나도 어지간히 놀랐지만 내 앞에 숨이 턱에 닿아 할딱거리며 서서 눈이 휘둥그레진 처녀는 더욱 놀라운 모양이다. 입을 딱 벌린채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서있다.

〈아, 아니…아바이!…〉

25리를 한시간동안에 달려오느라 온통 땀과 먼지로 얼룩이진 그의 온몸과 얼굴… 그리고 걱정과 잠겨 생기를 잃고 뿌옇게 잠긴 처녀의 큰 눈을 바라보자 나도 가슴이 뜨거워 미처 할말을 모르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빙긋이 웃으며

〈자, 어서 저 초롱속이나 살펴보우, 제대루 됐는지 원…〉

하고 중얼거리며 초롱을 가리켰다. 그제야 처녀는 황급히 초롱에로 다가가 귀퉁이를 들치고 들여다보더니 온도계를 꺼내들었다.

푸른 수건을 두른 처녀의 머리가 나에게로 꺾 돌려졌다. 순간 그의 두 눈동자는 환희와 생기에 넘쳐 빛났다.

처녀는 일어서서 몇발자국 다가서더니 목이 꺾 메인 목소리로  
《아바이...》

하고 부르며 와락 달려들어 내 손을 꼭 그러질다.

《아바이...물까지...갈아주셨군요. ...고마와요. ...고마와요. ...》

처녀는 말을 더듬거나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더듬거렸다. 환희와  
뜨거운 정을 억제 못하는 그의 큰 눈에서 맑은 이슬이 주르르 흘러  
내린다.

《아이구. 이게 무슨 못난짓이요, 큰 처녀가 울긴...》

이렇게 나무라는 나도 웬일인지 눈곱이 뜨거워졌다. 눈물이란 슬  
플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맑고 그윽한 감정의 북받침이기도 한 모양  
이다.

그러자 나를 쳐다보는 처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두 볼에 보  
조개가 떴다. 우리는 나란히 절상에 앉았다.

《아바인 나때문에 개리셨으니 어떡해요?... 밤잠 타셔야겠군요. 무  
슨 급한 일로 가시는 길이나 아니세요?... 정말 미안해죽겠어요. ...》

처녀는 거듭거듭 걱정한다.

《아니요. 아무런 바쁜 일도 없소. ...》

나는 처녀가 너무 미안해하기때문에 안심할수 있도록 그럴듯한  
구실을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당장 뭐이라고 꾸며낼지 떠오르지 않  
는다.

처녀는 보따리를 풀더니 오리알을 흰개 꺼내어 흰자위를 발가내  
고 노란자위만 부드럽게 부스러뜨려서 초롱안에 뿌려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아바인 어디까지 가시나요?》

《난 풍산까지 가오.》

《네?! 풍산이라구요!...전 송봉까지 가는데요. ...》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한 교향 처녀로군그래...)

《어느 협동농장이요?》

《천개리야요.》

《천개리라... 그렇듯구만...》

《아바인 어느 리나요?...》

《나팔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할가 망설이었다.

《읍에 사오.》

《저 어느 기관에서 일보시나요? 읍에 들리면 찾아뵙겠어요. 아바  
이 신셀 어떠하면 다 갓을가, 참...》

《뭐... 난...》

하고 우물쭈물 넘기려는데 처녀는 그냥 간곡히 대달란다. 석달전  
에 부임된 나를 누군지 모르는 이 동무에게 군당위원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해할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이 홀  
통한 친구사이를 어색하게 만드는것이 싫었다.

《저... 난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이요. 참 그것보다두 처녀동무...아  
니 인젠 이름을 좀 대주오.》

《명숙이야요, 오명숙...》

《그래 명숙동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혼자 떠났소. 너무  
영양주의를 부린게 아니요?...》

이 물음에 처녀는 뺨때문엔가 히구뜨게 웃더니 시무룩해졌다. 그  
리고 그는 고개를 뒀구구 한참이나 덤덤하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무릎  
팍을 쓸고있다. 내리칸 길바란 속눈썹들이 자꾸 깜박거렸다.

문득 처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다.

《아바이, 진 아무것도 안야요. 정말 아바이 말씀따라나 내가 영  
양주의를 좀 부린거야요. 그 말은 그만뒀요. ...참! 아바이,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나요? 정말 무슨 급한 출장이나 다녀오시는게 아니나  
요?...》

처녀는 말꼬리를 돌리면서 자못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본다.

그러니 이 처녀가 끝내 나때문에 마음을 못놓겠다는것이다. 나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근심마오! 휴양갔다 돌아오는 길이요. 그러니 한가한 려행이지  
뵈요. ...》

《네—그러세요. ...》

그제야 처녀는 마음이 좀 놓이는 모양인지 숨을 호 내쉰다.

《그래 어느 휴양소에 가셨댔어요?...》

《어디냐구...아 저 표향산이요. ...》

나는 어디 갔댔다는것까지는 미리 생각지 못했었으므로 일걸에

이렇게 대답했다. 평소에 늘 묘향산구경을 하고싶었던 탓일 것이다.

《아이참, 묘향산엘요?!...》

처녀의 눈동자는 부러움과 호기심이 어러 반짝거민다. 나는 인젠  
가 화보에서 본 묘향산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렇소...》

《아바인. 참 좋겠어요. 난 아직 가본적이 없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몹시 부드럽고 그의 검은 두 눈은 꿈꾸는 사람  
처럼 조프러졌다.

《아바이, 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모든 곳을 다 가봤으  
면...백두산의 혁명전적지들이며, 대건설장들이며, 가없는 동해바다...  
그리구 그리구...》

《가보구려. 그야 어렵겠소. 해마다 휴가를 받으면 기러기처럼 아  
무데고 훨훨 날아다녀보구려...》

《기러기처럼요?!...아이 좋아요! 꼭 그러겠어요. ...하지만...》

처녀는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대합실북판에 놓인 물초롱을 물끄  
러미 바라본다.

《지금은 안돼요. ...》

《왜?...》

《... ...》

《저것때문에?...》

나는 처녀의 시선을 따라 물초롱을 바라보며 물었다.

처녀는 그냥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다.

《아니 동무 혼자서 양어를 도맡아하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며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  
는다. 그러다가 명숙이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였다.

《우리 관리위원장동진 날더러 닭알장사래요...》

《뭘 닭알장사라니?...》

《옛날에 웬 사람이 닭알 한꾸레미를 들고 열음판을 건너가면서  
그 닭알을 깨워서 닭을 치구, 거기서 또 닭알을 받아서 많은 닭을 깨  
워기르구... 이렇게 해서 10년후엔 큰 돈을 모아 열칸짜리 기와집을  
살가, 열마지기 옥답을 살가 망설이다가 그만 열음판에 미끄러 넘어  
져서 닭알도, 기와집도, 풍상도 다 박살이 되엿대요...》

《아니 그 그래 동문 가만 있었소? 그렇게 사람을 모욕할수가 있소!...》

처녀보다 내가 울컥 화가 치밀어 건딜수가 없었다.

《전 자꾸 얘기했어요. 우리 농장의 저수지와 수리안전담들과 천개천흐름을 리용하여 고기를 기를수 있는데 이삼년후이면 여기서 알잡아도 오륙십톤은 낼수 있고 사오년후엔 백톤을 터근히 잡을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닭알장 사셈이라든거야요...》

처녀는 호—하고 한숨을 내쉬다.

《흥, 그럴법이 어디 있소!...》

나의 눈앞에는 당돌하게 생긴 천개리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천개리협동농장은 군내에서 꽤참게 되어가는 편이고 관리위원장 사업작품도 좋다고 들었는데... 어린 처녀의 제기라고 일본제지...

《전 별 어리석은 생각을 다 했어요. 집어치울가도 생각하구 심지어 학교졸업하고 농장에 남은걸 후회까지 했답니다. ...전 졸업할 때 대학에 추천받았댔거든요...》

《모범학생이었소?...》

나는 썩한 사실을 물었다. 가슴에는 두개의 천리마휘장이 빛나고 있지 않는가!...

《학급반장이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빨개졌다.

《전 우리 고향 두메산골을 생선고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꿈때문에 다 버리고 남았는데 일년이 지났어도 아무 일도 못했으니 ...게다가 관리위원장이 저선 귀두 안기울이지... 그래서 저는 모든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구, 정말 내가 궁리한것이 닭알장사같은 망상이나, 아닌가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턱이 있소...》

《그래요, 아바이, 하지만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제가 졸업할 때였어요, 한번은 마을에 사는, 박로인님과 이야기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들은 지주라군 구경한 일도 없기때문에 <지주놈이야기>를 들을려고요.

《우리 이 고장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평생을 살아도 이밥 한술가

락, 생선한토막 먹어보지 못하고 이 벽촌에다 댕을 물어왔단다.…) 하는말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후 어찌다가 이밥 한그릇, 생선 몇꼬리 입맛이나 다서본 사람이면 그게 평생을 두고 큰 자랑거리였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악독하긴 산팔지주놈이 더하다구 일년내내 댕빠지게 돌밭을 뚱기쳐야 죽물 우러먹을 귀밀, 감자 한알도 변변히 남기지 않고 지주놈들이 싹 훑어가군했대요.

그 할아버지는 머슴을 살았는데 한번은 하두 배가 고파서 지주집 외양간을 치다가 소여물찌끼에 콩알이 섞인것을 보고 그걸 몰래 갖다가 물에 질러 콩알을 주어내서 끄여잡수셨대요. 그말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그것이 벌써 30년전이라는 먼 옛날이야기건만 백문이 되어도 잊을수 없다면서 책상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치녀는 이야기를 끊었다. 얼굴에는 침뚫한 빛이 어렸다.

《그날밤 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잠도 못자고 모태기였어요. 지금까지 가치고있던 자신의 생각을 다시 검토하였지요. 우리가 늘쌍 그렇게 궁벽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해온 이 교향땅에 당파 원수님의 따뜻한 해별아래 새로운것이 움트고있었거든요. 우리는 강냉이, 감자, 산채와 산과실 가공품을 나라에 보내고 당파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평생에 한술갈도 못떴다는 입쌀을 끼를 비우지 않게 보내주시지요! 어더서부터 나는 마을을 짝 돌리싼 산밭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 커서 날개를 달고 저 산벼랑을 넘어 훨훨 날아서 흥성거릴 대도시나 공장으로 가서 살아보나 생각했는데 그 꿈에 금이가기 시작했어요.

원수님께서 이 <하늘아래 첫동네> 인민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시려고 극진히 보살펴주시는데, 우리 이 교장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제고장을 꾸릴 생각은 않고 다 등지를 털고 날아간다면 누가 수령님의 뜻을 펴서 우리 교향을 락원으로 꾸리겠어요. <우리 교장은 벽지니까 좀 뒤늦게 공산주의락원으로 들어서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수 있겠어요?!…그리하여 어느날 저녁 일기책에다 <나는 이 교장에서 공산주의노을을 맞이하리라!>이렇게 결심을 적어넣었지요.…」

치녀의 얼굴은 사과알처럼 붉게 댕다.

어찌면 그의 꿈은 나의 생각과 신통히도 같은가! 나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뜻과 빛을 따라 지난날은 이 나라에서도 가장

궁벽하고 락후했던 우리 《하늘아래 첫동네》인민들과 더불어 약진하는 조국의 맨 선두에 나서서 공산주의대문을 열어제끼고야말리라고 굳게 속다짐하고있는티이었다. 이것은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전사로서의 나의 일생의 념원이며 사업인것이다. 그렇다면 이 처녀는 얼마나 미더운 나의 길동무인가!...

《웁소. 명숙동무! 동문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는 말을 못이겼다. 그의 참된 마음을 찬동할 말이 나에게는 더 없었던것이다.

《아이참, 아바이두, 그야 당연한 생각이죠 뭐...》하고 처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후 <그렇다면 나는 조국을 위하여 이 고장에다 무엇을 해놓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푼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당정책시간에 담수양어를 발전시킬때 대한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전달받았어요.

원수님께서는 <...천해양식과 담수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천해양식과 담수양어는 수산물의 자원을 확고히 조성하고 수산업의 계절성을 극복하여 높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며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해양식과 담수양어를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동서해안에는 넓은 천해와 간석지들이 있고 이르는곳마다에 저수지와 호수가 많으며 하천이 흐르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리한 자연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양식, 양어를 빨리 발전시켜 앞으로 여기에서도 수산물의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문득 우리 고향에선 양어를 할수 없을가 하는 궁리가 들었어요. 글썄 평생을 두고도 생선꼬리 하나 구경못했다는 이 두메산골 사람들에게 아침저녁으로 필필 뛰는 생선을 잡숫게 한다면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쿵 뛰여서 저는 그날 종일 깊은 생각에 잠겼댔어요. 그때부터 저는 양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에는 삼등에 가서 한달동안 실습도 하고요...

그리하여 고향에 남은 제가 글썄...공산주의는 교사하고 사회주의 락원도 채 완성하지 못했는데 뜻을 꺾다니...그날밤 뒤동산에 앉아서

지난날 회상기연구모임에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를 가지고 토론을 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것을 회상한 나는 고만한 일에 동요한것이 스스로 부끄럽고 화가 나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어요. 산아래마을에서는 마치 내가 마음을 바로잡은것을 반기기나 하는듯이 집집의 등불들이 다정하게 깜빡이었어요. 그러자 저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더욱 화가 치밀어 걸딜수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마을로 내리달렸어요....

처녀는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듯이 고개를 숙인다.

<암, 그러면 그렇겠지! 명숙이가 손을 들었을수야 있는가!...>나는 속이 후련하였다.

<참 용하오! 그래 그후는 어떻게 되었소?>

<그렇지만 그후에 전 또 어리석은 짓을 했다니깐요...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할 대신에 그밤 그길로 지혼자 삼과, 팽이를 메고 천개 천기슭의 미리 점찍어둔 곳에 가서 새끼고기를 넣어 기를 못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매일밤 농장일이 끝나면 어머니에겐 민청에서 야간작업한다고 속이고는 몰래 나가서 파곤했지요. 한 보름 지나니까 몸이 축갔어요. 그렇지만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끼고기 기를 못을 파고 다문 몇마리라도 몰래 길러내서 래년엔 관리위원장아저씨의 고향을 쥐고야말겠다는 웅색한 생각에 잡혀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밤 웬 사람이 구덩이의 흙무지우에 나타났어요. 민청위원장동무였어요. 글쎄 어머니가 밤마다 웬 작업이냐고 알아보러 찾아오셨더라는 거야요. 위원장동무는 나더러 무슨 일이냐 내라는 거야요.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대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할수 없었지요. 민청원이 동맹앞에 감출 일이 있느냐 하는걸요 뭐, 시들하게 사연을 말했더니 뜻밖에도 그 동문 그만 무릎을 탁 치면서

<아니, 그런 굉장한 문제 왜 벌써 조직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소? 동문 참 독선주의자요.>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쎄 독선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땀이었고 조직성이라곤 없었지요. 그후 민청원들의 지지를 받구 리당위원장아바이도 저의 계획을 찬성하셨기때문에 관리위원장아저씨두 아직 찌뿌둥한 얼굴이었지만 하여튼 금년에 우선한 초롱 갖다가 키워보라구 반송낙이 되어 이렇게 떠났답니다. 어쨌든 우선 금년에 한 초롱을 키워서 명년에는 팔따시 같은 잉어를 잡아



내기만 하면 그땐 아마 우리 관리위원장아저씨두 눈이 둥그래서 생각을 다시 할거야요. 그렇게 되면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수지에 넣어 기를수 있을테지요. ...일년 밀지기는 하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절부절못하였다. (일이 잘못됐군. 그 좋은 계획을 일년 밀지다니. 아니 고쳐야지...)

《아니, 일년 밀저서야 되겠소. 명숙이, 이 일은 곧 고치도록 하자우!》

《네? 고치다니요?...》

(아차 실수했구나!)나는 불쑥 나온 나의 말이 실수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명숙이는 아직 별다른 눈치를 못챈 모양이다. 나는 슬쩍 말을 돌렸다.

《명숙이, 난 동무의 계획이 꼭 성공되리라고 믿소. 암 되구말구! 지성이면 감천이라우!》

《고마와요, 아바이!》

《그런데 명숙이, 난 아까부터 이런생각을 했소. 동무의 그 양어 계획을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도입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말이요...》

《뭐요, 아바이? 전체 군에라구요?!...》

처녀는 손뼉을 탁 치면서 발딱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어떤 생기와 환희의 불꽃들이 눈동자에서 튀긴다.

《아바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두 그런걸 생각했었어요!》

《아 그럼 왜 벌써 군에다 제기하지 않았소?》

그러자 처녀는 시무룩해지더니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 아직 우리 동네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군에까지...》

《원 동무답지 않소. 그래 명숙이, 우리 군에 저수지가 몇개나 되는지 아우?》

《여라문개 되잖을가요?...》

《웁소, 열두개요. 동무네 천개리의것이 제일 작지. 그래 여기서 고기를 기른다면 얼마나 고기를 낼가?》

《매년 수백톤, 아니 천톤은 더 낼거야요!》

《그렇게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아침저녁 생선국을 먹구두 공장을 하나 더 세워야겠군!》

《공장이라구요?》

《암 통졸임공장을 만들어서 우리〈하늘아래 첫동네〉생선맛을 좀 보시오 하고 온 나라에 보낼수 있을게 아닌가 하하하...》

《호호호, 아바이두 참...》

이리하여 우리는 인민들에게 사철 고기를 벌구지 말라고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굳진체의 양어계획을 트의하게 되었다.

...

### △ 어휘 및 표현

○ 어이(가) 없다. 하도 엄청나거나 기가 막히서 뭐라고 말할수 없다.

○ 모래성을 쌓다. 《밀뿌리가 든든하지 못하거나 짜임이 허술하게 되어있어서 쉽게 무너지거나 허물어지다》를 비겨 이르는 말. 즉 《실현될수 없는 일을 하다》의 뜻.

○ 꺾먹고 알먹기. 《한가지 일을 하이 두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 허물(이) 없다. 체면을 차리거나 조심하는 티가 없다.

○ 안점부질(을) 못하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몹시 괴롭거나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 경황(이) 없다. (몹시 일이 바쁘거나 마음이 어드란가지일에 쫓리여) 어떤 면 생각을 할 겨를이나 시간적이유가 없다.

○ 혁명전적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

○ 침룡하다. (술름, 걱정 등이 심각하여) 마음이 괴롭고 구슬프다.

○ 《하늘아래 첫동네》.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산간마을을 달리 이르는 말.

○ 천해양식《수산》. 김, 미역, 조개, 물고기같은것을 얇은 바다에서 인공적으로 길러내는 일.

○ 미리 점찍어둔곳. 무엇을 하려고 미리 생각했던 곳, 미리 지정해놓은 곳.

○ 지성이면 감천. 경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있는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이루어지고 풀림》을 이르는 말.

○ 쏘살갈다. 쏘 화살과 같이 몹시 빠르다.

○ 불방석 (바늘방석). 《그 자리에 그냥 있기가 몹시 기북하고 조심스럽거나 불안한 경우에 있음》을 비겨이르는 말.

○ 맥(을) 놓다. 긴장을 타 풀다.

○ 뼈빠지게 일하다. 뼈가 휘도록 몹시 고되게 일하다.

## 해도우에 빛나는 별

바다는 고요하였다.

갑판을 휘감던 짙은 안개가 미풍에 실피여지자 크고 작은 작업선들을 현측에 거느린 가공모선 《백두산》호의 갑판우로 눈부신 해발이 쏟아져내렸다. 그 갑판우에서는 가끔 멍때한 노래소리에 뒤이어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때마다 가공모선우에서 낮게 떠돌던 짝새무리가 까만 눈들을 데룩거리며 작은 미리를 가웃거리었다. 모선우에서 한창 현장방송야회가 고조되어가고있었던것이다.

남쪽에서 날아오는 흰 구름만 봐도 반가와 여쩔줄 모르던 이곳 먼바다어로공들이 조국에서 찾아온 예술인들을 맞았으니 그들의 기쁨인들 오죽하겠는가. 어로공들은 커다란 흥분과 감격을 안고 저마다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는것이였다.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인방 새 토론자들을 불러내고있었다.

《…방금 이로진투원동무들이 강조한바와 같이 크지 않은 배 몇척으로 칫걸음을 내디딘 우리 나라 먼바다어업은 어느새 만톤급의 가공모선들과 수천톤급 탱장운반선들 그리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대형작업선들을 가지고 한해에 수십만톤의 물고기를 광광 잡아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먼바다어업이란 바다를 끼고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하고있는것도 아니며 욕망이 있다고 해서 칫척 나설수 있는 배걸도 아닙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처럼 가련차질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큰 기계배는 고사하고 바다가에 작은 동력선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형편에서 먼바다어업이란 감히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제적에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시고 일찌기 우리 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양양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설계하시여 그 믿음직한 현대적어선대를 마련해주시고 대담하게 깊은 바다와 먼바다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어로진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때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고 먼바다 개척의 길에 제일 먼저 나시는 영광을 지녔던 동해××탐색대지휘선장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천선장동무, 감격의 그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겠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송원의 정열적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선수 사다리를 타고 50고개에 들어선 사람이 성큼성큼 내려온다.

해풍에 그을고 간물에 질어 번들거리는 철빛얼굴과 수많은 눈섭 아래에서 번쩍이는 억실억실한 눈, 대양의 광풍도 한몸으로 막아설듯한 적 벌어진 가슴과 들직한 어깨며 웅철한 키...존경어린 눈길로 그를 지켜보는 어로공들의 눈동자에 비친 박천선장의 모습은 이터했다.

마이크앞에 다가선 박천우 헛기침을 뉘번 한후 걸걸한 목소리로 자기 말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를 이 높은 연단에 세워주시니 저는 저의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나라의 먼바다어업을 몸소 개척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원양개척의 선구자>라는 높은 영예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립니다.》

가공모선과 작업선들의 갑판우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인어났다. 온바다가 그대로 박천선장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격의 파도를 안고 설레이는것 같았다. 박천선장은 벌써부터 축축히 젖어드는 두눈을 제게 숨막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우리 나라 먼바다어업의 오늘을 생각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보살피심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곤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그것도 더 영양가가 높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나라일이 바쁘심에도 우리 수산부문일군들을 몸가짜이 불리주시고 여러번에 걸쳐 먼바다어장개척을 의논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지금도 제 눈앞에는 선히 떠오릅니다. 그때가 아마 10여년전인 195×년 2월하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은 날씨도 어찌 푸근하던지...》

박철선장은 감퇴어린 눈길로 늙실기리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

\*

수심 300미터까지의 동해안 전반수역에 대한 탐색을 끝내고 계속하여 대륙붕(경사가 완만한 물밑) 경사면을 따르는 어장에 대한 탐색사업에 몰두하고있던 동해수산 ××탐색대 탐색지휘선《진진》호 선장 박철은 깊은바다어장에 대한 종합자료와 앞으로의 탐색항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급히 성에 올라오라는 무전을 받았다.

입항하는 즉시로 플랜털차에 몸을 실은 박철은 달리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줄곧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를가? 깊은바다어장과 탐색항로에 대한 자료는 왜 가지고 오라고 한가?…)

그는 자기가 헤은 일들을 하나하나 머리속에 정리해보며 온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아침 일찌기 뱃스에 몸을 실고 차창밖으로 물라보게 달라져가는 수도의 거리들 황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던 박철은 문득 한곳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가닿은곳에는 《××물고기상점》이라는 간판이 걸터있는데 술한 내인들이 드나들고있었다.

방금 지나쳐버린 상점의 모습은 박철의 머리속에서 오래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는 물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높아가는 수요를 새삼스럽게 느꼈으며 사철바다를 비우지 않으며 물고기를 잡느라고 애써온 보람을 가슴호뭇이 안을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물고기발을 조금만 더 넓히자. 이제 대륙붕 경사면어장만 좀더 탐색하면 물고기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풀릴수 있다.) 뱃스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지그시 감고있는 박철의 머리속에는 새 탐색로가 열기설기 그려지고있었다.

그가 성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그곳에 낚익은 동해의 여러 선장들과 수산일꾼들이 와있었다.

그들과 수인사를 나누던 박철은 그들의 얼굴마다에 승업한 빛이 떠돌고있는것을 보았다.

수산성의 한 책임일군이 그에게 말하였다.

《박철동무,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네? 수령님께서요?!》

사철 바다에서 살면서 그 언제나 마음속에 흠모하여 마지않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소식에 박철의 가슴은 높뛰기 시작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저를 수령님께서 불러주시다니!...) 박철선장은 그저 꿈만 같아 지도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녁식사를 치르고난 박철선장은 일행과 함께 정문앞에서 기다리고있는 승용차에 올랐다.

부관의 안내로 박철의 일행은 어느 현관에 들어섰다.

일행이 긴 복도를 지나 한 방문앞에 이르자 부관은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이르고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후 부관이 다시 나와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일행은 경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방안에 들어섰다.

《다들 왔구만, 오느라고 수고들했소, 내가 갑자기 불려서 바쁜 길을 왔겠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었다.

《박철선장도 왔구만!》

수령님께서 박철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시었다.

일순간 박철의 가슴속에서는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쳤다. 그의 너무도 다정하신 말씀에 박철은 목이 막혀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행에게 자리를 권하신 다음 친근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려장을 풀면 꼭 쉬어야 하는 법인데 동무들은 변변히 쉬지도 못했겠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어느새 그들의 얼굴에 어린 피로를 헤아리시고 아버지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주시는것이였다. 밤차로 올라온 그들이였지만 그렇듯 기쁜 소식을 접하고 어찌 눈인들 불일수 있었으랴!

수령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박철은 목멘 소리로 말씀을 했다.

《수령님... 저희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부상동무, 이 동무들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나선 우리 당의 보배들이요, 당정책관철이라면 자기의 몸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 이런 동무들을 우리 지도일군들은 아낄줄 알아야 하오. 협의회가 끝나면 며칠간 쉬우면서 새로 일떠서는 거리구경도 시킵시다.》

그토록 뵈우고싶던 수령님을 만나뵈는것만 해도 파분한 일인데 그이께서 이렇듯 뜨겁고도 세심하신 사랑까지 베풀어주시니 박철의 가슴에선 그만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아까부터 참고참아오던 눈물을 끝내 떨구고야말았다.

수령님께서 친히 일을 보시는 사무실로 일행을 이끌어주시었다. 사무실 한쪽으로 직경이 실히 한메터는 뒹직한 모형지구가 놓여있고 방 한복판 책상에는 방금전까지 그이께서 보고계신듯싶은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책상가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더니 몸소 탁상등을 켜시었다. 거기에는 두터운 여티가지 책들이 가ռ히 쌓여있었다.

책상우에 있는 지도는 색깔로 보아 해도같았는데 어느 지점의 해도인지 알수 없었다. 박철은 그 해도가 자기들을 이 방으로 부르신 것과 어떤 련관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방안에 들어와서 몸들바를 몰라하며 서성거리는 수산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서는 어서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시었다.

박철은 깊은바다어장도와 탐색계획자료철을 무릎우에 올려놓고 단정히 자리에 앉았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미덥게 둘러보시고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동무들과 좀 의논할 일이 생겨서 갑자기 불렀소.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의논해봅시다.》

이렇게 허두를 메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더 가까이 나앉게 하시고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누가 한번 동해의 어장상태와 어획전망에 대해서 설명해보오.

어려워말구...》

그러자 미리 약속이나 한것처럼 일행의 눈길이 일제히 박철에게 쏠리었다.

탐색선장이 말씀드리야 한다는 무언의 권고였다.

박철선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가지고 올라온 동해어장도를 수령님께 올리고나서 동해××탄사대 배들이 새로 개척한 깊은바다어장들과 그 어장들의 전망에 대하여 수자와 사실을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령님께서는 박철의 해도를 채상가에 펼쳐놓으시고 동해어장 분포정형을 주의깊게 디듬어가셨다.

박철의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수산상의 한 일군에게 깊은바다에서의 어획고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었다.

수첩에 적으신 수자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잠시 계산하여보시던 그이께서는 연필등으로 수첩뚜껑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사색에 잠겨계셨다.

방안의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숨결을 죽였다.

수령님께서 깊은 심리에 잠겨계신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기때문이었다.

《동무들, 왜놈들은 명태를 거울 한철만 잡는 고기로 알고있었소. 그래서 그놈들은 정월보름만 지나면 <어한기>라 하면서 명태잡이를 걸어치우고 멀치나 고등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곤했소. 그러나 해방후 우리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힘으로 깊은바다어장을 개척하고 언제나 인민들이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령님의 목소리는 무기우셨다.

《우리는 얼마전에 한 지방산업공장을 보러 갔던길에 그곳 유치원에 들린 일이 있소. 산간마을 어린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다가 마침 점심시간이 되서 그 애들의 점심그릇을 볼수 있었소. 해방전에는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던 부모들은 감자와 귀밀밖에 몰랐는데 지금 그 애들은 우리 당의 혜택으로 이밥을 먹더라 말이요.》

박철은 한마디라도 능척세라 그이의 말씀을 수첩에다 적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이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먹는 찬은 고사리와 버섯이더군.

물어보니 아직도 상점에서 물고기를 팔지 못하는 때가 많다고 하오.

넓은 바다를 끼고있으면서 혁명의 대를 이어갈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서야 어떻게 우리들이 발편잡을 잘수 있겠습니까.》

그이의 안색은 흐려보이졌다. 잠시 생각에 잠기신 그이께서는 다 시금 말씀을 이으시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특히 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몇해동안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부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린 결과 이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단백질공급문제는 아직 만족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수 있는데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도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것입니다. 그러자면 바로 동무들, 수산전사들이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이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야 하겠다는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그치신 수령님께서는 이윽히 창문밖을 내다보시었다. 수도의 하늘은 별이 종종하여 유난히 반짝이였다.

박철선장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방금전에 물고기상점앞을 지나오며 자신의 작은 성과에 보람을 느꼈던것이 죄송스럽기만 하였다. 아직 새 어장개척에서 첫발자국을 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해있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가슴저리게 뉘우치게 되는 그였다.

박철선장이 이런 자책에 잠겨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짧은 년간에 물고기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는 좋은 방도를 함께 의논해봅시다.》

수령님의 말씀에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얻은 그들은 전투명령을 받은 전사들마냥 일시에 몸가짐을 바로하며 그이를 우러러 바라보았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더 가까이 나았으라고 권하시고 그들이 방안에 들어서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시했던 해도를 당겨놓으시었다.

박철은 일행과 함께 그의 적상길에 다가서며 해도우에 기입되어 있는 지명을 더듬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이름난 태평양 <天>해의 해도였다.

여러가지 색깔로 그려진 화살표들과 각종 부호들로 무엇인가 기입한 민바다해도는 마치 군사작전도처럼 보였다.

인민들의 발상을 풍성히 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커다란 작전이 이미 이 방에서 설계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빈개처럼 머리에 떠오른 박철선장은 아직 가보지 못한 민바다를 보는듯 해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너무나 생소한 바다였다.

수령님께서 해도우에 연필을 달리시며 말씀을 시작하시려는데 부관이 들어왔다.

부관은 수령님께 정중히 문건을 올리었다.

문건을 받아 글줄을 읽고나신 그이께서는

《이만하면 마음을 놓겠소. 태풍경보시에 능히 대피할수 있겠소.》라고 사색깊으신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박철선장에게 눈길을 멈추셨다. 박철선장은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박철동무, 언젠가 동무는 동무의 아버지가 해방전에 <天>해의 연안으로 물고기물 잡으러 갔었다고 했지...》

이제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재실줄로 속집작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서있던 박철선장에게 수령님의 물으심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다른 동무들의 얼굴에도 놀라와하는 기색이 어렸다.

...그것은 박철이 망금 천이 들어서였다. 울릉도 앞바다로 고등어잡이 나갔던 《광명》호는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포구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된셈인지 배에는 고기도 그물도 없었다.

선창가옆에 있는 선술집에서 한대포 한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터뜨리는 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박철은 중심어장을 남먼저 발견하고 놓은 자망그물을 왜놈의 갯짜구(건착선)들이 밀려와 마구 칼질하여 끊어버리고 제놈들이 그물을 쳤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결국 《광명》호는 새로 꾸며가지고 나갔던 그물을 몽땅 잃어버리고만것이였다.

《광명》호 고물사공이었던 박철의 아버지와 어부들은 빗더미에 울

라앉게 되었다.

선주님은 그물값을 당장 변상하라고 불같이 독촉했다.

그래서 마음먹은것이 <大>해의 연안으로 고기잡이를 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박한 생활은 <광명>호 어부들로 하여금 겨우도 다 가는 어느날 새벽, 포구에 한숨을 남겨놓고 닻을 올리게 했다.

그런데 그 배길은 끝내 무사하지 못했다.

청어를 한배 그득히 실고 돌아온 <광명>호 선원들을 붙잡은 왜놈 경찰들은 그들이 허가 없는 장사(당시 왜놈들의 통제품으로 되어있던 광목필이나 담배, 독주를 가지고 <大>해 연안어창으로. 찾아가 고급 어족과 바꾸어오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를 했다고 생트집을 걸고 그 청어를 빼앗아 료리집에 넘겨다 칼탕을 치버린 뒤에야 그들을 내놓았다.

칠창문밖에서 기다리고있던 박철은 며칠러나온 아버지의 가슴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왜놈들은 박철의 아버지가 순순히 말을 안듣는다고 해서 못매질로 그를 사경에 이르게 한후에야 내놓았다. ...

정전직후 잔교 하나 남아있지 않은 동해바다 수산사업소에서 배수리를 다그치고있던 어부들과 무릎을 마주하했던 수령님께서는 박철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며 통분해하셨는데 또다시 상기시키신 것이다.

박철은 잊지 않고있다고 말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수령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는지 알수 없어 의아한 눈길을 들었다.

박철선장의 대답을 듣고나신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달빛이 흘러드는 창문가로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환기창을 열어젖히셨다. 그러시고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오랜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배군들이 왜놈들의 성화에 못이겨 제 바다에서 고기를 못잡고 칠성판을 걸머지고 다니며 먼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온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시려는듯 말씀을 끊으시고 건너시다가 다시 자리에 돌아오시여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들은 이 하나의 사실에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있소.

당은 벌써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이 〈먼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던 잡소리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먼바다 어장을 찾아 적극적인 어로진을 벌릴 것을 결심했소!》

수령님께서는 붉은 연필로 《X》해로 가는 항로를 굵직한 화살표로 힘있게 그어주시었다.

수산업일군들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먼바다 어업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의 커다란 작전도에 붉은 화살들을 그으시며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원썩격멸에로 불리주시던 수령님께서 오늘은 먼 대양우로 항로를 힘있게 그어주시며 수산전사들을 먼바다 정복에로 불리주시는 것이다.

만리어장으로!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들먹이는 보람찬 행군길이였다.

채탄에 굴진을 앞세우듯이 탐색을 담당하고 어로활동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동해 XX탐색대 지휘선장 박철의 가슴은 더한층 부풀어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먼바다 어장 개척을 의논하시려고 자기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와서야 뚝뚝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전투명령을 받는 병사처럼 마음을 가다듬었다.

수령님께서는 박철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모든 초행길이 다 그러하지만 먼바다 어장을 찾아가는 길도 어렵울지요. 해양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X〉해로 가려면 얼음산과도 맞다들 수 있고 짙은 안개속으로 며칠씩 달려야 할 때도 있을 게라고 하더군. 그러나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자면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오. 지금 토굴속에서 번듯한 아파트와 기와집으로 이사집을 옮기고 있는 우리 인민들은 더 윤택한 생활과 풍족한 식생활을 요구하고 있소.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겠소, 삼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길이라고 생각하오. 나는 동무들이 대담

하게 결심만 하면 인민이 요구하는 이 영광의 길을 반드시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마치신 수령님께서 묻는 듯한 시선을 자기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박철은 고개를 번쩍 추켜들었다.

《수령님, 우리 탐색대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박철이 한발자국 그이앞에 나서며 자기 결심을 말씀드렸다.

《〈丕〉해를 정복합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지금 먼바다에는 청어를 비롯하여 좋은 물고기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큰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가까운 년간에 수산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먼바다에로의 출항준비를 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고 물으셨다.

박철선장은 잠깐 생각하다가 4월 하순이면 떠날 수 있다고 자기 결심을 말씀드렸다.

그가 4월에 출항하겠다고 한 것은 《丕》해의 해빙기가 그때에 가서야 끝난다는 자료를 책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먼바다출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실무적문제들을 풀어주시고나서 박철에게 다시 강조하시였다.

《박철동무, 먼바다어업이라고 해서 너무 신비하게 여기진 마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념에 의거해서 새 어장탐색계획을 세우시오. 다 작성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커다란 흥분과 새로운 결의를 안고 박철이 수도의 거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밤도 이슬하여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소집하신 역사적인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 영광스럽게도 박철이가 참가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달포가 지난 뒤였다.

그이께서는 그날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수산업의 새로운 양상을 위해서는 계절에 구애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험세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자면 중소어업, 심해어업, 제철어업과 함께 대담하게 먼 바다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회의끝에 수령님께서서는 박철선장을 비롯한 몇몇 수산일군들을 휴계실로 부르시여 먼바다어장탐색계획에 대하여 좀 들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박철의 마음은 긴장해졌다. 동무들과 구체적으로 모든것을 타산하고 면밀히 구상한때 기초하여 작성한것이긴 하지만 직접 수령님께서 보아주신다고 생각하니 긴장되지 않을수 없었다.

하나 한편으로는 자기네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거나 놓쳐버린것을 바로잡아주시리라고 생각하니 기쁨도 또한 컸다.

박철이가 펼쳐놓은 해도에는 《ㄸ》해를 찾아가기 위한 항로와 함께 첫 그물을 던져볼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몇개월간 진행할 탐색구역이 월별로 기록되어있었다.

해도우에서 점과 선을 예리하게 더듬어가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첫 탐색대상을 명태와 가재미로 선택한 기초가 무엇인가고 물으시었다.

우리 나라 수산업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낯선 바다여서 파악하지 못한 어장과 어기, 충분한 해양학적자료가 기입되어있는 해도 한장 변변히 수중에 없었던 박철은 먼바다탐색을 준비하면서 《ㄸ》해를 끼고있는 나라들의 고기잡이 조직과 경험, 그리고 이곳 어장에 와 고기잡이하는 외국어선대의 활동자료들을 묶은 세계 수산통보와 기타 수산잡지들을 많이 참고했었다. 그에 의하면 명태나 가재미가 제일 많았다.

그는 자기가 참고했던 자료와 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면 봄철에 <ㄸ>해에서는 명태나 가재미밖에 잡을수 없단말이지...》

휴계실안을 천천히 거니시며 무엇인가 깊이 사색하시는 그이의 안색은 근엄하시었다.

박철선장은 자기가 수령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깨달았다. 그의 고개는 저도 모르게 차츰 수그러졌다.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과 수산성 책임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동무들, 우리 당은 먼바다에 나가면 <고기가 많다>라고 쓰인 책자나 <丕>해는 세계 큰 어장중 하나이므로 물고기가 육실육실하다는 남의 나라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먼바다어업을 하려고 결심한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작은 해야 하오. 그러나 우리가 실정에 맞는 어구물 연구하여 새 어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먼바다에서 좋은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박철을 마주보시며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

그러나 박철선장은 수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다는 깨달을수 없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오랜 어부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동무아버지의 이야기들 들어봐도 그렇고 그걸 종합해보면 먼바다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옮겨 조직하고 대담하게 새 어장을 개척한다면 청어와 같은 고급어족을 얼마든지 잡을수 있소. 한테 동무는 봄철에 먼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온 자기 아버지이야기는 참작하지 않았소.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면 항상 중시해야 하오.》

수령님의 말씀은 박철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그이께서 왜 사무실에서 자기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배길에 대하여 상기시키시는가를 지금이야 깨달을수 있었다. 깨달음이 뒤늦은데 대한 송구함으로 하여 그의 얼굴은 화끈달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박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셨다.

《가재미나 명태도 좋지만 기왕 먼데서 잡아오는 물고기인것만큼 청어와 같은 고급어족을 많이 잡아와야 하오. 박철동무 생각엔 어땡소?》

박철선장은 고개를 버쩍 들었다. 실직한 가슴속에서는 용광로의 쇠물처럼 흥분이 끓어번지였고 슬픈 속눈섭안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수령님, 청어어장을 기어코 개척하겠습니다.》

《잘 걸심했소. 혼한 저총어족을 잡기보다는 좀더 어리울게요. 그러나 일민들이 요구하는것이 라면 아무리 그 일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부판에게 손을 내미시었다.

부판은 선뜻 종이두루마리 한개를 그이께 정중히 올리었다. 종이마리가 펼쳐지고 모든 시선이 그우에 쏟아졌다. 호기심에 불타던 박철의 눈은 불시에 커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얼마전에 수령님께서 일을 보시는 사무실에서 본 원양도였던것이다.

원양도는 그동안 모색이 많이 달라졌다. 해도에 있는 여러가지 부호들과 각이한 점들로 그려진 '원들은 그날 보지 못했던것들이었다. 박철은 그것이 해양학적자료들과 어군의 이동상태를 보여주는것임을 알았다.

박철이가 가지고있는 《Z》해의 해도에는 우리 나라 해양과학탐색선이나 수로측량선들이 아직까지 나라의 영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서 간단히 위경도와 등심선, 해안방위목표 등이 표시되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박해도라기보다 그 해역의 자연 지도에 가까운것이였다.

하지만 박철신장은 이때까지 《Z》해로 가는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었다.

어제날 아버지와 배군들은 큰 술잔들테만한 배철(라침판)하나를 가지고도 먼 비지의 바다로 돛을 올리지 않았던가!

박철은 사막에서 물을 만난 길손처럼 원양자료가 풍부히 기록되어있는 해도우에 어리움도 있고 몸을 수그리었다. 그는 자기의 항해와 어장탐색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는 모든것을 한눈에 익히려는것 같았다. 그의 심중을 환히 꿰뚫고계시는 수령님께서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연필끝으로 한 지점을 짚으시었다. 그곳은 돛을 달고 천신만고하여 찾아간 《광명》호가 청어를 잡았다는 《Z》해에서, 얼마간 떨어진곳이였다.

《동무의 아버지가 청어를 잡았다는 이 연안을 보오. 그때는 산란기였기때문에 청어가 여기 깊은 바다를 통해 연안으로 들어갔다고 짐작되는데 동무 생각엔 어떻게?》

《수령님, 우리 나라 동해바다에 매해 수십만돈씩 밀려들어오는



명태, 도루메기를 보아도 이것들은 깊은 바다에 분산되어있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연안 가까운곳에 와서 군집합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끝나면 다시 깊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장소를 탐색하여 초어기의 어르성과를 부쩍 높이군합니다.》

《먼바다에 가셔도 우리들은 바로 그 군집해있는 고기떼를 찾아내야 하오. 박철동무, 1차탐색지점은 바로 여기로 정합시다.》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붉은 연필을 힘있게 놀리시였다.

확신에 차신 손이 움직이시며 따라 해도우에는 붉은 오각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도우에 나타난 붉은 별, 그것은 박철에게 등대처럼 생각되었다. 박철은 어서 빨리 날아가 별이 빛나는 해구에 후리를 던지고싶은 욕망이 불같이 솟아올랐다. 그 별을 어찌 해도우의 별이라고만 하겠는가! 그것은 창파를 헤가르며 달리는 우리 어부들의 앞길을 사시장철 밝혀주는 등대이며 우리러 흥모하여 마지않는 아버지수령님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손길인것이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바다에서 살다싶이 해온 박철은 아버지의 쓰라린 과거생활과 오늘의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터였다.

그러나 그는 노동계급의 눈으로 바다를 보지 못하였음을 오늘처럼 때에 사무치도록 느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박철은 해도우에 빛나는 붉은 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새 배를 받고 먼바다 출항준비를 다그치느라고 바빠 돌아치던 박철선장은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물부리를 입에 물고있었다.

투쟁한 보람이 있어 이제 몇시간후이면 청다운 파도소리가 쉬임없이 들터오는 조국의 기슭과 인사를 나누며 《X》해에로 어장탐색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었다. 평상시에는 무심히 스쳐보내던 조국의 하늘과 땅이 오늘은 류달리 정겨웠다. 언제보나 정답고 아름다운 고향의 포구였다.

조타실의 항해기구들을 다 살펴보고난 그는 창문을 열어제꼈다. 시원한 해풍이 조타실로 밀려들어왔다.

함모금이라도 맑은 조국의 대기를 더 마시고 가려는것이였다. 박

철은 깊이 심호흡을 하며 수평선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넘실거리는 물결우에 방금 솟아오른 둥근 해가 그들의 앞길을 축복이라도 하는듯 천만의 황금구슬을 뿌리고있다. 해쫓는 하늘로 한 무리의 흰 갈매기가 서서히 날아오른다. 그것은 마치 어서 가자고 박철의 출항을 재촉하는듯싶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오는 어부들에게도 해빛 뛰노는 바다의 해돋이는 언제봐도 가슴을 후련케 한다. 이제 달리가야 할 배길을 더듬으며 취한듯 해쫓는 바다를 바라보고 선 박철선장의 구리빛얼굴은 불그레 상기되어있었다. 바다의 랑만이 주는 희열때문에서가 아니였다.

만약 이때 명상에 잠긴 그의 모습을 발견한 신문기자가 재빨리 다가와 그에게 먼바다 첫 출항을 앞두고 무엇을 보고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먼바다 물고기를 그득히 실고 만신기를 휘날리며 조국으로 돌아오는 원양어선대의 자랑찬 모습을 보고있다고 시슴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부두가에서 터져오르는 환성소리에 박철은 명상에서 깨어나 고개를 돌렸다.

먼바다로 떠나는 박철네를 바래우려고 잔교끝에 나와있던 환영 군중들이 부두가로 밀려가고있었다.

박철은 멍하니 그쪽을 바라보다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재빨리 선장실을 뛰쳐나왔다.

수령님께서 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는 바쁘신 길임에도 박철네가 오늘 먼바다로 진출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찾아오신것이다.

그이께서는 부두가에 이르시여 차를 멈춰세우시고는 천천히 내리시며 수령님을 우러러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박철선장은 한달음에 배전을 뛰어넘어 부두가로 달려나갔다. 그의 선원들과 뜨랄선어부들이 뒤를 따랐다.

포구의 배들을 주의깊게 살피시며 잔교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물결속에서 박철을 알아보시고 걸음을 멈추셨다.

《박철동무, 그동안 건강했소?》

《비...》

《큰일을 준비한 귀한 손을 한번 쥐어봅시다.》

해풍에 그 손 검실검실한 철색종은 얼굴과 정복 상의 혼술이 러질 듯싶게 벌어진 그의 가슴을 더듬으시며 두손을 어루만져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한 웃음을 만면에 띠우시었다.

《나는 동무가 먼바다탐색준비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걱정했소. 료양도 마다했다지...》

먼바다로 떠나는 동무들의 튼튼한 모습을 보니 걱정이 얼마간 놓이오.》

불보다 뜨거운 어버이수령님의 차넘치는 사랑에 박철은 솟구쳐 오르는 걱정을 참아내지 못하였다. 그의 눈귀에 맑은 이슬이 맺혀 해빛에 반짝이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잔교로 향해가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충성의 격랑이 높이 출렁이였다.

잔교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짚으시고 감회어린 시선으로 계류삭을 드리운채 공화국기를 힘있게 나뭇기고있는 항구안의 배들을 유심히 둘러보시었다.

해방전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몇년전인 정전직후에만 하여도 뜨랄선은 고사하고 번번한 통통선 한척 없던 포구였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 철근콘크리트잔교가 서고 산채같은 가공모선들과 작업선들 그리고 먼바다 정복자들이 질풍같이 몰아갈 큰 철선들과 현대적과학기제로 장비된 탐색선, 지휘선들이 파도를 타고 춤을 추고있다.

수령님께서서는 무전기, 방향탐지기, 정탐기 등의 안테나들이 조타실우로 피뢰침처럼 솟아오른, 박철선장이 탈 철선을 주의깊게 바라보시며 새 배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다.

박철이네의 배는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받들고 조선공들이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배였다.

《수령님, 너무 과분합니다.》

박철선장의 대답은 짤막하였으나 이 한마디 대답속에는 갇을길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목메인 바다사람들의 감사의 정과 높이를 재일수 없는 충성의 맹세가 담겨있는것이다.

배, 이것은 물고기잡이를 위한 하나의 생산도구이기전에 사철 출렁이는 물우에 떠다니는 어부들의 살림집이며 보금자리로 되는 것이다.

봄철이면 난류를 따라 북으로 밀려오는 고등어떼를 찾아 먼 독도 앞바다에까지 노를 저어야 했고 겨울이던 겨울대로 품삯 몇푼에 바람 세찬 신포앞바다로 찢어진 돛을 울리야 했던 박철에게 모든 생활 조건이 다 구비된 새로 받은 큰 뱃선은 리상의 배였다.

《그래 만족하단말이지...》

그이의 음성에는 아직도 무엇인가 더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 못 놓으시는 은정이 풍기고있어 바다정복자들의 목을 더욱 매이게 하였다.

《박철동무, 당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사철 풍파와 싸우는 동무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소.

앞으로 먼바다어업을 본격적으로 하자면 배를 더 크게 만들고 장비도 더 훌륭히 갖추어놓아야 할거요. 그래야 그 어떤 폭풍이 불어도 안전하거던.》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훌륭한 배를 마련하여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버이심정으로 먼바다로 처음 떠나는 이들의 안전을 심려하시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수령님,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준 배는 아주 든든하기때문에 그 어떤 폭풍이 불어도 극복할수 있습니다.》

한없이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박철선장은 힘차게 말씀울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을 돌아보시고 먼 바다로 떠날 배를 좀 돌아보자고 하시며 선창 《진진》호에 오르시었다.

재빨리 갑판에 정렬해 서는 《진진》호 선원들의 눈같이 흰 정복이 아침 해빛에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는것은 수령님께서 몸소 자기배 배에 오르신다는 크나큰 감격과 행복으로 하여 번쩍이는 그들의 눈들이었다.

제대군인인 갑판장이 배진을 넘어서신 수령님께 힘찬 목소리로 대렬보고를 울리었다.

그이께서는 만족하신 기색으로 갑판에 정렬한 먼바다개척자들의 튼튼한 모습을 둘러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여주시었다.

《모두 꼴꼴한 젊은 청년들이구만, 바다는 청년의 활무대요. 미국놈들은 우리 나라를 제터미로 만들어놓고는 100년이 걸려도 추서지 못하리라고 떠벌였지만 동무들은 벌써 우리 나라 평화의 한계를 넘어 먼대양으로 나가교있소. 이것이 바로 조선의 천리마요.》

수령님께서는 호탕히 웃으시였다.

집에 탄은 충분히 마련해났는가, 배에 싣고가는 부식물은 어떤것들인가, 먼바다에 나가 학습할 자료로는 어떤 책들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것들을 일일이 물어주시며 차례차례 선원들의 손을 잡아주시던. 오이께서는, 대렬끝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배안의 막동이인 꼬마가 대렬 맨끝에 서있었던것이다.

뜻밖에 차례진 과분한 영광으로 하여 입을 열지 못하고 서있는 꼬마의 심정을 심분 이해하면서도 박철선장의 두터운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박철은 종내 참지 못하여 한걸음 나서며 그를 대신해서 말씀을 올렸다.

《2년전에 수산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탐색대에 배치되어왔습니다. 기본임무는 취사원이며 항해기술을 배우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몸이 다부지고 혈색이 불길 불길한 꼬마를 치하하시고는 잠자리를 보자고 하시였다.

시창으로 흘러드는 아침해살로 하여 그러지 않아도 밝던 선원실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더욱 밝아졌다.

침대는 좌우측에 2층으로 배여있고 침대마다에는 것을 단 꽃이불과 베개들이 차목차목 놓여있었다.

베개모에는 흰 파도우를 유유히 나는 갈매기 한쌍이 색실로 수놓아져있었다.

침대사이 선원실북판에는 노르스름한 색칠을 한 책상이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진달래나무가 심어진 흰 도자기화분이 놓여있었다.

화분의 진달래에서는 싱그러운 봄향기가 풍기는듯싶었다. 양지바른 산언덕에서 봄바람에 한들거리는 진달래를 바다라는 류다른 장소에서 보게 되니 더욱 정취가 풍기였다.

수령님께서는 화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가 꼬마침대로 걸음을 옮기셨다. 꼬마의 침대는 선수선원실 환기창곁에 있었다. 그의 이불은 햇솜을 놓았는데 두툼하였다.

침대길이와 침대사이의 높이까지 손수 재보시며 바다에서 오래동안 생활하여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는것을 확인하신후에야 만족한 안색으로 그이께서는 선원실을 나서시여 배전으로 가시더니 먼 수평선으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수원들과 《전진》호 선원들은 경건히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배전을 치는 잔파도소리만이 간간이 울릴뿐 갑판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통같이하는 강물에 흘러내리는 얼음장처럼 바다를 덮으며 흘러내리는 얼음산과 <天>해의 고유한 질은 안개, 그리고 불시로 들이닥치는 광풍과 그 뒤를 따르는 사나운 파도... 쫓처럼 길들지 않는 이 대양을 한마일 두마일 정복해가야 할 먼바다어선대의 배길을 먼저 걸어보십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조국의 싱그러운 봄을 두고 아직 겨울이 울부짖는 북방바다로 용감히 떠나는 이들을 더욱 따뜻이 껴안아주실 시간이 없음을 안타까와하십인가,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부관한테서 종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박철동무, 이 원양도를 가지고 가오, 여기에는 <天>해의 해양학적자료들과 중요 어족들에 대한 월별 회유로가 다소 기록되어있소. 참고가 될거요.》라고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원양도였다.

박철은 싯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미뭇거렸다.

이 원양도가 우리 나라 먼바다어업의 첫 설계도라고 생각하니 싯뜻 나서게 되지 않았다. 먼바다어업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별들마저 조르는 깊은 밤에도 탁상등아래에서 수십, 수백권의 책장을 넘기시며 금을 긋기도 하시고 한 어부의 불행한 배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해당부문일군들과 수산과학자들, 심지어 근대력사가들까지 친히 부르시여 먼바다배길을 설계하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뚜렷이 떠올라 박철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하였다.

《어려워말고 가지고 가오. 그리고 이것은 태풍을 만났을 때 리용할수 있는 대피지들의 항박도요. 처음가는 바다길이니 건강에 꼭 주의하오.》

수령님의 말씀이 계속됨에 따라 그의 걱정은 더욱 더 높아가기만 하였다.

수령님께서 손수 그의 손에 해도와 항박도를 쥐여주시자 박철은

그이상 참아내지 못하였다.

《수령님!》

량불을 따라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는 흠칠남도 못하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원양도와 함께 가슴에 꼭 품겨져있는 항박도가 자기에게 오기까지에는 이루 형언할수 없는 사랑의 토정을 거처왔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철헌장이었던것이다. 비록 그는 몇분후 파도 칠씩이는 조국의 해안을 뒤에 두고 수천수만리의 먼 바다로 떠나가지만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햇빛아래에서 살게 된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깨달음이 커질수록 먼바다어장을 반드시 개척하리라는 신심과 용기가 그의 가슴속에서 더욱 굳어졌다.

배에서 내리시려고 걸음을 떼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선원실에서 진달래 화분을 보는 순간 생각되는바가 많았소. 먼바다에 가셔도 조국의 봄속에서 살려는 이 동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소. 조국의 높은 산봉우리마저 수평선너머로 사라져버리는 먼바다에 나가 생활하게 되면 아마도 고향과 들끓는 조국의 소식들이 더욱 그리울게요. 이 문제 역시 청년들이 담당하여야 할 먼바다어업에서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요. 먼바다어로공들을 위한 조국방송을 할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수령님께서는 꼬마에게 진달래꽃을 잘 가꾸어 얼음바다에서도 붉게 피게 하라고 타이르신후 배에서 내리시었다.

그 순간 박철헌은 자기의 가슴속이 텅 빈것 같이 허전해짐을 어찌지 못했다.

《봉-》

출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는 수령님품에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서운한 생각을 몰아왔다.

《진진》호 선원들은 닻을 올릴 생각도 잊은듯 배전에 물리와 《김일성원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하여주시며 몸건강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깊이 새기며 목메여 눈귀를 적시던 박철선장은 즉시 닦을 울려야 한다는 배고동소리도, 규물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던 지휘선장의 철칙도 다 잊은듯 배전을 뛰어넘어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잔교로 달려갔다. 선장이 달려가자 배마다에서 물목이 터진듯 어로공들이 쏟아져내려왔다.

어버이수령님을 전송하고 조국을 떠나겠다는 이들의 간절한 념원을 들어주실수 없는것이 안타까우신듯 그이께서는 간곡히 타이르시였다.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하오. 그러나 어려운 길에 나시는 동무들을 바래워주려고 우정 찾아온 우리가 먼바다로 떠나는 동무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내 마음이 어떨겠소. 시간이 가는데 어서 배에 오르오.》

《수령님!》

어깨를 들먹이는 박철, 눈물에 간절한 희망을 담고 수령님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꼬마, 군중들속에 엮혀여 목이 쉬도록 환호하는 녀인들, 차마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수령님과 인민의 이 감격적인 모습 앞에서 누구면 눈물없이 바라볼수 있겠는가!

《동무들 고맙소. 그렇지만 오늘은 동무들이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겠소. 선장동무부터 올라타오.》

수령님께서 박철에게 이르셨다.

부관이 박철에게 현지지도의 다음 로정이 늦어진다고 일깨워주었다. 그제서야 이들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배에 올랐다.

탐색지휘선 《진진》호를 따라 배들은 닦을 울리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일성장군외 노래》소리가 온 부두에 차고넘치였다. 배들이 방파제밖으로 벗어져나가는것을 보시고서야 수령님께서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차는 움직이였다.

부두에 남은 군중들의 환호성은 디디욱 높아갔다. 정문을 벗어나려던 승용차가 슬며시 멎더니 수령님께서 다시 내리시였다.

환송군중들이 영문을 미처 알아차리기도전에 등뒤에서 둔중한 배고동이 울려왔다.



그제야 그들은 박철이네 어선대가 다시 항구안으로 돌아들어오며 수령님께 인사를 보내고있음을 알았다. 수령님께서 차를 세우신 것도 이때문이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하나의 숨결로 차고넘치는 부두와 바다우의 하늘은 수정같이 맑고 푸르렀다. 먼바다 개척자들은 아침해빛을 듬뿍받으며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수평선을 향해 항구를 벗어나갔다.

축복받은 먼바다 어선대의 배길을 반기는듯 흰 갈매기들이 배머리에서 훨훨 춤을 추며 날고있었다. ...

\*

\*

감격없이 들을수 없는 박철선장의 이야기는 방송야회참가자들의 심장을 크게 격동시키었다.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배려를 받은 우리의 배길의 결과가 어떠했으리라는것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ㄴ>해에서 칭이어장을 개척한 그날부터 우리 탐색대는 계속 먼바다 새 어장을 더욱 넓혀나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먼바다 어로전사들은 산채같은 가공모선들과 현대적인 작업선들, 수많은 운반선들로 튼튼히 꾸러진 믿음직한 어선대로 조국으로부터 수킬리 떨어진 공해어장에 당당히 나가 탐홍색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물고기잡이에서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H>해와 북극의 고래어장도 정복할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수산업이 만리 대양우에서 해도우에 빛나는 별을 우러르며, 선진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마음껏 나라를 펼수 있게 된것은 오직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작전되고 마련된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연단을 빌어 우리들에게 조국의 바다를 찾아주시고, 나라의 당당한 로동계급으로 키워주셨을뿐만아니라 만리대양의 정복자로까지 되게 하여주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 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일어났다. 그 소리에 화답하듯 마스트마다에서 나뭇기는 람홍색 공화국기가 더욱 기운차게 펄럭이고있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의 먼바다어업이 있고 수산전사들은 먼바다어장에 진출하여 천리마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화시할수 있는것입니다.

이 영광, 이 사랑을 두고 어찌 우리 먼바다어로공들만 어버이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먼바다에서 보내준 물고기통 받는 전체 인민들의 마음도 다름이 없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모두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로써 그이의 전사된 영예를 다시한번 자랑합니다.》

방송원의 정열적인 말이 끝나기도전에 푹푹같은 만세소리가 《ㄸ》해의 물길을 타고 멀리멀리 울려 퍼져갔다.

어휘 및 표현

- 해도. 바다와 그 밑을 상세히 표시한 도면.
- 어선대. (수산)물고기를 잡고 나르기 위하여 조직된 배들의 집단.
- 선수. 이물(배의 머리부분, 선두, 선수).
- 퐁갈이하는 강물. 강물이 세차게 굽이쳐 흐른다.
- 불시로 들이닥치는 광풍. 활의에 휘몰아치는 사나운 바람.
- 항박도. 배 미물곳을 표시한 지도.
- 수역. 물지역.
- 싱그러운 봄. 신선한 향기가 풍기는 계절.
- 해빙기. 얼음이 풀리는 시기.
- 휼철한 키. 길고 미끈한 키.
- 저층어족. 바다밑층에 있는 물고기.
- 산란기. 알을 낳거나 낳는 시기.
- 계류석을 드리우다.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매는데 쓰는 줄을 늘어지게 하다.
- 군집해있다. (사람이나 동물 등이)한군데 많이 모여있다.
- 조타실. 키를 조종하는 장치가 설치된 배안의 방.
- 물을 뿌린듯-조용하다. 아주 조용하다.
- 툭툭선. 석유판동기를 장치하여 동통소리를 내는 조그마한 배.
- 휘감던 짙은 안개가 미풍에 설피여지다. 술술부는 바람에 안개가 조금씩 흩어지다.
- 의미심장한 시선. 뜻이 매우 깊고 심각한 눈길.
- 현측에 거느리다. 배의 양옆에 거느리다.
- 대륙붕. 해안연선에서 수심 200미터의 깊이까지의 바다의 밑부분.
- 한대포하다. 큰 술잔으로 술을 한잔하다(마시다).

## 자기 위치 앞으로

### 1

우리 나라 ××지역에 새로 일떠서는 대야금기지건설장의 어느 한 중요건설대상을 맡은 ××건설사업소지배인 전창민은 말없이 창문가에 버티고 서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사업을 착수하기전에 의례히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다.

런대장지휘감시소에서 전선을 감시해오던 몸매 뻣 군대생활의 관습인지도 모른다.

창밖의 모든것은—솟아오르는 아침해도 푸른 바다도 짙은 안개속에 잠겨버리고 지붕을 채 띄우지 못한 혼선로의 트라스와 배죽이 머리를 내민 랍식기중기의 거뭇한 문짝만이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어디선지 야무진 호각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 하나가 공중으로 불쑥 솟아오른다. 기중기에 매달린 검은 그 물체—천판에는 어느덧 햇숨같은 안개가 휘감겨 돌아간다. 안개덮인 지붕판은 천천히, 갈수록 속도를 죽여가며 지붕을 향해 내려앉는다. 이윽고 트라스에 맞물리는 장쾌한 철판부딪침소리가 찌르릉! 하고 사무실의 유리창문을 두드리며 건설장의 넓은 공간으로 번져나간다. ...

창밖을 내다보고 싶던 지배인은 초조하게 자리에 와서 앉았다. 지배인의 책상우에는 용수철처럼 타래진 초록색 전화줄이 달린 다섯대의 전화기가 주렁히 놓여있다.

지배인은 그중에서 수화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기사장실에 대시오.》

지배인은 수화기를 귀에 갖다대고 다른 한손에 짙은색 연필끝으로 복잡한 선과 점이 교차된 도면우를 훑어나가는가하면 연필을 거꾸로 세워 책상우에다 짹 누르며 그 어떤 생각속에 파고들기도 했다.

수화기에서는 아직도 응답이 없다. 지배인은 못마땅한듯이 전화기를 툭툭 잡아두드렸다. 이때 손기척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키가 후리후리한 기사장이 들어섰다.

《지금 전화로 찾고있는걸이었소. 기중기문제는 어떻게 됐소?》

지배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기사장이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못마땅한 목소리로 조급하게 물었다. 기사장은 말없이 한동안 서있었다. 그는 책상앞에 있는 의자를 당겨놓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잠시 그냥 말이 없었는데 길쭉한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피로의 그늘이 저있었다.

《아직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술부장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보았으나 덜어놓고 소극적이라고 나무랄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25톤기중기 하나를 15리 밖에서 옮겨오는데 녀달이 꼭 걸려야 된단말입니까?》

지배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지배인동지도 아시다싶이 우리가 그것을 처음 접수해올 때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기사장은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다.

지배인은 주먹으로 이마를 받치고 앉아있었는데 진한 그의 두눈섭이 이그러지면서 미간에다 깊은 주름살을 지어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전화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산소로건물조립작업말입니까? 언제 착수하겠느냐구요?》

지배인은 대답을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곧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양기능력에 걸려있습니다. 25톤기중기를 여기에 인입하려고 하는데 옮겨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정확한 계획날자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배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자 말없이 옷걸개에서 작업모를 벗겨 머리에 툭 눌러썼다. 그리고 양복저고리우에다 작업복을 꺼입었다. 기사장도 책상에 놓았던 사업수첩을 쥐고 자리에서 따라일어났다.

《기중기문제는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사장은 작업복을 꺼입고있는 지배인의 등에 대고 말하였다. 지

배인은 못들은것처럼 아무 말없이 문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선 기사장에게 말하였다.

《기사장동무는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있는가를 생각해봐야겠소. 중대나 소대가 아니라 한개 사단을 책임진 참모장의 립장에서 말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작업복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지르고 머리를 수그린채 빠른걸음으로 총총대를 내리기 시작했다.

건설사업소 앞마당은 늘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과 자동차들로 붐비었다. 방송위원회 기자가 방송차를 마당에 세워놓고 사무실로 달려올라가는가 하면 도면을 맡아진 설계일군들과 자제인수원들, 신문 기자들이 분주히 드나들기도 하고 경제선동사업을 위해 파견돼 내려온 배우들과 예술인들, 지원나온 사람들이 마당에 앉아 자기들의 인솔자가 사무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전창민지배인이 작업복차림에다 모자를 눌러쓰고 현판에 나타나자 대기중에 있던 운전수가 지체없이 《갱생》승용차를 발동시켜 현판에다 갖다대었다.

전창민은 차에 오르려다가 잠시 멈춰서버렸다. 사무실에서 계획부지도원이 비준문건을 들고 달려나온것이였다.

《무엇이요?》

지배인은 자동차 디딤판에 한발을 올려놓은채 뒤를 돌아다보았다. 지도원은 어찌나 급히 달려나왔던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숨을 가라앉히느라고 씨근거렸다.

전창민은 그가 내민 비준문건을 대충 훑어보고나서 그것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수표를 해주고 차에 올랐다.

《지배인동지, 몇시쯤 돌아오십니까? 아직도 비준받을 문건이 남아있습니다.》

지배인은 문을 닫으며 밖을 향해 소리를 쳤다.

《지도원동무, 밤에 봅시다.》

계획부지도원은 걱정스러운듯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보고있었다.

…자동차는 흰모래불우에 새로 다진 건설장구내길을 달리고있었다. 강철기둥들이 백사장 여기저기에 거목처럼 뿌리를 박고 서있었

다. 자동차는 그 강철기둥의 숲을 이리저리 헤치며 갈색도색칠을 한 섬청나게 큰 기둥밀을 스쳐지나갔다.

새로 아연도금을 한 교압전주탑이 해벌에 빈적거리고 아직 불을 지퍼본적이 없는 새 굴뚝들이며 탐식기중기들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올랐다. 하늘과 땅 곳곳에서 용접봉의 푸른 불빛이 빈적거리고 눈길이 닿는곳마다 오색기발이 필력거렸다.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허공에다 먼지를 말아올리며 내달리는가 하면 굴착기와 기중기차들이 포신을 추켜든 땅크처럼 육중한 몸체를 끼우뚱거리며 지나갔다. 손에 용접면을 든 나이 많은 로동자 한사람이 길을 내주느라고 길가에 비켜서있었다. 지배인은 불시에 차를 멈춰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들었다.

《아바이, 그새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이미 백반이 된 용접공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있다가 반색을 하며 마주 걸어왔다. 지배인은 옷사람과 나이 많은 년장자를 존대할줄 알았다.

그는 아무리 바쁜 길에도 나이 많은 이 용접공앞에서는 반드시 차를 멈춰세우고 짤막하나마 인사를 나누곤하였다. 해방직후 용광로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아낸 공로자의 한사람인 오랜 이 용접공은 년로보장년한이 지난지 이미 오래으나 거뜬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용접봉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과 마주앉으면 해방직후 용접면이 없어서 돌보기안경에다 고무신을 태워 그슬음을 울터가지고 용접을 하던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용접공들이 자외선을 받아 눈을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친히 용접면을 보내주시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상하곤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배인을 한번 찾아가자고 했네. 조용히 할 말도 좀 있고... 그런데 좀처럼 지배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로인은 마침 잘됐다는듯이 길가에 주크리고 앉아 담배를 꺼내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전창민은 난감하여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쥐었던 모자를 눌러썼다.

《급한 일이 생겨 제관직장으로 가는길입니다.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창민은 서운해하는 로인에게 거둬 양해를 구하고나서 차에 올

라앉았다.

그러나 차는 얼마 못가서 다시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한시간전에 굴착기가 와서 제관직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길을 거의 한길나마 파헤쳐 놓았던것이다. 지하배관공사였다. 거창한 이 건설장은 끊임없이 땅을 파헤치고 시시각각 지각을 변형시켜 놓았다.

지배인은 차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배관구덩이를 기운차게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가서 맥이 빠지기 시작했다. 모래판에 발목이 푹푹 빠져 걸음을 옮길수 없었던것이다. 모래판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발밑에서 사각사각 슬라크가 밟히는 새 자동차길이 나타났다. 지배인은 다시 모자와 작업복 어깨우에 용접봉의 불꽃이 내리앉는 교충용접작업장밀을 지나갔다.

건설장은 끝없이 넓다.

지배인은 바쁜 몸이었다.

## 2

25톤기중기는 건설장의 거인이다. 그와 어깨를 겨루는것은 교압전주탑과 아찔하게 새로 일떠선 굴뚝밖에 더는 없다. 그와 다정하게 속삭일수 있는것도 지나가는 흰구름과 기리기때뿐이다.

25톤기중기는 힘장수이다. 짐을 실은 60톤화물자동차도 손을 내뻗치면 장난감처럼 넘큼 들어 높은 지붕우에 올려놓을수 있다.

지배인이 이곳에 당도하였을 때 기중기는 트라스우에 첩판을 물어올려 지붕을 씌우고있었다. 지배인에게 있어서 이 탑식기중기는 결코 처음 보는 낯선 물건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며칠째 이 기중기때문에 신경을 써온 그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평범하게 대하였던 이 물체가 오늘은 그 어떤 새로운 의의를 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것이였다.

전창민은 우선 25톤탑식기중기의 거대한 몸체앞에서 알지 못할 그 어떤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힘껏 뒤로 젖히고 하늘을 찌를듯이 아찔하게 솟아오른 기중기끝을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있는것은 다만 25톤기중기의 거대한 그 위용만이 아니였다. 이 육중한 물체가 가지고있는 다른 한 측면, 신기하리만치 자유롭고 기민한 그의 움직임에 끌려들어가고있



자기 위치 앞으로

는 것이었다. 마주 보이는 지붕우에 젊은 연공 하나가 서있었다. 그는 호각파. 날랜 손동작으로 이 기대한 물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있었다.

그가 가리키는 손길을 따라 기중기는 육중한 몸을 움직여 앞으로 걸어나가기도 하고 혹은 뒤로 움쭉 물러서기도 하였다. 때로 기중기는 히공에다 팔을 휘저으며 반원을 쭉 그리다가 높은 트라스우에 문득 멈춰서기도 하였다.

기중기는 마치 감각을 가진 동물같았다.

그 거물은 마치 신호공의 손끝을 지켜보며 그의 호각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꼭마단의 길들인 짐승같았다.

지배인은 어마어마한 이 괴물을 손가락으로 조종하고있는 지붕우의 그 연공이 마치 그 어떤 신기한 힘을 가진 장수와도 같이 돋보였다.

지배인은 밑에서 철판 네고리에다 기중기고리를 물려주고있는 한 연공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기중기바출고리에다 철판고리 하나를 걸어주며 물었다.

《저 동무가 누구요? 우에서 지휘하는 저 신호공동무 말어요.》

《우리 조장동무말어요?》

얼굴에 주근깨가 약간 있는 연공은 철판쇠고리에다 바출을 매는 전창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말을 하다가 그가 지배인인줄 알아차리자 당황하여 배뺏어진 안전모를 바로잡으며 군대식으로 대답하였다.

《최영길동무입니다.》

《뭘 최영길동무라구?》

《예, 작년 가을에 우리 작업반에 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되자바람으로 말입니다.》

지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뜻밖의 대답이었다. 그가 연공경험이 불과 반년밖에 안되는 젊은 제대군인이라는것은 지배인도 알고있다.

《그런데 벌써 신호조장으로 임명됐단말어요?》

전창민은 믿기 어렵다는듯이 다시 물었다.

《우에서 누가 임명한것도 아니지요. 신호공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기중기운전공처녀들에게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행운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연공은 익살스럽게 이렇게 덧붙이고 나서 짐직한듯 스스로 낮을 붙였다.

제관조립직장에서는 연공들과 기중기운전공처녀들로 작업조를 무을 때 기중기운전공들이 마음에 드는 신호수를 선택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었다. 그것은 운전공들과 신호수간의 긴밀한 협동동작만이 어려운 설비조립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담보로 되기때문이었다.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땅에 늘어졌던 바줄이 차츰 팽팽해지던 서 지배인이 닫고 섰던 철판이 움적움적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전창민은 머리를 뒤로 제끼고 서서 공중으로 높이 떠올라가는 철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중기의 운전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배인이 쇠사다리를 물아올라 운전실문을 처음 열었을 때 안에서는 낮익은 처녀 하나가 운전대에 올라앉아 한참 기중기를 운전하고있었다. 두발이 땅에 닿지 않아 발밑에다 발판을 놓고있었으나 딱 아무지개 생긴 처녀였다. 지배인은 그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잠시 비켜 서있었다. 처녀는 물어올렸던 철판 하나를 지붕우 제자리에 내려놓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각듯이 인사를 하고 곁에 있는 걸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처녀는 지배인과 마주앉아 다음 말을 미처 꺼내지 못한채 다시 운전대에 돌아앉지 않으면 안되였다. 신호공의 호각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전창민은 쪽걸상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서는 아까 땅우에서보다 훨씬 가까이 연공들의 작업모습이 바라보였다. 안전띠로 몸을 가튼히 죄여맨 젊은 신호공이 쳐다보기만해도 어질어질한 그 높은곳에서 외나무다리와 같은 천장트라스우를 날째게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운전공처녀는 잠시도 놓칠세라 그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면서 연공의 손과 호각소리에 따라 손에 익은 능숙한 동작으로 운전대의 손잡이를 조종하고있었다. 처녀의 빛나는 두시선이 추정계기의 예민한 바늘끝처럼 연공의 손끝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육중한 25톤기중기는 엄청나게 큰 그 팔을 허공에서 획 내돌리기도 하고 연공의 호각소리가 처녀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할 때마다 기중기는 아래로 쇠바줄을 툇툇히 내리우기도 하고 위로 감아올리기도 하

였다.

지배인은 혼연히 정신을 잃고 운전공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의 빛나는 두눈!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 25톤기중기의 눈이였으며 귀여운 처녀의 귀! 그것은 장대한 이 거인의 청각이었다. 커다란 이 거물의 중추신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지배인은 이 며칠동안 자신이 어째서 이 25톤기중기의 높이와 중량과 장대한 그 체대에 대해서만 정신을 팔고 이 건물의 중추신경인 운전공처녀를 보지 못했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지배인은 오늘 하루의 행동계획을 바꾸어 잠시 만나보고 가터던 연공작업반에 놀러왔다 마술사의 체적을 휘두르는 신호공도 만나보고 이 기중기의 중추신경인 처녀운전공과 더불어 기중기이동문제를 상론하리라 결심하였다.

### 3

기중기이동문제를 풀기 위한 소참모회의는 밤10시부터 지배인실에서 시작되었다. 지배인의 제의에 의하여 제관조립직장의 연공들을 대표하여 신호조장 최영길을 포함한 몇명의 연공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지배인은 낮에 기중기운전공 순금이를 여기에 꼭 참가시키라고 당부하였으나 근무교대를 채하지 못한 관계로 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서운해하였다. 그는 낮에 작업현장에 놀러왔다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점심도 같이 나누면서 이 문제를 연공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아직 이렇다한 묘안이 나온것은 아니였으나 한가지 결심만은 뚜렷해졌다. 그것은 공사기일로 보나 로동자들의 충천하는 기세로 보나 이 기중기 하나를 이동하는데 종래대로 몇달씩 긴 시간을 소비할수는 없으며 로동자들의 힘을 잘 발동한다면 시간을 훨씬 앞당길수 있겠다는 신념이었다. 기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술부장의 제안으로부터 토의가 시작되었다. 기중기의 팔을 해체하고 동체부분을 다시 세토막으로 크게 분해하여 운반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두달로 단축할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녀달이 걸려야 된다면 시초의 제안에 비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대단한 제안이었다. 혁신적인 대담성과 과학적인 타산이

안받침된 이 제안을 기사장이 적극 지지하였다.

친참민자신도 기술부장의 이 합리적인 제안을 나무랄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당장 새 구조물 조립전투를 벌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두달 후에야 기중기를 쓸수 있다는 막연한 불만이 그의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방안에는 담배연기만이 가득차있었다.

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기창을 열어제꼈다. 이때 신호조장 최영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하고있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기중기는 포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중기 하나를 옮기는데 두달씩 걸려서야 어떻게 적과 싸워이길수 있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반대합니다.》

지배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기술부장 역시 흥미있는 표정으로 연공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기사장은 침울한 얼굴로 젊은 연공의 뺨뺨하게 일어선 앞머리를 지켜보고있었다. 기사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흥분을 억제하고 웃는 낯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할줄 알았다.

《웁소, 동무의 말이 웁소. 그러자면 문제는 더 좋은 방도가 나와야 될게 아니겠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자는것도 바로 그것ियो. 다른 방도가 있으면 내놓고 토의해봅시다.》

기사장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느냐는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신호공은 흥분을 억제하느라고 앞사람의 의자등받이를 두손으로 짊 움켜쥐고 서있었다.

《아까 지배인동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앉아 방도를 더 연구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기중기를 분해할것이 아니라 통채로 자동차에 실어옮기자는것입니다.》

《통채로?》

《네!》

《자동차에?》

《그렇습니다.》

놀란것은 기술일군들만이 아니었다. 지배인자신도 자기 귀를 의

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연공은 조리있게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25톤기중기를 한꺼번에 실을만한 큰 자동차는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통나무들을 무어 큰 때목을 못듯이 자동차떼를 못는다면 이보다 더한 물체라도 능히 실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자동차떼를 못잔말이지?》

《그렇습니다. 지배인 동지도 아시겠지만 공병들이 여러척의 작은 도하창(철선) 위에다 널판을 놓고 큰 도선판을 만들어 땅크며 포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60톤견인차 몇대로 말하자면 자동차 도선판을 만들어 실자는 것입니다.》

지배인은 그럴듯하다는듯이 감탄하여 머리를 련속 끄덕였다.

《좋아, 실는것은 그렇게 실는다치고 그 큰 기중기가 움직이는 차우에서 자빠지지 않고 서있을가?》

지배인은 흠족한 얼굴로 능청스럽게 눈을 꿈벅거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소형기중기차의 팔로 25톤기중기를 양익측에서 부축해줄수 없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심고 받침대를 세워놓듯이 작은 기중기팔들로 받침대를 만들어 따라가면서 부축해주자는 것입니다.》

《동무의 말대로 자동차에 싣고 온다는 그 15리길이 어떤 길이라는것을 생각해봤소?》

말없이 앉아있던 기사장이 불쑥 물었다. 그의 음성은 점잖았으나 그속에는 철부지의 무모함을 꾸짖는 년장자의 너그러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길이 물론 험한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이 바쁜 때 언젠로반을 댕고 침목을 갈아 때루를 놓겠습니까? 기중기앞에서 불도젤로 불직접 길을 댕으며 나가자는것입니다. 공병들이 통로를 개척하듯이 불도젤로 길을 댕으며 그의 뒤를 따라 나간다면 두달이 아니라 하루면 될것 같습니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지배인도 기사장도... 회의장은 한동안 너무도 대담하고 너무도 엄청난 발기앞에서 넋을 잃은듯싶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기술부의 어느 한 기사는 책상우에 사업일지를 펼쳐놓고 연필을 달리더니 류동상태에서의 25톤기중기의 력학적인 중심모멘트에 대한 계산수자를 인용하면서 이 제안의 부당성을 론증하였다.

《이 동무가 납득할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결에 앉았던 기사장이 주머니에서 상아물부리를 꺼내 성냥갑우에다 거꾸로 세워놓고 물체의 관성법칙과 류동상태에서의 중심모멘트의 변화과정을 짧은 연공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기사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던 기술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5톤기중기를 통채로 떠올킨다는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나는 기술적인 타산에 앞서 우선 연공동무들의 대담한 발기가 마음에 듭니다. 한번 통이 크게 대담하게 생각하고 판을 크게 벌리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술적인 난관은 연공동무들과 함께 우리 기술부가 해결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기사장의 아량있는 설명에 기울어지던 방안의 분위기는 다시 인변하였다.

결국 소참모회의는 연공들의 제안의 무모성을 론증하는 기사장의 너그러운 설명과 그 주장에 반격을 가한 기술부장의 제의로 하여 아귀를 짓지 못하였다.

#### 4

회의는 끝났으나 지배인은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는 뒤집을 지고 텅빈 사무실안을 왔다갔다하였다.

(자동차떼를 못잔말이지? 작은 도하창으로 큰 도선판을 무어 땅크를 운반하듯이 음...)

그는 문득 가렐하던 전쟁시기에 포의 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76밀리 런대포를 분해하지 않고 통채로 직접 고지우에 끌고 올라가서 통쾌하게 적을 답새우던 일이 되

살아났다.

(그때 나도 포병구분대 전투원들과 함께 런대장 견장이 달린 이 어깨우에 포신을 떠받들고 험한 산벼랑을 기어오르지 않았던가? 포와 기중기, 비록 환경과 물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직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어깨에 25톤기중기를 떠받들고 일어선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관성의 법칙, 그놈의 중심모멘트가 앞을 가로막는단말이지...?)

지배인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방안을 왔다갔다하였다.

《뚝, 뚝, 뚝...》문기척소리가 들렸다. 지배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가고 좋습니까?》

녀자의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가볍게 문이 열리면서 기중기운전공 순금이가 들어섰다. 지배인은 반색을 하며 그를 향해 마주 걸어나갔다.

《이제야 왔나? 앉소? 어서 여기 와 앉으라구.》

그는 순금이앞에 의자를 내놓았다. 그러나 운전공처녀는 의자에 앉으려 하지않고 서서 똑바로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 이제 오다가 최영길동무를 만났어요. 그 동무가 지배인동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창민은 조금 허리를 굽히고 처녀의 깜박거리는 두눈을 흥미있게 들여다보았다.

《그래 영길이가 나더러 뭐라고 하던가?》

순금이는 난처한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배인동지는 군대출신이기때문에 통이 큰 분인줄 알았더니 영답이 작고 결단성이 없다고 해요.》

《뭐? 내가 답이 작고 결단성이 없다? 하하하...》

지배인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왜 참모회의에서 기중기문제를 뒤로 미루셨어요?》

《어째서 뒤로 미루었는가구?》

지배인은 여전히 미소를 띠운채 쿵쿵히 뒤짐을 지고 방안을 돌아갔다. 그는 어쩌면 자기 집 응석꾸러기 딸애와도 같은 이 기중기운전공처녀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못내 즐거웠다.

《거기엔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알겠나? 지금 <힘의 물리적인 중심

모멘트), <관성의 법칙>이 내 앞을 가로막고있소. 그놈의 <중심모멘트>가...>

그러자 처녀는 눈빛을 빛내며 방실 웃었다.

<저도 영길동무한테서 들었어요.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반대하는 동무들은 물리학의 법칙만 알았지 인간이 그 법칙의 주인이라는 주체 사상의 본질은 모르거던요. 그래서 <중심모멘트>에만 포로돼있는거야요. 그리고도 우리더러 모른다고 오히려 깔보거던요.>

지배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래 <포로병>들이 동무들을 깔보고있단말이지?>

<지배인동지,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25톤기중기에서 나사 못하나 풀지 않고 그냥 통채로 두달이 아니라 단하루동안에 당이요 구하는 장소에 옮겨놓겠어요.>

<그런데 무슨 방도라도 있나?>

<있어요. 우리는 다람쥐원리를 리용하려고 해요.>

<뭐 다람쥐원리?>

<예.>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지배인동지는 다람쥐가 긴꼬리를 가지고 몸의 중심모멘트를 조절하고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어요?>

전창민은 입에서 물부리를 뱉아주고 흥미있게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람쥐가 회초리같은 나무가지끝에도 자유롭게 오르내릴수 있는 것은 긴꼬리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옹게 조절하고있기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다람쥐는 긴꼬리를 가지고 몸의 중심모멘트를 조절하고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

지배인은 처녀의 이야기에 그만 정신이 팔려 자기도 몰래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졌다.

<그래서 지배인동지.>

처녀는 한걸음 지배인앞으로 다가섰다.

<우리는 25톤기중기의 팔을 떼지 않고 그 팔을 리용하려고 해요. 다람쥐의 꼬리처럼말예요.>



《그렇지!》

지배인은 손으로 책상을 탕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웁아, 이렇게 말이 지, 이렇게 교예극장 배우들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지배인은 두팔을 벌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동작을 시험해보았다.

지배인은 25톤기중기를 이제는 통채로 자동차에 옮겨심고 갈수 있겠다는 흥분으로 하여 심장이 눈뛰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어떤 불안감이 불쑥 머리를 추켜들었다.

(그러다가 만약... 아니다, 아니다.)

지배인은 정색을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지배인동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되오, 그렇게는 할수 없소. 그런 위험한 기중기우에 나는 귀중한 우리 동무들을 올려놓을수 없소.》

운전공처녀는 한걸음 더 지배인앞으로 다가섰다.

《안심하세요. 지배인동지, 제가 꼭 할수 있어요. 기중기는 저의 몸과 같은거예요. 저는 자기 팔을 놀리듯이 기중기팔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어요.》

경에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난관이 제기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저하고 동요하고 물러설수 있습니까.

지배인동지! 건설을 착수하는 첫 권기모임에서 지배인동지자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혁명의 한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고말입니다.》

지배인은 갑자기 눈앞이 콰 흐터져서 창문을 향해 돌아섰다. 어둠속 여기저기에서 용접의 불꽃이 튀고있었다. 불비처럼 쏟아져내리던 용접의 그 불꽃들은 차츰 하나로 융합되면서 갈수록 커다란 하나의 불덩이로 흐터졌다. 그의 눈앞에는 트라스우들 오르내리며 기중기를 지휘하던 신호공의 모습이며 양손에 운전대를 틀어쥐고 잠시도 놓칠세라 연공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던 처녀의 빛나는 두눈이 자꾸어른거렸다. 나는 어찌서 여직 한 대오속에 있는 이 동무들조차 알지 못하고 지배왔는가?

경에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항상 군중들속에 들어가 사업해

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는가. 그는 문득 아침 기사장에게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일이 되살아났다. 그러면 여직 지휘관으로서의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공격전투시에 맨 앞장에 서고 어려운 후퇴시기에 맨 뒤에 서있었는가? 행군하는 때에는 대오 한복판에서 힘겨워하는 전사의 총과 배낭을 메다주기도 하고 부축해주기도 하였는가?...

전창민은 할 말이 없었다. 심심히 누우쳐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몹시도 가슴이 아팠다.

전창민은 그래도 자신이 로동자들을 이해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늘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도 어려움도 같이 나누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는 순금이 같은 이 건설장의 주인공들을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그들의 걸을 바람처럼 스쳐지나가기만 하였다.

오늘 아침 구내길에서 지배인을 붙잡는 용접공로인의 걸을 분주히 지나가버렸듯이 그는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몰랐다.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전사들속으로!

포병중대 전사들과 함께 76미리탄대포를 어깨로 떠밀며 벼랑을 기어오르던 그때와 같이 또다시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전창민은 돌아섰다.

《한순금동무! 돌아가서 오늘저녁은 꼭 쉬시오. 그래야 앞으로의 강행군을 보장할수 있소. 동무의 의견대로 25톤기중기를 통채로 떠옮기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늦어도 래일중으로 행군출발준비를 끝내야겠소.》

순금이 얼굴에는 감격의 파도가 물결쳤다.

《알았습니다.》

처녀는 문을 열고 밖을 나가자 2층 층계를 구슬듯이 달터내떡갔다.

지배인은 쿵쿵 계단을 울리는 그의 짙 발구름소리가 귀전에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두눈이 글썽해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5

출발준비는 해질무렵에 끝났다. 지배인은 새벽부터 기중기를 차에 싣느라고 담배 한대 피울짬도 없이 분주히 돌아왔다. 재판조립직장의 연공들이 어려운 이 사업을 직접 감당하였다.

그들뿐이 아니었다. 온 건설장이 떨쳐나와 어려운 이 작업을 도와나섰다.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꾼들이 작업의 기술적지도를 맡아 드바삐 돌아왔다. 그리하여 25톤기중기를 3대의 60톤견인차로 무어진 락걸차 때목우에 옮겨실을수 있었다. 대기하고있던 4대의 소형기중기차의 무쇠팔들이 하늘높이 솟아오른. 어미기중기의 랑옆구리를 떠받들었다. 견인차앞에는 길을 다지는 두대의 로라차가 서고 다시 그앞에는 석대의 대형볼로젤이 정렬하였다. 그리고 앞과 뒤에는 지휘차들이 서있었다. 그것은 마치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전투명령을 기다리는 기계화군단을 련상시켰다.

출발시간이 다가올수록 전장민의 가슴은 불안과 흥분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머리를 제껴 허공높이 솟아오른 기중기한끝을 쳐다보기도 하고 견인차의 고무바퀴를 발끝으로 툭툭 다쳐보기도 하였다.

출발에 앞서 지배인은 기계화 행군대오에 망라된 전체 성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준비상태를 검열하였다. 그는 행군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히 상기시키고나서 오래간만에 군대식으로 구령을 쳤다.

《자기 위치 앞으로!》

정렬했던 대오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디며 각기 제자리로 흩어져갔다.

이동방송실의 화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항일유격대행진곡이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자동차들은 벌써 발동을 걸어 부릉거리며 출발구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25톤기중기를 통채로 차에 싣어 떠옮긴다는 소문은 이미 온 건설장에 퍼져 군중들이 떼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지배인은 출발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나서 25톤기중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승용차 한대가 급히 달려오더니 그의 곁에 와서 멈춰섰다. 그것은 항상 지배인을 따라다니던 그의 승용차였다.

운전수는 출발시간이 늦을세라 차에서 뛰어내려 지배인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전창민은 그냥 차의 곁을 스쳐지나가면서 운전수에게 말하였다.

《차를 들여다 세워놓소. 나는 이제부터 이 동무들과 같이 가야겠소. 내 위치는 저기요.》

지배인은 25톤기중기의 운전실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기중기를 향해 걸어나가다가 긴장해서 기중기의 운전실을 바라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기술자들에게 무엇인가 작업 지시를 주고있는 기사장과 마주쳤다. 석양이 비낀 기사장의 얼굴은 오늘따라 몹시 수척해보였다.

전창민은 너그럽게 웃었다.

《기사장동무, 경에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꾼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처럼 언제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소. 우리 지휘관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싸우는 전사들 곁에, 전호속에 같이 있어야 하오. 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그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지내왔소.》

전창민은 기중기의 쇠사다리를 오르다가 걸음을 멈추고 밑을 굽어보며 큰소리로 웅켰다.

《기사장동무는 맨앞에 서서 불도젤로 새길을 닦으며 나가시오. 출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자기 위치에 들어서시오!》

기중기운전실에서 곧추 내다보이는 지휘차우에는 젊은 연공인 신호수 최영길이 기발을 손에 쥐고 출발을 기다리고있었다.

지배인이 운전칸에 나타나자 긴장하게 운전대를 틀어쥐고 앉았던 순금이 놀라운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소, 앉소. 나도 오늘은 여기 순금동무곁에 있어야겠소.》

《네?...》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순금의 얼굴에 감격의 물결이 세차게 파도쳤다.

운전대를 틀어진 순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준비들은 다 됐소?》

《네!》

《그럼 떠납시다.》

신호공이 기발을 휘젓자 발동기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자동차 떼가 몸을 떨었다.

《출발!》

자신만만하고 신심에 넘친 지배인의 구령과 함께 어마어마한 기중기를 실은 린길차떼가 움짙 앞으로 움직였다. 순간 건설장이 떠나갈 듯 만세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운전대를 틀어질 순금의 손은 더욱 날쌔게 움직이었다.

지배인은 문을 열고 운전탑으로 나갔다.

머리우에서 기중기팔이 다람쥐가 꼬리를 휘젓듯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거대한 기중기체의 《중심모멘트》를 조종하고있었다. 불도젤은 움짙움짙 용을 쓰면서 번뜩이는 삽날로 마치 이 땅우에 아직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들을 쓸어버리듯이 땅바닥을 고무 깔으면서 길없는 벌판우에 길을 내고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로라차가 땅을 다지며 지나갔다. 가지런히 늘어선 건인차들은 적진을 향해 밀려나가는 땅크서럴처럼 아무도 아직 밟아보지 못한 새길우에 커다란 고무바퀴자국을 찍으며 서두르지 않고 친철히 앞을 향해 움직이었다. 요란한 발동소리가 벌판의 대기를 짹 채우고 그들이 스쳐지날 때마다 대지는 무거운 바퀴에 짓눌려 몸을 떨었다.

《순금이! 무섭지 않아?》

전창민은 몸에 익은 손동작으로 능숙하게 운전대를 조종하고있는 기중기운전공 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섭지 않아요. 지배인 동지가 곁에 계시니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요.》

순금은 글썽한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 갈래의 탐조등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추었다. 건설장의 수많은 자동차들도 불빛으로 이에 합류하였다. 오가던 자동차들도 잠시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불빛을 한동안 던져주고 서야 다시 길을 떠나군하였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전등불이 환한 하나의 큰 도시가 어디론

지 움직여가는것 같았다. 지상과 공중의 곳곳에서는 무수한 용접봉의 불꽃이 밤하늘에 튀어오르고있었다. 25톤기중기를 실은 장엄한 이 행진대오는 눈부신 그 축하의 꽃보라속을 헤집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시신 강철교지를 향해 앞으로 진진하고있었다.

△ 어휘 및 표현

- 마술사. 요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드바빠돌아가다. 몹시 빠르게 돌아가다
- 답이 작다. 마음이 약하다
- 년장자의 너그러운 웃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남을 대함에 있어서 넓게 헤아려주는 웃음
- 무모함을 꾸짖다. 하는것이 어리석고 부질없음을 엄격히 지적하여 말하다
- 아귀(물)짓다. 일이나 말의 끝을 마블러 마감하다.
- 상례. 보통 있는례

# 전사들

발취

## 4

전선에 어둠이 깃들었다. 어둠은 삼시에 처참한 싸움터를 검은 장막으로 덮어버렸다. 대우의 가슴에는 밀물처럼 초조감이 밀려들었다.

세번째 공격을 치르고났을 때 중대에 남은 중장무기는 두문의 박격포와 두문의 중기 그리고 포가 망가져서 보병참호로 내려온 포병들과 그들의 저격무기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우를 괴롭히는것은 다른 문제였다.

런대의 총공격은 래일 이른아침이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각에 적들이 총공격을 하지 않고 완강한 방어선을 펴놓고있다면... 다 나쁜 경우에는 면바로 820고지를 포로 갈길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것이였다. 생짜로 두개 런대가 들어 배겨있는데 새로운 피뢰군부대까지 합세하였으니 한개 런대의 병력으로 공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울것이다. 뿐만아니라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런대는 치명적인 반타격을 받을것이고 두무령에 적의 공격력량이 쓸릴것이다. 그러면 런합부대의 작전은 배후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을것이다...

대우는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머리는 무거운 생각으로 지지들리다. 못해 마침내 천조각 만조각으로 터져나가는듯하였다.

작전참모가 왔으니 런대장이 모든것을 옮겨 결심하고 명령할것이냐고 위안을 해보았다. 사실 그러한 런대장이 실수할수야 없지 않는가! 김일성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난 투사가 아닌가.

그러나 눈앞에 닥친 너무나 어려운 정황에 생각이 미치면 다시 불안이 엄습해온다. 만일에 런대가 서둘러 공격을 개시해서 실패한다

면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만일에...그야말로 만일에 그렇게 되는 날이면 두무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는 죽음으로써도 영예를 지켜내지 못한다. 오직 혁명과 조국에 고귀한 기여를 했을 때만 조선로동당의 영예는 쟁취되는 것이다.

혁명과 조국에 해를 입히고 백번 죽은들 개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우는 자기가 놓인 너무나 기막힌 밑장을 생각하자 몸서리가 쳐졌다. 목숨을 내걸고도 혁명과 조국에 심대한 손실을 줄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바야흐로 목전에 닥친 것이었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미국놈들의 야수적인 물물과 김희연의 해사한 얼굴이 떠올랐다. 싸늘하고 이그러진 미소... 모든 복잡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매듭에는 항상 그 원수놈들이 감겨돌기 마련이었다. 천주에 한이 맺힌 원수의 얼굴을 눈앞에 그리자 스스로 주먹이 쥐여졌으며 사지가 분노로 해서 떨려왔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어느덧 보름 가까운 달이 중천에 높이 떠서 스산하게 파헤쳐진 고지를 내려다보았다.

커다란 짐재로 짊어지고 사정없이 조이듯이 대우의 가슴은 초조감과 불안에 북이였다. 그의 온몸은 아버지와 누이의 목을 눌러죽였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것들에게 참혹한 재난을 강요하고 자기들 이런 모욕과 정신적고통의 합정에 몰아넣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로 활활 불타올랐다.

대우는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났다.

《용서하지 않을테다. 이놈들!》

그는 한달음에 두무령정점을 넘어 포로가 있는 포탄상자끼로 갔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간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걸었다. 그는 지금 온몸을 사로잡고있는 극도에 이른 증오심을 그냥은 묵새길 길이 도저히 없었다.

포로는 122미터박격포탄상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있었다. 멀찌감치서 포중대 감시병이 그놈을 지켜보고있었다.

포로는 가슴에 대가리를 쓸어박고 죽은것처럼 꺾음을 앓고있더니



대우의 급한 발걸음소리를 듣자 전류가 통한것처럼 번쩍 고개를 쳐 들었다.

대우는 곧바로 그놈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포로의 얼굴을 말없이 노려보았다.

이때 대우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낼것처럼 그렇게 이글 이글 타번지고있었다.

포로의 눈은 대번에 휘둥그레지고 얼굴근육은 보기 흉하게 이그러졌다. 그는 자기앞에 딱 버티고선 인민군군관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 오지나 않았는가 더럭 겁이 났다.

《와 이러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나는 전선부대에 배치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시오. 다 말하가시오.》

포로는 와들와들 떨며 두서없는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동정을 받기 위하여 가장 슬픈 목소리를 쥐여짜는 그놈의 비인간적인 모양을 보자 대우는 더욱 격분이 치솟았으나 다른 한편 가슴이 섬적해지기도 하였다. 포로가 모든것을 다 말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번개같이 적후활동시기 금화부근에서 지지른 잘못이 떠올랐다. 흥분은 저절로 진정되었다. 이놈의 입을 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기 위하여 이놈을 어떻게 구슬려야겠다는 궁리가 떠올랐다.

대우는 자기 심중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냥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소리쳤다.

《5분이다. 5분동안에 네가 알고있는것은 모두 말해라. 5분이다.》

대우는 긴장을 풀지 않은채 팔목시계를 그놈의 코앞에 내밀었다.

포로는 질겁해서 앉은자리에서 뒤마려운놈처럼 움찔움찔하며 쩔쩔맸다.

《말하가시오. 말하가시오...》

포로는 대우의 무서운 눈길에서 조금이라도 빗서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와들와들 떨리는 목소리로 웨더마이어참모부가 기도하고있는것을 달달이 내놓았다.

적들은 월하봉과 두무령의 방어를 돌파하기 어려워라는것을 예견하고 총공격날자를 하루 연기하며 한개 포뢰군 대대와 땅크부대를 새로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땅크들은 오늘과 래일 어간에 걸쳐 도착

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공격과도가 줄어든것도 이번 작전의 변경과 관련된 하나의 전술로서 역시 정찰전이며 신경전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셈이니 그것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의혹을 품었던 것이다.

대우는 곧 감시소로 돌아와서 소대장들을 불렀다. 무겁던 머리는 말끔히 개이고 온몸에 힘과 정열이 약동하였다. 또 큰 실수를 처지른 번한 순간에 우연히 이처럼 모든 것이 훌륭하게 해명됐다고 생각하니 아슬아슬한 느낌도 있지만 어쩔지 유쾌해지기도 하였다.

소대장들이 모여왔을 때 대우는 절로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포로가 실토한바를 전한 다음 말하였다.

《이 정보와 함께 곧 포로를 후송해야겠소. 하마트면 큰일날번했다니까...런대의 공격시간을 늦추어야 하오. 한시가 급하오.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소?》

소대장들은 새로운 군사정보앞에 멍해서 서로 수근거리느라고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 무선기가 놓였던 탁자앞에 쪼크리고 앉았던 정숙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무선기를 잃어버린 뒤로는 내내 참호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싸웠는데 그바람에 얼굴이 며 군복이 흠검덩이로 해서 말 아니게 어지러워졌다.

《중대장동무》

전에없이 아무진 처녀의 목소리에 방안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다. 정숙은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높이 쳐들고 말하였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중대에는 전투원들이 부족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정숙의 제의는 방안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처녀의 당돌한 말에 모두 어리벙벙해서 잠시 잠자코들 있다가 좀 지나자 제가꿈 한마디씩 하였다.

《동무 정신이 있소?》

《들러리 서는것 하구는 좀 다르오.》

정숙은 입술을 깨물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자 한성호가 성이 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아무리 포로라 해도 그놈은 여간 악질이

아닙니다. 더구나 밤길에 녀자가 어떻게 간단말이요? 정숙동무, 쓸데 없는 소리 말구 앉소. 우리 소대에서 한명 내겠습시다.》

그는 한편으로 중대장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정숙이를 언짢은 눈길로 바라보며 단숨에 말하였다.

《2소대장동무 말이 옳소. 동무 앉으라구...》

다른 소대장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대우는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소대장들의 얼굴만 번갈아보고있었다.

《그래 2소대에서 누구를 내겠소? 뜰 준비를 시키오.》

그런데 뜻밖에도 정숙의 태도는 강경하였다.

《지를 녀자라고 같보지 마세요. 지도 조선인민군 중사입니다. 포로후송도 못한다면 제가 무슨 군인입니까?》

(자, 이것 봐라...)

대우는 새삼스럽게 정숙을 훑어보았다.

채양없는 군모밑으로 탐스러운 단발머리가 불룩이 뭉그러지나온 도리납작한 정숙의 얼굴은 당돌한 말에 비해서는 너무나 애뵈보였다. 그러나 입술은 어찌나 꼭 다물어졌던지 하얗게 질리고 눈은 어떤 힘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단단한 결심을 력력히 나타내고있었다.

이때 세포위원장인 3소대 부소대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였다.

《자신 있소? 그놈이 가다가 갑자기 달려들면 어쩔테요?》

이 질문은 정숙을 몹시 노엽혔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하였다.

《그놈은 절대로 그따위짓을 못할것입니다. 떠나기전에 미리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가지고 떠나겠습니다.》

《하하하》

《잡도리가 만만치 않소.》

《하긴 짐승들도 길만 잘 들이면 처녀들에게도 끔찍 못하는 법이야. 그놈도 짐승이나 다름게 뭐 있나...하하하.》

모두 유쾌한 목소리로 웃었다. 그러면서 한편 정숙이가 제기하는 바를 심중하게 생각해보았다.

사실 지금 중대에는 전투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태반이 부상당

하였다.

그중에서 다분 한사람이라도 떼낸다는것은 어느 소대에나 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

대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무거운 어조로 물었다.

《정숙동무, 이 포로후송은 단순한것이 아니요. 동무도 듣다싶이 전 췌대의 전투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가 여기에 걸려있소. 동무자신이 자기의 양심에 물어보오. 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겠는가?》

대우의 엄하고 그러면서도 무한한 신뢰가 담긴 눈을 보자 정숙은 눈물이 펑 돌았다. 그는 자기를 겨우 진정시키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두무령에 와서 제가 한없이 강해졌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인간쓰레기는 몇십명이라도 끌고 갈수 있습니다.》

대우는 정숙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느꼈다. 웬일인지 가슴이 격동적으로 뛰었다. 대우는 눈을 감고 생각해보았다.

과연 그렇다. 오늘처럼 조선인민이 자기 힘의 강대성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발휘한적이 있었던가?

세계력사가 경탄으로써 서술해야 할 그런 위대하고 기적적인 시대이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증땅크와 비행기와 세균무기도 포함한 각종 대량살륙무기로 무장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열다섯개 추종국가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나아가서 영원히 지구우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해 버리기 위한 세계 식민지피압박인민들과 약소국가인민들의 투쟁의 시대를 열어 놓은 이 위대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서처럼 그렇게 소박하고 평화적인 선량한 인민들의 힘이 강대함을 실증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인민에 대해서 누구나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마땅히 력사가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사의 20세기후반기를 최대의 심혈을 기울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뭉친 인민의 크나큰 힘에 대한 숭가가 되도록, 인류사의 찬란한 금자탑이 되도록 그렇게 서술하

여야 할 것이다.

아무도 그러한 인민을 갈볼수 없다. 하물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이라.

대우가 말이 없자 정숙은 원망스러운 눈매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왜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포로 한놈을 끌고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두무령은 두개 름대의 공격을 막아낼수 있습니까?》

《중소!》

대우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동무를 믿소. 특무장동무, 밤길인것만큼 그놈을 끌고 갈수 있도록 결박해주오. 그리고 정숙동무, 기관단총과 함께 정치부중대장동무의 권총을 차고 가오. 그 총은 아마 동무에게 힘을 줄지요.》

《중대장동무!》

정숙은 목매여 불렀다....

...포로를 묶는 동안 대우는 름대장앞으로 편지를 썼다.

정숙은 자기 말대로 떠나기전에 포로에게 단단히 버릇을 가르쳤는데 다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그는 포로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오히려 결박했던 포승을 풀어버렸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놈아, 걸었!》 하고 소리쳤다.

그 도그한 태도에 포로놈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되게 깨운놈보다 더 놀라시 이 밤길에 자기를 끌고 간다는 해사한 처녀의 얼굴을 떨동 떨동 바라보았다.

중대의 지휘관들은 그것을 보고 정숙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임무를 틀림없이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모장고지》를 넘어가는 그를 배웅하였다.

나고 구령

기안

밤이 이속하였을 때 2소대 엄폐호안에서는 왈차하고 비들씩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포로가 모든것을 붙였으며 그놈을 처녀무선수가 끌고 갔다는 소문은 삼시에 퍼졌다. 이야기는 진사들을 몹시 흥분시

겼다. 그래서 종일 계속된 전투의 피로도 잊어버리고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가 지금은 이야기거리도 진하자 달빛아래서 배를 깔고 누워 팔씨름판을 벌려놓은 것이다.

패권은 단연 봉선이에게 있었다. 팽홍규가 분해서 손목을 쇠쇄 돌리며 힘을 돋구어서는 세차레나 접어들었지만 봉선의의 적수가 되기는 어렵이 없었다. 씨름같으면 그냥 지다가도 어쩌다 요행수로 이기는 수도 있다지만 팔씨름이란 원래가 한번 지기 시작하면 외수없이 지게만 마련이었다.

《이제는 또 없어? 누가 또 접어들어보지...》

봉선이가 우쭐렁해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그 아낙네목소리 같이 앵앵거리는 소리로 흰소리를 쳤다.

《여기 있소.》

어둠속에 뒤집에 서있던 키 큰 사나이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아, 중대장동무!》

누가 당황해서 낮게 부르짖었다. 대우는 시치미를 뚝따고 봉선이의 마주 배를 깔고 었디었다.

대우는 정숙을 떠내보내고 질잡을수 없는 마음의 양양을 느끼며 늦도록 진지들을 돌아다니다가 떠들썩한 목소리에 이끌리어 이리로 왔다. 힘겨울 래일의 전투를 생각하면 의례 전사들을 꾸짖고 곧 차게 해야겠으나 웬일인지 그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니, 그 자신이 우선 전사들과 함께 끼안고 덩굴고 떠들고싶었다. 그래서 제잡담 봉선의 손을 덤씩 틀어쥐었다.

대우가 그러는바람에 팔씨름에는 흥미가 적어서 따로 이야기판을 벌려놓았거나 눈을 불이려던 전사들도 모조리 모여들었다. 거인전사 리봉선이와 중대장의 팔씨름은 과연 구경할만한 가치가 있기도 하였다.

《중대장동무, 그만두십시오. 저자가 여간 독심군이 아닙니다.》  
것이다.》가 은근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웁습니다. 그만두시오다.》

봉선이도 제사 사양하는체 하였다.

《흥, 그렇게 자신이 있소? 그럼 내기를 하지요.》

대우는 우정 약이 오른체해보이며 대들었다.

《내지요? …그만두지요다. 중대장동무가 저서야 우선 위신문제가…》

《팔씨름에 지면 중대장 못했지 별수 있소? 좌우간 전쟁이 끝나면 한턱 단단히 내지요.》

《정말 하겠습니까?》

《정말이 아니구!》

《그렇지만 중대장동무, 팔씨름은 군사관등급과는 상관 없지요다?》

봉선이는 자신이 만만했으므로 끝까지 이기죽거렸다.

《겉은 몹시도 많군. 이기기나 하오. 그러면 내 대렬앞에서 감사라도 주지 않으리…》

두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닌게아니라 봉선이의 팔목은 어느 사람 장판지만큼이나 실하고 묵중하였다.

《그 만만치 않은데…》

대우는 손아귀를 틀어쥐어보고 허를 내들렸다.

《자아, 중대장동무, 이진 비겁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제끼면 되오다?》

고개를 지그시 수그렸던 봉선이가 맞잡힌 손회목을 왼손으로 재쪽에 유리하게 밀어놓으며 두덜거렸다.

《거 꽤 각쟁이군. 이만하면 됐소?》

서로 팔을 공평하게 쥐느라고 한참 승강이를 하는판에 특무장이 달려왔다.

《아니, 이런 법이 있소? 특무장 몰래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인철이는 어떻게 팔씨름판을 알았는지 달려오면서부터 두덜거리더니 다짜고짜로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었다.

《자, 내가 심판이요. 내 구령에 따라서 자아, 하나, 둘…》

인철의 심판으로 서로 불공평하다고 옥신각신하던것은 해결되었다.

힘이 비슷하게 어우러진 계제를 보아 인철은 《셋!》 하고 구령을 쳤다. 순간 대우가 날세게 손회목을 안으로 잡아쥐었다. 걸보기와는 달리 강철로동에서 굳어진 그의 팔심은 여간한것이 아니었다. 만만히 여기고 접어들었다가 주인 만남셈으로 봉선이가 땀을 빼게 되었다.

《야—》

사방에서 함성이 울랐다.

그러나 봉선이 역시 장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니만큼 회복이나 꺾었다고 해서 호락호락 넘어갈 적수가 아니었다.

두사람은 군화코끝으로 땅을 파며 돌밭을 실히 반바퀴는 돌도록 뽕뽕 힘을 썼다. 고개를 쳐들었다 사러넣었다 하는 꼴이 여간 심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이라도 난것처럼 떠들어대던 구경군들도 마감에 같이 쩡쩡 용을 쓰며 돌아갔다.

결국 시작판에 회복을 꺾인것이 길정적인 타격이 되어 마침내 봉선이 지고말았다. 다시금 환성이 일어났다.

《저런, 지다니...인민군대가...》

《역시 중대장동무가 중대장동무지, 어림있나...》

《봉선이, 어디 코 좀 만져보라구...》

사방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그러지 않아도 분한 봉선은 후끈 달아서 팔을 부르짖고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태우는 딱 잡아땀다. 다시하면 진혀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틀렸어, 봉선동무는 어머니젖을 몇동이 더 먹구 와야겠어. 아직 생판 어린애구만...》

이렇게 약을 울려놓으니까 황소같은 거인이 어떻게 성이 나서 씨근거리는지 여간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밤이 이속하도록 그렇게 앉아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다.

잠시 사위가 조용해졌을 때 인철이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중대에는 연대장에게서 들은 항일빨찌산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아가고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앉으면 몇번씩 들은 이야기를 물리지도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였는데 오늘은 인철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런걸 또 자기가 목격이나 한것처럼 그럴듯하게 빈저놓았다.

《합남도 경찰부의 나까무라정부가 빨찌산은 보지도 못하고 처단당한 이야기 들었소?》

인철이는 이렇게 허두를 땀다.

《자—또 허튼소리 하는군...보지도 못하고 처단당했다니 몰래 총살당했단말이요?》



〈그런게 아니요. 동무들, 이진 심각한 이야기요. 그땐 장군님 이 몸만 들고도, 곳곳해지는놈들이 있었다오.〉

〈그게 정말이요?〉

〈그 누구요? 정말이요가 다 뭐요?...동무, 정신 똑똑히 차리고 내 이야기 들소.〉

인철이는 사뭇 서슴이 등등해서 한바탕 열을 내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까무라경부란놈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소멸》할것을 자기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있는놈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새로 팔찌산 《토벌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따져보니 첩경 자기도 걸터들 기미가 엿보였다.

그전에도 《토벌》을 잡다가 시라끼노하꼬(유골상자)가 돼서 돌아오는 동료들을 기수없이 보아온 나까무라경부는 생각하기를, 가면 죽을것은 뻔한데...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몽땅 잡아들인단말인가? 이것은 자기의 필생의 사업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것이다....이리하여 궁리를 거듭한 끝에 도립병원에 아는 의사를 찾아갔다. 남의 등을 쳐먹기에 이골이 난 나까무라경부였지만 죽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술 한상쯤 교체하는것을 주저할 줄장부는 아니었다. 그는 도립병원 의사를 고주가 되도록 먹여놓고 자기에게 진치 3개월을 요하는 중병이라는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의사는 줄지에 눈이 켜 해졌다. 보며 인민의 고향로 살이 쪼서 더할나위없이 건강한 그에게 그런 진단을 떴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경부의 술을 얻어먹었으니 모가지가 여벌이 없는 이상 그 청을 거절하지는 못하리라는것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진단서는 과장이 쓰는만큼 과장을 속일만한 갑작병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륙더라도 간장 한병을 마시고 와서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쁘고 입맛이 없고 맥을 못추겠다고 엄살을 피우라는것이였다. 나까무라경부는 흉족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새로 사온 왜간장 《깃꼬-만》이 통채로 있었는데 자기의 건강한 몸을 참작하여 만사는 붙여튼튼이라고 거의 반통이나 들이켰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굳이 진단서를 댈 필요가 없게 되였다. 한것은 간장을 너무 먹어서 생각지도 않던 배탈을 만다

뜰장 황천으로 떠나고말았던 것이다...

《하하하...》

《호호호...》

이야기가 끝나자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 그것 참 신룡한데. 정말 꾸며낸것 같이 신룡하군.》

누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감탄하자

《그 뉘기요?》하고 인척이가 등방울같은 눈을 어둠속에 굴렀다.

그러자 또다시 와그르르 웃음집이 터졌다.

《정말 그래, 장군님 이름만 듣고도 별별 기는놈이 지금도 수두룩 하거든...》

누가 또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어둠속에서 중얼거렸다.

진사들은 자기들이 그린 전설적인 강철의 령장을 모시고있는데 대해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며 끝없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떠들고있었다.

잠시후 누가 은근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너무나 많이 불렀고 또 행진조로 불러야 하는 노래였지만 이런 밤 은근하고 시정적인 가락으로 불러보는 맛이란 각별히 차분하게 마음에 안겨왔다. 진사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몸을 물결치듯 이리실고 저리실고 하민서 안타깝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의 노래를 불렀다.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치주는 기록한 자옥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대우가 감시소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련대정찰병 두 동무가 어제 련대로 올려보낸 련락병의 시체를 업고 막 감시소에 들어섰다. 련대장이 포로를 압송해오라고 보낸 사람들이었다. 정숙이와 길이가 어긋난 것이 이상하여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빨리 오기 위하여 가재봉으로부

터 끝장 분지를 깨어 두무령으로 왔다는 것이다. 도중 분지 한구석을 지나다가 적의 포사격구역에서 련락병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우는 자기가 련락병을 보내며 미리 단속을 단단히 하지 못한 것이 때가 아프게 뉘우쳐졌다. 련락병 역시 급히 보고를 가져가야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그 위험한 길을 택했다가 흉탄에 쓰러진 것이었다. 몸조심하라고 일렀다 한들 그런 전사가 자기의 일신을 넘려했으리라고는 생각할수 없었으나 그래도 막상 전우의 희생을 앞에 두고 볼 때 대우의 가슴은 저리도록 아팠다.

그는 이미 포로를 압송해보냈다는 말을 하고 정찰병들을 끝 돌려보냈다.

## 5

끊임없이 불려대던 전화도 밤이 깊어지자 잠잠해졌다. 포진지에 나가있는 군사부련대장으로부터 최종적인 련락이 온후로 감시소안은 조용하였다.

전투준비는 완전히 끝났다. 보병대대들은 밤중으로 매복지점으로 나갔고 포병들은 목표들에 묘준까지 해놓았다. 두무령쪽으로 집결한 적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하여 2대대는 820고지 북쪽 통선에 매복시켰는데 거기서 조금전에 참모장이 돌아왔다. 이제는 날이 밝기만 기다리는판이었다.

그러나 적후정찰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는 사정없이 즐달음쳤다.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심장에다 정질을 하듯이 그렇게 크게 예리하게 제각 제각 하였다. 지금은 방안이 온통 시계소리로 가득찬듯싶었다. 강표는 직구 어느 험한 벼랑을 뛰어오고있을 정찰병들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려고 안타깝게 귀를 기울였다.

벌써 1시 16분

그리고도 초침소리는 쉬임없이 귀청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고 방안을 울렸다.

달빛이 새어들어 방안은 희푸르다. 조용하였다.

찌르 찌르 찌르릉—

통신실에서 전화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 네, 계십니다. 곧 바꾸겠습니다.》

강표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 전화가 정찰소대에 나가있는 정찰참모로부터 온것임을 직감하였다.

후— 하고 안도의 숨이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송수화기를 잡았다.

《3번이요. 돌아왔소?》

저쪽에서 다급하게 보고하는 소리가 앵앵 울렸다. 강표의 낮은 대번에 찌프러졌다. 어두운 구름장이 순시에 얼굴을 덮었다.

《알겠소...》

잠시후 그는 송수화기를 턱밑으로 치뜨리고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알겠소. 그 동무들에게 휴식을 시키시오. 그리고 가지고 온 정보 보는 곧 군사부련대장동무에게 알려주오. 이제 두무령에서 잡았다는 늬름을 끌고 오면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결론을 내릴수 있을거요.》

강표는 송수화기를 놓고 자기자리로 돌아왔다. 구본수의 초조해 하는 얼굴을 보자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또 희생이 났소. 한 동무는 전사하고 한동무는 부상당한것을 겨우 업고 왔도. 피퇴군의 배치정형과 포진지의 위치를 확인했고 식당에서 사병들이 한 수작들과 전화도청을 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소. 정찰참모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은 공격은 결정적인것인데 다만 시간문제가 덜 확증됐다는거요.》

자리에 가앉은 강표는 무겁게 숙어지는 머리를 두 손으로 싸쥐었다. 군모가 떠들리고 그밑으로 은실같은 흰오리들이 눈에 띄게 반짝거렸다.

등잔에서 빠지직빠지직 하고 심지가 타들어갔다.

구본수는 무엇인가 말하려 하였으나 강표의 그렇게도 피로와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거렸다.

주저주저하는 그의 눈치를 알아채고 강표는 실례실례 고개를 내저으며 미리 제지하였다.

《알만하오. 알만하오. 말하지 마시오. 좀 생각해봅시다.》

...그의 눈앞에는 매복선에 나가 명령만 기다리고있는 전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놈들이 정말 일거에 두무령을 공격할 기도를 버렸거나 공격시간을 변경하였다면 삼두봉을 공격한다는것이 과연 무모한 일이 아니겠는가? 삼두봉릉신을 틈아오르다가 돌격선에서 흉탄에 희생되는 전사들의 얼굴이 삼삼히 눈에 밟혔다.

런대의 공격이 실패한다면 적은 그 길로 두무령을 공격할수 있을 것이다.

두무령돌파는 시간문제로 남게 될것이다. 발걸이 되기전에 매복한 대대들을 철수시킬것인가? 그러나 만일 놈들이 총공격을 들이대는 데도 런대가 제때에 배후를 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두무령은 두말할것도없이 돌파당할것이며 적은 곧장 헨리로 빠질것이다.

어느덧 강표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뿜뿜 솟아올랐다. 손가락사이로 땀줄기가 배어나왔다. 얼굴은 고열에 시달리듯이 화끈거렸다.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월하봉으로 도로 철수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는 할수 없다. 월하봉에서 얼마를 걸던단말인가? 두무령에 역량을 보충해 주면서 그렇게 앉아배긴다는것은 밀 빠진 독에 물 길어붓기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런대를 앉은자리에서 야금야금 녹여내고말것이다. 더구나 차지한 계선에서 진지방어로 이전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벌써 런락군관들이 명령서를 가지고 떠났는지 누가 알랴. 그뿐만이 아니다. 런대의 전투를 보장하기 위하여 두무령에서 청춘의 목숨을 바친 전사들의 피값을 어디서 찾아낸단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한시도 주저할수가 없다. 놈들이 예견된 총공격을 포기하거나 시간을 변경하고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매복선의 대대들은 미구에 발각될것이고 삼두봉의 적 포병들은 곧 포구를 820고지로 돌터낼것이다.

사단에다 런락하자. 런합부대의 조언을 받자...공격시간을 연기하든지 혹은...아니다. 그렇게는 될수 없다.

구본수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런대장동무, 머지 않아 날이 밝습니다. 런대의 공격시간을 늦출것을 예견해서라도 우선 두무령으로 3대대를 돌리는것이...》

순간 장표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어느정도 중요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닫고 반발적으로 책상을 툭 쳤다.

《웁소. 곧 대책을 세웁시다.》

그리고는 입술을 다물고 앞을 쓰아보았다.

그제야 구본수는 그의 얼굴에 함뿍 내뿜 식은땀을 보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군인으로서 그렇게도 피로와하는 상관을 도와주지 못하는것이 스스로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가슴을 압박당하는것 같은 무거운 생각을 가라앉혀 보려고 조용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이때 출입구에서 《들어갈만합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오.》

구본수가 대답하였다.

푸르죽죽한 미국제 군복을 입은자가 굽주린 승냥이 같이 부르르한 물결로 비칠거리며 들어섰다. 뒤따라 심정숙이가 나타났다.

장표는 벌떡 일어나고 구본수는 그 자리에 못박혀 서버렸다.

《숙아, 네가 웬일이냐?》

장표의 입에서 들릴락말락 새어나온 말이다.

기관단총을 가슴앞에 틀어쥐고 정숙이가 장표앞에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식은땀이 함뿍 내배여있었다.

정숙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입술을 감쌀며 보고하였다.

《면대장동지, 통신중대 중사 심정숙 박대우중대장의 명령으로 포로물 후송해왔습니다.》

《아니, 네가?》

장표는 허둥지둥 정숙이가 내미는 편지를 받았다.

포로 심문내용과 그간 전투정황에 대한 보고를 단숨에 읽었다.

《...》

...련대의 공격시간을 24시간 늦추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땅크들이 별관으로 기여나왔을 때 처야 할것입니다.

두무령의 전사들은 련대의 승리를 위하여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놈의 적도 고지에 올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우리의 참호뒤에는 사랑하는 전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줄들이 살아있듯이 눈앞에서 푸들푸들 뛰었다.

장표는 종이쭝지를 꼭 틀어쥐며 말하였다.

《그래 동무가 혼자서 저늬를 끌고 왔단말이지?》

《그렇습니다.》

《장하오. 장하오. 빨찌산의 딸답소. 우리 련대 전체 전사들의 이름으로 동무에게 감사를 드리오.》

순간 정숙의 아래도리가 비칠거렸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정숙은 말을 마치기 바쁘게 픽 모로 쓰러졌다.

《숙아!》

영결실에 장표의 입에서는 다시금 그전에 친말처럼 부르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서 조심조심 처녀의 총을 벗겨내고 결상우에 놓았다. 정숙의 얼굴에서는 피기가 하얗게 가시고있었다.

《너무 긴장했던것ियो. 얼른 군의소에 전화를 좀 거오. 얼른 오라고...》

구본수는 통신실로 나가려다가 말하였다.

《이자는 어떻게 할가요?》

《그자? 참모장동무가 만나보겠으면 만나보오. 나는 그자에게 볼일이 없소. 여기 중대장동무가 보낸 심문내용이 있소. 경찰자료는 확인되었소. 어서 전화나 거시오. 우리에게 이런 용감한 동무들 일이 훨씬 급하오.》

...군의소에 전화를 걸고난 구본수는 멍하니 송수화기를 든채 생각에 잠겼다. 웬일인지 뒤통수가 욱신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뒤통수는 무엇에 든든히 얻어맞은것만 같다. 정숙의 출혈은 자기판의 확포로를 무사히 끌고 왔기에 망정이지 이 문제가 사전에 토의되었다면 처녀에게 포로를 압송시키는따위 행동을 자기 자신이 마다하였으리라 하는것을 량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 처녀는 해내지 않았는가? 련대에 내려와있는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단발머리 무선수가 가릴치절한 화선에서 지휘통신을 보장했을뿐아니라 심지어는 승냥이보다 더 사나운 포로를 야밤중에 산속길을 단독으로 끌고 오지 않았는가?

본수는 그들 전사들의 힘을 자기가 푹푹히 알고있는것이나 아

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문득 언젠가 혜경이가 우정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던 말 구절들이 떠올랐다.

《...오빠가 대단히 임하고 전사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말했던지는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으나 분명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본수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두무령의 처참한 형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꼭대기에 서 있는 꼬아리가 선잠 떠올랐다.

(그걸 그 꼭대기에서 피우겠다고 했지...칠들이 없어...)

무엇때문인지 것처럼 그를 피뭉히던 전투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런 왕청같은 생각을 해보았다.

잠시후 자기가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깨달은 본수는 강하게 고개를 내지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목전에 다가온것만 같은 엄숙한 예감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

\*

배북지점에 나가있던 대대들은 날뿔기전에 철수하였다. 련대의 공격시간은 24시간 연기되었다. 사단에서 린접한 포련대의 화력으로 삼두봉에 지원사격을 조직해주겠다는 련락이 왔다.

세벽녘에는 두무령으로 한개 반땅크총소대와 자동총소대가 탄알과 수류탄들을 가득가득 메고 떠나갔다. 참모장의 제의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다.

이에 앞서 정숙이가 군의소에서 돌아왔었다.

장표는 그때 마침 박대우에게 보낼 편지를 다 써놓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방금 사단에서 련락군관이 새로운 명령서를 가져왔는데 그편에 사단정치부장의 쪽지편지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이비 추천한바 있는 대학으로 소환할 학생들을 오늘 오후 세시까지 사단으로 올려보내라는 지시였다. 그 명단 가운데는 한성호 상사의 이름도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편지에다 쓸것인가 말것인가 주



저하고있었던 것이다.

방안에 들어서는 정숙을 보자 강표는 의식적으로 《아저씨》 티를 내었다.

《너 벌써 일어났니?》

《이제는 일없습니다. 좀 놀랐기 때문에...》

정숙은 림대장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참도장동무가 심문해봤다는데 그놈이 도중에 오다가 갈겠다면서?》

《한번 못되게 노는걸 혼을 내주었더니 그 다음에는 일 없었어요.》

《그놈이 너한테 너무 혼이 나서 처녀그림자만 얼씬해도 벌벌 떤대. 허허허 속이가 대단해졌는걸.》

강표는 오래간만에 유쾌하게 웃었다.

정숙은 잠시 주뭇주뭇하다가 림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다.

《림대장동지, 전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강표는 눈을 크게 떴다.

《중대장동무가 근심할것입니다. 저를 보내면서 여간 걱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허허허, 좀 걱정해도 싸지. 어떻게 돼먹은 머릿기에 그런 승냥이를 처녀에게 끌려보낼 궁리가 났는지 모르겠어.》

《저 두무령의 무선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통신중대에 있는 예비를 돌리도록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숙이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자 강표도 어름어름할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림대장의 립장으로 돌아가 따졌다.

《아니, 동무가 정말 가겠단말이요?》

《전 가야 합니다.》

《안되오. 동무는 쉬어야 하오. 동무는 이미장한 일을 많이 하였고.》

《림대장동지, 두무령의 전우들은 피를 흘리고있습니다. 전 가야 합니다. 본래 제 위치가 거겁니다. 전 가야 합니다.》

정숙은 열에 뜬 사람처럼 되버렸다. 이에 대해 강표는 화난 사람

치념 인성을 높였다.

《안되오. 나는 보낼수 없소. 봉무는 자기 중대에 가서 다음지시를 기다리는게 좋겠소.》

강표는 딱 잡아떼었다.

《련대장동지, 아닙니다. 진 가야 합니다. 거기 동무들은 저를 기다리고있어요. 련대장동지, 진 가야 해요,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마침내 정숙이는 울먹이는 소리를 내었다.

강표의 얼굴은 긴장되었다. 그는 정숙의 표징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그렇게도 강한 힘으로 이 열악협살의 처녀를 그 격전의 고지로 부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애원 처녀의 모습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진우의 모습을 찾아본것이다. 진진숙에서 굳어진 강표의 심장은 빼개지듯 저러났고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수령의 참된 전사였던 아버지의 고귀한 피는 그렇듯 그의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던것이다.

(심동무, 보시오. 이것이 당신의 딸이요. 그런데 나는 또다시 그를 그 위험한 싸움판으로 보내리오. 심동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요? 내가 당신의 외딸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고지로 또 내보내려는것이말이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이 강표를 원망하지 않을것을 잘 알고있소. 정숙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요. 그렇지만 나는 내보내려오. 나는 그를 막아낼 힘이 없구려. 아마 당신도...당신도...아니, 당신이야말로 더구나 막아내지 못했을것이요. 하는수 없지요. 우리가 그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

강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편지끝에다 서슴없이 한성호상사를 오늘 오후 세시까지 사단정치부로 올려보내라는 말을 직어넣었다.

강표는 편지를 접으며 말하였다.

《중소. 가시오. 통신중대장에게 예비무선기를 보장해 주도록 이 르겠소.》

기뻐서 어찌할바를 모르며 감시소를 나가는 정숙의 뒤모습을 보며 강표의 입가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야릇한 경련이 지나갔다.

보아라, 조국은 어떠한 아들딸들을 가지고있는가? 이러한 인민의 위대한 조국을 감히 어떤놈들이 건드린단 말인가?

정숙이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강표는 깊숙이 고개를 숙인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정숙은 이미 떠났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불러올수는 있다.

(친구의 외딸을...친구의 외딸을...)

그는 집에 두고 온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친구와 어디선가 딸의 안위를 걱정하여 잠 못이루고있을 정숙의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그들이 만일 자기 처지에 놓였다면 그 불같은 지향을 꺾을수 있단말인가?

《아니다. 그렇게는 아무도 할수 없을것이다.》

강표는 그 아무도 인민들의 그러한 지향을 막을수 없으며 막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홀로 중얼거렸다.

△ 어휘 및 표현

- 비야흐로.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
- 목새기다. 애써 참으미 잊어버리거나 또는 아무렇지도 않는듯이 슬쩍 넘겨 버리다.
- 이구동성. 여러 사람의 말이 한입으로 말하는것처럼 같은것.
- 인간쓰레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반역자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나쁜 인간》을 욕으로 이르는 말.
- 금자담. 《역사에 길이 빛나거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리 볼수 있을만큼 크게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이르는 말.
- 어림없다. 도저히 불가능하여 어림조차 할수 없다. 어방없다. 도저히 당할 수 없다.
- 제집담. 어리 말 할것 없이 바로 향하다.
- 다짜고짜. (《다짜고짜로》형으로 쓰이어 내용이나 또는 그것이 옳고그름을 밝히지 않고) 덮이놓고 단박에.
- 욕신각신하다. 서로 지거나 양보하지 않고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다.
- 계제. 무슨 일을 할수 있도록 된 조건이나 기회.
- 중구난방. 어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는 뜻으로, 《어리 사람이 제각기 이리고 저리고 의견을 내어 말하면 하나하나 받아대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 서술이 등등하다. 기세가 등등하다.
- 첩경. (부사직으로 쓰이어) 《존히》, 《그렇게 되기가 쉽게》의 뜻을 나타 낸다.
- 등쳐먹다. 악독하고 교활한 것으로 남의 재물을 잡아먹다.
- 이끌(이)나다. 어떤 일을 하는데 길이 들어서 익숙해지다.
- 궁여지책.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생각다 못하여 내는 한가지 계책.
- 밑빠진 독에 물길어붓기. 아무리 힘이나 비용을 자꾸 들여도 물인 보람이 없는 헛된 일을 이르는 말.
- 안위. 편안함과 위험함

•장편소설•

## 력사의 새벽길(상)

박취

종 장

푸른 소나무

1

1918년의 가을, 유난히도 청명한 어느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출  
옥하시었다. 아버님과 맏동생이 태울것을 마련하여가지고 옥문앞에서  
마중하였으나 선생님께서는 타시지 않고 만경대까지 걸으시었다.  
만경대에지는 큰 경사가 난듯 온 가족, 온 마을이 떨쳐나서 마중  
하였다.

그날밤 집에는 방안이 가득차게 마실꾼들이 모였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김형직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애늬들이 감옥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치를 떨었다.

그 이튿날에는 강동에서 내동부락사람들이 배를 타고 찾아왔다.  
정진구, 허기선, 서춘보, 최석만과 영춘이, 갑돌이, 순희 등 선생님  
의 사랑을 받은 마을사람들과 제자들이 선생님의 손목을 잡고 반가운  
눈물을 흘리었다. 선생님께서도 못내 기쁨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들  
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강냉이농사가 올해도 풍작이라고 집집에서  
조금씩 모아 배에 실어보냈다. 그것보다도 조선국민회원들이 학교  
계, 향토계, 비석계를 전대로 잘 운영하며 중학교를 중퇴한 젊은 선  
생을 구해다가 다시 명신학교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들으시었다.

집에 돌아오신후 얼마동안 선생님께서는 전혀 자리에서 일어나시  
지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시었다.

강반석씨사께서는 밤낮으로 선생님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으시고  
간호를 하셨다. 하루에 세차례씩 배놓지 않으시고 약을 달이신다, 미

음을 쭈신다 갖은 정성을 다하셨다. 어디 한군데 성한데가 없는 선생님의 상처를 소금물로 씻어내실 때마다 녀사께서는 전신의 살을 지며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였으며 원쑤에 대한 복받치는 증오심으로 하여 가슴이 떨리었다.

말동생 김형록선생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출옥하신 이튿날 해 종일 어디엔가 나가서 보이지 않더니 저녁녘에 지계를 지고 돌아와서 부엌에 계시는 강반석녀사앞에 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하였다.

《아주머니, 옥고를 가시는데 두부가 좋다는군요. 이 콩으로 두부를 맛아서 대접하세요.》

녀사께서는 시동생의 정성에 가슴이 가득하셨다. 형님이 독립운동의 한길로 나선 뒤에 말없이 곳곳하게 대가정을 꾸려나가고있는 동생이었다.

부모님과 할머니, 다른 동생들과 제수며 온 집안식구들이 말없이 그리고 눈에 뜨이지 않게 병석에서 신고하시는 선생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무엇인가 그이를 위하여 구해오고 마련하고 뜨겁고 은근한 정성들을 다하여 병구완을 하였다.

그 보람이 있어서 얼마후에 선생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으시게 되었다. 차츰 지팡이를 짚으시고 가까운 바깥출입쯤은 하실수 있게 되시였다. 처음 밖으로 나가시던 날 어머니 리보익녀사께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겨웁게 걸음을 옮기는 아드님을 바라보시며 왜놈들을 저주하시였다.

《강도놈들같이니! 생사람을 잡아다가 저렇게 만들어놔?》

리보익녀사께서는 중학시절에 아드님의 건장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시였다.

어느날 아침인가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 체조와 맹수마찰을 하시고 만경대를 한바퀴 돌아오신 선생님께서서는 마당에 나와있던 동생들에게 두팔을 짝 펴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너희들이 한팔에 하나씩 와서 매달려봐라.》

형록, 형권 두 동생께서 달려가서 형님의 두팔뚝에 매달리시였다. 한데 선생님의 뻗친 팔은 철봉대처럼 끄떡도 안하였었다. 오히려 두 동생을 팔뚝에 달으시고 마당안을 땡땡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 어머니의 다심한 마음에는 아드님의 기력이 그렇게 추어설것 같지 않

은 생각이 드시여 더욱 왜놈에 대한 저주가 가슴에 사무쳤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가족들의 지성속에 날마다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되어가셨다. 선생님께서서는 굳센 의지로 병마를 극복하고 몸을 단련하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앉으시면서부터 다시는 눕지 않으셨다. 밖에 나가셔서 산과 들을 거닐으시든가, 집에 계시는 때에도 새끼물꼬시든가, 로동을 하시지 않으면 독서를 하시였다. 제일 즐기시는 일과는 남리의 산과 들을 거니시며 사색에 잠기시는 일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새벽마다 만경봉에 오르시였다. 어느덧 땅우에는 하얀 눈이 덮여있었다. 재빛으로 흐린 먼 하늘은 인제 터지게 될 모진 추위를 예고하는듯이 몹시도 음산하였다. 그러나 그 하늘을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눈에에는 그 어떤 세찬 욕망과 열정이 불타고있었다. 벌써 며칠전부터 선생님께서서는 감옥안에서 번밀하게 구상하여오신 투쟁의 새길을 떠나실 결심을 하시였다. 다만 선생님께서서는 큰치남이 빨리 와주시기를 고대하고계시였다. 출옥하시기 얼마전에 선생님께서 큰치남 강진식선생에게 전국 각지 조선국민회조직들의 형편을 알아봐가지고 만경대로 와달라는 기별을 보내셨단것이다. 출옥하여 알아보시니 큰치남은 방인수와 함께 떠났다고 한다. 돌아오면 그동안 형편을 총화하시교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새 투쟁방침을 의논한 다음 곧 행동을 시작하실 작정이시였다.

어느날 함박눈이 뽕뽕 내리퍼붓는 저녁무렵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엷으시던 책을 조용히 덮어놓으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토방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 햇숨덩어리같은 소담한 눈송이가 쏟아져내린다. 이 해 겨울에 접어들며 벌써 세번째 오는 큰눈이었다. 류달리 눈도 많이 내리는 겨울이다.

선생님께서서는 토방에 세워놓은 지팡이를 당겨잡으시자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가시였다.

남산의 푸른 송림과 갓 얼어붙은 순화강, 대동강 그리고 무연한 중화별판과 대보산, 무학산, 룡악산 줄기가 모두 하얗게 눈속에 묻혀있다.

선생님께서서는 남산기슭의 오솔길을 천천히 돌아오르시였다. 두루 마기도 안입으시고 모차도 쓰지 않으신채 함박눈을 온몸에 맞으시며 만경봉을 바라보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머리와 얼굴과 온몸에 한껏

맞아보고싶은 눈이었다. 감옥속에 갇혀있는 1년동안 차거운 담벽에 기대어 천창을 바라보시느라 바깥에 있는 그 모든것이 안타깝게 그리워지곤하였다. 천창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광경을 바라보실 때면 그 비를 온몸이 흠뻑 젖도록 맞아보고싶으시었다. 오늘처럼 평평 눈이 쏟아질 때면 똑똑 솟눈속에 발목을 물으시며 거닐어보고싶으시었다. 천창밖에 있는것이던 무엇이든지 그리웠다. 자유란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도 귀중한것이였다. 하물며 온 민족이 짙그리 왜놈들의 생지옥속에 갇혀있는것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하시었다.

어느덧 선생님께서서는 이태전에 큰치남과 만나시던 송림속 공지에 당도하시었다. 치남이 불쑥 눈앞에 나타나서 《매부》하고 걸걸한 목소리로 불려줄것만 같은 심정이시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가? 어느 산밭이나 어느 벌판을 걸고있을것인가?...치남이 그리우셨다. 선생님의 눈앞에는 잇달아 박윤환, 홍준걸, 변옥립, 김석하, 맹경재, 윤삼, 원동유, 진영태, 차거물 등 여러 동지들의 모습이 선하시었다. 시련을 겪어온 한태동안 그들의 간고한 투쟁으로 조직은 보존되었을뿐만아니라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자라난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고맙고 그리운 동지들이었다. 하루바삐 그들과 만나서 열렬하게 토론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사지를 넘나들면서 투쟁을 벌리고싶은 의욕이 가슴을 뻑차게 한다.

선생님께서서는 툇툇히 걸음을 옮기셨다. 대동강으로 떨어지는 벼랑턱 가까이에 다가서시던 선생님께서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었다. 눈앞에는 한그루의 로송나무가 서있었다. 벼랑턱 바위틈에 뿌리박고 자라난 아름답리 로송나무였다. 몇백년을 자랐을가? 외마로 벼랑턱에 자라난 그 소나무는 오교가는 모진 세월에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느라고 이리 구불 저리 구불 구부러지면서도 하늘높이 푸른 가지들 펴놓고 크게 자랐다. 거인처럼 홀로 서서 눈발속에 잠겨있는 강과 벌판과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고있는 소나무우에 눈이 쌓였다. 눈에 덮인 가지들은 힘겨운듯 늘어져있다. 눈발은 기어코 소나무를 꺾어서 물어 버릴듯이 세차게도 들이퍼붓는다.

그때 벌안간 뚜옥하는 애처로운, 무엇인가 휘어지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께서서는 고개를 드시여 나무정수리를 쳐다보시었다. 소나무



우듬지는 보양계 훑날리는 눈구름속에 휩싸였는데 그속으로 꺾어진 소나무가지가 휘익—하고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내려지더니 털썩 땅위에 떨어졌다. 선생님의 가슴에서도 무엇인가 무너져내리는것 같으셨다.

선생님께서서는 불안한 시선으로 소나무를 쳐다보시였다. 꺾어지는 소나무가지의 요동때문엔가, 아니면 분노와 투지를 가다듬어서인가 소나무는 부르르 몸을 뒸다. 소나무를 짓누르던 눈이 구름처럼 훑날리여간다. 소나무는 다시 조용해지고 눈구름은 멀리 날려갔다. 무겁게 휘어져 드리웠던 나무가지들은 눈을 털어버리고 음침한 하늘을 향하여 도전하듯이 꼳꼳하게 일어서있었다. 선생님의 두눈에는 감격의 빛이 넘쳐흘렀다.

김형직선생님의 가슴에는 까닭모를 뜨거운 감동의 불결이 흘렀다. 선생님자신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 온 겨레의 운명이 벼랑끝에 서있는 한그루 푸른 소나무의 모습에 상징되어있는것 같았다. 저 소나무가 모진 시련을 견디어내고 따뜻한 봄날을 다시 맞아 무성하게 자랄것인가, 아니면 눈서리에 꺾이여 벼랑밑에 떨어져서 아주 묻혀버릴것인가? 시련과 맞받아 싸워서 삶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그앞에 무릎을 꿇고 죽느냐 하는 준엄한 두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주는듯싶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소나무결에 다가가시여 갑옷을 두른것같은 나무밀을 한손으로 어부만지시며 눈고깔을 쓰고 휘어져내린 눈은 소나무머리를 쳐다보시였다.

《장하다, 푸른 소나무야! 참고 견디여라. 또다시 봄은 오리라!...》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입속으로 시를 읊으시듯 말씀하셨다. 눈발은 선생님의 열기어린 상기한 얼굴에, 온몸에 세차게 쏟아져내리였으나 선생님께서서는 발목까지 눈속에 묻히신채 그대로 서서 소나무를 쳐다보고계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금방 소나무가 꺾어진 자리를 발견하셨다. 분질러져나간 상처자국은 피가 흐르는듯 뻔했다. 선생님께서서는 꺾어져 떨어진 나무가지를 찾으셨다. 바로 선생님의 발밑에 팔뚝만큼 굵은 소나무가지가 쓰러져있다. 하얀 눈속에 유난히도 푸르고 싱싱한 나무가지였다. 찢겨진 가지대목상처에 역시 선혈이 흐르는듯싶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나무가지를 주어드셨다. 나무가지를 드신채 오래도록 눈발 어지러운 먼 하늘을 바라보고계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바느질손을 멈추시고 옷목을 올려다보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책상위에 책을 펼쳐놓으신채 그대로 단정하게 앉으시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시는것 같지는 않으셨다. 깊은 명상에 잠기시여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계시었다. 벽에는 《지원》이라는 두글자가 붙어있었다. 숭실학교를 중퇴하시던 해에 써붙이신것이 그대로 있었다. 종이빛은 좀 누렇게 변했으나 웅건한 필치는 그대로 약동하고있다.

녀사께서는 선생님의 심중에 또한 무엇인가 크고 세찬것이 태동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고계시었다. 말수가 적어지시고 독서, 사색 그리고 산책을 즐기신다. 명상에 잠기셨던 눈에서 이따금 번쩍하고 세찬 빛이 흐른다. 그리고 무엇을 대망하시는것 같은 표정... 남편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녀사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계셨다. 것처럼 다니고싶어하시던 중학을 중퇴하시던 때에도 그리하시었다. 바로 이태전 만경대를 떠나 강동으로 옮겨가실 때에도 그리하시었다. 조선국민회의 결성을 앞두셨던 지난해 봄에도 또한 그리하시었다. 그것은 폭풍우직전의 무거운 정적파도 같은것이라고 할가. 요즈음 사색과 독서, 산책과 명상으로 지내시는 남편의 생활은 미구에 그 어떤 단호한 행동의 폭풍이 시작될 징조임을 깨닫게 한다. 그것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그이께서 그 어디론가 투쟁의 새 구상을 안고 떠나가시는것으로 시작되리라는것도 느끼고계시었다. 녀사께서는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가슴의 뜨거운 느낌으로 그것을 예감하고계시었다. 그리하여 어느때 남편께서 갑자기 떠나시더라도 불비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며칠전부터 부지런히 남편의 옷을 짓고계셨다.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남편의 눈에 맑은 정기가 빛나고 입술이 가볍게 움직이고있었다. 불현듯 김형직선생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여보, 문갑우에서 필묵을 좀 가져다주오.》

선생님께서서는 서두르시는 빛이였다. 녀사께서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으시고 선뜻 일어서시여 버루집을 들고 책상에 다가가시었다. 선생님

께서는 때람속에 든 하얀 장지 한장을 꺼내여 책상우에 펼쳐놓으셨다. 녀사께서는 비루에 떡을 갈기 시작하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가느다란 붓을 꼴라드시고 붓끝에 떡물을 듬뿍 찍으시였다. 팔소매를 약간 걷어 올리시고 붓끝을 종이우에 겨누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시더니 붓끝을 종이우에 쿡 찍으시였다. 세찬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이 잠시동안에 여덟줄의 글이 꼬리치며 일어섰다. 떡물자국도 생신한 글발! 녀사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읽으셨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친신만고 피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산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시를 읊고계시는 녀사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였다. 자신께서 금방 시상이 무르익어 한붓으로 써놓으셨지만 안해가 읊는것을 들으시며 새겨보시니 더욱 새로운 맛이 났다. 만경봉비랑릭에서 토송나무를 바라보시며 심혼속에 사무치게 느끼셨던 크고 깊은 감정을 그대로 새겨내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셨으나 그래도 대체 뜻만은 살려낸것으로 여겨지시였다. 안해는 다시한번 읊고있었다.

《어떻소, 마음에 드요?》

다 읊고나서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녀사께서는 선생님의 물음에 천천히 고개를 드시였다. 녀사께서는 선생님의 시를 읊으시면서 자신께서 짐작하시던바와 같이 남편은 벌써 새로운 폭풍을 마렵하기 위한 구상과 결심을 다지셨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잘 지으셨어요. 저도 어느때가 청청한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던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맙소. 내가 오늘 남산을 거닐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시를 지었소. 그런데 여보.》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녀사를 바라보시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난 1년 동안과 그리고 출옥하여 지금까지 마음고생은 오죽하였으며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몸고생인들 얼마나 심하였으랴. 선생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며 아직 젊은 안해의 눈귀에 가는 주름살이 잡히고 거친 살결이 수척해진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한동안 바라보고계시었다.

녀사께서는 남편의 말씀을 기다리고계시었다. 선생님께서는 잠시 망설이시었다. 해야 할 말이 안해에게 너무도 모질고 야속한것으로 여겨지셨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였다.

《또 집을 떠나야 될것 같소.》

《인차 떠나시나요?》

뜻밖에도 안해는 대범한 기색이었다.

《그렇소. 래일이라도 사람만 오면 떠날 작정이요.》

《그렇게 급히요? 저도 당신이 떠나실줄은 알고있었지만, 아직 몸도 건강치 못하신테 겨울이나 지나서...》

《몸은 인제 아주 회복되었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떠날줄을 알았소?》

선생님께서서는 의아하신듯 안해를 바라보시었다. 안해는 다소 당황한듯이 시선을 벌구었다.

《그저 짐작이지요 뭐, 당신이야 집에 제실분이 아니시니까...》

녀사께서는 말끝을 얼버무리버리셨다.

《하하하,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말이 옳소. 우리는 평생을 억척같이 뛰여다녀야 할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 알겠소?》

《어서 말씀하세요.》

녀사께서는 바느질감을 잡으시면서 같이 웃음을 지으신다.

《남산의 소나무는 눈서리가 제아무리 모질어도 선자리에서 걸디여내기만 하면 모진 겨울은 물러가고 양춘가질을 다시 만나서 소생활뿐만아니라 더욱 무성해질것이요. 이것은 자연의 리치요. 그러나 인간세상의 리치는 그와는 다르오. 앉아서 풍상시련을 걸디여내는것으로는 절대로 겨울은 물러가지 않으며 봄이 지절로 찾아올수도 없소. 사람의 세상에서는 풍상과 시련을 맞받아 뛰쳐나가 싸워서 제 손으로 겨울을 물리치고 봄을 당겨와야 하는것이요. 우리는 지금 조선국민회

를 조직하고 첫 투쟁에서 성과를 올리었으나 동시에 엄혹한 시련도 겪었소.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겨울의 첫 어구에서 겪은 자그마한 눈보라에 불과한 것이요. 모진 추위와 세찬 눈보라는 지금부터 부닥쳐올 것이요. 닥쳐올 이 사나운 겨울을 눈앞에 둔 우리 동지들과 조직들과 민중들이 나를 기다리고있소. 내 자그마한 힘이나마 보태줄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는데 몸이 좀 건강치 못하다고 하여 따뜻한 구들에 앉아서 어찌 겨울을 날수 있겠소?

《그래요. 당신 말씀이 옳아요. 저도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실 작정이신지?》

《압록강국경지대요. 우선 중강진에 들어가보고 자리를 잡을 생각이요.》

《중강진이요?》

《여기서 북쪽으로 천리길이요. 중강은 우리 나라 북방 풍토의 기상 그대로 산천지세도 역세계 생기고 기후도 세차며 또한 그곳 사람들의 기개도 자연을 닮아서 드세오. 중강진은 옛날 우리 나라 북쪽변방의 요충지의 하나로서...》

선생님께서서는 국경지대의 풍토와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녀사께서는 남편의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옷과 보신에 솜을 더 두텁게 두시었다. 그리고 옷을 한번 더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밖에서 벌안간 발자국소리가 쿵쿵 울리며 기침소리가 났다. 녀사께서는 일른 일손을 놓고 일어나시여 방문을 열고 내다보시었다. 녀사 내리는 어둠속에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선다. 녀사께서는 두부마기차림에 털둥덩이를 쓴 사람이 큰오배인것을 대뜸 알아보시었다.

《오라버니!》

녀사께서는 입안의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토방에 나섰다.

《아니. 형님이시오!》

김형직선생님께서도 일른 일어서시 돌팡으로 따라나가셨다.

《매부!》

강진석선생님께서서는 어전하시나 약간 떨리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부르시며 토방우에로 성큼 올라서시었다.

《형님!》

김형직선생님의 음성도 떨리었다. 두분은 손을 마주잡으시었다. 두분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그동안 옥종고초를 겪노라고… 얼마나 고생이 막심하셨소…》

이윽하여 강진석선생께서 목이 메여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큰치남의 가슴속에 묻히온 슬픔과 근심, 외로움이 그 한마디속에서 울려나오는듯 질질하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도 가슴이 쩡해지셨다.

《저야 뭐, 형님께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말끝을 맺지 못하셨다.

두분은 또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참, 방인수형도 함께 왔소.》

강진석선생께서 뒤를 돌아보신다. 어둠속에서 처남대부간의 감격적인 상봉을 지켜보고 서있던 방인수가 그제야 토방우에 올라서며

《선생님!》

하고 부르고는 더 말을 잊지 못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양복차림을 한 방인수의 팔을 그리잡으시었다. 대번에 그러던 귀중한 동지 두사람의 손목을 잡아보시는 선생님의 가슴은 기쁨에 부풀이오르시었다.

《자,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두사람은 방한모자를 벗어서 옷에 묻은 눈을 털고 방으로 들어갔다.

강진석선생과 방인수는 아래방에 계시는 로할머님과 부모님께 인사들 드리었다. 처사께서는 부엌에 나가시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를 부시었다. 둘째동생이 눈내리는 마당에 나가서 망을 보았다.

세사람은 옷방에 자리들을 잡고 마주앉으시었다.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에 차고넘치는 회포를 안은채 그저 감개무량한 빛으로 마주 바라보시기만 하였다.

《선생님,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습니다.》

방인수가 먼저 가슴아픈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며 말을 꺼냈다.

《죽일놈들 같으니, 생사람을 잡아다가 클세…》

강진석선생께서 몹시 격분하신듯이 주먹을 쥐며 말씀하셨다.

《뭐 제 몸은 인제 그전과 같습니다. 아직 해별에 덜 그늘어서 그

렇지...》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두사람의 근심을 덜어주시려고 밝은 낮빛을 지어보이시었다.

《아니, 아직 먼것 같소.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해춘할 때까지 잘 치료하셔야 되겠소.》

강진석선생께서는 못내 시름겨우신 빛으로 매부의 안색을 살피신다.

《정말 몸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편안히 책만 읽다가 나왔는걸요.》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껄껄 웃으신다. 그바람에 두사람의 기색도 다소 풀리었다.

《하긴 매부가 무사히 출옥하신것을 보니 꿈만 같은 생각이 드오.》 강진석선생께서는 세삼스럽게 감개무량한듯이 말씀하신타.

《참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나오실 날만 고대하고있었습니다. 인제는 마음속에 다시 큰 기동이 들어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인수가 진심으로 말한다.

《원 별말씀을, 나는 감옥에서도 여러 동지들이 굳건히 조직을 지켜주셨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여 نوم과 맞설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으시는 격식적인 말씀이 아니었다. 진정 이번의 엄혹한 시련을 통하여 감옥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지에 대한 서로의 믿음과 그리움이 두터워졌다.

《매부의 공판루쟁이야기를 통쾌하게 들었습니다. 신성한 인류의 법앞에서 누가 죄인이나? 사기협잡과 살인강도질로 남의 나라를 약탈한놈이나? 아니면 약탈당한 제나라를 찾으려는 그 주인이나? 어디 대담해봐라! 이렇게 들이대니까 왜놈들은 봉어새끼들처럼 입만 병긱긱 웃으며 찢찢 매더라면서요, 하하하...》

강진석선생께서 별안간 앙천대소를 하신타.

《형님두, 그까짓놈들한테 말시비를 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각지의 여러분들은 무고들하신가요?》

《예, 다들 잘 있지요. 모두 매부걱정들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매부에게 대접해달라고 하면서...》

강진석선생께서는 그제야 생각나는듯 들고오신 보집을 푸시더니

커다란 종이꾸레미를 내놓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보약입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꾸레미를 두손으로 받아드시었다. 한참후에 선생님께서서는 꾸레미를 내리놓으시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사랑을 저에게 주시는 편달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강진석선생께서는 먼저 그간 간도형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매부의 지시대로 원동유부대와 차거륜부대는 국경에서 좁 멀어진 깊은 지대로 옮기고 관하소대들을 주변의 주민지대에 주둔시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그들을 도와주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두 부대의 협동관계는 원만합니다. 차거륜부대와 국내에서 들어온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련을 받고있지요. 득부는 차거륜부대에 있는데

어찌도 매부걱정을 하는지.》

《그 애가 공부 잘합니까?》

김형직선생님께서 매우 만족해하시며 물으신다.

《열성이 대단하더군요. 홍준걸군이 무관학교를 꾸린다고 동분서주하고있지요. 옥림선생은 사회중명학교에서 우니 말과 역사, 지리

과목을 맡아 가르치고있고...》

《모두들 잘 싸우고있군요. 형님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야 무슨 수고랄게 있겠소. 매부가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이끌어준 덕이지. 그런데 상기도 간도형편은 어렵고 어수선했던 일이 더 많지요. 립장일대의 군소 독립단체들과 부대들은 전번에 매부가 다녀오신

뒤로 부쩍 우리의 길로 기울어지고있지만 그 일대와 특히 무송, 화진, 길림 등 오지대의 내노라고 하는 큰 단체들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제 하늘만 지키고 앉아서 세력다툼과 시기중상을 일삼고있는 형편입니다. 김용천, 심홍진 부대들도 그리하지요. 게다가 전번 투쟁에 질 겁한 왜놈들은 득부, 밀정을 간단없이 들여보내고 기회만 있으면 압류강을 건너와서 대토벌을 틀어대려고 노리고있는 판국입니다...》

강진석선생께서는 간도에서 벌어지고있는 난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었다. 강진석선생께서는 계속하여 국내조직들과 동지들의 형



편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하시었다. 제일 크게 손실을 입었던 평양과 은룡일대의 조직들도 다 수습이 되었으며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각 지방조직들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두 동지의 활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국내외정세는 우리가 취하여온 모든 방침이 아주 옳았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증명하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해 여름에 반일투쟁을 조직한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작금년간 세계전쟁이 종식되면서 우리가 예결한 구미세력과 일본간의 새로운 알뜰의 태동이 현저히 두드러져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소집될 강화회의에서 이번 전쟁기간에 아세아에서 차지한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는 일본과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미국, 구라파열강들간의 암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다 작년 가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일어나 지구의 북분의 일 땅덩어리가 낡은 세계로부터 떨어져나왔기 때문에 놈들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하였으며 동서양 민중의 혁명의식은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형편을 보아도 이와 같은 추세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선국민회의 반일투쟁에서 희망과 신심을 얻은 민중은 잇달아 러시아의 대혁명을 목격하게 되어 독립과 혁명에 대한 지향이 날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대국이 인제는 차츰 눈앞에 바라보이는 듯하다고들 말합니다.》

방인수가 국내조직들을 찾아다니며 동지들에게서 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대신하여 말씀드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미진한 말씀을 잇대이신다.

《당면하여 우리의 임무는 조선국민회의 활동방침을 더욱 힘있게 비적 밀고나감으로써 결정적기회를 맞이할 때 조국광복을 이룩할수 있는 자주적힘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입니다. ...》

계속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옥중에서 구상하신 새로운 방침과 특히는 로동자, 농민 군중들과의 활동을 더욱 본격적인 단계로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말씀하시었다.

강진석선생과 방인수의 눈앞에는 또다시 혁명운동의 광명한 미래

가 환하게 내다 보이는듯싶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에 내놓으셨다. 지도 중심을 압록강국경지대로 옮기어 국내와 간도의 정치군사활동을 동일적으로 장악지도하실 방침, 외세의존사상을 더욱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합법과 비합법투쟁방법을 더욱靈活하게 결합시킬 방도 등 상세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토의하셨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동틀무렵, 아직도 함박눈이 내리고있는 남산 등성이에서 두사람과 헤어지셨다.

《그래, 매부는 언제쯤 떠나시겠소?》

아직 혈색이 좋지 않으신 김형직선생님을 쳐다보며 강진석선생께서 근심스럽게 물으셨다.

《래일 떠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안되오, 아직 그 몸을 가지고 이 눈길을 어떻게...》

《선생님, 봄까지는 대에서 일을 보시면서 조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방인수도 간곡하게 만류한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병은 일을 못하고 누고있는데서 생긴 탈이올시다. 허허.》

《하기야 선생님 결심을 누가 돌려 세울수 있겠습니까? 그대신 하루만 더 마무리주십시오. 제가 가다가 내동의 영춘이와 갑돌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사결사하여 데리고 가주십시오. 오는길에 들렸는데 그들의 부모들도 간절히 부탁하고 또 본인들도 득부처럼 가서 종을 잡고 싸우게 해달라고 여간 간청이 아닙니다.》

방인수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요? 그 학생들이 인젠 숙성했겠군.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여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길에 들릴 작정이었으니깐요, 그곳 여러분들도 만나볼겸해서...》

《그럼 매부, 부디 몸을...》

강진석선생께서 김형직선생님의 두손을 잡으셨다. 강진석선생께서는 국내활동을 말아보시게 되었던것이다.

밤이 깊이가고있었다.

김정직선생님께서서는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모여앉은속에서 떠나  
가실 뜻을 말씀드리고계시었다.

«...이런 사정으로써 저는 부득불 민길을 떠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넌르하실 할머님과 부모님을 모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어린 동생  
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지를 용서하여주소시오.»

이기가까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가슴에  
는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정회가 가득히 피어오르나 늙으신 할머님과  
부모님 앞세 말씀을 많이 드리는것이 오히려 부질없는 일로 생각되시  
었다.

아버님께서서는 그대로 님덤히 앉으시여 가물거리는 등불을 바라보  
며 꿈방내만 땀끔땀끔 흘리고계셨다. 방안에는 할머님과 아버님과 어머  
님 그리고 들깨(김형득선생)와 삼손이(김형권선생), 언해와 누이동생  
화 계수...은 침안식구들이 둘러앉아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  
래쪽 할머니결이 누워 자고있는 증손의 숨소리가 유난히 들리온다.  
계수와 나란히 앉은 장반석녀사께서는 시아버님과 남편을 번갈아 살  
펴보고계셨다.

방안에 흐르는 침묵이 김정직선생님의 가슴에 무겁게 실려왔다.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하겠는데 이렇게 대밭에 와서야 비로소 말을  
낼 일이 한련 후회도 되시었다.

그러나 정작 말을 매 놓으시니 가슴이 후련하졌다. 축이 길고 과  
묵하실 아버님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시느라니 마음은 저으기 가타  
앉기까지 했다.

침묵은 그대로 흐른다. 동생들도, 계수도 그리고 할머님까지도  
인제는 아버님을 살 펴보고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소리가 사납게 들린다.

아버님께서서는 깊숙이 말아들었던 언기를 걸게 내뿜으셨다.

«이길로 곧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아버님의 목소리는 어딘지 도르게 잘린듯하였다.

《예, 매일 새벽에 떠났으면 합니다.》

아버님의 불음에 선생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을 드렸다. 아버님은 문득 고개를 돌려 선생님을 바라보신다.

《떠나거라.》

선생님께서서는 미처 뭐이라 드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

《집근심은 할것 없으니 내 뜻대로 하거라.》

아버님께서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아버지...》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입안의 소리로 한마디 부르시고 그만 고개를 숙이시였다.

《그런데 내 한가지 인짱게 생각하는것은...》

아버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신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으나 엄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가 독립운동에 나선지도 인제 한두해가 아니요, 나이로 보아도 어린 사람이 아니다. 또한 내 너희들이 하는 일의 내속은 잘 모른다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있는 처지인줄은 대강 짐작하는데, 하다면 내 몸은 가족에게 매인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바쳐진 몸이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큰 뜻을 가졌다면 지체없이 실행에 옮길 일이지 집안일에 구애되어 우물쭈물할것은 없지 않느냐.》

아버님의 엄하신 어조에는 절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고개를 드시고 다시

《아버지!...》

하고 목메인 소리로 아버님을 부르셨다.

《명심하겠습니다.》

온몸에 안겨오는 아버님의 뜨거운 사랑과 큰 믿음을 뱉차게 느끼면서 한마디 하셨을뿐이다.

《장손아, 아비의 말이 옳다. 할아버님도 늙아버지에게 늘쌀 그렇게 타이르곤하시였다. 몸은 비록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목숨은 반드시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그러니 아예 집근심은 하지 말고 떠나가서 큰 일을 하여라!》

물대들앞에 앉아가시던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선생님의 가슴은 더욱더 뜨거워질뿐이었다.

《할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니다.》

《형님, 정말 걱정할것 없어요. 우리 형제가 형님의 독립운동을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어떻게 하나 짐살림이야 꾸러가지 못하겠나요? 아예 집근심은 마시라요. 그렇지 형권아?》

김형록선생께서 삼손의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였다.

《그래요. 형, 나도 인제 어른이 되던 큰형을 따라가서 독립운동 할테요!》

삼손은 정기가 도는 눈을 번쩍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냐, 너두 크거든 형을 따라가서 함께 싸워라, 허허허...》

아버님께서 큰아드님을 대신하여 소탈하게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었다. 선생님을 바라보시는 강반석녀사의 눈에는 이슬기가 어러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가족들의 뜨거운 정이 가슴에 가득히 흘러드는것을 느끼시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문창호지를 후려치군하였다.

자정이 훨씬 넘었건만 김형직선생님때에는 방문마다 불빛이 반하게 비치였다. 부엌에서는 퐁퐁 울리는 가벼운 질구소리와 그릇을 씻는 달그락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재수가 새벽에 떠나실 김형직선생님의 조반과 길량식을 마련하고계셨다.

웃방에서는 아버님께서 증손이에게 신길 꽃미투리를 삼고계셨다. 가운데방에서는 안해와 할머님이 등잔불을 마주하고 앉아서 선생님의 옷가지를 손질하고계셨다.

선생님께서서는 이 모든 소리를, 밖에서 아우성치는 눈보라소리와 함께 가슴후덥게 들으시면서 동생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떠난뒤 흠으신 부모님의 손을 도와 집안일과 농사일을 잘해나가야 한다는것으로부터 지금 세상돌아가는 형편과 독립운동의 전망에 대하여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아무리 집일과 농사일에 쫓긴다 하더라도 자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동네사람들을 잘 이끌며 도와줄데 대해서도 간곡하게 타이르시였다.

는보라속에 새날이 밝았다.

이른 조반을 치르신 집형직선생님께서는 영장을 갖추고계시었다. 술을 두툼하게 두고 지은 근저고리반 입으실 선생님께서는 다리에 행진을 치고계시었다. 녀사께서 묵묵히 선생님의 차마를 돕고계시었다. 어린 원수님께서는 행진을 치고계시는 아버님을 바라보고계시다가 불쑥 물으셨다.

《아버지, 또 왜놈들과 싸우러 가시나요?》

선생님께서는 행진꾼을 동이던 손을 멈추시고 아드님을 돌아보시었다.

《오냐.》

선생님께서는 웃으신다. 어린 원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생각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또 물으셨다.

《아버지! 나는 못가나요?》

《네가?!》

선생님께서 고개를 드시었다. 만히 치다보시는 어린 원수님의 얼굴에는 간길히 바라는 빛이 어리었다.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간다, 너도 가고 엄마도 가고, 언제 아버지가 기별을 하면 엄마와 함께 오너라.》

《정말이지요!》

어린 원수님께서는 환성을 올리셨다.

《정말 아니구.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하시던.》

옆에 계시던 녀사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었다.

《참 좋구나, 아버지! 그럼 어머니두 왜놈들과 싸우나?》

《싸우구말구, 얼마두 싸우구 너두 싸우구, 린주도 크면 싸우구, 삼촌들도 싸우구, 우리 집에서는 누구나 다 왜놈들과 싸워야 한단다. 넌 아버지가 기별할 때까지 어머니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

《어—》

어린 원수님께서는 환기있게 대답하시더니 삼촌을 부르며 아래방으로 달려내려가시었다.

선생님께서는 녀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더니 일어나시어 문을 열

고 토방에 나시시었다.

취의하고 눈가루가 방안에 날려들었다. 선생님께서도 토방에서 절실을 걸으시고 질들매를 조이시었다. 아뢰방 문들이 열리며 아적 어둑어둑한 막막이 안더니과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의 보침을 걸머덴 집형류선생과 누이동생...은 식술이 따라나왔다. 아버지만 보이지 않으셨다.

선생님께서도 아뢰방문앞에 서시었다. 잠시 몸차림을 가다듬으시었다. 방안에서는 새끼를 꼬는 시드루사르루소리가 들렸다. 아버님께서 손바 꼬바 지세우시며 새끼를 꼬으신것은 다만 일손이 바쁘신 까닭만이 아니심을 알고계시는 선생님의 가슴에 새끼오래키 스치는 소리가 뜨겁게 안겨왔다.

선생님께서도 조용히 물을 여시었다. 아버님께서도 일손을 멈추시고 아드님을 바라보시었다. 강동에 가서 일년, 감옥에서 일년, 모시지 못한 2년 세월이 귀밑에 흰서리가 하얗게 불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더하시었다. 잔밤에 하시던 아버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뜨거우셨다.

선생님께서도 이리저리 길속이 숙이시었다.

《차비가 다 됐느냐?》

아버님의 덩달한 한마디 말씀이시었다.

《예.》

아버님께서도 차마이기 일어나시자 만없이 토방에 나시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도 마당에 배리시시었다. 아버님께서도 토방에서 신채 사나와지는 눈보라속에 잠겨있는 하늘을 바라보셨다.

《날씨가 몹시 꺾히는구나...》

혼자말치던 하시던 아버님께서도 마당에 서있는 아드님을 굽어보시었다.

《인제 내 너에게 한마디만 더 한말이 있다.》

《예.》

《어디에 가나 내가 큰 뜻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인망을 얻어야 하느니라. <풍도 인망을 얻어야 하늘에 올라간다>는 옛말이 있다. 사람도 남을 도와주고 인망을 얻어야만 큰일을 할수 있다.》

《예.》

《그리고 아예 짐은 잊어버려라. 집근심이나 하는 줄장부는 큰일을 못지른다. 사나이는 자라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전쟁마당에 나가 싸우다 죽어야 나라에 공성을 다하고 사나이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나라.》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아버님의 엄한 말씀속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선생님에게 줄수 없는 가장 높고 깊은 사랑과 힘을 온몸으로 느끼시었다.

《떠나거라.》

아버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버지, 그럼 부디...》

선생님께서서는 말끝을 못맺으시고 깊이 허리를 굽히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허리를 펴고 할머니님과 어머니에게 하직을 드리려고 둘러보니 어느새 가족들은 대문간쪽으로 먼지 길어나가고있었다. 선생님께서 친철히 따라시시었다.

마당밖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사람들이 모여오고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마을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동구밖까지 나오셨다.

동구밖 언덕길에서 할머니님과 어머니에게 하직인사를 드리고 마을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신 선생님께서서는 잠시 아드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는 다음 발길을 둘러셨다.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은 길가에 선채 오래도록 선생님을 바태우고있었다.

아버님께서서는 집앞에 서시 눈보라 울부짖는 하늘을 바라보고계셨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눈보라 휩쓰는 언덕길을 친철히 걸으시고계시었다. 모진 추위에 기쁘게 명이 든 남산의 숲림은 개차게 설레이며 눈보라에 시달리고있었다. 선생님께서 바라보고 가시는 북쪽하늘은 눈보라의 장막속에 잠겨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힘차게 큰길음을 옮기시었다. 눈속에 파묻혀서 신음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숲은 더욱 세차게 드설레이면서 선생님의 장도를 바래우는듯싶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진날에 보시던 로송나무앞에 잠시 멈추어서시였다. 눈보라가 덮쳐들 때마다 금방 뿌리채 꺾어져나갈것처럼 벼랑밑으로 기울어졌다가도 노한듯이 몸부림치며 다시 일떠서군하는 로송나무를 바라보시였다.

(잘 있거라. 남산의 푸른 소나무야. 내 인제 소생의 봄, 따뜻한 양춘가절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힘차게 큰결음을 내디디시였다.

### △ 어휘 및 표현

- 날씨가 청명하다. 날씨가 개이고 화창하다.
- 두부를 맛다. 두부를 만들다.
- 사색에 잠기다. 깊은 생각에 골똘하거나 일중하거나 하다.
- 명상에 잠기다. 고요한 기분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다.
- 시상이 떠오르다. 시를 창작하기 위한 시인의 착상 또는 구상이 떠오르다.
- 양춘가절. 따뜻하고 좋은 봄절.
- 풀장부. 환탈하지 못하고 응준한 사내.
- 혁명의 잠도에 오르다. 혁명의 큰 뜻을 품고 미나면 혁명의 길에 오르다.
- 산책하다. 가벼운 기분으로 산보를 하다.
- 고생이 막심하다. 고생이 더 많을수 없이 심하다.
- 선혈이 흐르다. 밝고 신선한 피가 흐르다.
- 날씨가 몹시 낫하다. 날씨가 비나 눈이 와서 좋지 못하다.
- 해춘할 때가 오다. 봄이 되어 눈이나 얼음이 풀릴 그리한 때가 찾아오다.

## 조선의 어머니

발취

### 12

강반석녀사께서는 그동안 여리반 이사를 하시었다. 안도에서 구안도로, 거기서 다시 홍릉촌으로, 이렇게 어디서는 한달, 두달, 때로는 진도 풀어보시지 못하고 다음날 다른곳으로 남의집 옷방이나 뒤방으로 이사를 하시었다.

김일성원수님의 지하공작과 관계되는 이사들이었다. 조직에서 원수님의 혁명활동에 편리하도록 이사를 하시라고 결정하면 금방 짐을 싸가지고 떠나 시군하시었다.

그동안에 살림은 한가지 두가지씩 차츰 줄어들었다. 월세 없는 살림이 더욱더 줄어들었으나 아무리한 미련도 남기지 않았었다. 혁명에 이바지되는 일이라면 무엇이 아까우시며 불편하시랴. 반쯤이나 다름없이 안도에서 홍릉촌으로 이사를 하시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녀사의 몸이 점점 쇠약해가시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일은 일대로 하시었다.

일로 병을 이겨가시려는 것이었다. 홍릉촌에 오시셔도 부녀회사업을 더 강화하시었고 야학에도 힘쓰시었다. 할 일이 많으시었다.

녀사의 몸은 점점 쇠약해가시었으나 그것을 가리지 않으시다. 하루밤은 야학방에서 전기등을 일으키시고 줄도른 하시었다. 야학생들이 집으로 모셔온 다음부터 며칠은 일어나 시지 못하였다. 십여년 동안 가난과 싸우시며, 혁명사업을 하시드라고 고생하신 무더한 생활이 끝내 자리에 누우시게 한 것이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도 며칠은 멀리 집을 떠나시지 못하셨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신의 병환보다 그것이 더 피로우시었다. 원수님의 그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쁘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때문이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시어, 자리에선 일어나

시였다.

그러나 야학방에는 나가실수가 없었다. 다른 녀자를 대신 선생으로 나가게 하였지만 그들 수준이 이리서 원만히 가르치지 못하였다. 강반식녀사께서는 그를 집으로 불러서 충분히 가르쳐주신다음 나가시 수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약을 처방으로 구해오시었다. 동부들에게도 부탁하시어 멀리 하르빈, 봉천, 건령에서까지 약을 소포로 부치여왔다. 약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강반식녀사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집에 강반식녀사께서 친자식처럼 돌봐주신 원수님의 동부들이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집에 계실 때에는 약을 손수 다리시었다. 원수가우님에게도 약 다루는 법, 밥짓는 법을 가르치시었다.

《어머니가 저러실때 밥은 우리들이 지어야 한다. 내가 집에 없을 때에도 어머니가 부엌에 못나오시게 해라.》

강반식녀사께서 방에 누워서 들으시면 원수님께서는 아우님께 그렇게 이르기도 하시었다. 만찬도 원수님께서 만드시었다. 인제 눈여겨 보셨는지 어머니의 솜씨 그대르었다. 강반식녀사께서는 아드님들의 효성이 지극할수록 자리에 누워계실수가 없어서 무리를 하시며 일어나시게 되었다.

그러나 병은 속으로 깊어만 가고있었다. 강반식녀사께서는 병과의 싸움보다 아드님앞에 몸의 피로움을 감추기에 더 마음을 쓰시었다.

어머니의 방환이 그리신 다음부터는 원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추무시었다. 빈칸에서도 그맘으로 집에 돌아오시는 일이 많았다. 집에서 추무신다기보다 밤을 밝히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환 때문이기도 하시였지만 독서에 일중하시었다. 정세는 복잡하였고 리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시었다.

이날 밤은 강반식녀사께서 혼혼히 잠드시었다가 잠시후 눈을 떠보시니 원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원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잘 짐작하시었다. 야학방으로 잘 가시는 습관이셨다. 책장넘기는 소리에 어머니께서 혹이나 잠에서 깨시지나 앓음가 넘려하시어 그곳으로 가신다. 강반식녀사께서는 야학방이 그때는 식었을것을 생각

하시었다. 새벽이 가까와오는 시각이었기때문이다. 너사께서는 추운 방이 걱정되시었다. 아직 책을 읽고계신다 해도 그렇고 잠이 드시었다면 더구나 새벽 추운 방에서... 만주의 겨울날 새벽은 령하 30도를 내려가는 돌도 얼어터진다는 추위이다.

강반석너사께서는 일어나시었다.

자신께서도 극도로 쇠약해계셨지만 아드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밖으로 나가시게 하였다. 야학방에는 불이 켜있었다. 강반석너사께서는 발소리를 죽여가시며 창틈으로 방안을 보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호롱불앞에 솜의투를 머리까지 쓰시고 앉아서 책을 보고계시었다.

가끔 기침을 하시는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새어나왔다.

강반석너사께서는 부엌으로 들어가시었다. 손더듬으로 성냥을 찾아 아궁에 불을 때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독서에 열중하신 나머지 그것을 모르신다. 강반석너사께서는 불 때는 소리가 날가봐서 나무일만 팔라서 넣으시었다. 만약에 원수님께서 아시는 때에는 독서에도 방해가 된다. 나무일을 다 때신 너사께서는 나무가지들 소리가 안나게 치마뚝에 싸시 꺾어때시었다.

그때 야경을 도는 사람이 야학방앞을 지나다가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강반석너사께서는 입에 손을 갖다대시며 말을 하지 말라는 시늉을 하시고 밖으로 나와 야경군을 끌고 부엌뒤로 가시었다.

《상주가 저녁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기에 찾아왔더니...저렇게 찬 온돌방에서 정신없이 책을 읽고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가봐 조용히 불을 때주고있었지요. 아무 말 말고 어서 가보세요. 성주가 알면 큰일났다고 합니다.》

야경군은 혀를 찼다.

《이 추위에 그 몸으로 나오시다니 세상에도! 어서 태으로 가십시오. 불은 제가 때겠습니다.》

《아네요. 내가 때야 소리 안나게 땁니다.》

《아닙니다. 제가 때드려요. 어서 태으로 가시기나 하십시오. 안가시면 내가 성주동지한테 말하겠습니다. 나도 소리 안나게 땔줄 압니다. 어서 가십시오. 우리도 성주동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혁명하는 사람인데요.》

강반석너사께서는 하는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시었다.

날이 밝은 무렵에야 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로 오시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간밤엔 한잠에 내리 잤다. 넌 또 야학방에 갔었구나. 춥지 않던?》

《아니요. 야경도는 아저씨가 불을 때워서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  
다. 우리 방이 더 춥군요? 어머니 차지 않으세요?》

원수님께서는 어머님자리맡에 손을 넣어보시고 부엌으로 나가서  
여 나무가지들 꺾어가시며 불을 때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야경군이 어머님께서 나가시었던 일을 감추어  
준때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원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성을 그렇게 감추려  
드시었다. 혁명의 길에 나선 원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주  
시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시 또 소사하로 이사를 하시었다.

소사하는 두집간이 무소속일뿐이고 모두 공산주의자들만이 사는  
조선사람부락이었다. 김일성원수님께에서도 댁에 드나드시는베 마을의  
눈을 피할 걱정이 없으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마을의 구성이 그리할수록 더욱 그들을 혁명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었다.

강반석녀사의 건강은 소강상태에 있었다. 야학도 예정대로 진행  
되어 소사하부락에서는 그해 겨울 문맹을 퇴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부락의 혁명화도 한계단 높아졌다.

이렇듯 강반석녀사께서 이르시는곳마다 마을은 혁명화되어가고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식은 높아졌다. 어느 마을에  
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부락의 토지는 여전히 지주들의 소유였  
고 넓은 중국군벌들의 야만적인 폭압 그것이었다. 어디에서나 그러한  
사회제도와 벼를 뒤집어엎는 혁명을 하지 않고는 착취와 억압이 없어  
지지 않는다.

마을에는 어느한 지주가 와서 마을의 처녀를 강탈해가려는 사건  
이 생겼다.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어서 지주의 땅을 부치면서 피땀  
을 흘리우는곳에는 어디에나 있는 현상으로, 처녀의 집에서 지주의  
빛을 내서 쓰고 멧해제 그것을 갚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었던것이다.

늪은 《선심》을 써서 빛을 주었고 2년 동안이나 빛독축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처녀의 미모를 탐내어 빛값에 그를 첩으로 삼으려는 야수같은 총제였다.

처녀의 부친은 벌써 여러차례 그와 같은 강박을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주의 요구를 기절해왔고 빛값을 날을 얻기해왔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딸을 첩으로 내라는 지주놈의 강박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창피한 일이었고 더구나 딸의 귀에 그말이 들어갈까 두려웠다.

지주는 빛값을 가망이 그에게 전혀 없는것을 알기때문에 그의 요구대로 몇번이고 얻기해주었다. 그러다가 처녀의 부친도 이제 와서 더는 얻기해 달랄수가 없이 되었고 지주는 그날로 처녀를 데려가겠다고 선포하였다.

그제서야 처녀의 부친은 그 사실을 마을에 호소하였다. 부녀회에 서 그 사건을 크게 보았다. 야학선생이 강반석녀사께 와서 그 사실을 말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몸이 떨리시었다. 녀사께서는 그때까지 부녀회를 통하여 녀성해방을 강조하시었고 혁명을 고취해오시었다. 그러한 마을에 다른 일도 아닌 바로 녀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악독한 손길이 뻗치 들어오려 하는것이였다. 부녀회에 대한 보두이었고 혁명에 대한 도전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어나 앉으시었다.

《죽일놈 같으니.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웠어요?》

《우선 그 아이를 우리가 숨겨놓기로 했습니다.》

《숨겨놓다니요? 무엇때문에 숨어요? 그 아이가 리를 켜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처녀는 좋은 아이였다. 야학에서 공부도 잘하고 혁명사업에도 열성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아프신 몸을 천주아드님에게 의지하여 마을로 나가시여 부녀회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을 발동시켜 마을사람들을 급히 야학방으로 모이게 하시었다. 처녀를 데려간다는 소문에 격분하고 있던 사람들은 금시 야학방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격해지는 심정을 누르시고 조용조용히 말을 시

작하시었다.

《여러분을 이렇게 모이라고 한것은 마을사정을 좀 토의하자고 그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자문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물리보시었다. 오랜 병환에도  
정기를 잃지 않으신 눈은 너사의 정신력을 말해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반식녀사께서는 가쁜 숨을 누르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지주님이 이제 와서는 못하는것이 없습니다. 그놈은 우리들의  
피땀을 굶어대다못해서 이제는 사람을 소나 말처럼 끌어가려 합니  
다. 그런데 우리가 그놈의 행패를 그냥 온순히 받고 지낸다면 그놈이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억눌리면서 앉아  
서 죽기를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그  
아이를 숨겨놓자는 말도 있는데 그대서는 안됩니다. 히구 많은 낱술  
어떻게 사람이 숨어서 삽니까? 그놈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중에  
는 우리가 어떻게 그놈들과 맞서싸울수가 있겠는가 의혹을 품으시는  
분도 계시지 모릅니다. 물론 그놈의 뒤에는 왜놈들이 있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놈이 요새 행패를 더 부리는것도 왜놈군대가 들어왔기때  
문입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항한날이 옵니다. 우리들도 그놈들을 처  
야 됩니다. 진짜 인민들이 들고일어나고 또 들고일어나는데, 어떻게  
배겨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시  
로서로 떨어져있으면 약하지만 함께 뭉치면 강합니다. 우리의 힘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  
늘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주님이 그 아이를 못 끌어가도  
룩 싸웁시다. 싸우면 이길수 있습니다. 그 아이도 숨어서 있을게 아  
니라 맨 앞장에 서서 이놈 어디 나를 끌어가봐라 하고 돌을 들고 싸  
우라고 합시다. 그놈이 칼을 들고 오거든 우리들은 낫과 도끼를 들고  
나섭시다.》

강반식녀사의 말씀은 숨이차서 중간중간 토마나군 했으나 그 직  
동적인 어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쥐고 흔들었다. 모두들 싸  
울 결의를 다지며 주먹들을 틀어쥐었다.

지주님은 처녀의 호감을 사려고 제놈은 집잡게 차려입고 선물까  
지 마련해들고 미슴군에게 마차를 물려가지고 왔다. 그러나 마을 어

구에서 늙은 마을사람들의 항거에 부딪치고달았다. 마을사람들은 지주놈을 맞받아나아가서 길을 막았다.

지주놈은 처음 한동안은 군중을 간보고 눈깔을 끈두세우고 길을 비끼라고 호통을 쳤다. 늙은 길을 막아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인줄 알기때문에 평소의 버릇대로 그것이 통할줄 알았던것이다. 그러나 소작인들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의 격분에 찬 목소리와 완강한 기세에 겁을 먹고 도망쳐버리고말았다.

마을사람들이 지주놈을 혼내여 쫓아버린것을 기뻐하며 웅성거리고있을 때 처녀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우리 딸이 죽어가요.》

뜻하지 않은 그 말에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뛰어갔다.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처녀가 지주놈이 자기를 끌어가려고 오는것을 보고 아편덩이를 삼키는것을 그의 어머니가 겨우 빼앗았다는것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처녀네 집으로 가시였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처녀는 이불을 쓰고 누워있었다. 옆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처녀곁에 다가앉으시였다. 처녀는 눈을 감고 일체를 보지 않았다. 강반석녀사의 음성을 듣자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굴은 해쓱하다못해 푸른빛이 들었다. 그것을 보시는 강반석녀사의 마음은 아프시였다.

조국의 슬픈 현실을 거기서도 보시는것이였다.

한창 꽃으로 피여날 젊은 나이, 희망으로만 가슴이 부풀어야 할 청춘이 제 목숨을 제가 끊으려고 하게 되는 세상.

《원수와 맞서싸울 생각은 않고 죽을 생각을 하다니...죽을 마음을 먹는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기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했니?》

처녀는 그 말썽을 듣자 일어나 앉으면서 흐느끼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제게 무슨 힘이 있어요? 총이라도 있으면 그 원수놈들을 실컷 쇠죽이고 나도 죽으면 여한이라도 없겠어요.》

《총을 주면 정말 원수놈들과 싸울것 같애?》



강반석녀사께서 그렇게 물으시자 처녀는 당장 눈가 총을 주거나 하겠다는듯이 말하였다.

《총만 주세요. 총만 주면 그놈들과 한평생이라도 싸우겠어요.》

《총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것도 구해질거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원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건 잘못된 생각이다. 원수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놓고 활살 생각을 해야지.》

집으로 돌아오신 강반석녀사께서는 흥분이 진정되시자 노곤해 지시여 그날은 저녁때까지 누워계시었다.

그날 며칠동안 밖에 나가계시던 김일성원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었다. 원수님께서는 방에 들어서시며 어머니께 축하의 말씀부터 하시었다.

《어머니, 잘 싸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싸우신 이야기가 벌써 멀리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사람들의 투쟁을 총화해주려고 급히 왔습니다. 사람들은 싸우고도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것인지 잘 모를수도 있으니깐요. 오늘밤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머니, 참으로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더 편찮으시지는 않으세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시며 너무나 차갑고 여위신대 대하여 불안을 느끼시며 최근정세를 말씀해드렸다.

《왜놈군대들이 돈화에까지 왔습니다.》

《...》

돈화는 벌써 안도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놈들이 멀지 않아서 여기 안도에도 올것같습니다. 놈들은 우선 성시를 점령하고 차차 동북전체를 강점할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들이 무장을 잡는 일이 급합니다.》

《빨리 서둘러야겠다.》

《혹시 제가 얼마동안 오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어머니는 쉬셔야 합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다음날 원수님께서는 집을 떠나시며 하시었다.

그때 《가만 있거라》하고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어나시더니 귀작문

을 이시고 든 20일을 내놓으시었다.

《이 돈은 내가 언제든지 편지를 떠날 때 두리고 내가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돈이다. 남자의 주머니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요긴할 때 써라.》

원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하시었으나 이미님께서는 기어이 원수님손에 넘어주시었다.

다음날 어머니앞을 떠나신 원수님께서는 오래동안 집에 오지 못했다.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기 위하여 조선혁명군대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의 사설을 지도하시는 한편 앞으로 유격활동의 중요지점으로 될수 있는 지역들 가운데서 혁명화하기에 어디운곳에 몸소 나가시어 활동하시느라고 어머니께도 오실 시간이 없으셨다.

푸르허라는 농촌도 원수님께서 직접 나가시어 활동하신곳이었다. 그곳은 안도와 든화의 혁명조직들과 단계를 보장하는데 유리한곳으로써 장차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곳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적들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그곳에 민정을 막아놓고 감시망을 펴고있었다. 오래전부터 혁명조직들에서는 항자신을 파견하여 그곳에 조직을 펴려고 하였으나 공작원이 들어가기만하면 엉락없이 체포되고 하여 발붙일수가 없었다.

원수님께서는 《머슴》으로까지 변장을 하시고 그 위험한 곳으로 몸소 들어가시었다. 적들은 그 기미를 알아차리고 기마대를 동원하여 추격하여왔다. 원수님께서 금방 마을의 도락하신 때 인이었다. 실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원수님의 능란하신 변장과 신속자제하신 처신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고 놀들로 하여금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되돌아가지 않을수 없게 하시었다.

천재적인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위험이 그림자같이 뒤따르는 그곳에서 조직의 선원들을 발동시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깨우쳐주시고 그 일대를 혁명화하시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하시었다.

그 과정에 자신께 가해지는 갖은 수모와 멸시, 천대에도 아랑곳 하시지 않고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조선혁명군대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은 원수님께서 몸소 활동하시던

서 가르치시는 그 모범을 통하여 무한히 고무되어 여러 지역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한 결과 무장투쟁의 조직적지반은 급격히 준비되어갔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원수님께서 푸르히에 몸소 나가신 사실까지는 모르셨지만 안도일대가 점점 무장투쟁준비으로 나가고있는 기운만은 눈에 띄게 보실수 있어서 원수님께서 활동하고계신 정형도 넉넉히 짐작하시였다.

봄이 다가오고있었다.

### 13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무장대오조직에 착수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병환중에 계시였지만 원수님의 그 사업을 보시는것이 커다란 위안으로 되시였다.

첫 무장대오가 조직되던 1932년 봄은 봄우뢰가 삼천리강산을 진동시키던 봄이였다. 그 봄은 투쟁의 봄이였고 력사의 봄이였다.

1932년 봄에 동만지방에서는 기민폭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1931년 가을에 있었던 추수폭동의 연장으로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이 김일성원수님의 령도하에 무장투쟁단계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투쟁이였다.

기민폭동은 반일무장투쟁으로 혁명적군중의 력량을 단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폭동은 승리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혁명적무력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각지에서 벌리도록 지도하시며 자신께서는 안도지방에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그 사업을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그 행정에서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무장대오의 성원으로 결속하시였다.

처음부터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주권도 없고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으며 온 나라가 일제의 폭압망과 야수적탄압에 뒤떨어있는 조건에서 항일무장대오를 편성하시며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지 않으시면 안되시였다. 적들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무장력과 반체공동진선을 형성하여야 되었다. 당면하게는 무기를 갖추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또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죽음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한사람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다...

혁명군중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받들고 원수들의 탄압을 물리치며 무기를 획득하는 길에 떨쳐나섰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아우를 잃은 무산청년들아! 하고 혁명조직들은 무기획득을 호소하였다.

금강석같이 굳고 굳은 투지로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무산계급총전선마당으로 나와 판가리싸움에서 원수들 복수하자!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피끓어넘치는 청년들아! 신을 든든히 신고 오라, 무장로선으로 준비하라.

동무들아, 단결하라! 준비하라! 무장로선에 총동원하라!

실로 그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무장획득에 대하여 가르치시자 일제히 일어났다. 나라를 찾고 민족을 구원하며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줄 무기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두렵울것이 없었다. 원수들 죽치고 무장을 빼앗으며 그것을 밀천으로 또다시 원수들 치고 더 많은 무기를 탈취하였다.

난관은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만 있지 않았다. 중국인반일부대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일제의 기만선전과 민족리간책동에 넘어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무조건 적대시할뿐아니라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하시는 항일무장대오에 입대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선청년들을 도처에서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그들의 적대시행동을 저지시키고 그들과 손을 잡는것이 무엇보다도 긴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과의 접촉은 당시로서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일이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오직 혁명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

고 반일부대사령부와 직접 담판하심으로써 반공사상과 민족배타사상에 물젖어있는 그들을 설복하시어 마침내 반일공동투쟁을 전개하는데 성공하시었다.

무기도 하나하나 해결되어갔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무기가 해결될 때마다 그것을 어머니께 알리드렸다.

원수님께서는 군복도 새로 지을 마련을 하시었다. 광복을 끊어다가 부녀회원들을 시켜 보호색으로 물을 들이게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께는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것을 아시면 손수 물도 물이시고 군복도 지으시려고 하여 또 무리를 하실것이 걱친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강반석녀사께서는 그것을 아시게 되었다. 군복을 맡아짓는 부녀회원들이 바느질에서 강반석녀사의 지도를 받지않고서는 안되었기때문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의 심정을 심분 이해하시고도 난았다. 자신의 약해지신 몸이 한스리우시었다. 일생동안 바느질을 하시었다. 몇푼의 샅을 위하여 남의 웃도 많이 지으시었다. 그런데 지금 아드님께서 조직하시는 무장대오의 군복을 녀사의 손으로 짓지 못하신다. 마음이 파로우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원수님의 군복만이라도 한벌 자신께서 짓고싶으시었다. 칠을 가져오도록 하시었다. 재단여부가 없으시었다. 원수님의 몸은 어머니께서 잘 아시었다. 품이 얼마며 화장이 얼마인가를 재지 않아도 아시었다. 원수님께서는 장대하신 체격으로 장성하시었다. 흔히 사람이 자랄 고비에 들면 어느름에 자라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강반석녀사께서는 원수님께서 몇살에는 얼마의 품으로, 어느해에는 얼마의 키로 자라신것까지 도표를 그리시는듯 잘 알고계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바늘의 찬땀한땀을 온갖 정성을 다하여 떠나가시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뜰어지지 않도록, 어떤 총알도 뚫지 못하도록 모든 정성과 온갖 범원을 담아 박아 나가시었다. 쉽게 피곤을 느끼시었다. 전갈으면 하루도 안걸릴것을 며칠을 두고도 끝을 내지 못하시었다. 칠주, 영주 아드님보고는 형에게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시었다. 원수님께서 아시면 또 큰일난것 같이 만류하실 줄 아셨기때

문이다. 그러나 영주아드님께서 원수님께 알리고말았다. 그분께서 또 어머님께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는 형님과 한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수님께서 그때만은 오히려 반쯤된 군복을 입어 보시며 좋아하시였다.

원수님께서도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군복을 입고싶으시였다. 또 어머님께 그 일을 못하게 하시면 도리어 병을 더하게 해드리는것으로 될는지 아시였다.

《어머님, 킬킬히 지으십시오.》

그러시면서 단추다는법, 재단하는 법, 재봉에 대한 지식 일체를 하나하나 물으시며 배우시였다. 앞으로 유격대생활은 모든것이 필요하였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신다.

마침내 총도, 군복도 다 마련되였다. 소사하 웃동리 산 밑에 청년들이 새 군복에 총을 메고 정렬해섰다. 안도, 연길, 명월구 동만각지에서 온 청년들이였다.

《차렷!》

김일성원수님께서 칫구령을 부르시였다.

온 조선이 그 칫구령을 들었다. 로동자들은 공장과 항구와 광산과 일터에서 마치고 곡괭이를 들고 그 소리를 들었으며 농민들은 흙에서 낫과 호미를 들고 땅을 파며 그 소리를 들었다.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학교와 사무실에서 그 구령을 들었다. 그것은 미구에 폭풍을 몰아올 먼 우뢰와 같았다.

1932년 4월 25일이였다.

조선인민은 영원히 그날을 기억하리라. 김일성원수님께서 조국의 무장력인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그날 선포하신것이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항일유격대가 조직된것이다.

일제통치하에 이 땅의 해빛도 가리웠던 그 암담하던 시기에 만주벌판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서, 보천보와 무산에서 울리는 총소리로 왜놈군대를 섬멸하여 놈들을 무리죽음앞에 떨게 하였으며 3천만 조선인민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래일의 희망을 안겨주던 항일유격

대가 창건된것이다.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혁명노선을 실현하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 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으로 불러일으키는데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으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었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간고한 투쟁이었다. 세계력사상 류례가 없는 투쟁이었다. 승리의 기록만을 가진 투쟁이었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는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오직 자체의 힘으로써만 15여성상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소위 《정예》를 자랑하던 일제의 백만대군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 되었다.

김일성원수님의 명활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항일유격대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인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로 이루어진 혁명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계속 적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이행하면서 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정치군사적패배를 련속 안겨주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면서 만주와 국내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 적극 동원하시였으며 정치공작원을 각지에 파견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대원들을 총을 매면 일당백의 용맹한 군사로,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로련한 정치공작원으로 교양육성하셨던것이다.

정치공작원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도처에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면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을 조국광복의 길로 힘차게 나가도록 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었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었다.

특히 1937년 6월 4일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와 1939년 5월의 부산지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은 조선인민의 심장에 민족재생의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열의와 민족적 긍지를 북돋아주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발길속에서 우리 나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그 위대한 출발이 그날 김일성원수님의 령도하에 이루어졌다.

아직은 많지 않은 대원이였으나 그것은 급속히 확대강화되어 《백만대군》을 자랑하던 일본침략군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3천만 조선인민의 무장력이였으며 그들의 우수한 아들딸들이였다.

대렬선두에는 조국을 광복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념원과 정열의 끓는 피를 상징하는 붉은기가 강하게 부는 봄바람에 필력이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대원들을 휴식케 하시고 집으로 달려오시였다.

《어머니, 우리 군대를 한번 와보세요.》

원수님께서서는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시고 안도의 집으로 오시여 강반석어미님께 무장을 들 뜻을 말씀하시고 아버님의 총을 받으신 그때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총검의 숲을 헤치고 혁명조직을 복구하시는 한편 무장조직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러나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그 간고하던 나날의 기억은 별로 없으시고 어머니님의 투쟁과 고생만이 크게 부각되시여 무장대오 조직의 모든 공로를 그대로 어머니님께 드리고싶으시였다.

강반석어미님께서서는 원수님의 팔에 의지하시고도 얼마 멀지 않은 웃동리까지 오랜 시간을 걸어가시였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님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싶으시였다. 그것이 어머니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린다고도 생각하시였다.

《차렷!》

부책임자가 구령을 부르고 《앞에 총》을 시켰다. 대원들은 일제히 총을 들고 고개를 돌려 강반석녀사께로 시선을 모았다. 모두다 아는 얼굴들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 로비를 주어보낸 청년도 있었고 길탕식으로 겨떡을 들러보낸 사람도 있었다. 무송과 안도에서 강반석녀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공청사업을 한 동무도, 야학선생을 하던 청년도



있었다. 모두 강반석녀사께 신세를 끼친 청년들이었고 김일성원수님의 령도하에 성과를 올리고 나온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앞에 총》을 해가지고 강반석녀사께 시선을 모으고있는것이였다.

《어머니, 저들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합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눈이 부시였다.

《조선사람모두가 받을 인사를 내가 어떻게 혼자서…그만두라고 해라…》

하시면서도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신도 모르시게 손이 머리로 올라가며 비상한 정신적양양가운데 군대식답례가 되였다. 어머니께서 군대식교례를 보신것은 원수님께서 무송에서 소년단을 훈련시킬 때 몇번 보신데 지나지 않았지만 원수님께서 무장대오조직을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어머니도 마음속으로 키워오신 념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당에 서시자 저절로 훌륭히 군대가 요구하는 절도있는 거수경례의 답례로 되었던것이다. 대원들을 보시는 어머니의 눈길과 그들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바람도, 시간도 멎은듯하였다. 신뢰와 애정, 빛나는 승리와 미래가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져있을뿐이였다.

《잘들 싸워요!》

강반석녀사께서는 뱉찬 감정을 그 한마디로 말씀하시였다.

《쉬엇!》

대원들은 모두다 강반석녀사께로 달려와서 들레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맙습니다. 잘 싸우겠습니다.》

저마다 그런 인사를 드렸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하나하나 그들의 웃이 잘 맞는가 보시며 주름도 펴주시고 짓고대도 바로잡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잘들 싸워요. 나는 그동안 독립군들이 군대를 만드는것도 몇번 보아왔지만 너희들 같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총을 잡을것을 보진 처음이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총을 잡게 됐는가를 안다.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였고 싸움이 아니였지. 그 고생과 싸움을 이겨내고 만든 군대니까 너희들에게는 처음부터 이기는것밖에 있을게 없어. 나는 그것을 믿는다. 너희들의 눈을 봐도 안다. 티끌만한 잡념도 없이 한가지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마음이 눈과 얼굴에 나타나있

다. 잘들 싸워요. 악독한 왜놈들과 싸우는데 고생도 있을 테지. 왜 없겠나. 그래도 조선사람 모두가 뒤를 받쳐준다고 생각하면 용기도 난다. 그리고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도 잘들 싸워요. 흔히 생각하기를 어머니들이란 아들이 고생하는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머니들의 깊은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어머니들이 제일 슬피하고 눈물도 흘리는것은 아들이 못난짓을 하고 다닐 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다. 그러나 아들이 장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아무리 고생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랑이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거야. 그런줄 알고 잘 싸워서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려요.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나도 너희들의 어머니를 찾아갈테다. 얼마나 반가워하실가. 혹시 어머니들에게 소식을 전할 일이 생기거든 나한테도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공청사업들도 걱정할것이 없다.

너희들을 대신 해서 싸울 사람은 또 있어. 사람들은 자꾸 자라고 눈뜨게 마련이야. 너희들이 잘 싸워서 왜놈들을 죽이는 총소리는 사람들을 하루밤사이에도 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이 빨리 독립이 되고 안되는건 지금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있는 그 총에 달려있다.》

대원들은 강반석녀사께서 보시는 앞에서 훈련을 하였다. 녀사께서는 감개무량하시여 원수님께 말씀하시었다.

《너희 아버지가 저런걸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그걸 못하시여 그렇게도 애를 쓰시더니, 이제는 배가 단단히 해뵈라.》

훈련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집에 돌아오신 강반석녀사께서는 누워서 나팔소리를 들으시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오시던 소리같았다. 만경대에서도, 봉화라에서도 김형직선생께서 그렇게 나팔을 부시었던것이다.

(나만 혼자서 저 소리를 듣습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날같이 기쁜 날이 없으시였고 그날같이 또 김형직선생을 생각하신 날도 없으시었다. 김형직선생과 함께 그날이 있기를 얼마나 바라시었던가.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무장대오를 인솔하시고 안도현일대에서 활동하고계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주 그 진과를 듣게 되시었다.

마을사람들이 흥분으로써 그것을 전해드렸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원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활동하시면서도 항상 어머니의 병환이 걱정되시어 그때도 잠깐 집에 들리신 것이다.

집에는 뽕나무가 떨어져있었다. 원수님께서서는 동생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

《이 산골에 뽕나무가 없어서 베느라고 그러니? 네 할일이나 해라. 너는 혁명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라. 왜놈들은 어디까지나 왔니?》

《도시에는 어디나 다 들어왔고 계속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놈들과 싸우자면 대부대활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놈들이 그렇게 쏟아져들어오는데, 우리들은 적은 인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대부대활동을 하자면 그만큼 총이나 탄약도 많아야겠구나. 그것이 어떻게 마련되겠니?》

《그런건 걱정없습니다만 저는...》

《그게 걱정없으면 뭐 다른 일이?》

《대부대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자주 집에 올수 없겠는데 어머니 병환이...》

원수님께서서는 말끝을 맺지 못하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어나 앉으시며 정색을 하시었다.

《내 걱정은 말아라. 네가 떠나서 혁명투쟁을 잘하면 내 병이나 을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꼭 가야 한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원수님의 명확한 대답을 독촉하시듯 얼굴에 엄숙한 빛을 띄우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그 앞에 꿇어앉으시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압록강을 건너올 때에 혁명을 해서 나라를 찾지 않고서는 다시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우리 유격대는 혁명을 하는 군대이고 인민을 위하는 군대입니다. 인민과 함께 나무를 할 때는 나무도 하고 밭도 같이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니 제가 집에 와서 나무를 왜 안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나라에 바친지 이미 오래라고 생각한다. 그런 네가 어미때문에 조금이라도 걱정을 할가봐 하는 말이다. 너만을 믿는 마음이야 어디 가겠니만 그래도 내말을 명심하여라.》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게 되고 근심걱정없이 무병장수하는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을 빨리 모시고 싶은 제마음이 급합니다.》

그후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독립군부대와 련계를 맺기 위하여 남만으로 떠나게 되시었다. 그때 어머님의 병환이 중하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잠시 집에 들리시었다. 어머님의 병세는 위독하시었다. 동생들은 아직 어리었고 집에는 쌀까지 떨어져있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줍쌀 한말을 사가지고 오시었다.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님앞에 쌀을 내놓으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쌀자루를 옆으로 비껴놓으시었다.

《그런 집근심을 하면 혁명을 못한다. 산사람 입에 거미줄 쓰는 법은 없다. 나라를 찾자고 하는 사람이 집근심을 하고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는 더 큰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한다.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 너는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 된것 같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한참 생각하신끝에 말씀하시었다.

《어머니가 전갈지 않으시고 몸이 그러신데 어떻게 제가...》

《내몸은 이제 낫는다. 봄도되고, 내가 또 장한길에 나섰는데 무슨 걱정이나. 일이 바뀔텐데 떠나기나 해라.》

어머님의 한량없는 애정을 안고 문밖으로 나오신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어머님께서서는 걱정말라고 하셨지만 원수님 뵈기에는 몸이 점점 더 쇠약해가시었다.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밖 멀리까지 나오시여 원수님을 바라주시던 어머니시었다. 지금은 자리에 누우셔서 잘 다녀오라고 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집을 한바퀴 비잉 둘러보시었다. 땔나무가 많지 않았었다. 지붕에는 풀이 났다. 장마철에는 썰지 모른다. 벽도 허술하였었다. 모두 손이 가야 할 일들뿐이였다. 동생들은 아직 어리었다. 아동단에서 련락임무, 경비 같은것은 그렇게 명민하고 재치있게 수행하지만 어머님의 병구완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들이 어리었다. 그날도

철주아우님께서는 안도로 연락을 가셨고 영주아우님께서는 부락경비를 서면서 옷마을에서 동무들과 놀고있었다.

원수님께서는 가실 길은 문밖으로 땀어있는데 마음은 그길을 내릴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계신 방으로만 쏠리시였다. 문앞에서 서성거리시였다. 전에 어머니께서 받아서 숙주머니에 넣고다니시는 돈 20원을 도로 어머니께 드리고 가실가, 샅바느질, 샅빨래로 근근히 모으신 돈이다. 그러나 무한히 자애스리우시면서도 그러한 때에는 엄격하시기가 비할데 없는 어머니이시였다. 이래도 저래도 못하시고 원수님께서 집들레를 또 한바퀴 도시였다. 어머니과의 애정은 끝이 없는 길인데 그길을 또 한바퀴 돌고만 계시는것이였다.

어머니과의 작별은 그렇게 어려우시였다. 어머니에 대한 그와 같은 효성이 곧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시였고 그 사랑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셨다.

아직도 발길을 돌리시지 못하고 계실 때 방문이 열리고 강반석녀사께서 내다보시였다.

《너 아직도 안갔느냐?》

《가겠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또 한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과 무슨 말씀이고 오래도록 하시고 싶었으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집을 떠나시였다.

집앞의 내를 건느시려 할 때 영주아우님께서는 원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어디서 보셨는지 달려와서 손에 매달리셨다.

《형님 가세요?》

《간다.》

《언제 오세요?》

《가 봐야 하지만 곧 오마.》

《곧 오셔야 돼요, 형님이 계신 날은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원수님께서는 그 말을 아니 들으시니만 못하시였다.

《내가 빨리 돌아오도록 하마, 그동안은 네가 작은 형과 잘 도와드려야 한다. 너도 인제는 소년단원이다. 어머니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원수님께서는 몇번이나 어머니에게서 받으신 돈 20원을 동생에게 주어 어머니께 갖다드리도록 하실가 망설이였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

역하시기도 뺏아서 다녀오신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주머니에 있던 얼마 안되는 돈을 영주아우님에게 주어서 돌려보내시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지니신채, 그러나 혁명의 길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여 또 어머니께서 그것을 바라시는대로 남만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시었다.

그것이 어머니과의 마지막작별로 되실줄은 원수님께서도 모르시었고 강반석녀사께서도 모르시었다.

결국 돈 20원이 돈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물로 남게 되었다.

원수님께서서는 그것을 5년 동안 군복안주머니 심장이 닿는곳에 지니고다니시었다. 5년 동안 왜놈들과의 가털치절한 싸움의 나날과 간고한 북만원정의 길에서 그 모진 고난과 파란폭절을 겪으시면서도 몇천만 금과도 바꿀수 없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깊은 뜻이 스민 그 돈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계시었다. 안주머니의 그 감축은 어머니의 손길같아서 어머니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한시도 잊으시지 않게 하였고 힘을 얻으시게 하였으며 투쟁의 걸의를 가다듬으시게 하였다.

일평생 조국광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시다가 끝내 조국해방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만경대가 아닌 이국땅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깃들어있는 그 돈 20원!

강반석녀사께서는 그 돈을 주시면서 요긴한 때 쓰라고 하시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5년 동안에 요긴하게 돈이 소용되시는 때가 많으셨다.

그러나 쓰시지 않고 어머니의 높이신 뜻을 간직하고 다니시듯 품에 품고만 다니시었다. 그러시다가 1936년 3월에 마안산에서 그 돈을 쓰시게 되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 쓰신 그 돈의 이야기들 두고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높은 은덕과 함께 강반석녀사를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그뜻은 강반석녀사의 뜻을 다 아시는 김일성원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뜻있게 그 돈을 쓰시였기때문이다.

강반석녀사께서 살아계셨으면 꼭 그렇게 쓰실 그런 경우에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그 돈 20원을 쓰셨던것이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마안산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압둔한 민족배타 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혁명가들의 귀중한

조선의 어머니

유자녀들이 온갖 천대와 박해를 받고 있었다.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  
과분자들은 그 아이들에게까지 《민생단》의 딱지를 붙여서 그와 같은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늙들은 초보적인 인간적 의리도  
없는자들이었다.

원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시였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포를 덮어주시며 말씀하시  
였다.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장의  
모포를 덮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 !...》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의복을 해입히도  
록 하여야 되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당장 천을 구해올 길이 없었다.

밀영에는 천 한조각 없고 구해올 자금도 없다는 사정을 료해하신  
후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조용히 군  
부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더니 무엇인가 소중한 싹것을 꺼내시였다 .  
정성스레 싹것으로 보아 오랜기간 소중한 간직하고계시던것이 분명하  
였다.

《내게는 이 돈밖에는 없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천을 살수  
있는대로 사서 저 아이들, 우선 헐벗은 아이들의 옷을 해입힙시다.》

우리는 이미 그 돈 20원의 유래를 알고있다. 강반석녀사께서 샅바  
느질로, 샅팔레로 푼푼히 모으셨다가 김일성원수님께 요긴하게 쓰라  
고 주신 돈이다.

강반석녀사께서 그 귀중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신것이다.

(어머니, 어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이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겠  
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속으로 말씀하  
시였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학생들에게 해마다 철따라 고운천으로  
옷을 해입힌다. 이것은 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아시고 인민  
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아시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인민들과 함  
께 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태산보  
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은덕인것이다. 그 은덕에 접할 때마다 우

리들은 김일성원수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키워주신 강반석녀사를 흠모하며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고있음을 자랑한다.

## 14

어머님과 그렇게 작별하시고 남만으로 가시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길을 재촉하시였다.

무장대오를 조직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결하실 혁명과업도 많으시였다. 어머니의 병환도 마음놓이지 않았었다. 빨리 다녀오셔야 되였다. 낮에도 걸으시고 밤에도 걸으시였다.

오랜 행군에서 제일 문제되는것은 언제나 발과 신발이다. 신발이 잘 맞아야 발을 상하지 않고 오랜 행군을 계속할수 있다. 또 신발이 좋아야 밤에 잘 때에도 몸이 편하다.

유격대원들은 그래서 행군하다가 설참이나 토속할 때에 제일 관심을 가지는것이 신발들이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의 그 신발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보살피주시였다. 신발을 말려 신도록 하시고 피곤해하는 대원들의 신발을 손수 말려주시기도 하시였다. 신발이 잘 맞지 않는 대원에게는 신발을 벗겨서 손질도 해주시고 바닥에 부들풀 같은것을 깔아주시기도 하시였다. 또 발이 부르트면 대원들에게는 성냥황으로 지저도 주시였다.

그러다가 어느날 밤은 기온이 몹시 떨어졌다. 고산지대의 변덕스러운 기온은 철쭉 내려가 발까지 시리었던것이다. 불을 지펴놓고 불에 발을 쪼이는 대원들도 있었다.

다시 행군은 계속되였다. 대원들은 어느 산상에서 새벽을 맞이하며 또 휴식을 하였다. 새벽바람까지 일어 제일 추운 때다. 역시 대원들은 발을 구르며 서성거렸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발이 불에타도 쪼이시는듯 따뜻하여 전신의 추위까지도 느끼시지 않았었다. 발이 차면 몸에 병나기 쉽다는것을 생각하시고 대원들이 추워하는것을 못내 걱정하시며 한편 자신의 따뜻한 발을 이상스럽게 아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신발을 벗어 바닥을 보시였다. 순간 경진한 마음의 감동이 전류같이 전신을 휩싸며 심장이 높이 뛰시다가 전신은 아늑하



고 고요하며 시야에 들어오는 거대한 산악,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모두다 어머니의 품같이 원수님의 몸을 안아주는 것이었다.

《어머니!》

원수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줄기 손등에 와서 떨어졌다. 원수님께서는 누가 불가 급히 외편을 하시고 신발속에 깔려있는 것을 뽑아 얼른 속주머니에 넣으시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머리에 들이시던 머리태였다. 어머니께서는 원수님의 발을 걱정하시어 그 머리태를 신발에 깔아주시었던 것이다.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안으시듯 속주머니에 넣은 머리태를 군복우로 꼭 누르시었다. 머리태의 감축은 무한한 사랑의 부피로 되어 전신을 뜨겁게 하였다.

《어머니!》

원수님께서는 자책감을 느끼시었다. 그때까지 발이 편하고 시리지 않는 까닭을 모르고계시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마음은 다 아신다고도 믿으셨고 또 아시려고 노력도 하셨지만, 이제와서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 깊어서 끝간데를 모르는 것이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산악전체도 어머니의 넓고 따뜻한 품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하늘의 높이도 어머니께서 아드님께 바라시는 희망의 높이에는 따르지 못하였다.

《동무들, 불을 피우고 발을 더 따뜻하게 쪼이고 신발도 젖었으면 말리며 신고 갑시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뜻을 빌어 대원들의 발간수를 보살펴주시었다.

그날 행군에서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온종일 추운줄을 모르시고 몸은 항상 뜨거운 온기에 차있으시었다. 신발에서 그것을 뽑으셨지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전신에 안고가시는 원수님께서는 밀림속의 찬기운도 춥지 않으시었다.

아침노을에 비끼는 장백산의 높고 낮은 산맥이 어머니같이 원수님을 안아주었고 그속을 원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가시는 기분이였다.

△ 어휘 및 표현

- 허를 차다. (불만이나 유감의 뜻을 나타낼 때) 허끝으로 입천장을 차다.
- 위기일발의 순간. 위급함이 매우 절박한 순간.
- 화장. 옷소매의 길이, 큰 옷의 겨드랑이에서 소매끝까지의 길이.
- 무병장수. 병을 앓지 않고 튼튼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는것.
- 산사람의 입에 거미줄 쓰는 법은 없다. (지난 시기에)살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지려 먹고 살아나가기 마련이라는 뜻에서 썼다.
- 파란곡절을 겪다. 순조롭지 않게 일어나는 이리저리한 곤란이나 시련 또는 애로를 겪다.
- 졸도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까무러치다.
- 살벌한 분위기. 무시무시하고 스산한 분위기.
- 현기증이 일어나다. 이리저리운 중세가 나타나다.
- 효성이 지극하다. 부모를 존경하는 도덕품성이 덕할나위없이 극진하다.
- 혼곤히 잠들다. 피곤한 몸으로 노그라져서 정신을 차릴수 없이 곤하게 잠자다.
- 명민하다. 증명하고 제박르다.
- 범구원을 하다. 앓는 사람을 간호하다.

## 충성의 한길에서 (제 1부)

박희

### 1

상촌의 산골짜기들에선 련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오늘은 불시에 샘내 앞골짜기에 무서운 싸움이 붙었다. 봉수골에서 된배를 맞고 물러선놈들이 매일같이 발광적인 공세를 들이대다가 오늘은 여기 저기 후방깊이 찢어보는 대담한 시도를 해왔다. 샘내 앞골짜기가 건투장으로 변하는바람에 샘내에선 소동이 일어났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슬은 피난민들이 보통이물 이고지고 자리를 뒀다.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본시 있던 주민들도 짐을 꾸러 이고지고 떠났다. 인민혁명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빨리 능산 뒤골로 피하라고 소리쳤다.

《능산 뒤골이면 십리가 넘지 않소. 그쪽으로는 적이 기여들어가지 않았소.》

《대북동에 기여든놈들은 벌써 반이나 녹았다우. 박촌근방에 가신 산으로 불으란말요.》

인민혁명정부에선 필수루 사람들을 멀리로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리상녀와 금실이도 한아름씩 되게 짐을 꾸려 이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어테를 가는 놈들이 이곳에 인차 달려들지만 않는다면 몇 번이고 되짚어 돌아와서 짐을 날라갈 묘량을 하며 제일 소중한 양식부터 꾸러이고 나섰다. 그밖의것은 그전 벌목하는 인부들이 살았다는 새를 들리친 초막안에 보이지 않게 파묻어두었다.

《어머니, 입을 이고 갈것 같아요?》

《이구 가잖구, 고빨을 줘 았았다구 입을 못일가? 임진란데 녀자들은 왜놈 죽이자고 식칼을 품고 다녔다는데 이게 무슨 물품인가! 이 땅중에 고빨이라니...》

리상녀는 한아름 되는 입을 이고 목을 끈덕거리며 걸었다. 그러나 그는 몇걸음 걸지 않아서 코피가 주르르 쏟아져내려 한손을 내밀며 숨을 찾았다.

《봐요, 어떻게 입을 이고 가겠다고 그래요. 어서 내려놔요.》

《글쎄 아무거나 좀 달라구, 피를 막구 가제.》

《가만 좀 계세요.》

금실이는 얼른 입을 내려놓고 도로 초막으로 달려들어갔다. 그제야 어머니도 꿈하고 머리우에 이었던 입을 도로 길바닥에 내려놓았다.

《망할놈의 고뿔...》

리상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길옆에 웅크리고앉아 코피를 쏟았다. 그는 여러날 시름시름 앓다가 어제밤엔 두눈이 새빨강게 달아서 헛소리를 질렀다. 입술이 가랑잎처럼 말라붙었는데 밤새 그 입으로 누구를 욕하는지 이놈저놈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간 뼈가 녹는것같은 가느다란 소리로 앓음소리를 하며 《성재야아, 성재야아.》 하고 다정히 부르기도 했다. 그중에 합숙애들도 한잠 못자다. 그 어린것들도 어머니와 신경이를 하며 시뚛뚛 때 갈아선 어머니가 앓건말건 큰 걱정이 없어할것 같았는데 정작 어머니가 앓으며 헛소리를 치니까 모두 근심이 되는지 머리말에 우뚝우뚝 모여앉아 밤을 새웠다. 지금 그 애들이라도 있으면 어머니를 부축해가지고 갈덴데 조반을 먹자 죄다 싸움터로 내뱉서 금실이 혼자 욕을 보게 되었다.

얼마후에야 금실이는 초막에서 숨을 얻어들고 뛰어나왔다.

《어이구, 맏시사, 저놈들 잡아가는 귀신은 없는고? 옛날엔 쇠잡아먹는 불가사리란것이 있었다는데 왜놈 잡아먹는 불가사리라도 났으면 좀 좋잖아!》

어머니는 산등성이너머를 훑어보며 왜놈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코앞을 닦고 코구멍에 숨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또 꿈 소리를 내며 무거운 입을 머리우에 올려놓았다. 고달픔을 못이겨 잠간 스쳐지나간것 같은 고뿔인데 귀밀이 실땀해지고 짐에 눌린 목이 휘청거리기도 한다.

오늘도 기성이는 날이 밝자 개암골뒤 전방싸움터에 나가서 애들과 함께 전투원들에게 돌을 날라다주었다. 그러다가 싸움이 끝나는데

탐에 애들을 데리고 밀림속으로 내뺐다.

《제, 이거 봉수팔에서 씹하듯 한번 못해보나?》

《그러게말야. 그날엔 놈들의 시체가 팔짜기안에 그득해지도록 담  
새겨뒀는데... 씹은 김봉석중대장아저씨가 젤이야.》

애들은 오늘 싸움이 성차지 않아. 삼태기안같이 생긴 풀밭에 모여  
서서 떠들었다. 태호, 태국이 흥감이 같은 꼬마들도 돌을 나르느라고  
은룡 흙투성이가 됐다.

이 꼬마들도 봉수팔싸움이야기만 나면 가슴이 들먹거렸다. 그날  
저녁 때 애들은 산뒤턱에 모여서서 결사전가를 불렀다. 온 산에 노래  
소리가 들썩들썩 울렸다. 진투원들은 힘이 나서 총을 쓰고 작탄을 던  
졌다. 어둑어둑해서 들격나팔이 울릴 때엔 기성이라도 나팔을 들고 바  
위등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리고는 쌍나팔로 들격신호를 맞춰주었다.  
이날 김봉석은 애들이 잘싸웠다고 꼬마들을 똥똥 안아주고 뒤통수를  
슬어주기도 했다.

지금 애들은 그날과 같이 가슴이 들썩거리는 싸움을 못 겪어 은근  
히 몸이 근질거렸다.

《어데서 총소리 나는대 없니?》

기성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애들에게 물었다. 그도 오늘일이  
성차지않아 싸움터를 찾는것이였다. 애들은 대답이 없이 정말 어데서  
고 총소리가 나지 않는가 해서 귀를 기울였다. 어데서도 총소리는 들  
려오지 않는다. 아까 다른 팔짜기에서도 총소리가 들리왔는데 인젠 죄  
다 잠잠해졌다. 기성은 큰 숨을 쉰 내쉬며 풀밭에 들어앉았다. 다른  
애들도 모두 풀밭에 앉았다.

《한번 또 죽신하게 싸워봤으면 좋겠네!》

《그러게말야. 하긴 오늘두 여러놈 잡긴 했지.》

《그까짓 그렇게나 잡아가지고야 언제 저놈들을 다 잡아내? 저놈  
들을 다 잡아내구야 우리가 또 학교를 짓구 공부하지.》

기성은 애들의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후두두해진다. 이 싸움이  
어떻게 기울어지고있는지 기성이로서는 가량할수가 없었다. 인민혁명  
군이 상고개에서 밀린진 적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대들어와서 밀렸  
고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놈들을 봉수팔에 이끌어들여다 잡으려고 밀렸  
다고도 했다. 그것이 어느말이 정확한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인민혁명

군이 상촌에 기여든놈들을 죄다 잡아야 할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보아야 봉수골에서 한번 두드려잡고는 그담엔 크게 때터놓히는 싸움을 벌이지 못한다. 왜놈군대는 봉구밖 산기슭에 천막을 치고 들어앉아있다. 어떤 때 통선우에서 내려다보면 온 산기슭에 적이 우글거리며 돌아간다. 사태가 이러니 어린 마음에도 저절로 생각이 깊어진다. 장차 이 싸움은 어떻게 되고 상촌은 어떻게 될단말인가! 이젠 너무도 엄청난 큰 문제같다. 상촌을 잃어버리는가 도로 찾는가 바로 이런 죽고사는 문제를 안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있는것 같다. 이 상촌이란 어떤 땅인가? 더도 말구 나에게 무엇을 준곳인가! 누나를 따라 이곳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정말 목말랐던 맑은 햇빛과 기쁨을 실컷 받아안고 펴수 있었다. 처음으로 우리 세상, 사랑 깊은 우리 세상에 사는게 얼마나 좋다는걸 느꼈는가! 사람마다 다같이 장군님을 우러러받들고 어느 한가지라도 일하는것, 생각하는것이 장군님 뜻이 아닌것이 없고, 장군님 뜻으로 하여온 상촌이 한집안같이 꾸려지고 바로 그속에 친형제같은 뜨거운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나는 이 꿈만 같은 새세상에서 내 몸에 와닿는 그 슬한 애무의 손길이 깃들었던 마음에 날개를 달아주고 키를 자라게 하고 힘이 세지게 하는줄도 모르고 자라났다. 나만 그런가? 아동단아이들이 다들 그렇고 여기 앉은 애들이 모두 그렇다. 장군님께서 꾸려주신 상촌이 아니라면 그 누가 불에 그슬려 굴러온 불쌍한 아이들에게 꿀물같은 사랑을 그처럼 퍼줄수 있겠는가! 아, 장군님 꾸려주신 이 한집안! 그지 아무셈판도 없이 사랑의 바다물에 풍덩 들어가 즐겁게 물장구를 치며 살아온것 같은 흘러간 나날!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무엇이였다는 의미도 알수 있을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이였다는것도 알수 있을것 같다. 그런데 인제 그 귀중한것이 어떻게 될것인가? 이른 사랑의 집이 아주 무너져버리고만단말인가! 그 기쁘고 다정한것,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것, 누나와 상녀어머니가 있고 금실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있고 차응도 회장, 희섭선생이 있고 학교가 있고 아동단이 있는 이 하나로 뭉쳐진 사랑의 큰집이 영영 다시 여기에 일어설수 없단말인가? 기성이는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두눈을 습쩍거리었다. 아이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다.

《내가 우니 뭐...》

기성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안운다고 했다.

〈나팔 불고 싶어 그러니?〉

태호가 살뜰하게 곁에 와앉아 나팔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흥...〉

기성이는 코소리를 했다.

〈나 줌 불어볼가?〉

〈왜놈들 다 쫓아낸 담에 배워주마!〉

기성이는 태호를 옆구리에 짊 다가가며 웃었다. 상촌이 온통 한 집안이라면 태호두 다 내 동생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성이는 코히리가 쩡해진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어데로 가서 집결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산등성이론 바람만 휘휘 불어넣어온다. 류달리 봄바람같은 부드럽고 향긋한 바람이다. 어데서 그 누가 불타는 이 땅에 이런 바람을 보내줄가! 아이들은 신기한 생각이 들어 바람소리가 울리는 나무들을 쳐다보았다.

〈애, 저게 무슨 연기냐? 저것봐라, 나무새로 막 날아넘어오는구나!〉

한 애가 웨치며 일어서는 바람에 애들이 모두 따라 일어섰다. 정말 산등성이너머 하늘엔 연기가 뽕양게 찼다. 나무숲사이로도 휙휙 밀려넘어오며 내내를 풍기었다. 이게 어데서 나는 연기일가! 집이란 집은 죄다 불살라버렸는데 무얼 또 불사르기에 지렁게 연기가 공중을 물들였을가? 아무래도 놈들이 산에다 불을 지르는게 분명했다. 산에 인민혁명군이 있으니까 그럼직도 했다.

〈빨리 가서 그자! 틀림없이 산불이야.〉

기성이가 웨치며 먼지 등성이우로 올려뛰었다. 애들이 뒤를 따랐다. 산등성이우에 올라서니 어데도 불붙는 산은 보이지 않았다. 연기는 울멍줄멍 산밭이 굽이쳐나간 먼 팔짜기에서 솟아오른다.

〈쌔내구나, 쌔내 팔짜기가 타는구나!〉

기성이가 또먼저 부르짖었다. 그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었다. 분명 쌔내였다. 저놈들이 피난민들이 있는 후방에 기여들었구나! 거기 사람들은 다 어찌고 불을 질렀을가! 그의 머리속에 먼저 떠오른것은 앓아서 누워있는 삼녀어머니였다. 그 새를 들러친 초막에 불을 질렀다면 불길의 일시에 초막을 휘둘러 감았을텐데 앓는 어머니가 언제 빠져나올 겨물이나 있었을가? 기성이는 애들을 데리고 산비탈을 또 뒹굴랐다. 아주 똥선우에 올라서니 쌔내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라는것이 더

욱 확증되었다. 애들은 룡선을 타고 곧장 내달렸다.

센내앞 룡선우에 다달으니, 지금 동네가 한창 불타고있었다. 삼밭으로 돌아나가며 다닥다닥 붙어앉아있는 초가들이 온통 불속에 들어 연기와 불길의 불안고 돌아갔다. 짙날가리, 나무날가리에도 불이 달렸다. 불길은 동네뒤 비탈로도 필편 기여올라갔다. 벌써 아이들이 살던 초막은 다 타버렸다. 이글이글한 불더미가에서 제가 날려일어났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사람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불을 지른 원수도 보이지 않는다. 빈 동네에서 불은 제멋대로 타고있었다. 애들은 방금 샘내 앞풀짜기에 기여들었던 놈들이 인민혁명군한테 된통 얻어맞고는 이리로 달려넘어와 불을 지른줄은 몰랐다. 놈들은 센내에 불을 지르고는 자취를 감춘 인민혁명군을 찾아 산을 수색하며 북동쪽으로 넘어갔다.

애들은 동네로 달려내려가지도 못하고 산룡선에서 안질부질 못했다.

《어머니랑 금실아지미랑 모두 어떻게 됐을까?》

제더미가 된 초막자리를 굽어보고 싶던 기성이가 두눈을 번쩍거리며 물었다. 만 애들도 정말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눈물들이 글썽해졌다. 이러는데 북동쪽에서 총소리가 울려왔다.

《쌈, 불었다.》

애들이 일시에 고개를 쳐들며 웨쳤다. 기성이는 애들을 데리고 산룡선을 타고 북동쪽으로 내달렸다. 여긴 룡선이 숙었다솟았다 하며 가파로운데가 많았다. 애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우거진 나무숲을 헤치며 뛰었다.

북동뒤 산룡선에 다달은 애들은, 너무도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에 안겨드는데바람에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북동도 온통 불길속에 들었다. 시끼면연기가 앞이 보이지 않게 물컹물컹 솟아오른다. 연기는 산룡선으로 치달아오르며 내내를 뚱기였다. 불길속에선 무엇이 튀는지 략랑 소리가 울리며 불찌가 하늘로 솟구친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는다. 능산쪽으로 난 큰길우엔 아낙네들이 짝 덮였는데 놈들이 전후 좌우에 막아서서 뭐라고 왜왜 고향을 질러낸다. 결국 샘내와 북동에서 능산쪽으로 가던 피난민들이 걸려든것이였다. 사람을 쓰는 총소리런지 량방 땅땅 소리가 들린다. 불붙는 동네길에도 사람들이 얼쩔얼쩔 보인다. 연기속으로 적들이 쫓박질하는것도 보인다.



〈저놈들이 사람을 다 죽이자는것 안야?〉

애들은 부르짖 주먹을 펴며 웨쳤다.

〈애, 저기 큰길에 우리 어머니도 뵈다.〉

바위들우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던 꼬마동이 태호가 소리쳤다.

〈어디말이나?〉

애들은 우르르 꼬마동이 걸으로 달려갔다.

〈지금은 연기가 막혀서 보지 않는다. 인제 정말 봤어. 한아름 되는 보통이틀 이구 금실아지미두 있었어...〉

기성이는 치가 떨렸다. 어머니랑 금실아지미랑 저 슬한 사람들이 인제 무슨 변을 당할는지 알수가 없다. 저놈들이 아낙네들을 길바닥에 모아세우고 어떻게 할참으로 저러는가! 그는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섰다. 틀림없이 길바닥이 피바다로 될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등을 굽히고 쉼터어나간 돌출부쪽으로 기여나갔다. 거기 나가니 연기가 좀 엷어지며 골짜기바닥의 큰길이 험하니 내려다보인다. 아낙네들이 와글와글 쭈뼛는다.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울음소리도 들린다. 동네가 타는 골짜기바닥의 불길속에서도 희생이 있는것 같다. 놈들이 총탄으로 아낙네들을 두드려패며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기성이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잠깐 서서 지켜보았다.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났다. 그러다가 기성이는 번개같은 생각이 떠올라 뒤따라온 애들을 모두 산너머에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나팔을 들어올려 입술에 댔다. 가슴이 뛰고 피가 솟음쳤다.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저 슬한 어머니들, 누나들, 아주머니들, 동생들이 지금 적의 총구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길 내려다보며 가만히 있어야 한단말인가! 다같은 우리 상촌의 한집안 식구가 아닌가! 김일성장군님께서 꾸려주신 근거리안에서 서로 돕고 웃으며 힘을 모아 어려운 혁명을 해나가던 우리 식구들이 아닌가! 혁명을 하고 나라를 찾은 담에는 근거리같은 자유세상을 삼천리땅에 만들어놓고 천년만년 옛말을 하며 살아보차고 서로 손잡고 꿈을 말하던 마울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 꿈 많고 사랑 많은 우리네 식구들을

피바다에 잠귀녕다니! 기성이는 몸을 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나팔을 북동팔짜기에 내대고 몸을 빙빙돌리며 류창하게 뱀다붙었다. 산이 흔들리는것 같고 풍중의 흰구름도 덩실덩실 물동을

하는것 같다.

뒤따라온 애들도 기성이가 무얼 어떻게 하려고 나팔을 분다는걸 깨닫고 웅성거리며 쫓았다. 애들의 눈에도 불꽃이 일고 가슴이 뛰놀았다. 그들은 적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산으로, 기여올라올텐데 무얼로 때려잡을가고 떠들었다. 총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도 있고 돌을 굴리자는 아이도 있었다

《애, 너희들은 산너머로 넘어가라!》

기성이는 검은 눈섭을 구뫏하며, 심을 냈다. 애들은 그제야 모두 다 탐취처럼 발발 기여 기성이의 뒤 언덕끝에 가서 납작 엎드렸다. 모두들 풀포기새로 눈들을 빠끔히 내밀고 돌출부에 선 기성이의 장수같은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린 돌을 들어다 굴릴 차비를 할가?》

《여긴 나무가 많아서 틀렸어.》

《야, 정말 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팔을 불던 기성이는 돌출부에서 달려내려가더니 밀림속으로 빠져 저편 등성이쪽으로 기여올라간다. 동무들이 피하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피하는것이다. 얼마뒤엔 산등성이너머에서 나팔소리가 울리었다. 제일 겁이 없는 태호가 목을 빼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적은 어테로 갔는지 다 없어졌다. 피난민들만 와글거리며 능산쪽 산굽이길로 내빼기도 하고 길건너 산으로 하얗게 기여오르기도 했다. 별안간 산밑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귀를 찌는것 같은 소리가 산을 들었다놓는다. 아이들은 그제야 적이 다 밀려 오르는줄 알고 재빨리 잔등산으로 기여올라갔다.

그래도 어떤 애들은 그제 올라가진 않았다. 두셋이 대들어 다리를 번디디고 땅에 박힌 바위돌들을 들어일궈선 내리굴리고 뛰었다. 정말 나무들때문에 돌이 바람을 내서 굴지 못하고 이 나무 저 나무를 치며 술주정하듯 왔다갔다했다.

《헉, 이만늬의 산...》

태호는 두눈이 새빨개서 뻑뻑이 들어선 나무들을 밟상스럽게 바라보며 두덜거렸다.

나팔소리와 총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온 산을 뒤흔들어놓는다. 묘창한 나팔소리는 다시 자리를 옮겨가며 서쪽 등성으로 애들아간다. 사

람들을 더 멀리멀리 피해가서 숨으라고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 놈들은 꼭 샘내 앞뜰짜기에서 싸우던 인민혁명군과 맞붙은 줄 알고 기를 쓰며 나팔소리를 따라 올라왔다. 그러나 급하게 피해가던 피난민들은 그제 인민혁명군의 나팔소리가 아니고 기성이의 나팔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들 걸음을 멈췄다. 그 누구도 발이 저려서 필수가 없었다. 저 어린것은 술한 사람을 살리려고 나팔소리로 적을 유인해가는데 제 한목숨 살겠다고 천방지축 아우성치며 뛰겠는가!

아낙네들도 늙은이들도 모두 나팔소리에 가슴이 적었다. 산허리에도 길우에도 사람들이 짐들을 내려놓고 하얗게 모여섰다.

숲이 우거진속으로 적이 달리는 것도 보이고 이따금 나팔을 쳐들고 불어대는 기성이의 모습도 보이였다. 사람들은 나팔소리가 끊어지면 이게 어찌된 일이나고 웅성거렸다. 북동앞 길바닥에 서있는 리상너는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이따금 파리 질 손으로 무르팍을 두드리며 왜 나팔소리가 나지 않느냐고 소리를 치군했다. 그러다가 또 나팔소리가 나야 어이구 살았구나 하고 숨을 내뿔었다. 굼실이라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떨었다.

사람들은 기성이가 흰구름밑에서 나팔을 분다고 웅성거렸다. 정말 기성이는 아스라한 흰구름밑, 서쪽 봉우리끝에 거인같이 나타나 나팔을 불었다. 그러더니 또 이어 몸을 숨겼다. 나팔소리는 남쪽산허리를 가로지르고 나가며 울리었다. 적은 혼란에 빠져 온 산을 갈팡질팡 뛰었다.

나팔소리는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한다. 총소리가 잇달아 여러방 울리었다. 그러자 류량하게 울리던 나팔소리는 불시에 동강이 나듯 문뜩 멎어버렸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또 웅성거렸다. 이제 기성이가 아주 피했다는 사람도 있고 적탄에 부상을 입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발을 구르는 사람도 있었다.

기성이는 통선우의 나무도 없는 풀밭에 붉은 락조를 받아안고 누웠다. 온몸이 점점 까마득하게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만 같았다. 가위선이 연하게 불타는 구름장들이 자꾸만 이마우로 흘러가는데 어떤 때 그것이 한길 더 낮추 내려와 불과 눈언저리를 살뜰히 어루만져주는 것 같기도 했다. 기성이는 그걸 만져보고 싶은 재롱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손도 아무것도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

저 모든것이 아득아득 멀어지고 캄캄캄캄 줄리기도 했다.

이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기성이를 부르며 뛰어 들었다.

《애 기성아, 너 총 맞지 않았니?》

《총은 무슨 총이냐?》

《그런데 뿔때문에 뉘었느냐?》

《그저 힘들어 그런단다.》

아이들은 기성의 소리가 심상치 않아 얼른 걸으므로들 다가가 물어다보았다.

《아니 이게 무슨 피냐?》

태국이와 흥갑이가 풀밭을 적신 피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그제야 기성이가 총에 맞았다는걸 알고 눈이 둥그래서 뛰었다. 정말 곁에 놓여있는 나팔에도 피가 묻었다.

《애 기성아, 너 어딜 맞았니, 보자!》

《관뿔, 맥이 없다.》

《애, 맥이 없으면 피 나오는걸 막지 않겠니?》

애들은 기성의 토목양복 앞섶을 제끼며 상처를 찾았다. 태호, 태국이, 흥갑이 세 꼬마는 피가 나오는데 쑥을 두드리 붙이면 피가 멎는다는 소리는 어데서 들었는지 쑥을 찾아 온 산을 여기저기 뛰었다.

기성의 몸에서 상처를 띠여본 애들은 눈물을 툭툭 떨구며 울었다.

《울지말어, 난 줄려서 그래. 너희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데 봤니? 우리 어머니랑?》

《보잖구, 죄다 피했어, 우리 어머니두 어데든 피했을거야.》

애 하나가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대꾸했다.

《너희들 정말 툭툭히 봤니?》

《그 그럼...》

기성은 그말을 듣더니 얼굴에 활짝 피뵈이 올랐다가 다시 서서히 창백해져갔다. 쑥을 뜯으러 갔던 꼬마들은 빈손으로 뛰어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산등에 무슨 쑥이 있고 또 지금 철이 어느때게 두드리붙일 쑥이

있으랴! 꼬마 셋은 기성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와앉아 기성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기성이 손을 내밀어 태호와 태국이의 손목을 잡았다. 어린 가슴들엔 무엇이든 이룰수 없는 살뜰하고 따뜻한 것이 목을 매게 오고갔다. 태호와 태국이는 입을 비죽비죽하며 눈물을 떨구었다. 기성의 눈에도 이슬이 피었다.

이러는데 비탈에서 외썩외썩 소리가 나더니 금실이 뛰어들었다. 그는 기성을 찾느라고 온 산을 어떻게 헤맸는지 얼굴이 땀에 젖었다.

《기성아! 너 이제 웬일이냐?》

금실이는 아이들을 헤치고 들어서며 웨쳤다. 기성은 대꾸가 없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금실을 쳐다만 보았다.

《기성아, 너 어디 맞았어?》

《나 맥없어서 그래요.》

《맥없다는게 뭐냐? 네가 어딜 맞았게 이렇게 됐니?》

금실이는 불안아 일으키지도 못하고 펄펄 뛰다가 저편 언덕앞으로 도로 달려나간다. 그는 언덕아래에 대고 기성이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거기가 어디냐고 밑에서 아우성이 일어난다. 사람이란 사람은 죄다 밀려올라와 산에 덮이였다. 그들은 방금 기성의 나팔소리를 듣고 나타난 인민혁명군이 적을 죽치며 유인해가는 것을 보고 왔다.

《여기야요. 똥신우예요. 기성이 급해요! 빨리들 올라와요!》

얼마 안있어 사람들이 밀려올라왔다. 우거진 나무숲을 잡아헤치며 모두들 숨이 차게 달려올라왔다. 리상녀어머니는 남자가 풀어져내리고 관지뿔이 솟은 누런 얼굴에서 땀이 툭툭 떨어져내렸다. 사람들은 뒤를 대어 자꾸 올라왔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달려들며 굶는걸 보니 당장 그 무슨 슬픈 일이 걸머어 일어날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모두 겁이 났다. 그들은 아나네들 사태에 밀려 한쪽옆에 나가 우뚝우뚝 섰다. 태호는 피묻은 나팔을 가슴에 붙이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아이들곁에 섰다.

하늘엔 저녁노을이 붉게 탔다. 고기비늘같은 구름장들도 죄다 시뻘겍게 물들었다. 그 피빛같은 하늘로 무슨 새인지 이름모를 외로운 새 한마리가 팔딱팔딱 깃을 치며 날고있다. 그게 어린 동심들에 더

돌을 던지는것 같은 충격을 주어 아이들은 모두 팔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적적 울었다.

2

기성이는 하늘로 날고있다. 꽃구름이 아름답게 깔린 하늘이었다. 흰구름, 붉은 구름, 불꽃같이 노란 구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구름이 날고 날아도 끝이 없다. 붉은 구름을 꿰지르고 나가면 흰구름의 꽃발이 펼쳐지고 흰구름을 꿰지르고 나가면 노란 구름의 꽃발이 펼쳐졌다. 그는 구름속을 날아나가다간 꽃수술 달린 나팔을 입에 대고 불었다. 나팔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맑고 부드러운가 하면 힘차기도 했다. 그 황홀한 소리가 구름을 헤치고 누비며 멀리 멀리로 퍼져간다.

그런데 누가 부른다. 아득한 구름아래에서 누나가 부르는것 같다.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누나다. 아, 그리운 누나! 기성이는 구름우에서 툭 떨어져내렸다. 탕 소리가 나기에 주위를 살펴보니 민가네 방아간이었다. 여원 당나귀가 있고 연자의 매들이 있고 멩에채와 곡식마대들이 쌓여있다. 얼굴이 가망게 된 누나가 땀을 철철 흘리며 당나귀를 본다. 당나귀는 발을 떼지 않았다. 누나는 희초리로 당나귀를 때린다. 그래도 당나귀는 발을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누나는 부득이 당나귀를 끌어내가고 제 힘으로 멩에를 밀었다. 그제야 멩에가 조금씩 드린다. 기성이도 달라붙었다. 빠그극빠그극하는 연자방아소리, 누나의 가쁜 숨소리, 기성이자신의 헉헉 하는 숨소리.

《기성아, 기성아!》

누가 부른다. 방아간이 아니고 어테 땀곳이다. 아니 방아간은 가뭇 없어져버렸다.

《기성아, 기성아!》

또 누가 부른다. 기성이는 눈을 가까스로 떴다. 이마우에 둥그런 불빛이 있다. 그런데 어쩐지 뜨겁진 않고 눈덕우에 딱 붙어 짓누르는 것만 같다. 그는 얼마후에야 그것이 공중에 떠있는 달이란것을 알았다. 달 저쪽으로는 무엇인가 깜빡깜빡 숨었다나타났다 하는것들도 있다. 그건 별이었다. 달과 별! 아, 나는 지금 어테 와 누워있는가!

《기성아, 기성아!》

누가 또 이름을 부른다. 지성이는 서서히 걸을 돌아보았다.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우뚝우뚝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다. 크고 주글주글한 얼굴이 눈언저리에서 자기를 지켜보고있다. 큰 눈망울엔 물기가 번쩍거렸다. 누굴까? 아무래도 생각이 안났다, 자꾸 가물가물 어두워지는것만 같았다.

《기성아, 언제 정신이 드니?》

《누나!》

기성인 묻는 말엔 대답지 않고 누나를 불렀다.

《오냐, 누나가 언제 온다.》

《누나! 누나!》

기성이는 거듭 두마디를 또 불렀다. 숨이 찼다. 꼭 누나가 저쪽에서 달려오는것만 같다. 그러나 오진 않았다. 기성이는 또 두눈을 사르르 감았다.

기성이옆에 서있던 사람들은 후후 단김을 내뿜며 물러섰다. 상녀 어머니와 금실이, 차응도회장과 희섭이 그리고 청진기를 목에 건 의사만이 기성이옆에 앉은채 달빛이 흐르는 세파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성이는 얼굴도 작아지고 몸도 훨씬 작아졌다. 아무리 피가 빠진들 어떻게 이처럼 졸지에 조그맣게 변할수 있을까!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저 굳어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다. 리상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기성의 몸에 덮은 포대기를 당겨 올려 놓아 주고 머리맡에 막아놓은 하룻도 끄당겨 바람을 가리워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찬바람이 겨드랑밑으로 기여든다. 어데고 집이 죄다 불탔으니 이 세상에서 마지막밤을 보내게 되는지도 모르는 기성이를 찬바람 찬서리로부터 가리워줄 한귀퉁이 추녀밀도 없다.

달빛 푸른 산등엔 사람들이 가득 모여앉았다. 기성이로 하여 피해를 모면한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여기저기 싸움터에 있던 사람들도 수대 나무밑에들 와앉아서 밤을 새웠다.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사람의 생명을 맘대로 구해낼수 없는 일이 몹시도 안타까웠다. 저 어린 소년이 이렇게 슬한 사람을 살려놓고는 저혼자 저렇게 피로와하며 누나를 부르고있다.

용감한 소년을 다시 살려낼수 없을까? 적을 이끌고 숲을 번개처럼

럼 돌아가던 소년, 산마루우에 장수같이 나타나 나팔을 불던 소년, 그 기성이를 다시금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게 할수는 없을까!

모두 달빛이 차있는 먼 공간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들을 했다. 아스라하게 퍼져나간 눈아래, 상촌, 중촌, 멀리 구암일대까지도 바라보이는 망망한 산야는 옅은 운기와 달빛에 싸여 너무도 숙연히 너무도 무심히 누워만 있다.

아이들도 모두 저편 풀밭에 말없이 앉아있다. 은근히 훌쩍거리며 우는 애들도 있다. 태호, 태국이, 홍갑이 세 꼬마는 외따로 한쪽에 물러가 우두커니 앉아있다. 어떻게 그처럼 씩씩하던 기성이가 죽을수 있단말인가! 죽음이란게 무어란말인가! 인제 정말 기성이가 죽는다면 그 검은 눈썹을 구뫓하며 씩 웃군하던 얼굴은 영영 못보게 된단말인가! 그 웃음소리, 그 말소리가 죄다 허공중천에 없어져버리고만단 말인가!

세 꼬마는 분하고 서러운 생각을 누르며 망망한 눈아래만 슴빱거리며 바라본다. 모두들 갑자기 몇살씩 더 먹은것 같다.

차응도와 회섭이는 피로움을 누르느라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했다. 차응도는 아이들속에 와선 춤지 않느냐고 옷을 만져보고 잔등을 쓸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피난민들속으로 가서는 찬 땅에서라도 눈을 좀 불이라고 했다. 모든것이 다 가슴을 저며내는것 같은 아픔을 주는 것이였다. 회섭이는 어테다 탕탕 몸부림이라도 치고싶었다. 자기 교탁앞에 앉아 진리를 배우던 소년 하나를 잃는다는 비애만이 아니였다. 그의 영웅적소행은 생각하던 생각할수록 가슴을 찢으며 그렇기때문에 그를 잃는다는 일이 그렇게도 슬프고 안타깝고 분했다.

《회섭동무, 내 좀 내려가보겠소. 아무래도 리진구동무가 정순동무를 찾아내지 못하는것 같소. 아까 3소대에 왔다가 화약을 가지고 강을 건너갔다는데 어테가 찾으며 헤매는지 모르겠소.》

차응도가 이러며 산릉선으로 걸어나간다. 그는 초조했다. 기성이는 가망없는것이 명백하다. 그것도 점점 더 시간이 좁혀든다. 안타깝게 누나를 찾는 소리. 그 마지막소원을 못풀어주어서야 말이 되는가!

차응도는 산릉선을 급하게 걸었다. 그는 아무래도 병기창에 가보아야 할것 같아 샘내앞 여울을 건너려고 풀짜기로 내려갔다.



강가에 다달으니 마침 녀자들이 무엇인가 한입씩 이고 여울을 건너온다. 여기는 개안촌앞보다 여울이 급해서 좁한 힘으로는 내려짚는 물살을 헤가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녀인들은 힘차게들 건너왔다. 덩구는 물이 포말을 일으켰다.

《서로 붙잡은걸 놓지 말아요.》

정순이의 목소리다. 차응도는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맞바로 만났다는 생각도 들고 화약을 갖다두고는 무얼 또 저렇게 이악스럽게 이고 건너오며 아낙네들을 부축하며 이끄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태봉지구에 가서 일을 잘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싸움이 벌어진 근거지에 돌아오자마자 또 저렇게 앞장서서 해낸다. 저런 열정이 어디서 생길까? 기특하고 고마웠다.

차응도는 물로 침병대고 들어가며 조심히물 건너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녀인들은 물소리때문에 그 누구도 차응도의 소리를 못듣는것 같다.

얼마후 작탄상자를 인 녀인들이 물에 치마폭을 행구며 강가에 이르렀다.

《회창동지!》

정순이가 먼저 차응도를 알아보고 웨쳤다. 그는 앞서서 물을 차며 내달아왔다.

《수고를 했어, 수고를 했단말야.》

차응도는 눈굽이 뜨거워지는 격한 감정을 누르며 정순이의 머리우에서 작탄상자를 받아안고 강가로 나왔다. 그는 그걸 놓고는 물가로 나오는 틈 녀인들의 작탄상자도 뉘뉘 받아서 내렸다. 물살이 세차서 작탄상자들도 모두 척척히 젖었다.

《동무가 왔다는 소리는 내 들었소.》

《그새 안녕하셨어요?》

《나야 잘 있구말구, 그때 리진구동무를 못만났소?》

《못만났어요. 모두들 숨을 좀 돌리세요. 그리고 젖은 치마자락두 좀 짜요.》

정순이는 차응도와 이야기를 하다말고 아낙네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상촌을 떠날 때보다 더 숙성해지고 말소리도 커진듯싶었다. 아낙네들은 모두 중등매끼들을 풀고 치마폭들을 비틀어짜다. 물이 뛰여울

라 지고리며 머리까지도 젖었다. 어떤 아낙네는 남자를 고쳐틀며 강물에 대고 욕질도 했다. 모두 추워서 이발을 툇툇 조았다. 이러한 데리친구가 헐썩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봉수골과 개암골쪽을 돌아 인제야 강을 건너가보자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도 아낙네들과 작탄상자를 보더니 입을 벌리며 놀랐다.

《벌써 이렇게 일을 해내는 줄은 모르코...》

리친구는 정순이의 젖은 손을 잡아 흔들었다.

《일이 마친 잘됐소. 인제 친구동무가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봉수골 집걸쳐로 가구 정순동무는 나와 함께 가야겠소.》

차응도가 이리하며 정순이를 불렀다. 정순이는 치마를 비틀어짜다가 차응도의 곁으로 왔다.

《동무는 나하고 산릉선으로 같이 가자구.》

《어느 산릉선이에요?》

《글세 나를 따라오우.》

차응도는 정순이를 데리고 떠났다. 생내어구로 들어가는 차응도는 아무래도 산릉선의 비극을 알려주어 미리 마음을 다잡도록 하는제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정순동무!》

《네...》

정순이는 의아쩍게 달빛 받은 차응도의 엷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쩐지 엄숙해보이는것 같은 얼굴이었다.

《내 머리 말하지만 혁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앞에서도 자기를 다잡을줄 알아야 되오.》

《무슨 시련말예요?》

《오늘 기성이는 나팔로 적을 유인하고 숨한 사람을 살려냈는데... 지금 그 애는... 위독하오...》

《네에?...》

정순이는 걸음을 멈추며 차응도를 쳐다보았다.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하오.》

《회장동지 그게 정말이예요? 네?》

《가슴이 아프오...》

정순이는 당장 힘이 꺾여 허리를 휘청거리며 한발 물러섰다. 그

는 비탈진 풀밭에 녹아들듯 오금을 꺾으며 조심히 들어앉았다. 숨이 짙 막혀 어쩔바를 모르고 한참이나 앉아있었다. 온몸에서 알속이 다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무섭고 막막한것이 눈앞으로 검은 바다물처럼 밀려든다. 기성이가 죽다니? 그게 죽는다는 말 아닌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 곳곳이 살아오며 인젠 가슴이 넓어지고 뼈가 굵어진 그 썩썩한 기성이가 죽다니? 어찌 꿈엔들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는가! 정순이는 이발을 사려물었다. 기성이는 절대로 잘못될수 없다고 혼자 안간힘을 썼다.

차응도회장이 와서 손을 잡아일으켰다.

《회장동지! 그 애가 아직 숨이 진진 아니지요?》

《지금 누나를 몹시 찾고있소. 어서 일어서오!》

정순이는 차응도에게 끌려 일어섰다. 사려무는 신념이 굳어지는것 같기도 했다. 숨이 졌대도 기성이의 죽음은 인정할수도 없고 받아들일수도 없는 정순이었다. 그는 자기의 절박한 가슴속에다 어떻게 하든 기성이에겐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그 가느다란 신념의 기둥을 세워보려고 안타깝게 애를 썼다. 그래도 그게 힘을 만들어주어 급기야는 차응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기성이를 놓고 공연히 그러는것 같은 생각도 하며 산비탈을 휘둘렀다.

산등우엔 점점 더 침통한 기운이 짙어갔다. 누구 한사람 말이 없다. 조용한속에서 나무가지끝에 부는 바람소리만 부슬부슬 울린다. 이런 때 차응도가 정순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게 누구냐? 정순이 아니냐?》

리상녀가 웨치며 달려나왔다. 그바람에 산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일어섰다. 애들은 정순이라는 소리에 가슴에 바위돌이라도 떨어지는것같은 쿵 하는 충격을 받았다. 누나가 왔다는 일이 반갑다기보다 겁이 더러 나기도 했다. 누나가 인제 기성이를 보면 어찌될가? 깜짝 기절이라도 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동생을 어느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펄펄 뛰며 어데로 내닫지나 않을까? 애들앞에 선 인수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울었다.

그러나 정순이는 쓰러지지도 펄펄 뛰지도 않고 기성이가 누워 있는데로 걸어갔다. 도리어 어머니와 금실이, 그밖에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씻기도 하며 넘어질것 같은 걸음으로 정순이의 뒤를 따랐다.

정순이는 동생의 곁에 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누나의 눈에 비친 동생의 얼굴은 꼭 돈있만 했다. 정순이는 가슴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내색이 없이 동생의 이쪽 저쪽 손을 다 쥐여보았다. 그리고는 어데 부상을 입었는가고 다시 온몸을 더듬어보았다. 정순이는 기성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이틈을 불렀다.

《애, 기성아, 내가 왔다. 누나가 왔다.》

그러나 기성이는 눈을 뜨지 않는다. 언제 울었는지 양눈귀엔 눈물 흘린 흔적이 달빛에 번들거린다. 정순이는 몇번 더 불려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다. 리상녀가 나왔으며 기성이를 와락 흔들었다.

《애 기성아, 누나가 왔구나! 그렇게도 오매불망 찾던 누나가 왔구나, 눈 좀 떠라! 네가 지금 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제야 기성이는 실눈을 싸끔히 떴다.

《기성아! 내가 왔어, 너 누나를 모르겠니?》

기성이는 누나를 바라보긴 했으나 눈까풀이 그이상은 열리지 못하고 약간 내비친 몽롱한 눈망울이 줄곧 한점을 바라보고있다. 보는 것인지 못보는것인지도 알수 없다. 어머니가 또 기성이를 소리쳐 불렀다. 금실이라도 불렀다.

《애, 기성아, 눈 좀 더 뜨지 못하겠니? 내가 왔대두, 날 모르냐? 내가 누나야!》

정순이도 주위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동생을 흔들었다. 그제야 기성의 얇은 눈까풀이 홀 벗겨져올라가며 몽롱한 기운을 벗어던진 눈망울이 커다랗게 드러났다. 물기가 번질거리는 그 눈망울이 한참이나 누나의 얼굴을 쓰아보았다.

《기성아!》

《누나!》

이날 이때까지 들어본 일 없는 너무도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기성아! 너 왜 이렇게 됐니?》

《누나, 나 이제 장군님 만났어!》

기성이는 묻는 소리는 대답지 않고 만 이야기를 했다. 기성의 입에서 장군님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주위사람들이 모두 눈들이 커져

서 기성이를 들여다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냐? 네가 언제 장군님을 만나 봐여?》

《아니야 정말...우리 학교 꽃밭에 오시지 않았어. 내가 가꾼 꽃밭 말야...》

기성이는 두눈망울이 이글거리며 숨을 급하게 몰아쉬었다.

《장군님께서 꽃밭을 잘 가꿨다고 하시지 않아...그리고...내 나팔 보시더니 작다고 하시며 인제 큰 나팔을 보내주신다지 않아. 이만치 큰걸...》

기성이는 얼른 나팔의 크기를 가늠해보이려고 두손을 움직하다가 말았다. 손을 들어올릴 힘이 없는 것이었다.

《누나, 장군님 보내주신 나팔이 오면 줘다 날 줘...》

《응 줘다 주고말고...》

정순이는 눈물을 떨구며 대답했다.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씻었다. 얼마나 오래불망 장군님 생각을 했으면 그런 소리를 할가! 불내 여름내 장군님 오신다고 학교마당에 꽃밭을 가꾸더니 그 꽃밭가에서 장군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가슴허비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있지 않는가? 꽃밭소리에 애들이 더욱 꺾꺾거리며 울었다.

잠시 힘을 고르던 기성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누나, 나 죽나?》

《너 무슨 소리 그런 소릴 하니?》

《자꾸만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는것 같애.》

《기성아!...》

그담엔 말을 못했다. 또 눈까풀을 사르르 내려잡는다. 아주 감아 버리자 눈구식에 피었던 보리알만한 눈물이 눈가장으로 도르르 굴었다.

기성이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었다. 의사가 이마의 땀을 씻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선생님, 애가...애가 왜 이래요!...》

의사는 정순이의 질겁한 소리에 대꾸를 못하고 큰숨을 내쉬었다. 기성이는 벌써 숨이 졌다.

《애 기성아, 기성아! 이게 웬일이냐? 네가 왜 이렇게 되니?》

정순이는 일이 너무도 청천벽력같아서 숨이 진 동생을 마구 흔들

며 웨쳤다. 죽지 않는다고, 죽을수 없다고 믿고 믿은 신념도 결국은 부질없고 속절없는 하나의 기원이었다. 엄연한 사실은 너무도 무정하게 이렇게 되고야말았다.

《기성아! 기성아!》

정순이는 당장 목이 짝 막혔다. 부르짖기는 하나 말이 되지 않았다. 하긴 소리내서 부른들 무엇하랴! 빈 공간에나 그 소리가 울려갔지 기성이가 언제 대답할리 있는가! 그래 이 애가 이 세상에서 영영 잤단말인가! 그 잇을수 없는것이 죄다죄다 없어졌단말인가! 가슴에 불을 피붓는것 같은 생각이 겹치고겹친다. 정순이는 숨이 진 동생을 와락 품에 안아올렸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이발을 사려물고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니와 금실이는 그자리에 주저앉으며 풀을 쥐어비틀었다. 사람들도 저편 풀밭으로 나가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애들은 모두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태호, 태국이 같은 꼬마들은 아주 피터버리고앉아 흠을 마구 파내던졌다.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의 호느낌소리가 일어난다.

정순이는 품에 안은 동생의 얼굴에 불과 입술을 문지르며 험험하는 소리만 냈다. 차응도가 다가가 정순이의 품에서 기성을 받아안았다. 그도 잠간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며 눈을 푹 부릅뜨고 기성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가슴속 비분을 용케 눌러내며 어린 시신을 누웠던 자리에 조심히 도로 눕혀었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성아! 가석하지만 하는수가 없구나! 내 머리 희수희수한 늙이네 령전에서 모자를 벗으려니 뗏뗏치도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다.》

차응도의 굵은 목소리가 슬픔이 굵이치는 산정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무엇인가 승화된 승엄한 분위기가 넓은 산마루우를 소리없이 덮는다. 조국광복의 성전에 쓰러진 어린 영웅의 흠어진 숨결만이 온 산천에 서리서리 휘감기는것 같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눈물이 어려 소년의 마지막 뜨거운 숨결을 불에 감축하였다.

《너는 소년영웅으로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잇을수 없는것을 남기고 갔다. 그 누가 네 기루한 소행을...어린 네 몸을 바쳐 수없는 사람을 구원한 그 훌륭한 소행을 잇을수 있겠느냐? 너는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너무도 많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으로 통곡하면서도 많은것을 생각하고 생각한다. 아, 혁명을 위하여 꽃보라처럼 날려간 너의 그 장한 넋을 무슨 말로 달래일수 있단말이나!...》

부슬부슬 찬바람이 불어왔다. 차응도는 불에 그슬린, 너무도 졸지에 회여진 머리를 어지러이 날리며 차츰 목이 메어 음성을 떨었다.

사람들은 차응도의 아픈 말을 다 들어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회색이는 넘어질것 같은 걸음으로 산릉선을 걸어나갔다. 그는 앞에 와닿는 나무가지들 외쪽외쪽 잡아당겨 꺾으며 몸부림치며 숲을 헤쳐나갔다. 찬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숲이 우수수 설했다. 엉성한 나무가지끝에 남아있던 나무잎새들이 화려르 홀날려갔다.

### △ 어휘 및 표현

- 료량하다. (일정한 일에 대하여 사정, 형견 등을) 헤아려 생각하다.
- 죽신하다. (정도나 수량이) 일정한 한도에 차고도 남을만하다.
- 되튼얻어맞다. 헤어나기 몹시 어려울 정도로 되게 얻어맞다.
- 천방지축. 《너무 바빠서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상태》를 이르는 말.
- 안간힘(을) 쓰다. 피로움을 참으면서 있는 힘을 다 쓰다.
- 가석하다. 안타깝거나 애가 타게 매우 아깝고 섭섭하다.
- 소래갈다. (맛이) 몹시 쓰다.
- 오엽하다. 목매여 울다.
- 가람하다. 어림짐작하거나 속으로 셈하다.
- 입을 비죽비죽하다. 소리없이 입술을 비죽하게 실룩거리다.
- 포말. 물거품.

# 불멸의 력사

고난의 행군

박취

13

7도구치기로부터 머지않은 부후물등판에서 또다시 두개 중대의 병력이 유격대에게 얻어맞아서 풍지박산이 나버렸다는 소식은 하시모도가 아직 6도구에 머물러있을 때 들어왔었다. 그것은 혼마려단과 무다구찌려단이 추격해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들만 결코 못지않은 큰 력량이 아직도 대격전이 지나간 7도구치기어방에 남아있다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였다.

《내가 뭐라고 하던가? 토벌을 하는데는 산불을 끄듯이 해야 한다고 썩썩 씹어서 말해주었는데 무엇들을 하고있는가? 불씨 하나만 남겨놓아도 그것이 다시 바람을 만나 큰 불로 번져간단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자그마한 불씨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을 그대로 남겨두었으니 대체 너희들이 일을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너희들의 눈에는 제국의 운명은 그만두고 제 목을 겨누고 다가드는 유격대의 총칼이 보이지도 않는가?》

하시모도는 모리중좌는 말할것 없고 데라시마중장도 참가한 막도 회의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모든 참가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6도구일대에는 아직도 수만을 헤아리는 병력이 집결되어있었고 하시모도가 새로 떨어진 지시에 따라 다시 수만의 군대가 몰려들고있었다. 군대뿐아니었다. 군량마차, 술통, 군복통구리, 털모자, 지어 계 집년들까지 차칸에 땀땀 채워서 들이밀고있었다. 그러한 군량에 배가죽이 두터워진 몸뚱아리를 개털모자와 솜외투로 두툼하게 감고 배갈에 일근히 취한 <무적화군>의 장병들이 때를 지어 밀집으로 쓸어들었다. 6도구에서 진백탄의 값싼 류탕가에 낚을 빼앗긴 이 불쌍한 화상들은 밀이 빠지는줄도 모르고 룡강산맥과 장백산맥의 두 산줄기가 어울리는 대밀림속으로 보무당당히 쳐들어갔다. 숲도 눈도 산세도 다



같이 장엄한 이 대자연속에 뽀뽀이 흩어져 시대착오적인 용맹성을 발휘한것들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지 알길은 없지만 저 아득한 지질시대의 무수한 공룡들처럼 필경은 지각속에 파묻힌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대단히 서슬무른 형상이었고 그 수가 또한 엄청나서 얼핏 보매 장백-림강오지의 밀림을 다 집어삼킬듯하였다.

적의 발악이 이처럼 절정에 이르자 금성동지의 기묘한 전술과 전법은 더욱 그 위력을 떨치며 밀림은 《토벌대》의 죽음터로, 눈벌은 늑들의 지승길로 변했다.

금성동지의 천재적인 전술과 령군술에 의하여 유격대는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이 조성되고 앞뒤로 갈길이 절벽처럼 막히버린 막다른 정황에서도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고 땅속에 잦아들듯이 한 순간에 없어지는가 하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늑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군하였다.

부후물등판을 떠나 얼마를 못가서 밀림속의 정황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적들은 이 일대에 아직도 유격대의 대부대가 남아있다고 떠들면서 수많은 《토벌》무력을 집중시켜 그야말로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유격대원들의 얼굴색도 달라졌다.

그러나 금성동지의 안색에는 조그마한 변화도 없으시었다.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히려 웃으시더니 이놈들이 수고스레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해쳐놓아야겠다고 하시면서 배정식이 인솔한 습격조를 파견하시었다. 그들은 금성동지에서 가르쳐주신대로 7도구방향으로 대부대가 행군해간듯한 발자국을 내놓고 반대쪽에 있는 목재소어구에서 적 말파리떼를 습격하여 다섯필의 말을 로회해왔다.

그러자 유격대를 찾아올때면 적들은 대부대가 7도구방향으로 행군해갔다고 저마다 웨쳐대면서 우르르 그리로 쏠려갔다. 유격대는 말파리떼를 습격하여 해결한 식량으로 한동안 배불리 먹으면서 권천히 장백 깊은곳으로 이동해갔다.

한번은 완전히 포위속에 들번도 하였다. 적들이 하도 많이 우글거리니 때로는 언제 발견되었는지도 모르게 적이 앞뒤로 달릴 때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바로 적이 행군해가는 옆구리에 나타날 때

도 있었다. 제각 청황을 판단하신 **금성** 동지께서는 대원들을 미처 아  
 물지 못한 적 포위환의 짬을 빠져나오게 하심으로써 적들끼리 사면팔  
 방에서 서로 맞붙질을 하여 밀림을 저희네 **송장**으로 뒤덮는 통쾌한  
 광경을 구경시켜주시었다.

**금성** 동지께서는 이처럼 어렵고 힘겨운 행군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적을 피하는데 전투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이해겨  
 울에 적을 험한 눈구멍이속으로 질질 끌고다니면서 놈들로 하여금 기  
 껏 지쳐서 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게 만들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완  
 강한 의지와 혁명적전개력으로 관철해나가시었다. 하기에 적들이 어  
 쩌다 아군의 발자국을 놓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 일부러 습격조를  
 파견하시여 놈들의 숙영지 한복판을 들쑤셔놓게도 하시고 혹은 적의  
 발자국자리가 대통로처럼 나있는곳으로 행군해갔다 그 발자국을 다  
 시 적의 발자국자리에 이어놓고 감쪽같이 사라짐으로써 적들을 기진  
 맥진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져 문을 내지으며 주지않게도 만드시었  
 다. 이렇게 적들이 눈구멍이에 앉아몽게면서 갈길몰라 해매일 때는  
 의례 그 뒤통수를 향하여 유격대의 새찬 교차사격소리와 돌격합성이  
 울리게 마련이었다.

이쯤 들이쳐서 적들이 또다시 밀림을 뒤덮을 즈음이면 놈들의 텅  
 빈 후방에 습격조를 파견하시여 가까스로 밀림속에 숙영지를 잡으리  
 는 놈들을 숨을 태울 사이도 없이 후방방비를 위하여 되달려가지 않  
 을수 없게 하시었다.

적들은 완전히 **금성** 동지의 손바닥우에서, 놀아났다. 그이께서 쥐  
 락펴락하시는데 따라 밀림으로 쓸어들었다가 후방으로 달려갔다가 하  
 는 놀음을 몇차례 거듭하는사이 적부대들은 초침을 해놓은것처럼 흐  
 물흐물해지고 걸레죽처럼 너털너털 해졌다.

사나운 눈보라와 추위,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군과 전투는 유격대  
 원들에게도 실로 진고미문의 시련이었다. 그러나 **금성** 동지의 신출귀  
 몰한 전술과 전법에 걸려 박달나무 얻어터지는 대밀림속의 눈번을 이  
 리저리 끌려다니는 왜놈 <로벌대>의 물물은 그보다 몇갑절 참혹하  
 였다.

그것이 유격대원들의 극도로 지치고 허기진 육체에 힘을 주고 신  
 심을 주고 자량을 주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 한 순간에 일행천리하

는 비상한 기동력, 적들의 먼전에서 승천입지하듯 사라지는 기적을 빛어내는가 하면 청청하늘에 퇴성벽력을 불리오듯 불의에 적을 들이쳐서 냇을 빼여놓는 용맹과 슬기를 키워냈다.

하시모도는 거듭되는 참패소식에, 약이 오를대로 올라 또다시 세 병력을 밀림에 들이치는 한편 후방방비를 철통같이 강화하라고 데라시마와 모리를 다물아쳤다. 데라시마도 모리도 황급해나서 제놈들대로 일선지휘관들에게 상육을 피뎀는가 하면 인민들을 못살게 들볶아냈다.

이러한 때 금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이끄시고 백바위골에서 산 하나를 넘어선 야산기슭의 천막안에 앉아계시었다. 7도구를 떠나서는 처음으로 치는 천막이었다.

《동무들, 풍을 치시오. 저놈들이 이제 모두 밀림속으로 깊숙이 물러갔으니 우리가 이런 야산에 앉아있다는것을 눈치챈다. 하더라도 내려오자면 한참 걸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풍을 걸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갈것입니다. 모두 몸들이 얼었는데 풍을 치고 오래간만에 따뜻하게 폭 녹입니다.》

사흘전 멀리 동네들이며 포대들까지 바라보이는 산기슭에 나와서 모두 눈이 등그래있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백바위골은 말할것 없고 장백-림강 사이의 큰길이 불과 20리밖에 가로놓여있었다. 수만의 적《토벌대》가 무시로 밀려다니고 동네마다 완전전투준비상태에 있는 왜놈수비대와 경찰들이 육실거리는 주민지대의 바로 코앞이었다.

이런 야산기슭에 풍까지 치고 앉았다는것이 대원들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배정식과 강봉수는 연기를 피우지 말라는것과 출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시를 벌써 몇번이나 곱씹어 주었는지 모른다. 나 어린 전령병이나 신대원들은 말할것 없고 경험 많은 전투원들도 정작 전투에 들어선 때보다 더 긴장되어있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적들이 육실거리는 주민지대에 바짝 붙어앉은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속담에도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타오르는 우등불에 두손을 내대시고 전사들을 돌아보시었다.

금성동지의 말씀은 너무나 수수하고 너무나 간명하여서 그 한마

디 말씀속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내용을 당시는 누구도 속속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장군님의 그 한마디 말씀속에 얼마나 큰 뜻과 거대한 힘이 요약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유격대원들은 차츰 느끼기 시작하였다.

다른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사령관동지께서 야산기슭에 천막을 치라고 하실 때 너무나 놀라서 자기의 놀란 심정을 그 누구와 터놓고 이야기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지성도 며칠이 지나 그 말씀의 결과가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자 새로운 놀라움을 가지고 이 겨울에 사령관동지께서 적용하신 진술과 전법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오랜 세월을 두고 널리 보급된 말이고 사람마다 생활속에서 그러한 실례를 허다하게 목격해온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진행하는 혁명전쟁에서 수십만의 적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력한 전법으로 전환시킬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을것이다.

적들은 그렇게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찾아 온갖 힘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였지만 바로 그 혁명의 사령부가 저희들의 코앞에 자리잡고있다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눈덮인 밀림속으로만 쓸어들어간다. 그들이 어리석어서인가? 물론 인간에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두고 볼 때 그리고 엄연한 현실을 눈앞에 놓고 볼 때 그것은 어찌구무없을만큼 어리석은것이 사실이지만 그 누가 그러한 정황에서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천고의 밀림속이 아니라 적들의 수많은 《토벌》무력이 도사리고있는 대도로변 야산에 있을터이니 밀림속으로 들어가자 말고 대도로변을 뒤희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혹 그 어떤 기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할것이니 만일 적들이 그러한 기도로 나온다면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은 또다시 숲속으로 사라지고말것이기때문이다.

전쟁과 전투에서 주동에 선다는것은 이처럼 중요하고 결정적인것이지만 그것을 그 누구나 쉽게 걸어칠수 있는것이 아니다.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해서는 적의 약점과 강점을 살살이 꿰뚫고

있어야 하며 아군의 힘과 부족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적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없다면 약점을 조성시키고 아군의 불리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은 수십만인데 아군은 한개 중대에 불과하다. 이 수적인 대비는 너무나 엄청난고 본질적인 것이어서 이러한 역량상대비를 적의 진술상의 약점으로, 아군의 유리성으로 전변시킬 가능성은 보통상식으로는 있어보이지 않고 또 실지로 인류가 알고있는 그 어떤 전쟁력사에도 그 어느 유명한 병법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것이 리치상으로 혹 가능한 경우에도 그것이 그 무슨 시험이나 놀음놀이가 아니라 인간들의 생명을 걸고 진행되는 전쟁이고 더구나 한나라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일때 그 운명을 책임진 사령관의 천재적인 예지와 초인간적인 의지가 없이는 상상 실천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다.

실로 남패자에서 출발하여 장백땅에 이르는 간고한 싸움길에 금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전략전술과 전법들은 하나같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되는 천재적이며 독창적인 것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적들은 아무리 팔머리를 쥐여짜도 그에 적합한 전략전술적 대책을 내세울수 없었고 때로 그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해도 매번 때를 놓치곤 하였다.

금성동지께서 적용하신 전술과 전법의 기본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 천재성과 독창성에 있다. 이 천재성과 독창성이야말로 사람마다 따를수도 없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매번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전쟁을 지휘하는 인간치고 그 누구가 싸움마당에서 머리를 쓰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태반의 경우에 그 사색활동은 기성의 경험, 기성의 이론의 테두리를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창조성은 전쟁에서 어느때나 주동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이다.

남패자회의에서 적들이 대무력으로써 우리 혁명을 교살하려는 기도에 대처하여 대부대로써 광활한 지역에 유격전쟁을 확대발전시킬 전략을 내세우신 금성동지께서는 그 전략을 관철하시는데서 진투국면마다 실로 다시없는 유연성과 자유분명한 전술을 적용해오시었다.

총체적으로 세계의 방면군은 항일전쟁의 전 국면을 놓고 볼 때 그

어느때보다 광활한 전선에서 대규모적인 전투를 진행하고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전선은 적의 공격성격에 가장 적합한 전투형식으로써 매번 적의 기도와 대무력을 무력한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적이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 어마어마한 집체를 형성했을 때 아군은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놈들로 하여금 엄혹한 추위와 사나운 자연의 제물로 되게 하였으며 적들이 아군을 따라 흩어질 때 아군은 재빨리 집중하여 적을 집중포화속에 몰아넣었다.

그 어떤자가 인간이 진행한 히구많은 전쟁의 력사에 다 통달하여 레컨대 알프스의 험준한 산밭을 대담무쌍하게 극복한 사령관이나 적국 수도에까지 쳐들어갔다 추위와 굶주림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돌아온 황제의 경험에서 배우고 동서의 히구많은 병서를 다 뒤적인다 해도 이러한 전략전술과 전법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것이니 그가 오늘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에 대처할 유효적절한 전술과 전법 혹은 무기를 만들어냈을 때 **금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전략전술과 전법을 내놓으시여 적들로 하여금 바로 그 유효적절한 전술과 전법 혹은 무기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게 하실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이다!》

정지성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전법인 즉 바로 **금성동지**의 무한히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상에 근원을 두고있기때문에 전쟁과 전투의 국면마다 새롭고 끝이 없으며 그때마다 승리만을 약속하는것이라고 크나큰 자랑속에 확신하는것이였다.

정지성이 커다란 감동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을 때 **금성동지**께서는 벌써 새로운 정황에 대처한 새로운 사업을 포치하고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령부원막의 우등불가에 지휘관들과 일부 대원들을 불러들이신 다음 조용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제 우리는 남파자에서 채택한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적들을 때버리기 위하여 계속 전투와 행군을 하다보니 인민들과의 련계를 활발히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놈들이 모두 밀림으로 바라올라갔으니 우리는 지방혁명조직과 사업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장백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조직이 적지 않을것 같습니다. 공작원들을 더 내보내야겠습니다. 인민들이 지금 적들의 악선전에 좀 떨떨해있을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결심과 방침을 알려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산을 무릅쓰고 국경지대로, 국내로 나가자는것도 구경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7도구로부터 15도구에 이르는 넓은 지대에 공작원들이 파견되었다. 정지성이도 김태규도 떠나갔다. 그중의 한조가 백바위골에 나타난 한태혁과 박인섭의 조였다.

백바위골은 거리가 가까운 관계도 있지만 워낙 사령관동지께서 여러 공작조를 내보내실 때부터 이번 공작에서 중심은 백바위골일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터이었다. 몇해전부터 리철범을 내보내시여 이 일대에 혁명조직을 꾸리도록 하시고 그 실정을 날날이 료해해 오신 그이께서는 이번 겨울과 같은 시련속에서도 능히 견디어낼만한 잠재력이 백바위골일대의 조직에는 있을것이라고 굳게 믿고계시었다. 아니나다를가 한태혁이네는 떠나간지 이틀만에 돌아왔다.

겨울치고도 유난히 사납던 이해겨울 들어서 처음 보는 푸근한 날씨였다. 제법 따뜻한 해빛이 양지쪽을 쬐여 사령부의 천막끝에는 고드름조차 한두개 맺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비서처에서 올려온 메라와 학습교재 그리고 정지성이가 그기간 출판물에서 뽑아낸 자료철을 들여다보시다가 그것들을 등사잉크냄새가 풍기는채로 한손에 집어드시고 천막밖으로 나오시었다. 어디선가 다가오는 봄빛을 느끼시었던것이다.

그러나 천막밖은 여전히 사나운 겨울이었다. 바람이 자고 해빛이 이해겨울치고는 꽤 다양한 날씨였지만 어디에도 봄기운은 찾아보지어려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었다. 성애가시가 가물거리는데 해맑게 개인 하늘은 끝없이 높고 한없이 차거워 보이었다. 사납고 긴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시었다. 어디에도 봄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참으로 겨울다운 그 무점없는 하늘의 표정에서 그이께서는 봄기운이 아니라 계절의 법칙을 느끼시는것이였다.

바야흐로 절기는 대, 소한의 고비를 넘기었다. 지금 추위는 한창

절정에 이른듯하지만 어차피 봄계절은 다가오는것이고 그러면 땅속에 숨죽인 생명들이 다시 활개를 치며 성장을 위하여 새 년문을 새길것이다.

《재영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천막안에 대고 부르시였다. 사령관동지와 함께 대원들에게 나누어줄 학습교재와 지방조직에 내리보낼 배라를 정리하고있던 김재영은 천막자락을 들치고 고개를 내밀더니 이팔나무 옆에 서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뒤모습을 보자 달려나왔다.

《사령관동지, 부르셨습니까?》

《불렀소. 참 상철이는 어디 갔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짓으로 재영을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며 물으시였다.

《저쪽 바위뒤에 갔습니다. 아까 거기다 자그맣게 불을 피우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왜?》

《사령관동지께서 이제 학습한걸 검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급해 맞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머리가 쉬갈려서 안된답니다. 불러오십니까?》

《공부를 한다면 내버려두시오. 재영동무 보기에 상철이가 공부를 열성적으로 하는것 같습니까?》

《.../... ...》

김재영은 고개를 떨구고 인차 입을 벌리지 않았다.

《왜? 잘하지 않은 모양이군. 대답을 못하는것을 보니...》

《아닙니다. 요즘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늘 하지 않습니다. 마당겨우때도 꼭 사령관동지께서 나오셔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놀니다.》

《흠—아주 나쁜 버릇이로군. 워낙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를 못하다보니 힘이 들어서 그럴것입니다. 노래 이제는 구구를 거의 다 외웠습니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저 앞을 지나면서 보니까 특철이. 특철이 하면서 꿈꿉거리고있었습니다.》

《이제 특철이라...그러니 오늘밤까지 다 해낼가? 좀 힘들겠는걸.》



《참 야단났습니다. 구구는 도와줄수도 없습니다.》

김재영이도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도와주다니? 그런것은 도와주면 안됩니다. 제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다른것도 다 그렇지만 특히 학습은 제힘으로 해서 제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상철이 뒤를 누가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구구를 대주고 10대강령을 대주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다.》

재영은 자기가 사령관동지를 처음 모시게 됐을 때부터 다른 일에서 들어서는 총을 다루는 법으로부터 불을 피우는 법, 눈길을 걷는 법에 이르기까지 번마다 손을 붙여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면서도 학습만은 엄격하게 요구를 제기하시던 일을 상기하였다. 그때는 사령관동지께서 그런 말씀까지는 하시지 않으시었다. 지금 상철이도 사령관동지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저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꾸중을 듣는것이 두려워 혼자 끙끙거리고있다. 그런것을 생각하니 괜히 가슴속이 안타까와났다.

《일없습니다. 이제 상철이도 재영동무처럼 리론서적을 짹짹 내리읽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야까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는데는 반드시 법칙이 있다는데 대해 토론했습니다. 말하자면 노예사회는 봉건사회로,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는 반드시 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한다는것을 말했습니다. 재영동무는 오늘 학습회에서 토론하게 되어있지?》

《소대장동무가 자꾸만 하라는데...야단났습니다.》

김재영은 뒤더수기를 급적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야단날것 없습니다. 토론을 자꾸 해봐야 합니다. 내가 소대장동무에게 일부터 그런 과업을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야—그런걸...그래서 소대장동무가 그렇게 무섭게 굴었군요. 왜 그렇게 딱딱한가 했습니다.》

《딱딱하다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재영을 주의깊이 돌아보시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글씨 어떻게 사회발전법칙을 가지고 중대학습회에 나가 토론합니까?》

《왜 못한단말입니까? 재영동무, 훌륭한 유격대원이 되고 혁명가가 되자면 그런 때 어떻게 안할것인가 하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때있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혁명에 불타일으킬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혁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들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보시오. 우리 동무들은 지금 적들이 옥실거리는 속으로 인민들에게 혁명을 선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차떠놓고 하라는 판에 못한다고 해서야 그게 어디 유격대원의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진 다 아는 사람들인데요 뭐...》

재영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점점 뜻이 깊은데로 번져가자 난처해져서 고개를 벌구고 사령관동지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응석기 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다 안다 해도 좋은 말은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가라는 자각을 늘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위대한것이지만 사소한 결함들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늘 자기의 훌륭한 본성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의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것입니다. 자, 이리 오시오. 나와 같이 오늘 재영동무가 하계 된 토론문제를 생각해봅시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재영의 손을 잡아 걸으로 이끄시었다.

《저 하늘을 보시오. 몹시 추워보이는 하늘입니다. 저기 바늘처럼 반짝거리는것이 모두 공기 가운데 있는 물기가 얼어서 지렁게 얼음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겨울에 우리는 봄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재영동무 생각에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이처럼 추운 겨울에도 봄이 온다는것을 확신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

재영은 뻔한것을 물으시는것 같아 재깍 입을 떼기는 하였으나 정작 대답을 하자니 잘되지 않았다.

《저-그것은 해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웠다가는 더워지구 그 다음엔 또 추워지구 해마다 그러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누구나 믿고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뚜렷히 모르는 사람들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까닭을 과학적으로 알고있다면 제가 꺾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확신할수 있습니다. 가령 북극이나 남극 같은데는 1년내내 추운 겨울이 계속됩니다. 물론 거기

서도 기운이 철따라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봄이나 여름 같은 날씨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 적도부근에 가면 겨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곳에 가서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발전하는것도 그 까닭을 똑똑히 알면 공산주의사회에 아직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더러운 계급 사회를 두들겨엮은 다음에 세워야 할 사회가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오, 저 하늘 한끝에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지 않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나이린 진령병의 어깨를 끼시고 아득히 높이 개안 하늘을 가리키시었다.

김제영은 사령관동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저서 그이의 손길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짝이 흐릿한 겨울날의 해빛이 마주 내리다보고있었다. 지금은 빛이 없어 그렇게 쳐다보는데도 눈이 부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오래 바라보고있노라니 희끄무레한 그 해빛의 한복판에서 무엇인가 이글이글 소용돌이치는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해빛은 아득한 거리와 사나운 추위속에 가리워져있어도 정말 하투빨리 봄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에서 이글이글 불타고있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 정말 느껴집니다. 봄이 느껴집니다.》

제영은 제 어깨우에 놓인 사령관동지의 한손을 잡고 몸을 돌려 그이를 마주 쳐다보며 소리쳤다.

《느껴 집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제영의 어깨우에 한손을 마저 올려놓으시고 대견하신틈 발장게 익은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시었다.

만약 이때 등뒤에서 여러사람이 올라오는 발자국소리가 울리지 않았던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제영과 함께 봄의 예감을 더 좀 즐기실 수 있었을것이다.

배정식과 강봉수가 백바위판에서 돌아온 한태혁과 박인섭을 데리고 올라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다음 한태혁과 박인섭의 손을 이끄시고 칩막안으로 들어가시었다.

《자, 들어갑시다. 얼굴들이 더렇게 얼었군. 그래 내내 한지에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한태혁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씀드렸다.

《동네뒤에 범굴이 있었습디다. 깨끗하게 모래를 피놓고 가마니까지 깔아놓았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디다.》

《참, 들은 기억이 납디다. 리철범동무가 여기 나와 공작할 때 그런 굴속에서 지냈다고 말하엿습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피뚝 리철범이네가 떠나간 동강쪽을 돌아보시며 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씀하시엿다.

《우리를 안내해준 방아간집주인도 정치위원동지 이야기를 했습디다. 굴속에 아직 커다란 통나무재털이가 그대로 놓여있더군요. 정말 얼마나 담배를 피웠는지 바위잡에 대진네가 배여있는것 같았습디다.》

《허허허, 그럴것입디다.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던 동무가 마당거우에서는 담배때문에 무던히 고생을 하더니...지금쯤 독한 열초라도 한단 구해서 지고 다닌다면 좋겠습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측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위여가는 고갈불앞에 가 앉으시엿다.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엿으나 어쩐지 물기에 젖어있는듯한 그이의 목소리에 대원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엿다. 헤어진 군복에 갈갈이 판이난 신들을 열기설기 동여신고 더부룩한 머리를 숙인 그들은 모두 여위엿으나 한결같이 때마디가 장사같은 큰 사나이들이엿다.

하지만 그 익센 가슴들은 모두 정에 헤뵈다. 김재영이 고갈불을 살리려고 손을 불이자 저마다 이 일거리를 놓치지 않을 양으로 장작을 고른다 불을 분다 하면서 부산을 피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떨리는 입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저마끔 분주히 돌아가는 대원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아무것도 못느끼신듯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엿다.

《그래 백바위골 물방아간의 주인이 여전히 잘 있단말이겠습디다? 그 동무가 우리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습디까?》

한태혁과 박인섭은 손에 쥐고있던 장작을 놓고 주뭇주뭇 일어났다.

《일없습디다. 앉아서 말하시요. 불을 쪼이면서...난 백바위골에

대해 묻고싶은것이 많습니다. 조복순아주머니는 아직 그곳에 살고있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역지로 앉히시는바람에 엉거주춤 앉으려던 두사람은 그이께서 조복순아주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다시 일어섰다.

《왜 그렇습니까? 조복순아주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인차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채시고 다우쳐물으시였다.

《작년에...》

태척은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떠날 때 하시던 장군님의 여러가지 당부의 말씀을 상기할 때 유격대의 전투를 돕기 위하여 적탄을 맞으면서도 도끼를 들고 포대의 문을 까부신 그 아주머니를 그이께서 얼마나 걱정하고계신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그는 가슴아픈 소식을 알날이 적어서 말씀드리는것이 마치 제 죄같디만 생각되어 차마 입이 벌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장군님께서도 더는 말씀이 없으시였다. 스러져가던 고갈불은 다시 기세좋게 타올랐으나 천막안은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있었다.

《그 아주머니에게 조그마한 딸이 하나 있었겠는데...》

이윽고 장군님께서 침묵을 깨치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셀팔에 사는 광병철이라는 조국광복회원이 데리고있답니다.》

하고 이번에는 박인섭이가 짤막하게 대답을 드렸다. 그 말을 한 태척이가 받아 이었다.

《저희들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주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제 아이만 해도 여덟이라고 합니다.》

《저런, 여덟이면 대단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밝아지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때 그 동무가 조복순아주머니의 딸을 맡아 기른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기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뭐 어떻게 고집이 센지 꺾을수가 없답니다. 아이 없는 집에 데려가면 부담이 커지지만 아이가 많은 집이야 여덟이나 아홉이나 매한가지가 아닌가 하고 덤벼안고 일어서는바람에 말리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잘 기른답니다.》

《그렇습니까? 광병철동무라...》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참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팽병철에 대해 이모 저모로 더 물어보신 다음 백바위골의 조직과 동네형편을 료해하시는데로 넘어가시었다.

백바위골에 조성된 삼엄한 정세에 대해서는 범상하게 들으시던 그이께서 그곳 인민들이 적들의 최포한 탄압책동속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발휘한 용감성과 희생성 그리고 슬기로운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는 연신 감탄하시며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하고 배정식과 강봉수를 돌아보시었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인민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그이께서는 스택 보내지 않으시었다.

마감에 정귀하로인과 주종섭로인네가 무남이로 이사를 왔다는것과 그들의 입을 통하여 7도구치기전투이야기가 압록강줄기를 따라 쭉 퍼졌다는것 그리고 백바위골에 정지성을 찾는 류진옥이라는 처녀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금성**동지께서는 깜짝 놀라시었다.

《류진옥이라니? 그 처녀가 방아간주인의 조카란말입니까? 이것 보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배정식의 손을 덤석 잡으시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그럼 방아간주인이 무산 옥암동 사는 류석진로인의 아들이나 조카란 말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류진옥동무는 본시 옥암동에 있을 때도 잘 싸우던 동무입니다. 그 동무와 우리 정지성동무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내언젠가 류석진로인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보시오. 혁명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혁명이란 참으로 기구하고 목절많은것입니다.》

《무산에서 왔다는 편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정식이가 사령관동지의 기쁨에 넘치신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흥분하여 말씀드렸다.

《웁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보낸 로인입니다. 로인이 손녀가 없어졌다고 몹시 가슴아파하더니 이렇게 살아서 훌륭히 싸우고있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며 더욱더 너을거리는 고갈불의 불길을 바라보시였다.

참으로 기구한 이야기였다.

너을거리는 불길우에 그렇게 기구했던 수많은 리별과 상봉의 장면들이 겹쳐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려고 백색테로가 미쳐날뛰고 구국군의 칼부림이 살판치는 안도의 거리와 마을, 조사하의 갈대숲속에서 활동하실 때 량강구로 가는 언덕에서 류본초령감을 만난것은 얼마나 기구한 일이였던가. 그 옛날의 육문중학교 한문교원이 조선혁명가들을 타치는대로 잡아죽이는 그 《삼국연의》속의 군대같은 구국군부대의 참모장이 됐을줄이야 누가 알았으며, 더구나 그 피비린내나는 언덕에서 그 옛날의 사제지간이 칼을 맞던 군대들 한복판에서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에 짓밟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애국의 한마음이 있었기에 그 상봉은 불가피하게 있게 마련이였고 또 바로 그러한 바탕우에 놓인 상봉이었기에 조선혁명가들과 구국군사이의 그처럼 첨예하던 관계도 풀수가 있었던것이다.

다른 종류의 상봉도 있다. 조선혁명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남매자의 밀림속에 박종학이가 나타난것은 또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꼭질인가?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피한 상봉이라고 할밖에 없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차는 야수화된 인간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자는 사람들앞에 언젠가는 나타나게 마련이기때문이다. 아직 헤어지기만 했지 만나지는 못한 동지들도 있다. 원수들도 있다. 언젠가는 그들과도 만나게 될것이다. 이 길은 비록 천고의 밀림속에 길을 넘는 눈을 헤치고 가는 한오리 눈길이지만 력사의 기본줄기물 이루고있기때문에 조선혁명과 인연을 가진 모든 운명이 이 길과 련결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조선혁명과 인연이 없는 그런 조선인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류진옥이 이 막막한 밀림속에서 정지성이를 찾아내듯이 이 길에 한태혁이의 원수도 옥금이의 큰아버지도 다 나타날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시여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생각에 잠기시자 고갈불들때에 모여앉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을 좃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정어린 눈길로

배정식이, 강봉수, 한태혁이, 박인섭 이렇게 사랑하는 대원들을 차례로 굽어보시었다. 조선혁명의 피어린 길우에서 청춘을 맞이하여 머지않아 장년기에 들어설 그들은 10여년의 간고한 로정에 외양은 거칠어져 살뜰한것이 깃들일 틈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순박한 소년인 재영이조차 얼마나 때마디가 실하게 벌어져가는가. 그러나 그들의 그 구리빛얼굴에 어리는 웃음과 슬픔의 감정은 어느 부드러운 피부에 어리는것보다도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감정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혁명을 하느라고 고생을 좀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류진옥동무가 정지성동무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보시오. 그리고 류석진로인이 손녀를 찾고 우리와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보시오. 그런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생쯤 능히 참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모든 인민들과 그렇게 만나보기 위해서 이 겨울을 싸우고있습니다. 동무들, 힘이 솟지 않습니까?》

《힘이 납니다.》

대원들은 일제히 힘차게 대답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백바위골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작조를 파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태혁을 백바위골공작조의 책임자로 임명하시고 여기에 박인섭과 김재영을 포함시키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 공작조의 성원을 임명하시자 한태혁과 박인섭은 한꺼번에 놀랐다. 태혁은 자기 이름이 불리우자 흠칫하며 고개를 번쩍 쳐드는데 박인섭은 눈이 썩해져서 뭐라고 대답도 못드리고 멍하니 서있었다.

《인섭동무, 왜 그렇니까? 하기 힘들것 같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물으시었다.

《전, 도무지...전 아직 그런 공작이라는것을 뭇해보지 못했기때문에...》

하고 박인섭은 목을 눌린것처럼 언신 고개를 비물며 더듬거렸다.

《전 이번에 갈 때도 그저 한동무를 따라갔다가 망이나 보고 왔는데...》



《일없습니다.》

금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인섭동무가 꼭 해내야 합니다. 인섭동무가 나무를 켜는것만큼 정치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혁명의 힘은 갑절이나 커질것입니다. 그런데 내 보기에 인섭동무는 나무를 켜는것보다 혁명사업을 훨씬 잘할수 있습니다. 저 태혁동무를 보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인섭이보다 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서있는 태혁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었다.

《태혁동무는 공작조의 책임을 졌습니다. 이 책임은 그전에 리철범정위가 졌던 책임입니다. 내 보기에 한태혁동무가 리철범정위만큼 그 일을 못해내겠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성동지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파업앞에서 떨떨해있던 대원들을 긴장시켰다. 한태혁이도 김재영이도 차렷자세를 하고 똑바로 섰다. 인섭이 역시 입을 꼭 다물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어린 그이의 그윽한 눈길을 바라보았다.

14

목포에서 흘러내린 개울이 길우로 부풀어오른채 얼어붙어서 동네 한복판을 채고 나갔다. 이 개울 건너에 있는 작은 동네는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샘이 있어서 따로 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워낙 백바위물이 이루어 지기를 백바위언저리에서 부대농사를 지어먹는 사람들이 한집, 두집 늘어나서 생겼기때문에 호수도 많고 동네이름도 백바위물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백바위물을 지배하는것은 썩 후에 형성되고 호수도 절반밖에 안되는 샘물이었다. 샘물에는 우선 경찰분서가 있고 작년부터 수비대무력이 한개 중대나 들어앉아있었으며 자위단이야 《민회》요 하는 관청부스레기까지도 몽땅 거기에 있었다.

장백—림강사이의 큰길도 샘물로 갈라져들어와서 수비대병영까지 이어져있었다. 집단부락이 되면서 동네 배귀마다 포대가 일어섰는데 그중 제일 큰 북문포대가 제작년 유격대의 불벼락을 맞은 그 포대였다.

조복순아주머니가 도끼로 포대문을 까부실 때만 해도 그 밑에 있는 병영안에는 위만군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위만군들이 산으로 《토벌》에 내몰려나가고 왜놈군대가 들어앉았다.

백바위골공작조가 떠나올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조복순아주머니의 딸이 몇살이라고 했습니까?》

《새해 들어서 여섯살이랍니다.》

《여섯살이라...그에 이름이 아마 순애라고 하던것 같은데...》

한태혁이네는 참자코 미리를 숙이고있었다. 이름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슨 생각이 나신듯 천막안을 둘러보시었다. 워낙 소박한 사령부의 차림이였다. 더구나 두달이상 걸린 간고한 행군끝이라 전령병들이 늘 지고다니는 신문, 잡지 통구리와 책더미가 한옆에 가려져있고 몇해째 쓰시는 물주진자가 꿇고있을뿐이였다. 배낭이며 롱나무를 켜놓은 걸상우를 더듬어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쓸쓸한 빛이 어리시였다.

《아무것도 없구만. 어머니는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 혁명은 그 아이에게 줄것이 아무것도 없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한숨지으시며 고개를 드시었다. 천막자락이 펄럭거리였다. 바깥에서는 또 미친바람이 터져서 울부짖고있었다.

공작조성원들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지미듯 아프게 울터오는 그이의 말씀을 들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군수관을 부르시더니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시였다. 군수관이 영문을 몰라 내놓는 돈뭉치물 헤여도 보지 않으시고 한태혁이에게 내주시며 금성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걸 가지고 가서 공작비로도 쓰고 얼마간 떼여서 광병철동무의 살림도 좀 보태주시오. 여섯살짜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줄것도 없고...사탕이나 사주면 좋아하겠는지...허허허.》

금성동지께서는 쓸쓸하게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대원들은 빈 짝 고개를 쳐들었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조용

히 말씀 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많은 빛을 지고있는셈입니다. 그 에들에게 조국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조국을 찾아주면 조국은 그 에들에게 필요한 모든것 을 줄것입니다. 광명철동무에게 나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시오. 여덟이나 되는 아이를 기르는 구차한 살림을 하면서도 우리 순애를 말 안 길러준다는 그 동무에게 우리 혁명이 무엇을 주면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내가 어제 밤을 밝히며 그 동무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동무생각을 하니 용기가 나고 승리의 신심이 생깁니다. 그 동무에게 우리의 이런 심정을 꼭 전하시오. 그 동무가 우리 혁명에 준것은 단지 어머니 잃은 한 고아를 길러주는것뿐이 아닙니다. 그 동무는 우리 혁명에 새로운 신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을 꼭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순애에게...나대신 그 애가 외로와하지 않을 무슨 좋은 말을 좀 해주시오. 그 애가 기뻐서 웃을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작원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한태혁은 지금 샘밭포대가 저만치 바라보이는 신작로를 걸어가면서 사령관동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보았다. 방아간주인 류창표는 공작원들이 성문포대 밑까지 가는것을 한사코 말리였다. 지금 동네형편을 보면 거리에 나다니지 않는것이 옳을상도싶었다. 광명철이를 불러다 만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태혁은 떠나올 때 하시던 **금성**동지의 그 가슴저머하시던 말씀을 생각할 때 꼭 찾아가서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하며 또 순애의 자라는 형편도 재눈으로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대 박인섭을 범굴에 떼여놓고 재영이와 함께 샘밭로 건너왔는데 아닌게아니라 놈들의 경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들은 샘밭에 들어서는길로 길가에 있는 구멍가게에 들러 언 배한근과 호콩 한봉지를 샀다. 재영이 깨였을 또 좀 사자고 해서 깨였을 아홉아가 두가락씩 먹을수 있게 스무가락 사고나니 그옆에 진렬해놓은 고무신을 사고싶은 생각이 두사람 머리속에 똑같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한참 주무르며 서로 눈치만 보다가 종시 그냥 놓고말았다. 아이가 아홉인데 순애것만 산다는것도 벨스법고 아홉아이에게 한꺼번에 신을 사 신긴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해방되기전에

는 무엇을 해줄만한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정말 사령관 동지의 말씀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아이들에게 조국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무쳤다.

그들이 가게방에서 나오자 별로 삼삼하게 굴던 주인이 뒤따라나와 문진에 널려있는 사과궤짝을 안으로 들이였다.

《저 사람이 새로 이사왔다는 그 사람인가요?》

하고 재영이가 뒤를 슬쩍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 모양이야. 여기 동무들이 좋은 사람같다니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저쪽 골목에서 또 한놈 나타났다.》

태혁은 바람을 피하는척하고 몸을 돌리며 샘물쪽 갈림길을 걸는길해보았다.

《나도 보았어요. 자위단원 같아요.》

재영이는 등을 걸어찬듯이 비칠거리며 뒤를 다시한번 돌아보고 증얼거렸다.

허름한 양복에 개털모자를 김숙이 눌러쓴자가 구멍가게어방의 수수바자 뒤에 몸을 감추었다.

《내버려둬, 한태혁이를 따라와 봐야 총알밖에 얻어먹을게 없을테니...》

태혁은 피나리보짐을 어깨에 걸친채 잔뜩 팔을 끼고 일부러 툼툼히 걸으며 증얼거렸다.

《여기서 해체끼면 어떻게 해요?》

김재영이 눈이 울통해서 만만찮게 되물었다.

《왜 겁이 나?》

《겁이 나긴요? 공작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지요. 한동지는 또 싸움이나 한타랑 하고 돌아갈 작정이예요?》

《그랬으면 밤새 계획을 토의했을가. 걱정말라구. 꼭 계획대로 할테니.》

하고 한태혁은 흥얼흥얼 155절짜리 세계혁명가의 한 구절을 웅얼거리며 여전히 태평스럽게 걸어간다.

관문산맥 날아넘어 구름속을 들어가니

높기도 하여라 저 산 이름은 무엇이나

《저자식이 우리를 따라오는게 분명해요.》

재영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한번 피륙 돌아보고 속삭였다.

《가만있으래두. 동무는 동생이니까 형이 하라는대로 하면 될것 아닌가. 형하고 같이 가면서 동생이 자꾸 나서면 안되는거야.》

재영은 하는수없이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런데 지앞에서 총을 멘 경관 두놈을 데리고 험하게 생긴 꽤 높아 보이는 경관놈이 칼을 절척거리며 마주왔다.

재영은 잔뜩 긴장되어 옆구리를 더듬었다. 정말 태혁이 말과 같이 총알이라도 덕이고 뛰어야 할 형편이 될지 모를 일이었다.

경관놈들은 여라문걸음앞에 있는 갈림길에 서더니 이쪽을 여겨보았다. 보매 저쪽으로 꺾어져가려다가 수상한 사람이 마주오니 멋어선 모양이었다.

《아, 나리님들!》

별안간 한태혁이 팔짱을 끼었던 손을 뿔아흔들며 달려갔다.

《뛰야?》

상관인듯한 험하게 생긴자가 깨어진 징소리같은 악청을 내뿔었다. 류진욱이가 말하던 두꺼비란놈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한태혁은 싱글싱글 웃으며 바싹 다가가서 구뻑하고 머리를 숙였다. 재영은 얼빠름해서 뒤따라가다가 두어걸음앞에서 멋어섰다. 결눈질로 뒤쪽을 살펴보니 개털모자를 쓴 자위단놈은 잠시 서서 망설이다가 어느집 담장 밑으로 사라졌다.

《나리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한태혁은 다시 허리를 구부리며 썩썩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이야?》

두꺼비는 힘꼴이나 숨직한 태혁의 지나칠만큼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불안한듯 긴장한 눈길로 아래우를 훑어보며 소리쳤다.

《저 경찰서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 경찰서는 왜 물어?》

《서장님 좀 만나뵙자구요.》

《서장? 이 자식 정신 나간놈 아니야? 여기는 경찰서가 없어.》

분서장 진가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지 버릇된 거만한 투로 내뿔었다.

《경찰서가 없다구요? 그럼 나리님들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한태혁은 끈끈하게 달라붙었다.

《이놈아, 말귀도 못알아들어? 여기는 경찰서가 없고 분서가 있단 말이다.》

옆에 붙어서있던 바닥쇠경관놈이 추운 날 길을 지체시킨다고 역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러나 한태혁은 그까짓놈의 표정같은것은 알은 체도 않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까? 그거야 경찰서나 분서나 백성들에게야 매일반이지요. 그럼 분서장님이 계실것 아닙니까?》

《너 이놈, 분서장은 왜 찾아?》

두꺼비가 다시 태혁을 쓰아보며 물었다.

《그런게 아니라 우리 형제는 백바위문사람들한테서 분서장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지요. 마음씨가 어질고 백성들의 일을 아주 잘 돌봐준다고들 하더군요.》

《어서 용건부터 말해. 무슨일로 분서장을 만나자는거냐?》

진가는 벌써 직잡이 서술이 풀린 목소리로 말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서있는 두 부하를 돌아보았다. 백성들의 평판이 어떤가 잘 들어 두라는 표정이다.

《실은 우리, 형제가 지금 아주 딱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본시 우리 고향은 함경도 장진인데...》

《아, 아 언제 그런 긴 이야기를 다 들겠는가? 간단히 용건을 말해라.》

《그렇습니까? 그럼 간단히 용건만 말씀드립니다.》

하고 태혁은 말투를 다시 가다듬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장백땅에서 살다살다 살길이 없어서 이번에 아버지초상을 치르고 난김에 아예 자리를 뜨자구요...》

《아니 이놈아, 간단히 말하라는데 무슨말을 자꾸 길게 늘어놓는가. 나는 바쁘단말이다.》

두꺼비는 썩썩 칼날같은 바람이 제고 지나가는 길가에 서있자니 아무리 구수한 이야기를 한마디쯤 들었다 해도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럼 경찰분서만 대주십시오. 전 분서장님한테 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혁은 시끄럽게서 말하였다.

《이놈아, 분서장은 나다. 바로 내가 분서장이란말이다.》

두꺼비는 자존심이 상하여 개털외투를 입은 제가슴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해주시지 않구...》

하고 한태혁은 혜식은 웃음을 입가에 띠우며 다시한번 허리를 굽적하였다.

《그래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느냐?》

《저 서장님, 우리 형제가 팀장으로 가서 산자고 집을 팔고 세간 살이를 몽땅 팔아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어쨌단말이나?》

《글쎄-어제 주막집에서 도적을 만나 주머니를 몽땅 털리고말았습니다.》

《뭘 도적을 만나? 어느 주막에서 그랬어?》

《간판도 없는 집인데 12도구사람들은 봉산주막집이라고 하더군요.》

《12도구? 이놈아, 12도구주막에서 잃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한단말이나? 미친놈같으니라구.》

두꺼비분서장놈은 화가나서 발을 탕 굴렀다.

《자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야 12도구에서도 경찰서에 갔렸지요. 그런데 거기 경찰은 말도 들어보지 않구 내쫓기부터 하는데요. 그래 길을 오다가 들으니 모두 말들하기를 백바위골서장님이 인정 많고 인품이 높다고 하면서 찾아가 사정하면 돈은 못찾아도 살아갈 길은 대줄것이라고 하더군요.》

《12도구 관내가 원래 그렇다. 하지만 여기도 옛날과 다르다. 요즘은 내가 너무 분주해서 일일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짬이 없어.》

두꺼비는 또 백성들이 자기를 나뻐 말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제법 점잖게 말했다.

《서장님, 그러지말고 하다못해 일자리라도 하나 마련해주십시오. 지금 정 바쁘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이제는 로자도 떨어지고 팀장까지 가 봐야 살길이 막막한데 마음씨 어진 서장님 밑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 아, 지금은 바빠서 그런 사정 볼 잠이 없대두. 자 어서 가자.》

두꺼비는 시끄러운 물건을 떼어버리듯 팔을 내지으며 부하들을 호령하여 저쪽길로 갈라져갔다.

《서장님,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후에 찾아가뵈겠습니다.》

한태혁은 깊숙이 허리를 구부리며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 두꺼비는 돌아도 보지 않았다.

허리를 일으키는 태혁의 입가에는 웃음이 어려있었다. 처음에 간이 콩알만해 서있던 재영은 차츰 태혁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에 맞추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다가 같이 허리를 굽히며 웃었다.

《정말 태혁동지는 엉터리예요. 경찰놈앞에서까지 그렇게 우습게 굴 줄은 몰랐어요.》

두꺼비네 일행이 그만치 사라지자 재영은 짹짹거리며 말했다.

《우습게 굴다니? 이게 다 필요한거야. 이제 저놈이 우리 보증이라도 서줄테니 두고보라구.》

태혁은 웃지도 않고 시뚏해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곽병철이네 집은 바로 왜놈수비대가 들어있는 성문포대앞이었다.

지집냄새가 찬바람속에 떠도는 지지분한 음식점과 달구지채며 바퀴따위가 널려있는 대장간이 나란히 서있는. 나무장터 한구석에 울타리도 없는 움막같은 단간집이 웅송그리고 앉아있었다.

류창표에게 세세히 물어오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집 찾기가 수월할 줄은 몰랐다.

두사람은 주저할것 없이 문앞으로 다가갔다. 무어라고 주인을 찾을것인가 잠시 망설이는데. 얼룩얼룩한 신문지며 광고장같은것들로 더덕더덕 덧바른데다 아래켄에는 무엇이 발로 걸어왔는지 살창채 메진 구멍에 걸레조박을 틀어막은 방문이 안으로부터 벌컥 열리었다.

《까꾸야, 까꾸야, 이담에 썰매 빌러달래만 봐라!》

이렇게 약올리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개구쟁이 한놈이 알몸이 드러난 앞가슴을 여미며 트락으로 굴러떨어졌다. 이어 방안에서 제법 우악스럽게 생긴 아이놈의 발이 문지방우를 걸어차며 소리쳤다.

《이새끼, 너 순애 목도리 자꾸 벗겨가자니까 그러지. 방안에서는



숨지 않니!》

뜨락에 굴러떨어진놈은 일여덟 나보이는데 일어나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응수를 하려다가 문앞에 우뚝 서있는 한태혁과 재영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비실비실 쫓기였다. 방금 발길질을 한것은 두어살 더 먹어보이는게 형인 모양인데 그 애도 동생을 뒤쫓아나오다가 우뚝 섰다. 피땀 안을 들여다보니 그보다 두어살 어리보이는 처녀애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서너살 터덜살 나보이는 사내아이와 처녀아이가 한방 오구구 모여앉아 방금 있었던 심경이를 두고 짹짹그르르 꿀고 있다.

낮선 사람들이 방안을 엿보는 눈치를 채자 문턱에 나섰던 아이가 앞을 막아서며 적의에 찬 눈초리로 아래우를 훑어본다. 방금까지 싸우던 동생놈도 한쪽으로 비실비실 돌아서며 두사람을 만만찮게 노려보고있다.

《애, 이 집에 순애라는 아이가 있지?》

한태혁이가 다시한번 방안을 기웃하며 이렇게 물었다.

《없어요. 왜 그래요?》

대뜸 총알같은 대답이 맞받아나왔다.

《없어? 허허허.》

한태혁은 비로소 아이들의 잔뜩 긴장된 눈길을 느끼고 어치구니 없어 웃었다. 그리고보니 어두컴컴한 방안에서도 아이들이 입을 꼭 다물고 반들반들한 눈들을 이쪽에 겨누고있다.

《너 철봉이지?》

한태혁은 싱글벙글 웃으며 다시 물었다.

《아니예요. 그 애는 철봉이가 아니예요.》

문턱에 선놈은 그냥 눈을 지름뜨고있는데 마당에서 작은놈이 소리쳤다.

《그럼 은봉이로구나. 철봉이는 너냐?》

그러자 그애는 좀 난처해져서 코를 훌 들여마시며 바지춤을 추겨 올렸다.

《애, 그렇게 쓰아보지 말아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한태혁은 이러며 문턱에 선 은봉이를 방안으로 밀어넣고 재가 문지방에 걸터앉았다.

《재영이, 그 애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가오. 여기서 우물거리다가는 재미없어. 그대 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갔느냐?》

태혁은 칭칭 동인 신들메를 풀어헤치며 고개를 들고 되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남의 집에 막 들어와요?》

은봉이는 문턱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문을 한짝을 꼭 움켜잡으며 되물었다.

《나?》하고 태혁은 이 집의 당당한 그 나이된 주인에게 말하였다.

《보아하니 은봉이가 꽤 사귄만한 친구로구나. 내 터놓고 이야기하지. 난 유격대다. 너 유격대가 될지 아니?》

《정말이예요?》

은봉이는 피땀 바깥에 서서 역시 신을 벗고있는 재영을 돌아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 아니구. 너 보겠니?》

한태혁은 은봉이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 허리춤을 슬쩍 쳐들어보이였다.

새까맣게 윤이 나는 권총을 보자 소년의 눈에는 금시에 환한 빛이 어리였다.

《야—유격대, 그럼 저...저 형한테도 총이 있나요?》

《총이 있지 않구. 재영이, 보이라구.》

그러자 김재형이도 히죽 웃으며 옆구리에 찌른 권총을 보이였다.

《야—금봉이보다 작은데 총이 있네.》

이번에는 마당에서 칠봉이란 녀석이 소리쳤다. 그제야 방안 한구석에 오구구 모여앉았던 아이들이 어떤놈은 무릎걸음으로 정충정충 달터오고 처녀애들은 아기작거리며 벽쪽으로 붙어나오고 정 어린놈은 기여나왔다.

《야, 이놈들아,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자. 경찰놈들이 보면 야단난다.》

한태혁은 아이들을 밀어붙이며 방안에 들어섰다. 뒤따라 칠봉이가 달려들어오고 이어 재영이도 방안에 들어앉아 문을 닫았다.

여섯아이와 두 유격대원이 들어앉으니 그야말로 코구멍만한 방안이 배꼭해졌다.

여기에 아버지를 따라 나무하러 갔다는 말아들 금봉이와 필경 어

머니에게 업혀갔을 막내가 또숙이 그리고 제일 나이 우인 딸딸 효숙이에 두 부모가 돌아오면 들어앉을 자리도 있을상싶지않다. 종일 해빛이라도 미친것 같지 않은 구석쪽에 실경대를 가로매고 문짝처럼 누터누터 기운 이불 한채와 신문지로 바른 껌작 하나를 덩그렇게 올려놓았다. 흙매질을 한 벽에는 화대를 가로질러놓았는데 현누테기나마 걸린 옷가지는 보이지 않았다. 실로 서발 막대 휘둘러봐야 걸릴것이라고 없는 방안이었다.

한태력이 일어서면 머리가 서까래에 가닿을것 같은 낮은 방안이었으나 위낙 벽이 얇아서 그런지 외풍이 세서 그런지 먼지가 풀썩거리는 노진바닥은 싸늘하고 찬기운에 목덜미가 시려날 지경이다. 그래도 은봉이와 천봉이를 내놓고는 몽당치마를 걸친 처녀애들로부터 영금영금 기여다니는 세살짜리 총각애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아리를 드러내놓고있었다. 실경대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대여섯 나뉘는 처녀애만이 버선을 신고 목도리까지 감고있다.

눈이 오목하고 얼굴이 납죽하게 생긴것이 어딘가 이 집 아이들속에서 류다른데가 느껴져서 그 애가 바로 순애로구나 하는 짐작이 갔다.

《어머닌 어디 갔니?》

태력은 찬찬히 바라보는 순애의 눈질을 한참 마주보다가 은봉이의 무릎을 툭 치며 말했다.

《〈취락정〉에 일해주러갔어요.》

《그럼 효숙이도 어머니따라 갔느냐?》

《효숙이뿐 아니예요.》

하고 천봉이란놈이 슬쩍 가까이 다가붙며 대답하였다.

《또숙이도 갔어요.》

《효숙이도 나가서 일하느냐?》

《그럼요.》

은봉이가 대답하였다.

《효숙이는 몇살이냐?》

《열다섯살》

이번에는 순애와 나란히 앉아있던 처녀애가 대답하였다.

《넌 이름이 뭐냐?》

하고 태혁이가 굴으니 그 애는 살짝 낮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셋 바보같이... 그 애는 차속이예요.》

한참 누이동생을 지켜보던 은봉이가 두덜거리며 대답하였다.

태혁이가 차속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번에는 그 애 나이를 묻고 있는데 무엇이 잎구리를 더듬었다. 돌아보니 어느새 한쪽구석에 퍼더앉아있던 제일 어린놈이 잉금잉금 기어나와서 제잡담하고 권총을 들추어내자는판이다.

《야, 이놈봐라, 남의 무기를 막 때가자는게구나.》

태혁은 벌거벗은 그 애의 넓적다리를 아프지 않게 한대 철썩 갈기고 뉘름 안아올렸다.

《이잉, 나 총 가질래, 총 가질래-》

아이는 태혁의 머리우에서 발버둥질을 하며 소리쳤다.

《야, 막봉아, 총소리 하지 말어.》

은봉이가 엄하게 소리쳤다.

《그래, 힘 팔이 옳다. 총소리 하면 왜놈들이 달려든다. 가만, 내 좋은거 줄게 재영이, 그 보따리를 끄르라구.》

김재영은 옆에 놓인 피나리보짐을 서둘러 풀었다. 새까맣게 언배와 호풍봉지가 나오자 기웃하고 들여다보던 철봉이란놈이 벌떡 일어났다.

《야-콩이다. 깨엿도 있다.》

아이들과 사귀기란 식은죽먹기였다. 더구나 광병철이네 아이들은 이름과 같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낯선 사람이 수상하다고 보았을 때는 걸을 안주었지만 유격대라는것이 명백해지고 저희들을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개구쟁이 본성을 드러냈다. 그중에 좀 숫기가 적고 몸도 약해보이는 넷째 석봉이조차 제몫을 떼울가봐 새까만 손을 보집속으로 날썰게 들이미는 데 먹어대는 모양이 번개불에 콩구어먹듯하였다. 두 계집애들만은 역시 얌전을 빼었다. 그중에도 순애는 마감까지 미심쩍은 기색을 오목한 눈에 담고있었다.

은봉이는 그런 순애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그 애앞으로 엇이랑 배랑 밀어내놓는다. 그래도 순애가 움직이지 않자 차속이가 제몫과 함께 그것을 집어서 몽당치마우에 놓고 감싸주었다.

태혁이와 재영은 순애의 아이답지 않은 그런 몸가짐에서 어머니를 잃은 그 애의 슬픈 운명을 보는듯하여 가슴이 찢르르해졌다.

《이애, 이리 오너라. 순애야, 이리와.》

태혁은 손을 뻗치며 아이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오목한 눈을 치뜨고 바라볼뿐 움직이지 않는다.

《애 순애야, 너 나하고 친하자. 나하고 친하면 참 좋다. 이리 오너라. 내 좋은 이야기 해줄게.》

그러자 순애가 무어라고 입을 벌리기전에 철봉이가 비집고 나섰다.

《아저씨는 금성장군님 알아요?》

《금성장군님?》

태혁은 순애에게 뻗치려던 손을 엉거주춤 멈추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외삭외삭하고 얼음이 박힌 배를 씹고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입들을 멈추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뻗치 태혁이를 지켜본다.

《알지않구. 우리는 금성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에게 왔다. 금성장군님께서는 순애랑 너희들을 모두 좋은 아이들이라고 칭찬하시었다. 이 옛이랑 콩이랑 모두 금성장군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시는 거다.》

《아—》

태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환성을 질렀다.

《정말 금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알아요?》

은봉이가 신중한 낯빛으로 물었다.

《다 아신다. 금성장군님께서 모르시는 일이란 이 세상에 없다. 금성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혁명가라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저 순애 어머니가 유격대를 돕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이야기도 다 알고계신다.》

《정말 아저씨.》

하고 철봉이가 외작 다가볼더니 큰 비밀이나 대주듯 귀속말로 속삭였다.

《저 순애한테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땀기가 있어요.》

《그래?》

태혁은 놀라서 부르짖었다.

《정말 저 애에게 땡기가 있을거예요.》

하고 재영이가 귀뜸하였다.

《작년 설에 사령관동지께서 장백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선물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때 조복순어머니네 집에 딸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땡기감을 마련해보내시는걸 봤어요.》

《난 금성장군님하고 친하거든.》

재영이의 말이 끝나자 순애가 그 오목한 눈을 자랑스럽게 빛내이며 또뚝또뚝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야, 참, 순애는 좋겠구나. 장군님께서도 너하고 무척 친하다고 말씀하셨다.》

태혁은 이리머 순애의 손을 잡아 자기에게로 끌었다.

《정말?》

순애는 태혁에게 끌려와 무릎에 앉으면서 고개를 끄고 물었다.

《정말이 아니구, 장군님께서는 우리 순애가 울지 않고 잘 노는지 모르겠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셨어.》

《나도 다 알아.》

순애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고개를 개웃거리며 말하였다.

《그래? 네가 어떻게 아니?》

《어머니가 말해주었거든. 그리고 아버지도 말해주었거든.》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밤마다 내 귀에 대고 가만히 말해주었거든.》

태혁은 영문을 몰라 은봉이를 돌아보았다.

《그 애는 우리 아버지하고 자요.》

둘째의 이러한 말을 듣자 태혁의 가슴은 다시한번 찌르르해졌다. 어머니를 혁명에 바치고 오직 장군님한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나 어린 소녀의 정상이나 이 가난한 살림에 혁명동지의 딸을 길어안고 제자식보다 더 사랑과 정을 기울여 길러나가는 광병철일가의 정성이나 다같이 가슴을 치는것이 있었다.

순애는 치마말기를 더듬더니 자그마한 손수건에 뽁뽁 싹 자주빛 비단땡기를 꺼내보였다. 네살짜리 막봉이만이 재영의 권총을 더듬어 내느라고 매달려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그 땡기를 들여다보았다.

《정말 곱구나. 장군님께서 순애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도 고운 땀기를 보내주셨을가...》

하고 태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애, 그런데 왜 여태 들이지 않니?》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장군님 오실 때. 들이라고 했어. 난 이제 장군님 오시면 어머니에게 먼저 곱게 땅고 땀기 들여달랬어야.》

이날따라 팽병천의 내외는 좀체로 돌아오지 않았다. 재영이가 부엌을 뒤져봐야 먹을만한것은 없었다. 그래 은봉이와 철봉이를 내보내어 군교구마블 20전어치 사다가 아이들의 요기를 시켰다.

한태혁은 아이들에게 155질짜리 세계혁명가중 근 20권이나 불려 주었으며 재영은 끝내 막봉이에게 권총을 빼었다. 한태혁이도 자꾸만 달타붙는 아이들의 칭을 차마 거질할수가 없이 돌아가며 한번씩 탄알을 뽑은 권총을 쥐여주었다.

범굴에 벌려놓은 일때문에 팽병천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일어서는데 아이들이 따라나섰다. 마당가에서 순애는 오목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물었다.

《아지씨, 장군님께서 언제 오시나?》

태혁은 돌아섰던 발길을 다시 멈추었다. 그는 순애를 번쩍 높이 안아올리며 불을 비볐다.

《순애야, 이제 장군님께서 지 산에 눈이 녹고 봄이 오면. 왜놈들을 치시고 여기로 나오실거다. 그때면 순애도 장군님을 만나뵈울수 있다.》

아이들과의 리별은 이러한 간정에 내뻘한 태혁의 가슴을 몹시 알찌근하게 만들었다. 그는 연신 큰눈을 슴뻘거리며

《애들아, 씩씩하게 잘 놀아라. 이번 늑한테도 숙보이지 않게 자라야 한다.》하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 15

우등불은 캄캄한 하늘을 불태우며 세차게 타올랐다. 반장단, 손벽장단이 너울거리는 우등불에 바람을 몰아주듯 고조되는 노래소리에 따라 불길은 하늘높이 치솟아올랐다. 구세먹은 진대롱을 팡팡 울리는 동무도 있다. 군수관 조진범이다. 모든 유격대원들이 기뻐하는중에도

군수관의 기쁨은 다른 누구에게 비할바가 아니었다. 오래간만에 지방 인민들을 만나 춤추며 노래하는 이 판에 그들이 지고 온 식량과 원호 물자가 무뚝히 그의 손아귀에 쥐여진 것이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조국광복회10대장령가》를 다 부르고나자 누군가가 다시 《자유가》의 선창을 뻗었다. 경쾌하고 희망찬 선율은 신명이 나서 들먹거리리는 혁명전사들의 기분에 꼭 들어맞았다. 진대롱을 두들겨대던 조진범은 더는 앉아서 견딜수가 없이 두손을 어깨우에 까부리붙이고 한쪽반을 쳐들어 들썩거리며 가운데로 나갔다.

《좋다—》

1소대의 춤명수인 2분대장이 이렇게 소리치며 조진범의 맞은쪽에 서 역시 두팔을 쳐들고 우등불가로 나왔다. 인민혁명군대원들 사이 사이에 끼여앉은 백바위밭의 조직원들도 저마다 어깨를 들썩거렸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리어도 자유 못버려

노래는 더욱 잦은가락으로 넘어가고 숨가쁜 손벽소리에 눈덮인 숲이 쩡쩡 울리었다.

커다랗게 피워올린 우등불밑에서는 열음이 녹아내리었다. 춤꾼들은 하나 들 늘어나 진쩍거리리는 풀밭우에서 진창이 튀었다. 그러나 열굴들이 번갈게 익은 인민혁명군전사들이나 백바위밭인민들이나 모두 더욱 열을 울려 앉은자리에서도 어깨와 다리를 들썩거리었다. 백바위밭센말에 산다는 증늬은이의 풍신 좋은 구태나뭇이 너울거리는 불길을 따라 함께 춤추듯 흔들리었다.

한가운데 뻗치고 앉아있던 배정식이 광병철의 손목을 잡고 일어서는바람에 춤판은 더욱 고조되였다. 원래 입도 몸도 다 무겁고 육중한 그가 춤판에 뛰여드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배정식이의 몸도 들썩거리지 않을수 없는 밤이였다.

《좋다—》

하고 배정식은 막춤을 한참 추고돌아가다가 허공에서 손벽을 탁



치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원진을 치고 둘러앉은 군중을 향하여 허리를 꺾어부정하게 구부리고 노래 한대목을 뽑아넘기였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어도 자유 못버려

뜻밖에도 웅글고 구성진 가락이 굽직하게 울려나왔다. 손벽을 짝 짝 쳐대던 전사들은 너무나 놀라 손을 멈추고 눈을 등그렇게 뚫었다. 배정식이 이처럼 멋들어진 노래를 부를줄 안다는것은 적어도 리철범이가 통담을 한다든가 홍치도가 눈물을 흘리는것과 맞먹을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필요한 때 직접 전투를 하러 나가는 일은 자주 있어도 이렇게 오락회에 참가하는 일은 꼭 드물었다. 사령부호위임무를 책임진 그로서는 모든 전사들이 춤추며 즐길 때에도 경계근무를 차고 돌아보아야 했으며 남이 보지 못하는데서 레일 있을일, 앞으로 예견되는 사령부의 행군방향 등을 미리 연구하고 필요한 호위대책을 세워야 했다. 후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오락회에 참가하시는 경우에조차 그는 그이의 신변을 떠날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금성**동지께서 한태혁의 보고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천막에 계시면서 일부러 이러한 모임을 조직하여 인민혁명군전사들과 지방인민들이 함께 즐기게 하라고 과업을 주신 것이다.

《곽동지, 어떻게습니까? 정말 목숨은 버린다 해도 자유는 버릴수가 없지요?》

배정식에게 끌려나온 곽병철은 얼굴이 새빨갳게 되어 찢찢매매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덟아이를 거느린 아버지로서 재지게 가난한 살림도 돌아보지 않고 혁명동지의 외팔을 서슴없이 걸어안아 기른다는 백바위꾼의 강직한 조국광복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전사들은 모두 몸집이 우람찬 호걸같은 사람을 눈앞에 그려보았었다. 그런데 어제 한태혁이가 그사이 진행된 공작정형보고와 함께 원호물자의 일부를 바로 곽병철이에게 책임을 지워 산으로 울려보내었다. 한태혁이와 미리 약속한 지점에 나가 인민들을 맞이한 강봉수는 압호가 다 맞아떨어지고 자기자신이 곽병철이라는 인사의 말까지 들은 다음에도 한동안 떨떨해있었다. 곽병철은 결코 몸집이 크지도 않았고 호걸같은 거동도 할줄 모르는 보통 사람이였다. 몸집으로 말하면 오히려 체소하고 고생살이에 쪼들린 얼굴은 가무잡잡한데다가 추위에 잔

득 일어서 가냘파보이기까지 하였다. 목소리는 썩썩 갈리는데 자주  
 기침을 짓었다. 눈도, 코도, 얼굴도 다 자드락자드락한 그에게서 사  
 람을 놀래울만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가망없는  
 일 같았다. 그러나 사람의 외양이 어느 경우애나 그 한없이 깊고 넓은  
 정신세계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광병철이가 험악한 세상에 그  
 령계고생스럽게 살면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인성과  
 혁명적 의리를 드팀없이 곳곳이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성동지의  
 말씀과 같이 벌써 영웅적인 것이었다. 실지 그는 거듭되는 시련의 중  
 하를 그 앙상한 어깨 위에 떠 받들고 백색테로가 피를 묻고 날치는 무  
 시한 땅에 역세게 일어나 혁명조직을 지켜나가고 있다. 유창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조직의 요구라면 어떤 위험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된 과업을 제때에 해결하였는데 정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동지들을 한결같이 엄격하게 대  
 한다는 것이었다. 강봉수는 그가 매고 온 낱알마대를 억지로 떼앗아 매  
 여보고 속으로 혀를 내들렸다. 지난 두달사이의 고난에 찬 강행군에  
 적잖게 지쳤다고는 하지만 강봉수 역시 유격대에서 힘꼴이나 쓰는 사  
 람이었다. 그런데 그 마대를 매자 허리가 휘청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  
 을 매고 백바위골에서 여기까지 줄곧 눈덮인 강과로운 울림밭이 험한  
 길을 걸어와가지고도 깎듯이 인사를 차리는 그를 보고 강봉수는 비로  
 소 광병철이라는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본 듯하였다.

광병철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삼시에 숙영지에 퍼져 그가 사령  
 관 동지의 집전을 받고 있는 동안 전사들사이에도 내내 그에 대한 소문  
 이 파다하게 돌아갔다.

그런데 강봉수의 안내를 받아 우등불가에 나타난 광병철은 어떠  
 한가! 사실 광병철을 본 모든 인민혁명군전사들이 걸으로 표현을 했  
 든 안했든 모두 강봉수같은 심정이었던 것은 숨길 수 없었다.

지금도 그는 배경식에게 잡힌 팔을 어떻게 진사했으면 좋을지 물  
 라 쨍쨍 매고 있다. 하지만 어색해서 허둥거리는 그의 자그마한 눈은  
 얼마나 맑고 지혜로우며 또 굳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그 역시 기  
 때서 어찌할 줄 몰라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씨 어지고 착한 사람이 그  
 러하듯 광병철이는 고난앞에서는 역세고 용감하지만 즐겁고 기쁜 일  
 에 들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수집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병철을 첫눈에 꿰뚫어보신 것은 **금성동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친막에 들어설 때부터 마치 숫기 없는 소년이 어려운 어른앞에 나서듯이 침착성을 잃고 주뚝거리는 그에게서 영웅적인것의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표현형식을 보시였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성을 장식하는 아름다움이였다.

《광병철동무, 반갑습니다. 어서 이리 오십시오.》

그이께서는 서둘러 마주 나가시어 광병철을 한품에 꼭 그리안으시였다.

《장군님!》

어리둥절해 지있던 광병철은 그만에야 **금성동지**의 넓은 품에 와락 매달리며 목매어 붙었다.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내 광동무의 심정을 짐작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처음 만나시는 광병철과 오랜 지기이신것처럼 그의 속마음을 다 헤아려보시고 말씀하시였다. **금성동지**께서는 광병철의 심정이 그렇게도 선명히 리해되시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백바위판 형편에 대해 오래동안 심려를 해오신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워낙 광병철이와 같은 사람의 심정은 너무나 낮익으신것이였다. 그이께서 만나보신 많은 조선사람, 근로인민의 생활감정이나 사고방식은 꼭 그러하였고 그이께서 무시로 그리보시는 인민의 표상은 바로 광병철이와 같이 용감하고 억센 녀과 소박하고 평범한 외양을 가진 그러한것이였다.

**금성동지**께서는 그와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들 나누시였다. 살림살이형편에 대해서, 동네에 돌아가는 소문에 대해서, 지어 마을사람들의 식구며 아이들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였다. 광병철이며 다른 백바위판사람은 장군님께서 너무나 범상한 일상사들 물으시는 바람에 처음 한동안 어리둥절하였으나 차츰 그이의 소탈하신 인품에 익숙해져서 꼭 한집안간처럼 모든 이야기들 터놓게 되였다.

**금성동지**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저으기 마음이 끌리시였다.

《철봉이란놈이 그렇게 장난이 세합니까? <취락정>간판을 떼다가 헛간에 걸어놓았다니 여덟살치고는 좀 엉뚱하긴 합니다. 그러나 순애

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속이 깊은 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농민이 6도구로 나무를 싣고 가서 팔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모르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6도구에 왜놈들이 물리들어 웅성거리기때문에 잘못하면 나무를 아예 빼앗길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처럼 인민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 여리가지로 의견을 주시면서 그 끝에는 반드시 그들이 혁명의 승리를 믿고 조직을 견결히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한태혁의 보고를 분석해보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오락회장으로 내보내신 다음에도 그이께서는 광병철이네들을 잘 돌볼데 대해 배정식이나 강봉수를 통해 이모저모로 마음을 쓰시었다. 그러시고는 태혁의 공작보고를 읽어나가시었다.

평소의 자기 성미와 같이 수식사 하나 없이 사실만을 적은 태혁의 보고에는 언뜻 눈에 잘 드러나지 않던 그의 성격의 다른 일면이 반영되어있었다. 그렇게 덜렁한 사나이인 그가 어떻게 그런데까지 주의가 미쳤을가싶을 정도로 백바위골의 적정이며 주목되는 인물들의 동태며 지형이며 돌아가는 소문이며 지어 《취락정》에 드나드는놈들, 그 집의 하루 매상고까지 다 적혀있어서 백바위골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그 보고를 읽고나면 그 형편을 제손바닥 들여다보듯할수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주목되는것은 다진창부근에 유격대의 큰 부대가 나타나서 적을 무리로 쓸어놓히면서 인민들속에 금성동지의 방침을 해설선전하고있는데 그것이 8련대로 추축되며 인민들속에 직접 들어가서 사령관동지에 대한 적들의 간악한 악담을 뒤집어엮고있는것이 바로 리철범정위갈다는 보고였다. 지금 백바위골에는 진날 이 고장에 살다가 무송쪽으로 시집을 간 한 아낙네가 친정나들이를 왔는데 그는 처음에 왜놈들이 금성장군님에 대한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고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남편이 안해를 데리러 처가집에 와서 하는 말이 왜놈들의 그 악선전을 뒤집어엮기 위하여 밤마다 유격대가 집단부락들의 적을 치고는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고 산재부락들에는 직접 인민들속에 변장하고 나타나서 적의 허위선전을 까밝히

고있는데 밤중에 먼발치서 봤기때문에 푹푹치는 얇으나 목소리랑 몸매를 보니 전날 백바위굴에서 본 그 유격대공작원 같더라고 한다는 것이다.

《리철범동무겠지, 식이 리철범동무식이거던. 적들을 달고 진루만 하자고 해도 힘이 들겠는데...》

금성동지께서는 홀로 외우시며 아직도 만날 날이 아득하게만 생각되시는 머더운 전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머리속에 그려보시였다. 칼날 서린 눈보라가 떠오르고 지치고 허기진 대원들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시였다. 그란가 하면 사자와 같이 용맹을 떨치며 적진으로 육박하는 장한 기세가 느껴지시기도 하고 깊은 밤 소리없이 인민들을 찾아가서 낮고 웅글진 목소리로 혁명을 선전하는 철범의 드늘지 않는 침착한 모습도 그려지시였다.

보고에 반영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구룡리조직에 대한 류진옥의 통보였다.

구룡리일대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 형편을 알수가 없으시여 남페자에서부터 여간 궁금해하시지 않던 문제였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하시는길로 정지성을 그리로 보내시였다. 그러나 지성의 보고에 의하면 히정학이가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고 장렬하게 전사했다는것을 알아냈을뿐 조직자체의 형편은 아직 알 길이 없어서 새로 핵심들을 하나둘 찾아내여 조직을 꾸리는중이라고 한다.

금성동지께서는 히정학의 것처럼 훌륭한 최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마지막까지 그를 도와준 류진옥에 대해 새삼스럽게 고마운 생각이 짙어오르시였다. 사실은 그를 위하여 정지성을 소환하시고 다른 동무를 그쪽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고계시던 그이시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시고 해당 지시를 적어나가시였다.

사령관동지에서 공작조들에 보낼 통신들과 선전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 강봉수를 데리시고 오락회장소로 나오시니 우등불두리에서는 출판이 한창이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흥성거리는 우등불아래를 살피보시다가 놀라시 말씀하시였다.

《저것 보시오. 광명철동무가 출판에 끌려나와 땀을 흘리고있습니다.》

《지깃은 경위중대장동무가 아십니까? 진 경위중대장동지가 춤을 추는것도 처음 봅니다. 꽤참게 추는것 같은데요》

하고 강봉수도 춤판을 바라보며 놀라서 말하였다.

《배정식동무야 워냐 춤을 잘 추지요 .노래도 잘합니다. 처음 왕청물안에 있을 때는 5중대에서 손꼽히는 장난군이였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사람을 저렇게 바위같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오락회에도 참가할 짬이 없습니다. 내 오늘저녁은 일부러 배정식동무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판에 그래도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의 재간을 보여줄만한 사람은 배정식동무만한 동무가 흔치않습니다. 그런데 저 광병철동무를 보십시오. 완전히 끌려다닙니다. 허지만 저 어색한 팔다리의 동작속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이 내풍깁니까?》

우등불의 불그림자가 눈덮인 산정에 미묘한 형상을 그리며 너울거렸다. 바람은 옷깃에 펄럭거리고 푸른 달빛이 앙상한 나무가지들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우등불가에 이르시니 와—하고 전사들이 일어서서 그이를 에워쌌다. 백바위골인민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이를 가운데 모시었다.

《자, 모두 앉으시오. 모두 이렇게 앉읍시다. 앉아서 노래를 계속 합시다. 참, 이 밤은 좋은 밤입니다.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해도 지칠것 같지 않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량옆의 사람들의 팔을 잡아이크시며 함께 앉으시자 모두 따라들 앉았다. 한가운데 나섰던 배정식이 다시 노래를 불렀다.

### 항일전쟁 불길 솟네 동포들이 일어나라

노래는 다시 배아리를 일으키며 밤하늘높이 울려갔다.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은 서로 어깨를 결고 물결치듯 몸을 흔들며 마음속의 격정을 노래의 가락에 담아 부르고 또 불렀다. 멀리 바라보이는 별빛, 아득히 열려진 밤하늘, 혁명전사들의 마음인양 세차게 타번지는 우등불, 설테이는 나무가지, 훑날리는 눈가루, 어느것이나 다 혁명의 한길우에 청춘을 바쳐가는 그들의 마음을 다정다감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문득 배정식이 다시 우등불앞에 나섰다.

《동무들, 우리는 10년간 사령관동지들 모시고 혁명을 해오지만 이해겨울처럼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금성장군님을 모시고있기때문입니다. 동무들, 내 말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산천이 떠나갈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한꺼번에 호응하였다.

배정식은 잠시 목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정중하게 뒤를 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모두의 이러한 심정을 담아 사령관동지께서 노래를 한마디 불러주셨으면 하고 청하는바입니다. 동무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산을 뒤흔드는듯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광병철을 돌아보시며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나는 우리 경위중대장동무가 뜻밖에 사령관을 추어주기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가 했더니 알고보니 나한테서 노래를 받아내자는 꿈공이였습니다. 참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수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오락회에 참가했으니 응당 제 몫을 해야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서글서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서시여 옆에선 매칠한 오리나무줄기를 짚으시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혁띠고리를 만지작거리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설레이던 바람소리도 멎고 나무가지도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우등불만이 불티를 뒤흔기며 너울거리는데 하늘에서는 휘영청 밝은 초생달이 온 누리에 은빛달실을 질어 놓고 황금의 바디처럼 헤여가고있었다.

내 고향은 천리런가 천만리런가

광막한 우주공간처럼 시원하게 열린 장군님의 짧은 목소리가 은

은하게 밤하늘 멀리로 울려갔다. 그러자 조용하던 바람이 눈을 뜬듯 천천히 나무가지들 흔들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우등불은 은은한 가락처럼 무겁게 너울거렸다. 별들이 구름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반짝 반짝 눈을 깜빡거린다.

진달래꽃 향기를 담아  
돌아가는 날

장엄한 선물이 멀리며 흔들리며 하늘로 숲속으로 피져가자 혁명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눈물겨운 감회가 넘치도록 부풀어올랐다. 지나온 시련의 수천수만리, 눈덮인 산정에 묻고 온 사랑과 우정과 친춘의 언약들, 력사의 돌개바람속에 훑날터보낸 귀중하고 그리운 그 모든 것들의 영상과 추억이 한꺼번에 뒤설 테이고 그 모든 것들을 피와 눈물속에 강그리 물어버리면서도 오직 하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이 시련의 눈벌우에 서있는 사랑하는 조국,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가슴저리도록 다시한번 부둥켜안아보는 것이었다.

총잡은 마음  
아 설태인다오

달빛 푸른 이 밤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가슴에 품으신듯 우등불에 비치는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굽어보시며 우리 함께 혁명하자 노래부르시는 금성장군님의 눈굽에도 젖어서 반짝이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 △어휘 및 표현

- 품지박산. 사망으로 화 흩어짐.
- 보무당당하다. (길음길이나 진진하는 기세가) 씩씩하고 어긋하다.
- 기진맥진하다. 기운과 맥이 다 떨어져 스스로 가누지 못할 만큼 노그락져 있다.
- 등잔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이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리어 잘 모를수 있다.》는 뜻
- 범상한 일상사를 묻다. 평범하고 레사로운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묻다.
- 송사를 듣다. 소송하는 내용에 대하여 듣다.



##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발취

16

《유철동무, 나는 동무에게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세아전도를 펴놓으시고 이 구석 저 구석 더듬어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시었다..

유철의 가슴은 활랑거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아침부터 유격대의 조직방법과 유격전쟁의 몇가지 원칙적문제, 전략전술상의 특징들, 그리고 군중적지반을 꾸릴 구체적방법들과 사업방법 등 치밀하고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점심참에 일단 이야기를 중단하시고 유철로 하여금 생각할 여유를 주시더니 저울해가 벌써 기울어쳐가는 지금 이렇게 불러 앉히시고 정중한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사실 간밤부터 꼬바기 밤을 밝히며 이 순간을 머리속에 그리고 가슴을 울렁거리온 유철이였다. 아니,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시각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수령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혁명의 전사 유철은 10여년전부터 피어린 싸움의 길을 걸어온것이였다. 유철은 너무나 감격하여 말도 못하고 그저 그이의 웃음어린 너무나 소탈하신 얼굴을 바라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지도우로 눈길을 돌리시더니 《우리가 지금 이쯤 앉아있는 셈이요.》하고 절절 웃으셨다. 《이 한 점에서 우리는 조선혁명의 불길을 추켜들고 이 모든 땅을 환히 비치보자는것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손바닥을 펴시며 지도를 덮더니 단번에 쭉쓸어버리시였다. 그이께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 하나의 움직임은 곧 그대로 힘이요, 정열이요, 지혜였다. 유철은 삼시에 가슴이 후련해지는것을 느끼며 《저에게 과업을 주십시오.》하고 거리낌없는 목소리로 말

했다.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일을 하자면 근거지를 잘 잡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혁명이 하루이틀에 끝날 간단한 일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국가적후방이라는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 싸울 다른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근거지를 잘 꾸려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처할 발판을 삼아야 합니다. 싸움을 하자면 후방도 보장해야 하고 들고나면서 휴식도 해야 하고 훈련과 학습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혁명의 정세와 역량관계 그밖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타산해서 나는 이 일대를》그이께서는 조선북부지대와 백두산주변의 국경지대 그리고 주변산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이으셨다. 《유격투쟁의 근거지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 근거지에서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조선과 만주 도처에 널려있고 우리의 혁명군중 역시 이 근거지일대에 그중 많이 집중되어있기는 하나 또 다른 곳에도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다른 광범한 지대에서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을 벌이며 혁명적군중을 묶어세우고 도처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말할 때 적을 기본전선에서 칠뿐아니라 보조전선에서도 쳐야 하며 머리를 칠뿐 아니라 팔다리도 하나씩 각을 때내어 움작달씩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만큼...》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긴장되어 지켜보는 유철을 마주 바라보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따라 어떤 거창하고 줄기찬 산맥과 같은 형상이 지도우에 떠올랐다. 푸른 벌판, 갈색 산밭들로 이루어진 조국땅우에 동서를 누비고 남북으로 내뻗친 역세인 줄기—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백두산으로부터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조선혁명의 산밭이었다.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땅밑을 흐르는 린연한 피줄을 타고 조종의 산, 혁명의 사령부 백두산이 이어져있다. 비록 작은 산이라 하더라도, 혹은 땅속깊이 지맥이 가라앉는 경우에도 몸을 굽이치는 피줄과 같이 산줄기는 이어져있으며 그 모든 줄기는 혁명의 심장—백두산에서 뻗어내리고있다.

조국땅우에 그려보는 그 산밭은 얼마나 거창하고 역세인가? 조선혁명의 거룩한 주봉 백두산은 구름우에 아득히 높이 솟아 칩하를 굽어보고있다.

소위 세계를 제대하겠다고 다쳐날뛰는 일본제국주의가 그의 손바닥우에서 갈광질광하고 있는 것만 같아 한없는 궁지감이 피어올랐다. 그러면서도 유철의 기슭에는 왜 그런지 불안한 예감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쩐지 자기에게 과업을 주시겠다는 진제 밑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보니 다른곳에서의 혁명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심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나나타를가 그이께서는 지도우를 킁킁히 더듬으시더니 손가락으로 한곳을 짚으시었다. 그것은 바로 하강지구 백리허어방이었다.

《나는 유철동무가 이 일대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리허를 중심으로 하강지구와 상강지구 일대를 손바닥으로 킁킁히 밀어나가시며 말씀하시었다. 《혁명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지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뿐 아니라 적들의 중요병참기지가요 또 중요하천을 비롯해서 간선적인 수송로가 분포되어있으며 특히는 일제의 쓰련침공을 위한 발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 여기엔 우리 조선인민들이 많이 집중되어있습니다. 만일 이 지대를 놈들에게 내맡긴다면 이놈들에게 우리 혁명을 반대할 매우 안전한 후방을 제공해줄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우리 혁명의 근거지를 반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조건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대를 우리가 장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대를 적들에게 내줄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우리가 차지하여야만 전반적인 조선 혁명을 힘있게 앞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유철동무, 내 말을 리해 하겠습니까?》

《네.》 유철은 침중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의 크나한 구상이 한장의 지도우에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자신에게 내려진 혁명의 엄숙한 과업이며 요구이다. 그이께서 자기를 그리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우선 무엇보다도 가슴을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운한것—그것만이라면 참을 수도 있다. 비록 떨어져있다 해도 그이께서 명도하지는 전선에 튼튼히 발붙이고있는 이상 그이를 항상 마음의 태양으로 가슴에 모실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조그만 지방이 아니라 한 지역을 통털어 내맡기시는 것이었다. 자기에 대한 그의 믿음을 생각하니 스스로의 무능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혁명의 요구인 이상 비록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대고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떠올랐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과업을 서둘러 맡아서 일을 망친다면 그의 높은 신임과 기대를 저버린 죄를 어떻게 씻을것인가? 그럴바엔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이앞에서 더 공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것이 혁명을 위해서 옳은 태도가 아닐가?...

한순간에 떠오른 이런 착잡한 생각때문에 유철의 얼굴은 긴장되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지도우의 한점—백리허의 숲속을 쓰아보고있었다.

《그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온지가 오래입니다. 어디 의견을 좀 말해보십시오.》

《김일성동지,》 유철은 벌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제 준비정도가 그와같은 큰일을 맡을수 있겠는가 생각되어 걱정스럽습니다. 전 여태 김일성동지의 한 전사로서 곁에서 모시고싶다는 생각밖에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유철동무가 그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혁명을 위해 모두 바쳐야 합니다. 유철동무가 부모형제들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부인도 잃고 이제는 어린 자식마저 남에게 내맡기고 혁명하러 나서서 자기의 그런 훌륭한 각오나 힘을 아낀다면 오히려 혁명앞에 손실을 주는것으로 됩니다. 좋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지방에 가서 어떻게 사업할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말하자면 지난날의 경험과 앞으로 부다칠 구체적인 조건들을 타산해서 걸리는 문제를 푸는 방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유철동무의 말을 들으니 하강지구란 매우 복잡한곳입니다. 다시말해서, 유철동무의 일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혁명가가 한번 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서 해결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가자고 하는 새로운 선에 따라 지나간 사업을 정확하게 총화하고 앞으로 일할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내는것입니다.》

그이의 어조에서 유철은 이미 자기 문제가 결정되어가는것을 깨달았다!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실 생각을 해오신지가 오래라고 하신 말씀이 피땀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백리허별관에 엉켜돌던 복잡한 일들

이 한끼번에 되살아났다.

「사실 제힘으로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철은 고개도 못들고 조용히 말하였다.

「히히히,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혁명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어놓고 하는 일인것만큼 가볍게 대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해줄것을 기다릴수도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가령 하강 지구 문제만 봐도 공중 띄워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같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보면 그렇게 종잡을수 없는것도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우에서 하강 지구 일대를 짚으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하강 지구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혁명을 한다고 하여 이런 숲이나 벌판에서 혼자 떠돌고 덜렁덜렁 돌아다니는것이 혁명을 하는것이겠는가? 물론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럼 혁명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사상을 불어넣어서 낡은 제도, 낡은 사회의 쉼새를 두드러부시고 새 사회를 세우게 하는것입니다. 그러자면 혁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강 지구가 넓다해도 유철동무가 가야할곳은 명백합니다. 우선 이 주민지대—즉 백리허들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것입니다.」

유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벌판에 가서 혼자 떠돌고 덜렁덜렁 돌아다니는 말썽에 저도 모르는사이 어쭙은 미소가 그려졌다. 그이께서 딱히 누구를 짚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도 지난날 이른바 혁명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의 한모퉁이가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 특징적인 비유속에서 어제날의 자기—아니 방금까지의 자기의 혁명에 대한 몸가짐이 느껴지는것이였다. 혁명이란 그저 웨치고 떠돌고 짓부시는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온 지난날의 버릇이 아직 깨끗이 가서지지 못했기때문에 언제든지 구체적인 현실을 놓고 착실하게 일을 짜고들출 모른다. 그러다나니 미리에 크게 울려오면 내용도 따져보기전에 놀라고 만만하게 울려오면 재여보지도 않고 덤벼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그런 점을 타산하시여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시는것이다.

유철은 얼른 독책을 펼쳐들고 받아쓰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번의 폭동을 비롯하여 혁명조직의 활동과 군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경향적으로 지적하시고나서 서글 서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결함은 엄중합니다. 그리고 후과도 큼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유철동무가 사업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유철동무가 거기서 일정한 기간 일한만큼 그곳 사람들을 잘 알고 일정한 련계도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만 도 우리는 많은것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이리 좀 다가앉으십시오. 우리 그 자료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할 내용을 좀 짜봅시다.》

그이께서는 책상때람에서 8장지 한장을 꺼내시여 절반을 집어넣으시였다. 그리고는 활달한 글씨로 《중심방향》이라고 써넣으셨다.

《자, 생각해봅시다. 중심방향을 어디다 두고 일해야 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지우개 달린 연필을 거꾸로 드시고 방금 써넣으신 글자들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유철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유철은 얼굴이 붉게 피어오르는것을 느끼며 좀 거북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제 말씀하신것처럼 하나는 핵심들을 먼저 키우고 조직을 튼튼히 꾸리면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두어야 할것이고 한편으로는 무장대오를 짜고 무기를 해결하여 한시바빠 유격대를 조직하는데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것은 지난날 우리가 범했던 잘못을 깨끗이 총화하고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새 로선과 모든 방침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침투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심방향》밑에다 방금 유철이 말씀드린 대답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목조목쓰시였다. 그리고는 번쩍 고개를 드시였다.

《그럼 핵심을 키우는 문제를 두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장차 우리가 당을 새로 창건해야 하는만큼 이것은 곧 당창건의 준비로도 되

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사업하겠는지 좀 생각해봤습니까?»

《아직 별로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업을 주실줄은 몰랐기때문에… 더구나 당창건의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들리지 못했습니다. 거기 좋은 동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철은 자기의 머리가 얼마나 산만한가 하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으며 생각하는바를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그곳에 가서 사업하게 된 이상에는 그곳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결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한 일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유철동무의 말을 들으면 그곳에도 좋은 동무들이 있습니다. 우선 박두성이든가 김기창이 같은 동무들은 핵심으로서 앞으로 그 동무들의 방조를 많이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동무들은 사상의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급적토대도 그렇고 또 일정한 균중적지반도 가지고있는만큼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핵심을 많이 자라우자면 역시 로동자, 농민출신의 세세대들속에서 좋은 동무들을 찾아내어 키워야 합니다. 이미 있는 동무들을 잘 교양하여 같이 이끌고나가면서 이런 세세대들에 의거하는것이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밖에 로채숙동무같은 인텔리문제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그 동무도 지난날의 잘못된 공산주의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입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무는 환경이 좋을 뿐만아니라 민족의식도 매우 강하고 혁명하자는 각오가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교양하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식민지나라의 인텔리란 부르조아에게 복무하는 측면도 있지만 민족적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강하고 또 진리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텔리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출신계급을 가지고 그 사상동태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적실천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상태를 판단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인텔리인 경우에는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텔리란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공부를 하자니 그들의 집안이라는것이 대부분 자산계급이 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여기서 우디가 일을 경솔하게 하면 혁명을 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좋은 사람들을 적의 편으로 떠밀어주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나 교양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비판할것은 비판

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그러면서도 때버리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파오를 범했을 때도 구체적조건에 따라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 사람을 혁명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가자는 뜨거운 동지애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벌도 주어가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교양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급출신의 어린 동무들에게는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잘 깨우쳐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대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인만큼 책임이 무겁고 또 각오정도도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리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혁명규률은 자원적인 규률인만큼 엄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유철의 눈앞에는 백리히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여태까지 막연하게 동지라고만 생각해오던 그들의 온갖 본질적인 특징들이 제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그려졌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던 어중간한 생각은 어느새 사라졌다. 하나하나 일할 대상과 방법,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까지가 뚜렷이 떠올랐다. 그는 적도 모르는사이 신명이 나서 그이의 말썽을 빠짐없이 적으려고 자리를 이리저리 고쳐앉으며 분주히 연필을 놀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표정에서 점차 일에 대한 자신심이 생겨난다는것을 읽으시고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며 쌍바라지쪽을 내다보시었다.

《그런데 정말 일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격대를 꾸리고 무기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미 일반적원칙을 이야기했으니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그곳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하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군중토대를 닦는것입니다. 실상 이것이 제일 복잡하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는 강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강대한 적을, 맞받아 싸우자고 하며 승리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인민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를 부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혁명의 군중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하강지구에서 군중토대를 닦자면 백리히현실을 비롯해서 그 주변 농촌들과 목재판들에 다 혁명조직을 뿌리박고 인민들을 모두 혁명화해서 조직에 묶



어세워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중요한것이 안  
물혁명화문제입니다.》

《저, 그들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계속 반대하는 경우에도말입  
니까?》

유철은 연필을 멈추고 김일성동지의 시원한 안색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것이 우스운 일이란말입니  
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혁명을 하는것도 아니요  
반대로 그들도 찾자고하는 우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  
고 싸우는데 무엇때문에 우리를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공산  
주의자들을 잘 모르는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오해  
하고있는데는 지난날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이 잘못된데도 원인이 있습  
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사업하고 교양하지 않은데 있는것입니다. 내보기에 백리허에  
서 혁명적군중토대를 닦자면 우선 안말을 혁명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필끝으로 이미 뼈꼭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적혀진 종이우를 다독다독 두드리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유철도 연필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이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우선 침투하는것, 발붙이는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철동무는  
물론 전반적인 사업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자고 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더라도 사람들  
을 믿고 파업을 주어서 그 파정에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령 유격대조  
직사업같은것을 놓고보더라도 간부문제라든가 정치사업의 내용에 대  
해서는 유철동무가 직접 보면서도 혼란이라든지 무기쟁취라든지 이러  
무한 문제들은 다른 동무들에게 맡길수도 있습니다. 유철동무는 모든  
사업을 틀고앉아서 방향을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말문제  
가 걸렸습니니다. 내보기에 우선 전반적인 조직사업이 끝나면 그 즉시  
로 이 문제를 푸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들  
어가서 어디에 어떻게 발을 붙이며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사업할것인  
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니다.》

유철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말혁명화문제를 그

이께서 이처럼 중요시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따라서 그 방도에 대해 당장 말씀드릴 무슨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다시 쌍바라지쪽을 바라보시더니 결단성있게 고개를 돌리시며 책상위의 종이를 공책넓이만큼 접으시었다.

《중습니다. 들어가는 방도라든가 공작방법은 여타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잘 타산해서 좀 연구해보고 다시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십시오. 사업계획이란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짜야지 추상적으로 돼서는 공연한 일거리만 만듭니다.》

유철은 그이께서 내미시는 종이를 약간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그이께서 말씀하시기 편리하게 그저 쓰신것이 아니라 자기에 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일부러 정성을 들여 작성하셨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레 가슴이 후터워졌다. 그가 종이를 한손에 전체 명하니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고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원한 목소리로 화제를 돌리시며 말씀하시었다.

《이젠 사업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벌써 해가 지무는군.》

산फल찌치고는 꽤 널찍하게 터놓은 쌍바라지로 불타는 저녁노을이 번져들어왔다. 그이께서는 넓고 시원한 이마에 그 연분홍빛 노을을 받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고향에 가본지도 오랫동안입니까?》

자기대로 생각에 잠겨있던 유철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윽한 빛을 뿌리는 그이의 눈을 바라보니 답답하던 가슴속 시름이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네, 작년에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정작 가보기는 몇해, 잘됩니다. 그런데 참 고향생각이란 이상합니다. 못가본지가 수십년도 더 되는것 같지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잊그제 본 판 고장의 경치는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오래전에 본 고향마을의 풍경은 그대로 눈앞에 선합니다.》

유철은 어떻게 들으던 질없다고 할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그러나 역시 말을 다 해놓고보니 부진없는 감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여쭙었구나 하는 뉘우침이 떠올랐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쌍바라지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잠시 침묵에 잠겨계시었다. 산फल짜기를 훑어내리는 바람소리가 어딘가 애뜻한 정

취를 자아냈다. 저녁으스름이 어둑시그레 스며드는 방안에 유난히 서향으로 난 쌍바라지만이 노을을 담고있었다.

《고향생각이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모양입니다. 나도 가끔 어릴 때 떠나온 고향을 꿈에서 볼 때도 없지 않습니다. 허허허, 혁명을 하겠다고 고향도 가정도 모든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눈보라 사나운 산파 벌판을 돌아다니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던 고향산천을 잊지 못하고 꿈에까지 본다는것을 알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고향과 크게는 조국, 인민—이런것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기때문에 만남을 무릅쓰고 혁명을 하자고 나선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철은 그이의 다정다감하신 말씀에 저도 모르는사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김일성동지의 담담한 어조에 풍기는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 몸에 꼭 배어왔다.

날이 저물도록 그이께서는 유철을 데리고 앉으시여, 고국의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하나하나가 자기 생활과 이어져있는 그이의 정어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느라니 유철은 어느덧 방금 그이로부터 받은 크고 무거운 혁명과업의 어려움도 잠시 잊고 그이께서 펼쳐보이시는 사랑하는 조국의 살뜰한 이모저모를 눈앞에 그리며 마치 단란한 가정에 돌아와 너그러운 어버이품에 안겨있는듯 온갖 시름이 놓이는것을 느꼈다.

x

밤사이 눈이 하얗게 내렸다. 유철이가 새벽에 잠이 깨어보니 바깥이 흰하여 다 밝은것 같았다. 후닥닥 뛰여 일어났으나 옆에서는 여전히 끈한 숨소리들이 들리었다. 부엌에서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서리고있었다. 눈이 내렸구나 하는것을 느끼자 유철은 얼른 옷옷을 걸치고 지게를 열었다. 함박눈이 발등에 몰힐만큼 쌓였는데 아직도 으스스한 새벽하늘에 이따금 눈송이가 흰흰 날아다녔다. 가뜩이나 맑은 산속 공기에 정갈한 흰눈의 습습한 냄새까지 박이여 숨을 쉬지 않아도 밤사이 풀어졌던 몸과 마음이 질로 그 차고 시원한 공기를 계절스럽게 들이마시었다. 유철은 담벽에 세워둔 싸리비 한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마당은 이미 쓸터있었다. 반반하게 쓴 우에 락화

처럼 날리는 눈송이들이 가라앉아 얇게 깔려있었다. 유철은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언덕길쪽으로 나갔다. 집들배와 언덕밑까지는 눈이 다 쓸려있었다. 유철은 누가 쓸었을가 생각하며 비자루를 언덕받이쪽으로 대고 발자국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가까이에는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볼수 없었다. 유철은 고개를 한번 기웃해보고 눈을 쫓어나갔다. 단단하게 걸은 비자루끝에 탐스럽게 뭉친 눈이 묵중하게 실리면서 번져갔다. 그렇게 뒤집혀졌어도 묻지 한점 묻지 않는 깨끗한 눈이었다. 두어번 비질을 하는데 집뒤쪽 산비탈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 누구요? 언덕까지는 자리를 안내는게 좋겠소!》

김일성동지의 목소리였다.

유철은 얼른 고개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려염집이 아니라 비밀아지트라는것을 피뚱 상기하였다. 유철은 그이의 목소리가 울리던 산비탈쪽을 향해 집뒤를 돌아갔다. 새하얀 눈우에 널찍널찍하게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그 발자국을 어지럽히는것이 어쩐지 저어되어 새길을 잡아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비자루 한자루를 비껴드리고 커다란 떡갈나무아래에 서계시였다.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수백년 묵은 아들드리 거목은 마치 신선처럼 서있는데 김일성동지의 모습은 정화된 눈별과 맑은 공기와 그리고 거창하게 아지를 펼친 아들드리 떡갈나무가 서있는 그 정경에 너무나 잘 조화되였다.

《유철동무요? 이리 오시오. 여기 재미있는것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뜻밖이리만큼 일상적인 그 부드럽고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부르시였다.

《밤사이 편안하셨습니까? 간밤에도 늦게 주무셨는데 벌써 이렇게...》 유철은 송구한것을 느끼며 떨적이서 아침인사를 여주고 다가갔다.

《난 본시 새벽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다람쥐굴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비자루로 구새먹은 떡갈나무의 밑둥을 조심스럽게 가리키시였다.

유철은 가볍게 미소를 짓다가 인차 긴장되였다. 기척을 내면 그놈이 달아날것이였다.

《어딤니까?》

유철은 소리 안나게 발걸음을 옮기며 저도모르게 들레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놈이 비탈쪽으로 뛰면 손쓸 방법이 없다. 그때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나무뿌리쪽으로 몸을 뺐었다. 아닌게아니라 널찍이 패여진 구세통 밑창 킁킁한 구석쪽에 뺑하니 엽전일만한 구멍이 뚫어져있다.

《이놈이 눈이 왔다고 강산구경을 나왔는지 저 언덕밑에서 아물거리다가 내가 가니까 집뒤로 해서 뺑다달아나는데 지하공작경험이 없구나니 제 아지트로 골장 단터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북에 걸린 셈인데 짐작에 이 글을 털면 밤이 몇말은 있을것 같습니다. 허허허,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털어볼까요?》

《털어봅시다. 그런데 이게 떡갈나무밑이 돼서 도토리만 물어다놓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철은 금시 소년과 같은 기분이 되어그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도토리만 있다면 그건 진히 재미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물을 길어다 부어서 다담취를 잡는것이 어떻습니까?》

《참, 그게 좋겠습니다. 잡아다가 아이들을 주면 좋아하겠습니다.》 문득 유철의 머리속에는 사과를 가지고 좋아하던 현아의 얼굴이 그려졌다.

《아이들?》

그이께서는 유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한결 더 밝은 목소리를 말씀하시었다.

《허허허, 채바퀴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어른들도 재미있지요. 그런데 그만 생각하니 좀 심중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곧 떠나야 하겠는데 지금 잡아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놈이 지금 글을 폭로시켰다고 단단히 비판을 받겠는데... 허허허, 우리 그만두고 내려갑시다.》

유철은 고개를 숙였다. 공연히 아이이야기를 꺼내여 그이께 걱정을 끼쳤다고 생각하니 머리를 들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자루로 발자국을 고르듯 세 배구시며 말씀하시었다.

《이 발자국을 깨끗이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이 글을 발견하면 제격 털어내자고 할수 있습니다. 허허허...》

유철은 눈썹이 뜨끈해왔다. 자기가 아이생각을 할가봐 아무런 자극도 주지 말자고 것처럼 세심히 배려하시는 그이의 심중을 생각하니

조연히 고개를 떨구고있는것이 도리가 아닐것 같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유철은 비자루로 땀을 훔어나갔다.

《아닙니다. 발자국만 없애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로 쓴 흔적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동무들이 이런데는 눈이 밝습니다. 발자국은 없는데 메꾼 자리만 있다면 더 수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이렇게 감쪽같이 해놓아도 숙여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들킨다면 그건 다람쥐의 신수가 정 궁해서 그런것이니 우리가 책임질수 없지요, 히히히.》

유철은 손을 멈추고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새벽공기를 맞으며 안색은 한결 붉게 번지시고 어글어글한 눈에서는 정화된 산천정기가 어리여있었다. 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이께서는 크게 숨을 들이쉬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일어나자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사이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좀 거닐어보지 않겠습니까?》

유철은 묵묵히 그이의 뒤를 따랐다. 자기생각을 판데로 이끌어가지자는 그이의 의도가 뚜렷이 느껴졌다. 그와 함께 안판문제가 중요하며 그것때문에 그이께서도 심려하신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유철은 너무 어색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 스스로가 민망스러웠다. 그는 밤사이 생각한바를 여쭙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저 안판문제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때도 박두성동무를 들여보낼밖에 딴 도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 동무는 안판에 들어가기만 하면 4촌네 집이든 아무 집이든 쉽게 박힐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친철히 백양나무의 정수리를 울려다보시였다. 까치둥지가 하얗게 눈을 쓰고있었다.

《박두성동무라—》

그이께서는 가빉게 나무밑둥을 발로 건드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그 동무는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동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마 드러내놓고는 다니지 못한다는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깊이 숨어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공작에 영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자주 접촉해야 하겠는데 숨어서 만난다는것이 실제상 어려운것입니다. 물론 박두성 동무는 수완도 있고 또 발붙이는데 유리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그런데 김기창이라는 동무말입니다. 그 동무에게는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끝을 흐리시더니 갑자기 활기있게 물으시었다.

《저 그 동무는 채벌로동자출신이고 또 이제 스물한살에 났습니다. 그러니 청년사업을 시키면서 목재판로동자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웁습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조직해야 합니다. 사업대상과 사람의 성격, 연령, 준비정도를 잘 고려해서 꼭 들어맞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대답이 매우 흡족하신듯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며 나무밀등을 푼 치시었다. 때마침 비껴오르는 아침노을을 받아 연분홍빛으로 물든 눈보라가 하르르하고 날렸다. 그이께서는 옷깃으로 스며드는 눈가루를 티질 생각도 안하시고 이번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안골문제타-사실 주민구성이 복잡한 농촌을 혁명화한다는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런 물치아픈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이께서는 반걸음을 옮겨놓으시며 말씀은 이으시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곳에 크지 않은 한 농촌이 있는데 그게 우리 조직의 턱계와 활동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저번 명월구에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결정짓고보니 그 준비를 위해서 빈번하게 드나드는 공작원들의 턱계를 짓자면 반드시 우리가 장악해야 할곳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구성이 까다롭고 또 우리 동무들이 일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좀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벌리자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고보니 이제 아무래도 결린단말입니다. 물론 여태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성격의 유격전쟁을 시작하자니 할일이 태산같았습니다. 그러나 균중토대를 닦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업상

런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 우선 그 동네의 혁명화군제를 해결해야  
 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포치하고 밀고나가면  
 서 한 책임적인 일군이, 직접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무장투쟁과 같  
 은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조그마한 동네에 책임적인 일군이 들어간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범한 군중의 혁명화문제가 우리  
 혁명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뿐만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  
 수히 그 일을 해야했는데 혁명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진형을 만들어내  
 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무가 기기에 꼭 한  
 사람 있는 조직원의 집에 머슴으로 가장 해들어갔습니다.》

《책임일군이 머슴으로 가장했다면말입니까?》

열게 깔린 눈길우에 가볍게 옮겨놓이는 그이의 발걸음처럼 담담  
 하게 이어지는 말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유철은 분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그이께서는 시종 웃음기 어린 얼굴로 그냥 걸어가시며 말썬  
 을 계속하시였다.

《그렇습니다. 머슴군노릇을 하자니 힘들 때도 있고 또 그걸 자연  
 스테 하자니 사람들의 수모도 받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게 되지요.  
 그 과정에는 배를 그리 쥐고 웃지 않을수 없는 이야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작을 하는데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머슴  
 이다보니 아무때나 기본군중과 만나고 섞일수 있으며 산이나 들판  
 으로 마음놓고 다닐수 있기때문에 비밀공작을 하기가 매우 좋습니  
 다. 그러면서도 의심을 받을 일은 적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동네문제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결했습니다. 혁명화문제라는것이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몸을 들이대고  
 해결하자고 나서면 그렇게 신비한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그 경  
 험을 통해 지을수 있었습니다.》

유철은 그이의 말썬이 끝나자 다시 걸음을 멈추고 간청하였다.

《저 그 공작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수는 없겠습니까?》

《허허허, 공작과정에 대한것은 이따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것은 원칙문제이지요.》

그이께서 무엇때문인지 이야기를 더 하고싶어하시지 않는다는  
 눈치를 채자 유철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공작의 경



힘가운데 안팔문제를 풀 실머리가 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분주히 이야기의 앞뒤줄거리를 더듬었다.

그이께서는 벌써 그 이야기는 끝이 났다는듯이 아침노을이 더 넓게 번져가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놓으시었다. 다시 백양나무밑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주먹을 쥐시고 밀등을 크게 한번 울리신 다음 제격 몸을 피하시었다. 노을빛을 담아 아롱거리는 눈가루가 우수수 쏟아져내렸다.

《허허허, 아주 훌륭한 아침입니다. 자, 이젠 들어가서 우리 잠꾸러기들을 좀 놀려줍시다. 공작에 나갔다 돌아오면 잠이 물러서 꿈작들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잠이 없다보니 모두 거북해들 하지요. 그래서 좀 재우자고 때로는 일부러 자리에서 배겨봅시다마는 도무지 견딜수가 없습니다. 허허허.》

그이의 웃음소리는 마당가에 서있는 유철의 귀진에 오래도록 어운을 끌며 사라질줄 몰랐다. 저와 같은 친어버이사랑을 받으며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동무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그러면서 머슴군으로 가장하여 한 농촌을 혁명화했다는 책임적인 일군이 누구일가 하고 이 얼굴, 저 얼굴을 그려보았다.

다양한 겨울의 아침이였다. 그이께서는 조반을 드신후 기다리고있던 몇몇 지방조직의 일군들을 접견하시고나서 오래간만에 농민들의 생활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서시었다. 유철이가 자기도 같이 모시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젊은 혁명군대원들만을 데리시고 떠나시었다. 유철은 조용한 집안에 홀로 떨어졌다.

앞으로의 공작과 판련하여 일부러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신것이라고 생각하니 굳이 따라나서겠다고 할 일도 못되어 혼자 남기는 하였으나 어쩐지 지금부터 마음속이 허전하였다. 아지트책임자 내외가 무엇을 하는지 부엌안팎을 부산스레 드나들었으나 유철은 방심한것 모양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느때부턴가 정주에서는 훈훈한 김이 서터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유철은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아 방안에 하나가득 서리는 김속에 눈을 조프리고 새벽에 들은 이야기를 다시 더듬었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보니 박두성이를 안팔에 들여보낸다는것이 적당치 않다는것은 명백하다. 그 사람이 들어갔댔자 고작

제품이나 숨기고 다녔지 누구와 만나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이께서는 책임적인 일군이 직접 그 일을 맡아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시었다.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서도 그 일이 전반적인 사업에 크게 영향을 줄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면 응당 그 일을 책임적인 일군이 직접 보아야 한다는 그이의 뜻이 느껴진다. 그리고 하강지구 역시 앞으로 그이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을 하루빨리 일반화하자면 안풀문제해결에서 그러한 경험을 찾는것이 진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응당 내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한다고 특별히 잘할것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직접 그이로부터 모든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큼 든든한 사람은 그곳에 없다. 그런데 대체 혁명의 요구에 대답하여 것처럼 밝벗고 나서서 능숙하고 대담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일가? 후시...

유철이가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여적 마음을 질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지트책임자가 털외투 한벌을 안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저 유철동지, 김일성동지께서 이것을 읽어보시랍니다.》

50가까이 나보이는 소박한 농민투를 한 아지트책임자는 이미 유철이가 하강지구로 나가게 된다는 말을 들어선지 매우 동정어린 투로 이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털외투를 유철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마 공작원들이 변장용으로 쓰던것인 모양으로 거의 새것이나 다름 없는 새하얀 애기양털외투였다. 유철은 잠시 말뚝을 새기듯 아지트책임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한 손길로 양털외투를 그려당겼다. 포근한 털을 매만지며 그는 물었다.

《이것을 그이께서 나더러 읽어보라고 하시니까?》

《네, 저 유철동지가 멀리 가신다고 하시면서... 이 외투가. 원래 그이께서 공작하실 때 입으시던것인데... 아주 좋은것이오다. 삼동에 한지에서 나도 추운줄 모른다고들 합테다만...》

유철은 말없이 양털외투에 턱을 고이다싶이 고개를 숙이고 포근한 털을 매만지며 그 부드럽고 따스한 촉감을 즐겼다. 가슴에 무엇인가 하나가득 차올랐다. 그는 털외투를 그려안고 벌떡 일어나다가 그이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셨다는것을 상기하고 안타깝게 물었다.

《그이께서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아마 오늘은 늦으실거오다. 오래간만에 나가셨으니, 농민들이

그이를 인차 놓아드릴것 같지 않소다. 사람마다 어렵게 살아나가기 모든 걱정을 다 그에게 하소연한단말이오다. 그이께서도 그럴줄 짐작하시고 점심은 유철동지 혼자 들라고 하신편다.》

아지트책임자는 한편으로 방안을 치우며 심상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농민들 집에서 점심을 하시게 됩니까?》

《그렇거오다. 뭐 걱정할진 없소다. 자, 그럼 점심을 하시오다.

여보, 거 이리 들여오우.》

안늬은이가 특모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상우에 큼직한 늦쟁반이 놓여있다. 조그마한 소금접시, 양념종발, 김치보시기 매우 낮은, 머리속에 뜨겁도록 인척혀진 상차림이다. 언젠가 저러한 상을 들고 안해가 총소리 어지러운 토방우에 섰었다. 그날 한여름의 저녁달이 내려다보는 그 그리운 추녀끝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김과 구수한 냄새가 풍겼었다. 그리고 저렇게 묘하게 까부러진 상다리 하나를 불탄 집 제무지속에서 찾아냈었다.

유철은 머리속이 어쩔해 지는것을 느끼며 비로소 아까부터 집안에 풍기던 냄새가 탐고는 냄새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어려워할게 없소다. 어서 드시오다. 혁명사업을 하자면 뭐니뭐니 해도 몸이 튼튼해야 한다오다.》

안늬은이가 상을 갖다놓더니 유철의 허둥거리는 모습을 다 알만 하다는듯이 인정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식기전에 드시오다.》

아지트책임자도 부드럽게 권하였다.

유철은 말 한마디 못하고 상앞에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구수한 김이 피어올라 그의 얼굴에는 이슬방울이 아롱졌다. 가슴속에 그 김이 그대로 서리는듯 숨이 가빴다.

《그이께서 그래서 저를 떨구어두고 모두 데리고 떠나셨군요?》

유철은 김이 피어오르는 탐곰쟁반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히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진 없습넌다. 어서 식기전에 드시우. 우린 그저 그분께서 바라시는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넌다. 그것이 그분의 뜻을 받드는 길이란말이오다.》

《그이께서 그 일을, 내가 집을 떠날 때 일을 다 아시고계셨습

니다.》

유철은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안해와 헤어지던 그날밤의 사실을 그이께서 상기시키던것을, 일없이 더듬었다. 안해의 최후와 판련하여 리용수가 그분께 그런 일까지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른다. 그분께서는 그처럼 혁명사업이 번거롭고 다사한가운데서도 한 안해의 가슴에 맺혔던 한을, 풀어주시고 아울러 저와 같이 이름없는 한 천사의 몸과 마음을 아끼시여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미치지 생각이 미치지 못할 그런 구석에까지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뻗쳐 어루만져 주시는것이다.

유철은 소반우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걸뵈하면 눈물이 용솨음쳐 울것만 같은 격정에 사로잡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사람의 언어가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무력하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아지트책임자내외가 번갈아 권하였으나 그는 지이 사양의 말조차 할수가 없었다. 그는 오직 깎아세운것 모양 움직이지 않고 앉아 솨구치는 눈물을 이를 악물고 참고있을뿐이었다.

《히히—다 식겠소. 그분께서 후 들어오시더라도 유철동지가 이리 고있는것을 보면 섭섭해하실거오다. 어서 드시우.》

《들겠습니다.》 유철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웃고있는 아지트책임자의 열굴을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바이, 내 안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철은 딱히 무슨 말을 하고싶다는 생각도 없이 중얼거렸다.

《내 다 압니다. 그분께서 주삼녀동무의 최후에 대해서는 한두번만 말씀하신게 아니오다. 그렇게 마음을 썩일 필요가 없다는데 그러오다. 그저 유철동지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 보신이나 하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것쯤으로 생각하고 드시우. 그래야 그분께서도 마음이 좋을것 아니겠소다?》

《들겠습니다.》

유철은 다시 고개를 깊이 수그리였다. 아지트책임자는 허구픈 목소리로 꺽꺽 웃더니 내외간이 다 소리없이 물러났다.

오후에 유철은 아지트책임자와 이야기기를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기를 들었다. 그것은 푸르히 가까운 한 농촌의 혁명화를 위하여 몸을 숨기고 들어가신분이 바로 김일성동지시라는 사실이었다.

유철은 오래도록 고개를 떨구고있었다.

그날 저녁 유철이 털외투를 안고 방안으로 들어가니 김일성동지께서는 권총손질을 하고계시었다. 갑작에 넘쳐 가볍게 입술을 떠는 유철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전처럼 정중하게 자리를 권하시었다.

《어떻게 몸에 맞습디까?》

그제야 유철은 아직 자기가 외투를 입어보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입을 벌 필요가 있는가?

《김일성동지, 진 뜻을 받들고 하강 지구와 상강 지구에 나가 사업 하겠습니까. 이제 지한테 무서울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팎문제도 능히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이 있는데 제가 다시 갈팡질팡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안팎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외투는 거두어주십시오.》

《허허허, 내가 그랬다는것은 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 유철동무가 직접 들어간다면 어대 발붙일만한데는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시글시글 웃으시면서도 신중하신 눈매로 바라보시었다.

《아직은 푹푹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주집이 있고 또 목재판에 다니는 말파리들도 그 동네에 있으니 그런데 가서 박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실 결심이 선 다음에는 들어가는 방법이 그리 힘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유철동무가 말을 많이 다루어왔으니 안팎에 목재판 말파리군들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것을 리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끊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심중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물론 말파리군들과도 공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심은 안팎에 두어야 합니다. 목재판로동자들속에서 공작하는것은 주로 김기창동무가 하게 하십시오. 아무래도 농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이 로동자들보다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 유철동무가 직접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안팎문제에 대해 말씀을 끝내시고는 일어서시었다.

《그럼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혁명을 위하여 애물 써주십시오. 그때 외투는 입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입어보십시오. 몸을 아껴야 합니다. 파거에 일부 혁명가들가운데는 일이 뜻대로 안되다보니 차포자기가 돼서 체몸을 한부로 굴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체몸도 돌볼줄 알고 절도있게 생활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단두대도 두려워 않고 적진속에 육탄으로 뛰어들기도 해야 하지만 쓸데없는 정력과 체력을 낭비해서 결정적인 대목에 동원될수 없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혁명에 해를 주는것입니다. 자, 입어보십시오.》

유철은 그냥 김일성동지의 환한 웃음이 피어오르는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채 그이께서 입혀주시는대로 기계적으로 소매에 팔을 꿰었다. 문득 어릴 때 지금은 이미 없는 어머니가 저고리를 입혀주곤 하던 아득한 옛일이 떠올랐다.

《허—신통히도 맞는군,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물러서서 이모저모 뜯어보시며 기뻐하시었다. 《자, 이걸 척 입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기쁨가게나 짜진 주인이다. 이러면 아무 의심도 안받겠습니다. 허허허, 대소한에 무인지경에 나시도 아무 걱정 없겠습니다. 그런데 권총을 더러 썩봤습니까?》

《진에 지하공작할 때 가지고 다닌적이 있긴 합니다만...》

유철은 코허리가 쟁해와서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심코 대답하였다.

《자, 그럼 이리와 앉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을 턱외투 입힌채로 책상머리로 끌어앉히시더니 분해해놓은 권총의 부속들을 죽 더듬어보시었다.

《이거면 탄알이 모두 14발, 이걸 따로 더 가져가십시오. 할미령을 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놈들과 주구들이 길목에서 못된짓을 할수 있습니다. 토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총소리를 안내는것이 좋습니다. 공작지에 가셔도 완전히 무장대오를 조직할 때까지는 은밀히 보관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깨끗이 닦은 권총을 붉은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서 유철이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이것도 저에게 주시는것입니까? 저에게 이것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유철은 한걸음 물러나앉으며 두팔을 내밀고 총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이 앞으로 돌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멀러서 울먹울먹해졌다.

《가져가십시오. 외진곳에 홀로 가는것만큼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밑천이 될 총한자루는 필요한것입니다. 나에게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총이 있습니다. 자, 사양말고 받으십시오. 우리 혁명을 위해 청년의 한 목숨을 바쳐 싸워봅시다.》

유철은 조선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로부터 총을 받았다. 그리고 그이께서 내미신 손을 굳게 틀어잡았다.

《김일성동지의 로신을 관철하는데 지의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혁명은 간고한 길입니다. 그러나 보람찬 길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험벗고 굶주리는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위하여,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원수일제를 치고 조국을 해방합시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물려줍시다. 그래 언제 떠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떠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갈 길이 환하니 한시라도 빨리 일하고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밤길을 가겠습니까? 하루밤 더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래일 아침 나하고 같이 떠납니다. 마침 아까 지방조직을 통해 일전에 홍창성동무를 만나러 갔던 동무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홍창성동무는 탈옥에 성공해서 공작지로 갔답니다. 이제 나는 또 치한 사업들을 보러 떠나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모시고 가게 됩니까?》

유철은 번쩍 귀가 띄여 기쁨에 가슴을 들먹거리면서 되물었다.

《허허허, 같이 간대야 불과 하루길입니다.》

유철은 비록 하루길이지만 그이를 동행하게 된다는것이 기뻐서 멀지 않은 리별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그이

걸을 떠나지 않고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었다.

\* \*

이튿날, 연한 눈보라를 실은 거센 바람이 산줄기를 휩쓸어왔다. 벌판은 무심게 서늘을 돌친 광풍에 기가 질려 떨고 숲은 히유—히유 아츠러운 비명을 질렀다. 저 멀리 지평선우에서는 제빛구름이 침울한 표정으로 이를 같듯이 물켜있었다. 월빛은 대지는 다시 살을 핏기듯 락엽과 검부레기를 굴리며 구슬프게 운부짓고 어느 풀짜기에서 뿜겨 난 제빛토끼 한마리가 황량한 수수밭고랑사이를 달터갔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높은 산마루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철의 손을 힘차게 잡아주시며 웅글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부디 몸을 삼가주십시오.》

《히히히, 우리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앞으로 자주런계를 가지도록 합시다.》

유철은 묵묵히 수령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이의 억센 손을 전채 놓을줄 몰랐다. 간밤에도 밤을 밝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앞으로 몇 밤, 몇십, 몇백 밤을 밝혀도 더 듣고싶은 마음의 갈증은 덜어질것 같지 않았다. 이제는 어차피 그이걸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 번판처럼 황량하게도 느껴졌다. 그러나 자연엔 저렇듯 엄혹한 천이 왔어도 이미 조선혁명에는 그 어떤 광풍도 암운도 다시는 덮을 수 없는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가 계시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은 든든해졌다. 그렇다, 조선혁명에는 태양이 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비치는 혁명의 대로가 있다. 이 길은 눈보라도, 가시덤불도 모조리 짓부시고 멀리 아득히 공산주의대일로 뻗어있다. 이 길을 가는 이상 어떤 시련과 난관이 조선인민의 앞을 막을것인가?

유철은 그이의 손을 다시한번 힘있게 물어쥐고 맹세를 다졌다.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혁명에서 승리하는것만이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처자들을 영원히 살리며 참되게 사랑하는 길이라 는것을 잊지 맙시다. 혁명가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



됩니다.》

유철은 품에 간직한 공책을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그 마음속의 책갈피에 또박또박 적었다. 《혁명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사나운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날 높은 산마루에서 유철은 수령의 걸을 하직하였다. 그리고 그의께서 손을 높이 쳐드시여 바래주시는 길을 따라 그의께서 입허주신 새하얀 애기양털외투를 입고 그의께서 넘겨주신 총 한자루를 허리에 차고 그리고 그의께서 일깨워 주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진술을 가슴에 품고 칩칩한 산과 거치른 벌판과 우중충한 원시림너머 먼 하강지구로 떠났다.

### △ 어휘 및 표현

○ 뚱뚱무이하다. 하던 일이나 말을 새 끝맺지 않고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끊다.

○ 회포를 풀다. 마음속에 품었던 정을 풀이놓다.

○ 보검(보검). 보배로운 칸이라는 뜻으로, 《혁명과 진실에 리용되는 아주 위엄하고 귀중한 수단이나 무기로 되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삼척동자. 칠모르는 아주 작은 어린이.

○ 잔피를 부리다. 얇은 피를 부리다.

○ 러득하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연구하여 깨달아 알다.

○ 불면불휴. (주로 《불면불휴의》행으로 쓰이어) 자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내치 힘써 힘》을 이르는 말.

○ 꼭경을 겪다. 몹시 피롭고 어려운 처지나 경우를 겪다.

○ 명색뿐이다. 이면 명목으로 불리우는 이름뿐이다.

## 평양 시간

발취

지배인의 지시에 의하여 조립작업을 중지당한 청년조립조원들은 길 건너 맞은편에서 새로운 기초구덩이파기작업을 시작하였다.

수도신문의 기자가 그들을 찾아왔던 옛지녀에는 사기충천하여 부재를 다루던 조립공들이었건만 오늘저녀에는 기분없이 땅파는 일을 하였다. 그들이 부업이라고 여기는 작업이었다.

이런 작업은 저 맞은편에서도 했었다. 거기서 기초구덩이를 팔 때는 낡은 콩크리트기초가 많아서 애를 먹었다. 나중에는 한톤짜리 폭탄까지 나와서 무시무시한 해제작업도 하였었다. 저 건너편에서 컷조립식주택의 기초구덩이를 팔 때는 겨울이었고 일도 더 힘들었었다.

했지만 그때에는 힘든줄도 무시운줄도 맥빠지는줄도 모르고 일했었다.

조립식으로 지어볼 컷 집을 그 자리에 일떠세우리라는 공지가 있었다. 새로운 형의 컷조립식주택을 멋지게 지어보자는 희망찬 생각이 있었다. 청년조립조의 숨씨를 보여주자는 야심들도 있었다.

그때의 그 금지, 그 희망, 그 야심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들은 청년들이다. 너무나 젊은 탓에 조용조용 말한줄 모르고 신중해야 할때에도 웃음이 레픈 세대들이다. 미들섹 고가대고 호탕하게 웃어떨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청년들이라 하랴?

그들은 조립공들이다. 드넓은 공간과 세상의 온갖 소음속에서 귀속말로 속삭여서는 일해낼수 없는 사람들이다. 직업적요구에 따라 큰소리로 말하는데 버릇될수밖에 없는 직종의 노동자들이다. 하긴 청년조립조원들중의 대부분이 총탄과 폭탄이 콩부듯 터지며 귀를 멍멍하게 하는 전선에서 몇년씩 지내던 어제날의 화선병사들이어서 벌써 오래전부터 속삭임과는 인연이 먼 사람들로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들 청년조립원들은 말해도 떠들썩하게 말하고 웃어도 탁 터지게 웃곤하였다. 그들중의 한 청년은 어느 정숙한 직업에 종사하는 조용하고 얌전한 어떤 처녀와 사랑을 속삭인다는것이 자기네 버

뜻대로 어찌나 큰 소리로 마치 다루듯이 말했는지 실험공인 처녀가 기겁하여 달아나더라는 것이다. 그게 정말인지 꾸며낸 말인지는 그 말을 한 당사밖에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럴 일로당토않은 이야기를 믿지 않을수 없으리만치 떠들고 웃어대기 좋아하는 청년조직조원들이었다.

그러나 이 밤에는 떠들썩 고아대며 동무들과 《속삭이는》청년도 없고 입이 채지게 웃는 사람도 없다. 모두 시뻘뻘해서 일하고있다.

《제길, 여기도 또 콩크리트군, 어이, 정대와 메를 가져와.》

가생이에서 팽이질을 하던 채만집은 꼭팽이를 흙더미위에 탁 던지우리며 두덜거렸다.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라 정대와 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가 《어이,》하고 소리친 선우호섭이쪽에서도 방금 메를 썬야 할 일감이 나진것이다.

《빌어먹을!》

채만집은 던졌던 꼭팽이를 다시 끄집어내렸다. 그는 꼭팽이빨로 콩크리트를 내리찍었다. 꼭팽이는 비척거리며 링겨오를뿐 콩크리트에서는 작은 지지깨비도 일지 않았다. 몇번 찍어보던 채만집은 화김에 다시 꼭팽이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호섭이와 기동이가 쌍이 되어 메질하는 옆 웅덩이로 다가가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밤이 깊어지며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졌다. 간간이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등음에 섞여 심드렁하게 일해대는 삼과 꼭팽이와 메질 소리가 밤안개가 낀 대기속에서 또뚝이 울리군하였다.

갑자기 호섭이가 일하는 웅덩이옆에서 꺾꺾대는 웃음소리가 대기를 주름잡으며 작업장에 울려갔다. 메질하고있는 호섭이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있던 채만집의 웃음소리였다.

《왜 웃나?》

《хах하하하.》

무엇이 우스운지 만집은 점점 더 욱타브를 높여 메를 그리안고 웃어댄다.

하나 둘 일손을 놓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얼떨떨해져가지고 뿌잇한 안개속을 두릿두릿 돌아본다. 어디에 우스운것이 있는지 찾아보는것이다.

《싱거운 녀석, 일은 안하구 왜 웃어대?》

웃음거리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누군가 소리쳤다.

〈哈哈大笑.〉

만집은 그냥 웃어댔다. 무던히도 우스워 웃음을 그칠수 없는 모양이다.

《뭘야? 경찰병!》

만집은 키득키득하며 토막토막 끊기는 말로 대꾸했다.

《엇지녀말이야. 호섭이가...이 품보친구가...전국에말이지...미남자루 알려질번했던 생각이 났잖어.》

《그게 뭘이 우스워?》

《수리개 처럼 하늘을 날던게...지금은 저렇게 두더지신세가 됐거든! 처벌작업이나 하면서.》

《처벌작업이라구?》

《처벌작업이지, 지배인이 미타해하는 집을 우리가 그냥 우기구 조립했던데 대한 처벌이네. 조립공이란 뭘지 자네 아나? 그전 하늘의 수리개야. 땃때때 수리개들이 갑자기 두더지로 돼야 하는지 자넌 몰랐나?》

그리고나서 채만집은 화난듯이 내뱉었다.

《난 억울하고 분해서 땅팔 재미가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제 조립을 마지 못해? 이젠 뭘가 잘 안됐어.》

상철이도 정말 일할 흥이 나지 않았다. 마음은 자꾸만 맞은편으로, 마지막층을 조립하던채 떠나온 그 집으로 끌린다.

거기엔 지금 조용없이 된 외등들만 밤안개속에서 조울고있다. 사람그림자 하나 일췌하지 않는다. 거기는 조용했다. 어제밤까지 그침없이 울리군하던 호각소리도, 기중기의 와르릉거리는 동음도, 신바람나게 웨치던 신호공의 목신 소리도, 지체없이 응수하는 장비공의 자신탄만한 대답도, 부재를 실고 들이닥친 자동차가 어서 부리워달라고 보채는 경적소리도, 익살군운전사 정윤희의 유쾌한 통말과 그에 따르는 떠들썩한 웃음소리들도, 절판우에서 뛰노는 물탈혼합삽들의 물동적인 춤가락소리도, 쇠를 녹여붙이는 용접봉의 찌뚱거리는 반주소리도, 나무뿔기를 박는 마치들의 소고소리도, 물통들이 마주치는 둔중한 북소리도... 그 모든 소리가 어울리 이루는 조립장의 건설교향곡이 언제 울렸던가싶게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정말 저 집은, 저렇게 깃

다만 채로 버려두게 되는 것인가?

조립하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마냥 여겨지며 그리워진다. 매캐한 세멘트가루냄새가 퍼돌고 알찼한 용접봉 타는 쇠연기내가 풍기는 속에서 목직한 블로크를 드다루며 한장한장 즐맞추고 귀맞추며 조립하는 맛은 일마나 좋았던가?

상철은 흙더미위에 곡괭이자루를 깔고앉아 담배를 피웠다. 대동강에서 떠오른 자욱한 문안개에 녹녹해져서 불이 잘 당기지 않았다. 담배조차 심사가 희인가부다.

그는 상을 잔뜩 찡그리고 불이 당기지 않는 담배를 힘들게 빨다 못해 내던졌다. 그는 일어나 곡괭이자루를 들고 웅덩이속으로 기여내려가려다가 멈춰섰다.

쁘얏게 서린 안개속으로 비쳐오던 여러개의 진조등불들이 대동보저편쪽에 와서 차례차례 밟아선것이다. 승용차의 문들이 여닫기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차에서 내린분들이 조립을 중지한 주택건설장입구로 들어가는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웬 분들일가?)

상철이만이 아니라 모두가 일손을 놓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또 사고현장을 시찰하는 모양이지?》

《그런데 이번엔 높은 어른들이야. 낮에는 차들이랑 저렇게 많지 않았대.》

《낮엔 시급이구 이번엔 중앙급이겠지.》

《맞았어. 국가건설위원회랑 내각에서랑 내리는 모양이야.》

《오늘밤엔 어쩐다는 무슨 걸론이 내리려나?》

《글쎄...》

어리땡땡해 시있던 그들중에서 두사람이 슬금슬금 차걸으로 다가갔다. 언제나 그 이름과 같이 호기심 많은 기동적인 청년 홍기동기와 무엇이든 먼저 알아내는 채만집이다.

차들이 선 앞에 멀찍이 다가갔던 홍기동은 놀라서 뛰어왔다.

《아주 높은 어른들이 오신것 같습니다. 대차승용차도 있거던요.》

젠걸음으로 돌아온 채만집의 기색은 아주 신중했다.

《어떤분들인것 같소. 경찰병?》

경찰병은 말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다가 상철이를 한

쪽에 끌어냈다. 그는 상철이의 귀에 입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곤 거렸다.

《수령님께서 몸소 나오실것 같소.》

《?!》

상철은 만집을 돌아보았다. 그 표정은 너무나 숙연했다. 어둠속에서도 만집의 눈에서 내비치는 흥분의 불꽃을 알아볼수 있었다.

《물림없을거요! 내 눈은 밝소!》

상철은 후둑! 하고 세차게 뛰는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 뜻밖이어서 만집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자기한테도 그런 예감이 들었다. 정말 경모하여마지않던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일터였던 저기 저 맞은편 집으로 나오셨을가?

안개속에 어렴풋한 문곽을 그리며 솟아있는 조립장우에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울랐다. 지분들속에 정말 수령님께서 계시는것일가?

그는 지도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이끌리는 마음을 못이겨 작업장을 떠나 신작로를 넘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 채만집이 작업장에서 물러났고 잇달아 홍기동이와 선우호섭이, 박수진이 그리고 모두가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상철이의 가슴은 마구 두방망이질을 하였다.

멀고 긴 행군길에서도, 불타는 화선에서도, 락동강의 때목우에서도, 가랑잎에 쪽잡을 실리던 후퇴의 산중에서도, 별들이 총총한 진호속에서도 문득 토성랑의 동쪽우에서 만나뵈던 수령님의 영상이 떠오를 때면 못길디게 그리워 그리움의 눈물로 이슬맺히게 하던 경애하는 수령님!

제대되어 돌아와 거리를 지나다가도 당중앙위원회청사앞을 지나칠 때면 후시나 그리웠던 그이의 모습을 뵈지 않을가 못내 애타하며 정문가에 서성거리기도 그 몇번이었던가! 오늘은 또 어느 건설장에 나오셨다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건설장엔 언제 나와주시려나 못내 바라마지않던 어버이수령님!

정말 발자국소리, 말소리 울리는 저우에, 조립장우에 나오실것일가?

상철은 계단을 두세개씩 넘겨짚으며 켜켜한 계단실을 감돌아올랐다. 이 순간의 상철은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이께 이

깊은 밤중에 심리를 끼쳐드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조립 작업을 하고있는 건설장이 아니라 숨결이 없는 건설장에 그이를 모시게 되는 죄송스러움도 송구함도 이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였다. 울먹 울먹한 심정으로 어서 그리웠던 그이를 뵙고싶은 마음만 앞설뿐이었다.

그는 계단모서리와 계단판고리와 휴단에 널린 나무토막들에 신부리를 걸 채이면서 층층 뿔아올랐다. 드디어 마지막계단을 디디고 올라서서 조립하다만 복도를 돌아서자 그는 바로 자기쪽을 향해 서서 아무슨 말씀을 듣고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보았다.

상철은 우뚝 멈춰섰다. 열두해만에 이리도 가까이에서 다시 뵙게 된 수령님이시다. 열두해전과 달리 봄외투차림을 하셨으나 애나 다름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수령님!

가슴속에서 몽글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웬일인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했을 때 그림계 기다리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면 울음이 북받치는 어린애마냥 상철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이 순간의 상철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안계시는 사이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했던가를 아버지앞에 죄다 말하고 또 말해서 다시는 아버지가 자기들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 그대로였다.

《건설자동무들이요?》

상철이와 그 뒤에 연방 빼여져나와 멈춰서는 그의 조원들을 보신 수령님께서 최태훈에게 물으시었다. 상철이배를 알아본 최태훈은 대답을 드렸다.

《이 주택을 조립하던 청년조립공들입니다.》

《주인들이요? 만나자던 참인데 마침 왔구만.》

수령님께서 상철이앞으로 다가오시었다. 상철은 모포 없는 낡은 군모채양에 손을 올렸다. 그랬으나 흥분때문에 입술이 떨려 보고의 말은 한마디도 드리지 못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청년조립조는 현재 기로굴착작업중에...)

마음속으로나마 울리던 보고마저 채 하지 못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들앞에 다가서시는 순간 그 누구인가 만세의 환호를 올렸던것이다. 만세소리는 즉시에 폭발적으로 번져 조립장에서부터 계단실을 따라 층층층층 저아래까지 뿔달린 사람들에게 진과

되어갔다. 때아닌 깊은 밤중에 조립장에서 디지오른 단세소리는 봄밤의 고요를 뒤흔들며 안개속에 잠든 거리에 메아리쳐갔다.

수령님께서서는 딱한 표정을 지으시며 진진해달라는 손짓을 하시였다.

《조용해주시오. 너무 떠들지 마시오. 주변인민들이 단잠에 들었는데 깨우고말겠소.》

수령님의 그 말씀에 청년들은 입을 다물면서도 더구나 걱정이 북받쳐올라 짓은 눈으로 그이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는 더 집찬 만세의 환성을 올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진정하기를 잠시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시였다.

《건설자동무들을 만나보려고 우리가 검사검사 나왔는데 마침 잘 들 왔소. 이 집을 동무들이 조립해왔다는데 먼저 좀 동무들의 의견을 들을것이 있소. 동무들은 이 집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제 일어난 사고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동무들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우리앞이라구 해서 어려워하거나 주저말구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나는 조립해본 주인들의 말을 직접 듣고싶소.》

누구보다먼저 상철이가 수령님의 물으심에 말씀드리고싶었다. 했지만 상철은 입을 벌리려던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자기가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차기가 공정하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아뢰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설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 매부의 설계이기때문에 비호하는것으로 여겨질것이기때문이었다. 더우기 그의 입을 달리게 한것은 자기들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킨 사람들속에 언제 어느사이 수령님께서 여기로 나오시리라는 련락을 받고 왔는지 알수 없는 지배인 립도식이와 당위원장 탁준범의 얼굴이 보인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수령님을 모시고 온 사람들속에는 매부 문화린까지 끼여있었다.

상철이 주저하는 기미를 눈치챈 채만집은 수령님 앞으로 한걸음 나시며 힘차고도 질도있게 보고를 드렸다.

《조립공 채만집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소. 말하오.》



《저는 설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데 의해서 판단해보면 우리 시공자들이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공판의 결고성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이번 사고는 결고성을 증명해주었습니다. 떨어진 총막부재나 그아래층에서 타격받은 총막부재나 다 금간것 하나 없이 성합니다. 다만 가생이가 꺾이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총막부재를 설계의 요구만큼 벽체우에 깊이 물러주지 않은 탓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동무가 보았소?》

《균열상태와 절단상태는 제가 직접 세밀히 정찰해보았습니다. 저는 정찰병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던 수령님께서서는 상철이에게 눈길을 돌리시었다.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청년조립조장 리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설계에 대한 의견은?》

《저는 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설계가 의심스러웠다면 저희들이 시공을 말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무네가 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겠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오.》

거기에 대해서는 윤현이 말씀올리는것이 좋으리라 생각한 상철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윤현은 굵뜨다보니 조립장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계단실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조력공동무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분바에 의하면 우리의 전교대에서 조립했던 벽체 몇이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진것을 느꼈다는것입니다.》

《기울어진것을 느꼈다?... 추를 드리워 수직상태를 검열해보진 못했겠소?》

《네.》

《그러면 그 느낌이 옳다는걸 무엇으로 담보하겠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무가 수직상태의 검열을 주로 말아보는 조력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목록으로도 비교적 정확히 알아맞힌다는게구만. 다른 근거는?》

《그 동무는 사고위험을 발견하구서두 사고를 미연에 막아내지 못할데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구 그 말을 했습니다. 양심적이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띠우시었다.

《양심! 양심을 믿는단말이지. 그게 더 유력한 담보요. 옳소. 무슨 일에서나 사람들의 마음부터 불쭉 알아야 하구 기기에서 출발해야 하오.》

뜻밖에 치하의 말씀을 들은 상천은 송구스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미더웁게 상천이를 잠시 살펴보시던 수령님께서는 희색뵤외루자락을 헤치시고 양복 옷저고리 호주머니에 망손을 넣으시며 다시금 물으시었다.

《한가지 더 물겠소. 벽체조립이 수직상태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데 있는것 같소?》

《나쁜놈의 작간이라고 부니다.》

선우호섭이가 대답을 드렸다.

《조립공들의 실수일수도 있지 않소?》

《그럴수 없습니다. 이 집은 시험건설을 하는 집이기때문에 저희들은 실수한가봐서 몇번씩이나 다시 보구 조립하군했습니다.》

《동무네는 그랬지만 다른 교대에서는 그만큼 책임성이 없이 했을수도 있지 않소?》

《...》

선우호섭은 말문이 막혀 어쩔줄 몰라 하며 만진이와 상천이를 돌아보았다. 대답을 기다리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지극히 당황해하는 선우호섭을 안타까이 지켜보고있던 채만집이 다시금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수령님! 나쁜놈들만이 그렇게 책임성없이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 집을 가지구 처음 시험건설을 하는것이기때문에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치고는 인명문제에 무책임할수 없습니다. 이미 안전하다는게 시험건설루 증명된 집을 짓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그이께서 대견해하시는 미소들 지으시었다.

이번에는 상철이가 다시 윤현이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읊겨드렸다.

《그리고 며칠전<sup>1</sup>에 한 동무가 비오는날 현장 세멘트창고뒤로 돌아간적이 있었는데 금방 파놓은 도랑을 누군지 물이 창고안에 흘러들도록 터쳐놓았더랍니다. 그때는 벌나다고 여기면서도 인차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사고후 꼼꼼히 돌이켜보니 정말 이상스러웠다는것입니다. 다른 한 동무는 인제인가 전기줄이 합선된것을 보고 때놓았는데 자칫 잘못했다면 기중기운전공이 감전되어 생명을 잃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드디어 확신할수 있는 결론을 얻으신듯 천천히 돌아서시여 그이를 모시고 온 일군들에게로 향하시였다.

《보시오, 동무들, 여기 로동자동무들이 우리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 동무들의 눈이 밝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고에 우리의 건설을 지해하고 말아먹으려는 반혁명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의 작간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의식적인 파괴암해행위가 감행되고있습니다. 적들은 이 집을 무너뜨림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경제성있는 조립식주택을 못짓게 하구 2만세대를 못짓게 하자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분야에서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 보자는것입니다. 동무들이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건설은 커다란 정치투쟁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입니다. 계급적원수들은 우리가 건설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 인민들이 모두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이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하리라고 떠벌인 미제침략자들과 남반부의 반동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은 우리가 빨리 일어나고 잘살게 되는것이 배아파서 지따위 놀음을 합니다.…》

상철은 무겁던 머리가 일시에 맑아지고 자기들의 눈이 금시 밝아지는것 같았다. 눈앞을 흐리멍텅하게 하던 장막이 벗겨진듯하였다. 대번에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손에서 총을 놓고 제대되어온 다음에는 잊어버리다싶이했던 원수들과의 투쟁이 여기 평화적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서도 없어진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을 통절하게 느끼였다.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조립장을 이리저리 거닐으시기도 하시고 때로 멈춰서시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현장에서 본바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 동무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문제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설계를 의심할만한 과학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저렇게 얇은 벽체와 이런 다공판으로 (그이께서는 덩고 서신 다공판을 구르시였다.) 집을 지어보지 못해서 위험하다 불안하다 하구 벌벌 떠는것이 무슨 과학적근거들가지고 안된다는 론거를 내놓지 못하고있지 않습니까? 물론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견느라는 숙담처럼 이런 기회에 한번 더 설계를 검토해보는건 좋을것입니다. 그건 해보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신중해서 손해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무너질가봐 뭘 필요는 없습니다. 당에 충성으로 바친 설계가 잘못됐을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도가 저렇게 허공에 내놓여서 위험하다고 시비한다는데 그러면 비행기는 무서워서 어떻게 타겠습니까? 이걸 비겁한 보수주의자들의 잡소리입니다. 소극분자들, 보수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보신주의자들의 잡소리를 들어선 안됩니다. 그런자들이 우리 전진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건설은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심각한 사상투쟁입니다. 건설혁명 은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 다시말해서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조립조원들은 어깨들을 짝짝 펴고 말없이 술렁거렸다. 밝아진 눈들에서 지혜의 불꽃들이 반짝였다.

자욱하던 불안개는 점점 없어졌다. 뿌옇하던 전등불들이 보다 선명한 빛살을 던지고 어슴푸레하던 주변의 건물들과 가로등주들과 나무들이 자기 모습을 차츰 뚜렷이 나타냈다.

일군들에게서 다시금 건설자들에게로 돌아서신 수령님께서서는 전시에 는 전투장이 전방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건설장이 전방이라고 깨우쳐주시면서 온갖 원수들과 방해자들의 저항을 짓부시고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건설전선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안개는 어느덧 씻은듯 말끔히 가셔졌다. 안개속에 가리워졌던 도시의 야경이 선명하게 굽어보였다. 펍 가까이와져보이는 평양역사시계탑의 시계는 벌써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청년건설자들더러 도시의 전경을 굽어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조립장의 가생이로 걸어나오시였다. 곁에 있는 안오월이와 채만집의 이체를 다정히 잡으시고 잠시 그들과 같이 도시를 굽어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채만집에게 물으시였다.

《동무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오?》

《평양이 참 아름답게 건설되어간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동무는?》

그이께서는 오월이쪽에 얼굴을 돌리시였다.

《...》

오월은 생글 웃으며 머리를 숙였다.

그의 눈엔 이슬이 축축했다.

《어디 좀 말해보오. 부끄러워말구.》

앞가슴에 두손을 뭉그러치고 주무르던 오월은 슬며시 팔을 내리고 주저하며 말씀드렸다.

《저는 온 평양사람들이 지금 자고있는게 섭섭했습니다.》

《그건 어째서지?》

《...그건...온 평양사람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 행복한 저를, 원수님의 품속에 안긴 저를 봐주었으면 싶습니다.》

다시금 오월은 부끄러움에 못이겨 머리를 숙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버이다운 너그러운 미소를 띠우시고 오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다.

《이렇게 큰 처녀가 어린애 한가지구만! 동무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곁에 있던 채만집이 오월이를 대신하여 기종기운전공 안오월이라고 대답해드렸다.

《이렇게 나긋나긋한 처녀가 건설장의 거물을 다룬다? 대단한 일이요. 오월동무, 동무는 집이 어디 있소? 지금 어떤 집에서 살지?》

여전히 전쟁때의 토굴에서 살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불빛 밝은 도시를 굽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평양이 아름답게 건설돼간다는 정찰병동무 말은 옳소. 그러나 보시오, 아직 우리 평양에는 좋은 집이 많지 못하오. 이 오월이처럼

토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소, 불빛 없는 어두운 폐허들과 반토굴들, 립시주택들이 더 많다는걸 동무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하오. 내 눈에는 언제나 지어놓은 좋은 아파트들보다 반토굴집들과 립시주택들이 먼저 보이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어느덧 숙연해진 청년건설자들은 묵묵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상철이와 수진이도, 오월이와 만집이도, 호섭이와 기동이도 모두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반토굴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자주 잊어버리곤하였던 자신들에 대하여 생각했다.

수령님께서는 명상에 잠기시여 한참동안 바라보시다가 조립장복판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물론 반토굴에서 벗어나지 못한건 미국놈들때문이지만...》

그이께서는 상철이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금 말씀하셨다.

《옛날부터 우리 인민은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소. 달에 대한 민요에서도 불리우는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어쩌나 못살았던지 초가삼간 지어놓고 사는것을 가장 큰 숙원으로 삼았소. 주택에 대한 최상의 숙원이 고작 초가삼간이었소.》

어인중 청년건설자들은 이 밤에 떠있는줄도 몰랐던 달을 쳐다보았다. 한쪽이 약간 이지러진 달이었다. 그래도 선조들이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놓고싶었다는 계수나무 정수리는 남아있었다.

《그런 집이나마 몽상한건 좀 낫다고 할수 있소. 동무들가운데도 토성랑에서 자란 동무가 있겠는지 모르지만 토성랑사람들은 그런 집조차 꿈꾸지 못했소. 매해 닥치는 홍수때마다 집 갈지도 못한 움막집마저 잃곤했던 토성랑아이들은 참말로 류다른 집을 공상했소...》

상철은 야릇한 흥분에 가슴을 떨면서 추억에 잠기신 수령님을 우러러 지켜보았다. 흘러간 토성랑의 어린시절을 련상시키는 말씀을 꺼내시는것이다. 어느결에 상철이결에 와섰는지 오월은 토성랑이야기가 나오자 부지중 상철이의 팔을 꼭 잡았다.

《...개수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우리가 보통강일대를 몇번 돌아본적이 있는데 어느 하루 나는 토성쪽우에서 토성랑소년들이 앉아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있는것을 보았소. 나는 그 애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구

술그머니 뒤로 가서 보았는데 무슨 그림이였는지 알겠소? 커다란 배를 그리구 그 배우에 집을 앉힌 그린 그림이였소. 기막힌 일이지! 이 넓은 평양에 한칸짜리 오막살이를 안심하고 지을데가 없어서 배우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다니...그때 그 그림을 보던 일이 늘 잊혀지지 않소.》

먼 하늘중천에서 십광이 번쩍이는것 같더니 긴 꼬리를 늘어 버럭 찌가 날아 떨어졌다.

상철은 수령님을 우러른채 눈물을 머금었다.

열두해전 어느 봄날, 기름때 묻은 옷에서 고무탄내를 풍기면서 트성투우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공상을 나누던 맨발바람의 두 소년중의 한 소년은 꾀술꾀술한 더벅머리였다. 지금 수령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서있는 청년조립조장 리상철에게서 열두해전의 인상을 간직하고 있는것은 거의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어디에도 목이 가늘고 팔이 새다리갈던 그때의 소년로동자다운데는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였건만 수령님께서는, 그이를 처음 만나보은 일만 없었더면 요쟁이로 그림을 그린 자기들도 잊어버린지 아득했을 어린 꿈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속에 소중한 간직해두고 계시는것이다!

(아, 수령님, 이찌하시여 나무요쟁이로 땅바닥에 불똥없이 그려논 저희들의 그 그림을 상기도 잊지 않으셨나이까?)

상철이의 눈에 흥건히 고인 눈물은 방울방울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굴을 가리운 두손바닥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는 오월은 마음속으로 오빠를 불렀다.

(오빠, 오빠는 들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빠네가, 그랬던 그 그림이야기를 하시는것을!)

살살한 기운이 가지지 않은 강바람이 불어왔다. 길게 드리워져있는 기증기의 쇠바줄이 서서히 흔들리고 탑싹대기에 꽂혀있는 기발이 잦은가락으로 너털거렸다.

《...집이 없어 그렇게 고생하구 그렇게 눈물겨운 꿈을 꾸것은 토성랑아이들이나 보통강사람들만이 아니요. 실로 지난날 우리 인민은 수천년동안 암흑속에 살아오면서 온전한 집 한채 못가지고 살아왔소. 그런 집마저 전쟁 3년동안에 다 마사지구... 이런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현대적인 주택들을 지어주어 다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얼

마나 좋겠소?》

청년조립공들은 가슴에 젖어드는 수령님의 말씀에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 기울였다.

《우리는 많은 집을 빨리 짓자고 조립식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은을 채 내지 못하고있소. 지금처럼 굼뜨게 지어서는 올해에 2만세대를 짓지 못하오. 집을 적게, 뜨게 지으면 그만큼 인민들이 땅굴집에서 더 오래 지내야 하오. 오월이도 더 있어야 하구 또 다른 사람들도 더 오래 있어야 하오. 우리는 이렇게 하는걸 참을수 없소. 나는 이 오월이랑 땅굴집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지내는것을 바라지 않소! 우리는 남들처럼 흥얼흥얼하면서 집을 지을수 없소.》

어느덧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그들앞을 퉁퉁히 기니시며 흥분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남들보다 뒤떨어진 우리가 남들도 하지 못할 방대한 건설을 단꺼번에 빨리 할수 있겠는가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우리는 남들보다 뒤떨어지구 남보다 못살았기때문에 남들처럼 퉁퉁히 할수 없소. 그렇게 해서는 언제 가나 남들보다 뒤떨어지오. 우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걷고 남들이 하루에 집 한채를 지을 때 열채 백채를 지어야 하오. 우리는 남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수 없소. 남들이 열시간 하는 일을 우리는 한시간, 반시간에 해야 하오. 다른 나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되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계산해야 하오!》

평양역사의 탐시계는 새날의 한시를 가리켰다. 왜 그런지 그들 청년건설자들의 귀에는 탐시계의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아무런 약속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 순간 한결같이 은근한 불빛속에 커다란 바늘들이 시간을 알려주고있는 탐시계의 문자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그 어떤 열정이 한결 밝아지고 한결 커진듯한 그 눈들마다에서 불꽃으로 되어 튀어나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상철이와 그의 조원들의 이글이글 타는 얼굴들을 믿음직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는 이후 지난해초부터 우리 나라의 모든 경제부문에서는 일대양양이 일어나기 시작했소. 우



리 사람들속에서는 일본새가 달라졌소. 오늘이 한시간은 지난날의 몇 세시간 맞잡이로 되고있소. 지금 다른 산업부문들에서는 시간을 앞당 기구 세월을 주름잡으며 대고조를 일으키고있소. 10월전원회의에서 전면적인 조립식건설에로 넘어갈데 대하여 강조한 다음 건설부문에서도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소. 우리는 건설에서도 다른 부문에서처럼 대고조를 일으키자는것이요. 건설부문에서 혁명이 일어나자면 무엇보다 먼저 평양건설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하구 온 나라 건설자들이 대고조를 일으키자면 먼저 수도건설자들이 천리마를 타야 하오. 그래서 나는 동무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속도를 창조할것을 호소하고싶소. 건설에 우리 나라의 말은 날개가 달려 하루에 천리씩 날아갔다고하는데 동무들이 그런 말을 타고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해보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없겠소. 조장동무?»

기대에 넘치신 수령님의 눈길이 상철이를 지켜보셨다.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도록 피가 끓어올랐던 상철은 그 순간 몸을 바로잡으며 힘차게 대답을 올리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런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도 모르게 심장속으로부터 뛰어나왔다. 집도 없어 보통강다리밑에서 태어난 자기에게, 토성랑의 움막속에서 자라난 자기에게, 떠다니는 배집마져 몽상으로만 그려보았던 자기들에게, 아직 전쟁때 반토굴집에서 벗어어나지 못한 아이들에게, 수천년동안 조상대대로 오막살이에서 살아오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집들을 지어주시여 남들보다 지리도 못살았던 우리 인민을 남들보다 앞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력을 덜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뻗어올린 말이였다. 그 언제나 자기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은덕에 기여이 보답하리라는 충성의 열정만이 그 말을 할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 넘터마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의 구슬을 방울방울 빛내며 그는 다시금 아뢰었다.

수령님께서는 대견하신 웃음을 만면에 지으시며 상철의 어깨를 짚으시였다.

《교합소, 난 등무들을 믿겠소. 2만세대를 지어놓고 등무들과 다시 만남시다!》

그 순간 가슴들을 짝 피고 차렷자세를 취한 청년건설자들의 입에서 일제히 약속이나 한듯 기운찬 말이 울려나왔다.

《수령님을 위하여 복무함!》

제대군인들이 적지 않은 청년조직조원들에게서 이런 군대식답게 보고가 올린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령님을 위하여 복무함!》

높고낮은 건물들에 메아리치면서 그 힘찬 소리는 깊이 잠든 수도의 거리거리에, 달 밝고 별 밝은 수도의 봄하늘에 흘러가고 날아갔다. 그리고 뒤이어 오랜 만세의 환성이.

그 누가 지시한것도 아니었지만 약속이나 한것처럼 방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르시여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조직장으로 다시 올라온 청년조직조원들은 그이를 만나뵈은 감격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그냥 진정하지들 못했다. 선봉과도 같은 감격과 기쁨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있는 동안은 술렁대기만 했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불현듯 차례졌던 이 밤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의 의미를 음미해보며 명상에 잠길만한 사색적인 시각이 다닥쳤다. 자기들의 생애에 있어 두번다시 바라기 어려운 가장 경사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회를 방금 체험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찌 깊어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청년조직조원들은 서로 상대방의 고결한 생각들을 깨뜨릴세라 지어하듯 바스락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저마음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생각들이 점차 한곳으로 쏠려나갔다.

한사람, 또 한사람...조원들은 조장인 상철이를 쳐다보았다. 상철은 자기에게로 향해지는 그 명상적인 표정들, 그 이글이글한 눈들에서 그들이 자기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지금의 모든 조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에 맞는 그 어떤것이 있기를 기대하는것 같았다.

상철이자신도 그냥 이때로 혼어져 일할수만 없다는것을 느꼈다. 돌격나팔수라면 돌격나팔이라도 붙였으면싶었다.

조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휘돌아본 상철은 지도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동무들!》

엄숙하게 조용히 울리는 그의 다정하고 친근한 부름을 듣자 머리를 들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있던 조원들마저 그에게 시선을 모았다.

《방금전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런게도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간곡한 교시를 받았습니다. 이 위대하고 감격적인 시각에 저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할데 대한 충성의 결의모임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용수철에서 튀어나듯 흥기동이 벌떡 일어났다. 금시 불같은 결의의 말들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미처 격발해놓지 못했던 무기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쏟뜨릴 말머리를 찾지 못한 흥기동은 두번씩이나 말하려고 큰숨을 들이그었다가 입을 열지 못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썩썩 문댔다. 상천이가 거들어주었다.

《너무 흥분하지 말구. 침착하게...》

입술을 감뻐며 잠시 묵묵히 서있던 흥기동은 슬그머니 모자를 벗고 그만 머리를 숙였다. 벌에 타지 않은 애티나는 이마우에 아직도 중학생머리같은 머리칼들이 답숙 드리웠다. 그는 두손으로 모자를 주무르며 죄지은 학생마냥 그냥 머리를 떨어뜨리고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술을 앙다물고 머리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의 두눈에 맑은 눈물이 피어 피어있는것을 보았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반토굴집에서 사는데 대해서, 우리 조선사람들이 아직까지 다 좋은 집을 쓰구 살지 못하는데 대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렇게도 가슴아프게 여기시는줄을... 좋은 집을 많이 짓지 못하는데 대해서 그토록 안타까와하시는줄을... 그런데 저는 얼마나 천없이 지냈겠습니까? 재뭇대루 돌아다니구 빈둥거리구... 저는 나라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나라사정이 어떤지 그런것은 한번도 생각지 못하구 그저 하루하루 값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는 눈을 습뻐였다. 그러자 커다란 눈물방울이 눈굽을 넘어 볼을 타고 내렸다.

《아까 저는 원수님께서 저의 이 전달뱅이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

면서 <수고하오.>라고 하실 때 정말 부끄럽구 죄송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나라를 위해 대체 무슨 수고를 한게 있습니까? 제 주재에 어찌 감히 그런 치하를 받는단말입니까?...>

기동은 모자를 들어 눈물을 흘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2만세대를 다 건설해놓고 다시 만나자고 하시었습니다. 2만세대건설에서 제가 이제부터라도 한몫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수령님을 다시 뵈올 자격이 없는놈입니다. 동지들, 어느 누구보다 젊은 저를 가장 어려운 모퉁이에 항상 세워주시오. 저와 같은 나이에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전사들처럼 아버지수령님께 충성 다바쳐 싸우겠습니다!》

두번째로 일어난 선우호섭은 커다란 손으로 자기의 가슴부터 짚으며 말을 시작하였다.

《나의 길의는 이미 이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화선의 탄약상자우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을 쓰고 수표하던 때와 같이 엄숙히 맹세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장에 나오시여 우리들에게 추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기어이 관철하겠다는것을! 나는 우리 모두가 유능한 조립명수로 돼서 평양건설의 최선두에서 나갈걸 호소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집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우에 쓰여진 충성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하자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은 남들보다 못살아왔기때문에 남들이 한걸음 길을 때 열걸음 길고 열걸음 길을 때 백걸음 걸어서 따라앞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소.》

하고 이번에는 채만집이 토론했다.

《동무들! 곰곰히 생각해보잔말요. 우리가 정말 왜 다른 나라사람들보다 뒤떨어지고 구차하게 업신받으며 살아야 한단말이요? 가만 생각해보면 분하단말이요. 우리 조선사람들이 못한게 뭐요? 우리 조선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지 않소? 우리 조선사람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적이다. 세계최강이다 하구 자랑해오던 미국놈들을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소? 어째서 우리 조선사람들이 남보다 못하게 살구 가난한 나라로 돼야 하겠소? 긍지높은 우리 조선사람들이 이것을 참을수 있소?》

동무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시대에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장 발전되구 힘있구 잘사는 나라로 만들구 세상에 영웅조선을 빛내이기 위해서 천리마를 타구 달려나갑시다. 나는 달리겠소!》

《그렇소! 나도 천리마를 타고 달리겠소!》

불끈 들어진 주먹을 높이 들고 이렇게 열렬한 한마디의 말로 자기의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는 청년도 있었다.

오월이는 조용히 일어났다.

《오늘밤의 제 심정을 지는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밤처럼 행복스럽고 감격스러웠던 때는 한번도 없었어요. 오늘밤처럼 가책되고 부끄러웠던 때도 없었어요. 만일 전사한 저의 오빠가 저와 함께 여기 있다면...》

오월은 말을 끊었다. 그윽한 그의 눈에 눈물이 웅달샘같이 가득 퍼였다. 정숙한 가운데 누군가 헛기침을 짓었다. 수진이었다. 그도 지금 오월의 말을 듣다가 눈물이 나오자고 해서 그 헛기침으로 솟아 나오는 눈물을 억제해보는 것이다.

잠시후 마음을 다잡은 오월이의 맑은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울렸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는 전사한 저의 오빠들 대신해서 건설장에 왔습니다. 그랬지만 저는 오빠의 념원에 맞게 아버지원수님께 충직한 건설자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 아버지원수님께서 다른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다 천리마를 댔는데 건설부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부문 사람들은 모두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저희들 건설부문사람들만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는게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는 우리 건설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져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할뿐 아니라 영예로운 수도건설자인만큼 응당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부 앞장서구 본보기가 돼야 해요. 우리모두 천리마를 타구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자요. 저는 전사한 오빠의 굿까지 합쳐 아버지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모든걸 다 바치겠어요.》

런 이어 일어난 청년들은 불같은 말들을 토했다. 감사의 정을 품

고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며 더욱 고무를 받고 생각이 깊어지고  
 신심이 생긴 상철은 다시금 일어났다.

《동무들!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지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만 말하  
 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각해야 하겠다는겁니다. 우리들 매 사람이  
 다 자기의 어깨에 조국의 운명을 떠메고있다는것을 자각해야 하겠습  
 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며 우리 사회주의조국  
 의 번영을 위해 살고 일해야 하리라는 큰 목적을 지닌 큰 사람이 돼  
 야 할것입니다. 전쟁시기 우리 영웅전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조  
 국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존망이 자신이 어떻게 싸우  
 는가에 달렸다는걸 자각하고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들이 얼마  
 나 중요한 조국의 운명을 맡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는가 하는때 따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흥하는가 그냥 남들  
 보다 뒤떨어져있게 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선이 남들을 따라 앞서나가는가 마는가 하는것  
 은 홍동무에게도, 채동무에게도, 박동무에게도, 저에게도... 모든 사  
 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밤 바로 이것을 우  
 리에게 일깨워주셨으며 우리가 이러한 조국의 운명의 주인다운 자각  
 을 가지고 분발하여 싸워나아갈것을 가르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구 우리모두 평양건설의 선구자  
 로 됩시다! 저는 우리모두가 2만세대의 주택건설의 봉우리에 최후 승  
 리의 기를 휘날릴 때까지 줄기찬 전투를 벌려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우  
 선 우리가 처음으로 시험건설을 하는 이 새로운 조립식주택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5.1절전에 완공해서 2만세대건설의 돌파구를 뚫기 위  
 해 총돌격전을 벌릴것을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에 청년건설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호응하였다.

△어휘 및 표현

- 휴단(건설) 건 계단의 도중에 있는 평탄한 장소.
- 거물(물)을 다룬다. 기중기 (큰 물건)을 다룬다.
- 삼기도 (방언) 아직도.
- 은총을 베풀다. 높은 사람이 베푸는 특별한 사랑.
- 흘겁히 고인 눈물. 눈물이 펴 정도로 많다.
- 두더지 신세. (취한 형편이 말이 아님)을 비겨 이르는말.
- 사기충천하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듯이 아주 높다.
- 두릿두릿하다. 이리저리 휘둘러보다.
- 바라마지않다. 진정으로 몹시 바라다.
- 층막부재(건설)조립식건설에서 층과 층사이를 가로질러 놓는 부재.
- 어언중. 알지 못 하는 사이.
- 들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비록 밀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인의 경  
우를 생각하여 마음놓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돌려 해야 실패가 없다》는 뜻.
- 자욱하던 물안개. 안개가 펴 질게 많이 끼다.
- 뭉그러쥐고 주무르다. 물건같은것을 손에 움켜쥐고 자꾸만지다.
- 이슬이 축축하다. 작은 물방울이 있어 촉 촉하다.
- 야릇한 흥분. 무엇이래 표현할수 없는 모하고 이상한 감경.
- 지지리못살다. 아주 몹시 못살다.
- 은은한 종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힘지고 크다.

•기록영화문학•

## 백두산

흰눈을 머리에 이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의 숭엄한 모습이 안겨온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백두산일대의 대자연이 끝없이 펼쳐진다.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헤치고 숭엄한 백두의 련봉들이 자기의 웅자를 드러낸다.

광활한 지구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조선의 기상 만리창공에 자랑 떨치는가 백두산! 백두산!

이 나라 유구한 력사와 인민의 슬기를 간직하고 숭엄하게 솟아오른 조선의 산—백두산!

검푸른 천지에 뿌리내리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장군봉이 화면 가득히 안겨온다.

장엄한 매부리에 억년 드물지 않는 영광의 혁명전통을 간직하고 오늘은 우리에게 세기의 혁명 밝히나니 아! 자랑스러워라 혁명의 성산—백두산!

신비롭게 피여오른 구름의 바다 저멀리로는 연연히 잇닿은 조국의 산발들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다.

아득한 예로부터 이 나라 풍상고초 굽어보며 력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슬픔도 기쁨도 같이하였으니 백두산, 그대의 품에서 조선의 력사 시작되고 백두산, 그대의 지맥에서 강산은 시작되었어라.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백두산의 폭포수와 굽이쳐 흐르는 두만강의 첫물줄기가 이 땅을 적시며 도도히 흐른다.

백두천지의 맑은 물 용암대지의 지심을 뚫고 샘솟았으니 장쾌하여라 두만강의 첫흐름 백두산의 폭포수.

오랜 세월 천지의 호심에 잠겨 무거운 침묵속에 있던 물줄기, 오



높은 천지의 기상, 백두의 정기를 노래하며 폭포친다.

천지의 물줄기 백두의 기슭을 씻어 1300리로 잇닿았으니 백두성산을 노래하며 굽이치라 물결치라 두만강의 첫흐름이어!

지심을 뚫고 솟아오른 천지의 맑은 물은 백두산 중턱에서 폭포쳐 내리는 압록강의 첫흐름을 이루며 굽이쳐 흐른다.

조종의 산—백두산과 더불어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력사 빛내이더니 오늘은 그 자랑을 담아시고 압록강의 시원을 이룬 천지의 물줄기.

조국산천에 생명을 주는 젖줄기런가 이름없는 들꽃에도 청신한 정기를 뿌리며 쉬임없이 폭포치는 물기둥.

압록강의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단풍으로 물든 계곡이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하며 끝없이 잇닿아 있다.

삼천리금수강산에 펼쳐진 천하의 명승, 질승경계도 혁명의 성지 여기 백두산기슭에서 시작된다.

오랜 세월 눈비에 씻고 삭풍에 다듬으며 소문없이 간직한 명승지물들을 한껏 펼쳐보이는 압록강계곡.

압록강계곡에 펼쳐지는 기암절벽들과 바위를 씻어내리는 구슬폭포의 정가로운 물소리가 백두성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구어준다.

계곡에 피어나는 풍치 하도 아름다와 저 남방사막의 락타도 여기에 찾아와서 화석으로 굳었다니 정녕 이름 높은 지 금강의 만물상도 여기 백두성지에 그 뿌리를 둔것이 아니겠는가.

황홀한 자연미에 놀래여 하늘의 선녀들도 선뜻 내리지 못했다는 여기 압록강계곡의 구슬폭포도 오늘은 인민의 새세상에 빛을 안고 비껴간다.

계곡에 넘치는 정기 맑은 물에 비끼고 초목들은 이날 위해 아껴 두었던 향기를 날리는가.

굽이치는 압록강의 물결과 강기슭에 펼쳐지는 5호물동혁명사적지가 화면에 안겨오는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뜻을 이야기하듯 붉게붉게 피어난 진달래가 산허리를 덮으며 꽃바다를 이룬다.

백두천지의 물 흘러흐르는 력사의 장강—압록강.

압록강 기슭에 숭엄하게 안겨오는 혁명사적지.

숭엄한 혁명의 폭풍 헤쳐오신 항일의 진실적영웅 김일성장군님  
조국진군의 거룩한 자욱을 찍으신 유시깊은 5호물동.

력사의 그날, 장군님 우리러 감격에 흐느꼈던 5호물동진달래, 조  
선의 꽃, 진달래!

흰눈을 머리에 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숭엄한 자태가 비  
끼 아름다운 삼지연에 실안개가 감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그날에 남기신 불멸의 이야  
기를 진하는 못가에 세워진 사적비가 숭엄하게 안겨온다.

백두산록 그 어디에나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투쟁의 자취 력력하  
거나 조국의 호수—삼지연도 오늘은 백두의 령장 장군님을 모셨던 그  
력사의 추억을 안고 설레인다.

뜻깊은 사적을 길이 전해주는 못가의 못나무와 안개 피어오르는  
삼지연, 못가에서 휴양생들이 진달래꽃속을 헤치며 저울같이 맑은 물  
에 행복의 웃음꽃을 피운다.

젊으신 장군님을 뵈옵던 그날의 감격을 년륜으로 새기며 세월의  
눈비속에 곳곳이 자라온 삼지연의 못나무.

초연에 그슬린 투사들의 옷자락 스치던 못가에 오늘은 락원의 노  
래 흐르고 행복의 웃음꽃 피어간다..

한폭의 그림인양 아름답게 펼쳐지는 삼지연의 전경이 한눈에 안  
겨온다.

조국의 호수—삼지연은 정녕 간고한 싸움의 날에 백두의 선령을  
넘고 헤쳐오신 장군님의 영상 어리었던 그 자랑이 있고 영광스러운  
당을 세상에 받들어올린 그 영예가 있어 그리도 더 영채롭게 빛을 뿌  
리는 것이여라.

백두산록에 펼쳐지는 가없는 밀림의 바다가 끝없이 설레인다.

조국의 산—백두산을 둘러싸고 굽이쳐 흘러간 항일의 빛나는 혁  
명력사를 노래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밀림의 바다.

갖가지 새들이 지저귀는 울창한 밀림속에는 백두산의 호랑이와

꿈이 숲을 헤치며 지나간다.

태고연한 정적이 깃든 백두의 밀림속에서는 한편 갖가지 자연동물들의 생활도 펼쳐진다.

밀림속의 장수라 뽑내는 꿈을 찾아 나무숲을 헤치는듯 뒤를 밟고 나타나는 백두산의 호랑이.

사슴이 떼를 지어 줄기차게 달려가는 백두산록에는 흰구름인양 양 떼들도 끝없이 흐르고있다.

범의 울음소리에 놀랐는가 숲속깊이 도망치가는 사슴의 떼들.

산천이 좋아 모여왔는가 세월이 좋아 구름처럼 피어났는가 양 떼들도 떼지어 백두산록에 흐른다.

달간 열매가 주렁진 백두산의 마가목, 마가목 숲을 헤치며 처녀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열매를 따.

항일투사들의 망식이 되어주고 신념과 투지를 더해주던 백두산의 마가목.

나라 없던 그날을 옛말로 이야기하며 그윽한 향기속에 열매를 따며 처녀들 붉은 마음 간직한다.

운해속에 잠긴 밀림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운창한 수립속을 헤치면서 감사대원들의 대렬이 줄지어 흐른다.

애국의 뜨거운 숨결이 흐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력사가 흐르던 천교의 밀림!

백두밀림은 항일의 그날 투사들에겐 싸움의 길동무였고 삶의 보금자리였으니 온 백두산록 그 어디에나 수없이 깃들여있는 피어린 혁명의 자욱을 더듬으며 사람들 오늘은 쉬임없이 전적지를 찾아온다.

유서깊은 청봉속영지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화면 가득히 안겨온다.

압담했던 민족수난의 그날 항일대전의 위대한 작전을 펼치시며 짓밟혔던 조국에 광복의 봄빛을 안고 오신 전세의 애국가 항일의 령장 김일성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밤을 보내신 유서깊은 사령부의

천막이 감회깊이 안겨온다.

빛을 잃고 해배이던 조선을 한품에 안으시고 항일의 령장  
김일성장군님 조국진군의 첫밤을 보내시던 유서깊은 력사의 지점—조  
선혁명의 사령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이  
야로새기지있는 구호목들이 련이어 안겨온다.

폭풍지는 항일혁명의 그 간고한 싸움의 날에도 백두밀림에는 생  
활이 있고 투쟁이 있고 노래가 있었으니 력사의 증견자인양 가슴뜨겁  
게 안겨오는 불면의 구호목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쓰신 구호목  
들이 잊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있다.

장군님 슬하에서 글을 배우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친 항일의 녀투  
사 김정숙어머님, 피끓는 신념의 호소를 담아 한자한자 이 글발을 새  
기가셨을 때 어머니조국의 품에서는 정녕 소생의 봄빛 뜨겁게 흘렀  
어라.

붉은 기발을 높이 추겨든 답사대원들이 백두산의 령길을 톺아오  
른다.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투쟁자취와 밀림속에 펼쳐지는 가지가지의  
화폭들을 뒤에 남기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답사의 길,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한번 올라봤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는 영광  
의 길, 백두산의 령길.

장군봉에 오른 답사대원들이 감격에 목메여 부르는 만세의 환호  
성이 하늘높이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북받치는 감격을 안고 백두령봉에 오른다.

장엄하고 신비롭고 숭엄한 천지의 푸른 물결우에 안개가 피여오  
르고 깎아지른듯한 백두산 매부리에 안개가 감돌아 흐른다.

오 백두산! 백두산!

우리 당의 전통이 뿌리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

## 백두산

천만거리의 념원이 뭉쳐솟은 이 나라 강산의 절정인가, 억만의  
간 념 주체의 금자탑이 되어 솟아오른 우주의 절정인가.

오, 백두산, 백두산!

신비로운 안개를 휘감고 거연히 솟은 장군봉의 숭엄한 자태가 안  
겨온다.

백두의 기상 지나시고 미일 두 제국주의 한칼에 베어넘기신 전설  
적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천제적 지략 만천하에 자랑 떨치는가, 신비로  
운 백두의 숨길 이어!

푹푹치는 투쟁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보위하며 결사의 헌전을  
벌려간 투사들의 그 뜨거운 숨길 안개되어 감도는가.

오, 숭엄하여라 장군봉, 장군봉!

장군봉에 올라 천태만변하는 백두산의 자연풍치를 바라보면서 달  
사대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인다.

천태만변하고 안개도 오르기 주지하는 이 절정에서 사람들은 하  
루 한곳에서 여러가지 풍경을 보게 된다.

비류봉과 곰바위 등 절묘한 풍치를 자랑하는 기암괴석들이 려이  
어 화면에 펼쳐진다.

천지호반에 우뚝 솟아 부르짖어 화답할듯 안겨오는 백두산의 비  
류봉.

천지를 지켜선듯 하늘중천에 버티고 선 곰바위도 사람들의 눈길  
을 뭉는다.

동방의 지축을 들었다놓으며 천길만길 불을 뿜던 화산분출의 마  
지막 불길이 바위로 굳어졌는가.

천리수해가 끝없이 설레이는데 저멀리로 백두산의 숭엄한 설경이  
바라보인다.

아득한 신생대의 그날에 솟아올라 천만년 헤마다 천 이르게 흰눈  
을 머리에 이는 전설의 산—백두산.

여름의 백두산이 이 나라 인민의 슬기를 키우는 희망의 성산이라  
면 겨울의 백두산은 불굴의 기상, 백두의 혁명정신 키우는 신념의

산, 의지의 성산.

눈보라 시나운 령길을 헤치며 답사대원들이 백두산으로 오른다.

하기에 사람들은 눈덮인 이 계절에도 모진 바람 눈보라 뚝고 넘어며 답승의 길 골함없이 헤쳐간다.

눈보라 만리 조선의 팔찌산들 필승의 신념 안고 헤쳐간 길, 오늘은 불굴의 기상 받아안으며 궁지에 넘치오르는 영광의 길!

모진 추위에 얼어붙은 천지에는 핀눈이 덮였는데 천지기슭에는 천길 지심을 뚫고 온천불이 솟구쳐오른다.

백두의 령봉에 올라 장쾌한 천지의 실경을 굽어보는 사람들, 눈 뛰는 걱정을 금치 못한다.

해발 2,750을 기록하는 이 나라 강산 절정에 펼쳐지는 장엄한 실경이여,

신비롭게 안겨오는 천지기슭의 온천.

한겨울 추위에 4미터 두터이로 인다는 천지에서도 뜨거운 물 솟 없이 용솟음치고있으니 그 옛날의 백두활화산은 여기에 그 마지막 흔적을 둔것이 아니겠는가.

눈덮인 령봉에 솟아있는 백두산의 사적비와 거기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들이 화면 가득히 안겨 온다.

백두산을 누리에 빛나는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세워주신 절세의 애국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한없는 영광이 불멸의 글발로 아로새겨진 백두산의 사적비.

지축을 흔드는듯 백두밀림에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친다.

조종의 산—백두산의 력사에 새기원을 열어주시며 수령님 헤쳐오신 눈보라만리길 못잊어 노래하는가, 백두산의 눈보라, 눈보라!

백두밀영의 사령부귀틀집이 화면에 안겨오는데 창공높이 붉은기가 펄펄 휘날린다.

광막한 백두산야를 무대로 삼으시고 일제의 백만대군을 몰대같이 쓸어놓히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 계시던 백두밀영의 사령부!

사령부의 방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쓰시던 책상과 난로, 주전자 등 사적물들이 숭엄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항일혁명전쟁의 수많은 대소전략이 여기에서 구상되고 구체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도, 조선공산당창건준비도 여기에서 무르익어갔으니 세월이 흐를수록 한없는 감회속에 안겨오는 력사의 귀틀집.

조국광복의 위대한 구상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정중히 모셔진 사진이 화면에 가득히 안겨온다.

암흑에 잠긴 조국땅에 온 조선의 념원 한몸에 안으시고, 광복의 빛발 뿌려가시던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조선의 지도우에 장군님 광복의 불빛 밝히 가실 때 아. 정녕 그 빛발아래 조선의 새날은 밝아오고있었어라.

가없이 펼쳐진 밀림의 바다우에 찬란한 해살이 비친다.

모진 눈서리속에서도 광복의 빛발 우러러 희망과 열정에 불타던 그날의 강산인양 빛을 안고 펼쳐지는 빅두밀림의 설경.

찬바람을 이겨낸 백두산의 만병초가 눈속에서도 얼음속에서도 굳세게 피어난다.

찬바람 눈서리 속에서도 갖은 풍운을 무릅쓰고 억세게 피어난 백두산의 만병초.

엄혹한 세월의 눈비속에서도 일편단심 장군님을 태양으로 우러러 모시고 끝함없이 싸워이긴 이 나라 투사들의 붉은 마음 꽃으로 피어났는가. 빛을 뿌리는 눈속의 꽃들.

온 천지를 붉게 물들이며 백두의장엄한 아침노을이 타오른다.

정녕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추켜드신 광복의 해발이 있어 이 나라 강산에선 봄이 움티오고 새 조선의 려명이 밝아오고있었으니 그날의 력사가 어린 백두산의 노을이여, 혁명의 붉은 노을이여!

조국산천에 타오르던 혁명의 려명인양 백두산의 노을 붉게붉게 강산을 물들인다.

불수룩 숭엄한 백두산의 해돋이가 장엄하게 비껴간다. 백두산에

서 타오른 금빛노을은 온 누리를 밝게 비친다.

5천년 력사의 암흑을 불사르며 솟아오른 백두산의 해돋이, 혁명의 해돋이!

설테이는 천지의 푸른 물길우에 금빛노을이 아롱진다.

단 한줄기의 빛이 그림던 강산에 태양이 솟고 영광스러운 당이 솟아올랐으니 아! 빛나라 금물길, 천지의 물길

밝은 해빛을 받으며 백두산 줄기줄기의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펼쳐진다.

백두령봉에 솟아오른 혁명의 태양이 있어 백두산 그대가 받들어 숭린 이 나라 강산도 세기의 잠을 깨치고 력사의 새시대를 맞아 하였어라.

천지호반에 피여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길에 춤을 추며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을 반기는 만물과 같이 서로 빨리 다루어 피어나고 다투어 향기를 날리는 천지호반의 꽃들.

진정 하늘에 태양이 있어 세상만물이 소생하듯이 은혜로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해발이 있어 설테이는 풀잎도 피는 꽃도 더 영채롭게 빛을 뿌리는 것이여라.

흐르는 천지의 물길, 그 물길우에 천지호반의 기암절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해발 2,200여의 산상의 호수, 천지호반에도 전승경개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 천지의 물길우에 몸을 실고 태고연한 전설의 천지 돌아보자 천지호반을 펼쳐보자!

창공높이 치솟던 활화산의 력사가 그림인양 비껴있다는 용암절벽은 어드메미 우주공간을 날아온 별찌가 천지의 지축을 흔들며 떨어졌다는 전설의 계곡은 어드메랴.

오랜 세월을 두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천지호반의 신비로운 자연풍치가 황홀하게 안겨온다.



## 백두산

금은보화로 가득찬 절묘한 바위기둥을 검푸른 물속에 잠그고 장쾌하게 펼쳐지는 천지호반의 만물상, 천지호반의 총석정.

천만년 세월의 갈피속에 묻혀 그 빛을 모르던 풍치도 정녕 은헤로운 수령님과 영광스리운 당을 맞이한 오늘에야 빛을 안고 노래를 안고 세상에 비껴가나니 노래하자 백두산, 자랑하자 영광의 주체시대!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일대의 대자연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진다.

아 조선의 산 백두산!

우리 당의 전통이 뿌리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

그대의 메부리우에 영광의 주체시대 밝아왔으니 백두의 기상 만리창공에 자랑 떨치며 영원히 솟아있으라, 빛을 뿌리라!

### △어휘 및 표현

- 식품.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 천고의 밀림. 매우 오랜 세월을 걸친 밀림.
- 증견자. (이런 사건이나 사실을)보고 그에 대하여 증명하는 사람.
- 천태만변. 갖가지 모양으로 수없이 변하는것.
- 기암괴석. 모양이 기이하고 괴상하게 생긴 바위와 돌.
- 만별초. 높은 산지대에 사는 사철푸른 떨기지는 나무의 하나.
- 웅자를 드러내다. 웅장한 자태(모양)를 나타내다.
- 관리창공. 아득히 넓고 푸른 하늘.
- 풍상고초. 혁명투쟁이나 생활에서 《모진 고난이나 이겨내기 힘든 괴로움》을 이르는 말.
- 절승경개. 비할바없이 훌륭한 경치.
- 절묘하다. 아주 신기한 정도로 묘하다.

## 최학신의 일가(하편)

최학신이 수용소에서 돌아와 고민하고 있을 때 킹그스터의 방에서는 킹그스터와 한 미국사나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나이는 팔에 종군기자 완장을 둘러쳤다. 그는 말할 때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마치 자기의 모든 관심은《마도로스파이프》에 있다는듯이 그것을 닦고 쏘시고 한다.

그는 뉴욕타임스 특과기자의 명색으로 파견되어온 미중앙정보국 특무 제임스다.

킹그스터는 무엇에 화라도 난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떠들고있고 제임스는 침착히 마치 킹그스터를 어린애 다루듯 하고있다.

제임스 《당신은 모든것을 부인만 하는데?...》

킹그스터 《나는 이 땅우에 오직 미국의 무력이 존재한다는 그 한가지만을 인정한뿐입니다.》

제임스 《그러면 당신은 무엇때문에 중앙정보국의 임무를 받고왔소?》

킹그스터 《그러면 제임스씨도 리차드씨와 동일한 견해입니까?》

제임스 《나는 아직 나대로의 질문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리차드씨와 당신 사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것을 확인했을뿐입니다.》

킹그스터 《리차드씨는 자기들이 지난날 〈한국〉땅에 와서 하여놓은 업적이 파소평가될가봐 겁내고있습니다.》

제임스 《그건 좀 가혹한 말이군요.》

킹그스터 《리차드씨는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 연하지만 그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이 천대받고 가난하던 민족의 가슴속에 공산주의가 어떻게 강한 힘을 가지고 파고들었는지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제임스 《그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지난날 미국이 〈한국〉반도를 놓고 일본과 경쟁을 하다가 패배하게 되자 당시의 위정자들은 표면으로는 일본과 손잡으

면서 뒤로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면 미국은 <한국>사람의 심장을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학교와 교회와 병원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건너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미국의 <심장의 또치까>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지요.》

킹그스터 《최학신이 같은 사람이겠지요.》

제임스 《그러나 과거 미국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백여년간에 하여놓은 일은 결코 미군 한개 군단이나 두개 군단이 퍼를 흘린것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킹그스터 《<한국>에서 백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교사업은 북조선 땅에서 불과 5년동안에 여지없이 공산주의앞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제임스 《그럼 앞으로의 당신의 견해는?》

킹그스터 《<오직 죽여라! 죽여라! <한국>반도우에 단 한명의 <한국>인종도 없어지고 이 22만평방키로메터가 완전히 하나의 무인지대로 되어도 이 땅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이것입니다.》

제임스 《우리는 그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하자는것이지요.》

킹그스터 《어떻든 나의 견해를 중앙정보국에 보고해주십시오.》

제임스 《나는 리차드씨의 견해도 보고할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신에게 명령할수 있는것은...》

킹그스터는 벌떡 일어서며 차벳자세를 한다.

제임스 《본국의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당신은 계속 리차드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것입니다.》

킹그스터 《넛! 그러나 이 뿌리를 틀추어낼 때까지 김기는 계속될것입니다.》

킹그스터는 베라들을 쥐어흔든다.

제임스 유유히 고개를 끄덕인다.

길거리로 경숙이가 결박되어간다.

성희가 모퉁이에 서서 그것을 보고있다.

가까이로 온 경숙이도 성희를 알아본다.

성희는 반갑고 놀라운 얼굴을 하며 경숙에게 다가가며 하나 경숙은 경멸하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성희를 쏘아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리고만다.

광안에서는 영수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칠거리며 걸고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서 발걸음을 떼어놓는다.

성희가 들어오다 그것을 보고 달려가 영수를 부축한다.

성희 《왜 일어나셨어요?》

영수 《걸을수 있는가 시험해봤소. 걸을수 있소.》

영수는 침대에 누으며 이마에 돌은 땀을 문지른다.

성희는 돌아앉아 울고있다. 참으려 할수록 설음이 더욱 북받쳐 울음소리가 커진다.

영수가 의아한 눈으로 성희를 바라보다가 묻는다.

영수 《왜 그러우?...응?》

성희 《...》

영수 《무슨 일이 있었소?》

성희 《경숙이가 거리에서 잡혀갔어요.

경숙이는 나를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마치 변질자를 경멸하듯이...》

성희는 더욱 울음이 북받쳐 말을 채 맺지 못한다.

영수 《그래 그게 분해서 우오? 눈물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요.

동무들은 싸우고 잡혀가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광속에 누워있소. 우리는 조직을 찾아야 하오. 조직을!》

성희는 인차 눈물을 닦으며 《네》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애와도 같다.

지하당아지트에서는 지하당책임자가 빨찌산들에게 과업을 주고 있다.

위원장 《김희권 동무!》

희권 《네》

위원장 《동무는 연회장습격을 지휘하시오.》

희권 《네》

위원장 《그 림을 타서 감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는건 내가 직접 지휘하겠소! 명호동무!》

명 호 《넛》

위원장 《동무는 동무의 아부님과 연락하여 영수동무의 거처를 찾아 내고 구출할 대책을 세우시오.》

명 호 《넛》

위원장 《그럼 동무들! 우리 거처를 강점하고있는 원썬들에게 복수의 죽음을 줍시다! 감금된 동지들을 구원해냅시다.》

《미국환영연회장》에서는 최학신이 방금 연설을 끝마친듯 모두 박수를 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 곁에 리차드가 앉아있고 한편에 킹그스터와 미군장교들이 앉아있다. 성옥은 아버지의 연설에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하고있다.

킹그스터는 성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있다.

외국기자들이 분주히 나든다. 뉴스촬영기가 돌아가는 사르락소리, 사진을 찍는 섬광들.

성옥에게 집중되는 기자들.

제임스 《지는 뉴욕타임스 특파기자 제임스입니다. 온 세계는 공산정권하에서 짓눌리던 절세의 미인에 대해서 큰 주목을 돌릴것입니다.》

성옥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하고 사진렌즈를 피한다.

킹그스터가 취기가득한 눈초리로 성옥을 바라보고있다.

리차드가 킹그스터의 그런 모습을 살피고있다.

성근이가 비출거리며 운식을 데리고간다. 성근이는 펄 취하였다.

성 근 《야 통쾌하다. 오늘은 실컷 마시자. 이 자식아. 네가 내 매부가 될줄이야...넌 수학밖에 모르는게 어떻게 교 양진대기를 녹여 놓았니? 야. 내 누이래서가 아니라 성옥인 참 좋은 애다. 얼 굴은 서울에두 저만한 애는 없구 교양있지, 마음씨 팝지, 효성이 지극하지...》

운 식 《사실 난 행복하다.》

성 근 《행복이라! 행복? 도대체 행복이란게 뭐야?》

가까운 곳에서 달홍이가 성근의 이야기를 듣고있다.

성 근 《넌 아직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구있는지 모른다. 몰라. 하키야 모르는게 낫지.》

또 술을 한고뿌 들이킨다.

성 근 《우리 아버진 또 무슨 연설이야? 순진하지 순진해.》

제임스가 최학신의 입에 록음마이크를 틀이대고있다.

제임스 《지구우에 어디 그린 리상의 왕국이 있습니까?》

학 신 《있습니다. 바로 미합중국이지요.》

제임스 《당신의 그와 같은 신념은 무엇에서부터 생겨난것입니까?》

학 신 《그것이 싹트고 자라기는 내 가슴속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속  
속에 그 씨앗을 직접 심어주신 분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리차드목사입니다.》

제임스 《당신의 목소리는 온 지구우에 퍼질것입니다.》

학 신 《그렇다구 나는 미국의 모든것을 다 지지하는 사람은 아님  
니다.》

제임스 《그렇기때문에 당신의 목소리는 더욱 진실하고 값 높은것입  
니다.》

같은 시각에 집에서는 성희가 숙경의 무릎에 머리를 박고 울고  
있다.

숙경은 가늘게 떨리고있는 딸의 어깨를 내려다보고있다. 그러다  
가 성희의 등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달랜다.

숙 경 《이러지 말아, 성희야 이러지 말아, 이러지 말라는데! 네 맘  
을 이 에미두 안다.》

성희가 버쩍 머리를 들며 눈물 고인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본다.

성 희 《아니예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내가 영수동무때문에만 이러는줄 아세요? 나는 분해요, 이 집  
딸루 태어난게 분해요, 어머니!》

숙경은 말을 못한다.

연회장은 여질히 떠들썩하다.

정권사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선다.

정권사 《자, 만세 삼창을 합시다. 미국만세!》

그와 함께 박격포탄들이 날아든다. 연회장이 삼시에 수라장으로  
된다. 좀 떨어진곳에서 중기, 경기 소리가 들려온다.

연회장에 수류탄이 날아든다.

《빨찌산이다!》

《공산군이다!》

어둠속에서 비명소리가 높아간다. 당황한 최학신, 리차드, 킹그스터, 성근 등등.

언덕으로 달려가는 성희.

총알이 날아온다.

땅에 엎드린다. 총알이 가까운 바위에 맞고 튕겨난다.

잠시후에 다시 일어나 뛴다.

위험을 모르는듯 여기지기 살피며 총란속으로 달리는 성희.

수용소가 습격당한다. 잠금되었던 애국자들이 구출되어 나간다.

그속에 박의사, 경숙, 외삼촌 등의 모습이 보인다.

성희가 윤석재네집으로 뛰어온다.

석재와 명호가 집에서 나온다.

명 호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 공화국만 믿으셔야 해요.》

석 재 《오냐.》

성희가 달려온다.

성 희 《명호동무!》

명 호 《성희동무! 영수동무 못봤소?》

성 희 《우리 집에 있어요. 부상이 심해요. 구원해줘요.》

환영회장, 밝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저마다 자동차를 타고 혹은 뛰어서 내뺄기에 바쁘다.

성옥이가 혼잡속에서 웨치고있다.

성 옥 《여보! 아버지! 오빠!》

킹그스터가 차를 타고 내뺄다가 성옥을 본다. 나꾸채듯 차우에 올라

태우고 사라진다.

킹그스터 《위험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리지요.》

성옥이를 태우고 쫓차는 쓴살같이 내뺄다.

윤식도 성옥을 찾아 헤매고있다.

《성옥이! 성옥이!》

킹그스터가 어떤 방안에 성옥을 안내한다.

킹그스터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 가십시오. 여기는 절대 안전합니

다. 내 이제 커피를 끊이지요.》  
 성욱은 불안스럽게 방안을 살핀다.  
 행랭그리한 방이다.

최학신네 일가가 뜨락에서 수선거리고있다.

숙 경 《아니, 링감은 가까이 있었다면서 몰라요?》

학 신 《...》

윤 식 《암만 잤으니 소리가 들터야지요.》

숙 경 《어이구. 종에 맞은게로구나.》

윤 식 《시체들은 다 찾아봤어요.》

무엇인가 생각하던 윤식은 갑자기 돌아서 나가려 한다.

숙 경 《어디루 가나?》

윤 식 《킹그스터한테 가보겠어요.》

성 근 《킹그스터?》

윤 식 《응, 그자가 성욱이를 치근치근 바라보구 있냈어.》

나가려고 한다.

성 근 《윤식이! 내 알아볼테니 가만 있어.》

학 신 《왜 이리들 소란하냐? 이제 오겠지, 아무렴 이 거리에서 최학신의 딸에게 폭행을 가할놈이 있을라구.》

그때 어떤 방에서는 킹그스터가 치근치근, 성욱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성 욱 《전 당신이 이렇게 비렬하게 행동할줄은 몰랐어요. 빨리 문을 열어줘요.》

킹그스터는 문에 등을 지고 막아서서 성욱을 징그럽게 노려보고 있다.

성 욱 《비끼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킹그스터 《저는 북한에 와서 성욱씨 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될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춤이라도 추실가요?》 킹그스터는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성욱에게 다가온다.

성욱은 몸을 피하며 소리친다.

성 욱 《문을 여세요.》

킹그스터는 대답않고 육박해와서 성욱을 꺼안으려한다.



성옥은 킹그스터의 뺨을 후려친다.

킹그스터는 폭받되려는 분기를 참으며 성옥을 노려본다.

성 옥 《나는 당신이 미국의 신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것이예요? 빨리 문을 열어요. 더러운 자식!》

도저히 성옥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킹그스터는 령정을 회복하며 침착하게 말한다.

킹그스터 《실례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문을 연다.

킹그스터 《자, 어서 돌아가십시오.》

성옥은 나간다.

킹그스터는 천천히 권총을 뽑아든다.

성옥을 쏜다.

성옥은 꼬꾸라진다.

킹그스터는 권총을 책상우에 내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듯 위스키를 한잔 따라 마신다.

쓰러졌던 성옥이가 머리를 들어 멀리 어딘가 허공을 노려본다. 그러나 다시 폭 꼬꾸라진다.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기에는 저 지로서는 어려울 정도의 현대교육을 받았습시다. 미국이 아니면 행복하게 살수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너무도 정치에 무관심했고 가정적이었으며 착한 안해였고 딸이었습시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만을 믿었고 아버지를 따라 후퇴도 안했으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꽃다발을 들고 미군놈환영회장애 나갔됐습시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로의 길이였을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옥이가 죽음을 앞두고 만신의 힘을 다해 머리를 들어 킹그스터의 방쪽을 노려보다가 저주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성 옥 《이 미국의 야만들아!》

다시 머리를 폭 박으며 숨이 진다.

킹그스터가 리차드앞에 차렷자세를 하고 서있다.

리차드는 의자에 앉아있다. 그가 앉은 의자는 등받이가 머리보다 더 우로 올라가게 높다랗고 꺼먼 가죽을 씌웠다.

리차드는 두팔을 팔걸이우에 올려놓고 마치 조각과 같이 고개하

나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바른손 손가락만이 툭툭히 팔걸이의 가죽을 두드리고있다.

리차드 《하필 왜 그 녀자를 다친단 말이요?》

킹그스티 《아닙니다. 저는...》

리차드 《킹'그스티중위!》

킹그스티 《...》

리차드 《그 녀자를 보는 첫순간부터 벌써 당신의 눈초리는 곁에서도 알아차릴만큼 평범치 않았소.》

킹그스티 《사실은 너무두 매혹돼서...》

리차드 《이 사실이 최학신에게 알려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실을 가져올지 당신은 생각해보지 못했단말이요?》

킹그스티 《솔직히 말해서 리성을 잃을만큼...》

리차드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계집들을 죽이건 살리건 그런 일은 관계하려고도 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번만은 문제가 다르오. 그 녀자는 지금 어디있소?》

킹그스티 《자살했습니다.》

리차드 《...》

그의 눈이 처음으로 번뜩하며 킹그스티를 본다. 그러나 앉은 그대로 손가락만 툭툭 친다.

리차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때가 있을겁니다.》

킹그스티 《용서해주십시오. 각하!》

리차드 《사건만 무사히 수습된다면 나도 더 개의하려 하지 않소. 시체는 어떻게 했소?》

킹그스티 《...》

리차드는 눈을 지그시 감는다.

손가락을 다시 툭툭 친다.

한참 그러다 눈을 감은채 조용히 말한다.

리차드 《오늘밤 바다에 처넣으시오.

누구에게도 시키지 말고 직접 당신이 차에 싣고 나가서...》

킹그스티 《알겠습니다. 각하.》

킹그스티의 방에서는 성근이가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다.

킹그스터는 침착하게 야유가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킹그스터 《당신 내 고향에 와서 훌륭한 환영을 받아 감사합니다.》

성 근 《죄송합니다.》

킹그스터 (갑자기 책상을 탕하고 치며 소리 지른다.)

《책임을 느끼는가?》

성 근 《네.》

죽어가는 목소리다.

킹그스터 (다시 목소리가 낮아지며 소근거리듯 그러나 이를 사려 물고)

《이것은 전선에서 한개 대대나 연대가 몽땅 소멸된것보다두 더 큰 타격이요! 알겠소? 미군환영회장이 박격포탄의 세례를 받았소.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이백명의 빨갱이들이 탈출했소. 당신의 아버지가 놓아달라던 그 빨갱이의사두 달아났단 말이요. 그래 당신은 장차 어떻게 수습할 대책이요?》

성 근 《...》

킹그스터는 뒤집을 지고 밖을 내다보며 성근에게 등을 향한채 독

백이라도 하듯 그러나 날카롭게 떠듬떠듬 말한다.

킹그스터 《난 오늘 이 시각 현재 이 도시에 있는 인간들을 찢먹이에 시부터 송장에 이르기까지 몽땅 체포하라고 하엿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어느 도시에서보다도 가장 철저한 복수

를 하겠소.》

킹그스터는 성근의 코앞에 바짝 다가서서 뿔어지게 성근을 노리며 말한다.

킹그스터 《최대위가 고향에 왔다고 어머니 품안에서 설마 자장가나 듣구있지야 않겠지요?》

성근의 이마에 땀이 내뿜는다.

다시 창을 향하고 돌아선다.

킹그스터 《왜 말이 없소? 그럼 내 하나 물어볼까요?(뺨 돌아선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누이동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소? 그가 휴시 공화국근위대의 한 성원이나 아닌가 하구말이요. 최대 위도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근위대라는건 최대위 누이동생이 다니던 대학의 민청원들로 조직되어있소. 그리고 최대위 누이동생이 민청원성분자였다는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킹그스터는 성희의 사진이 붙은 문건을 내든다.

성 근 《아닙니다. 그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걸부지입니다.》

성근이는 당황한것을 감추려 하며 애써 단호히 말한다.

킹그스터 《성을 내지 마시오. 나는 최대위를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지 않았소.》

성근은 한참후 마치 항의라도 하듯 또 반격이라도 한듯 말한다.

성 근 《어제밤 우리 성욱이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킹그스터 《뭐라고요? 성욱씨가?》

두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훑어보려는듯 날카롭게 마주 본다.

킹그스터 《어제 시체에 녀자는 없었는데...》

성 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마주 보고 있다.

킹그스터 《혹시 빨갱이들이 랍치해가지 않았소?》

킹그스터는 슬며시 다시 창가로 돌아선다.

킹그스터 《수치요. 습격을 당하지. 누이는 랍치되지...》

성근은 킹그스터의 뒤모습을 훑어지게 바라보다가 나간다.

킹그스터는 돌아서서 성근이가 나간쪽을 직시하고 서있다. 입가에 가느다란 핏소가 떠있다. 진신에서는 살기가 넘쳐흐른다.

집으로 달려온 성근은 문을 열어제끼고 성희를 불러낸다.

성 근 《나와!》

성희는 심상치 않은 성근의 태도에 긴장되면서 마루에 나선다.

성근은 성희의 팔을 와락 붙잡는다.

성 근 《너 요새 어딜 나가 쓰다니군 하니? 너 나한테 무엇인가 숨기구 있지? 누가 모를줄 알구?》

성 희 《무엇말이예요?》

성희는 새파래진다.

학신과 숙경이가 방에서 나와 불안스럽게 두사람을 바라본다.

성 근 《너 죽구싶지 않으면 나한테 다 말해.》

성 희 《무엇을 말하란 말이에요?》

성 근 《너 공화국군위대에 가입했지?》

학 신 《넌 예비앞에서 이게 무슨 버릇이나? 응?》

성 근 《아버진 가만계세요. 아버진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구있는지 모르세요.》

성근은 다시 성희를 향하여 팔을 붙든다.

성근 《바른대루 못대겠어?》

성희 《무얼 대란말이예요?》

숙경이가 와서 성근의 팔을 뿌리친다.

성근은 썩썩거리며 다시 달려나간다.

숙경 《성희야, 너 참말 그럴데...?》

성희는 대답 않고 자기 아버지앞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쓰아

보며 따진다.

성희 《아버진 이래도 비국놈들이 우리의 벗이며 원조자입니까?》

학신은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성희의 말을 듣고있다.

성희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이 못드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떤 무서운 환상에 빠져있는지 모르고있습니다! 아버지!》

성희는 말을 채 못하고 달려간다.

중대문앞에 가서 '프락'을 돌아보며 성희는 눈물이 글썽하여 혼자 생각한다.

《내가 나서자란 이 집과 이 '프락'이 이렇게도 저주로운곳이었던 말인가? 내게는 그런 아버지밖에 없었던말인가?》

성희의 두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흐르고있다.

방안에 들어온 학신과 숙경은 멍하니 마주 앉아있다.

학신 《어떻든 영수문제를 이 이상 더 끌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해두 당하겠소. 내 리차드목사와 의논해보겠소.》

숙경 《아니 뭐요? 리차드목사에게요? 안돼요. 그만두시우. 성근이한테 두 말을 못한걸.》

학신 《자식은 못믿어도 리창도목사는 믿을수 있소. 그 사람은 나와 삼십년가까이나 하느님을 통해서 결합된 친구요.》

학신은 뿌리치고 일어서 나간다.

지벽어들이 걸어가는속으로 최학신이 양옥을 향하여 올라온다.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양옥이 숲속에 음침하게 솟아있다.

리차드는 자기 혼자 여질히 그 자세대로 앉아있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어슴푸레한 빛이 그의 얼굴을 모로 비치고있다. 자는듯 눈을 감았다. 까딱하지 않는다. 다만 팔걸이우의 손가락만이 툭툭히 장단을 친다. 그 소리가 죽은듯 고요한 넓은 방에 툭툭, 둔한 소리를 가득

퍼친다.

학신이가 킁킁한 어둠속에 들어서서 문어구에 멈춰선다. 그의 뒤에 늦저녁하늘이 희끄무레하다.

성희가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는다.

자기 방을 두루 살피다가 옷에서 민청빠저를 떼내어 입은 옷가슴에 단다.

이쪽방에 와 숙경의 두손을 잡는다.

성희 《어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

어머니를 마주앉혀놓고 두손을 잡은 채 얼굴을 뚫히 쳐다본다.  
숙경 《왜 이러니 갑자기?》

성희 《어머니, 언니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까지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작은 딸의 새삼스러운 말에 무엇인가 마음이 격해지며 이 며칠새 해쓱해진 성희의 얼굴을 찬찬히 본다.

성희 《어머니, 이 며칠새 흰머리가 푹 늘었어요.》

머리오리를 뽑아준다.

숙경 《이년아! 네가 왜 이러니?》

숙경의 눈에서 눈물이 짝르르 쏟아진다.

성희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다 없어도 제가 있는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수 있어요.》

성희는 숙경이를 그리안고 뺨을 비빈다. 숙경의 뺨에 흐른 눈물이 성희의 뺨도 적신다.

성희가 무엇에 놀란듯 갑자기 벌떡 일어선다.

성희 《어머니 저는 떠나요.》

숙경 《뭐? 떠나? 어디루?》

성희 《어머니에게두 말씀드리지 았구 갈려됐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가봐... 어머니만은 믿기때문에 말해요.》

숙경 《안된다. 못간다! 이 에미를 두구 어디루 가?》

성희 《어머니, 더 붙잡지 마세요.

이 집에 단하나 남은 이 딸마저 늙들의 손에 죽이지 않으시기든 더 붙잡지 마세요. 저는 갔다 인차 돌아와요. 동무들이 와서 기다리고있을거예요.》

숙경 《...》

회 <제 걱정은 조금두 마세요. 저희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아버지  
에게 이 편지를 주세요. 어머니.>

다시한번 어머니를 외락 안았다가 재빨리 나온다.

윤식이가 기운없이 들어선다.

숙경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있다.

헝맹그런한 례배당안에서 최학신이와 리차드가 말을 하고있다.

초불이 흐느직거린다. 지쪽 구석은 더욱 어둑킴킴해보인다.

말소리가 우렁우렁하며 례배당안에 가득 퍼진다.

학신 <리차드목사, 이렇게 신의 앞에서 고백하는것은 인간사회의 모든  
법률과 도덕과 그리고 교회의 교리까지도 관계없이 모두 용  
서된다는것을 당신도 잘 아실것입니다.>

리차드 <형님, 어서 신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학신 <나에게 있어서 지금 신은 한낱 신앙만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  
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내 평생의 친구로서뿐만아니라 <자유>와  
<박애>를 사랑하는 북미합중국의 대표자로, 곧 신의 사도로 인  
정하고 이 말을 합니다.>

리차드 <형님! 나를 진정 신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거든 아무것도 주저  
하지 말고 어서 말씀하십시오.>

학신은 례배당의 높은 천장 킁킁한 히공을 울려다보며 마치  
혼자 기도라도 하는듯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학신 <내 작은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소이다. ...>

광속에서 성희가 영수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선다.

윤식이가 놀라며 바라본다.

영수가 웃으며 끄떡 인사를 한다.

영수 <안녕하십니까?>

윤식 <아니, 어딜?>

숙경 <여보게 말려주게나. 애물아.>

성희 <아지씨, 대문을 좀 열어주세요. 빨리요.>

윤식 어른거리다 대문가로 간다.

영수 숙경에게 인사한다.

영수 <웃집어머니, 그새 근심끼쳐안됐습니다. 조심하세요.>

성희와 영수 대문을 향해 나간다.

성희 <아저씨두 잘 생각해보세요. 수학자의 기본문제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 복무하느냐 하는데 있겠지요?>

윤식은 대답을 못한다.

때때당에서는 최학신과 리차드가 이야기물 계속하고있다.

학신 <주 예수께서두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혈기로 군대에 지원단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리차드목사! 당신과 나와 의 삼십년간의 우정을 믿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신변을 보호해주십시오.>

리차드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과 의 우정으로 보나 또 주 예수의 뜻으로 보나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꼭 무사히 할테니 안심하십시오.>

학신 <고맙습니다.>

리차드 <그러나 당분간 누구에게두 이 비밀을 절대무 말하지 마십시오.>

리차드 엄숙한 얼굴로 말한다.

숙경은 대문밖에 나와서 누가 오지나 않나 살펴본다.

성희와 영수 대문밖에 나서는 순간

숙경 <애들아!>

성근이가 달려온다.

영수와 성희 다시 대문안으로 들어온다.

성희는 영수의 단장을 받아든다.

영수의 팔을 끼고 닳아진 위기앞에 맞선다.

성근이가 권총을 빼들고 대문을 차며 달려들어온다.

영수와 성희 계속 짝 끼고있다.

성근 <웁지, 너 영수였구나! 이자식...손들었!>

영수 <최성근씨, 떠들지 마시오.>

성근 <안들테냐?>

영수 <좋은 여기도 있다.>

영수는 자동총을 들어쥐고 대든다.

성근 <응 너희들이 공화국군위대원들이었구나.>

영수 <우리는 모두가 군위대다!>



성 근 《손들었! 안들면 쓴다!》

숙 경 《애, 성근아!》

영 수 《내가 그까짓 총을 무서워할줄 아는가?》

성 근 《뭐라구?》

숙 경 《애들아, 물러서라! 총들을 내려라.》

성 희 《어머니 비키세요.》

성희는 소리를 지르며 더욱 바삭 영수를 건다.

영 수 《우린 건말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가야겠다. 그것뿐이다. 네가 그 총을 내리우면 우리도 온순히 가겠다. 총소리가 나는건 우리에게도 불리하니까.》

성 근 《개수작 말아.》

영 수 《그러나 네가 끝내 방해하면 우리는 너 한방 나 한방으로 끝 내구말테다.》

성 근 《이자식, 네가 어느새 딸갱이가 되가지구...저년두!》

영 수 《넌 미국놈의 개가 되구?》

성 근 《똥이?》

윤 식 《리성을 잃지 말아요. 말무들 해요. 말무들! 총들을 던져요.》

숙 경 《애 성근아, 네가 먼저 총을 걸어라. 애 영수야, 성희야. 너 희가 먼저 걸어라.》

방안에서 진화벨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

영수와 성근 잠시 말없이 총들을 맞댄채 상대방을 노리고있다.

영수가 점점 성근에게 육박해든다.

진화벨소리가 계속된다.

영 수 《조선인민군전사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용감히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 네가 그때 죽을 각오가 되어있어?있어?》

성근은 기가 눌리기 시작했다.

진화벨은 울다가 멎었고 영수의 날카롭게 지르는 말소리가 긴장된 뜨락안에 넘친다.

영 수 《너는 미국놈들이 쥐여준 그 총으로 무고한 우리 동족을 얼마나 썩죽였느냐? 너는 지금 교향사람들과 친척 동생들까지도 너를 미국놈의 개로, 민족의 원수로 규탄하고있다는것을 알거나 하니?》

성 근 《닥 처라!》

그러나 그의 말소리는 이미 떨리고있다.

성 희 《오빠는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철안이 되어 날뛰구 있어요? 오빠의 총탄에 쓰러지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저주에 찬 부르짖음을 못들어요?》

성근은 말을 못하고 노력만 본다.

영수는 성희와 함께 한걸음 한걸음 성근에게 육박한다.

영 수 《내가 그렇게 날친다구 미국놈들이 너를 사람값에나 쳐주는 줄 아니? 너는 미국놈의 줄병앞에서두 꺾쪽못하구 벌벌 기구 있지? 그러면시두 제 동족은 학살하구 다녀? 니두 조선사람이야? 네게두 민족의 량심이 있어?》

성근은 뒤걸음치며 말을 못한다.

영 수 《아직두 그 총을 못내릴대야? 아직두?》

영수 다가들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성근 열걸음 총을 내리운다.

성 희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윤식 가서 연다.

성 근 《왜 열이?》

영 수 《너의 원쑤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놈이라는걸 똑똑히 알아 뒤리.》

성 근 《뻘이?》

영 수 《내겐 아직두 살길이 있다. 이제리두 미국놈에게 총부리만 돌려라.》

성희와 영수가 대문을 넘어선다.

윤식이 날새게 대문을 잠그고 등으로 대문을 막아선다.

성근은 열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다.

진화벨소리가 요란히 울려나온다.

성근은 정신이 화닥 든다.

킹그스터의 매서운 모습이 피뚝 떠오르며 성근은 정신이 든 듯 다시 권총을 나꾸어들고 윤식의 앞으로 다가간다.

성 근 《넌 뭐냐? 못 비킬테냐? 너두 빨갱이야? 쏜다?》

윤 식 《썩라!》

숙경이가 운식의 곁에 와서 같이 대문을 막아선다.

성 근 《공산당과 결사전을 하구있다. 비켜!》

숙 경 《그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 수염을 한오리 건드리디냐, 너의 애밀 징배살이 보내디냐?》

운 식 《너야말루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제정신이 아니야.》

성 근 《물리가 필요없다. 전쟁이야.》

숙 경 《전쟁두 사람이 하는 노릇이지?》

운 식 《네가 조각을 한다구 바루 이 프락안에서 진흙을 주물던 그 손에 이제는 부모형제를 살륙하는 총을 쥐여?》

성근은 권총을 끈두세우며 가슴을 쥐여뜯는다.

안절부절하던 성근은 다시 전화벨소리가 들려오자 회 돌아서서 담장끼로 간다.

권총에 안전장치를 해들고 담장을 넘어뛰려 한다.

숙경이가 달려가 성근을 끌어내린다.

성근의 귀를 지끈 후려갈긴다.

어정정해 노려보는 성근의 손에서 권총을 나꾸챈다.

숙 경 《이자식! 오늘밤 너하구 나하구 같이 죽자.》

다들줄 모르는 권총을 절겨덕거린다.

성 근 《어머니! 위험해요.》

권총을 도로 나꾸챈다.

숙 경 《어머니? 어느 입으루 어머니 소릴 해? 내겐 아들이 없다.》

숙경의 전신은 초풍을 만난 사람같이 화들화들 떨리고있다.

성근은 담장을 째 그려앉으며 머리를 푹 박는다.

숙 경 《이 독사같은놈의 자식! 지금 내몸에서는 내 젖내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난다. 미술공부를 한다구 부모동생들을 두구 떠나가더니 겨우 이꼴이 되여가지구 왔니?》

성근은 머리를 푹 숙이고있다.

전화벨이 다시 울기 시작한다.

모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들 서있고 죽은듯 고요한 프락과 방안에 전화벨소리만이 불길스럽게 지르릉지르릉 울려 퍼지고있다.

티차드가 전화를 걸고있다.

리차드 《절대 경솔한 행동은 취하지 마시오. 만일 공산군을  
투항시킨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리익이 될것ियो.》  
킹그스터가 전화를 받고있다.

킹그스터 《네. 즉시 감시를 조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킹그스터 전화를 건다.

킹그스터 《19번! 김소위, 곧 내게로 오시오. 빨리!》

성근은 라오콘의 조각앞에 우두커니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이제는 비밀이 새지 않게 해야 한다. 킹그스터가 알면 우  
리는 일가가 몰살이다.)

성근은 벌떡 일어서서 트락으로 나온다.

학신이가 대문을 두드린다.

학 신 《성희야! 문 열어라! 성희야!》

윤식이 대문을 연다.

최학신은 호기있게 단장을 내두르며 들어선다.

학 신 《걱정들 말아. 다 해결됐다.》

속 경 《뭐가요?》

학 신 《리차드목사가 사정을 듣더니...》

성 근 《네?》

학 신 《너한테 아직 말을 못했다만 영수가...》

성 근 《말했어요?! 리차드한테요?》

학 신 《응, 자기가 꼭 책임지고 무사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  
킹그스터가 말을 안듣는 경우엔 상부에 제기해서 래두...》

성 근 《어이쿠!》

속 경 《떠나갔어요.》

학 신 《떠나다니?》

성 근 《그건 왜 말했어요? 아버지!》

성근은 질망과 원한에 찬 목소리로 가슴이 터지는듯 웅친다.

성 근 《리차드는 뭐 우리 할애빈줄 아세요?》

학 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성 근 《리차드가 누군지 알기나 하구 그래요? 미중앙정보국 조선  
담당 피수의 하나예요.》

학신은 마치 성난 사람같이 성근이를 쓰아보고있다.

성근이는 목소리가 축 처지며 방금 울음이라도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성 근 <킹그스터두 그 사람의 비밀부하예요. 알기나 하구 덤비세요?(목소리가 높아진다.)나두 아버지 말을 듣구 그자늘 찾 아갔다가 결국은 이 꼴이 됐어요. (운다)내가 지금 미국놈들의 어떤 울가미에 걸려들었는지 아버지는 모를껍니다. 몰라요.>  
성근은 슬프게 가슴을 두드리며 운다.  
그러다가 갑자기 윤식에게 달려드는듯 목소리를 높이며 웨 친다.

성 근 <내게는 지금 지 라오곤의 배암이 칭칭 휘감기구있다. 나두 그 길밖에 벗어나 보려구 필사의 몸부림을 치렀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통채로 휘감구있는 그 힘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난단 말이나?>  
다시 학신에게 대든다.

성 근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어린 내머리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지 않았어도 이 아들은 지금 이렇게 독사의 손아귀에는 쥐여지지 않았을 껍니다. 으흐흐...>  
모두 조용하다. 성근의 흐느낌 소리만이 높아간다. 풀벌레소리 지르룩 지르룩 높아진다.  
숙경은 눈물을 씻는다.  
학신은 뜨락 한가운데 선채 정면을 바라보며 힐난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학 신 <그럼 네가 지금까지 지도도하게 날 치던것은 무엇이었던말이나?>  
성 근 <그 길밖에 없다구 생각했지요. 그 길밖에...그래두 그 길만이 공산주의와 싸우구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구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직두 이 자식의 이 피맺힌 부르짖음이 믿어지지 않 습니까? 성욱이두 킹그스터란 놈이 끌어다 어떻게 했을껍 니다.>

학 신 <뭐라구?>

윤 식 <응?>

숙경이가 마루에서 벌떡 일어선다.

- 성 근 《으호호...그놈이 어떻게 무서운 색만지 아십니까? 그들은 너  
 자들을 통육하구는 귀신 몰래 죽여서 바다에투 처넣구...성옥  
 이두 저 바다속이나...》  
 숙경이가 그 자리에 다시 철썩 주저앉는다.
- 성 근 《그렇지만 이제 우린 허바닥을 깨물면 깨물었지 그자들앞에  
 서는 눈치를 쥘체두 못합니다. 해보세요. 아버지까지두, 우리  
 일가가 귀신몰래 몰살됩니다. 몰살이요.》  
 성근은 눈물을 거두며 이를 사러문다. 주먹을 으스러지게  
 그러잖다.  
 윤식이 몇길음 걸어나신다.
- 윤 식 《난 네가 그렇게두 너질하게 살아가구있는줄은 몰랐댔다.》  
 성근은 다시 표독스러워지며 윤식에게 대든다.
- 성 근 《그럼 어찌나? 응? 그래 무슨 힘으로 공산주의와 싸워? 리송  
 만이 늑다리 그 힘으루?》
- 윤 식 《너질한 생명을 이어가는 변명을 반공산주의의 보자기로  
 감싸지 말라.》
- 성 근 《안 그러면 갈 길이 어디야? 공산당편이 되는 길밖에 더  
 있어?》
- 윤 식 《만약 우리앞에 두 길중에 한길밖에 없다면...》
- 성 근 《없지, 무슨 길이 또 있어?》  
 윤식 나간다.
- 숙 경 《어디루 가나?》  
 윤식 언덕으로 올라간다.
- 숙 경 《이 사람 어디루 가나?》
- 윤 식 《나두 성희네 뒤를 따르겠습니다.》
- 숙 경 《이 사람 자네까지 이게 무슨 짓인가?》
- 윤 식 《내가 어리석었지요.》  
 몇지 않고 걷는다. 숙경 따라간다.
- 숙 경 《성옥의 시체라두 찾구 가야 한게 아닌가?》
- 윤 식 《내가 못나서 그놈들께 성옥이를 죽였지요.》  
 윤식은 툇툇히 산언덕으로 올라간다.
- 숙 경 《불쌍한 내딸아!》

밤, 산기슭에서 윤석재가 성희일행과 헤어지고있다.  
 명호와 빨찌산들이 영수를 담가에 태워가지고 간다.  
 성희는 총을 메었다.

석 재 《영수 이 사람 빨리 나오라구.》

영 수 《네. 고맙습니다.》

성 희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청년(1) 《어서 돌아가보세요.》

청년(2) 《곧 다시 나와요.》

석 재 《어서들 가게.》

명 호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석 재 《오냐 어서들 가거라.》

빨찌산대렬이 사라진다.

석재 어둠속에서 손을 흔든다.

대렬이 산언덕으로 올라간다.

성희가 총을 메고 영수의 담가결에서 따라가고있다.

그의 얼굴과 함께 그가 아버지에게 남겨놓고온 편지내용이  
 들려나온다.

《아버지는 저를 낳아 20여년이나 고이 길러오셨지만 이제 와보니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딸이었으며 조국의 딸이  
 였습니다.》

해방후 불과 5년간이지만 그동안 이 딸의 가슴속에 생의 보  
 람과 불멸의 진리를 안겨준 그 위대한 어머니—우리 조국의 품을  
 저는 절대로 배반할수 없었습니다.…»

령 빈 프락안에 최학신이 성희의 편지를 손에 전체 우두커니  
 시었다.

풀벌레소리만이 온 프락안에 가득 차있다.

최학신은 혼자 중얼거리고있다.

《이게 모두 사실이람말이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나?》

최학신은 허공을 바라보며 비칠거리고있다.

최학신이 레배당을 향하여 나무사이를 기운없이 걸어오른다.

혼자 생각에 잠기고있다.

《그렇다면 만일 성근이가 말한 그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리

차드목사가 미국간첩의 피수였다면 그러면 내가 믿어온것은 무엇이였으며 나의 신념이란 과연 어떤것이였단 말이나?》

학신 나무를 붙잡으며 벗어선다.

쥐죽은듯 고요한 거리는 캄캄한 어둠속에 잠겼고 멀리 바다 위에서 탐조등이 번쩍거린다.

멀리 한곳이 불타고있고 날카로운 려발총성이 났다가 똑 멎으며 더욱 조용해진다.

학신은 나무가지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혼자 생각하고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삼라만상은 과연 무엇이며 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무엇이란말이나?》

학신의 내뎐독백은 계속되며 그가 레베당을 향하여 걸어올라가는 뒤모습이 멀리 보인다.

《그렇다면 내가 50평생 이 대지를 헛짚으며 걸어왔고 내 가슴속에서 매일 고통쳐온 내 심장의 맥박소리는 모두 무의미한 잡음이었단말이나?》

최학신은 어느새 종탑밑에 이르렀다.

종탑기둥에 머리를 쥐여박는다.

종꾼이 흔들리며 종이 덩—하고 울리며 여운을 남긴다.

빨찌산들을 바래주고 돌아오던 윤석제는 레베당밑 밤나무결에서 성근이와 만났다.

성근이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석제에게 말하고있다.

성 근 《사실대루 말하시우. 절대 어찌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두 제가 알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영수를 데리구 갔습니까?》

석 제 《글쎄 나는 레베당에 기도를 하러 갔다오는 길이라니까.》

성 근 《할아버지, 이전에 이 밤나무밑에 저를 업구와서 밤을 주어 주던 생각이 나십니까?》

석 제 《나구말구.》

성 근 《할아버지등에 업히서 자란 제가 아닙니까? 저를 그렇게두 못믿으시겠습니까?》

석 제 《글쎄 난 모른다니까.》



단호하다.

성 근 《정말 이리겠소?》

석 재 《난 가 봐야겠네.》

돌아서간다.

성 근 《링감!》

권총을 빼내든다.

석재는 무표정한듯 성근을 바라본다.

천천히 한마디 한다.

석 재 《쓰게나.》

성 근 《영수와 성희가 떠나갔나 안갔나 그것만 대우.》

석 재 《떠나갔네.》

예기했던 것이지만 석재의 명백한 대답을 듣고나자 성근은 기운이 탁 풀어지며 멍하니 한참 석재만 바라보다가 총을 드리운다. 밤나무에 탁 머리를 박는다. 한참 후에 달라진 목소리로 말한다.

성 근 《누구보구두 이 말씀은 말아야 합니다. 입밖에만 나가면 링감님두 나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두요.》

석 재 《.....》

성 근 《총이 목덜미에 와닿아두 아니라구 해야 합니다. 아니라구요. 예?》

석 재 《내 걱정은 말게.》

밤나무뒤에서 달홍이가 독사같은 얼굴로 회심의 웃음을 짓고있다.

달홍이에게서 보고를 받은 킹그스터는 한참동안 정면을 직시하고 꼳꼳이 서있다가 입가에 쓴 웃음을 짓는다.

킹그스터 《가서 즉시 그 늑은 종지기를 체포해오시오.》

달 홍 《넋》

경배한다. 킹그스터 경배도 안받고 계속 정면을 직시한다. 살기가 흘러넘친다.

리차드가 킹그스터의 방에 와있다.

아까부터.론쟁이 벌어진듯 두 사람의 시선은 싸늘하다.

리차드 《당신은〈한국〉정책에 있어서 당신의 견해가 옳았다는것을 그 무지한 한개 종지기를 통해 증명하자는거요?》

- 킹그스티 《당신이 직접 만나보고 자신으로 걸론지으시오. -(전화투  
긴다.) 19번! 김소위, 그 령감을 끌어와!》
- 리 차 드 《당신은 어째서 죽여없애는것만 알고 능숙한 씨름선수가  
상대방의 힘을 리용하는 묘기는 배우려 하지 않소? 당신은  
왜 아직두 최학신이가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우리 미국  
청년들의 생명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려하지 않소?》
- 킹그스티 《최신근은 위험분자며 최학신은 공산화할수 있는 존재요.》
- 리 차 드 《당신은 최학신의 안해가 온종일 바다가에서 자기 딸의 시  
체를 찾고있는것이 겁이 나서 그러오.》
- 킹그스티 리차드를 쓰아본다.
- 리 차 드 《시체가 발견되여도 거기서 당신의 향수냄새는 안달테니  
걱정마시오.》
- 킹그스티 《나는 전도부인이나 수녀는 건드리지 않았으니 그런것쯤으  
로는 량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소.》
- 윤석제가 결박되여 들어온다.
- 리 차 드 《푸시오.》
- 달홍이가 결박을 풀고 나간다. 리차드 잠간 기도를 한다.  
윤석제는 같이 기도를 하지 않고 뜯눈으로 질곳이 리차드  
를 본다.
- 리 차 드 《나를 알겠습니까?》
- 석 제 《알지요.》
- 리 차 드 《나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려서 령감님을 석방시켜주자고  
생각합니다.》
- 석 제 《...》
- 리 차 드 《이전에 내가 크리스마스때마다 령감님에게 솜웃이랑 주던  
게 생각납니까?》
- 석 제 《납니다.》
- 리 차 드 《아직두 례배당에 다니구 기도를 드민다지요?》
- 석 제 《네, 가끔.》
- 리 차 드 《그래 어떤 기도를 합니까?》
- 석 제 《우리 나라가 잘되구 땅도 도루 떼우지 않게 해달라구요.》
- 리 차 드 《나라요? 어떤게 나라입니까?》
- 석 제 《글쎄요, 아마 우리에게 땅이랑 노나주구 아이들 공부랑

시켜주구 하는게 다 나라겠지요.》

리 차 드 《지금 그 나라가 있습니까?》

석 재 《나라두 어디 없어 지나요?》

킹그스터 《아하하하!》

리 차 드 《그래 령감님이 공산군을 빼돌린게 사실입니까?》

석 재 《사실이요.》

리 차 드 《왜 하느님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석 재 《그게 무슨 죄를 지은거요?》

리 차 드 《지옥에 갑니다.》

석 재 《가라지요. 난 해방후 이 몇년간 참말 천당에서 사는것같이 살아 보았습니다. 내 땅에, 내 소에, 내 집에서...》

리 차 드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

석 재 《똥을 먹구야 살수 없지요.》

킹그스터 《하하하...!》

석 재 《당신두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나는 저 레배당마루가 다 닳아서 두번이나 고쳐 갈아대도록 한평생 당신들이 멀군 먼 지나 쓸어내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염이 허해질 때까지 지 종곤에 매달려 살아왔소. 그때 그 누구가 진정으루 나를 사람값에 넣어주었습니까? 그렇지만 해방후 우리 공화국은 내 아들딸들에게 공부를 시켜주었구 나두 사람대접을 받으면서 남들과 같이 민주선진실에 나가 춤까지 추어 보며 살아왔지요. 하느님이니 천당이니 하는게 하늘이나 미국에 있는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 땅우에 있지요.》

리차드는 독이 올라 웨친다.

리 차 드 《하느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부르면 벌을 받습니다.》

석 재 《하느님의 이름은 당신들이 망녕되게 부르고있소. 어서 돌 아들 가시오.》

킹그스터는 리차드를 바라보며

《아하하하 아하하하...》 한참 웃는다.

리차드는 진과는 달리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분노와 치욕에 몸을 떨며 방안을 미친듯 돌아친다.

킹그스터가 갑자기 웃음을 딱 끊으며 윤석재를 독기어린 눈으로

노력본다.

그러다가 리차드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대든다.

킹그스터 《이 무지한 늙은 머슴까지두, 일생이 테배당종소리루 빛어진 이 죽어가는 령혼까지두 우리를, 미국을 반대해나서고 있소. 그래도 당신은 성경책과 종소리와 기도로 이자들을 정복할수 있다고 믿고있소? 리차드씨!》

리차드는 대답을 못하고 벽에 머리를 박은채 돌아서있다.

윤석재는 일어나 당당한 걸음으로 툇툇히 걸어나간다.

킹그스터 《나는 당신이 계획하고있는 소위 대기도회고, 부흥기도회고 하는것들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오늘 밤 78개의 수용소를 일제히 폭파하여 지금 내 손아귀에 든 5만8천6백여명의 공산분자를 에미베속에 들어있는 빨갱이씨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릴것이요. 죽이고 죽이고, 죽일것이요!》

킹그스터는 발악을 하듯 이를 사러물고 고레고레 소리를 지른다.

옆방에서 제임스가 들어서며 《마도로쓰파이프》를 가버이 쳐든다.

제임스 《잠깐!》

리차드와 킹그스터 차렷자세를 취한다.

제임스는 리차드앞에 가 선다.

제임스 《이 며칠간 내가 직접와서 본바에 의해도 북조선에 대한 우리들의 종교정책은 이미 력사적시기가 지났다고봅니다. 그러니 리차드씨, 당신은 먼지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리차드는 대답을 못하고 서있다.

제임스 《지금정세는 지체할수 없이 되여가고있습니다. 곧 떠나시오. 그러나 킹그스터씨.》

제임스는 킹그스터를 향한다.

제임스 《신이 우리에게 두팔을 줄 때 두팔에 다 칼만을 들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구우에는 수억의 종교인들이 있다는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반공산주의 전선에서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하에 빼앗기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사활적문제의 하나이며 미국대외정책의 기본문제에 속한다는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학신의 일가

우리는 아직도 세계의 먼전에서 <자유>와 <사랑>의 왕국으로, 예수의 은혜를 베푸는 약소민족의 <벗>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학신은 리용할 여지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의 시체까지도 리용해야 합니다.》

학신이 언덕을 뚜벅뚜벅 올라가고있다.

혼자속으로 결의를 다지고있다.

《후백을 밟혀내자! 리차드에게 모든 진상을 추궁하자! 결판을 짓자.》

리차드의 집이 보인다.

현관에 이른다.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계속 두드린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숲속에 메아리친다.

학 신 <리차드목사! 리차드목사!>

방안은 텅 비어있다.

최학신은 문을 부시고 들어선다.

텅 빈 넓은 방안에 리차드가 앉아있던 검은 가죽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바람이 휘몰아친다.

책장들이 펄럭인다.

리차드는 이미 서울로 떠났다.

최학신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있다.

열린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문설주를 후려갈긴다.

탕탕...

최학신이가 바다가를 거닌다. 아까의 도도하던 기세는 없고 어깨가 축 늘어졌다. 음산한 하늘이 짙 내려덮었다.

휘적휘적 걸어가는 그의 발밑에 파도가 밀려들었다 사라졌다한다.

바다가에 길다랗게 최학신의 발자국이 찍혀졌다. 저 멀리로 최학신이가 걸어가고있다. 그의 뒤에서 파도가 밀려들며 발자국을 차례차례 지워나간다.

최학신은 눈을 들어 멀리 바다를 바라본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섬 하나가 외로이 떠있다.

숙경이가 바다가에서 성옥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울고있다.

최학신이 옆에 서서 성옥의 시체를 뚫어지게 굽어보고있다. 마치 감각을 잃은 사람같다.

숙 경 《령감!》

숙경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채 벌떡 일어서며 학신을 바라본다.

목소리가 더욱 떨리며 두 눈에서 눈물이 짹짹 흘러내리고있다.

숙 경 《령감!...누가 이 딸을 죽였소? 누가요? 누가 미국놈에게 쫓다발을 주랴구 이 딸을 데리구 나갔겠소?》

학신은 그대로 서있다.

숙경 다시 성옥의 시체를 부둥켜안으며 녀두리를 한다.

숙 경 《성옥아, 불쌍하게두 죽었구나! 누가 이렇게 네 가슴에 총알을 박았느냐? 응? 어떤놈이? 어떤놈이? 말해라! 말해라!

왜 이렇게 입을 꼭 다문고 말이 없느냐? 응? 성옥아...》

그대로 서있는 학신의 두 눈에 삼시에 눈물이 고이더니 마침내 툭툭 떨어져 내린다.

성근이가 성옥이 시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있다.

길가와 문어구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있다.

숙경은 누구에게라없이 혼자 중얼거리며 오고있다.

숙 경 《우리 성옥이가 죽었어요. 미국놈들이 죽였어요. 우리 성옥일 죽였어요. 바다에 처넣었어요. 바다예요.》

최학신은 바다가에 주저앉아 모래판을 쓸어보고 또 쓸어본다. 울고있다.

성근이는 성옥의 시체를 안고 계속 말없이 걸어간다.

물에 젖은 성옥의 시체를 안고 마치 감각을 잃은 사람같이 무표정하게 걸어간다.

절반 정신을 잃은 숙경이가 저혼자 웨치며 거리로 지나간다.

숙 경 《바다에 처넣었어요. 바다예요. 미국놈이 죽였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녀인 (1) 《쫓다발을 들구나갔다가 저렇게 됐대요.》

녀인 (2) 《불쌍두 하지.》

달홍이가 숙경의 모습을 살피며 사람들속에 끼여있다.

숙경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혼자 중얼거리며 바다가 갈밭 속으로 헤멘다.

숙 경 《바다예요. 바다예요. 미국놈이 죽었어요. 미국놈이예요. 바다예요.》

멀리 숲속에서 묘준경을 씌운 총으로 미군놈이 숙경을 겨누고있다.

숙경은 계속 혼자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며 진펄로 걸어간다.

숙 경 《바다예요. 미국놈이예요.》  
총소리가 들리며 숙경이 쓰러진다.  
갈대를 부여잡는다.

저격수와 함께 킹그스터가 쫓차를 타고 숲속에서 빠져나간다.

제임스와 킹그스터가 마주앉았다.

제 임 스 《우리는 곧 퇴각하오. 공산군이 반격을 해오고있습니다. 당신은 여기를 떠나기전에 최학신이와 최성군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킹그스터 《최학신이도 최성군이도 모두 없애치우겠습니다. 공산당이 암살한것으로.》

제 임 스 《그것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그들을 리용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뉴욕타임스를 통하여 전세계에 북한공산당의 반종교 정책을 폭로하려고하오.》

킹그스터 《어떻게요?》

제 임 스 《최성군이로 하여금 그 늙은 종지기를 총살하게 합시다.》

킹그스터 《네?》

제 임 스 《왜 최성군이가 자기를 업어기른 그 늙은 종지기를 쓰게 되였는가?》

제임스는 마치 어떤 탐정소설의 한 대목을 구상하는듯 허공을 노리며 중얼거리린다.

제 임 스 《북조선공산당은 그 늙은 종지기를 매수하여 선량한 기독교 목사 최학신의 일가를 감시하여왔다. 그러다가 부상당한 공산군을 숨기는데 목사의 집을 리용하였다. 이 모든 사실

을 알게 되자 최대위는 자기를 업어기른 종지기지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일가를 배반한 그 늙은 변절자의 가슴에 분노에 넘친 총알을 퍼부었다. …어떻습니까?》

킹그스리 <………>

두놈은 마주본다.

밤나무밑에 윤석제가 서있다.

플려나온 인민들이 말없이 서서 보고있다.

제임스가 휴대용무전기를 두드리고있다.

그 내용이 제임스의 목소리로 들린다.

《뉴욕!뉴욕!뉴욕타임스편집국 <한국>전선 최전선에서 특파기자제임스의 독점뉴스…또하나 드러난북한공산당의 종교탄압진상…》

킹그스리와 성근이가 찢차를 타고 오고있다.

킹그스리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늙은 종지기를 매수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당신의 누이동생을 리용하였다고 결론지었소. 따라서 오늘 그 늙은 공산분자는 직접 당신의 손으로 처단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성 근 《제가요?》

킹그스리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이나 또 당신의 부모까지두 이번 사건에 관계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제일 명백한 증거로 될것입니다.》

자동차가 와 멎는다.

킹그스리는 내리려다가 앉아있는 성근을 보자 자기도 다시 앉아 등받이에 기대며 혼자소리같이 말한다.

킹그스리 《글쎄, 어차피 죽을 저 늙은 머슴의 목숨 하나와 당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있을 당신의 안해와 후시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다 합쳐 바꿀 마음이 있다면 별문제지요.》

성근 고개를 푹 뻗는다.

킹그스리는 더 말하지 않고 내린다.

성근 따라 내린다.

달홍이가 위스키병과 자그마한 잔을 가지고 와서 성근앞에 내민다.



킹그스터 《최대위는 저 늙은 공산분자와 공모자이기때문에 못쓰겠다  
오. 당신이 쓰시오.》

달홍은 술병을 내민채 성근의 의사를 묻는듯 땀히 쳐다본다.

제임스가 묶음마이크를 가져다 성근의 입앞에 댈다.

제임스 《나는 방금 당신이 백발백중의 명사수라는것을 본사에 소개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가를 감시해오던 저 늙은 반역자의 심장을 몇방에 뚫을수 있습니까?》

성근은 달홍을 뚫어지게 보다가 제임스의 물음엔 대답도 않고 위스키병을 나누준다. 병채로 입에 대고 꿀꺽꿀꺽 마신다.

아직도 좀 남은 술병을 달홍의 가슴앞에 내던진다. 달홍은 술이 쏟아지는 병을 얼굴에 가슴에 안는다.

성근 뚜벅뚜벅 석재앞으로 간다

밤알이 한알 툭툭 떨어진다.

성근 말없이 석재를 바라본다.

석재도 말없이 성근을 바라본다.

성근 《무슨 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석재 《...》

성근 《하십시오.》

석재는 아무 대답도 않고 성근을 찬찬히 본다.

미군놈들이 떠든다.

《빨리빨리!》

성근 돌아선다.

미군, 국군들이 죽 늘어선것이 보인다.

성근 뚜벅뚜벅 걸어나온다. 쫓쫓한 길음길이다.

마치 사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버리고말듯이 권총사격거리  
를 지나도록 걸어나간다. 휘 돌아선다. 권총을 뽑는다. 장탄을  
하여 팔을 치든다. 겨눈다. 아득히 윤석재가 보인다. 들, 셋, 넷으  
로...앞이 뿌얘진다. 밤나무만이 또렷하다.

석재가 밤나무밑에서 밤을 주어 댓살된 성근에게 준다. 어떤 성  
근이가 좋아서 해죽커린다.

밤나무와 윤석재가 빙빙빙 돌아간다. 공중에서 커다란 종이 빙빙  
돈다.

종소리가 땡땡거린다.

성근이가 석재의 품안에서 석재와 함께 종끈을 당겼다놓았다 한다. 종소리가 점점 빨리지며 커진다. 종이 요란스럽게 땡강거린다. 종끈이 꿈틀거리며 라오곤의 조각의 굽은 뺨으로 변한다.

죽은 성욱의 얼굴.

숙경의 얼굴.

영수와 성희가 뜨락에서 성근이를 향해 웨치던 모습이 나타난다. 리차드가 웃는다.

킹그스터가 웃는다.

종소리가 더욱 빨라지며 높아진다.

굽은 뺨이 성근의 몸을 휘감는다.

성근 《앗!》

소리를 지르며 권총을 쏜다.

높은곳의 밤나무가지들만이 꺾어지고 윤석재는 그대로 서있다.

최학신이가 팔을 높이 쳐들고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언덕으로 달려온다.

성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럽방 총을 쏜다.

갑자기 총소리도 종소리도 딱 멎는다.

철컹하는 빈 격발기 치는 소리가 난다.

성근은 정신이 번쩍 든다.

권총총구물 들여다본다. 아직도 연기가 물물 피여오른다.

윤석재는 그냥 서있다.

킹그스터가 다가온다.

킹그스터 《이전 장난이요? 룡담이요?》

살기에 찬 목소리다.

성근은 킹그스터를 험곳 보다가 다시 새 판창을 꺼내 끼운다.

무엇을 결의하듯 다시 윤석재를 바라보며 총을 들던 성근은 갑자기 돌아서며 킹그스터의 가슴에 권총을 반사한다.

성근 《너는 배암이다!》

킹그스터 몸을 비뚤다. 그에 대고 다시 쏜다.

성근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킹그스터 쓰러진다. 그에 대고 다시 쏜다.

성 근 《나는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련다.》

다시 한방.

사방에서 놀라 떠드는 소리들이 들린다. 총알이 성근에게로 날아온다. 미군들이 총을 비껴들고 육박해온다.

성근은 이제 더 어쩔길이 없다는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가오는 미군놈들과 석재, 달려오는 자기 아버지 등을 침착히 둘러본다. 킁킁히 관자노리에 권총을 가져다 댄다.

눈을 감는다. 방아쇠를 잡아당긴다. 쓰러진다.

윤석재가 놀라며 달려온다.

미군놈들이 윤석재를 향하여 사격한다.

윤석재 한가운데 우뚝선다.

다시 총알이 날아온다.

윤석재 팔씩 꼬꾸라진다.

달리는 최학신이가 윤석재를 부둥켜 안는다.

학신 《석재령감님!》

석재 《저 아들을 누가 죽였소?》

저 멀리에는 성근이가 쓰러져있다.

학신은 윤석재의 시체를 안고 멀리 성근의 시체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학 신 《내가 뿌린 최악의 씨앗이 이렇게도 컸단 말이냐?》

미군폭격기들이 달려들며 시가에 폭탄을 퍼붓는다. 은 시가가 불바다로 된다. 미군놈들이 도망을 치고있다.

최학신이가 성근의 시체를 안고 온다. 얼굴에는 눈물자욱이 어리었다.

폭격에 증답이 넘어지고 종이 떨어져 깨여진다.

택배당이 직란에 맞는다.

그 앞으로 최학신이가 성근의 시체를 안고 지나간다.

그는 마치 폭격도 죽음도 모두 잊은듯 제더미를 헤치며 걸어간다.

멀리 자기 집도 폭격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는 연기 자욱한 속으로 성근의 시체를 안고 집을 향해 걸어온다.

집은 폭격에 무너져 기둥이 꺾어지고 대들보와 지붕이 주저앉았다.

서재에서 튀어나온 책들이 불타고있다.

라오콘의 조각이 깨어져나갔다.

예수의 그림이 나가떨어진다.

최학신과 리차드가 같이 찍은 사진이 불에 타고있다.

최학신은 이 모든것을 밟으며 불길에 싸인 집뜨락안으로 들어선다.

성근의 시체를 놓는다.

시체를 굽어보며 뉘엿은 사람 같이 서있다. 눈물이 죽죽 흘러내리고있다.

성근이가 자기에게 하던말이 생각난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어린 내 머리속에 미군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지 않았어도 이 아들은 지금 이렇게 독사의 손아귀에는 쥐여지지 않았을것입니다.》

또 윤식에게 대들던 말이 생각난다.

《내게는 지금 저 라오콘의 배암이 칭칭 휘감기고있다. 나두 그 걸박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쳐왔다. 그러나〈대한민국〉을 통채루 휘감고있는 그 힘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난단말이나?》

최학신이 가슴을 치며 땅에 머리를 박는다.

북쪽 하늘에서 번개가 수십갈래로 번쩍이고 우뢰가 드르릉하며 천지를 진동한다.

학신은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본다.

인민군대의 포화가 불을 토하며 퇴성벽력과 어울린다.

포의련발사격으로 북쪽하늘은 마치 서광이 비친듯 붉은빛으로 가득찬다.

빨찌산들이 인민군대와 함께 진격해 나오고있다.

지하당책임자를 선두로 박의사, 영수, 성희, 윤식 등의 얼굴이 보인다.

최학신이가 그들에게로 달려간다.

학신 《성희야! 해성!》

학신은 비통하게 웨치며 그들앞에 꿇어엎는다.

## 최학신의 일가

학 신 《자네들이 가는 길이 옳았네.》

학신은 통곡을 한다.

학 신 《성희야! 내가 너의 어머니두, 오빠두, 언니두 다 죽였다.》

불들고 운다. 성희도 같이 눈물 짓는다.

지하당책임자가 학신에게로 온다.

위원장 《일어나십시오.》

학신은 벌떡 일어나 지하당책임자를 붙들며 다시 통곡한다.

학 신 《위원장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가슴을 탕탕친다. 눈물이 비오듯한다.

인민군대의 포화가 더욱 가까와 온다.

학 신 《저 미국의 악마들을! 저 미국의 악마들을!》

학신은 가슴을 해치며 패주하는 미국놈들을 가리킨다.

학 신 《모조리 모조리 소멸해 주십시오! 저 미국의 악마들을 이 땅

우에서 최후의 한놈까지 최후의 한놈까지!...》

우뢰와 번개가 친지를 진동한다.

최학신의 피타는 부르짖음소리가 높아진다.

## △ 어휘 및 표현

○ 특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첩보, 파괴, 암해 공작 등의 반혁명적책동을 하는 적들이 박아놓은 앞잡이.

○ 호기등등하다. 우쭐대는 기세가 매우 대단하다.

○ 혈난. 특집을 잡아서 따지고 들.

○ 최악의 경우. 가장 나쁜 경우.

○ 뇌두리.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길게 늘어놓아 하소연하거나 마음속에 품었던것을 불평스럽게 늘어놓는 말.

○ 리성벽력. 우뢰소리와 비파.

# 백 두 산

발취

## 제 1 장

### 1

고개뒤에 또 고개—  
몇몇이나 있으련교?  
넘어넘어 또 넘어도  
기다린듯 다가만서라!  
한 골짜기 지나면,  
또 다른 골짜기—  
이칼로 백화로 뒤엎켜 앞길막노니  
무도군이 고역에 노그라치듯  
골짜기는 으스스히 휘늘어져있어타!  
울림으로 뻑뻑하여 몇백리  
백설로 아득하여 몇천리—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 서슴어하고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나  
날아날아 떠나고야 마는  
장백의 종종심처 홍산골—  
절벽사이 칼바람에 쌓인 눈우에  
뚜렷이 그려진 이 발자국,  
어디론지 북으로 북으로 가버린  
가없이 외로운 이 발자국  
어느 뉘의 자취인가?  
눈보라에 길 잃었던 포수  
질망에 운명 맡긴 자취인가?

어느 낀지 북으론 워 갔느냐?  
 북에선 백두산이 백발을 휘날리며  
 한설을 안아 뒤뿌러치는데,  
 서리발로 한숨 쉬고있는데!

## 2

눈우에 뚜렷한 이 발자국  
 눈여겨 살피라—  
 그속엔 절망의 흔적 없으리,  
 지난밤 흰두루마기 사람들  
 설피 신고 이곳 꺾여 북으로 갔으니  
 사람은 몇백이나 되어도  
 발자국은 하나만 남겨두고—  
 그런데 오늘은 이 발자국 허물이며  
 수십의 왜놈의 무리  
 허리까지 눈무지에 빠지며  
 《로벌》의 큰 불 밀림에 지르린다.  
 맨 앞엔 군견 두마리 날뛰고  
 그뒤엔 안경이 번뜩이고  
 또 그뒤엔 서리어린 총부리와 총부리—  
 《대체 한사람의 발자국뿐—  
 모두 어디로 갔느냐말이야!》  
 절벽에 안경을 두리번두리번—  
 맨 앞놈의 중얼거림  
 《글쎄요…신출귀몰은…》  
 옆놈의 대답 끝나기도전에  
 《땅》—총소리  
 얼어든 대기를 깨뜨린다.  
 《안경》이 눈에서 다리도 못뻗채  
 경계나 하듯이 꺼꾸러진다.

3

그다음...  
 그담엔 홍산물이 터졌다—  
 통소리, 작탄소리, 기관총소리,  
 놈들의 아우성소리!  
 그담엔 절벽이 무너졌다.  
 다닥치며 뛰치며 부서지더  
 바위돌이 골짜기를 쳐부신다,  
 《만세!》 《만세!》—팔안을 떨치며  
 산비탈에 숨었던 흰두루마기들  
 나는듯이 달려내렸다.  
 여기서도 돌격의《악!》  
 저기서도 《악!》 《악!》  
 실망과 마주치는 날창  
 번개같이 서리찬 하늘을 찢는다.  
 《동무들!  
 한놈도 놓치지 말라!》  
 이것은 작렬되는·육박의 첫 구명소리,

4

산비탈 바위우에  
 청년 한분 버쩍 올라신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흰두루마기자락이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거센 나래같이 퍼덕이는데  
 온몸과 팔과 다리—  
 모두다 약진의 시술에 불발고  
 서리발 칼날의 시선으로  
 싸움터를 단번에 쭉—가르며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부르짖었다  
바른손 싸창을  
바위아래로 번쩍이자  
마지막 발악쓰던 원수 두놈이  
미끄러지듯 허적여 뒤여진다—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재차 부르짖었다,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미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장백을 귀락피락하는,  
태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  
동서에 번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니  
축지범을 쓴다고—  
북천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즐기즐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풀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낳다고  
백두산두메에서 우리러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 5

육박의 불길 멎었을 때  
밀림의 주인공 빨찌산들  
주섬주섬 원수의 무기 거둔다  
몇놈이나 복수의 칼 맞았느냐?  
몇놈이나 빨찌산진법에  
《천황폐하》도 산산 즐달음에 팽개치고  
《무사도》도 갈데로 가라—  
도망치다 었드러졌느냐?

《한놈도 빼우지 않았습시다.》

철호의 보고

《놈들은 이번에도

무장 바치리 왔지!》

김대장의 높은 말소리

그리곤 호탕한 웃음소리—

《하…하…하…》

함박꽃인양 그 웃음소리

덜기덜기 내려져 눈우에 꽃기는듯!

## 6

이날밤에 눈이 내렸다—

하늘도 땅도 바위초령도

훈산골 싸움터도

눈속에 묻히었다.

이칼밭만 칠월의 꽃피는 삼밭이 되고

대부동 고목에도 때아닌 꽃이 피다.

이밤 빨찌산부대

나홀만에 친막에 들다!

내굴냄새 췌 그리도 구수하고

모닥불도 불꽃채로 품속에 꺼안을듯,

이날밤 대장이 든 친막엔

새벽까지 등불이 가물가물…

하더니 아침엔 눈보라 치는데

정치공작원 철호 먼길 떠났다.

전송하는 대장의 말—

《철호 조심하오! 밀소!》

덤석 틀어쥐는 대장의 손길

심장속에 해발을 일으켜라,

해는 눈보라속에 숨어있어도

추위는 박달같이 땅을 얼켜도—

눈보라...눈보라...  
 겨울이 마지막 악을 쓴다.  
 무엇이나 찾는듯 팔짜기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도  
 잣술을 뒤잡아흔들며  
 잉—잉 툭퉁치누나...  
 자작나무 휘여잡고  
 못살겠다 몸부림치다가도  
 노한 짐승같이 질벽에 달려드누나...  
 절벽에 달려들어선  
 처부시고 덩굴고 물어뜯다가는  
 산등에 올라 미친듯 아우성치며  
 하늘도 땅도 휩쓸어가지고  
 동남으로 줄달음치누나!  
 눈보라...눈보라  
 네야 산 넘고 팔 지나 또 지나  
 압록강까지 이르리라!  
 너를 동무삼아  
 철호 저 산 넘어리!  
 압록을 건너 조상의 땅 밟으리!  
 눈보라! 눈보라!  
 듣느냐?  
 너는야 철호를 도와주거라—  
 너도 장백의 눈보라 아니냐!  
 철호는 멀리도 간단다  
 국경선 H시도 그의 길에 놓였고  
 성진 함흥도 가야만 되고.  
 너 장백의 눈보라야!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감추라—

왜놈들을 기질케 하라,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건네우라  
암묵장을 건네우라!

## 제2장

### - 1

안개 내린다—  
산촌에 저녁안개 내린다,  
어둠을 거느주이 이끌고  
길잡이도 없이 한자목 두자욱  
화전판 오솔길을 더듬어  
저녁안개 두메로 내린다.  
안개 내린다—  
흰 양의 떼인양 꿈틀거리며  
사발봉 치렁바위에 쓰다듬다가  
남몰래 슬며시  
술발에 숨어들더니  
그래도 마을에 내리시  
밤이라도 편이나 쉬려는듯  
안개 내린다—  
백두산 안개 내린다!

### 2

《에그! 벌써 저무는데—》  
췌뿌리 캐는 꽃분의 말소리,  
저물어도 캐야만 될 그 췌뿌리  
저녁가마에 맨물이 소품치려니,  
살독에 거미줄 친지도 벌써 그 며칠  
손짚아 헤여서는 무엇하리!  
《에그! 벌써 저무는데!》

그래도 캐야만 될 꽃분의 신세  
 지너도 아침도 툭뿌리로 비재비거니,  
 어둠이 대지를 덮으려 한다.  
 날새도 산앞새에 날아든다  
 마을이 안개에 잠기었다  
 그래도 바구니는 채워야 될 꽃분의 신세—

3

아아 툭뿌리! 툭뿌리!  
 이 나라의 산기슭에서  
 봄이면 봄마다 어김도 없이  
 꽃은 피고 나비는 녀나들어도  
 티질듯이 링링 부은 두다리 끄올며  
 바구니 든 아낙네들이 왜 해했느냐?  
 백성의 한평생 툭녕쿨에 얽히었거니  
 이 나라에 툭뿌리 많은 죄이느냐?  
 음식내에 치위 사람은 쓰러져도  
 크나큰 창고, 넓다란 역장과 항구엔  
 산더미같이 쌀이 쌓여  
 현해탄을 바라고있었으니  
 실어간놈 뉘며 먹은놈 그 뉘냐?  
 아아, 툭뿌리! 툭뿌리!  
 백성은 네재도 목숨 못단 때 많았거니  
 이 나라에 네가 적은 죄이느냐?

4

까마귀 날아지나다—  
 까옥—까옥—  
 꽃분이를 굶어보며—  
 까옥—까옥—  
 《에그! 가야지!》 꽃분이 일어난다.

한손으로 이슬에 적신 치마자락  
 다른 손엔 어둠이 드리누운 바구니  
 안개 헤치며 오솔길을 내려온다,  
 솔밭도 어둑어둑  
 맘속도 무시무시.  
 이때 그림자인듯 언뜻—  
 솔밭에서 사나이 나온다  
 《에그! 웬 사람인가?》  
 어느덧 꺼덩게 길 막는다.  
 드깨비듯 꺼덩게 길 막는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5

《아가씨 김윤칠이라 아시는지?》  
 가슴속엔 돌멩이 떨어진듯  
 그래도 처녀의 시선은 빨랐으니  
 태벌에 타고란 사나이의 낮  
 처녀의 마음 꿰뚫는 그 시선—  
 《김윤칠? 저의 아버지인데...》  
 의문에 질린 처녀의 기색  
 《아, 그럼 당신은 꽃분이?》  
 처녀의 빛나는 두눈동자  
 《아, 이것도 천운이라 할가...》  
 사나이 부르짖으며  
 휘익 솔밭으로 돌아서더니  
 난데없는 뻘쭙소리 높았다—  
 뻘쭙—뻘쭙—  
 잠잠하던 솔밭도 기쁘게 화답한다—  
 뻘쭙—뻘쭙—  
 또 솔밭속에서 나오는 두 사나이.

## 6

소나무 뒤에 숨어앉은 네사람—  
 한사람은 철호였으나—  
 눈보라속에 먼먼 길 떠나더니  
 어느때 어느곳에 갔다가  
 무슨 일 하다가  
 양지쪽 잔디 언덕마냥  
 파—란 꿈속에 포근하고  
 진달래아지에 봄 맺히는 이때  
 웬 짐작 났어지고  
 활개팔에 왔는고?  
 산이던 몇이나 넘었고  
 밤길은 얼마나 걸었던고?  
 두어라, 물어선 무엇하리,  
 안물은들 모르랴!  
 다른 사람은 중로인—  
 이 밤으로 약재 걸메고  
 흥산으로 갈 함흥 르동자—  
 흥산속엔 이룰없는 새 마을 있다네.  
 그 마을엔 병원도 있는데  
 병자도 의사도  
 《동무》라 서로 부른다네.  
 또 다른 사람은 철호의 련락원—  
 이 밤으로 H시로 가야 될  
 어느때나 웃음 잘 웃고 노래 잘하는  
 어느때나 《아리랑고개》 넘는다는  
 영남이란 열여섯의 소년.

## 7

《나는 박철호라 부르우,  
 얼마나 피로우시우?》

길 막던 사나이의 첫말,  
 출발은 어둡해져도  
 꽃분의 땀엔 붉은 노을—  
 《아이고! 철호동무!》  
 가늘게 속삭일뿐.  
 처녀는 면목도 모르며  
 한해나 그의 지도 받았나—  
 배라도 찍어보내고  
 피복도 홍산으로 보내고.  
 중년은 되리라 한 그—  
 그는 새과란 청년,  
 강직하고도 인자스런 모습  
 호협한 정열에 꿰는 눈—  
 (스물댓이나 되었을가?)  
 머리속이는 처녀의 생각.  
 떠날 동무들께 마지막 부탁하고  
 출개풀에 머문다면서  
 《꽃분동무,  
 등사기 멀리 있수?》  
 철호의 묻는 말  
 《예, 녀터 마읍소!》  
 꽃분의 대답.  
 생터 들담불에 감춘 등사기  
 어두어지면 가져오리라—  
 꽃분이 생각한다.  
 《자, 그러면 동무들!》  
 철호 일어서며 말한다.  
 마을은 잠든듯  
 젓빛 숨을 막 쓰고  
 오로지 순사주재소 늪다란 대문간만  
 우뚝이 상 켜프리고  
 마을을 훑어보는듯,



어둠은 산존을 누르며 막 들어서는데  
 화진골 술발속엔  
 네사람의 말없는 리별,  
 《자, 그러면...》  
 마음들이 영성키는 그 악수  
 그리곤 심장의 벽을 툭 울리는  
 리별의 첫 발자취소리!  
 전우들의 악수—  
 그것은 싸움의 맹세였다,  
 승리의 신념이었다.  
 우리의 동무들이  
 그렇게 악수하고  
 탄우속으로 뛰어들었고  
 사지에 선뜻 들어섰다.  
 그렇게 악수하고  
 감옥에 뒤물려갔고  
 교수대에 태연히 올라섰다.  
 아아, 어린애의 웃음같이도 깨끗하고  
 어머니의 사랑같이 꾸준하고  
 의의 선혈같이 빨간  
 적도의 태양같이 열렬한  
 충직한 전우의 그 악수!...  
 .....

## 제6장

##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칠백리 압록강 푸른 물에  
 저녁해 비졌는데  
 황혼을 담아실고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  
 뉘의 눈물겨운 이야기  
 떼목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  
 뉘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물피라 불며 울며 구을러갈재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몸  
 재 넘어 구름 따라 끝없이 간다.  
 여행 에헤요 끝없이 가요>  
 왜 저 노래 지다지 슬프단 말가,  
 이 땅의 청청 밀림 짝어내리거니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랴!  
 이 나라의 집집은  
 대들보 터지고 기둥이 썩어져도  
 그 미끈한 만년대목으로는  
 늑들이 춤추고 노래부를 집을 세우고  
 늑들이 향락의 향연 베풀거니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리!

## 2

황혼도 깊어지고  
 물결도 차지고  
 서늘한 밤바람  
 강가에 감돌아들무렵  
 강 건너 바위밑에서 휘—익—  
 휘파람소리 나더니  
 떼목에서도 모닥불이 번뜩번뜩  
 내려가던 떼목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머리는 지편 강가에  
 꼬리는 이편 강가에—  
 삼시간에 이루어진 떼목다리,

초막에서 나온 두사람  
 나는듯 이편으로 달아온다  
 한사람은 때목군  
 다른 사람은 철호,  
 그담 강 저편 바위밑에서  
 군인들이 달아나온다  
 달아나와선 때목으로  
 압록강을 건너온다—  
 빨찌산부대 압록강을 건너온다.  
 산밑에 그들이 숨었을 때  
 그 때목다리도 간데 없고  
 출렁—처질씩—  
 찬 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  
 멀리선—  
 <띄우리라 띄우리라  
 배틀 무어 띄우리라  
 때틀 무어 띄우리라!>

3

빨찌산들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왜적이 짓밟은 이 땅에  
 살아서 살곳 없고  
 죽어서 누울곳 없고  
 모두다 잃고 빼앗겼으니  
 물어보자 동포여!  
 가슴꺼지는 한숨으로  
 이 강 건너 이방의 기친 땅에  
 거지의 서러운 칫길을 옮기던 그날—  
 그날부터 몇몇해 지났느냐?  
 강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  
 이 강 넘은 백성의 한숨이나 아닌가

물줄기는 솟아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이 강 너은 백성의 눈물이나 아닌가  
오오—압록강! 압록강!  
허나 오늘밤엔 그대 날뛰라  
격랑을 일으켜  
광—광—강산을 울리라.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태방전의 불길 뿌리며  
그대를 넘어왔다—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이 나라의 철사들이  
조국땅에 넘어섰다.  
압록강! 압록강!  
격랑을 치어들고  
광—광—강산을 울리라!  
거창한 가슴을 한껏 들먹이며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  
... ..

5

밤 열한시...

거리엔 인적이 끊치고  
진등만 누렇게 흐르고—  
주재소 교번순사놈도  
끼덕끼덕 조을고있을 때  
어디선가 남녀 두사람  
주재소 문간에 나타났다—  
녀인은 사나이를 끌고  
사나이는 녀인에게 풀리우고.  
《이녀석 들어가자!》

너인의 짜증내는 소리  
 <하...어...저...타...고...>  
 사나이의 혀까부라진 소리  
 <웬일이야!> 순사놈 팔낸다  
 물어선 남녀를 흘기며,  
 <나리님 저놈이 술값을...>  
 <허...내 우스워서...>  
 허허허...나리님도 우습지?>  
 <이놈 어딘줄 알고 웃어?  
 내앞에서 감히 웃어?>  
 순사 단걸음에 다가서며  
 주먹을 쳐들자  
 그놈의 가슴에 총부리 대인다.  
 소리도 못치고 두눈 뒤집고  
 순사-방구석에 까무러질제  
 녀인은(그는 술개판 꽃분이)  
 진신줄을 끊고  
 사나이는(그는 정치공작원 철호)  
 문 열고 손짓한다.  
 문 열고 손짓하자—  
 바로 곁에서 신호의 총성  
 잠든 시가물 깨뜨린다  
 그담 련이어 나는 총소리 총소리...  
 우편국에서도 총소리,  
 은행에서도 영림창에서도  
 어지러운 침선을 그으는  
 따—따—따—따—기관총소리  
 팡—쿵 폭발치는 소리!

죽고 도망치고—  
 류치장 지붕에선 1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이곳저곳 관사에서  
 왜놈들 집에서도  
 반역자들 집에서도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육뿔어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침에는 몇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놀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나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나  
 환웃 입은 무리 쏟아나온다—  
 머리벗은 로인도 발벗은 녀인도  
 벌거숭이 애들도  
 질망이 잣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뭇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젓 어울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휘치는  
 전세의 영웅 김일성장군!  
 《동포들이여!  
 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소리 집도 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코올라  
 이 나라의 킁킁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울린다!

7

휘황한 불빛이 온 거리에 차흐르는데  
 떨어지는 불꽃을 밟으며  
 혁명가 드높이 부르며  
 빨찌산부대 기리를 떠난다.  
 그들을 전승하는 이 고장 사람들—  
 기막힌 이 거리에  
 한줄기 생의 빛 가져왔으니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어느때나 승리하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면  
 또 검은 거리, 눈물의 거리,  
 그리기에 울음으로 전승하누나—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언제나 다시 만나리!》  
 뺨에서 흐르는 눈물  
 불빛에 피방울인듯.  
 하지만 빨찌산들의 부르짖음—  
 《잘 있으라 동포여,  
 싸우라 동포여!  
 우리 다시 만나자  
 해방연에 독립연에 다시 만나자!》  
 휘황한 불빛에 쩌워  
 빨찌산들이 어둠을 직차며 뚫으며

처역 처역 앞으로 나간다.

싸움의 길로—

처역—

처역—

처역—

부  
록  
A

△ 어휘 및 표현

- 울림. 나무가 뻗뻗하게 우거진 숲.
- 종종심처. 깊적이 쌓인 깊은곳.
- 칼바람. 몹시 맹잔 바람.
- 직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  
기에 항일유기체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병기창에서 만들어낸 손으로 딛지어 터뜨리는 폭탄.
- 천운. 몹시 다행한 운수.
- 호협하다. 석색한 기상과 의로운 마음이 있다.
- 이방. 다른 나라.



●서정시●

## 날이 밝는다

백두산 아름드리 원시림을 찍어서  
벽이며 지붕이며 쌓아올린 귀틀집,  
등잔불 깜박이는 나직한 방에서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밤은 무척 깊었으리...  
울부짖던 눈보라도 뜸해지고  
승냥이 울음소리도 잠잠해지고  
태고연한 침묵만이 밀림속에 흐르는데.

밤은 무척 깊었으리...  
난로우에 끓던 더운 물도 찾아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그이의 모습 비끼인  
창가에는 히영게 성애가 불리는데,  
깊디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깨어나신  
장군님의 손은 조용히 움직이신다.  
연필을 달리시여 물길을 일으키는  
채상우의 한장의 지도여,

얼음을 깨물며 가야 할 령군  
침침히 다가서는 준령도 많아라  
그러나 기어이 그것들을 넘어서야  
조국으로 개선할 승리의 길,

간고한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구상을 하신다.  
오, 이 밤 채찍에 쓰러지는  
동포들의 신음소리 귀전에 들으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지그시 연필에 힘을 주시여

원썩들의 진지에 화살표를 집중하신다,  
—가자, 어서 대오를 이끌고  
가자, 튼튼히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깊어간 백두의 밤이  
몇밤이나 되던가, 몇천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친 외투것을 추켜올리시며  
장군님께서 밀영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달이 밝는다,  
백두산 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1959. 2

### △ 어휘 및 표현

- 아름드리나무. 한 아름이 넘는 큰 나무.
- 귀틀집. 통나무뿔을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서 종종이 쌓아 만든 벽을 의지하여 지은 집.
- 태고연하다. (모습이)아득히 먼 옛날과 같다.
- 첩첩하다. 이리겹으로 겹쳐있다.
- 준령. 험한 령.
- 뜨들하다. (젓거나 심하던 것이) 한동안 머뭇해지다.

Zbiór Dalekiego Wschodu  
Instytut Orientalistyczny UW

\*조선문화어감독\*

---

편찬 김송준, 민귀송, 김원준

본 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찍은곳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1979년 9월 29일 찍음    1979년 10월 3일 뱀

---

교-79-10370

값 1원 20전

1,000부





